

2008년판

한·중 역사 관련 연구편람집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  
NORTHEAST ASIAN

역사문화재단  
HISTORICAL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우리 재단은 동북아시아 역사에 관한 중국의 인식과 그 동향을 파악하는 동시에 우리 학계에서 진행된 다양한 학술적 대응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매년 한·중 역사 관련 연구편람집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번 『2008년판 한·중 역사 관련 연구편람집』은 2007년판에 이어 간행되는 두 번째 편입니다.

한·중 양국은 유사 이래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양국 사이의 밀접한 관계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근년 한·중 양국 사이의 역사 문제를 둘러싼 충돌과 거기에서 파생한 여러 가지 갈등은 양국이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지속하여 나가는 데 때로는 장애가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재단은 이 문제를 역사적 사실에 입각하여 분명하고 슬기롭게 해결하고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연구편람집 역시 그 일환으로 제작된 것입니다.

2003년 중국이 이른바 ‘동북공정’이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역사 연구 사업에 착수한 이래 벌써 6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2008년 한 해에는 이와 관련한 중국 측의 새로운 연구 발표가 눈에 띄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북공정’을 통해 촉발된 한·중 양국 사이의 역사 갈등이 현실 문제를 둘러싼 문제로 확대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지난 해 중국에 번졌던 이른바 ‘협한’ 정서는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은 현상이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소재가 분명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재단이 매해 발간하는 이 연구편람집이 중국에서의 한국에 대한 역사 연구가 어떤 문제에 집중되어 있고 또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를 살펴 문제의 초점을 분명히 하고, 한편으로는 이에 관련된 우리 학계의 연구 성과를 되돌아봄으로써 우리의 현재 위치와 미래의 지향점을 탐구하는 데 나름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책의 편집과 출간을 위해 노력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09년 3월 10일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김응덕

#### | 일러두기 |

1. 이 편람집은 2008년 발간된 『2007년판 한·중 역사 관련 연구편람집』의 속편으로 제작된 것이다.
2. 『2007년판 한·중 역사 관련 연구편람집』에 수록된 내용의 뒤를 이어 2008년 10월까지 전개된 한·중의 역사문제와 관련 있는 학술 활동 내용과 유관 저술을 정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지만, 일부는 이 시간적 범위를 벗어나는 것도 있다.
3. 학술 관련 자료는 기본적으로 목차를 제시하여 관련 연구의 흐름을 알아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東疆學刊』, 『中國邊疆史地研究』와 『東北史地』 등에 수록된 연구 논문 가운데 일부는 선별 작업을 거쳐 내용을 요약해 두었다.
4. 2007년판에 수록하였던 ‘중국의 고구려사 관련 연구자 일람’과 ‘한·중 역사문제 관련 중국측 연구기관’은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제외하였다.
5. 본서의 원고 작성에 구룡회, 류준형, 박시현, 백영미 등이 참여하였으며, 편집은 김정열, 이효진이 담당하였다.

# 1 한·중 역사문제의 경과

한·중 역사문제 관련 주요 일지 | 11

# 2 중국의 한·중 역사 관련 연구성과물

## 1) 주요 단행본

- 『高句麗王陵通考』(張福有·孫仁杰 著, 香港亞洲出版社, 2007년) | 19
- 『唐代渤海國五京研究』(楊雨舒·蔣戎 著, 香港亞洲出版社, 2008년) | 23
- 『吉林通史(第一卷)』(趙鳴岐·楊雨舒 著, 吉林人民出版社, 2008년) | 25
- 『吉林通史(第二卷)』(黃松筠·欒凡 著, 吉林人民出版社, 2008년) | 29
- 『吉林通史(第三卷)』(孫乃民 主編, 吉林人民出版社, 2008년) | 32
- 『簡明高句麗史』(孫玉良·孫文範 主編, 吉林人民出版社, 2008년) | 36
- 『中國古代藩屬制度研究』(黃松筠 著, 吉林人民出版社, 2008년) | 39
- 『中朝曆代朝貢制度研究』(付百臣 主編, 吉林人民出版社, 2008년) | 42
- 『明代東北疆域研究』(楊陽 主編, 吉林人民出版社, 2008년) | 45
- 『中國古代治理東北邊疆思想研究』(劉信君 主編, 吉林人民出版社, 2008년) | 48

## 2) 주요 연구논문

- 『東疆學刊』(08년 1기~2기) | 50
- 『東北史地』(07년 5기~08년 4기) | 50
- 『博物館研究』(07년 3기~08년 2기) | 52
- 『北方文物』(07년 4기~08년 3기) | 52
- 『史學集刊』(07년 6기~08년 4기) | 53
- 『社會科學戰線』(08년 1기~08년 8기) | 53
- 『中國邊疆史地研究』(08년 1기~08년 2기) | 54

### 3) 주요 논문의 요약

『동강학간』 (2006~2008년) | 55

『동북사지』 (2007~2008년) | 103

『중국변강사지연구』 (2007~2008년) | 167

## 3 한·중 역사 관련 국내외 학술활동 - 학술행사 및 관련 보도

### ○ 학술회의 | 201

◎ 학술회의 일람표 | 201

◎ 월별 학술회의 내용 | 203

### ○ 연구 및 출간 | 228

◎ 도서 | 228

◎ 논문 | 231

● 일반 논문 | 231

● 학위 논문 | 240

### ○ 언론 및 여론의 활동 | 240

◎ 신문/잡지 | 240

● 신문 | 240

● 잡지 | 252

◎ 방송 | 254

1 한·중 역사문제의 경과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 한·중 역사문제 관련 주요 일지 |

### | 2001년 |

2001.06.04~06. 중국 長春에서 ‘東北邊疆歷史와 現狀研究 공작’ 좌담회 개최. 왕뤄린(王洛林, 당 중앙위원, 중국 사회과학원 부원장) 및 관계자 100여 명 참석

### | 2002년 |

2002.01~02. 동북공정 영도소조와 전문가위원회 구성. 제1차 전문가위원회 개최(베이징)

2002.04.09. 중국 長春에서 ‘高句麗歷史研究’ 학술좌담회 개최. 마다정(馬大正), 리다룽(李大龍) 등 전문가 20명 참석

2002.04. 2차 전문가위원회 개최(베이징)

2002.07.09~13. 중국 長春과 通化에서 中國社會科學院 邊疆史地研究中心과 吉林省 社會科學院의 공동 주관으로 ‘제2기 東北疆域의 歷史와 現狀 및 高句麗 학술토론회’ 개최. 100여 명의 전문가 참석

### | 2003년 |

2003.06.23. 중국 光明日報에 『고구려역사 연구의 몇 가지 문제』라는 시론이 게재

2003.08.05~09. 중국 黑龍江省 黑河에서 3차 전문가위원회 개최

2003.08.23~24. 중국 延吉에서 ‘高句麗·渤海 문제 학술토론회’ 개최. 中國社會科學院 소속학자 등 관련 전문가 25명 참석

2003.09.19. 중국 사회과학원 산하의 연구기관이 ‘동북공정’으로 불리는 5개년 계획의 고구려 연구 프로젝트에 착수했다고 보도(일본 每日新聞)

2003.10.09~13. 중국 集安에서 中國社會科學院 邊疆史地研究中心과 吉林省 社會科學院의 공동 주최로, ‘고구려 국내성 천도 2000주년 및 3차 전국고구려학술토론회’ 개최

2003.11. 한국 언론·학계, 중국의 동북공정 문제의 심각성 인식

2003.12.09.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대책위원회’ 구성. 한국 역사학계 17개 학회 ‘올바른 한·중 관계 정립을 위한 한국사 관련 학회 공동성명’ 발표

2003.12.13. 정부, 고구려사연구센터 건립, 지원 결정

### | 2004년 |

2004.02.04. 고구려사연구재단 추진위 발족(위원장 김정배)

2004.03.01. 고구려연구재단 출범

2004.03.29. 한·중 외교장관회담, 반기문 장관 방중. 역사왜곡 우려 표명

2004.06.10. 고구려연구재단 현판식 및 개소식

- 2004.07.01. 북한과 중국의 고구려유적, 세계문화유산 공동 등재
- 2004.07.05. 중국 언론 '고구려는 중국의 지방 정권' 보도,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한국의 역사 소개 코너에서 고구려 부분을 삭제
- 2004.07.09. 정부, 중국에 외교부 장관 명의로 고구려사에 관한 입장 표명 요구,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한국의 역사 소개 코너에서 고구려 부분을 삭제한 것에 항의
- 2004.08.09~10. 중국 延吉에서 중국 사회과학원 변강사지연구중심과 延邊大 공동주최로, '고구려역사문제' 학술 연구토론회 개최. 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 주임 리성(厲聲) 등 전문가 30여 명 참석
- 2004.08.24. 한·중 외교차관 면담, 고구려사문제 관련 '구두양해사항'에 합의(1. 중국 정부 차원의 고구려사 관련 왜곡 중지 및 시정 추진, 2. 양국 학계간 공동학술회의 조기 개최 추진 등)
- 2004.10.07. 노무현 대통령-원자바오(溫家寶) 총리 회담, 구두양해사항의 성의 있는 이행 촉구
- 2004.12.21~23. 고구려연구재단과 중국사회과학원 공동주최, '고구려문화의 역사적 가치' 한중학술회의 개최(베 이징)

※ 東北工程

사업명칭: 東北邊疆歷史與現狀系列研究工程

추진기관: 中國社會科學院 산하 邊疆史地研究中心

사업기간: 2002년 2월 28~2007년 2월까지

사업과제: 중국 동북 3성 지역(吉林省, 遼寧省, 黑龍江省)에서 일어난 과거 역사와 그로 인해 파생되어 나온 현대사와 미래 문제가 주요 연구대상. 110개 과제 선정

총사업비: 1,500만 위안(약 23억원)

| 2005년 |

- 2005.02.04. '동북공정' 전문가위원회 상무위원회 회의 개최
- 2005.03.07. 고구려역사재단, '북한에 있는 고구려 고분벽화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 추진 등 남북공동역사 연구 및 역사왜곡 대응 합의
- 2005.04.05~07. 미국 Harvard大에서 '고구려의 역사와 고고' 국제학술회의 개최
- 2005.04.20. 국회, 제1차 중국의 고구려사왜곡대책 특별위원회 회의
- 2005.06.12~16. 중국사회과학원 변강사지연구중심 주임 리성·리궈창(李國強) 등 방한, 고구려연구재단과 한중학술회의 실무회의
- 2005.06.20. 국회, 제2차 중국의 고구려사왜곡대책 특별위원회 회의
- 2005.07.19~30. 고구려연구재단, 북한 사회과학원·유물보존지도국 등과 함께 평양 일대의 고구려 유적에 대한 첫 공동 조사 실시
- 2005.08.04~05. 중국 延吉에서 중국사회과학원 東北工程辦公室과 延邊大 中朝韓日關係史研究中心 공동주최로

- ‘고구려역사와 문화’ 학술토론회 개최. 50여 명의 전문가 참석
- 2005.08.16. 중국 吉林省, 백두산 보호개발관리위원회 발족(일명 장백산[백두산]공정)
- 2005.09.08. 국회 제3차 중국의 고구려사왜곡대책 특별위원회 회의(중국의 고구려사 왜곡현황과 대책에 관한 공청회)
- 2005.10.19. 국회 제4차 중국의 고구려사왜곡대책 특별위원회 회의(‘동북아역사재단’ 설립 등)
- 2005.10.11~12. 고구려연구재단과 중국사회과학원 공동주최, ‘고구려문화의 역사적 의의’ 한중학술회의 개최(수원)
- 2005.11. 한·중 정상회담, APEC 계기 후진타오(胡錦濤) 주석 국빈방문
- 2005.12.08. 국회 제5차 중국의 고구려사왜곡대책 특별위원회 회의(아차산유적 보존, 동구릉 세계문화유산 추진)

| 2006년 |

- 2006.04.13. 대만 정부 僑務委員會 산하 全球華文網絡教育中心이 ‘한국이 중국의 식민지였다’는 내용을 게시하여 파문 [국민일보]
- 2006.05.10. 북·중 접경의 중국 吉林省 白山市 雲峰댐 수몰지역에서 고구려시기 고분 2,000여 기와 성터 발견 [연합뉴스 등]
- 2006.05.28. 중국, 일본에 ‘渤海石碑’ 반환 요구 [일본 朝日新聞]
- 2006.06.21. 방송3사 ‘고구려 사극(주몽, 연개소문, 대조영)’ 외교문제 비화 조짐. ‘上海國際放送映像見本市場 2006’(STVF 2006) 참가 중국측 방송 관계자, 관련 드라마 제작에 한국정부의 개입 의혹을 제기 [연합뉴스 등]
- 2006.06. ‘唐朝 渤海國 上京龍泉府 유적 보호조례’, 중국 黑龍江省 常務委員會의 심의 통과
- 2006.07. 중국, 백두산·발해유적에 대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과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추진 [한국일보 등]
- 2006.08. 고구려연구재단 해산
- 2006.09.05. 중국, 동북공정 관련 서적 18권 발간
- 2006.09.10~11. 중국 延吉에서 ‘고구려문제’ 학술연구 토론회 개최
- 2006.09.10. 한·중 정상회담. 노무현 대통령의 ‘동북공정’ 유감 표명. 원자바오 총리는 재발방지 약속, 2004년 동북공정관련 구두양해 존중 표명(ASEM회의)
- 2006.09.12. 동북공정 저지 30여개 단체 연합, 범국민연대 결성. 각종 민간단체와 시의회 등에서 연이어 저지 운동 및 결의 발표
- 2006.09.15. 닝푸쿠이(寧賦魁) 주한 중국대사, “동북공정 中정부 견해 대표하지 않는다”고 말함
- 2006.09.28. 동북아역사재단 헌판식, 공식 출범(이사장 김용덕)
- 2006.10.13. 한·중 정상회담. 노무현 대통령 방중(원자바오 총리, 2004년의 구두양해 사항 존중 입장 표명/

- 후진타오 주석, 2004년 구두양해 사항 이행 약속/ 우방귀(吳邦國) 전인대 상무회원장 접견
- 2006.11.16. 닝푸쿠이 주한 중국대사, “장백산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관련국과의 협의 하에 추진하겠다”고 밝힘
- 2006.11.27. 중국사회과학원 소속 대학원생, 이어도가 중국령이라며 한국이 설치한 해양과학기지를 철거할 것을 촉구. 주권 보호를 위한 민간단체 결성을 추진 [newsis]

| 2007년 |

- 2007.01.31~02.02. 長春 동계 아시안게임 시상식에서 한국 쇼트트랙 여자선수들이 ‘백두산은 우리 땅’이 적힌 종이를 퍼들어 중국측의 항의를 불러옴. 중국 외교부의 공식 항의에 대해 한국선수단은 유감을 표명, 한국 정부는 중국측의 차분한 대응을 주문
- 2007.03.24. 중국사회과학원 변강사지연구중심, 延邊大에 東北邊疆地區國情調研基地 설립
- 2007.04.05~06. 동북아역사재단 김용덕 이사장 방중, 천자구이(陳佳貴) 중국사회과학원 부원장 등과 한중 역사 문제에 대해 논의
- 2007.04.10~11. 노무현 대통령-원자바오 총리 회담. 국회를 방문한 원자바오 총리, ‘영토, 역사 문제는 정치와 학술, 현실과 학문을 분리해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
- 2007.06.05. 중국 『東北史地』(2007-3)에 ‘高麗 太祖 王建은 한반도 토착 新羅人의 자손이 아니라 漢族의 후예였다’고 주장하는 논문이 발표
- 2007.06.03. 중국 7월 중 동북공정 연구성과를 총결산하는 회의를 갖기로, 최종 보고서는 공개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 [연합뉴스]
- 2007.07.20~21. 일본 큐슈(九州)대 한국연구센터와 미국한국평의회(IKCS)가 공동으로 주최한 ‘동북아 변강역사 연구’ 국제회의가 후쿠오카에서 개최. 중국사회과학원 변강사지연구중심 주임 리성, 순진지(孫進己) 등이 참석
- 2007.09.10. 중국 『東北史地』(2007-4)에 ‘고구려 28대 국왕의 왕릉 모두가 集安에 있다’고 주장하는 논문이 발표
- 2007.10.19. 중국 吉林省 성급 연구기지 설립안 통과. ‘십일오(十一五)’(2006~2010년) 계획기간 중 通化師範大學의 고구려문화연구기지와 延邊大의 발해문화연구기지가 해당 분야의 중점연구기지로 확정 [연합뉴스]
- 2007.11.07. 중국의 신화연구자, 단군신화가 黃帝 집단의 곰 토템에서 기원했다는 주장을 제기 [연합뉴스]
- 2007.11.18. 중국 길림성 소재 발해 상경성 유적의 발굴과 기초 복원작업이 종료 [KBS 1TV]
- 2007.11.23~24.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중국인민외교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12차 한·중미래포럼’이 제주에서 개최. ‘한반도 평화구축과 한중협력’·‘한중 FTA’·‘한중 상호인식의 제고’ 등의 3가지 주제를 토의
- 2007.12.10. 한·중 총리회담 한덕수 장관 방중, 원자바오 총리와 회담. 역사문제가 양국관계 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학술 차원의 교류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이를 위해 동북아역사재단과 중국사회과학원간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기로 함
- 2007.12.17~18. 동북아역사재단 제2연구실과 중국사회과학원 변강사지연구중심 공동 주최. ‘고구려 초기 역사

연구' 한·중 고구려역사 학술회의 개최(베이징)  
 2007.12. 중국, 동북공정 연구 결과 『高句麗王陵通考』를 홍콩 香港亞洲出版社에서 출간

| 2008년 |

2008.01.17.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자료센터 개소  
 2008.02.12. 한국 홍보가 서경덕, 뉴욕타임스에 '고구려는 한국 역사' 광고[중앙일보]  
 2008.02.26. 북한 학계, 중국의 동북공정을 강력하게 비판[중앙일보]  
 2008.03.14.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고대학회와 공동으로 '동북공정 전후 중국의 한국 고대사 인식'을 주제로 서울역사박물관에서 학술회의 개최  
 2008.04.15. 중국, 베이징-백두산간 직통 기차노선 신설 추진[아시아투데이]  
 2008.04.23. 동북아역사재단 동아시아사 교과 교원연수기관으로 지정  
 2008.04.29~30. 중국 유학생 베이징올림픽 성화 호송을 이유로 서울 한복판서 소동을 일으키고 중국 관영매체는 이를 옹호. 한국 국민의 反中감정 야기  
 2008.06.14. 동북아역사재단,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및 성균관대 동아시아사연구소와 공동으로 성균관대학교에서 '동아시아사교육'을 주제로 한 국제학술대회 개최  
 2008.07. 중국, 동북공정 연구 결과 『唐代渤海國五京研究』를 홍콩 香港亞洲出版社에서 출간  
 2008.07.2~03. 동북아역사재단,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발해와 동아시아 국제학술대회' 개최  
 2008.08. 중국인의 '험한' 정서 현재화, 한중우호관계의 새로운 걸림돌로 등장[동아일보]  
 2008.08.08. 중국, 이어도의 영유권 주장, 외교분쟁화 우려[중앙일보]  
 2008.08.11~13 캐나다 UBC에서 국제고려학회 주최로 '동북공정과 고구려에 대한 학술워크숍' 개최  
 2008.09. 동북공정 연구 결과 『簡明高句麗史』, 『吉林通史』(3책), 『明代東北疆域研究』, 『中國歷代朝貢制度研究』, 『中國古代藩屬制度研究』, 『中國古代治理東北邊疆思想研究』 등 6종 8책을 長春 吉林人民出版社에서 출간  
 2008.09.04~05. 동북아역사재단, 北京大學와 공동으로 '동북아관계사의 성격'을 주제로 한 학술회의 개최  
 2008.09.25~26. 동북아역사재단, '근대 변경의 형성과 변경민의 삶'을 주제로 한 국제학술회의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  
 2008.11.11~13 동북아역사재단 제2연구실과 중국사회과학원 변경사지연구중심 공동 주최, '일본시기 고구려역사 연구' 한·중 고구려역사 학술회의 개최(제주)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 중국의 한·중 역사 관련 연구성과물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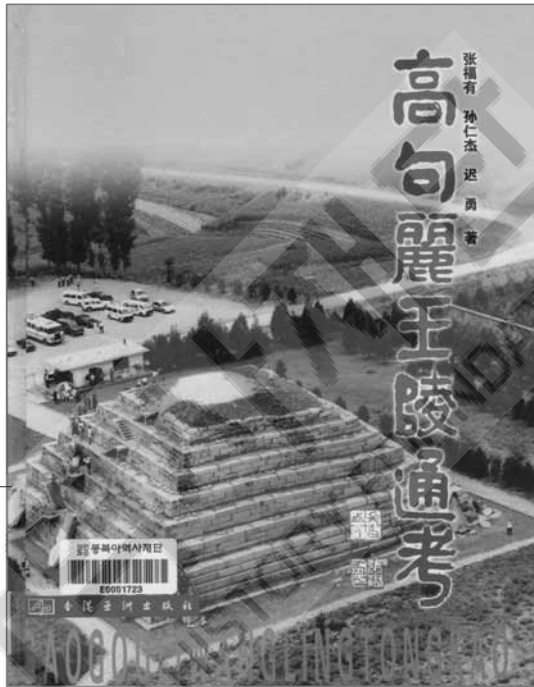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1) 주요 단행본

## 高句麗王陵通考

張福有·孫仁杰 著，香港亞洲出版社，2007年



目 錄	목 차
序..... (1)	시..... (1)
專家評鑒..... (1)	전문가평가..... (1)
前言..... (1)	머리말..... (1)
圖表..... (1)	도표..... (1)
第一章 緒論..... (1)	제1장 서론..... (1)
第一節 高句麗王陵的文獻記載..... (1)	제1절 고구려 왕릉의 문헌기록..... (1)
第二節 高句麗王陵的研究狀況..... (1)	제2절 고구려 왕릉의 연구상황..... (1)
第三節 系統考鑒高句麗王陵的客觀條件..... (2)	제3절 고구려 왕릉을 考鑒하기 위한 객관적 조건..... (2)
第四節 高句麗王陵的研究對象..... (2)	제4절 고구려 왕릉의 연구대상..... (2)
第五節 本次高句麗王陵的研究目標..... (2)	제5절 이번 고구려 왕릉의 연구목표..... (2)
第二章 高句麗王陵的地名解讀..... (4)	제2장 고구려 왕릉의 지명 해독..... (4)
第一節 地名解讀的依據..... (4)	제1절 지명 해독의 근거..... (4)
(一) 準確地理解文獻記載..... (4)	(1) 精確한 문헌기록 이해..... (4)
(二) 科學地判定地理方位..... (4)	(2) 과학적 방위 판정..... (4)
(三) 詳盡地了解地貌特征..... (5)	(3) 상세한 지형 특징 이해..... (5)
(四) 具體地掌握地名沿革..... (5)	(4) 구체적인 지명 연혁 파악..... (5)
第二節 高句麗時期忽本和國內地區的川、谷、原、岡、壤..... (5)	제2절 고구려시대 忽本과 國內 지역의 川, 谷, 原, 岡, 壤..... (5)
(一) “忽本”與“卒本川”..... (5)	(1) ‘忽本’과 ‘卒本川’..... (5)
(二) “故國”即國內城，包括丸都山城..... (6)	(2) ‘故國’ 즉 國內城은 丸都山城을 포함..... (6)
(三) “故國”之“谷”“川”“原”“岡”“壤”..... (9)	(3) ‘故國’의 ‘谷’‘川’‘原’‘岡’‘壤’..... (9)
第三節 “豆谷”即“通溝”..... (10)	제3절 ‘豆谷’은 ‘通溝’..... (10)

<p>第四節 高句麗京畿地區地名總體解讀…………… (11)</p> <p>第三章 高句麗王陵的實地調查…………… (13)</p> <p>第一節 地貌特征調查…………… (14)</p> <p>第二節 補充王陵調查…………… (15)</p> <p>第三節 相關遺跡調查…………… (15)</p> <p>第四節 王陵遺物調查…………… (16)</p> <p>第四章 高句麗王陵的考古編年…………… (17)</p> <p>第一節 高句麗王陵的分布特徵…………… (17)</p> <p>底二節 高句麗王陵的形制與結構…………… (18)</p> <p>(一) 遼寧桓仁“望江樓”4號墓…………… (18)</p> <p>(二) 集安禹山0000號墓…………… (19)</p> <p>(三) 集安麻線0626號墓…………… (19)</p> <p>(四) 集安麻線石廟子石窟…………… (21)</p> <p>(五) 集安麻線2381號墓…………… (21)</p> <p>(六) 集安七星山0871號墓…………… (22)</p> <p>(七) 集安麻線2378號墓…………… (24)</p> <p>(八) 集安山城下磚廠36號墓…………… (25)</p> <p>(九) 集安禹山2110號墓…………… (26)</p> <p>(十) 集安禹山0043號墓(臨江墓)…………… (27)</p> <p>(十一) 集安蒿子溝墓地1號墓…………… (28)</p> <p>(十二) 集安山城下磚廠0001號墓…………… (30)</p> <p>(十三) 集安七星山0211號墓…………… (32)</p> <p>(十四) 集安麻線2100號墓…………… (34)</p>	<p>제4절 고구려 경기지역 지명의 총체적 해독…………… (11)</p> <p>제3장 고구려 왕릉 현지 조사…………… (13)</p> <p>제1절 지형 특징 조사…………… (14)</p> <p>제2절 보충 조사…………… (15)</p> <p>제3절 상관 유적 조사…………… (15)</p> <p>제4절 왕릉 유물 조사…………… (16)</p> <p>제4장 고구려 왕릉의 고고학적 편년…………… (17)</p> <p>제1절 고구려 왕릉의 분포 특징…………… (17)</p> <p>제2절 고구려 왕릉의 형태와 구조…………… (18)</p> <p>(1) 遼寧 桓仁 ‘望江樓’4호분…………… (18)</p> <p>(2) 集安 禹山 0000호분…………… (19)</p> <p>(3) 集安 麻線 0626호분…………… (19)</p> <p>(4) 集安 麻線 石廟子석굴…………… (21)</p> <p>(5) 集安 麻線 2381호분…………… (21)</p> <p>(6) 集安 七星山 0871호분…………… (22)</p> <p>(7) 集安 麻線 2378호분…………… (24)</p> <p>(8) 集安 山城下磚廠 36호분…………… (25)</p> <p>(9) 集安 禹山 2110호분…………… (26)</p> <p>(10) 集安 禹山 0043호분(臨江墓)…………… (27)</p> <p>(11) 集安 蒿子溝묘지 1호분…………… (28)</p> <p>(12) 集安 山城下磚廠 0001호분…………… (30)</p> <p>(13) 集安 七星山 0211호분…………… (32)</p> <p>(14) 集安 麻線 2100호분…………… (34)</p>
---	--

<p>(十五) 集安麻線0500號墓(西大墓)…………… (36)</p> <p>(十六) 集安禹山0992號墓…………… (37)</p> <p>(十七) 集安麻線1000號墓(千秋墓)…………… (39)</p> <p>(十八) 集安禹山0540號墓…………… (42)</p> <p>(十九) 集安禹山0541號墓(太王陵)…………… (44)</p> <p>(二十) 集安禹山0001號墓(將軍墳)…………… (50)</p> <p>(二十一) 集安禹山2115號墓…………… (58)</p> <p>(二十二) 集安禹山2101號墓(五盔墳1號墓)…………… (58)</p> <p>(二十三) 集安禹山2102號墓(五盔墳2號墓)…………… (59)</p> <p>(二十四) 集安禹山2114號墓…………… (60)</p> <p>(二十五) 集安禹山2113號墓(四神墓)…………… (60)</p> <p>(二十六) 集安禹山2103號墓(五盔墳3號墓)…………… (61)</p> <p>(二十七) 集安禹山2104號墓(五盔墳4號墓)…………… (62)</p> <p>(二十八) 集安禹山2105號墓(五盔墳5號墓)…………… (63)</p> <p>第三節 高句麗王陵的分期與演進…………… (64)</p> <p>第五章 高句麗王陵的定位標準…………… (69)</p> <p>第一節 確立高句麗王陵定位標準的必要性…………… (69)</p> <p>第二節 高句麗王陵的定位標準…………… (69)</p> <p>(一) 地理位置符合文獻的記載…………… (69)</p> <p>(二) 通過墓葬形制、結構、遺物所反映的墓葬編年與本王在位的年代相吻合…………… (69)</p> <p>(三) 墓葬的規模與本王在位時的國力及綜合條件相當…………… (70)</p> <p>(四) 有無瓦與瓦當要具體對待…………… (70)</p>	<p>(15) 集安 麻線 0500호분(西大墓)…………… (35)</p> <p>(16) 集安 禹山 0992호분…………… (37)</p> <p>(17) 集安 麻線 1000호분(千秋墓)…………… (39)</p> <p>(18) 集安 禹山 0540호분…………… (42)</p> <p>(19) 集安 禹山 0541호분(太王陵)…………… (44)</p> <p>(20) 集安 禹山 0001호분(將軍墳)…………… (50)</p> <p>(21) 集安 禹山 2115호분…………… (58)</p> <p>(22) 集安 禹山 2101호분(五盔墳1號墓)…………… (58)</p> <p>(23) 集安 禹山 2102호분(五盔墳2號墓)…………… (59)</p> <p>(24) 集安 禹山 2114호분…………… (60)</p> <p>(25) 集安 禹山 2113호분(四神墓)…………… (60)</p> <p>(26) 集安 禹山 2103호분(五盔墳3號墓)…………… (61)</p> <p>(27) 集安 禹山 2104호분(五盔墳4號墓)…………… (62)</p> <p>(28) 集安 禹山 2105호분(五盔墳5號墓)…………… (63)</p> <p>제3절 고구려 왕릉의 시기구분과 발전…………… (64)</p> <p>제5장 고구려 왕릉의 확정 기준…………… (69)</p> <p>제1절 고구려왕릉의 확정 기준 확립의 필요성…………… (69)</p> <p>제2절 고구려왕릉의 확정 기준…………… (69)</p> <p>(1) 문헌 기록과 부합하는 지리 위치…………… (69)</p> <p>(2) 고분의 형태, 구조, 유물에 반영된 고분 편년과 본왕 재위 연대의 일치…………… (69)</p> <p>(3) 고분 규모와 재위시대의 국력 및 종합 조건 상당…………… (70)</p> <p>(4) 기와, 와당의 유무…………… (70)</p>
--	---

(五) 陪墳、祭台等相關遺跡關係緊密····· (70)	(5) 배장묘, 제단 등 상관 유적과의 관계····· (70)
(六) 出土器物符合本王特徵····· (70)	(6) 출토 유물과 특징의 일치····· (70)
第三節 高句麗王陵定位標準的相對性····· (71)	제3절 고구려 왕릉 확정 기준의 상대성····· (71)
第六章 高句麗王陵的分類比對····· (72)	제6절 고구려 왕릉의 분류 및 비교·대조····· (72)
第一節 積石墓王陵的分類比對····· (72)	제1절 積石墓 왕릉의 분류 및 비교·대조····· (72)
(一) 文獻有記載考古有依據研究意見無分歧的確認5座····· (72)	(1) 문헌에 기록이 있고 고고학적 근거가 있으며, 연구 의견의 차이가 없는 확인된 5기····· (72)
(二) 文獻有記載與地名標志吻合符合考古編年的確認10座····· (72)	(2) 문헌에 기록이 있고 지명 표기와 일치하며, 고고학적 편년에 부합하는 확인된 10기····· (72)
(三) 文獻無葬地記載考古編年與本王在位年代吻合的確認2座····· (72)	(3) 문헌에 葬地의 기록이 없고, 고고학적 편년이 본왕 재위 연대와 일치하는 확인된 2기····· (72)
(四) 文獻有記載、地名特徵不明顯、根據考古編年和相關遺跡最後確認2座····· (73)	(4) 문헌에 기록이 있고 지명 특징이 불분명하며, 고고학적 편년과 상관 유적에 근거해 최종 확인된 2기····· (73)
第二節 閔中王葬於石窟····· (73)	제2절 閔中王墓는 석굴에····· (73)
第三節 將軍墳的墓主人長壽王率開回葬故國祖塋之先河····· (73)	제3절 장군분 주인 장수왕 솔개는 고국 선영 회장의 시초····· (73)
第四節 遷都平壤後的8位王的王陵確認問題····· (77)	제4절 평양 천도 후 8대 왕의 왕릉 확인 문제····· (77)
(一) 集安五窟墳一帶是故國祖塋王陵區····· (77)	(1) 集安 五窟墳 일대는 故國祖塋 왕릉 지역····· (77)
(二) 寶藏王葬於西安瀟東····· (79)	(2) 保藏王은 西安 瀟東에 매장····· (79)
第五節 大陽王····· (80)	제5절 大陽王····· (80)
第六節 封土墓王陵的分類比對····· (80)	제6절 封土墓 왕릉의 분류 및 비교·대조····· (80)
第七章 高句麗王陵的考證定位····· (81)	제7장 고구려 왕릉의 고증 확정····· (81)

第一節 28位王之陵····· (81)	제1절 28대 왕릉····· (81)
(一) 東明王陵····· (81)	(1) 東明王陵····· (81)
(二) 琉璃明王陵····· (86)	(2) 琉璃明王陵····· (86)
(三) 大武神王陵····· (90)	(3) 大武神王陵····· (90)
(四) 閔中王石窟····· (93)	(4) 閔中王石窟····· (93)
(五) 慕本王陵····· (95)	(5) 慕本王陵····· (95)
(六) 太祖大王陵····· (97)	(6) 太祖大王陵····· (97)
(七) 次大王陵····· (99)	(7) 次大王陵····· (99)
(八) 新大王陵····· (101)	(8) 新大王陵····· (101)
(九) 故國川王陵····· (105)	(9) 故國川王陵····· (105)
(十) 山上王陵····· (107)	(10) 山上王陵····· (107)
(十一) 東川王陵····· (110)	(11) 東川王陵····· (110)
(十二) 中川王陵····· (116)	(12) 中川王陵····· (116)
(十三) 西川王陵····· (118)	(13) 西川王陵····· (118)
(十四) 烽上王陵····· (121)	(14) 烽上王陵····· (121)
(十五) 美川王陵····· (123)	(15) 美川王陵····· (123)
(十六) 故國原王陵····· (127)	(16) 故國原王陵····· (127)
(十七) 小獸林王陵····· (136)	(17) 小獸林王陵····· (136)
(十八) 故國壤王陵····· (138)	(18) 故國壤王陵····· (138)
(十九) 好太王陵····· (141)	(19) 廣開土大王陵····· (141)
(二十) 長壽王陵····· (146)	(20) 長壽王陵····· (146)
(二十一) 文咨明王陵····· (150)	(21) 文咨明王陵····· (150)
(二十二) 安臧王陵····· (152)	(22) 安臧王陵····· (152)
(二十三) 安原王陵····· (154)	(23) 安原王陵····· (154)
(二十四) 陽原王陵····· (156)	(24) 陽原王陵····· (156)
(二十五) 平原王陵····· (158)	(25) 平原王陵····· (158)
(二十六) 嬰陽王陵····· (161)	(26) 嬰陽王陵····· (161)

(二十七) 榮留王陵..... (164)	(27) 榮留王陵..... (164)
(二十八) 寶藏王陵..... (166)	(28) 寶藏王陵..... (166)
第二節 大陽王陵..... (168)	제2절 大陽王陵..... (168)
第三節 重要墓葬與重要遺址..... (169)	제3절 중요 고분과 중요 유적지..... (169)
(一) 明臨答夫墓..... (169)	(1) 明臨答夫墓..... (169)
(二) 于氏墓..... (171)	(2) 于氏墓..... (171)
(三) 助多墓..... (172)	(3) 助多墓..... (172)
(四) 集安東台子遺址..... (174)	(4) 集安 東台子유적..... (174)
(五) 集安民主遺址..... (176)	(5) 集安 民主유적..... (176)
(六) 集安雙安小城..... (177)	(6) 集安 雙安小城..... (177)
(七) 集安良民古城及古墓群..... (179)	(7) 集安 良民古城 및 고분군..... (179)
第八章 高句麗王陵定位的系統思考..... (182)	제8장 고구려 왕릉 확정의 체계적 사고..... (182)
第一節 工作過程的簡要回顧..... (182)	제1절 작업 과정의 간략한 회고..... (182)
第二節 高句麗王陵統鑿輯要..... (183)	제2절 고구려 왕릉 統鑿輯要..... (183)
第三節 高句麗王陵分期演進圖示..... (183)	제3절 고구려 왕릉의 시기구분 및 발전 圖示..... (183)
第四節 高句麗故國岡王陵承嗣關係示意圖..... (184)	제4절 고구려 故國王 이후 國岡 왕릉 계승 관계도..... (184)
第五節 幾點帶有規律性的新認識..... (184)	제5절 몇몇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새로운 인식..... (184)
(一) 古文獻記載的王陵葬地名與現代地名必有某種聯系..... (184)	(1) 고문헌 기록의 왕릉 葬地 지명과 현대 지명사이에는 반드시 모종의 관계가 있음..... (184)
(二) 王陵的分布具有區域性和生態性, 盡在山之陽, 江之陽..... (184)	(2) 왕릉의 분포는 지역성과 생태성을 가짐, 모두 산의 남쪽에 위치..... (184)
(三) 最先進的技術和工藝、最好的材料、最新的器物、最高水平的壁畫必先用于王陵..... (185)	(3) 가장 앞선 기술과 공예, 가장 좋은 재료, 가장 새로운 器物, 최고 수준의 벽화는 반드시 왕릉에 먼저 사용됨..... (185)
(四) 王之封號與葬地具有內在聯系和承嗣關係..... (185)	(4) 왕의 封號와 葬地에는 내재된 연관 관계와 계승 관계가 존재..... (185)

(五) 王陵分期演進不僅體現墓葬型制、結構上, 同時也體現在分區和相關遺跡中..... (185)	(5) 王陵의 시기구분 및 발전은 고분 형태, 구조에서 나타날 뿐 아니라 分區와 상관 유적에도 체현..... (185)
第九章 深入研究高句麗王陵的初步展望..... (186)	제9장 고구려 왕릉의 연구 심화에 대한 초보적 전망..... (186)
附卷	첨부
好太王碑雜識及碑文考箋..... (187)	廣開土大王碑 雜識 및 碑文 考箋..... (187)
集安禹山3319號墓卷雲紋瓦當銘文識讀與研究..... (193)	集安 禹山 3319호분 구름무늬 와당 명문의 識讀과 연구..... (193)
集安良民高句麗遺跡調查..... (203)	集安 良民 고구려 유적 조사..... (203)
鴨綠江上遊右岸考古調查..... (210)	압록강 상류 우안의 고고학적 조사..... (210)
高句麗第一個平壤城在集安良民即國之東北大嶺—新城..... (218)	고구려의 첫번째 평양성은 집안 양민, 즉 國之大嶺—新城..... (218)
高句麗平壤東黃城考..... (226)	고구려 평양 東黃城考..... (226)
洛陽、西安出土北魏與唐高句麗人墓志及泉氏墓地..... (233)	洛陽, 西安에서 출토된 北魏와 唐 고구려인 墓志 및 泉氏 묘지..... (233)
唐代泉氏家族墓地不在集安在洛陽令人信服..... (254)	당대 泉氏가족 묘지는 集安이 아니라 洛陽에..... (254)
高句麗貴族有回葬舊塋之習俗集安五盔墳應爲王陵..... (255)	고구려 귀족의 선영 회장 습속, 집안 오회분은 왕릉..... (255)
高句麗泉氏墓地調查及其價值..... (257)	고구려 泉氏 墓地 조사 및 그 가치..... (257)
從泉氏墓志墓地看高句麗的回葬..... (261)	泉氏 墓志, 墓지로 본 고구려의 回葬..... (261)
泉氏家族世系及其事略..... (264)	泉氏 가족의 세계 및 그 역사..... (264)
朱蒙所葬之“龍山”及太王陵銅鈴“峻”字考..... (271)	주몽이 묻힌 ‘龍山’ 및 太王陵 방울의 ‘峻’字考..... (271)
豆谷、豆谷離宮及琉璃明王陵..... (276)	豆谷, 豆谷離宮 및 琉璃明 王陵..... (276)
集安蒿子溝墓地調查與東川王陵考..... (281)	集安 蒿子溝 묘지 조사와 東川王陵考..... (281)
主要參考文獻..... (286)	주요참고문헌..... (286)
高句麗王陵考大事記..... (288)	고구려왕릉고 대사기..... (288)
後記..... (302)	후기..... (302)

# 唐代渤海國五京研究

楊雨舒·蔣戎 著，香港亞洲出版社，2008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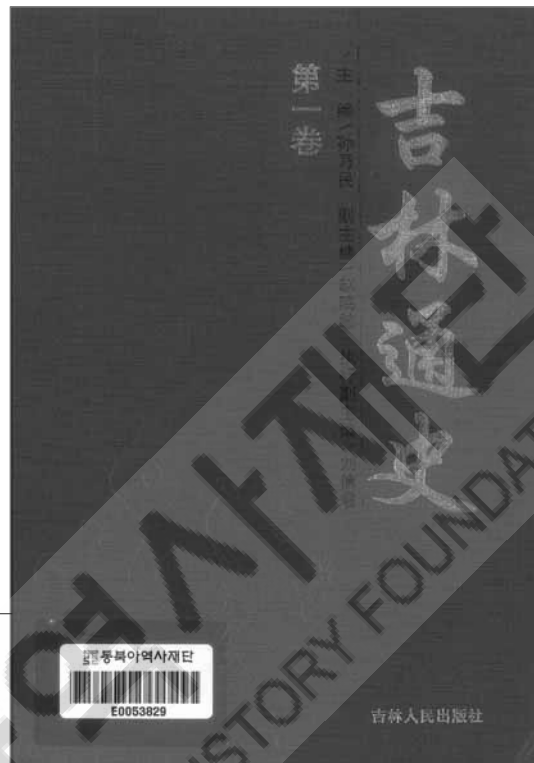
目 录	목 차
緒論.....(1)	서 론.....(1)
第一章 渤海國城市發展概述.....(1)	제1장 발해 도시 발전 개론.....(1)
第一節 渤海國的初期王都.....(1)	제1절 발해의 초기 왕도.....(1)
一、建都的背景.....(2)	1. 건도의 배경.....(2)
二、初期的王都.....(6)	2. 초기의 왕도.....(6)
三、渤海國在“旧國”時期的發展.....(11)	3. 발해 ‘舊國’시대의 발전.....(11)
第二節 五京与各府、州、縣的建立和健全.....(18)	제2절 오경과 각부, 주, 현의 설립과 완성.....(18)
一、五京的形成.....(18)	1. 오경의 형성.....(18)
二、十五府的相繼建立.....(27)	2. 15부의 건립.....(27)
三、州、縣的建立和健全.....(29)	3. 주, 현의 건립과 특징.....(29)
第三節 對渤海國城市發展的評價.....(31)	제3절 발해 도시 발전에 대한 평가.....(31)
一、城市發展的分期与特点.....(33)	1. 도시 발전의 시기구분과 특징.....(33)
二、五京發展的規律性及歷史地位.....(35)	2. 오경 발전의 법칙성 및 역사적 위치.....(35)
第二章 海蘭江畔新王都—中京顯德府.....(42)	제2장 海蘭江변의 신왕도—中京顯德府.....(42)
第一節 遷都与中京的规划布局、行政管轄.....(42)	제1절 천도와 中京의 도시계획, 행정관리.....(42)
一、自然條件与遷都背景.....(42)	1. 자연조건과 천도 배경.....(42)
二、中京顯德府的规划布局.....(47)	2. 中京顯德府의 도시계획.....(47)
三、中京下屬的州、縣及轄區.....(52)	3. 中京 管하의 주, 현 및 관할구역.....(52)
第二節 中京顯德府的歷史地位.....(59)	제2절 中京顯德府의 역사적 위치.....(59)
一、中京与渤海國的初步發展.....(59)	1. 中京과 발해의 초기 발전.....(59)
二、中京与渤海國的城市建設.....(65)	2. 中京과 발해의 도시 건설.....(65)
第三章 鏡泊湖畔“小長安”—上京龍泉府.....(69)	제3장 鏡泊湖변의 ‘小長安’—上京龍泉府.....(69)
第一節 自然條件与遷都背景.....(69)	제1절 자연조건과 천도 배경.....(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一、自然條件..... (69)</li> <li>二、遷都背景..... (73)</li> <li>第二節 上京龍泉府的建設與行政管轄..... (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一、早期規劃與初步建設..... (83)</li> <li>二、城市的進一步發展..... (90)</li> <li>三、上京所屬的州、縣及轄區..... (97)</li> </ul> </li> <li>第三節 上京龍泉府的歷史地位..... (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一、上京與渤海國的政治、文化發展..... (99)</li> <li>二、上京與渤海國的交通建設及經濟繁榮..... (118)</li> </ul> </li> <li>第四章 靠近大海的新王都－東京龍原府..... (1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第一節 遷都與東京的規劃布局、行政管轄..... (1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一、自然條件與遷都背景..... (126)</li> <li>二、東京龍原府的規劃布局..... (130)</li> <li>三、東京下屬的州、縣及轄區..... (133)</li> </ul> </li> <li>第二節 東京龍原府的歷史地位..... (1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一、東京與渤海國的新發展..... (137)</li> <li>二、東京與渤海國的交通和城市建設..... (143)</li> </ul> </li> </ul> </li> <li>第五章 渤海國的南京和西京..... (1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第一節 渤海國的南大門－南京南海府..... (1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一、城市概況與行政管轄..... (150)</li> <li>二、南京南海府的歷史地位..... (154)</li> </ul> </li> <li>第二節 朝貢道上的中轉站－西京鴨渌府..... (15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一、自然條件與城市概況..... (158)</li> <li>二、西京下屬的州、縣及轄區..... (161)</li> <li>三、西京鴨渌府的歷史地位..... (163)</li> </ul> </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연조건..... (69)</li> <li>2. 천도 배경..... (73)</li> <li>제2절 上京龍泉府의 건설과 행정관리..... (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초기의 계획과 건설..... (83)</li> <li>2. 도시의 발전..... (90)</li> <li>3. 上京 관하의 주, 현 및 관할구역..... (97)</li> </ul> </li> <li>제3절 上京龍泉府의 역사적 위치..... (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上京과 발해의 정치, 문화 발전..... (99)</li> <li>2. 上京과 발해의 교통 건설 및 경제 번영..... (118)</li> </ul> </li> <li>제4장 바다에 가까운 새로운 왕도－東京龍原府..... (126)</li> <li>제1절 천도와 東京의 도시계획, 행정관리..... (1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연조건과 천도 배경..... (126)</li> <li>2. 東京龍原府의 도시계획..... (130)</li> <li>3. 東京 관하의 주, 현 및 관할구역..... (133)</li> </ul> </li> <li>제2절 東京龍原府의 역사적 위치..... (1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東京과 발해의 새로운 발전..... (137)</li> <li>2. 東京과 발해의 교통과 도시 건설..... (143)</li> </ul> </li> <li>제5장 발해의 南京과 西京..... (150)</li> <li>제1절 발해의 南大門－南京南海府..... (1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시 개황과 행정관리..... (150)</li> <li>2. 南京南海府의 역사적 위치..... (154)</li> </ul> </li> <li>제2절 궁중 도상의 중간역－西京鴨渌府..... (15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연조건과 도시개황..... (158)</li> <li>2. 西京 관하의 주, 현 및 관할구역..... (161)</li> <li>3. 西京鴨渌府의 역사적 위치..... (163)</li> </ul> </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附錄一 唐代渤海國五京研究綜述..... (17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一、渤海國五京制淵源、承繼關係和設置時間..... (174)</li> <li>二、渤海國遷都年代及遷都原因..... (176)</li> <li>三、五京的形制與建築、規劃布局及歷史作用..... (178)</li> <li>四、上京龍泉府..... (180)</li> <li>五、中京顯德府和東京龍原府..... (187)</li> <li>六、南京南海府和西京鴨渌府..... (193)</li> <li>七、結語..... (195)</li> </ul> </li> <li>附錄二 渤海國五京大事記..... (196)</li> <li>主要參考文獻..... (2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一、古代文獻..... (207)</li> <li>二、近現代文獻..... (208)</li> <li>三、國外文獻 (含譯作)..... (214)</li> </ul> </li> <li>后記..... (216)</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록1 당대 발해 오경 연구 통론..... (17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발해오경제의 기원, 계승관계와 설치시간..... (174)</li> <li>2. 발해의 천도 연대 및 천도 원인..... (176)</li> <li>3. 오경의 형태와 건축, 도시계획 및 역사 작용..... (178)</li> <li>4. 上京龍泉府..... (180)</li> <li>5. 中京顯德府와 東京龍原府..... (187)</li> <li>6. 南京南海府와 西京鴨渌府..... (193)</li> <li>7. 맺음말..... (195)</li> </ul> </li> <li>부록2 발해오경대사기..... (196)</li> <li>주요참고문헌..... (2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고대문헌..... (207)</li> <li>2. 근현대문헌..... (208)</li> <li>3. 국외문헌(역서 포함)..... (214)</li> </ul> </li> <li>후기..... (216)</li> </ul>
---	---

# 吉林通史 (第一卷)

趙鳴岐·楊雨舒 著, 吉林人民出版社, 2008年



目 錄	목 차
第一編 石器時代..... 1	제1편 석기시대..... 1
第一章 吉林舊石器時代的古人類..... 1	제1장 길림 구석기시대의 고인류..... 1
一、東北地區的古人類及其流動擴展..... 1	1. 동북 지역의 고인류 및 이동과 확장..... 1
二、“榆樹人”和“安圖人”—吉林的最早先民..... 6	2. ‘榆樹人’와 ‘安圖人’, 길림의 최초 선민..... 6
三、吉林舊石器時代遺址的分布..... 9	3. 길림 구석기시대 유적의 분포..... 9
四、打制工具的進步及吉林舊石器文化的特徵..... 12	4. 타제공구의 진보 및 길림 구석기문화의 특징..... 12
第二章 吉林新石器時代的古人類..... 14	제2장 길림 신석기시대의 고인류..... 14
一、吉林新石器時代的文化類型..... 14	1. 길림 신석기시대의 문화유형..... 14
二、吉林新石器時代文化區域的分布..... 18	2. 길림 신석기시대 문화 지역의 분포..... 18
三、磨制石器的出現及磨制工具的使用..... 22	3. 신석기의 출현 및 신석기의 사용..... 22
四、陶器的制作及其與農業的關係..... 25	4. 토기의 제작 및 농업과의 관계..... 25
五、漁獵采集經濟的繼續發展..... 27	5. 어로·수렵, 채집경제의 지속적 발전..... 27
第二編 青銅器時代..... 32	제2편 청동기시대..... 32
第三章 文明時代的來臨..... 32	제3장 문명시대의 도래..... 32
一、吉林青銅文化類型..... 32	1. 길림 청동기의 유형..... 32
二、青銅文化遺存的分布..... 38	2. 청동 문화유적의 분포..... 38
三、社會經濟的進一步發展..... 40	3. 사회·경제의 발전..... 40
四、氏族制度的發展與變遷..... 44	4. 씨족제도의 발전과 변천..... 44
第四章 古代吉林各民族的起源與分布..... 46	제4장 고대 길림 각 민족의 기원과 분포..... 46
一、白山黑水間的肅慎族系..... 46	1.白山黑水の 속신족계..... 46
二、松嫩平原上的穢貊族系..... 52	2. 松嫩평원의 예맥족계..... 52
三、馳騁草原的東胡族系..... 55	3. 초원을 누빈 동호족계..... 55
四、漢族在東北的發展..... 58	4. 동북 내 한족의 발전..... 58

第三編 鐵器時代(一)..... 60	제3편 철기시대(1)..... 60
第五章 古老神秘的夫餘國..... 60	제5장 유서깊고 신비한 부여..... 60
一、穢貊的發展與夫餘國的建立..... 60	1. 예맥의 발전과 부여의 건립..... 60
二、鐵制工具的出現..... 62	2. 철제공구의 출현..... 62
三、原始農業與畜牧業..... 64	3. 원시농업과 목축업..... 64
四、夫餘人的社會生活..... 65	4. 부여인의 사회생활..... 65
五、夫餘國與中原各王朝的關係..... 66	5. 부여와 중원 각 왕조의 관계..... 66
六、夫餘國的解體與消亡..... 67	6. 부여의 해체와 멸망..... 67
第六章 高句麗國的建立與發展..... 70	제6장 고구려의 건립과 발전..... 70
一、始祖與鄒牟卒本夫餘..... 70	1. 시조 주몽과 졸본부여..... 70
二、遷都國內城與初步發展..... 74	2. 국내성 천도와 초기 발전..... 74
三、好太王稱霸遼東..... 77	3. 광개토태왕의 요동 제패..... 77
四、遷都平壤與國勢強盛..... 79	4. 평양 천도와 국력 신장..... 79
第七章 高句麗與其他民族的關係..... 82	제7장 고구려와 기타 민족의 관계..... 82
一、高句麗與夫餘的關係..... 82	1. 고구려와 부여의 관계..... 82
二、與慕容氏政權的長期對立..... 83	2.慕容氏정권과의 장기 대립..... 83
三、與其他各族的關係..... 86	3. 기타 각 민족과의 관계..... 86
第八章 高句麗與中原各王朝的關係..... 88	제8장 고구려와 중원 각 왕조의 관계..... 88
一、高句麗政權及疆域的歸屬..... 88	1. 고구려정권 및 영토 귀속..... 88
二、反抗王莽的統治..... 91	2. 王莽의 통치에 대항..... 91
三、田丘倭東徵高句麗..... 93	3. 田丘倭의 고구려 동정..... 93
四、與隋朝的戰爭..... 96	4. 수와의 전쟁..... 96
五、唐朝滅亡高句麗..... 99	5. 고구려를 멸망시킨 당..... 99
第九章 高句麗時期鐵制工具的使用..... 103	제9장 고구려시대 철제공구의 사용..... 103
一、冶鐵業的發展與鐵制工具的特點..... 103	1. 야철업의 발전과 철제공구의 특징..... 103
二、高句麗的農業..... 105	2. 고구려의 농업..... 105

三、高句麗的飼養業與漁獵業..... 107	3. 고구려의 사육업과 어로·수렵..... 107
四、高句麗的手工業..... 108	4. 고구려의 수공업..... 108
第十章 高句麗的社會發展..... 111	제10장 고구려의 사회발전..... 111
一、中原文化的影響..... 111	1. 중원문화의 영향..... 111
二、統治機構的設置及其演變..... 112	2. 통치기구의 설치 및 그 변천..... 112
三、高句麗的階級結構與社會性質..... 113	3. 고구려의 계급구조와 사회성격..... 113
第十一章 高句麗的城市與建築..... 115	제11장 고구려의 도시와 건축..... 115
一、山城及其特點..... 115	1. 산성 및 그 특징..... 115
二、國都的變遷..... 122	2. 수도의 변천..... 122
三、建築及其特點..... 125	3. 건축 및 그 특징..... 125
第十二章 高句麗的習俗..... 127	제12장 고구려의 풍속..... 127
一、衣食住行..... 127	1. 의식주행..... 127
二、婚姻喪葬習俗..... 132	2. 혼인상장풍속..... 132
三、宗教信仰及其他習俗..... 135	3. 종교, 신앙 및 기타 풍속..... 135
第十三章 高句麗壁畫..... 143	제13장 고구려벽화..... 143
一、吉林境內高句麗墓壁畫的分布、內容與布局..... 143	1. 길림 경내 고구려 고분 벽화의 분포, 내용과 구성..... 143
二、高句麗壁畫的分類與特點..... 146	2. 고구려 벽화의 시기구분과 특징..... 146
第十四章 渤海國的建立和發展..... 150	제14장 발해의 건립과 발전..... 150
一、大祚榮“恃荒遠”建國..... 150	1. 대조영 변경에 의지해 건국..... 150
二、渤海國的初步發展..... 154	2. 발해의 초기 발전..... 154
三、渤海國的振興..... 160	3. 발해의 진흥..... 160
四、渤海國強盛時期的吉林..... 165	4. 발해 강성 시대의 길림..... 165
第十五章 渤海國的社會..... 168	제15장 발해의 사회..... 168
一、社會統治機構..... 168	1. 사회통치기구..... 168
二、大氏王族與右姓望族..... 174	2. 大氏왕족과 유력세족..... 174
三、平民和奴隸..... 177	3. 평민과 노예..... 177

第十六章 渤海國的冶鐵業及鐵制工具..... 179	제16장 발해의 야철업 및 철기..... 179
一、冶鐵業的發展..... 179	1. 야철업의 발전..... 179
二、鐵器的廣泛使用..... 181	2. 철기의 광범위한 사용..... 181
三、冶鐵技術的進步..... 185	3. 야철 기술의 진보..... 185
第十七章 渤海國的經濟..... 188	제17장 발해의 경제..... 188
一、農牧漁獵各業..... 188	1. 농업, 목축업, 어업과 수렵업..... 188
二、手工諸業..... 191	2. 수공업..... 191
三、商業與貿易..... 197	3. 상업과 무역..... 197
第十八章 渤海國的城鎮與交通..... 209	제18장 발해의 도시·촌락과 교통..... 209
一、王都的建設..... 209	1. 왕도의 건설..... 209
二、其他城鎮的興起..... 213	2. 기타 도시·촌락의 흥기..... 213
三、交通的發展..... 220	3. 교통의 발전..... 220
第十九章 渤海國的文化..... 224	제19장 발해의 문화..... 224
一、文字、語言與教育..... 224	1. 문자, 언어와 교육..... 224
二、儒家文化與文學..... 226	2. 유가문화와 문학..... 226
三、藝術與體育..... 232	3. 예술과 체육..... 232
四、佛教..... 236	4. 불교..... 236
第二十章 渤海國的習俗..... 240	제20장 발해의 풍속..... 240
一、禮俗..... 240	1. 예속..... 240
二、婚葬習俗..... 242	2. 혼장풍속..... 242
三、生活及其他習俗..... 247	3. 생활 및 기타 풍속..... 247
第二十一章 渤海國與唐朝的關係..... 252	제21장 발해와 당의 관계..... 252
一、渤海國前期與唐朝的關係..... 252	1. 발해 전기 당과의 관계..... 252
二、唐朝對渤海國的管轄..... 255	2. 당조의 발해 관할..... 255
三、渤海國與唐朝的密切往來..... 260	3. 발해와 당의 긴밀한 왕래..... 2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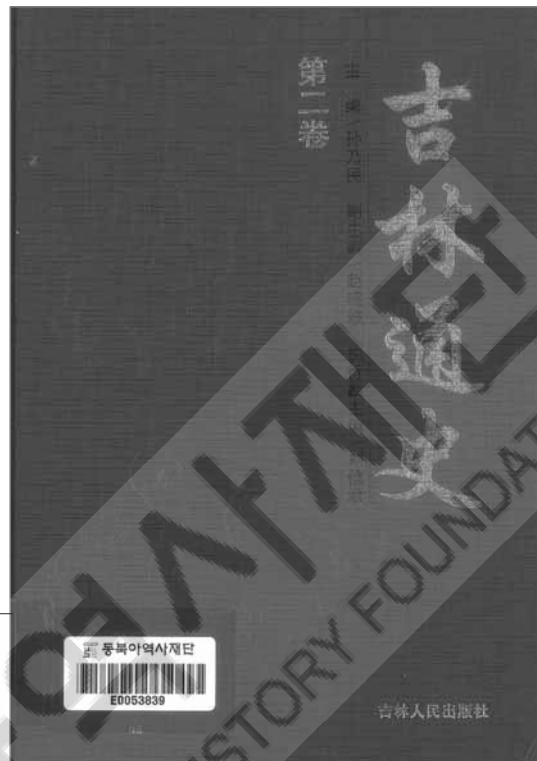
第二十二章 渤海國與周鄰的關係..... 265	제22장 발해와 주변의 관계..... 265
一、與西、北部諸鄰族的關係..... 265	1. 서·북부 주변 제족과의 관계..... 265
二、對靺鞨各部的征服..... 268	2. 말갈 각 부 정복..... 268
三、同日本的友好往來..... 269	3. 일본과의 우호 왕래..... 269
四、與新羅的長期對峙..... 275	4. 신라와의 장기 대치..... 275
五、契丹崛起與渤海國滅亡..... 277	5. 거란의 흥기와 발해 멸망..... 277
第四編 鐵器時代(二)..... 280	제4편 철기시대(2)..... 280
第二十三章 遼朝統治下的吉林..... 280	제23장 요 통치 하의 길림..... 280
一、東丹國的建立、南遷與廢除..... 280	1. 동丹의 건립, 남遷과 멸망..... 280
二、東丹國在渤海故地的統治..... 284	2. 동丹의 발해 고지 통치..... 284
三、遼朝在吉林的行政設置..... 285	3. 길림의 행정 조직..... 285
四、遼朝對吉林的統治措施..... 289	4. 길림에 대한 통치 조치..... 289
第二十四章 遼朝的社會與經濟..... 293	제24장 요의 사회와 경제..... 293
一、社會結構..... 293	1. 사회구조..... 293
二、社會制度的變革..... 296	2. 사회제도의 변혁..... 296
三、鐵制工具的進步..... 299	3. 철제공구의 진보..... 299
四、經濟的發展..... 301	4. 경제의 발전..... 301
第二十五章 遼朝時期吉林的民族關係..... 311	제25장 요대 길림의 민족관계..... 311
一、遼朝的民族政策..... 311	1. 요의 민족정책..... 311
二、渤海遺裔的反遼鬭爭..... 314	2. 발해 유민의 반요 투쟁..... 314
三、女真人的滅遼戰爭..... 319	3. 여진인의 멸요 전쟁..... 319
第二十六章 女真的興起與金朝的建立..... 323	제26장 여진의 흥기와 금의 건립..... 323
一、女真人與長白山..... 323	1. 여진인과 장백산..... 323
二、女真完顏部的統一..... 331	2. 여진 完顏부의 통일..... 331
三、女真起兵反遼及其意義..... 337	3. 여진의 거병 및 그 의의..... 337

四、阿骨打稱帝建國..... 343	4. 阿骨打 칭제 건국..... 343
第二十七章 金代初年的女真社會..... 347	제27장 금 초기의 여진사회..... 347
一、金初女真各部落的分布..... 347	1. 금 초기 여진 각 부족의 분포..... 347
二、女真貴族的社會生活..... 356	2. 여진 귀족의 사회생활..... 356
三、女真人的漢化..... 364	3. 여진인의 한화..... 364
第二十八章 金統治下的吉林..... 370	제28장 금 통치 하의 길림..... 370
一、勃極烈制度的設置..... 370	1. 勃極烈제도의 설립..... 370
二、猛安謀克制的推行..... 374	2. 猛安謀克제의 시행..... 374
三、漢制的確立..... 381	3. 漢制의 확립..... 381
四、對各族統治的加強..... 386	4. 각 민족에 대한 통치 강화..... 386
第二十九章 金代農業的進一步開發..... 392	제29장 금대 농업의 발전..... 392
一、農業開發政策的實施..... 392	1. 농업개발정책 실시..... 392
二、農業耕種面積的擴大..... 396	2. 경지 면적의 확대..... 396
三、農作物品種的增加..... 400	3. 농작물 품종의 증가..... 400
四、農業生產技術的提高..... 402	4. 농업생산기술의 제고..... 402
第三十章 金代鐵器的廣泛使用..... 408	제30장 금대의 광범위한 철기 사용..... 408
一、冶鐵遺址分布及冶煉技術的提高..... 408	1. 야철 유적 분포 및 제련 기술의 향상..... 408
二、廣泛使用的鐵制工具..... 411	2. 광범위한 철기의 사용..... 411
三、手工業的進一步發展..... 412	3. 수공업의 발전..... 412
四、商業的繁榮與發展..... 418	4. 상업의 번영과 발전..... 418
第三十一章 契丹遺裔的反金鬪爭..... 426	제31장 거란 유민의 반금 투쟁..... 426
一、撤八、窩斡農牧民起義..... 426	1. 撤八、窩斡 농목민 기의..... 426
二、德壽、陀鎖的反抗鬪爭..... 433	2. 德壽、陀鎖의 저항 투쟁..... 433
三、耶律留哥의興兵反金..... 435	3. 耶律留哥의 거병 반금..... 435
第三十二章 東夏國在吉林的活動..... 440	제32장 東夏 활동..... 440
一、蒲鮮萬奴與大真政權..... 440	1. 蒲鮮萬奴와 대진정권..... 440

二、改號東夏與擴張勢力..... 444	2. 東夏 개칭과 세력 확장..... 444
三、統治制度與社會經濟..... 448	3. 통치제도와 사회경제..... 448
四、蒙古崛起與東夏滅亡..... 454	4. 몽고 흥기와 東夏 멸망..... 454
第三十三章 遼金與高麗的關係..... 459	제33장 요·금과 고려의 관계..... 459
一、遼與高麗爭奪土..... 459	1. 요와 고려의 영토 전쟁..... 459
二、金與高麗劃定疆界..... 470	2. 금과 고려의 경계 확정..... 470
三、東夏與高麗的雙邊關係..... 478	3. 동하와 고려의 상호관계..... 478
第三十四章 遼金時期的吉林城鎮與交通..... 488	제34장 요·금시대의 길림 도시·촌락과 교통..... 488
一、遼金時期吉林的古城址和遺址..... 488	1. 요·금시기 길림의 고성지와 유적지..... 488
二、遼金時期吉林的重要城鎮..... 491	2. 요·금시기 길림의 중요 도시·촌락..... 491
三、遼朝時期的吉林交通..... 496	3. 요대의 길림 교통..... 496
四、金朝時期的吉林交通..... 498	4. 금대의 길림 교통..... 498
第三十五章 遼金時期的吉林民俗..... 501	제35장 요·금시대의 길림 민속..... 501
一、自然崇拜與禮儀習俗..... 501	1. 자연숭배와 의례 및 풍속..... 501
二、漁獵生活習俗..... 504	2. 어로·수렵, 생활풍속..... 504
三、契丹、女真人的衣食住行..... 505	3. 거란, 여진인의 의식주행..... 505
四、契丹、女真人的婚葬習俗..... 511	4. 거란, 여진인의 혼장풍속..... 511
第三十六章 遼金時期的吉林文化..... 515	제36장 요·금시기의 길림문화..... 515
一、佛教、僧尼與寺院..... 515	1. 불교, 승려와 사원..... 515
二、契丹文字與女真文字..... 524	2. 거란문자와 여진문자..... 524
三、吉林著名文人學者..... 528	3. 길림의 저명한 문인과 학자..... 528

## 吉林通史 (第二卷)

黃松筠·樂凡 著, 吉林人民出版社, 2008年



目 錄	목 차
第五編 鐵器時代 (三).....1	제5편 철기시대(3)..... 1
第一章 元朝對吉林的行政管轄..... 1	제1장 원의 길림 행정 관할..... 1
一、元朝對吉林各地的統一..... 1	1. 원의 길림 각지 통일..... 1
二、開元路及水達達路的設置..... 5	2. 開元路 및 水達達路의 설립..... 5
三、臨察與軍事機構的設置與職能..... 9	3. 臨察, 군사기구의 설립과 기능..... 9
四、站赤的設置與發展..... 12	4. 站赤의 설치와 발전..... 12
第二章 元代吉林經濟..... 17	제2장 원대 길림 경제..... 17
一、農業的恢復與發展..... 17	1. 농업의 회복과 발전..... 17
二、畜牧與漁獵經濟的發展..... 23	2. 목축과 어로·수렵경제의 발전..... 23
三、手工諸業的發展..... 27	3. 수공업의 발전..... 27
第三章 元代的吉林民族及元朝的滅亡..... 32	제3장 원대의 길림 민족 및 원조의 멸망..... 32
一、各民族的分布..... 32	1. 각 민족의 분포..... 32
二、各民族的社會生活..... 35	2. 각 민족의 사회생활..... 35
三、民族歧視政策與明清民族政策之比較..... 36	3. 민족경시정책과 明清 민족정책의 비교..... 36
四、民族矛盾及元朝滅亡..... 40	4. 민족 갈등 및 원 멸망..... 40
第四章 元代吉林文化與社會習俗..... 45	제4장 원대 길림 문화와 사회풍속..... 45
一、少數民族文字..... 45	1. 소수민족문자..... 45
二、宗教信仰..... 47	2. 종교신앙..... 47
三、各民族的社會習俗..... 50	3. 각 민족의 사회풍속..... 50
四、吉林文化特點..... 56	4. 길림문화의 특징..... 56
第五章 明朝在吉林的統治..... 58	제5장 명의 길림 통치..... 58
一、鏟除故元勢力..... 58	1. 원 세력 제거..... 58
二、對境內蒙古的統一與管轄..... 62	2. 경내 몽고의 통일과 관할..... 62

三、對女真各部的招撫與安置..... 65	3. 여진 각 부의 투항과安置..... 65
四、船廠的設立與糧食等物品運輸..... 69	4. 조선소의 설립과 양식 등 물자 수송..... 69
第六章 明朝羈縻政策在吉林的體現..... 72	제6장 명조의 기미정책..... 72
一、以夷治夷的羈縻政策..... 72	1. 以夷治夷의 기미정책..... 72
二、衛所的權力與義務..... 75	2. 위소의 권력과 의무..... 75
三、敕書與朝貢..... 81	3. 칙서와 조공..... 81
四、馬市與貿易..... 84	4. 馬市와 무역..... 84
五、吉林地區驛站..... 87	5. 길림지역 역참..... 87
第七章 明代吉林的漁獵、農耕、貿易及掠奪經濟..... 91	제7장 명대 길림의 어로·수렵, 농경, 무역 및 약탈경제..... 91
一、漁獵、牧獵經濟的擴大與發展..... 91	1. 어로·수렵경제의 확대와 발전..... 91
二、緩慢發展的農耕經濟..... 97	2. 완만하게 발전한 농경경제..... 97
三、貿易經濟與商業發展..... 109	3. 무역경제와 상업발전..... 109
四、掠奪也是一種經濟活動..... 120	4. 약탈: 일종의 경제활동..... 120
五、明代吉林經濟的發展特徵..... 124	5. 명대 길림 경제의 발전에 보이는 특징..... 124
第八章 明代吉林鐵制工具的使用與手工業的進步..... 127	제8장 명대 길림 철제공구 사용과 수공업의 진보..... 127
一、鐵制工具的來源..... 127	1. 철제공구의 기원..... 127
二、鐵與社會經濟的發展..... 130	2. 철과 사회경제의 발전..... 130
三、鐵制工具與社會進步..... 133	3. 철제공구와 사회진보..... 133
四、其他手工業..... 135	4. 기타 수공업..... 135
第九章 明代吉林地區的民族..... 140	제9장 명대 길림 지역의 민족..... 140
一、女真各部的遷徙與集聚..... 140	1. 여진 각 부의 이주와 집결..... 140
二、占據西部的蒙古各部..... 145	2. 서부를 점거한 몽고 각 부..... 145
三、與女真雜居相處的漢族人、朝鮮人..... 146	3. 여진과 잡거한 한족인, 조선인..... 146
四、民族結構與民族融合..... 150	4. 민족구조와 민족융합..... 150
第十章 明代吉林地區的社會結構..... 155	제10장 명대 길림지역의 사회구조..... 155
一、女真社會的基層組織..... 155	1. 여진사회의 기층조직..... 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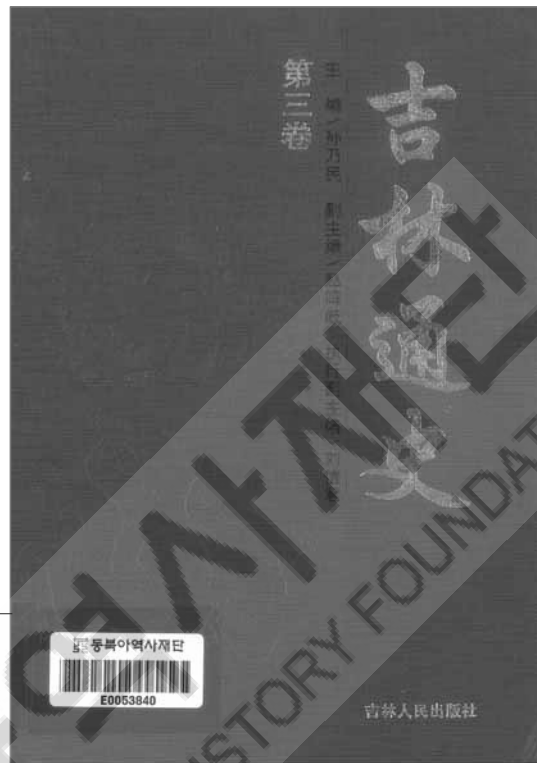
二、八旗的設立及其制度的形成..... 158	2. 八旗의 설립 및 그 제도의 형성..... 158
三、拖克索的形成與發展..... 160	3. 拖克索의 형성과 발전..... 160
四、多種生產方式並存的發展模式..... 167	4. 다양한 생산방식이 병존한 발전 모델..... 167
五、女真商人及其社會影響..... 170	5. 여진 상인 및 그 사회적 영향..... 170
第十一章 滿族共同體的形成與後金政權的統治..... 176	제11장 만주족공동체의 형성과 후금정권의 통치..... 176
一、建州女真的統一..... 176	1. 建州여진 통일..... 176
二、統一海西女真..... 178	2. 海西여진 통합..... 178
三、征服西部蒙古..... 181	3. 서부 몽고 정복..... 181
四、後金政權的建立及統治..... 184	4. 후금정권의 건립 및 통치..... 184
五、滿族共同體的形成..... 186	5. 만주족공동체의 형성..... 186
六、女真文化向滿族文化的轉型..... 188	6. 여진문화에서 만주족문화로..... 188
第十二章 明代吉林文化與社會習俗..... 192	제12장 명대 길림 문화와 사회풍속..... 192
一、女真文字的廢棄..... 192	1. 여진문자의 폐기..... 192
二、宗教信仰..... 193	2. 종교신앙..... 193
三、碑刻與考古..... 194	3. 비각과 출토유적·유물..... 194
四、社會習俗..... 196	4. 사회풍속..... 196
五、居室建築..... 200	5. 주택건축..... 200
六、民族素質與生活方式..... 202	6. 민족자질과 생활방식..... 202
第十三章 清代吉林行政區劃與機構設置..... 206	제13장 청대 길림 행정계획과 기구설치..... 206
一、清代吉林行政區劃..... 206	1. 청대 길림 행정구획..... 206
二、清代吉林行政機構的設置及特點..... 211	2. 청대 길림의 행정기구 설치 및 특징..... 211
三、吉林駐防八旗分布與組織管理..... 219	3. 길림 주둔 八旗 분포와 조직관리..... 219
四、噶珊制度的確立與實施..... 225	4. 噶珊제도의 확립과 실시..... 225
第十四章 清代打牲烏拉總管衙門..... 230	제14장 청대 打牲烏拉總管衙門..... 230
一、打牲烏拉總管衙門的設置與組織..... 230	1. 打牲烏拉總管衙門의 설립과 조직..... 230

二、打牲烏拉總管衙門的職能和轄區..... 235	2. 打牲烏拉總管衙門의 기능과 관할구역..... 235
三、打牲總管對采捕的組織與管理..... 241	3. 打牲烏拉的 採捕 조직과 관리..... 241
四、打牲烏拉“兩衙門”的比較..... 248	4. 打牲烏拉 ‘兩衙門’의 비교..... 248
第十五章 清代吉林船廠與吉林水陸交通..... 252	제15장 청대 길림의 조선소와 길림 수륙교통..... 252
一、清代吉林船廠與吉林造船業..... 252	1. 청대 길림의 조선소와 조선업..... 252
二、清代吉林水陸交通..... 260	2. 청대 길림의 수륙교통..... 260
第十六章 康熙、乾隆東巡吉林..... 264	제16장 강희, 건륭제의 길림동순..... 264
一、康熙東巡吉林..... 264	1. 강희제..... 264
二、乾隆東巡吉林..... 274	2. 건륭제..... 274
三、康熙、乾隆東巡的意義..... 277	3. 강희, 건륭제 동순의 의의..... 277
第十七章 清代吉林封禁政策與柳條邊..... 282	제17장 청대의 길림 봉금정책과 柳條邊..... 282
一、封禁政策的提出與實施..... 282	1. 봉금정책의 제기와 실시..... 282
二、柳條邊的設置與作用..... 288	2. 柳條邊 설치와 작용..... 288
三、卡倫的設置與職能..... 291	3. 카倫의 설치와 기능..... 291
四、封禁政策在吉林實施概況..... 294	4. 길림에서의 封禁정책 실시 개황..... 294
第十八章 清前期流民與吉林農業開發..... 296	제18장 청 전기 유민과 길림 농업개발..... 296
一、流民大量湧入吉林..... 296	1. 유민의 대량유입..... 296
二、流民對吉林各地的農業開發..... 302	2. 유민의 길림 각지 농업개발..... 302
第十九章 清代吉林旗地的經營..... 307	제19장 청대 길림의 旗地경영..... 307
一、清代吉林的一般旗地..... 307	1. 청대 길림의 일반 旗地..... 307
二、清代的吉林官莊..... 315	2. 청대의 길림 官莊..... 315
三、京旗蘇拉移駐吉林..... 318	3. 京旗蘇拉的 吉林이동..... 318
四、旗地的私有與佃賣..... 325	4. 旗地の 사유와 佃賣..... 325
第二十章 清代吉林園場的設置..... 329	제20장 청대 길림의 사냥터..... 329
一、清代吉林園場的設置..... 329	1. 청대 길림 사냥터의 설치..... 329
二、清代設置吉林園場的目的..... 336	2. 청대 길림 사냥터 설치의 목적..... 336

三、吉林園場的開墾..... 338	3. 길림 사냥터의 개간..... 338
第二十一章 清代吉林手工業與城鎮貿易..... 344	제21장 청대 길림 수공업과 도시·촌락 무역..... 344
一、煤炭等礦業的開采和鐵器使用..... 344	1. 석탄 등 광업과 철기사용..... 344
二、采木業及釀造業與玉石雕刻..... 346	2. 벌목, 양조업과 옥석조각..... 346
三、邊外城鎮與商業貿易..... 349	3. 국경 밖 도시·촌락과 상업무역..... 349
第二十二章 清代吉林的各民族及其風俗..... 356	제22장 청대 길림의 각 민족 및 그 풍속..... 356
一、清代吉林的各民族..... 356	1. 청대 길림의 민족..... 356
二、清代吉林各民族習俗..... 364	2. 청대 길림의 민족풍속..... 364
三、清代吉林各民族宗教信仰..... 373	3. 청대 길림의 민족종교신앙..... 373
第二十三章 清代吉林與朝鮮、日本的邊貿、邊界..... 377	제23장 청대 길림과 조선, 일본의 변경무역, 국경..... 377
一、與朝鮮邊境貿易..... 377	1. 조선과의 변경무역..... 377
二、與日本的山丹貿易..... 380	2. 일본과의 山丹무역..... 380
三、中朝民人越境與穆克登查邊..... 385	3. 중·조 양국민의 월경과 穆克登查邊..... 385
第二十四章 清代吉林流人與文化教育..... 393	제24장 청대 길림의 유민 문화교육..... 393
一、清代吉林流人的來源與分布..... 393	1. 청대 길림 유민의 기원과 분포..... 393
二、流人在吉林活動..... 397	2. 유민의 활동..... 397
三、吉林流人文化的形成與發展..... 403	3. 길림 유민 문화의 형성과 발전..... 403
四、吉林地區的教育事業..... 407	4. 길림지역의 교육사업..... 407

## 吉林通史 (第三卷)

孫乃民 主編, 吉林人民出版社, 2008年



目 錄	목 차
第六編 機器工業時代 (1)	제6편 기계공업시대(1)
第一章 沙俄對吉林的野蠻侵略..... 1	제1장 제정러시아의 길림에 대한 야만적 침략..... 1
一、侵占吉林大片領土..... 1	1. 길림 영토 侵占..... 1
二、修築中東鐵路..... 8	2. 中東철로 건설..... 8
三、占領吉林省城..... 14	3. 길림성 성도 점령..... 14
四、日俄戰爭及對吉林的瓜分..... 16	4. 러일전쟁 및 길림의 분할..... 16
第二章 吳大澂籌措邊防..... 22	제2장 吳大澂의 국경수비..... 22
一、奉旨赴吉籌邊..... 22	1. 칙명 하의 길림 변경 경영..... 22
二、編練近代化防軍..... 27	2. 근대화 방군 훈련..... 27
三、開發吉林東部邊疆..... 29	3. 길림 동부 변경의 개발..... 29
四、會勘邊界力挽主權..... 33	4. 국경 공동조사와 주권 회복..... 33
第三章 中朝邊界爭端與交涉..... 40	제3장 朝中 국경분쟁과 교섭..... 40
一、朝鮮邊民非法進入吉林墾荒..... 40	1. 조선 변경민의 불법 진입과 개간..... 40
二、朝鮮政府挑起邊界爭議..... 43	2. 조선정부의 국경논쟁 도발..... 43
三、中朝圖們江兩次勘界..... 46	3. 朝中 양측의 두 차례에 걸친 두만강 측량..... 46
四、朝鮮軍隊侵入中國延邊地區..... 51	4. 조선 군대의 중국 연변지역 침입..... 51
第四章 吉林人民的反封建反侵略鬥爭..... 57	제4장 길림 인민의 반봉건 반침략 투쟁..... 57
一、反抗清政府的鬥爭..... 57	1. 반청투쟁..... 57
二、義和團運動興起..... 62	2. 의화단운동 흥기..... 62
三、抗擊沙俄的武裝鬥爭..... 66	3. 제정러시아에 대한 무장 공격..... 66
四、吳祿貞籌邊建功..... 73	4. 吳祿貞, 변경 경영에 공을 세우다..... 73
第五章 吉林土地的開發和農業的近代化..... 84	제5장 길림 토지의 개발과 농업의 근대화..... 84
一、清末的弛禁政策..... 84	1. 청말의 이금정책..... 84

二、流民和移民湧入吉林····· 86	2. 유·이민의 길림 유입····· 86
三、吉林土地的初步開發····· 88	3. 길림 토지의 초기 개발····· 88
四、封建土地關係的瓦解····· 92	4. 봉건토지관계의 와해····· 92
五、農業近代化的發端····· 95	5. 농업 근대화의 시작····· 95
第六章 機器工業的產生與初步發展····· 99	제6장 기계공업의 탄생과 초기 발전····· 99
一、吉林機器局的開辦····· 99	1. 길림 機器局的 설립····· 99
二、工礦業的初步興辦····· 103	2. 광공업의 초기 창설····· 103
三、傳統手工業的轉變····· 108	3. 전통 수공업의 변화····· 108
四、近代交通通信業的興辦····· 111	4. 근대 교통·통신업의 창설····· 111
第七章 新舊文化的交替····· 115	제7장 新舊문화의 교체····· 115
一、近代新式教育的興起····· 115	1. 근대 신식교육의 흥기····· 115
二、近代報刊的創辦····· 126	2. 근대 신문의 창간····· 126
三、經世致用史學的發展····· 133	3. 경세치용 史學의 발전····· 133
四、吉林三傑的文學造詣····· 138	4.吉林 三傑의 문학 조예····· 138
第八章 滄桑巨變中的吉林社會····· 143	제8장 격변하는 길림사회····· 143
一、馬賊蜂起及演變····· 143	1. 마적의 붐기 및 변천····· 143
二、改善旗人生計····· 149	2. 旗人의 생계 개선····· 149
三、洪水與火災並重····· 150	3. 홍수와 화재····· 150
四、鼠疫肆虐流行····· 155	4. 페스트 유행····· 155
第九章 辛亥革命在吉林的開展與失敗····· 163	제9장 길림에서의 신해혁명 전개와 실패····· 163
一、辛亥革命前夕吉林省的社會狀況····· 163	1. 신해혁명 전야 길림성의 사회상황····· 163
二、革命黨人在吉林開展活動····· 166	2. 길림의 혁명당원 활동····· 166
三、熊成基英勇就義····· 168	3. 熊成基의 용감한 의거····· 168
四、辛亥革命在吉林的失敗····· 172	4. 길림의 신해혁명 실패····· 172
第十章 奉系軍閥兼並統治吉林····· 177	제10장 奉系軍閥의 길림 병탄과 통치····· 177
一、孟恩遠出掌吉林····· 177	1. 孟恩遠의 길림 장악····· 177

二、奉吉政治紛爭····· 180	2. 奉吉 정치분쟁····· 180
三、寬城子事件····· 184	3. 寬城子사건····· 184
四、張作相督吉····· 187	4. 張作相의 길림 관리····· 187
第十一章 日本帝國主義對吉林的侵略····· 192	제11장 일본 제국주의의 길림 침략····· 192
一、日本對吉林的早期侵略····· 192	1. 일본의 초기 길림 침략····· 192
二、製造“鄭家屯事件”····· 195	2. ‘鄭家屯사건’ 조작····· 195
三、武力侵犯中國延邊····· 199	3. 중국 연변의 무력 침범····· 199
四、經濟侵略日益加深····· 202	4. 경제침략의 심화····· 202
第十二章 中共在吉林的早期活動與發展····· 208	제12장 中共의 초기 활동과 발전····· 208
一、五四運動在吉林····· 208	1. 길림의 5·4운동····· 208
二、共產黨人在吉林的早期活動····· 211	3. 길림의 공산당원 초기 활동····· 211
三、籌建黨團組織····· 214	3. 黨團조직 건설 준비····· 214
四、開展群眾運動····· 217	4. 대중운동의 전개····· 217
第十三章 近代農業的發展····· 225	제13장 근대 농업의 발전····· 225
一、農業開發的鼓勵政策與移民浪潮的出現····· 225	1. 농업 개발 장려정책과 이민 풍조 출현····· 225
二、土地的全面開發····· 231	2. 토지의 전면적 개발····· 231
三、近代農業的發展與興旺····· 235	3. 근대 농업의 발전과 흥성····· 235
四、農村經濟關係的新變化····· 239	4. 농촌 경제관계의 새로운 변화····· 239
第十四章 機器工業的振興····· 244	제14장 기계공업의 진흥····· 244
一、工礦業的鼓勵政策····· 244	1. 광공업 장려 정책····· 244
二、礦業的進一步開發····· 247	2. 광업의 진일보 개발····· 247
三、近代機器工業的發展····· 252	3. 근대 기계공업의 발전····· 252
四、交通通信業的迅速興起····· 259	4. 신속하게 발전한 교통·통신업····· 259
第十五章 金融商業的發展與財政一般狀況····· 266	제15장 금융상업의 발전과 재정의 일반상황····· 266
一、金融業的發展····· 266	1. 금융업의 발전····· 266

二、商業的繁榮與外貿的開展..... 274	2. 상업의 번영과 대외무역의 전개..... 274
三、財政稅收狀況..... 279	3. 재정 세수 상황..... 279
第十六章 近代城市的形成與變遷..... 285	제16장 근대 도시의 형성과 변천..... 285
一、長春的演變..... 285	1. 장춘의 변화..... 285
二、吉林省城的發展..... 291	2. 길림성 성도의 발전..... 291
三、其它城鎮的興起..... 297	3. 기타 도시·촌락의 흥기..... 297
第十七章 近代文化教育的興起與發展..... 304	제17장 근대문화교육의 흥기와 발전..... 304
一、改良取締私塾..... 304	1. 사숙의 단속 및 개선..... 304
二、發展新式教育..... 307	2. 신식교육 발전..... 307
三、興辦社會教育..... 315	3. 사회교육 시작..... 315
四、發展文化事業..... 318	4. 문화사업 발전..... 318
第十八章 動蕩混亂的吉林社會..... 322	제18장 혼란한 길림사회..... 322
一、土匪攻占城池..... 322	1. 토비의 도시 공격과 점령..... 322
二、軍隊變與臨獄暴動..... 325	2. 군사정변과 옥중폭동..... 325
三、煙賭娼泛濫..... 329	3. 아편, 도박 그리고 매춘의 범람..... 329
四、吏治的腐敗..... 334	4. 관리 부패..... 334
第七編 機器工業時代(二)..... 338	제7편 기계공업시대(2)..... 338
第十九章 “九一八”事變與吉林淪陷..... 338	제19장 '918'사변과 길림 함락..... 338
一、製造“萬寶山事件”..... 338	1. ‘萬寶山사건’ 날조..... 338
二、占領長春、吉林..... 343	2. 장춘, 길림 점령..... 343
三、成立傀儡政權..... 348	3. 괴뢰정권의 성립..... 348
四、控制經濟命脈..... 353	4. 핵심 경제 통제..... 353
第二十章 風起雲湧的武裝抗日鬥爭..... 356	제20장 구름처럼 일어나는 무장항일투쟁..... 356
一、義勇軍奮勇抗敵..... 356	1. 의용군의 용맹한 반격..... 356
二、抗日山林隊舉旗殺敵..... 361	2. 항일山林隊의 투쟁..... 361
三、中共組織抗日武裝..... 364	3. 중공, 항일무장 투쟁을 조직하다..... 3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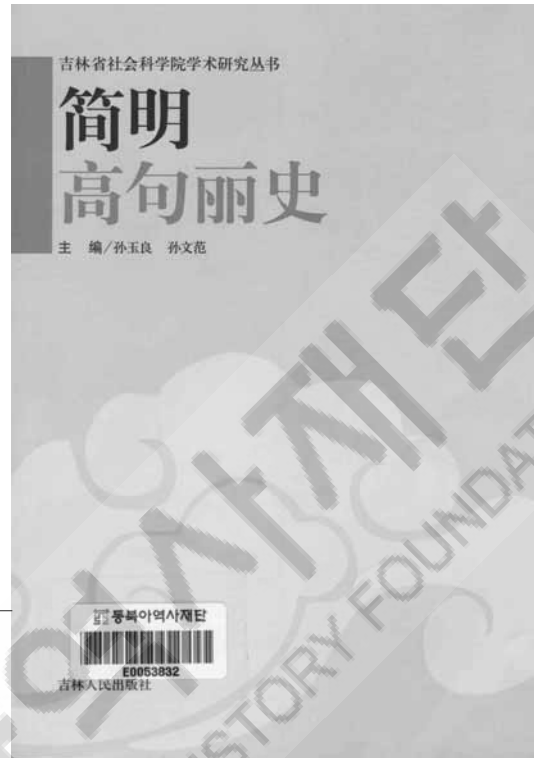
四、各階層人民的反日鬭爭..... 366	4. 각 계층 인민의 반일 투쟁..... 366
第二十一章 日偽實行的法西斯統治..... 369	제21장 일본의 파쇼통치..... 369
一、通知機構的調整與加強..... 369	1. 통지기구의 조정과 강화..... 369
二、東邊道大討伐..... 374	2. 東邊道 대토벌..... 374
三、製造血腥慘案..... 376	3. 피비린내 나는 사건 날조..... 376
四、第“一〇〇”部隊的罪惡..... 379	4. 제 ‘100’ 부대의 죄악..... 379
第二十二章 殖民地農業的形成..... 383	제22장 식민지 농업의 형성..... 383
一、移民吉林與掠奪土地..... 383	1. 길림 이민과 토지 약탈..... 383
二、對農村經濟的統制..... 390	2. 농촌 경제 통제..... 390
三、農業合作社經濟的膨脹..... 396	3. 농업합작사 경제의 팽창..... 396
四、農村生產關係的變化及農業生產力的停滯..... 399	4. 농촌 생산관계의 변화 및 농업 생산력의 정체..... 399
第二十三章 殖民地機器工業的畸形膨脹..... 405	제23장 식민지 기계공업의 기형적 팽창..... 405
一、逐步加強經濟統制..... 405	1. 경제통제의 점진적 강화..... 405
二、日偽工業的畸形膨脹..... 409	2. 일본 통치하 공업의 기형적 팽창..... 409
三、民族工業的凋敝..... 414	3. 민족공업의 쇠퇴..... 414
四、工人的悲慘境遇與反抗鬥爭..... 418	4. 노동자의 비참한 상황과 반항투쟁..... 418
第二十四章 殖民地金融貿易的統制..... 422	제24장 식민지 금융무역의 통제..... 422
一、偽滿中央銀行的成立..... 422	1. 偽滿중앙은행의 성립..... 422
二、貨幣統制與資本侵略..... 425	2. 화폐통제와 자본침략..... 425
三、對外貿易的壟斷..... 432	3. 대외무역의 독점..... 432
四、民族商業和金融業的衰落..... 436	4. 민족상업과 금융업의 쇠락..... 436
第二十五章 日偽的文化專制與奴化教育..... 446	제25장 일본의 문화독재와 노예화교육..... 446
一、建立文化專制體系..... 446	1. 문화전제체제 구축..... 446
二、實行奴化教育..... 453	2. 노예화교육 실행..... 453
三、信奉“惟神之道”，加強思想統治..... 457	3. ‘惟神之道’ 신봉, 사상통치 강화..... 457

第二十六章 暗無天日的吉林社會..... 461	제26장 암흑에 쌓인 길림사회..... 461
一、水深火熱의 百姓生活..... 461	1. 고통스런 백성의 생활..... 461
二、惡毒의 鴉片政策..... 469	2. 악랄한 아편정책..... 469
三、妓院理의 婦女血淚..... 474	3. 기녀의 피눈물..... 474
第二十七章 東北抗日聯軍의 艱苦鬭爭與 隱蔽戰線上的 抗日鬭爭..... 478	제27장 동북항일연군의 간난한 투쟁과 은밀한 항일투쟁..... 478
一、組建抗日聯軍..... 478	1. 항일연군 조직..... 478
二、第一軍의 兩次 “西征”..... 483	2. 제1군의 두 차례 ‘西征’..... 483
三、轉戰輯安山區..... 486	3. 집안 산악 지역 유격전..... 486
四、楊靖宇壯烈犧牲..... 488	4. 楊靖宇의 장렬한 희생..... 488
五、野營訓練與 小規模遊擊..... 491	5. 야영훈련과 소규모 유격전..... 491
六、隱蔽戰線上的 抗日鬭爭..... 494	6. 은밀한 항일투쟁..... 494
第二十八章 日偽統治의 崩潰與 覆滅..... 499	제28장 일본 통치의 궤멸..... 499
一、蘇聯出兵東北..... 499	1. 소련의 동북 출병..... 499
二、溥儀通化 “退位”..... 504	2. 부의, 통화에서 ‘퇴위’..... 504
三、投降前後의 日人醜態..... 506	3. 투항 전후 日人의 추태..... 506
四、大小漢奸의 醜惡表演..... 510	4. 대·소 매국노의 추악한 행위..... 510
第二十九章 國共對吉林의 爭奪..... 514	제29장 國共의 길림 쟁탈..... 514
一、國共謀略東北..... 514	1. 국·공의 동북 도모..... 514
二、中蘇長春談判..... 518	2. 중·소 장춘담판..... 518
三、國共和談與 四平鏖戰..... 521	3. 국·공 평화회담과 四平격전..... 521
四、東北六月停戰與 拉新爭奪..... 525	4. 6월 휴전과 拉新쟁탈..... 525
第三十章 中共建立 東滿西滿根據地..... 528	제30장 中共의 東滿, 西滿 근거지 건설..... 528
一、建立各級黨政組織..... 528	1. 각급 당정 조직 건설..... 528
二、剿匪鏟奸鬥爭..... 531	2. 비적, 배반자와의 투쟁..... 531
三、實行土地改革..... 533	3. 토지개혁의 실행..... 533
四、恢復經濟發展生產..... 536	4. 경제 발전과 생산 회복..... 536

五、文教衛生事業의 發展..... 539	5. 문교 위생 사업의 발전..... 539
第三十一章 國民黨統治在 占領區의 確立..... 544	제31장 점령지의 국민당 통치 확립..... 544
一、各級行政機構의 建立..... 544	1. 각급 행정 기구의 건설..... 544
二、對敵偽資產의 統一接收..... 547	2. 괴뢰정권 자본 일괄 몰수..... 547
三、國統區經濟의 停滯..... 550	3. 국민당 통치 지역 경제의 정체..... 550
四、推行戰時文化教育..... 553	4. 병사에 대한 문화교육의 보급..... 553
第三十二章 東北民主聯軍由 戰略相持轉入 戰略反攻..... 557	제32장 동북민주연군 지구전에서 반격전으로..... 557
一、四保臨江 三下江南戰役..... 557	1. 四保臨江, 三下江南..... 557
二、夏季攻勢與 四平攻堅戰..... 562	2. 하계 공세와四平 함락전..... 562
三、秋季攻勢與 吉林省大部分地區解放..... 564	3. 추계 공세와 길림 대부분 지역의 해방..... 564
四、冬季攻勢與 吉林、四平收復..... 566	4. 동계 공세와 길림,四平 수복..... 566
第三十三章 國統區經濟崩潰與 政治危機..... 569	제33장 국민당 통치 지역의 경제 붕괴와 정치 위기..... 569
一、白色恐怖의 法西斯統治..... 569	1. 백색 파쇼 통치..... 569
二、經濟危機의 出現..... 573	2. 경제 위기의 출현..... 573
三、政治危機의 爆發..... 575	3. 정치 위기의 폭발..... 575
四、圍困中的 長春..... 578	4. 포위된 장춘..... 578
第三十四章 長春解放與 吉林經濟의 全面建設..... 587	제34장 장춘 해방과 길림 경제의 전면적 건설..... 587
一、六十軍光榮起義..... 587	1. 六十軍의 영광스런 의거..... 587
二、新七軍被迫投誠..... 592	2. 新7軍 투항..... 592
三、鄭洞國放下武器..... 595	3. 鄭洞國 무기를 내려놓다..... 595
四、吉林人民在 解放戰爭中的 貢獻..... 599	4. 길림 인민의 해방 전쟁 공헌..... 599
五、吉林經濟의 恢復與 初步發展..... 602	5. 길림 경제의 회복과 초기 발전..... 602
六、迎接、慶祝 中華人民共和國 誕生..... 605	6. 중화인민공화국 탄생..... 605
後記..... 607	후기..... 607

# 簡明高句麗史

孫玉良·孫文範 主編，吉林人民出版社，2008年



目 錄	목 차
前 言..... 1	머리말..... 1
第一章 高句麗族源及族稱演變..... 1	제1장 고구려의 족원 및 족칭 변천..... 1
第一節 東北及朝鮮半島的早期民族..... 1	제1절 동북 및 한반도의 초기 민족..... 1
第二節 鐵器時代東北及朝鮮半島的中國古族古國..... 6	제2절 철기시대 동북 및 한반도의 중국 古族 古國..... 6
第三節 高句麗先世高夷及貉人的發展..... 11	제3절 고구려 선대 高夷 및 貉人の 발전..... 11
第四節 高句麗族誕生的時間及初期發展..... 16	제4절 고구려족의 탄생 시간 및 초기 발전..... 16
第五節 高句麗族稱的演變..... 22	제5절 고구려의 족칭 변천..... 22
第二章 高句麗王國的建立..... 31	제2장 고구려 왕국의 성립..... 31
第一節 漢玄菟郡及高句麗縣的設立..... 31	제1절 漢 玄菟郡 및 고구려현의 설립..... 31
第二節 高句麗的建國傳說..... 36	제2절 고구려의 건국설화..... 36
第三節 高句麗的諸王世系..... 38	제3절 고구려의 諸王의 계보..... 38
第四節 高句麗的繼統制度..... 44	제4절 고구려의 왕위 계승제도..... 44
第三章 高句麗的對外擴張..... 51	제3장 고구려의 대외 확장..... 51
第一節 高句麗諸部的統一..... 51	제1절 고구려 제부의 통일..... 51
第二節 高句麗對夫餘的吞並..... 54	제2절 고구려의 부여 병탄..... 54
第三節 高句麗向朝鮮半島的擴張..... 58	제3절 고구려의 한반도 확장..... 58
第四節 高句麗對遼東的掠取..... 66	제4절 고구려의 요동 경략..... 66
第五節 好太王的武功..... 71	제5절 好太王의 무훈..... 71
第四章 高句麗同中原王朝的關係..... 77	제4장 고구려와 중원 왕조의 관계..... 77
第一節 兩漢政權對高句麗的管轄..... 77	제1절 兩漢정권의 고구려 관할..... 77
第二節 高句麗與曹魏政權的衝突..... 81	제2절 고구려와 曹魏정권의 충돌..... 81
第三節 高句麗與慕容氏政權的爭奪..... 84	제3절 고구려와 慕容氏정권의 투쟁..... 84

<p>第四節 高句麗同南北朝諸政權的修好..... 88</p> <p>第五節 隋朝對高句麗的經略..... 91</p> <p>第六節 唐朝對高句麗的征伐..... 94</p> <p>第五章 高句麗與周鄰的關係..... 97</p> <p>第一節 高句麗對肅慎、靺鞨的驅使..... 97</p> <p>第二節 高句麗對沃沮及鮮卑諸部的征伐..... 101</p> <p>第三節 高句麗與百濟的爭鬥..... 105</p> <p>第四節 高句麗與新羅的爭鬥..... 112</p> <p>第五節 高句麗與日本的交征..... 119</p> <p>第六章 高句麗的王都..... 126</p> <p>第一節 早期都城..... 126</p> <p>第二節 中期都城..... 130</p> <p>第三節 後期都城..... 141</p> <p>第四節 高句麗都城特點與演變..... 144</p> <p>第七章 高句麗的社會性質及統治機構..... 147</p> <p>第一節 高句麗的五部..... 147</p> <p>第二節 高句麗的社會形態和社會制度..... 153</p> <p>第三節 高句麗後期的封建社會..... 163</p> <p>第四節 中央集權與郡縣制..... 165</p> <p>第五節 高句麗後期官吏的設置和演變..... 174</p> <p>第六節 高句麗的階級構成..... 179</p> <p>第八章 高句麗的經濟..... 183</p> <p>第一節 農業生產..... 183</p> <p>第二節 手工業..... 187</p> <p>第三節 漁獵與畜牧..... 194</p> <p>第四節 商業與貨幣..... 196</p>	<p>제4절 고구려와 南北朝諸정권의 선린관계..... 88</p> <p>제5절 隋朝의 고구려 경략..... 91</p> <p>제6절 唐朝의 고구려 정벌..... 94</p> <p>제5장 고구려와 주변의 관계..... 97</p> <p>제1절 고구려의 숙신, 말갈 사역..... 97</p> <p>제2절 고구려의 옥저 및 선비제부 정벌..... 101</p> <p>제3절 고구려와 백제의 투쟁..... 105</p> <p>제4절 고구려와 신라의 투쟁..... 112</p> <p>제5절 고구려와 일본의 交征..... 119</p> <p>제6장 고구려의 왕도..... 126</p> <p>제1절 초기 수도..... 126</p> <p>제2절 중기 수도..... 130</p> <p>제3절 후기 수도..... 141</p> <p>제4절 고구려 수도의 특징과 변천..... 144</p> <p>제7장 고구려의 사회성격 및 통치기구..... 147</p> <p>제1절 고구려의 五部..... 147</p> <p>제2절 고구려의 사회형태와 사회제도..... 153</p> <p>제3절 고구려 후기의 봉건사회..... 163</p> <p>제4절 중앙집권과 군현제..... 165</p> <p>제5절 고구려 후기 관리의 설치 및 변천..... 174</p> <p>제6절 고구려의 계급 구성..... 179</p> <p>제8장 고구려의 경제..... 183</p> <p>제1절 농업생산..... 183</p> <p>제2절 수공업..... 187</p> <p>제3절 어로·수렵과 목축..... 194</p> <p>제4절 상업과 화폐..... 196</p>
---	--

<p>第五節 水路交通..... 198</p> <p>第九章 高句麗的社會生活與民俗..... 207</p> <p>第一節 簡農節食之俗..... 207</p> <p>第二節 喜歌善舞、狩獵成風..... 210</p> <p>第三節 祭祀、婚喪習俗..... 214</p> <p>第十章 高句麗的文化..... 219</p> <p>第一節 思想宗教..... 219</p> <p>第二節 文學藝術..... 231</p> <p>第三節 教育體育..... 234</p> <p>第十一章 高句麗的建築..... 237</p> <p>第一節 城邑建築..... 237</p> <p>第二節 高句麗千裏長城..... 242</p> <p>第三節 高句麗的墓葬..... 243</p> <p>第四節 寺廟、衙署與民宅..... 247</p> <p>第五節 建築飾件..... 250</p> <p>第十二章 石雕壁畫與碑刻題記..... 254</p> <p>第一節 人像石刻、無字碑與石柱..... 254</p> <p>第二節 古墓壁畫..... 256</p> <p>第三節 卍丘儉紀功碑..... 263</p> <p>第四節 好太王碑..... 265</p> <p>第五節 中原郡碑..... 277</p> <p>第六節 冉牟墓墨書題記..... 279</p> <p>第七節 安丘三號墓與德興裏壁畫墓書題記..... 282</p> <p>第十三章 高句麗政權的滅亡與民族解體..... 286</p>	<p>제5절 수로교통..... 198</p> <p>제9장 고구려의 사회생활과 풍속..... 207</p> <p>제1절 簡農節食의 풍습..... 207</p> <p>제2절 가무 선율, 수렵 성행..... 210</p> <p>제3절 제사, 혼상풍속..... 214</p> <p>제10장 고구려의 문화..... 219</p> <p>제1절 사상종교..... 219</p> <p>제2절 문학예술..... 231</p> <p>제3절 교육체육..... 234</p> <p>제11장 고구려의 건축..... 237</p> <p>제1절 성읍건축..... 237</p> <p>제2절 고구려 천리장성..... 242</p> <p>제3절 고구려의 무덤..... 243</p> <p>제4절 사찰, 관청과 민가..... 247</p> <p>제5절 건축장식품..... 250</p> <p>제12장 석조, 벽화와 비각제기..... 254</p> <p>제1절 인형석각, 무자비와 석주..... 254</p> <p>제2절 고분벽화..... 256</p> <p>제3절 관구검기공비..... 263</p> <p>제4절 광개토태왕비..... 265</p> <p>제5절 中原郡碑..... 277</p> <p>제6절 冉牟墓墨書題記..... 279</p> <p>제7절 안악 3호분과 덕흥리벽화 목서제기..... 282</p> <p>제13장 고구려정권의 멸망과 민족 해체..... 286</p>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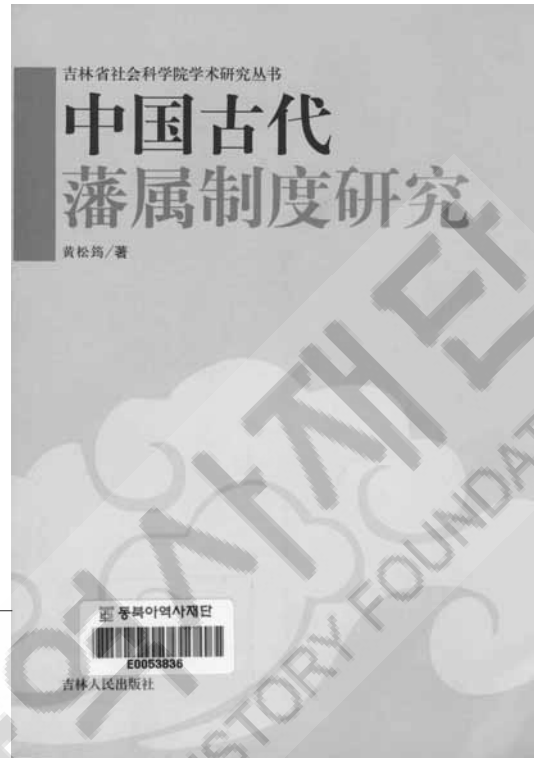
第一節 統治者の殘暴統治.....	286	제1절 통치자의 폭정.....	286
第二節 統治集團의 內訌.....	288	제2절 통치집단의 내분.....	288
第三節 高句麗政權의 滅亡及影響.....	292	제3절 고구려정권의 멸망 및 영향.....	292
第四節 高句麗民族의 消亡.....	298	제4절 고구려민족의 소멸.....	298
後 記.....	305	후 기.....	305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中國古代藩屬制度研究

黃松筠 著, 吉林人民出版社, 2008年



目 錄	목 차
前 言..... 1	머리말..... 1
上篇 中國古代藩屬制度的五個發展階段	상편 중국 고대 번속제도의 다섯 발전단계
第一章 中國古代藩屬制度的形成..... 3	제1장 중국 고대 번속제도의 형성..... 3
一、商代侯國與西周封國的本質不同..... 3	1. 商代 侯國과 西周 封國의 본질은 다르다..... 3
二、西周分封諸侯的歷史背景..... 6	2. 서주 분봉제후의 역사배경..... 6
三、西周分封制度的基本內容..... 7	3. 서주 분봉제도의 기본내용..... 7
四、西周分封制度的歷史作用..... 13	4. 서주 분봉제도의 역사작용..... 13
五、春秋戰國采邑制與封君制..... 17	5. 춘추전국采邑制와 封君制..... 17
六、中國古代藩屬制度的初步形成..... 22	6. 중국 고대 번속제도의 초보적 형성..... 22
第二章 中國古代藩屬制度的確立..... 26	제2장 중국 고대 번속제도의 확립..... 26
一、秦王朝對分封制度的摺棄..... 26	1. 진 왕조의 분봉제도 포기..... 26
二、西漢初年大封同姓諸侯王..... 28	2.전한 초기 同姓 제후왕의 대량 봉건..... 28
三、七國之亂與諸王不得治民..... 30	3. 7국의 난과 제후왕의 통치권 박탈..... 30
四、兩漢境內屬國與比郡屬國..... 35	4. 전한 경내 속국과 比郡속국..... 35
五、兩漢都護管理的藩屬政權..... 39	5. 전한 도호 관리의 번속정권..... 39
六、兩漢邊郡邊縣的藩屬政權..... 45	6. 전한 변군, 변현의 번속정권..... 45
七、魏晉及南北朝的都護制度..... 48	7. 위진 및 남북조의 도호제도..... 48
八、古代藩屬理論體系的形成..... 49	8. 고대 번속이론체계의 형성..... 49
九、中國古代藩屬制度的確立..... 55	9. 중국 고대 번속제도의 확립..... 55
第三章 中國古代藩屬制度的創新..... 57	제3장 중국 고대 번속제도의 창조..... 57

<p>一、唐代初年邊疆的嚴峻局勢..... 57</p> <p>二、朝廷有關分封的一場議論..... 59</p> <p>三、塞北邊疆所建立的都督府..... 60</p> <p>四、都護府在四方邊疆的建立..... 63</p> <p>五、都護府機構的官員及職責..... 70</p> <p>六、唐代藩屬理論與民族政策..... 73</p> <p>七、唐朝時期的境內外諸屬國..... 80</p> <p>八、中國古代藩屬制度的創新..... 83</p> <p>第四章 中國古代藩屬制度的強化..... 88</p> <p>一、畏兀兒亦都護與高麗、安南..... 88</p> <p>二、總制院與烏斯藏三路宣慰司..... 92</p> <p>三、土司制度在雲南地區的建立..... 94</p> <p>四、明邊疆形勢與大封同姓藩王..... 96</p> <p>五、建文帝削藩與燕王北平起兵..... 100</p> <p>六、北線都司衛所與長城、九邊..... 102</p> <p>七、朵甘、烏斯藏行都指揮使司..... 110</p> <p>八、西南土司制度的發展與控制..... 113</p> <p>九、明朝屬國朝鮮、安南、琉球..... 115</p> <p>十、中國古代藩屬制度的強化..... 119</p> <p>第五章 中國古代藩屬制度的完備..... 121</p> <p>一、統一黑龍江流域與黑龍江八旗..... 121</p> <p>二、綏定漢南蒙古與創立盟旗制度..... 126</p> <p>三、平定三藩叛亂和收復寶島台灣..... 129</p> <p>四、戰敗噶爾丹與外蒙察薩克制度..... 133</p> <p>五、烏裏雅蘇台與駐紮制度的建立..... 136</p> <p>六、安定西藏以及達賴與駐藏大臣..... 137</p>	<p>1. 당대 초기 변경의 심각한 정세..... 57</p> <p>2. 朝廷의 분봉 논의..... 59</p> <p>3. 塞北 변경에 건립된 도독부..... 60</p> <p>4. 사방 변경 내 도독부의 건립..... 63</p> <p>5. 도독부 기구의 관원 및 직책..... 70</p> <p>6. 당대 번속이론과 민족정책..... 73</p> <p>7. 당대 국내의 여러 속국..... 80</p> <p>8. 중국 고대 번속제도의 창조..... 83</p> <p>제4장 중국 고대 번속제도의 강화..... 88</p> <p>1. 畏兀兒亦 도와와 고려, 安南..... 88</p> <p>2. 총제원과 烏斯藏 三路 선위사..... 92</p> <p>3. 운남지역 내 토사제도의 창립..... 94</p> <p>4. 명대 변경 형세와 同姓 藩王의 대량 봉건..... 96</p> <p>5. 建文帝 削藩과 燕王 北平 출병..... 100</p> <p>6. 北線 都司衛所와 만리장성, 九邊..... 102</p> <p>7. 朵甘, 烏斯藏 行都指揮使司..... 110</p> <p>8. 서남 토사제도의 발전과 통제..... 113</p> <p>9. 명 속국 조선, 安南, 오키나와..... 115</p> <p>10. 중국 고대 번속제도의 강화..... 119</p> <p>제5장 중국 고대 번속제도의 완비..... 121</p> <p>1. 흑룡강 유역 통일과 흑룡강八旗..... 121</p> <p>2. 漢南 몽고 평정과 盟旗제도 창립..... 126</p> <p>3. 三藩반란 평정과 台灣 수복..... 129</p> <p>4. 噶爾丹 격파와 외몽고 察薩克제도..... 133</p> <p>5. 烏裏雅蘇台와 주둔제도의 성립..... 136</p> <p>6. 티베트의 안정 및 달라이라마와 주티베트대신..... 137</p>
---	---

<p>七、底定准噶爾，回疆與伊犁將軍..... 140</p> <p>八、改土歸流以及大小金川的戰爭..... 144</p> <p>九、黑龍江及烏蘇裏江的噶珊制度..... 148</p> <p>十、朝鮮琉球越南暹羅緬甸五屬國..... 151</p> <p>十一、理藩院的設置，職能及其意義..... 158</p> <p>十二、中國古代藩屬制度的完備..... 160</p> <p>下篇 中國古代藩屬制度的幾個理論問題</p> <p>第六章 中國古代藩屬制度實質是國家政體說..... 165</p> <p>一、藩屬制是對君主政體王權的一種確認..... 165</p> <p>二、藩屬國是王朝地方政權另類構成形式..... 167</p> <p>三、藩屬制度是君主專制政體的重要內容..... 169</p> <p>四、古代政體中藩屬制度的三大基本特征..... 172</p> <p>第七章 中國古代政體的一朝(國)兩制..... 174</p> <p>一、一朝(國)兩制源於西周的分封制度..... 174</p> <p>二、藩屬制度之下的一朝兩制與一國兩制..... 176</p> <p>三、一朝(國)兩制的依據、目的及後果..... 178</p> <p>第八章 藩屬制度下的地方自治與民族自治..... 182</p> <p>一、西周分封制度下的地方自治與民族自治..... 182</p> <p>二、歷代藩屬制度下的地方自治與民族自治..... 184</p> <p>三、藩屬自治的意義及後果..... 188</p> <p>第九章 藩衛內向是藩屬制度固有的屬性..... 191</p> <p>一、分封諸侯與建立藩屬國的預期目的..... 191</p> <p>二、從古代藩屬理論看藩屬制度的藩衛內向..... 193</p> <p>三、萬裏長城向世人所展示的藩衛內向..... 196</p>	<p>7. 准噶爾，回疆 평정과 伊犁장군..... 140</p> <p>8. 改土歸流 및 大小金川의 전쟁..... 144</p> <p>9. 흑룡강 및 烏蘇裏江의 噶珊제도..... 148</p> <p>10. 조선, 오키나와, 베트남, 태국, 미얀마 등 다섯 속국..... 151</p> <p>11. 이변원의 설치, 기능 및 그 의의..... 158</p> <p>12. 중국 고대 번속제도의 완비..... 160</p> <p>하편 중국 고대 번속제도에 관한 몇몇 이론 문제</p> <p>제6장 중국 고대 번속제도의 본질은 국가정체설..... 165</p> <p>1. 번속제는 군주정체 왕권에 대한 확인..... 165</p> <p>2. 번속국은 왕조 지방정권의 또 다른 구성 형식..... 167</p> <p>3. 번속제도는 군주전제정체의 중요 내용..... 169</p> <p>4. 고대 정제 중 번속제도의 3대 기본 특징..... 172</p> <p>제7장 중국 고대 정치체제의一朝(國)兩制..... 174</p> <p>1. 서주의 분봉제도에서 기원한一朝(國)兩制..... 174</p> <p>2. 번속제도하의一朝兩制과一國兩制..... 176</p> <p>3.一朝(國)兩制의 근거, 목적 및 결과..... 178</p> <p>제8장 번속제도하의 지방자치와 민족자치..... 182</p> <p>1. 서주 분봉제도하의 지방자치와 민족자치..... 182</p> <p>2. 역대 번속제도하의 지방자치와 민족자치..... 184</p> <p>3. 번속자치의 의의 및 결과..... 188</p> <p>제9장 藩衛의 내향성은 번속제도 고유의 속성..... 191</p> <p>1. 분봉제후와 번속국 건립의 목적..... 191</p> <p>2. 고대번속이론으로 본 번속제도의 변위의 내향성..... 193</p> <p>3. 만리장성이 보여주는 변위의 내향성..... 196</p>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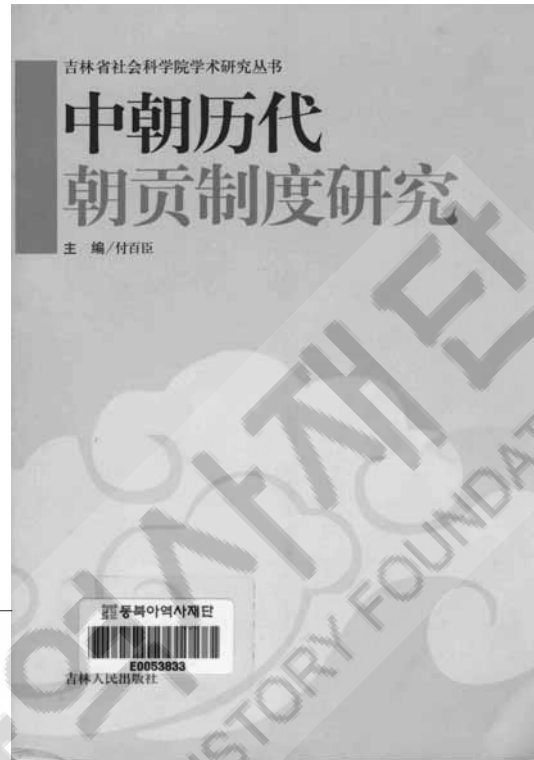
四、從藩屬制與殖民制的對立看藩衛內向.....	197	4. 번속제와 식민제의 대립으로 본 변위의 내향성.....	197
第十章 藩屬制度促進了中華民族的形成.....	199	제10장 번속제도는 중화민족의 형성을 촉진했다.....	199
一、分封制度加速了中原華夏民族的形成.....	199	1. 분봉제도는 중원 화하민족의 형성을 가속화했다.....	199
二、一朝兩制有益於周邊民族的社會發展.....	201	2.一朝兩制는 주변 민족의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됐다.....	201
三、民族自治增強了少數民族文化之特色.....	203	3. 민족자치는 소수민족문화의 특색을 강화했다.....	203
四、藩衛內向客觀上促成了中華民族形成.....	205	4. 변위의 내향성은 객관적으로 중화민족 형성을 추진했다.....	205
第十一章 藩屬制度的其他幾個理論問題.....	209	제11장 번속제도의 기타 몇몇 이론 문제.....	209
一、藩屬的三個組成部分及其作用.....	209	1. 번속의 세 가지 구성 부분 및 그 작용.....	209
二、藩屬實體, 藩屬制度, 藩屬理論.....	210	2. 번속실체, 번속제도, 번속이론.....	210
三、內藩與外藩.....	210	3. 內藩과 外藩.....	210
四、藩屬制度與睦鄰政策.....	211	4. 번속제도와 선린정책.....	211
參考文獻.....	217	참고문헌.....	217
後 記.....	220	후 기.....	220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中朝曆代朝貢制度研究

付百臣 主編，吉林人民出版社，2008年



目 錄	목 차
緒 論..... 1	서론..... 1
第一章 隋唐時期中朝朝貢制度的確立..... 1	제1장 수·당시대 중·한조공제도의 확립..... 1
第一節 朝貢制度的確立和發展..... 1	제1절 조공제도의 확립과 발전..... 1
一、隋唐與百濟、新羅宗藩關係的確立..... 1	1. 수·당과 백제, 신라의 중번관계 확립..... 1
二、隋唐與百濟、新羅朝貢制度的演變..... 4	2. 수·당과 백제, 신라의 조공제도 변천..... 4
三、朝貢禮儀和機構..... 8	3. 조공의례와 기구..... 8
第二節 隋唐與百濟的朝貢..... 12	제2절 수·당과 백제의 조공..... 12
一、百濟向隋唐的朝貢..... 12	1. 백제의 수·당 조공..... 12
二、隋唐對百濟的冊封與賞賜..... 14	2. 수·당의 백제 책봉과 하사..... 14
三、朝貢制度的影響..... 16	3. 조공제도의 영향..... 16
第三節 隋唐與新羅的朝貢..... 17	제3절 수·당과 신라의 조공..... 17
一、新羅向隋唐的朝貢..... 17	1. 신라의 수·당 조공..... 17
二、隋唐對新羅的冊封與賞賜..... 23	2. 수·당의 신라 책봉과 하사..... 23
三、朝貢制度的影響..... 26	3. 조공제도의 영향..... 26
第二章 宋遼金時期中朝朝貢制度的特殊性..... 29	제2장 송·요·금시대 중·한조공제도의 특수성..... 29
第一節 宋遼金與高麗的宗藩關係..... 29	제1절 송·요·금과 고려의 중번관계..... 29
一、宋遼金與高麗宗藩關係的建立..... 29	1. 송·요·금과 고려의 중번관계 성립..... 29
二、宋遼金與高麗朝貢制度的演變和特征..... 36	2. 송·요·금과 고려의 조공제도 변천과 특징..... 36
第二節 宋朝與高麗的朝貢..... 41	제2절 송과 고려의 조공..... 41
一、高麗向宋朝的朝貢..... 41	1. 고려의 송 조공..... 41
二、宋朝對高麗的冊封..... 48	2. 송의 고려 책봉..... 48
第三節 遼朝與高麗的朝貢..... 53	제3절 요와 고려의 조공..... 53

一、高麗向遼朝的朝貢	53	1. 고려의 요 조공	53
二、遼朝對高麗的冊封與賞賜	59	2. 요의 고려 책봉과 하사	59
第四節 金朝與高麗的朝貢	63	제4절 금과 고려의 조공	63
一、高麗向金朝的朝貢	63	1. 고려의 금 조공	63
二、金朝對高麗的冊封與賞賜	74	2. 금의 고려 책봉과 하사	74
第三章 元朝時期中朝朝貢制度的功利性	78	제3장 원대 중·한조공제도의 공리성	78
第一節 元朝與高麗的宗藩關係	78	제1절 원과 고려의 종번관계	78
一、蒙古帝國與高麗宗藩關係的建立	79	1. 몽고제국과 고려의 종번관계 성립	79
二、元朝與高麗朝貢關係的演變	80	2. 원·려 조공관계의 변천	80
第二節 元朝與高麗的朝貢	83	제2절 원과 고려의 조공	83
一、高麗向元朝的朝貢	84	1. 고려의 원 조공	84
二、高麗“貢女”制度	90	2. 고려의 ‘공녀’ 제도	90
三、朝貢的機構和管理	93	3. 조공 기구와 관리	93
四、朝貢制度的影響	96	4. 조공제도의 영향	96
第四章 明朝時期中朝朝貢制度的完善	101	제5장 명대 중·한조공제도의 완비	101
第一節 明朝與李氏朝鮮的宗藩關係	101	제1절 명과 조선의 종번관계	101
一、明朝與高麗、李朝的關係	102	1. 명과 고려, 조선의 관계	102
二、朝貢禮儀的制度化	110	2. 조공의례의 제도화	110
第二節 明朝與李朝的朝貢	119	제2절 명과 조선의 조공	119
一、李朝向明朝的朝貢	119	1. 조선의 명 조공	119
二、明朝對李朝的回賜與封賞	123	2. 명조의 회사와 봉상	123
三、朝貢貿易活動	127	3. 조공무역	127
第三節 朝貢的組織與管理	132	제3절 조공 조직과 관리	132
一、朝貢的管理機構	132	1. 조공의 관리기구	132
二、朝貢制度的影響	136	2. 조공제도의 영향	136

第五章 清前期中朝朝貢制度的延續	140	제5장 청 전기 중·한조공제도의 연속	140
第一節 清前期中朝朝貢制度的確立	140	제1절 청 전기 중·한조공제도의 확립	140
一、清朝與朝鮮宗藩關係的建立	140	1. 청과 조선의 종번관계 수립	140
二、中朝宗藩關係的演變及特征	147	2. 중·한 종번관계의 변천 및 특징	147
三、清前期中朝朝貢禮儀制度	150	3. 청 전기 중·한 조공 의례제도	150
第二節 清前期中朝的朝貢	153	제2절 청 전기 중·조 조공	153
一、朝鮮向清朝朝貢	153	1. 조선의 청 조공	153
二、清朝對朝鮮的冊封與回賜	157	2. 청의 조선 책봉과 회사	157
三、朝貢貿易活動	161	3. 조공무역	161
四、中朝兩國使者往來	165	4. 중·조 양국 사자의 왕래	165
第三節 朝貢的組織與管理	172	제3절 조공의 조직과 관리	172
一、朝貢的組織管理機構	172	1. 조공의 조직관리기구	172
二、朝貢制度的影響	177	2. 조공제도의 영향	177
第六章 清後期中朝朝貢制度的衰亡	180	제6장 청 후기 중·조조공제도의 쇠망	180
第一節 東亞政局與宗藩體制的變遷	180	제1절 동아시아 정국과 종번체제의 변화	180
一、世界與東亞政治格局的變化	181	1. 세계와 동아시아 정치구조의 변화	181
二、中朝政局動蕩與宗藩體制的變化	186	2. 중·조 정국의 동요와 종번체제의 변화	186
第二節 清後期的中朝朝貢	195	제2절 청 후기의 중·조조공	195
一、朝鮮向清朝的朝貢	195	1. 조선의 청 조공	195
二、清朝對朝鮮的回賜與封賞	205	2. 청의 조선 회사와 봉상	205
第三節 朝貢制度的瓦解及其影響	216	제3절 조공제도의 와해 및 그 영향	216
一、中朝維持朝貢制度的努力	217	1. 중·조의 조공제도 유지 노력	217
二、中朝宗藩關係的終結及影響	233	2. 중·조 종번관계의 종결 및 영향	233
第七章 中朝與中國和東亞、東南亞其他藩屬國朝貢制度之比較	244	제7장 중·한과 중국·동아시아, 중국·동남아시아 기타 번속국 조공제도의 비교	2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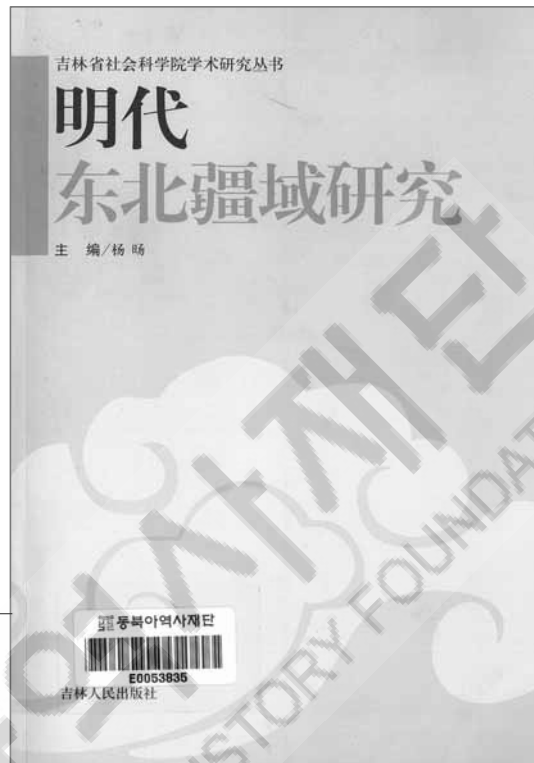
第一節 中朝與中越、中琉(球) 朝貢制度的比較..... 245	제1절 중·한과 中·베트남, 中·琉 조공제도의 비교..... 245
一、中朝與中越朝貢制度的比較..... 245	1. 중·한과 中·베트남 조공제도의 비교..... 245
二、中朝與中琉朝貢制度的比較..... 255	2. 중·한과 中·琉 조공제도의 비교..... 255
第二節 中朝與中國和東亞、東南亞其他藩屬國朝貢制度之比較 ..... 260	제2절 중·한과 중국-동아시아, 중국-동남아시아 기타 번속국 조공제도의 비교..... 260
一、中朝與中日朝貢制度的比較..... 261	1. 중·한과 中·日 조공제도의 비교..... 261
二、中朝與中國和東南亞諸國朝貢制度的比較..... 269	2. 중·한과 중국과 동남아시아 제국 조공제도의 비교..... 269
主要參考書目..... 277	주요참고도서목록..... 277
後記..... 281	후기..... 28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明代東北疆域研究

楊楊 主編, 吉林人民出版社, 2008年



目 錄	목 차
前 言..... 1	머리말..... 1
第一章 導論..... 1	제1장 도론..... 1
第一節 國內外研究狀況評述..... 1	제1절 국내외 연구 상황 평론..... 1
一、國內學術界涉及部分明代東北疆域研究概況..... 1	1. 국내 학술계 明代 동북 강역 관련 연구 개황..... 1
二、國外學術界涉及部分明代東北疆域研究概況..... 5	2. 국외 학술계 明代 동북 강역 관련 연구 개황..... 5
第二節 明代東北疆域研究思路、方法、重點與意義..... 10	제2절 明代 동북 강역 연구 방향, 방법, 초점과 의의..... 10
一、研究思路與研究方法..... 10	1. 연구방향과 연구방법..... 10
二、研究重點..... 12	2. 연구 초점..... 12
三、學術價值、理論意義和現實意義..... 18	3. 학술적 가치, 이론적 의의와 현실적 의의..... 18
第二章 明代東北疆域轄治體制中的遼東都司..... 19	제2장 明代 동북 강역 관할 체제 중의 遼東都司..... 19
第一節 遼東都司與東北疆域..... 19	제1절 遼東都司와 동북 강역..... 19
一、明代對遼東的統一..... 19	1. 明代 遼東의 통일..... 19
二、遼東都司設置及其特點..... 23	2. 遼東都司 설치 및 그 특징..... 23
三、遼東都司設置對東北疆域經略的歷史作用..... 28	3. 동북 강역 경략에 있어서 遼東都司 설치의 역사적 작용..... 28
第二節 遼東都司25衛與2州..... 42	제2절 遼東都司 25衛와 2州..... 42
一、遼東都司25衛及印文..... 42	1. 遼東都司 25衛와 印文..... 42
二、遼東都司2州的印文..... 53	2. 遼東都司 2州의 印文..... 53
第三章 明代東北疆域轄治體制中的大寧都司與北平行都司..... 57	제3장 明代 동북 강역 관할 체제 중의 大寧都司와 北平行都司..... 57
第一節 大寧都司和北平行都司與東北西部地區..... 57	제1절 大寧都司와 北平行都司와 동북 서부지역..... 57
一、蒙古兀良哈部族及明初遷徙..... 57	1. 몽고 兀良哈부족 및 明 初의 이동..... 57
二、明初兀良哈三衛..... 59	2. 明初 兀良哈 三衛..... 59
第二節 都司衛所設置..... 61	제2절 都司衛所 설치..... 61
一、都司衛所設置的歷史背景..... 61	1. 都司衛所 설치의 역사적 배경..... 61
二、都司衛所設置..... 64	2. 都司衛所 설치..... 64

第四章 明代東北疆域轄治體制中的奴兒幹都司..... 67	제4장 明代 동북 강역 관할 체제 중의 奴兒幹都司..... 67
第一節 奴兒幹都司與東北疆域..... 67	제1절 奴兒幹都司와 동북 강역..... 67
一、奴兒幹都司設置..... 67	1. 奴兒幹都司 설치..... 67
二、奴兒幹都司衙署官職建制..... 73	2. 奴兒幹都司 관서의 관직 편제..... 73
第二節 《永寧寺記》與《重建永寧寺記》..... 76	제2절 「永寧寺記」와 「重建永寧寺記」..... 76
一、《永寧寺記》與《重建永寧寺記》漢文再考釋..... 76	1. 「永寧寺記」와 「重建永寧寺記」 한문 재고증..... 76
二、《永寧寺記》與《重建永寧寺記》釋讀..... 89	2. 「永寧寺記」와 「重建永寧寺記」 해독..... 89
三、從《永寧寺記》與《重建永寧寺記》看明代奴兒幹等地區民族交流與融彙諸問題..... 99	3. 「永寧寺記」와 「重建永寧寺記」로 본 明代 奴兒幹 등 지역의 민족교류와 융합문제..... 99
第五章 明代東北疆域的黑龍江上遊地區衛所設立..... 112	제5장 明代 동북 강역의 흑룡강 상류지역 衛所 설립..... 112
第一節 奴兒幹都司屬下乞塔河、幹難河流域與呼倫貝爾地區衛所設立..... 113	제1절 奴兒幹都司 관하 乞塔河, 幹難河 유역과 呼倫貝爾 지역의 衛所 설립..... 113
一、乞塔河、幹南河流域衛所設立..... 113	1. 乞塔河, 幹南河 지역 衛所 설립..... 113
二、呼倫貝爾地區衛所設立..... 116	2. 呼倫貝爾 지역 衛所 설립..... 116
第二節 奴兒幹都司屬下嫩江流域衛所設立..... 119	제2절 奴兒幹都司 관하 嫩江 유역 衛所 설립..... 119
一、嫩江流域衛所設立..... 119	1. 嫩江 유역 衛所 설립..... 119
二、嫩江流域的木答裏山衛印出土..... 123	2. 嫩江 유역의 木答裏山衛印 출토..... 123
第三節 奴兒幹都司屬下漠河至精奇里江的黑龍江南北地區衛所設立..... 125	제3절 奴兒幹都司 관하 漠河부터 精奇里江까지 흑룡강 남북 지역의 衛所 설립..... 125
一、漠河至呼瑪爾河的黑龍江南北地區衛所設立..... 125	1. 漠河에서 呼瑪爾河까지의 흑룡강 남북 지역 衛所 설립..... 125
二、黑龍江以北, 沿精奇里江直隴外興安嶺衛所設立..... 128	2. 흑룡강 이북, 精奇里江 연변 外興安嶺에 면한 衛所 설립..... 128
第六章 明代東北疆域的黑龍江中遊地區衛所設立..... 131	제6장 明代 동북 강역의 흑룡강 중류 지역 衛所 설립..... 131
第一節 奴兒幹都司屬下弗河至畢瞻河的黑龍江南北地區的衛所設立..... 132	제1절 奴兒幹都司 관하 弗河에서 畢瞻河까지 흑룡강 남북 지역의 衛所 설립..... 132
一、自弗河至畢瞻河與黑龍江交彙處的黑龍江南北地區的衛所設立..... 132	1. 自弗河에서 畢瞻河와 흑룡강 합류처까지 흑룡강 남북 지역의 衛所 설립..... 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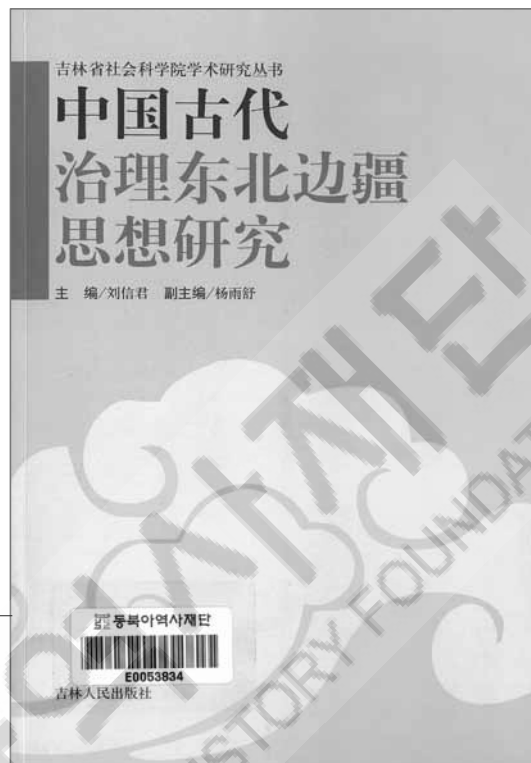
第二節 奴兒幹都司屬下松花江流域的衛所設立..... 134	제2절 奴兒幹都司 관하 송화강 유역의 衛所 설립..... 134
一、松花江流域的衛所設立..... 134	1. 송화강 유역의 衛所 설립..... 134
二、松花江流域的成討溫衛、實山衛、禾屯吉衛、塔山左衛印出土..... 158	2. 송화강 유역의 成討溫衛, 實山衛, 禾屯吉衛, 塔山左衛 印출토..... 158
第三節 奴兒幹都司屬下松花江與黑龍江交彙處至烏蘇里江和黑龍江交彙處的衛所設立..... 162	제3절 奴兒幹都司 관하 송화강과 흑룡강 합류처에서 烏蘇里江과 흑룡강 합류처까지의 衛所 설립..... 162
一、自松花江與黑龍江交彙處至烏蘇里江和黑龍江交彙處的衛所設立..... 162	1. 송화강과 흑룡강 합류처에서 烏蘇里江과 흑룡강 합류처까지 衛所 설립..... 162
第七章 明代東北疆域的黑龍江下遊地區衛所設立..... 167	제7장 明代 동북 강역 흑룡강 하류 지역 衛所 설립..... 167
第一節 奴兒幹都司屬下黑龍江下遊地區衛所設立..... 167	제1절 奴兒幹都司 관하 흑룡강 하류 지역 衛所 설립..... 167
一、伯力附近地區的衛所設立..... 167	1. 伯力 근처 지역의 衛所 설립..... 167
二、敦敦河流域的衛所設立..... 169	2. 敦敦河 유역의 衛所 설립..... 169
三、格林河流域的衛所設立..... 172	3. 格林河 유역의 衛所 설립..... 172
四、奇集湖附近的衛所設立..... 175	4. 奇集湖 근처의 衛所 설립..... 175
五、興滾河流域的衛所設立..... 177	5. 興滾河 유역의 衛所 설립..... 177
六、黑龍江口地區的衛所設立..... 181	6. 黑龍江口 지역의 衛所 설립..... 181
第二節 奴兒幹都司屬下庫頁島地區的衛所設立..... 183	제2절 奴兒幹都司 관하 사할린 지역의 衛所 설립..... 183
一、庫頁島西北部囊哈兒衛設立及其衛印出土..... 183	1. 사할린 서북부 囊哈兒衛 설립 및 그 衛印 출토..... 183
二、庫頁島中部地區的衛所設立..... 184	2. 사할린 중부지역의 衛所 설립..... 184
第八章 明代東北疆域的烏蘇里江與圖們江流域等地區衛所設立..... 186	제8장 明代 동북 강역의 烏蘇里江과 두만강 유역 등 지역의 衛所 설립..... 186
第一節 奴兒幹都司屬下烏蘇里江與幹難河流域等地區的衛所設立..... 187	제1절 奴兒幹都司 관하 烏蘇里江과 幹難河 유역 등 지역의 衛所 설립..... 187
一、烏蘇里江流域等地區的衛所設立..... 187	1. 烏蘇里江 유역 등지의 衛所 설립..... 187
二、幹難河流域等地區的衛所設立..... 196	2. 幹難河 유역 등지의 衛所 설립..... 196
第二節 奴兒幹都司屬下圖們江流域等地區衛所設立..... 197	제2절 奴兒幹都司 관하 두만강 유역 등지의 衛所 설립..... 197

<p>一、圖們江流域等地區的衛所設立…………… 197</p> <p>二、圖們江流域出土的毛獮衛印及“麾下”衛…………… 204</p> <p>第九章 明代東北疆域統治功能體現了明朝國家權力的行使…………… 208</p> <p>第一節 明朝行使國家權力的六項主要措施…………… 209</p> <p>一、衛所必須執行明王朝法度、法律…………… 209</p> <p>二、衛所官員任命、升降和承襲都由明朝政府決定…………… 210</p> <p>三、衛所必須聽從明政權調發戍守邊疆…………… 214</p> <p>四、衛所必須向明政府繳納貢賦…………… 216</p> <p>五、衛所遷移與衛所人員遷居都要經明政府批准…………… 218</p> <p>六、衛所轄地範圍、並居和析置都要經過明政府准允…………… 220</p> <p>第十章 明代衛所制度與清代噶珊制度…………… 222</p> <p>第一節 衛所制度與噶珊制度…………… 222</p> <p>一、衛所與噶珊的主要共同處和某些差異…………… 222</p> <p>二、解讀日本存藏清代噶珊貢額與賞烏林珍貴檔案…………… 224</p> <p>第二節 噶珊地址乃是當年衛所舊址…………… 230</p> <p>一、黑龍江流域及庫頁島地區部分噶珊地址即是明代衛所舊址…………… 230</p> <p>二、烏蘇里江流域部分噶珊地址即是衛所舊址…………… 232</p> <p>第十一章 明代東北疆域與中原文化…………… 233</p> <p>第一節 以漢族中原文化為主體多民族的中華傳統文化傳播於東北…………… 233</p> <p>一、流人文化…………… 233</p> <p>二、宗教文化…………… 238</p>	<p>1. 두만강 유역 등지의 衛所 설립…………… 197</p> <p>2. 두만강 유역에 출토된 毛獮衛印 및 “麾下”衛…………… 204</p> <p>제9장 明代 동북 강역 관할은 明朝 국가 권력 행사의 체현…………… 208</p> <p>제1절 明朝 국가권력 행사의 6가지 주요 시책…………… 209</p> <p>1. 衛所는 반드시 明왕조의 법도, 법률을 집행해야 함…………… 209</p> <p>2. 衛所 관원의 임명, 升降와 계승은 모두 明朝 정부가 결정…………… 210</p> <p>3. 衛所는 명조의 명에 따라 변경을 수비해야 함…………… 214</p> <p>4. 衛所는 明 政府에게 세금과 공물을 바쳐야 함…………… 216</p> <p>5. 衛所와 衛所 인원의 이동은 모두 明 정부의 비준을 거쳐야 함…………… 218</p> <p>6. 衛所 관할 범위, 并居와 析置 모두 明 정부의 准允을 거쳐야 함…………… 220</p> <p>제10장 明代 衛所제도와 清代 噶珊제도…………… 222</p> <p>제1절 衛所제도와 噶珊제도…………… 222</p> <p>1. 衛所와 噶珊의 주요 공통점과 약간의 차이…………… 222</p> <p>2. 현 일본에 존재하는 清代 噶珊 貢額와 賞烏林 관련 귀중 문서의 해독…………… 224</p> <p>제2절 噶珊 소재지는 바로 현재의 衛所 옛 터…………… 230</p> <p>1. 흑룡강 유역 및 사할린 지역 噶珊 소재지는 明代 衛所 옛 터…………… 230</p> <p>2. 烏蘇里江 유역 噶珊 소재지는 衛所 옛 터…………… 232</p> <p>제11장 明代 동북 강역과 중원 문화…………… 233</p> <p>제1절 한족 중원문화를 주제로 한 다민족의 중화전통문화를 동북에 전파…………… 233</p> <p>1. 유방인문화…………… 233</p> <p>2. 종교문화…………… 238</p>
---	--

<p>三、衛所文化…………… 239</p> <p>四、服飾文化…………… 240</p> <p>第二節 優秀傳統文化在疆域建置、鞏固和經營中的效用作用與價值…………… 242</p> <p>一、優秀傳統文化增加了民族凝聚力 and 內聚力…………… 242</p> <p>二、優秀傳統文化增加了民族抗拒和抵禦力…………… 243</p> <p>第十二章 曹延傑考察明代東北疆域…………… 245</p> <p>第一節 志在東北邊疆…………… 245</p> <p>一、特殊身份的州判官…………… 245</p> <p>二、志在東北邊疆…………… 246</p> <p>第二節 考察明代東北疆域…………… 247</p> <p>一、考察松花江流域明代衛所遺址、遺跡…………… 247</p> <p>二、考察黑龍江下遊明代衛所、都司遺址與遺跡…………… 249</p> <p>三、考察烏蘇里江及濱海地區明代衛所遺址、遺跡…………… 252</p> <p>附錄…………… 255</p> <p>附錄一：遼東都司25衛、二州簡表…………… 255</p> <p>附錄二：奴兒幹都司191衛所簡表…………… 257</p> <p>附錄三：明代東北疆域衛所印信圖錄…………… 269</p> <p>附錄四：明代東北疆域遼海衛古碑圖錄…………… 283</p> <p>附錄五：明代東北疆域永安臺圖錄…………… 284</p> <p>附錄六：明代東北疆域永寧寺碑圖錄…………… 285</p> <p>1附錄七：曹延傑考察明代東北疆域衛所遺址、遺跡圖錄…………… 286</p> <p>參考圖書、輿圖目錄…………… 288</p> <p>後記…………… 293</p>	<p>3. 衛所문화…………… 239</p> <p>4. 복식문화…………… 240</p> <p>제2절 우수한 전통문화를 강역에 세우고, 견고히 하고 운영하는 중의 효용과 가치…………… 242</p> <p>1. 우수한 전통 문화는 민족 응집력과 단결력을 증가…………… 242</p> <p>2. 우수한 전통 문화는 민족 抗拒와 抵禦력을 증가…………… 243</p> <p>제12장 曹延傑의 明代 동북 강역 시찰…………… 245</p> <p>제1절 동북 변경에 뜻을 두고…………… 245</p> <p>1. 특수한 신분의 州判官…………… 245</p> <p>2. 동북 변경에 뜻을 두고…………… 246</p> <p>제2절 明代 동북 강역의 시찰…………… 247</p> <p>1. 송화강 유역 明代 衛所 유적지와 유적…………… 247</p> <p>2. 흑룡강 하류 明代 衛所, 都司 유적지와 유적의 시찰…………… 249</p> <p>3. 烏蘇里江 및 연해주 지역 明代 衛所 유적지, 유적의 시찰…………… 252</p> <p>부 록…………… 255</p> <p>부록1 : 遼東都司 25衛, 2州 도표…………… 255</p> <p>부록2 : 奴兒幹都司 191衛所 도표…………… 257</p> <p>부록3 : 明代 동북 강역 衛所 印信 도록…………… 269</p> <p>부록4 : 明代 동북 강역 遼海衛 고비석 도록…………… 283</p> <p>부록5 : 明代 동북 강역 永安臺 도록…………… 284</p> <p>부록6 : 明代 동북 강역 永寧寺碑 도록…………… 285</p> <p>부록7 : 曹延傑이 시찰한 明代 동북 강역 衛所 유적, 유적 도록…………… 286</p> <p>참고도서, 지도목록…………… 288</p> <p>후 기…………… 293</p>
--	---

# 中國古代治理東北邊疆思想研究

劉信君 主編, 吉林人民出版社, 2008年



目 錄	목 차
前 言..... 1	머리말..... 1
第一章 先秦時期治理東北邊疆的思想..... 1	제1장 先秦시대 동북변경 통치사상..... 1
第一節 夏商周時期治理東北邊疆的思想..... 1	제1절 夏商周시대 동북변경 통치사상..... 1
一、“華夷之辨”思想的萌芽..... 1	1. ‘華夷之辨’ 사상의 맹아..... 1
二、“華夷一統”思想的產生..... 3	2. ‘華夷一統’ 사상의 탄생..... 3
三、“羈縻”思想的源起..... 4	3. ‘羈縻’ 사상의 기원..... 4
第二節 春秋戰國時期治理東北邊疆的思想..... 6	제2절 춘추전국시대 동북변경 통치사상..... 6
一、“華夷之辨”思想的產生..... 7	1. ‘華夷之辨’ 사상의 발생..... 7
二、“華夷一統”思想的初步形成..... 11	2. ‘華夷一統’ 사상의 초기 형성..... 11
三、“羈縻”思想的雛形..... 16	3. ‘羈縻’ 사상의 원형..... 16
第二章 秦漢時期治理東北邊疆的思想..... 20	제2장 秦漢시대 동북변경 통치사상..... 20
第一節 秦朝治理東北邊疆的思想..... 20	제1절 秦朝 동북변경 통치사상..... 20
一、秦朝的一統觀..... 21	1. 秦朝의 통일관..... 21
二、“夷夏之防”思想的發展..... 28	2. ‘夷夏之防’ 사상의 발전..... 28
第二節 漢朝治理東北邊疆的思想..... 32	제2절 漢朝 동북변경 통치사상..... 32
一、西漢“大一統”思想的形成..... 33	1. 전한 ‘大一統’ 사상의 형성..... 33
二、王莽的“華夷觀”..... 40	2. 王莽의 ‘華夷觀’..... 40
三、東漢時期“柔道理天下”的治邊思想..... 44	3. 후한시대 ‘柔道理天下’의 변경 통치사상..... 44
第三章 魏晉南北朝隋唐時期治理東北邊疆的思想..... 55	제3장 魏晉南北朝·隋·唐시대 동북변경 통치사상..... 55
第一節 魏晉南北朝時期治理東北邊疆的思想..... 55	제1절 魏晉南北朝시대 동북변경 통치사상..... 55
一、漢族政權統治者“華夏正統觀”及“華夷之辨”思想..... 55	1. 한족정권 통치자의 ‘華夏正統觀’ 및 ‘華夷之辨’ 사상..... 55
二、少數民族政權統治者“以德相承”及“華夷之辨”思想..... 65	2. 소수민족 정권 통치자의 ‘以德相承’ 및 ‘華夷之辨’ 사상..... 65
三、各族統治者“用夏變夷”思想..... 80	3. 각 민족 통치자의 ‘用夏變夷’ 사상..... 80

第二節 隋唐時期治理東北邊疆的思想..... 89	제2절 隋·唐시대 동북변경 통치사상..... 89
一、隋朝“混一戎夏”的治邊思想..... 89	1. 隋朝 “混一戎夏”의 변경 통치사상..... 89
二、唐前期“四海如一家”及“羈縻”思想..... 97	2. 唐 전기 ‘四海如一家’ 및 ‘羈縻’ 사상..... 97
三、唐後期“華夷之辨”思想..... 111	3. 唐 후기 ‘華夷之辨’ 사상..... 111
第四章 遼金時期治理東北邊疆的思想..... 117	제4장 遼·금시대 동북변경 통치사상..... 117
第一節 遼朝治理東北邊疆的思想..... 117	제1절 遼朝 동북변경 통치사상..... 117
一、“正統觀”的形成和實施..... 117	1. ‘正統觀’의 형성과 실시..... 117
二、“因俗而治”思想..... 128	2. ‘因俗而治’ 사상..... 128
第二節 金朝治理東北邊疆的思想..... 139	제2절 金朝 동북변경 통치사상..... 139
一、“德運觀”的確立..... 139	1. ‘德運觀’의 확립..... 139
二、“夷可變華”及“華夷同風”的思想..... 152	2. ‘夷可變華’ 및 ‘華夷同風’의 사상..... 152
第五章 元明清時期治理東北邊疆的思想..... 164	제5장 元·明·清시대 동북변경 통치사상..... 164
第一節 元朝治理東北邊疆的思想..... 164	제1절 元朝 동북변경 통치사상..... 164
一、“天下一家”思想..... 165	1. ‘天下一家’ 사상..... 165
二、“用夏變夷”思想..... 175	2. ‘用夏變夷’ 사상..... 175
三、“大一統”史書的編纂和元朝的民族思想..... 189	3. ‘大一統’ 사서의 편찬과 元朝의 민족사상..... 189
第二節 明朝治理東北邊疆的思想..... 197	제2절 明朝 동북변경 통치사상..... 197
一、“天命論”中的正統觀與民族觀..... 197	1. ‘天命論’중의 정통관과 민족관..... 197
二、“內中外夷”論與“華夷一家”論並存..... 202	2. ‘內中外夷’論과 ‘華夷一家’論 병존..... 202
三、“以夷治夷”思想..... 214	3. ‘以夷治夷’ 사상..... 214
第三節 清前朝治理東北邊疆的思想..... 226	제3절 清 전기 동북변경 통치사상..... 226
一、“無分中外”的“大一統”思想..... 226	1. ‘無分中外’의 ‘大一統’ 사상..... 226
二、“從俗從宜”思想..... 234	2. ‘從俗從宜’ 사상..... 234
三、“分而治之”思想..... 241	3. ‘分而治之’ 사상..... 241
四、從“夷夏之防”向“中外之防”的思想轉變..... 246	4. ‘夷夏之防’에서 ‘中外之防’으로의 사상 전환..... 246
參考文獻..... 256	참고문헌..... 256
後記..... 260	후기..... 260

## 2) 주요 연구논문

### (1) 「東疆學刊」(08년 1기~2기)

溫兆海	2008. 1	朝鮮詩人李尙迪的思想文化特徵
金哲洙·孫永建	2008. 1	簡論徐敬德的認識論
向開明·向楠	2008. 1	“袖”在中, 朝舞蹈作品中運用導同之管見
朱晶	2008. 1	古朝鮮引入與改進火藥和火器的歷史研究
楊雷	2008. 1	論俄羅斯民族文化的多元結構對民族性格的影響
王臻	2008. 1	《中國廿六史及明清實錄東亞關係史料全輯》的編纂綜述及史料價值
金柄民	2008. 2	中國國學與韓國文學
鄒志遠	2008. 2	李暉光性理學文學思想
王振江	2008. 2	論中國神秀與朝鮮知訥佛教思想的特點及其關聯
徐東日	2008. 2	朝鮮朝燕行使者眼中的關羽形象
李宗勳·陳建宏	2008. 2	圓仁的《入唐求法巡禮行記》與九世紀東亞海上通交
謝鵬遠	2008. 2	韓國民事強制執行機關的設置

### (2) 「東北史地」(07년 5기~08년 4기)

張殿甲	2007. 5	關乎楛矢名弩的考證
王綿厚	2007. 5	高句麗建國初期的“卒本夫餘”與“涓奴”“桂婁”二部王族的興衰遞變 — 關於高句麗早期歷史的若干問題之五
董維公	2007. 5	《高麗記》的發現, 輯佚與考證
孟昭信·孟忻	2007. 5	“東江移鎮”及相關問題辨析 — 再談毛文龍的評價問題
黃松筠	2007. 5	清代吉林圍場的設置與開放
趙紅梅	2007. 5	玄菟郡經略高句麗
雷一傑	2007. 5	從“別中”透析渤海的族屬及其歸屬
安龍禎	2007. 5	試論中韓建交的歷史進程及其意義
鞏中堅	2007. 5	“票房子”遺址前的遐想
史長樂	2007. 6	金富軾的三國鼎峙說
羅賢佑	2007. 6	中國歷代邊政問題芻議
張碧波	2007. 6	靺鞨族的分化, 重組與渤海之建國 — 兼及兩唐書“別種說”, “依附說”辨正
祝立業	2007. 6	從貴族交替執政到泉氏家庭專柄國政 — 試析高句麗後期國內政治局面的形勢
孫紅梅	2007. 6	元朝與高麗“舅甥之好”關係的確立
蔣戎·王小歐	2007. 6	元朝的“用夏變夷”思想在東北地區的實施和影響
松慧娟	2007. 6	皇太極三次審理朝鮮“橫儀大臣”案述論

田子馥·田野	2007.6	石碑背後的東北文化
王麗梅	2007.6	淺析東北語言與東北文化現象產生的原因
張福有·孫仁傑·遲勇	2008.1	集安古道新發現兩通石碑
劉子敏	2008.1	“新城”即“平壤”質疑——兼說“黃城”
趙興元	2008.1	康乾時期燕行使眼中的中國北方建築
李淑英·李樂營	2008.1	高句麗民族禮儀初探
王臻	2008.1	建州女真凡察部與朝鮮關係述論
王德璋	2008.1	赤峰海拉蘇鎮古代遺存的普查與初步認識
於麗群	2008.1	應重視東北地方史中碑刻等拓片的研究和利用
李大龍	2008.2	《三國史記·高句麗本紀》史料價值辨析——以高句麗和中原王朝關係的記載為中心
劉炬	2008.2	高句麗政治制度的性質、特點及成因
拜根興	2008.2	百濟遺民《彌寬進墓志銘》關聯問題考釋
桑秋傑·高福順	2008.2	渤海政權遷都考述
王飛峰·夏增威	2008.2	高句麗丸都城瓦當研究
王宏剛	2008.2	佛教在通古斯民族與朝鮮族中的文化影響
張碧波	2008.3	渤海大武藝論
曹德全·肖景全	2008.3	從《三國史記》中的“新城”談起
梁志龍·魏海波	2008.3	高爾山城始築年代考辨
劉子敏	2008.3	也談大武神王伐扶餘
王春燕·鄭霞	2008.3	霸王朝山城的調查與研究
苗威	2008.3	箕氏朝鮮同周邊國、族的關係
劉俊勇	2008.3	遼東半島南端新石器至早期青銅時代文化與周圍文化的關係
馮永謙	2008.3	金長城修築年代辨
孫文政	2008.3	金東北路界壕邊堡建築時間考
金禹彤	2008.3	古代東北民族入主中原的文化解剖
高月	2008.3	清末東北新政與東北邊疆現代化進程——以徐世昌主政東北時期的新政改革為中心
史驥	2008.3	民國時期東北邊疆民族地區管轄述論
耿鐵華	2008.4	李雲從與好太王碑插括
祝立業	2008.4	書山有路勤為徑——高句麗、渤海研究領域著名學者魏存成教授訪談
魏存成	2008.4	渤海墓葬的整體面貌和主要特徵
趙紅梅	2008.4	略析《漢書·王莽傳》中的高句麗記事
楊雨舒	2008.4	試論隋朝治理東北邊疆的思想及政策
李爽	2008.4	試析高句麗食邑制度
樂凡	2008.4	元明清時期東北民族社會之比較
熊梅	2008.4	清代東北地區森林消滅與環境效應
劉肅勇	2008.4	遼聖宗出兵高麗探析
李龍彬	2008.4	鐵嶺境內高句麗山城的幾個問題

金恩輝	2008. 4	《東北地方志中的邊疆問題史料類編》編撰述要
黃彥震	2008. 4	清代東北地方民族研究的力作 — 評《清朝前期黑龍江民族研究》

(3) 「博物館研究」(07년 3기~08년 2기)

苗威	2007. 3	從考古發掘看延邊未曾歸屬過古朝鮮
呂軍	2007. 3	沉船考古與瓷器外銷 — 以“碗礁1號”資料為中心
鄭春穎	2007. 4	高句麗閭達, 如栗, 莫來考辨
宋玉祥·孟慶智	2007. 4	破解渤海國大欽茂的785年之謎
楊暘	2007. 4	再談關於明代東北疆域研究中的幾個問題
徐建華	2008. 1	遼東半島金州地區2000年以遠地質環境變遷與古遺址, 古墓葬分布之特點
邵蔚風	2008. 1	吉林地區夫餘及相關墓葬形制研究
趙俊傑	2008. 1	試論高句麗山城城牆上石洞的功能
嚴楓	2008. 2	講述特點鮮明的地方歷史
周海峰	2008. 2	燕文化若干問題研究的回顧與展望
苗威	2008. 2	試論古朝鮮與中原王朝的關係
劉子敏	2008. 2	高句麗琉璃王研究

(4) 「北方文物」(07년 4기~08년 3기)

吳甲才	2007. 4	內蒙古翁牛特旗白廟子山發現新石器時代早期北斗七星巖畫
蔣剛	2007. 4	試析夏商西周文化和冀西北, 京津唐地區北方青銅文化的關係
張明皓	2007. 4	論安岳三號墓的建築淵源
呂學明 吳炎亮	2007. 4	遼寧朝陽隋唐時期磚構墓葬形制及演變
張韜	2007. 4	試析渤海大欽茂時期與唐, 日之間的交往 — 兼論渤海朝唐聘日觀的形成
[俄]A·A·基姆 著, 楊振福 譯	2007. 4	韓國學者論新羅與渤海兩國的關係
董學增	2008. 1	吉林市唐家崴子, 西溝江沿石器製造場等遺址調查
陳傑	2008. 1	宋元時期東北亞海上交流的考古學觀察
宋立恒	2008. 1	論“苗裔”在表示北方少數民族源關係時的特定含義
尹鉉哲	2008. 1	渤海國港口考
李淑娟	2008. 1	日本移民侵略與東北土地產權結構的演變
李陳奇	2008. 1	渤海史研究的新起點—《渤海文化研究》讀後
朱之勇	2008. 2	虎頭梁遺址中的鏃狀器
趙賓福·張偉	2008. 2	論小拉哈文化
井中偉	2008. 2	戰國時期燕戈的類型學考察
董玉珂·趙永軍	2008. 2	渤海國北界的考古學觀察
梁啓政	2008. 2	金毓黻之渤海上海研究與東京城訪古
張噉	2008. 2	唐朝與高句麗, 百濟關係的惡化及其原因

周喜峰	2008. 2	論唐代渤海國的教育形式
徐秀雲	2008. 2	渤海故地再次發現舍利函
夏保國	2008. 3	“流共工於幽州”的考古學釋讀 — 以夏家店下層文化源自後岡二期文化爲證
吉林大學邊疆考古研究中心 內蒙古文物考古研究所	2008. 3	2006年赤峰上機房營子石城址考古發掘簡報
曲軼莉	2008. 3	東北亞古代魚形器研究
王志敏	2008. 3	通化市金廠鎮出土戰國晚期至秦漢時期青銅短劍
張韜	2008. 3	略考同渤海歷史與考古有關的兩方官印
王臻	2008. 3	建州女真董山部與朝鮮王朝的關係述論
郭孟秀	2008. 3	黑龍江省少數民族文化歷史與現狀調查報告

(5) 『史學集刊』(07년 6기~08년 4기)

陳其泰	2008. 1	中華民族精神在漢代的發展
晁福林	2008. 1	說“變則通” — 試談中國古代民族精神的構建與創新
李帆	2008. 1	近代中國的民族認同和民族精神的弘揚
李書源·楊曉軍	2008. 1	區域史研究理論與近代東北區域史研究
夏炎	2008. 2	試論唐代都督府與州的關係
丁曉傑	2008. 2	朝鮮牧羊業與日本的植民統治
姚玉成	2008. 2	渤海俗所貴者“太白山之菟”考辨
王志剛	2008. 2	試論《魏書》典志的歷史編纂學價值
吳鳳霞	2008. 2	女真貴族的史學自覺與金代實錄的編纂
劉潔	2008. 3	論解放前後東北土地占有關係的變革及其積極作用
關亞新	2008. 3	試析清代東北養息牧牧場的變遷及影響
陳澆	2008. 3	“遼海”古稱由來考實
張其凡	2008. 3	關於《宣和乙巳奉使錄》的書名與作者問題
程尼娜	2008. 3	古代中國藩屬體制的探索 — 讀《漢唐藩屬體制研究》
黎虎	2008. 4	周代的交聘使者及使團

(6) 『社會科學戰線』(08년 1기~08년 8기)

王子今	2008. 1	略論秦漢時期朝鮮“亡人”問題
張聲振	2008. 1	再論嘉靖中期的倭寇性質 — 兼與《嘉隆倭寇芻議》一文商榷
範立軍·譚玉秀	2008. 1	近代東北流民與社會結構變遷
殷曼婷	2008. 1	民族認同建構與“歷史記憶”的曖昧性 — 看《碧奴》之“重述神話”
湯擁華·王曉華	2008. 1	“中國文化問題與儒家當代創新”高層論壇綜述
尙永琪	2008. 1	對如何擴展歷史人物研究視野的思想 — 洪承疇研究討論會綜述
方鐵	2008. 2	古代治理邊疆理論與實踐的研究構想

察靖泉	2008. 2	龍山時期的河洛文化格局 — 兼論五帝時代的中國文化重心
時勝勳	2008. 2	整體性價值與中國文化創新
田正平·張建中	2008. 3	近代邊疆教育行政管理機構的創立與演變 — 以中央政府一級為中心的考察
李振宏	2008. 4	改革開放以來的史學方法論研究
李俊久	2008. 4	日本對東亞經濟戰略的調整與中國的對策
趙欣	2008. 5	1886年英國探險家對長白山主峰的考察
梁啓政	2008. 5	金毓勳三次域外訪書述評
林琳	2008. 5	儒教思想與民族文化認同
蔣鐵生·呂繼祥	2008. 6	康熙《泰山山脈自長白山來》一文的歷史學解讀
王曉峰	2008. 7	東北地區城市化現狀研究
高荷紅	2008. 7	滿族說部歷史上的傳承圈研究
劉信君	2008. 8	改革開放三十年中國東北地方史研究述評
韓東育	2008. 8	兩種“實學”的相遇與江戶日本的“去中華”由緒
趙志忠	2008. 8	新與舊：滿族的歷史定位
周建新	2008. 8	大陸東南亞跨國民族“和平跨居”文化模式分析
常寶·陽妙豔	2008. 8	中國地方與族群文化的多元化及其前景 — 兼評杜磊(Dru Gladney)的《民族國家是否建構了民族？》
姚文放	2008. 8	中國語境與漢語系統中的“文化”概念分析

(7) 『中國邊疆史地研究』(08년 1기~08년 2기)

崔明德	2008. 1	略論兩漢時期匈奴首領的“自尊”意識
任愛君	2008. 1	唐代契丹羈縻制度與“幽州契丹”的形成
李玉偉	2008. 1	建國初期統一內蒙古行政區劃的決策及其實施
拜根興	2008. 1	唐與新羅使者往來關聯問題的新探索 — 以九世紀雙方往來為中心
趙永春·玄花	2008. 1	遼金與高麗的“保州”交涉
何岩巍	2008. 1	近代來華天主教士筆下的東北地名及行程見聞 — 以巴黎外方傳教士布魯尼埃和維爾諾特的信件為例
於逢春·劉民	2008. 2	晚清政府對蒙古族的國語教育政策
李樂營	2008. 2	高句麗佛教禮拜對象辨析
金富軍	2008. 2	清華大學邊疆問題研究會考察

### 3) 주요 논문의 요약

『동강학간』 (2006~2008년)  
『동북사지』 (2007~2008년)  
『중국변강사지연구』 (2007~2008년)

#### ▶ 『동강학간』 (2006~2008년)

- 동강학간 2006년

#### ■ 2006년 제1기

##### 試論洪大容的實學思想

李英順 · 金成鎬, pp.35~39

조선 후기에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싹트고, 나아가 그에 상응하는 발전이 있었다. 중국을 통해서 서방문명의 영향이 점차 침투되어 들어왔다. 한편, 조선의 봉건통치 역시 점차 쇠락하게 되는데, 통치계급 내부의 黨爭이 격렬해지고, 경제 또한 갈수록 힘들어지니, 개혁과 개방은 이미 사회의 보편적인 외침이 되었다. 홍대용은 바로 이러한 사회역사적 배경 하에서 청나라를 방문하게 되었다. 그는 역사적 조류에 순응하여 ‘北學中國’, ‘利用厚生’의 실학적 주장을 제기하고, 게다가 그의 독특한 宇宙論과 心性實體論을 수립했다.

#### 1. 洪大容의 燕京行

洪大容(1731-1783)의 字는 德保로, 조상 대대로 관직에 오른 양반명망가의 자제였다. 그는 어릴 때부터 自然科學을 매우 좋아하였고,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유용한 정치, 경제, 군사지식 등에 대해 매우 깊이 탐구하였으며, 맹목적인 朱子學 추종을 반대하여, 융통성 없는 성리학 가르침을 외우기만 하는 것은 음악, 역법, 산술, 화폐, 농사, 군사 등 세상에 유용한 학문을 추구하는 것보다 못하다고 여겼다. 그는 천문우주학 연구를 통해 여러 종류의 천문관측기기를 만들었는데, 이것들을 이용한 실험관측을 통해 ‘지전설’을 주장하였다. 또한 그의 우주무한사상 등은 북학과 실학의 우주자연관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세계관의 기초를 다졌으며, 새로운 사상이론의 시대를 연 것이기도 하다. 그가 ‘北學派’ 실학의 기초를 다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당시의 세상을 심오하고 폭넓은 인식으로 이해했던 것과 뿔려야 뿔 수 없는 관계에 있다.

英祖 42년(1765) 겨울, 洪大容은 子弟軍官의 신분으로, 冬至謝恩使行의 書狀官이 된 숙부 洪櫛을 따라 청나라로 향했다. 그해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북경에 머무르면서, 학문 탐구의 눈을 넓히기 위해 몇 개월에 걸쳐 혼자 중국의 여러 곳을 편력하였다. 北學派 實學이라는 수레는 여기서부터 바퀴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북경에서 당시 중국의 실질적인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의 상황을 고찰하였으며, 더구나 중국을 통해서 서방의 자연과학과 기술을 접목하였다. 이 기간 동안에 과거를 보기 위해 북경에 온 錢塘의(주: 지금의 浙江省 杭州市) 학자인 潘庭筠, 陸飛, 嚴誠, 孫天義 등과 사귀었다. 홍대용은 또 당시 북경에 와있던 독일인 Augustinsson Holler Stein과 Antoniusk Gogel 등을 만났다. 그리고 宣武門에 있는 天主堂을 참관하고 서양의 물건과 사람들을 고찰하였다. 그는 곳곳을 돌아다니며 궁금한 것을 묻고, 연구하고, 일일이 기록하여 ‘북경학’을 형성하였으며, 후일 『燕記』를 편찬하였다.

## 2. 洪大容의 宇宙自然觀

조선 후기의 철학자 중에는 적지 않은 학자들이 ‘地球地轉’의 사상을 갖고 있었으나, 홍대용만이 관측 기구와 실험설비를 설치하여 실증적 과학연구를 진행하였고 사유방식의 변화를 불러 일으켰다. 사실 지구자전설은 유럽에서 이미 16세기에 제기되었는데, 홍대용의 시대까지 줄곧 이 학설은 조선에 전해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독자적인 방식으로 천문학연구에 종사하여 지구가 자전한다는 것을 독자적으로 발견하였다.

이와 같은 기초 위에서 홍대용은 진일보된 우주무한사상을 제기했다. 그는 ‘하늘의 모든 별자리는 지구와 같이 우주는 하나의 천체이고 무수한 천체가 하늘에 흩어져 있는 것이며 우주는 무한한 것이다’라고 생각했다. 무한우주의 思考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홍대용은 자신만의 거시적인 방식으로 우주를 인식하였다. ‘地圓’이나 ‘地轉’의 사상이 천문학적 범주에 속하는 학문이라 한다면 ‘무한한 경계[無量之界]’의 사상은 전체 우주관의 문제이자 철학적인 문제이다. 홍대용은 바로 자신의 ‘地圓’, ‘地轉’, ‘無量之界’의 우주관으로 북학파의 實體論을 삼아 새로운 국면을 열었는데, 이것은 이전의 ‘經世致用’ 사상의 높이를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 동시에 ‘무한한 경계’는 엉터리 서생들이 고집한 ‘天圓地方’의 학설을 신랄하게 비판한 것이었는데, 이는 북학과 실학의 기초를 다진 사람으로서 홍대용이 가지고 있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정신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 3. 洪大容의 心性實體論

홍대용의 心性實體論과 그의 宇宙實體論은 서로 일맥상통한다. 그는 “심성은 기질과 떨어져 있지 않다[心性不離氣質]”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새로운 세계관에서 출발하여 ‘心性’이라는 이 오래된 문제에 대해 매우 근대적인 설명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두 가지의 보충설명이 필요하다. 첫째, 조선 당시의 의학, 인체과학 수준의 한계로 말미암아 홍대용은 인간의 ‘知覺能力’이 마음이 아닌 두뇌에 있음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氣’를 기초로 삼아 사람의 지각 능력의 특징을 파악하고 이로부터 힘써 ‘心性論’을 세우려 함으로써 宋明理學 및 조선 성리학을 극복하고, 현실적 심성론을 벗어나려고 노력한 것은 배울만 하다. 둘째, 자신의 心性實體의 학술체계 구축을 위해, ‘氣’를 淸과 濁으로 나누었는데, 北宋의 張載이래의 氣論과 별로 다를 바는 없다. 그러나 氣의 신비화 정도는 張載에 비해 더욱 심원하게 되었다.

## 4. 洪大容의 ‘經濟實學’

홍대용은 중국학자들에게 조선 학계의 정황을 설명할 때, 당시의 조선학을 ‘義理之學’, ‘經濟之學’, ‘詞章之學’ 등 세 가지로 나누어 언급하고 義理, 經濟, 詞章은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가 되어야 하며 어느 한쪽으로 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다만 ‘經世致用’과 ‘利用厚生’의 義理와 詞章이 하나로 합쳐져야 ‘經世

濟民'의 유용한 학문이 생산될 수 있다고 역설하였다. 홍대용은 토지제도가 사회적 이상을 실현하는 기초임을 간파하였다. 그는 '均田'을 주장하여 양반귀족의 토지의 사유화와 겸병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개혁을 실현하고자 하였는데, 이것이 현실적인 王道를 행하는 것이었다. 물론 조선 후기 사회에 있어서 그의 이와 같은 생각은 그저 공상일 수밖에 없었다.

## 5. 洪大容의 '北學中國' 思想

홍대용의 '북학중국' 사상은, 그가 중국에서 실제 경험한 것을 기초로 하여 형성된 것이다. 사절단을 따라 遼寧, 熱河, 河北을 거쳐 通州에 도착한 후, 다시 皇城에 이르는 그의 노정 앞에 펼쳐진 번창한 모습은 그를 감탄하게 하였다. 그는 청나라가 중원의 주인이 되어 흥성한 역사적 과정을 고찰한 후 '北學'의 신념을 더욱 키웠다. 북경 여행은 그로 하여금 세상 보는 눈을 더욱 크게 뜨게 하였다. 반대로 조선조의 썩은 유생들은 지난 100여 년간 '夷夏之辨'을 주장하며 '小中華'의 칭호에 우쭐거리며 고루하고 완고함이 절정에 이르렀다. 그는 탄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가 보기에 시대의 폐단을 개혁하지 않고는 평생을 坐井觀天할 뿐 발전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였다.

결론적으로 홍대용은, 북학과 우주자연관의 기초를 다졌으며, 조선 실학의 사상발전에 새로운 획을 그었다. 그리하여 氣實體, 心性實體 등 체계적인 사회, 경제, 정치, 사상의 구조를 구축하였으며, 나아가 조선 실학의 내용을 크게 향상시켰다.

## 試談長白山文化的淵源與發展

安龍禎, pp.43~48

### 1. 광활한 지역성

장백산은 유라시아대륙 북반부에서 가장 대표적인 자연의 종합체이자 지구상에 몇 안 되는 자연 유전자의 보고이며 자연박물관이다. 장백산 생태구역의 완전한 보호와 천연 보고의 영원한 이용을 위해, 길림성 인민정부는 1982년 8월에 장백산의 절대보호구역과 일반보호구역의 구별을 철폐하고 이들을 통합하여 '길림성장백산자연보호구'로 칭할 것을 결정하였다. 결정된 후의 총 면적은 19만 6,400ha, 生木의 총 축적량은 4462만 2,700 m<sup>2</sup>이고, 이중 延邊에 속하는 면적이 8만 1,529ha로 총 면적의 41.51%를 차지한다. 16개의 봉우리 중, 3개가 북한 경내에 있고, 3개의 봉우리는 북한과 중국의 경계에 있으며, 기타 10개의 봉우리는 延邊과 白山市 경내에 있다.

### 2. 유구한 역사의 근원성[源頭性]

'安圖人' 동굴 유적은 1863년 5월에 발견되었는데, 여기서 고인류 화석이 수습되었다. 이 화석은 호모 사피엔스에 속하는 고인류로, 현재까지 장백산 지역에서 발견된 최초의 인류화석이다. 그 시기는 구석기 시대 후기에 속하며, 河套人文化시기보다 약간 뒤진 2만 6,000년 전이다. 이를 통해 장백산문화의 근원이 매우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清代 이래로 매우 많은 장백산문화의 개척자와 전파자들이 나타나는데, 대략 顧太清, 吳兆騫, 吳大澂, 吳祿貞, 柳建封, 李旭 등과 같은 인물이다. 이러한 역사·문화적 명인들과 그들의 名著는 장백산문화의 근원이 오래되었음을 보여줄 뿐 아니라, 그 풍부한 내용과 軍政合一의 문화적 특징 역시 충분히 표현하고 있다.

### 3. 풍부한 方志文化的 寶庫

장백산문화에는 일찍이 많은 수의 지방지가 있었으며 또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장백산과 관련한 지방지로는 ① 柳建封 著, 『長白山江嵐志略』, 1909년, ② 柳建封 修, 吳元瑞 纂, 『安圖縣志』, 1911년, ③ 陳鴻謨 等 編纂, 『安圖縣志』, 1929년, ④ 朱約之, 崔龍藩 監修, 『琿春縣志』, 1927년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리고 李澍田이 主編한 『長白叢書』는 장백산문화를 집대성한 책이다.

### 4. 고대 문화와 현대 문화의 전승성

장백산문화는 부단히 변화하였다. 장백산문화는 계승 중에 변화하였고, 발전 중에 향상되었다. 오직 발전만이 장백산문화를 응집시켜 정신적 재산이 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물질적 재부를 창출할 수 있다. 장백산문화는 장백산 지역 각 민족 인민의 노동과 생산의 결정체로 이미 우수성이 강한 문화가 되었다. 장백산문화의 연구는 黨의 제16회 4중전회의에서 제기한 “정치 경제 문화와 사회의 전면적 진보능력을 촉진한다”는 목표를 견지하여, 장백산 지역의 문화가 현대시장경제에 적응하고 경제 성장을 달성하는 데 보탬이 되어야 한다.

## 淺析中原壁畫對高句麗壁畫之影響

魏學輝, pp.49~51

### 1. 고구려 벽화의 위치

중원문화의 역사는 유구하며 주변 지역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고대 문명은 점차 사라져 가고 있다. 그러나 지하에서 깊이 잠들어 있는 현란하고 다양하면서도 그 내용이 풍부한 묘실 벽화는 고대문명을 고찰하는 직관적 역사자료이다. 따라서 벽화는 문화를 표현하는 형식 중의 하나로서 문자 사료의 부족도 보충할 수 있다. 고구려 벽화는 동방 미술사에서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한 페이지이다. 그것은 중원지역의 벽화와 밀접한 연계성을 지니고 있으며, 세계미술사에서 동방지역 회화의 특징을 대표하는 것 중의 하나이다.

### 2. 중원 벽화와 고구려 벽화의 비교 연구

고구려 전기의 벽화는 중원의 兩晉시대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시기의 벽화 내용은 현실 생활을 주요 소재로 당시 고구려인들의 풍속 습관 등을 보여준다. 고구려 전기의 벽화묘로는 集安 萬寶汀墓區의 1368號墓, 舞俑墓 그리고 角抵墓가 대표작이다. 舞俑墓의 묘실 북쪽 벽 아래쪽에 ‘狩獵圖’가 있다. 이 그림은 당시 현실 생활의 방식과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東方의 전기 현실주의를 소재로 한 작품 중의 하나이다. 이 수렵도에는 머리를 돌려 화살을 겨누고 있는 무사의 형상이 있는데, 이 형태는 일찍이 東周시대의 瓦當에 빈번히 출현한다. 그 인물의 형상, 동작과 자세, 비례, 그림의 선 등이 매우 흡사하다. 그리고 수렵도에 사용된 그림의 기법이라든가 재료 등은 漢·魏의 墓室 벽화에 상용되던 수법이다. 고구려 중기의 壁畫인 ‘婦人坐像’은 서진시대의 벽화인 ‘西王母’와 매우 비슷하다. 우리는 이 두 벽화에 보이는 인물의 자태, 표정, 그림의 선, 기교 등으로부터 둘 사이의 연계성을 볼 수 있다. 고구려 후기의 벽화는 이전에 비해 비교적 크게 변화하였는데, 주요 소재가 현실의 사람에서 神으로 변화하였으며, 전기의 현실주의가 낭만주의로 변화한다.

### 3. 고구려 벽화는 중원 벽화를 모방하는 가운데 발전

고구려 벽화와 중원 벽화가 일맥상통하는 바는 ① 구도, 사용색채, 기교, 재료의 기본적인 일치, ② 整體感에 주의를 기울임, ③ 中軸對稱法, ④ 인물의 조형이 신분의 준비에 의해 결정됨, ⑤ 散點透視, ⑥ 사람을 산보다 크게 묘사함, ⑦ 상징적인 수법을 사용한 것 등에 나타난다. 고구려벽화 중 長州 1號墓의 ‘麗佛圖’, 舞俑墓 북벽의 ‘狩獵圖’, 三室墓 중의 ‘攻城圖’와 중원지역의 長沙에서 출토된 前漢 馬王堆 1號漢墓 帛畫, 前漢 卜千秋墓室 壁畫인 ‘伏羲·여와·朱雀’, 東晉 顧愷之의 ‘女史箴圖’, ‘洛神賦圖卷’ 등이 모두 이상의 일곱 종류의 화법을 사용하였다. 고구려 벽화와 중원 벽화가 서로 모방한 것을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이다.

## ■ 2006년 제2기

### 試論清代實學與朴齊家的實學思想

李英順·潘暢和, pp.18~22

조선시대 후기는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싹이 트고, 나아가 그에 상응하는 발전이 있었다. 중국을 거쳐서 서방 문명의 영향이 점차로 침투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조선의 봉건통치 역시 점차 쇠락하면서 통치계급 내부의 당쟁이 격렬해지고 경제는 나날이 쇠퇴하였다. 개혁과 개방은 이미 대중의 요구가 되었으며, 박제가는 바로 이러한 사회 역사적 배경 하에서 4차에 걸쳐 燕京을 방문한다. 박제가는 北學論사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대외 개방을 주장하고 주체적인 생활 체험을 중시하여 ‘北學中國’, ‘利用厚生’, ‘富國強民’, ‘發展工商’ 등의 실학을 주장하였다. 박제가의 실학사상은 實事求是를 중시하였는데, 이는 북학파의 利用厚生 실학이 實事求是 실학을 향하는 과도기적 성격을 보이는 것이다.

#### 1. 朴齊家の 燕京行

1778년 5월 박제가는 청 왕조에 出使하는 사신의 수행원으로 燕京에 도착했다. 당시 재상이던 蔡齊恭이 正使였으며, 박제가는 그를 3개월간 수행하였다. 燕京에서 박제가는 『四庫全書』의 主管이며 禮部尙書인 紀昀 및 李調元, 潘庭筠, 祝德麟, 江德量 등과 交遊하였다. 1790년에 박제가는 두 번째로 燕京에 出使했다. 이때 그는 淸나라의 紀昀, 翁方綱, 阮元 등과 交遊하였다. 박제가가 귀국한 후, 때마침 正祖가 아들들을 얻었는데, 淸의 乾隆帝가 사신을 파견해 축하를 보낸다. 이에 正祖는 박제가를 燕京에 파견해 감사의 뜻을 전하게 한다. 박제가는 1790년 한 해 동안 연속해서 두 번 중국을 방문하며 正祖의 깊은 신임을 얻으며 승진을 하게 되나, 바로 이로 인해 實權派의 증오 대상이 되었다. 1800년, 正祖가 붕어하고 당시 10세였던 世子 純祖가 즉위하면서 실권은 正祖妃인 安東金氏의 손으로 넘어간다. 1801년, 보수파가 시국을 역전시키면서 큰 화를 면할 수 없었다. 박제가는 사절단을 따라 4번째 燕京을 방문하여 朱子の 著作原本을 구하려 하나 구하지 못하고 귀국했다. 귀국 후 조선 북부 두만강변의 鐘城에 유배되었다가 純祖 3년(1803)에 고향으로 돌아왔다.

박제가는 4차에 걸친 燕京行을 통해 많은 사람들과 광범위한 학문적 교류를 통해서 수레[車], 배[船], 그리고 토지제도[田制]를 연구하여 큰 수확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燕京學風의 깊은 영향을 받기도 했다.

당시 淸朝에서는 漢學이 전성기를 이루고 있었으며, 實事求是의 考證學이 한 시대를 풍미하고 程朱理學은 쓸쓸히 한편으로 밀려났다. 이러한 燕京學風은 본래 조선 주자학의 獨尊的인 현실에 대해 비판적인 박제가로 하여금 더욱 程朱學者들의 허망함과 무용함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박제가는 자신의 ‘經濟之志’를 더욱 굳건히 하게 되었다.

## 2. 朴齊家の 『北學議』

北學派의 實學은 洪大容으로부터 그 기초가 다져졌으며, 朴趾源은 正德, 利用厚生의 시각으로부터 北學派의 實學을 집성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北學論 그 자체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전개하지 못하였다. 비교적 체계적으로 ‘北學’의 사상체계를 論하고 北學論思想을 설명한 사람이 박제가이다. 박제가가 저술한 『北學議』가 主旨하는 것은, 조선 후기 사회의 경제, 정치, 사상, 문화의 위기를 구제하는 것이다.

『北學議』는 한반도 특유의 문화사적 현상이며, 北學派 思想家의 반복적 사고가 결정을 이룬 것이다. 첫째, 조선은 여러 차례 외부의 침략을 받았고, 국내의 양반 귀족 통치 또한 극도로 부패하였다. 둘째, 전통적인 夷夏之辨에 대한 논박과 반응은 필연적으로 만주족인 淸朝에 의해 통일된 중국의 선진적인 경제, 정치, 과학, 문화를 학습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셋째, 夷夏之辨을 엄격히 지키고, 전통 儒學文化의 光復에 힘을 기울임으로써, 儒學의 가치관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여기에서 北學派 實學의 사상적 內涵이 상당히 깊고 풍부함을 알 수 있다. 박제가의 『北學議』는 洪大容 이래의 北學論 사상에 대한 일차적 총결이라고 할 수 있다.

夷夏之辨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중국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진로를 막고 있었다. 사실 夷族은 夷族이고 華夏는 華夏이며, 北學 또한 결코 夷夏를 구분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박제가는 이에 대해 세 측면에서 변론하였다. 우선 중국이 비록 剃髮胡服하였으나 華夏族의 풍습은 여전히 강렬히 남아있으며 이는 北學의 중요한 기반이 된다. 둘째, 華夏族의 우수한 전통문화와 夷狄의 낙후된 문화는 구분된다. 이것이 바로 北學派가 선택한 (이론적) 전제이자 근거이다. 셋째, 박제가는 이질문화의 융합과정은 언제나 발달된 문화가 낙후된 문화를 동화시킨다고 생각했다. 즉 설사 낙후된 민족이 폭력으로써 발달된 민족을 침탈하는 경우라도 이러한 문화 융합의 방향은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北學은 한편으로는 華夏문화를 부흥하고자 하는 동시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에 대해 복수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법(혹은 발달된 문화)을 배우지 않고서는 華夏문화를 부흥시킬 수 없을 뿐 아니라 동시에 나라와 백성이 곤궁하여 東國之夷의 이름을 벗어날 수 없었다.

박제가는 번역학을 상당히 중시하였는데, 관련 인재를 배양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힘써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중국을 배우려면, 언어의 장벽을 깨뜨려야 하며, 의사소통을 강화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 인재를 중국으로 유학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 3. 박제가의 發展工商, 富民強國思想

박제가의 『北學議』는 중국을 배우자는 것으로 귀결된다. 그는 洪大容, 박지원 이래의 북학론 사상을 총결하였을 뿐 아니라, 工商, 對外通商, 利用厚生, 農本, 實體 등이 그의 北學論思想 중에 관철되고 전개되었다.

조선 사회에서 상업의 지위는 상당히 미천하였으나, 박제가는 상업이 農·工 등 각 산업의 중간적 지위에 위치하는 것과, 天地(자연)가 인간에게 부여한 산물을 利用厚生하는 인도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보고 상업에 높은 지위를 부여하였다. 그의 工·商에 관한 사상 중에 옛사람보다 뛰어난 점은 바로 工·商 활동이 인격에 미치는 교화 작용을 중시하였다는 것이다. 박제가의 工·商에 관한 사상은 공·상업의 실재를 기초로 해서 건설된 것으로, 추상적 의미가 아닌 구체적인 공·상업의 실천 활동 중에서 사람과 환경의 상호관계를 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박제가는 체계적으로 복학론 사상을 종합하였으며, 당시의 역사적 조건하에서 경직된 夷夏之辨 사상의 장벽을 타파할 것을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외개방과 중국의 선진적인 경제, 정치, 사상 문화, 사회교화 학습을 통해 正德, 利用厚生의 도리 구현을 주장하였다. 더욱이 그는 工·商業과 통상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시책을 제안하였다. 實體論 사상에서 그는 주체적 실천을 중시하였다. 동시에 복고적 관점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實學을 이해하여 조선 실학의 內涵을 더욱 풍부하게 하였다. 그의 사상은 뒤를 이은 實事求是 실학과 이어지기 때문에 그 역사적 위치는 극히 중요하다 할 것이다.

## 隋·初唐時期中國, 朝鮮半島, 日本佛教狀況之分析

周進·于濤, pp.23~27

중국, 한반도 그리고 일본은 모두 아시아의 동부에 위치해 있다. 중국의 隋·初唐時期와 한반도의 삼국시대 후기 및 일본의 推古天皇과 天智天皇시대는 인류역사에 있어 대체적으로 동일한 시기이다. 당시의 삼국(隋와 初唐時期的 中國, 한반도, 日本)에는 모두 불교가 있었다. 삼국의 불교는 서로 밀접한 관계 및 공통점이 있었으나, 확연히 다른 특징 또한 지니고 있다. 밀접한 관계와 공통점의 중요한 내용은 불교의 전파와 상호간의 영향에 있고, 다른 점은 불교가 각국에서 서로 다른 영향과 위치를 점한데 있다. 한반도와 일본에 불교가 전해진 것은 오래되지 않았으나, 오히려 국가종교로 발전하였다.

### 1. 隋·初唐時期 中國, 한반도, 日本의 宗教 개황

불교가 前漢 말기 중국에 전해지고, 後漢 후기에 道教가 형성된 후부터, 비록 대다수의 통치자가 儒敎의 정통적 지위를 유지하는 경향은 있었으나, 동시에 불교와 도교도 함께 허용하였다. 그러나 황제 개인의 신앙적 취향에 큰 영향을 받음으로써, 아직 (종교에 대한) 정책적 관념이 형성되지는 않았다. 隋 王朝의 중국 통일은 적정한 전국적 종교정책의 제정에 필요한 정치적 여건을 만들었다. 隋 文帝는 政令에서 儒, 佛, 道 3교 모두를 중시할 것을 제창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中國 역사상 처음으로 三敎混合의 방식이 창설되었다. 唐 太宗의 貞觀年間에는 3교의 혼합이 국책으로 정해졌다. 그러므로 수·당시대에 儒, 佛, 道 3敎는 비록 상호간에 경쟁은 있었다 해도, 융합이 주류를 이루어 서로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봉건사회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다.

한반도에는 자고이래로 자연을 숭배하는 신앙이 있었다. 고대 한반도의 사람들은 萬物有靈의 애니미즘을 믿었으며, 이것이 宗教生活의 시작이었다. 한반도에 불교가 유입된 것은 三國時代의 高句麗에서 시작된다. 고구려 중엽인 제17대 소수림왕 3년에 秦(前秦)에서 불교가 고구려로 전해지고, 그로부터 40년 뒤 百濟에 불교가 유입되고, 다시 10년 뒤에 新羅로 전해졌다. 고구려는 중국 북부의 불교를 받

아들이고, 백제는 대륙과의 교통이 어려웠기 때문에 南朝의 佛敎를 받아들였다. 三國에 전해진 불교는 각 왕실의 비호를 받을 뿐 아니라 불교의 교리는 삼국 고유의 神敎信仰과 조화를 이루며 급격히 발전하였다.

일본의 神道敎는 自然崇拜와 皇族祖上崇拜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일본 고유의 민족종교이다. 유학이 처음으로 일본에 전해진 것은 서기 285년으로 百濟學者 王仁이 在日 百濟學者인 阿直岐의 요청에 응해 『論語』 10卷과 『千字文』 1卷을 휴대하고 일본으로 건너간 데서 시작한다. 그 후 서기 522년에 백제의 明王이 釋迦佛金銅象과 『經論』 등을 일본에 보냈는데, 역사는 이것을 ‘佛敎公傳’이라 칭한다. ‘佛敎公傳’은 불교가 일본에 전파되기 시작하였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불교가 일본에 유입된 후 神道敎와 불교가 융합하여 최후에는 ‘神佛一體’의 길로 나가게 된다.

## 2. 隋·初唐時期 中國, 韓半島, 日本 등 삼국의 佛敎에 나타나는 특징

수당시대의 통치계급은 儒, 佛, 道 3교의 융합정책을 채택하고, 각종 종교를 포용하였다. 이슬람교, 景敎, 마니교, 배화교 등 기타의 외래종교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용적 태도를 취하였으며, 외국의 상인, 사절단, 교민들의 각종 종교 신앙을 존중하고, 선교사의 선교활동과 종교건물의 건축을 허락하였다. 수당시대에 각종 종교가 융성한 것은 통치자의 의지와 무관하지 않다. 이 시기에 봉건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중국은 적극적으로 외국문명을 흡수하고 또한 자국의 문명을 수출하였다.

한반도에서는 불교가 유입되는 과정 중에 오히려 통치계급이 정교합일의 정책을 채택하면서 정치불교를 형성하여 불교가 국가종교가 되었다. 불교가 고구려, 백제, 신라에 전해진 시기가 달랐으며, 때로는 불교의 순조롭게 전파되기도 하였으나, 때로는 선교를 위한 순교자도 나타났다. 그러나 일단 통치계급에 의해 받아들여진 불교는 바로 鎮護國土, 教化民心의 국교가 되었다.

일본은 한반도와 같이 통치계급이 불교에 대해 역시 정교합일의 정책을 채택하고, 불교가 유입되는 과정에서 정치 불교와 국가종교를 형성하게 되었다. 奈良朝 말기에 이르러 비로소 불교가 정치에서 벗어나 政敎가 병립하게 되었다. 일본의 推古天皇과 天智天皇 시대에는 이웃의 선진국인 中國을 모방하고자 하였다. 통치계급이 접촉한 불교는 유교적 색채의 불교로, 통치계급은 불교가 봉건개혁을 진행하는데서 奴隸主 귀족의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유력한 무기임을 알게 됐다. 불교를 국가의 의지로 승화하는 것은 중앙집권과 생산력의 발전에 더욱 유리하였다. 이러한 개인(권력자)이 불교에 대한 숭배 및 불교를 개혁의 도구로 삼으려는 생각들이 일본 정치 불교의 탄생에 촉진하였으며, 또한 개인(권력자)의 신앙과 국가정책이 서로 결합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하였다.

## 3. 隋·初唐時代 中國, 韓半島, 日本 三國의 불교에 서로 다른 특징이 나타나게 된 원인

위와 같이 삼국의 불교에 서로 다른 특징이 나타나게 된 이유로는 ① 서로 다른 사회제도와 문화의 影響, ② 통치계급의 서로 다른 정치적 필요, ③ 현저히 다른 경제 환경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밖에 불교의 교의에 대한 다른 이해와 해석 역시 불교가 서로 다른 양상으로 출현한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고려 중·후기에 완성된 『三國史記』(1146)와 『三國遺事』(13세기 중엽)는 한국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史書이다. 한국의 역사에는 三國時代, 統一新羅時代로부터 高麗 前期에 이르기까지 다량의 사서가 등장한다. 이러한 고대 한국의 사서들은 일반적으로 ‘古記’라고 불린다. 그러나 이러한 고대 한국의 사서들은 지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三國史記』와 『三國遺事』 및 기타 문헌 중에서 고대 한국의 사서들에 관한 실마리를 수집할 수밖에 없다. 북한, 한국, 일본의 학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오랜 시간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들은 고대 한국의 사서를 부정하는 관점을 비판하고 그 존재와 기록의 기본적인 진실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 복잡성 또한 인정하고 있다. 또 이들은 나아가 舊 『三國史』, 『一統三韓記』, 『古典記』 등 여러 사서에 대해서 구체적인 고증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아직 분명치 못한 문제들이 남아 있다.

### 1. ‘古記’는 고대 한국 모든 史書의 通稱

필자의 통계에 의하면, 『三國史記』 중 ‘古記’類의 서적은 26차례 언급되며, 그중 ‘古記’가 16차례, ‘海東古記’가 2차례, ‘三韓古記’가 1차례, ‘新羅古記’가 3차례, ‘本國古記’가 2차례, ‘古傳’이 1차례, ‘新羅傳記’가 1차례 등장한다. 이외에 인용된 서적은 모두 그 作者와 書名이 있다. 대개 ‘古記’는 某種의 官府에서 편찬한 史書이거나 또는 체계적인 斷代史의 통일된 書名으로 인식하나, 이렇게 보면 사실 그 상황은 매우 복잡하다. 첫째, 위에서 지칭된 6종의 서적은 ‘國別史’, ‘三國史’가 있고 그 내용이 불분명한 史書도 있는데, 이는 ‘古記’의 형태가 통일적이지 못함을 말하고 있다. 두 번째, ‘古記’라고 하는 지칭 자체가 안정적이지 않다. 『三國史記』에는 ‘古記’라고 지칭하지 않고 ‘古傳’이라던지 ‘新羅傳記’라는 두 종류의 史書가 나타난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三國遺事』는 더 많은 단초를 제공한다. 필자는 『三國遺事』 중에 인용된 확실한 本國史料의 통계를 냈는데, 『三國遺事』에는 150차례에 걸쳐 79편의 本國史料가 인용된 것을 발견했다. 거기에는 소위 말하는 ‘古記’, ‘鄉傳’, ‘傳’, ‘古本’, ‘別記’와 같은 類의 표현이 매우 많았다. 이들은 명칭이 같은 경우라고 해도 다른 곳에서는 또 다른 서적으로 지칭되어 정확한 명칭을 판명할 방법이 없다. 만일에 이러한 불분명한 지칭들을 제외시킨다면, 『三國遺事』에서 분명한 서명으로 인용된 것은 모두 54종이다. ‘古記’와 관련된 書名의 기록은 ‘古記’ 10차례, ‘新羅古記’ 1차례, ‘新羅別記’ 1차례, ‘高麗古記’ 1차례, ‘百濟古記’ 1차례, ‘駕洛(國)記’ 2차례, ‘新羅古傳’ 1차례, ‘本朝史略’ 2차례, ‘東明記’ 1차례, ‘檀君記’ 2차례, 그밖에 ‘鄉記’ 1차례, ‘鄉古記’ 1차례, ‘鄉傳’ 11차례, ‘古傳’ 3차례, ‘山中古傳’ 1차례, ‘古典記’ 1차례, ‘別記’ 3차례, ‘別傳’ 4차례, ‘記’ 2차례 등이다. 이와 같이 복잡한 書目은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사서의 수량이 적지 않았음을 설명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명칭의 용법이 엄격하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金富軾은 중국 정사의 체계를 참고하여 『三國史記』를 편찬하였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고대 한국의 史書를 규범화된 통칭으로 불렀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古記’라는 통칭으로 불리는 현상이 형성된 원인이다. 『三國遺事』의 편찬자는 명칭의 규범화에 관한 의식이 분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三國遺事』 속에 나타

난 고대 한국의 사서에 관한 지칭이 비교적 자유분방하다. 그러나 『三國遺事』에서 볼 수 있듯이 고대 한국의 사서는 ‘古記’와 ‘鄉傳’으로 나눌 수 있으며, 前者는 ‘古記’, ‘古傳’, ‘史略’, ‘古本’, ‘記’등을 포함하고, 後者는 ‘鄉傳’을 비롯하여 ‘鄉記’, ‘別記’, ‘別傳’ 등을 포함한다. ‘古記’類의 내용은 대부분 국가의 대사에 관한 것이고, ‘鄉傳’類의 내용은 대다수가 인물과 지방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록이다.

## 2. 한국 고대 사서의 분류

고대 한국의 史書는 대체적으로 專門史와 通史로 나눌 수 있다.

① 專門史: 대부분이 통일신라시대부터 고려 전기까지 일부 문인들이 고대의 사서나 전설 중에서 선택하여 전문적으로 사회의 어떤 한 부분에 관해 작성한 史書이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花郎世記』, 『漢山記』, 『樂本』 등이 있다. 專門史 중에는 특수 분야의 사서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불교의 典籍이다. 불교는 高麗의 국교였다. 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많은 귀족의 자제들이 불문에 귀의했기 때문에 승려들의 문화적 소양은 매우 높았고, 그에 따라 한국의 불교에 관한 많은 량의 역사적 자료들이 남겨졌다.

② 通史: 朝鮮古代의 通史類의 史書는 各國의 本國史도 있고 各國의 通史를 종합한 것도 있다. 이러한 종류의 통사는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되어 高麗 이전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이들 통사는 오랜 시간에 걸친 발전 과정 중에 몇 번의 改造를 거쳤다.

## 3. 고대 한국의 통사와 그 개조

일찍이 삼국시대부터 삼국 모두가 각자의 通史를 가지고 있었다. 통사의 체계는 『三國史記』 중에 기재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종종 오해하는 것은 바로 통사의 시작이다. 또한 사람들은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에 이들 통사들이 직접적으로 인용되었거나 아니면 일부 첨삭되어 인용되었다고 생각함으로써 각종 비판이나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사실 『三國史記』 중에 기재된 通史類 史書는 기본적으로 古史의 시작이 아닐 뿐 아니라, 古史의 정형 또한 아니다. 통사의 체계는 일찍이 『三國史記』 이전에 이미 몇 번의 개조를 거치게 된다.

우선 신라의 통사를 보면,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 眞興王 6년조에 기록되기를, 秋 七月, 伊淪 異斯夫가 “國史者, 記君臣之善惡, 示褒貶于萬代, 不有修撰, 後代何觀?”이라 말한 데 대해 왕이 이를 심히 옹계 여겨 居柒夫 등에게 명하여 널리 文士를 모아 書를 편찬하게 하였다. 이 史書의 書名을 어떤 이들은 ‘國史’라고 하는데, 사실 『三國史記』의 기록에는 정확히 명칭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居柒夫傳에 ‘修撰國史’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것을 書名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게다가 이 ‘國史’ 역시 新羅 최초의 史書는 아니다. 智證王 때부터 시작하여 신라에는 한문화의 물결이 본격적으로 유입되었다. 이 시기에 국사를 편찬하는 것은 당연히 한문화의 영향 하에 시작된 것이다. 한문화 중에서 儒家는 역사 편찬을 가장 중시하였다. 이른바 “君臣之善惡, 示褒貶于萬代”가 바로 유가의 관념이다. 따라서 ‘國史’란 신라 최초로 유가적 관념의 영향 하에 편찬된 책이라 할 수 있다. 『三國史記』 「新羅本紀」에는 신라의 始祖 때부터 부단히 德, 道, 禮, 讓 등 유가의 개념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대단히 체계화된 것으로 후대 사람들에 의해 가필된 것이 분명하다. 원시 기록의 상태가 아닌 것이다. 필자는 연대순으로 배열된 ‘本紀類’의 史書는 內勿尼師今(365-402) 이후에 편찬 되었으며, 眞興王 때에 이르러 중국 사서의 형식으로 사서의 정리가 시작되었다고

판단한다.

다음은 고구려의 통사 현황이다. 『三國史記』 卷20, 「高句麗本紀」, 嬰陽王 11년에 이르기를 “詔大學博士李文眞, 約古史爲新集五卷. 國初始用文字時, 有人記事一百卷, 名曰留記, 至是刪修”라 한다. 여기에 보이는 『留記』는 고구려 최초의 사서일 가능성이 있다. 『新集』은 단 5권뿐이기 때문에 첨삭된 것이 적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이는 유가 관념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시기는 서기 약 600년경으로 고구려에 漢文化가 전면적으로 유입된 소수림왕 시대로부터 약 300여년의 시간이 흐른 뒤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 중국 사서의 형식으로 역사를 다시 편찬한 것은 아주 정상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新集』을 김부식이 보지 못한 것 같다. 왜냐하면, 「高句麗本紀」는 長壽王 이후에는 거의 중국의 사료를 이용하고 있고, 長壽王 이전에는 「新羅本紀」나 「百濟本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화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김부식이 근거한 고구려의 사서는 대개는李文眞이 첨삭하기 이전의 고문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留記』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백제의 통사 현황을 보면, 『三國史記』 卷24, 「百濟本紀」, 近肖古王 30年, 古記에 이르기를 “百濟開國以來, 未有以文字記事, 至是得博士高興, 始有書記” 운운하는 기록이 있다. 어떤 이들은 이에 근거하여 백제 최초의 사서가 『書記』라고 하나, 사실 위에 언급된 문장은 “백제가 開國한 이래로 문자기록이 없었으나, 오늘에 이르러 博士 高興이 있어 기록이 시작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보면 『書記』는 ‘기록을 하다’는 뜻으로 결코 書名이 아니다. 따라서 “未有以文字記事”란 기록을 통해 “이전에는 중국 사서의 형식으로 역사를 기록한 것이 없었다”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즉 高興이 기록한 방식은 이전과는 다른 것이었다. 그는 ‘博士’이고, ‘得’한 사람이었다. 즉 중국으로부터 온 文臣이었다. 5호 16국시대의 後趙, 前燕등의 나라에는 모두 國子博士, 五經博士 등이 있었고, 東晉에는 그 외에도 太常, 周易, 儀禮 등의 博士가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이들은 儒家 典籍을 연구하는 經學博士이며, 유가 관념의 영향을 가장 깊이 받은 사람들이다. 만일에 高興이 백제에 도착한 이후에 박사에게 명해졌다면, 백제의 博士 역시 유가정전을 연구하는 관직이었을 것이다. 高興은 박사였을 뿐 아니라 그가 한 기록 역시 반드시 유가적 관념에서 출발하였을 것이다. 그의 서술이 신라인들의 국사 편찬과 다른 것은 사서를 재정리하지 않고 近肖古王때 부터 시작하여 當代史를 기록한 것이다.

이상이 삼국시기 각국의 통사의 면모이다. 각국에는 모두가 비교적 일찍부터 원시기록이 있는데, 신라와 고구려는 후에 유가 관념과 중국 사서의 형식으로 재편찬을 하였으며, 백제는 유가적 관념으로 새로운 기록을 시작하였다. 이것은 통사 체계의 첫 번째 改造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가적 관념은 철저히 관철되지 못하였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많은 신화기록을 볼 수 없었을 것이다. 통일신라의 근 300년에 가까운 시간에 걸쳐 고사 체계는 또 한 번의 改造를 거친다. ‘某國古記’의 형식을 채용한 통일된 書名, 또는 ‘某國古記’로 通稱된 것들은 본래 동일한 시대에 동일한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것임을 암시한다. 삼국시대의 통사는 이러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관에서 편찬한 사서였다. 그러나 소위 ‘古記’는 통사의 체계에 속할 뿐 아니라 하나의 국가에 한 部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삼국시대의 고사가 훗날 또 한 번 再編纂을 거치게 된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여러 개의 판본으로 아마도 관에서 편찬한 것이 아닌 것 같다.

통일신라 후기 또는 고려 초기의 통사체계는 제3차 개조를 거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삼국의 통사를

하나로 묶어서 편찬한 사서이다. 『三國遺事』에는 삼국사, 삼국사기, 국사, 삼국본사 등의 서명이 나타나는데, 그중 국사는 김부식이 편찬한 『三國史記』를 말하는 것이고, 기타의 서책은 다른 것을 나타낸다. 이는 高麗 전기에 한 책 또는 여러 책을 종합한 삼국 역사에 대한 사서가 확실히 존재하였음을 의미한다.

#### 4. 舊『三國史』辨析

舊『三國史』에 관한 증거는 李奎報의 『東明王篇』의 서문 한 곳뿐이다. 李奎報는 『東明王篇』 서문 뒷부분에서 “沉國史直筆之書，豈妄傳之哉”라 하고 또 舊『三國史』를 ‘國史’라고 하였다. 만일 이 ‘國史’가 汎稱이고 특정한 書名이 아니라면, 문장의 의미로 볼 때 舊『三國史』역시 汎稱이라고 할 수 있다. 『三國史記』가 있었으므로 그 이전의 사서들은 舊『三國史』로 지칭한 것이다. 이것은 바로 『三國遺事』가 그 이전의 사서들을 ‘국사’, ‘삼국사’로 지칭하여 『三國史記』와 구별한 것과 같다. 학계에서 舊『三國史』를 중시하는 하나의 이유는 舊『三國史』가 삼국의 역사를 종합하여 하나로 편집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舊『三國史』가 마치 체계적으로 쓰여진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三國遺事』로부터도 볼 수 있듯이, ‘삼국사’, ‘국사’는 삼국의 역사를 기록 했을 뿐 아니라, 고조선, 부여, 발해 등의 역사도 기록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규보가 본 책도 각국의 통사가 혼합된 것이지, 그것이 삼국의 역사를 종합하여 다시 쓴 ‘舊『三國史』’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요컨대, 한국 초기 史書 중의 通史 체계는 高麗 중기 이전에 이미 하나로 조합되었으나, 그 구체적인 면모는 아직 불명확하다. 특히 통일적 격식과 사상 체계가 완비되었는지는 아직 실증하기 어렵다. 따라서 김부식의 『三國史記』에 대한 비평 역시 신중해야 할 것이다.

### 朝鮮義勇軍의活動與中國朝鮮族歷史的聯繫

黃龍國, pp.64~71

조선의용군의 전신은 조선의용대로, 그 기본적인 기원은 東北 지방의 조선족 청년이었다. 조선의용대의 주력이 太行山으로 옮겨간 후에, 조선의용군으로 조직을 개편하였고, (중국공산당) 八路軍에 배속되어 항전하였다. 의용군은 상황의 전개에 따라, 延安에 延安朝鮮革命軍政學校를 세우고, 주로 우수한 조선족 혁명 간부들이 지도와 培養 업무를 담당하였다. 일본이 패전 후, 조선 의용군은 동북으로 진군하여, 일부는 조선으로 가고, 남은 사람들은 세 支隊로 편성되어 조선족 거주 지역에서 활동을 계속함으로써 조선족 사회 역사의 발전을 촉진했다.

#### 1. 朝鮮義勇隊와 朝鮮族

1905년 일본에 의해 강압적인 乙巳條約이 체결된 후, 조선의 반일 애국지사들은 분분히 중국으로 피신을 하여, 특히 동북의 조선족 거주 지역에 항일단체 및 무장대오를 조직하여, 독립군운동을 전개하였다. 1937년 말, 조선민족혁명당과 기타 혁명단체들이 연계하여 國民黨 軍事委員會에 우수한 조선의 청년을 군사학교로 파견하여 군사업무를 학습하게 하며, 아울러 군사업무를 증추로 배양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蔣介石은 이에 동의했다. 1937년 11월 12일 조선민족전선연맹은 ‘독립선언’을 발표하였다. 선언문의 요지는 “조선 민족의 유일한 출로는 전 민족의 단결된 역량으로 일본 제국주의를 무너뜨리고, 조선 민족의

자유 독립을 완성하자”는 것이다. 동시에 “우리는 중국인민과 연합하여 항일전쟁을 진행하여야 하며, 이는 역사가 우리에게 부여한 결정적 필연적 출로이다”라고 지적하였다.

조선 의용대는 민족전선연맹이 관할하는 무장대이었다. 그들은 두 가지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한편으로 중국의 항일전쟁에 참전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조선 및 중국내의 일본 점령지의 조선인을 조직하여 무장조직을 확대함으로써, 조선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는 것이다.

## 2. 조선의용군의 창건과 조선족

東滿洲 지방에서 일본의 진압이 잔혹해지자, 많은 사람들이 延邊을 떠나 북경, 상해, 연안, 광주 등으로 떠났다. 이때 陝西省 甘寧의 변경지역에 집결한 조선혁명 청년들 중 朴一禹, 陳光華 등은 중앙당교에 입교하였고, 국민당 통치 지역에서 이동해 온 崔昌益, 李相朝 등은 연합항일군정대학에서 학습하였다. 그리고 朱德海, 李春根 등은 당에 의해 모스크바 동방노동대학에 파견되어 학습을 하였다. 중국공산당은 太行山에서 東北幹部訓練班을 개설하여 조선족 청년들을 훈련시켰는데, 1939년 9월부터 1940년 초까지 중국혁명의 역사와 당시의 (국제) 형세에 관해 교육하였다.

1940년 9월에 의용대는 광복군의 건립으로 인해서 생존에 위협을 느끼게 되었다. 조선청년전위동맹대원들은 생존을 보장하고 대오를 확대하기 위하여, 화북의 중공 근거지로의 이전을 강력히 요구하는 동시에 중경의 팔로군 판사처와 연락을 취하였다. 중국공산당 근거지 내의 의용대를 흡수하기 위하여 근거지 공작자와 연합항일군정대학을 졸업한 조선 민족 공산주의자들이 1941년 1월 10일에 太行山에서 화북조선청년연합회를 조직하였는데, 武亭이 회장이 되었으며 회원은 모두 21명이었다. 1942년 7월 11일부터 14일까지, 화북조선청년연합회는 제2차 회의를 열었는데, 여기서 연합회 명칭을 화북조선독립동맹으로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조선독립동맹은 전 민족적인 반일 통일전선단체로 발전하기 위해 국내와 만주지방의 조선족 농민 가운데로 요원을 파견하여 조직 발전을 위한 사업을 했다.

국제 반파시스트 전쟁의 급격한 상황 변화에 근거하여, 팔로군 총사령부와 독립동맹의 지도자들은 다가오는 大事變에 대응하기 위해 무장부대의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를 위해 통지문을 발송하여 화북 각지의 의용대 각 부대를 연안에 집결시켜 훈련하였다. 1944년 초에 중공 당 중앙에서 파견한 朱德海 등이 연안조선혁명군정학교의 건설계획에 참여하였다. 1945년 2월 5일에 연안 부근의 羅家坪에서 연안조선혁명군정학교의 개교 기념식이 거행되었다. 결국 중공당교에 입교하거나, 항일군정대학에서 학습을 하거나, 太行山 동북간부훈련반에서 훈련받은 조선족의 우수 간부들은 의용군 전사를 배양하고 무장부대를 조직하는 등의 업무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 3. 조선 의용군의 동북지역 활동이 조선족 사회 역사에 미친 영향

1945년 8월 8일 소련이 일본에 선전포고하고, 소련군은 일본 관동군에 대해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혔다. 1945년 8월 18일 地下工作者였던 韓靑이 瀋陽에서 조선 의용군 독립지대를 조직하기 시작한다. 1945년 9월 중순에 遼寧軍區의 朱然이 통솔하는 조선 의용군 선발대 100여명이 심양에 도착하여 한청의 독립지대와 합병하여 조선 의용군 선발 縱隊라고 명명하여, 총대장에 韓靑을 총대장, 朱然을 정치부 주임으로 하는 총 1400여 명으로 구성된 조직을 갖추었다. 이때 武亭이 이끄는 조선 의용군이 심양에 도착하여 선발대와 합쳐진다. 1945년 11월 10일에 심양의 洪區에 위치한 吳家荒의 조선족 소학교에서 ‘조선 의

용군 지휘전사 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武亭은 동북지구의 혁명투쟁에 참가했던 우수한 조선족 지휘 요원들을 3개 지대로 편성하고, 활동지점을 지정하였다.

일본이 투항한 후에, 중국 공산당은 吉林省에 조선족 靑年武裝隊伍 특별지부를 조직하였다. 1946년 3월에 중공 중앙 동북국은 조선의용군의 주요 지도자들이 조선으로 돌아간 상황에 근거하여, 조선의용군이란 명칭을 취소하기로 결정하고, 그 이름을 東北民主聯合軍으로 개칭하였다. 1946년 12월부터 연변 지역에 토지개혁운동이 물결치기 시작했다. 조선의용대는 토지개혁운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당원의 소양을 발전시키고, 간부를 배양하여 민족구역 자치의 기초를 다졌다. 1948년 말에는 연변지구의 당원이 5,244명으로 늘어났는데, 그중 3,834명이 조선족으로, 전체의 73.1%를 점유하였고, 당 건설 공작 중에 배양된 783명의 區級간부 중 조선족은 79.7%를 점유하였다. 1950년대 중반에 이르러, 연변은 간부의 민족화를 실현하였다. 당중앙, 全國人大, 全國政協, 吉林省人大, 政協등에 모두 조선족 대표가 포함되었다.

결론적으로, 조선의용군의 각 지대는 당의 지도하에, 조선족 거주지역의 토지개혁과 민주정권 건설에 협조하고, 빈곤한 중하층 농민에게 토지를 주었으며, 나아가 민족지구 정권의 주인이 되었다. 그러므로 농민이 몸소 군대에 참여하고, 전선을 지원하는 뜨거운 열기는 형제(중국인)부대와 함께 국민당 군대를 부수는 進攻을 가능케 한 원동력이 되었으며, 이것은 나아가 조선족 사회 역사의 발전을 강력하게 촉진시켰다.

## 日本帝國主義對中國朝鮮族奴化教育體系的形成過程

吳千石, pp.81~86

일본제국주의는 '9.18'사변 이전에는 친일사상을 주입시키는 교육기구의 건설 및 조선족 지식분자와 '뜻있는 신사[有志紳士]'를 회유 하였으나, '9.18'사변 이후에는 조선족 사립학교의 폐쇄 및 교육 내용을 개정하는 등 강경한 정책 실시를 채택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비교적 완전한 식민지 노예화 교육체계를 구축하였다.

일본제국주의는 1908년 용정촌에 첫 번째 친일학교인 '間島中央學校'를 설립한 후에, 차례차례 21곳의 조선족 書堂을 사들였다. 1915년에는 용정에 '間島簡易農業學校'를 설립하고, 계속해서 4곳의 보통학교를 설립하였다. 그 외에도 대량의 '補助學堂'을 설립하였다. 완전한 통계는 아니지만, 1928년에 동북지구에 54개의 보조학당을 세웠다. 이러한 보통학교와 보조학당은 조선총독부와 함경북도에서 경영하였다. 이외에도 '南滿洲鐵道會社'가 경영하는 7곳의 보통학교가 있었고, '光明會'가 경영하는 6곳의 친일학교 및 '東亞勸業株式會社'와 '華興公社'가 운영하는 4곳의 학교가 있었다. 이로써 9.18사변 전에 일본제국주의자들은 문화침략을 실천하기 위한 식민교육체계를 세우고, 이러한 학교들을 이용하여 조선족 학생에 대해 친일화를 진행시켰다.

일본제국주의는, 조선족은 水田 개발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水田을 개발하는 것은 조선족이 동북에서 해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를 위해 조선족 학생들은 소학교에서부터 '農業課' 수업을 들어야 했으며, 각종 의무노동에 참가할 것을 강요당했다. 이와 동시에 각 급 학교 교육에서 조선의 역사와 지리는 완전히 배제시켰다. 통계에 따르면, 1930년에 일본제국주의는 동북의 조선족 교육에 22만 854엔의

자금을 투입했다. 이는 일본제국주의가 조선족을 농락하고 노예화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입했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일본제국주의는 1931년 9월 18일 소위 '9.18사변'을 일으키고, 전체 동북지방을 집어 삼켰다. 하지만 점령 초기의 통치는 안정적이지 못했다. 동북지방 도처에서는 중국 공산당의 지도하에 항일활동이 진행되고 있었다. 일본제국주의는 정국을 안정시키기 위해 9.18사변 후 조선족에 대한 '統治와 安定' 정책을 추진했다. 이러한 정책 하에서 이전의 친일화 정책을 버리고 강경정책노선을 취하였다. 노예화 교육을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노예화 사상을 주입시킬 교육기구가 필요했다. 9.18사변 후, 식민통치가 안정됨에 따라 反日사립학교 등에 대해 강제합병, 개편 그리고 폐교 등을 강행하였다. 동시에 조선족 사립학교 교원과 학생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진행하여 면직, 체포, 감금, 살해 등 야만적 행위로 억압을 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9.18사변 전에 710곳의 조선족 사립학교가 1932년에 이르러서는 377곳으로 감소되었다. 그러나 보통학교의 성장은 매우 빨라서, 1936년 통계에 따르면, 길림성 내에서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경영된 조선족 보통학교는 76곳으로, 9.18사변 전 45곳에 비해 31곳이 늘어났으며, 학생 수는 9.18사변 전 6,093명에서 8,410명으로 증가 하였다. 이와 같이 한편으로는 조선족 사립학교에 대해 박해를 가하면서, 동시에 官立學校 창설을 제창하여 조선족 학생에 대해 엄중한 억압을 가하였다.

당시에 조선족 학생이 다닌 학교는 대체로 ① 일본 대사관 내무국에서 개설한 학교, ② 만주철도회사에서 경영하는 14곳의 보통학교와 조선총독부에서 경영하면서 경비를 제공하는 5곳의 보통학교, ③ 각지 일본영사관 관할내의 조선 거민회사가 경영하는 보통학교, ④ 移民회사가 경영하는 학교, ⑤ 학교조합이 창립한 학교, ⑥ 만주국 공립학교, ⑦ 종교단체가 경영하는 사립학교, ⑧ 사립학교 등이었다.

일본제국주의는 1933년에 '사립학교에 관한 임시시행규정'을 반포하여 사립학교를 통제하는데, 당시 만주국의 교육방침은 '건국정신'을 강조하면서도, 사실상 (일본제국주의의) 만주 경영의 목적과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을 뿐, 문맹정치에 주안점을 두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을 제한함으로써 만주국을 영원히 통치하는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9.18 사변 후 일본 제국주의는 각종 수단을 동원하여 조선족 반일학교의 교원과 학생을 박해하였다. 이러한 강제적인 정책 하에서 많은 조선족 사립학교가 강제로 폐교를 당했고, 따라서 조선족 학생의 취학률이 점차 낮아졌다. 1936년 만주국외국의 국무원 문교부 통계에 따르면, 만주국외국의 16개 도시 중에서 조선족 취학 적령기 아동은 13만 7,644명이었는데, 그중 남자아이가 7만 8,832명, 여자아이가 5만 8,812명이었고, 이중에서 6만 6,715명(남자 5만 1,736명, 여자 1만 4,979명)만이 취학을 하여, 취학률이 48%에 불과 하였다. 결과적으로 일본제국주의는 이 시기의 식민지 노예교육을 통해서 비교적 완전한 노예교육 체계를 완성하였고, 그 후 전면적인 노예화 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를 다졌다.

### 1. 한국학의 개념

개혁개방 이래로 우리나라[중국]의 학자들은 학술적 시각에서 다방면으로 한국을 연구하였다. 이로부터 ‘한국학’이라는 용어가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으며, ‘한국학연구중심’이나 ‘한국학학회’등과 같이 ‘한국학’으로 명명된 학술기구와 학회들이 건립되었다. 최초의 ‘한국학’이라는 개념은 외국학자가 한국을 연구하거나 혹은 한국학자가 대외적으로 한국을 표현할 때 사용되었다. 오늘날 ‘한국학’의 연구범위는 한국을 벗어나 한국과 조선(북한)을 포함한 전체 한반도의 연구를 지칭하는 학술용어가 되었다. ‘조선학’이나 ‘고려학’ 또한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용어로 본질적인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보면 한국학 연구에는 대체적으로 ‘東國’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東國’ 또는 ‘東’이라는 術語는 고려시기의 『東國文監』, 『東國李相國集』, 『東人之文』 등의 서적에 처음 나타난다. 조선시기의 ‘東國’은 국호와 구별되는 독립적 문화단위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조선 왕조의 학자들은 조선에 대한 학술 연구를 진행할 때,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 근거하여 ‘中國’이란 어휘에서 유추하여 ‘東國’을 사용하였다. 또한 조선의 학자들은 ‘東國’이란 절대 중국 경내의 동국이 아니라, 독립적 문화, 독립적 자연환경, 독립적 민족의식을 가진 문화 정체로서의 ‘東國’임을 강조하였다.

20세기에 들어서서, 가장 처음 ‘조선학’을 제창한 이는 崔南善이다. 최남선이 주도한 조선학은 한반도를 대상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중국 이외의 전체 동양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따라서 그의 ‘조선학’과 ‘동양학’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었지만, 상이한 부분 또한 존재한다. 최남선의 동양학은 전체 東夷문화를 조선 문화의 근원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는 조선 후기의 ‘東國學’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20세기 30년대 중반에 조선학은 학술적으로 큰 발전을 이루는데, 당시 조선학의 대표적인 인물은 安在鴻이었다. 안재홍의 조선학 개념은 기본적으로 1920년대의 사상을 계승한 것이나, 그의 “역사연구를 통해서 학술적으로 한국문화 고유의 특색을 발굴해내자”는 주장은 20년대에 비해 확실히 발전된 것이다. 정약용등 실학자에 관한 연구가 이 시대를 풍미하였으며, 민족적, 민중적, 실용적 실용정신을 강조한 것은 바로 30년대 조선학 운동의 대표적 학술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광복 이전의 한국학은 대체로 역사, 철학, 종교 등의 문화영역으로부터, 한국 문화의 고유한 특색을 탐색하였으며, 학파가 많았고, 독립운동과 정치이념 그리고 학술연구가 서로 혼재되어 있었다. 광복 이후 특히 최근 2-30년간 ‘한국학’은 광범위하게 운용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한국어, 한국사, 철학, 종교 등의 학술영역을 중심으로 많은 대학의 연구기구들이 세워지고, 게다가 다른 학술영역의 연구체계도 포용하고 있다. 최근 범위가 넓어진 한국학의 연구대상은 한국의 언어와 역사를 포함 할 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의 모든 영역까지도 포용하면서 역사와 현실을 결합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005년 1월, 새로이 명명된 한국학중앙연구원 부속 한국학대학원의 석·박사생 종합과정에는 한국사학, 고고학, 고문헌관리학, 철학, 윤리학, 국어학, 국문학, 음악학, 미술사학, 인류학, 민속학, 종교학, 정치학, 경제학, 교육학, 해외한국학 등의 전공을 포함되어 있다. 또한 한국학중앙연구원은 현재 동북아 고대사 연구와 한국학 정보화 연구에 힘쓰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조선학' 연구 역시 언어, 역사를 위주로 기타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의 조선사회과학원은 원사, 후보원사, 교수, 박사를 중심으로 고급학위 획득자를 집중시키고 있다. 그들은 해마다 대량의 철학, 경제학, 법학, 역사학, 문학, 언어학, 고고학, 민속학, 민족고전학 등 모든 사회과학 영역에서 고품질의 서적이거나 논문을 출판하거나 발표한다.

## 2. 中國의 韓國學

중국의 한국학은 한반도의 철학, 정치, 경제, 법학, 교육, 언어, 문학, 예술, 역사, 지리, 군사, 체육 등 모든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돌이켜 보면, 중국의 한국학은 대체로 협소한 범주에서 넓은 범주로의 전환을 완성시켰고, 개혁개방 이래로 현대중국의 한국학은 광의의 한국학으로 기울어져 있다. 냉전시대가 끝남에 따라 한중수교가 이루어지고, 중국에서 한국학이 흥성하기 시작하였다. 수교 후에 한국학과 관련한 연구소가 많이 세워졌으나, 초기에는 한국어 교육을 위주로 하는 연구가 진행되었고, 그 후에 연구범위가 점차 전체 한국학 영역으로 확대되어 갔다. 21세기 오늘날, 중국의 한국학에 대한 연구는 이미 성숙기에 들어섰다. 우리는 금후의 한국학 연구에 다음의 몇 가지 문제를 고려해야만 한다.

- ① 현재의 한국학 영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연구를 활발히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
- ② 우리는 한국학은 논할 때, 종종 단편적으로 한국학과 중국전통문화의 '同源性'을 강조하고, 한국학의 '本生性'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다.
- ③ 중국내 각지의 한국학 연구중심은 마땅히 서로 손을 잡아야 하며, 여건이 허락하면 중요 과제를 공동으로 연구해야 한다.

李羨林은 반드시 국내와 국외의 관점에서 한국학을 고찰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에 따르면, 국내적으로는 조선족의 우수한 문화전통을 보전하고 발휘하게 해야 하며, 대외적으로는 조선과 한국문화연구에 적극적으로 공헌해야 한다고 말한다. 李羨林은 또 오직 우리 중국의 朝鮮族과 漢族, 조선[북한]과 한국이 정성을 다해 단결하고, 한 마음으로 협력해야만 비로소 학술적, 정치적으로 휘황찬란한 위대한 사업을 창조해낼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중국의 한국학 연구자들은 반드시 대국의 품모로써 한국학 연구를 진행하여야 하며, 나아가 '天時, 地利, 人和'의 우세를 충분히 이용하여 漢字文化圈내의 한국학 연구에서 중요한 기능을 발휘해야만 한다.

## 3. 한국어학과의 발전 추세와 전망

최근의 한 비공식 통계에 따르면, 현재 (중국내에) 52개 大學이나 大專(전문대학)에 4년제 혹은 3년제의 한국어 전공이 개설되어 있다. 현재 중국 대학에서 한국어 학과는 전체 외국어 교육학과 순위에서 영어, 일어, 러시아어, 독일어, 불어 다음으로 6위에 올라있다. 또한 많은 대학이나 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제2 외국어로 선택하고 있으며, 이 또한 대학의 한국어 교육의 발전을 촉진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지금 한국어학과의 미래를 전망한다면, 그 전도가 매우 밝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한·중관계가 양호하게 발전하고 있다. 비록 두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외교 등 방면에서 일시적인 자질구레한 마찰이 존재하지만, 각 영역에 걸쳐 전면적인 교류와 합작은 여전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

어는 양국 간의 중요한 교류의 도구로 계속 발전될 것이고 따라서 한국어 학과의 설립 또한 많아질 것이다. 둘째, 한국어는 단지 서울하고만 교류하는 언어가 아니다. 한국어 교육은 필히 전체 한반도를 고려하여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반도 남북의 정치, 경제, 문화 및 외교 등의 동향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야만 한다. 셋째, 대학은 개혁개방 이래의 경험을 총결산한 기초 위에 이전의 단순한 한국어 교육에 머물지 말고 한국학의 여러 방면을 다루는 학과의 개설로 확대하여야 한다. 넷째, 우리[중국]가 보유하고 있는 한국의 현대 및 고대의 도서와 문헌자료는 비교적 풍부하며, 연구인원 또한 다른 나라와 비교해 뒤지지 않고 후속세대 연구인원 또한 적지 않다. 이상의 모든 것은 우리의 유리한 점들이며, 우리는 장래에 중국 특색의 한국학 및 한국어 학과를 건설해낼 것이다.

#### 4. 중국 조선어의 전망

중국 조선족들은 과거에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올 때부터 지금까지, 한 세기 반 동안 역사의 흐름 속에서 완전무결하게 자신들의 언어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혁명을 위하여 중국의 조선족들은 대대로 중국 공산당의 지도하에 분발하여 혁명의 열매를 지켜내고 있다. 현재 조선어와 조선문자는 중국사회주의 건설의 각 영역에서 개혁개방 및 문화의 전진 방향에 따라 자기의 빛을 발하며 중요한 작용을 발휘하고 있다. (개혁개방 이후) 조선족이 內地로 이동함에 따라, 關內(주: 산해관에서 가옥관 사이의 지역)의 조선어 사용 인구가 현저히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의 통계는 중국에 상주하는 한국인의 수가 29만 3,000명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상주 한국인과 조선족 사이에 비록 부조화를 촉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존재하지만, 그들은 기본적으로 비교적 화목한 사회를 이룩하고 있다. 그 이유는 그들 모두가 세계 시장경제의 물결 속에서 동일한 목표를 위해 분투하며, 동일한 언어와 문자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21세기의 오늘, 중국 조선어 관련 업무 담당자 앞에는 두 갈래의 길이 놓여 있다. 한 갈래는 대외 개방된 시장경제의 환경 가운데서, 형세를 똑똑히 인식하여 정확한 길을 따라 전진하는 것이며, 다른 한 갈래는 기회를 놓치고 비관과 실망으로 발걸음을 멈추고 주저앉아 곤경에 빠지는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어려움과 역경을 돌파하여 눈앞의 기회를 두 손에 움켜쥐으로써 민족경제의 전면적인 발전을 담보해야하고, 연해 지역의 새로운 'Korean 社會'에 전통적 형식을 탈피한 신형 학교를 창건해야만 한다.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신형학교는 우선 한국어를 잘 교육하고 동시에 한국어와 중국어를 겸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檀君神話의文化解析

苗威, pp.26~31

한반도의 창세신화인 단군신화는 풍부한 문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동시에 선명한 역사의식을 담고 있다. 이 신화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한반도의 역사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는 적극적인 의미를 갖는다.

##### 1. 단군신화의 출현과 기본 내용

단군신화는 한반도의 고려시대의 승려 一然이 저술한 『三國遺事』에 최초로 등장한다. 단군신화는 『三國遺事』 第1卷, 「紀異第一」의 첫 편에 기록되어 있다. 제목은 '古朝鮮'이다. 그 밑에 '王儉朝鮮'이라 되어

있는 것은 副題로 보이며, (古朝鮮은) '王儉朝鮮'을 중심으로 한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헌에서 일연의 각주를 보면, 이 신화는 결코 일연이 허구적으로 지어낸 것이 아니고 참고로 한 문헌이 있는데, 그 참고문헌이 바로 『古記』이다. 그러나 『古記』의 내용에는 문제가 있다. 그것은 단군과 왕검을 한 사람으로 본 것이다. 이는 잘못된 것이다. 또한 『古記』는 놀랍게도 漢四郡이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일연 역시도 三郡과 四郡의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분별하지 않았다. 여기에서 단군신화에는 확실히 선천적으로 부족한 무엇인가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 2. 단군신화의 성격 및 그 역사 의식

신화 기록이 정확한 역사를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상식 범주의 문제다. 엄격히 말하자면, 신화는 문학의 범주에 속한다. 게다가 신화와 전설은 동일한 것이 아니다. 전설이 신화에 비해 사료적 가치가 크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어쨌든 신화나 전설의 탄생에는 역사적, 사회적 배경이 존재한다. 단군신화에 대해 말하자면, 이 신화의 출현 시기는 공교롭게도 고려가 몽고족의 침입을 받던 시기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고려 사람들의 민족의식과 국가의식은 전에 없이 강화되었고, 그들은 역사적으로 같은 땅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먼 옛날의 조상(혹 조상신)을 희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외부에서 도래한 箕子를 그들의 유일한 始祖神으로 삼고, 오래된 전설이나 중국문화 중의 일부 내용을 이용하여, 단군의 건국신화를 꾸몄다. 단군신화의 편집자들은 단군과 기자의 관계를 명확하게 처리하였다. 즉 중원문명의 대표적 인물인 기자가 도래하기 전의 한반도 서북의 통치자는 토착민인 단군이었으나, 기자가 도래한 후에는 토착민의 대표였던 단군이 스스로 정치무대에서 물러나 산중으로 은거하여 신선이 되었다. 이것은 중원문명이 반도의 토착사회를 대체하였다는 역사적 사실과 역사 발전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것이 비록 한반도의 옛 사람들에게 '단군' 신앙이 깊음에도 불구하고, 기자에 대한 숭배와 신앙이 오래도록 쇠퇴하지 않는 원인이다. 특히 조선이 명 태조 朱元璋이 정한 '朝鮮'이란 국호를 받아들인 후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箕聖'의 숭고한 지위는 과거에 비해 모자람이 없었다. 단지 근대에 이르러 이런 상황이 현저히 변했을 뿐이다.

## 3. 단군신화의 문화적 내용

### 1) '곰과 호랑이'가 반영하는 토착문화

단군신화의 곰과 호랑이는 인격화의 加工을 거쳤다. 그들은 모두 현실 상황에 불만족하여 인간의 형체를 얻고 나아가 인간의 생활을 동경하여, 곰은 자신의 바람을 실현시키나, 호랑이는 그렇지 못하였다. 곰과 호랑이는 신화 속에서 가장 오래된 두 씨족을 반영한 것이며, 결과적으로 곰은 성심을 다해 '修道' 하여 진화와 번영을 하였고, 호랑이는 성심을 다하지 못하였기에 자신의 운명을 변화시키지 못하였다.

### 2) 왕검전설에 포함된 '方土文化'

단군신화가 출현하기 전에 이미 왕검의 전설이 세상에 널리 퍼졌으나, 분명히 해야 할 것은 후세인들이 신화를 꾸밀 때 본래 두 종류의 상이한 문화를 하나로 합쳤다는 것이다. 왕검의 전설은 '方土文化'이고 단군신화는 '불교문화'의 범주에 속한다. 金富軾의 『三國史記』「高句麗本紀」에 나오는 평양은 오늘날 평양 지역의 왕검성이 아니지만, 그 명칭은 仙人 왕검이 일찍이 그곳에 거주한 적이 있다 하여 얻은 이름이다. 소위 '方土文化'는 도교문화의 전신으로 戰國時代에 흥하여 秦漢時代에 성하였다. 한반도의 '方土文化'에

나타나는 핵심적인 내용은 신선승배 혹은 선인승배, 즉 도교신앙이 핵심 내용으로, 그것은 응당 중국의 도가 혹은 도교문화를 주체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申采浩와 같은 인물들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 申采浩는 『東國古代仙敎考』에서 ‘仙敎’는 단군 이래의 동국고유의 신앙이고 단군이 바로 선인의 시조이며, 仙敎는 중국의 도교와는 무관하고, 단군은 老子에 비해 천 년을 앞서 살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주장들은 모두 건강부회이다. 우리는 꿈이 변하여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의 서술 중에서 단군신화의 창조자는 아주 오래된 전설에다가 도가 또는 도교의 문화적 요소를 주입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단군신화가 내포하고 있는 ‘方士文化’ 혹은 ‘道敎文化’는 분명히 한문화이다. 설사 불교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또한 당연히 한화된 불교문화이다. 우리는 단군신화 전체 내용의 곳곳에서 한문화의 흔적을 느낀다. ‘檀君’ 혹은 ‘壇君’은 분명히 漢語 어휘이다. 다른 내용들 역시도 漢文化를 재료로 지어낸 이야기이다. 風伯, 雨師, 雲師들도 분명히 한국 고대의 토착 신령들이 아니다.

1786년 黃易은 山東省 嘉祥縣 南紫雲山 아래의 武氏祠堂의 석실에서 畫像石을 발견했는데, 한국학자 金載元은 『檀君神話之新研究』에서 이 畫像石의 내용과 단군신화가 서로 부합하는 것을 입증했다. 문제의 관건은 이 畫像石이 어느 시대의 산물인가이다. 이는 단군신화의 민족적 속성을 확정하는 데 지극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만일 이 화상석의 고사가 단군신화가 나오기 전에 출현한 것이라면, 이것은 오리지널 중국의 고대신화이며 한반도에 전파되어 한반도의 문화에 이식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만일에 이 화상석의 이야기가 단군신화 이후의 것이라면, 이 화상석과 관련된 주인은 산동에 정착한 고려나 조선의 이민이거나 그 후예일 것이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화상석에 중국 한문화적인 특징이 선명히 드러남으로써, 조선의 토맹신앙이 알타이어계 원시종족의 샤머니즘 문화에 기원한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근거가 부족하게 되었다.

#### 對山東蓬萊發現高麗靑瓷的思索

袁曉春, pp.32~35

2005년 7월, 登州港(蓬萊水域)의 준설공사 중에 3척의 고대 침몰선을 발견하였다. 그 중 蓬萊 3號 古船(주: 1984년에 古船 한 척이 발견되어 蓬萊 1號 古船이라 이름 하였고 그 서쪽으로 발견된 위치에 따라 蓬萊 2, 3, 4號라 명명하였다.)에서 두 점의 고려시대에 생산된 상감청자가 발견되어 한국 학술계의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8월 20일, 蓬萊 3號 古船 4번 창고에서 발견된 상감청자 水波聯珠紋碗은 이미 훼손되었지만, 구경이 18.5cm, 높이가 8.7cm, 저부 직경이 5.6cm이다. 8월 27일 蓬萊 3號 古船 6번 창고에서 발견된 菊花蓮瓣紋碗은 역시 이미 훼손된 상태였지만, 구경 10.3cm, 높이 3.7cm, 저부 직경이 4.5cm이다. 발견된 고려청자의 연대는 중국과 한국의 전문가들에 의해 元末明初로 판단되었다. 登州古港의 고대 침몰선상에서 해로부터 전파된 고려청자가 발견됨으로써 중국에서는 처음으로 과학적 발굴을 통해서 고려청자의 해로 전파경로를 증명하게 되었다.

당나라 때에 ‘登州海行入高麗渤海道’의 국제해로를 개통한 후에, 登州 항구는 나날이 번성하였고, 해외 왕래가 갈수록 빈번하여, 북방 최대의 항구로 발전하였다. 당나라는 해로를 이용하여 들어오는 신라의 사절을 영접하기 위하여 登州南街에 驛館[新羅館]을 건설하였다. 또 신라교민을 위해 靑寧鄉에 外사관리 기구[新羅所]를 설치하여 각종 신라 관련 사무를 처리 하였다. 신라의 청해진 대사 張保臯는 文登縣에

돈을 내어 '法華院'이란 사찰을 건설하였다. 이처럼 登州港은 唐朝와 新羅가 왕래하는 중요한 항구가 되어, 官方의 교류라든가, 민간 무역 등 방면에서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宋朝와 高麗의 왕래가 빈번하여, 登州港은 양국의 사신이 왕래하는 주요 항구였으나, 북방의 거란족이 흥기하면서, 登州는 중요 군사요충지가 되어 점차 쇠락하게 된다. 元朝 때의 登州港은 당송시기의 번영을 계승한 북방 해내외무역의 집산지이자 문화교류의 개항지 역할을 담당하였다.

산동반도에서 고려 상감청자를 발견한 것은 한국고대의 도자 예술품이 일찍이 양국에 우의를 전파하고, 양국 민민의 교류를 촉진시켰음을 설명한다. 山東省 蓬萊市에서 발견한 고려 상감청자는 약 600여 년 전의 것으로 그 빛깔과 광택이 여전히 선명하고 아름다워 진귀한 유물임이 확실하다. 고려 상감청자가 세상에 드러난 것은 한·중의 文化交流, 經濟史, 陶瓷史, 航運史 등에 대한 연구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 簡論“九·一八”事變前日本對東北朝鮮人的國籍政策

呂秀一, pp.47~51

國籍은 하나의 주권국가가 그 국민과 국가의 귀속 관계를 확정하는 법률적 수단으로,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 근대국가의 탄생에 따라 생겨났다. 1860-70년대에 조선인이 중국 동북지방에 대량으로 유입된 때에도, 중국과 조선 양국이 국적의 확정을 둘러싸고 커다란 갈등을 겪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이 조선을 병탄한 전후에, 일본은 중국 동북지역에서의 세력 확장에 대한 야심을 실현시키기 위해, 수차에 걸쳐 의식적으로 동북 조선인의 국적문제로 충돌을 일으켜, 조선인 보호, 반역 조선인 단속을 명분으로 하여 동북지역 침략을 기도하였다. 특히 1920년대에 이르러 조선에 대한 식민통치가 공고해짐에 따라 일본은 더욱 심하게 동북 조선인의 국적문제에 간섭하였다.

#### 1. 일본이 조선을 병탄한 전후 조선인의 국적문제

1905년 일본은 보호조약을 통해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한 이후, 동북에 거주하는 조선인의 국적문제에 대해 그 야심을 드러내었다. 1909년 7월 일본 내각회의는 조선을 병탄하기로 방침을 제정한 이후, 조선인의 일본제국내에서의 법률적 지위와 국적문제를 확정해야 했다. 1910년 7월에 합병 후의 조선인의 지위에 대해 일본 내각회의는 “내지인과 동등한 지위를 누린다”고 결정하였다. 그리고 이미 외국에 귀화해서 이중국적을 가진 조선인에 대해서는 ‘國籍法’이 조선에서 실시될 때까지, 제국의 이해관계에 비추어 여전히 일본인으로 간주한다고 결정했다.

일본의 국제사법학자였던 山田三良은 「합병 후 조선인의 국적문제에 대하여」라는 글에서 “비록 국적은 혈통주의 위주가 원칙이나, 대다수의 이주민에게 반드시 이 원칙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 …… 원래 한 국민 중 합병 당시에 이미 국외로 이주하여, 합병 후에 귀국할 뜻이 없는 자는 외국인으로 볼 수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때의 일본은 이미 조선에서 일본의 국적법을 실시하지 않고, 모든 조선인을 일본 국적으로 귀속시키고, 조선인이 일본국적을 벗어나는 것을 금지하는 방침을 확정하였다. 주지하다시피, 1915년 중일 간에 「滿蒙條約」이 체결된 뒤, 일본은 일방적으로 동북에서의 권익확대를 위해 「間島條約」 무효론을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 2. 1920년대 일본의 동북지역 조선인 국적 정책

1919년 조선에서 '3·1운동'이 폭발한 후에, 동북지역 특히 연변의 인민은 적극적으로 대규모 반일 독립운동을 전개하여 국내에 호응하였다. 얼마 뒤, 연변조선인들의 반일운동은 무장투쟁 단계로 진입하였다. 일본은 중국에 이를 제지해줄 것을 요구하고, 다른 한편으로 공공연히 연변에 군대를 파병하여 연변조선인 독립운동의 진압을 기도하였다. 1920년대 이후에 들어서면서부터, 일본의 조선식민통치가 더욱 공고해지고, 間島에 出兵하는 동시에 張作霖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동북에서 일본의 권익은 일정한 보호를 받게 되었다. 1925년 11월, 조선 총독부 관방 외사과가 제청하여 국회에 제출한 문서에, 조선에서 일본의 국적법이 실시되지 않은 원인이 설명되어 있다. 그 원인은 다음과 같다. ① 반역 조선인의 단속에 편리를 위해. ② 만일에 (조선 내에서) 토지차용권이 해결 된다면, 조선인의 국적문제는 급할 것이 없다. ③ 만일 수십만 동북 조선인에게 일본 국적 이탈을 허락한다면, 일본의 대륙정책에 불리한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④ 설령 조선인이 귀화한 후라도 조선인에 대한 중국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없다. 이러한 이유들은 모두 만주조선관계 영사관 연석회의의 결정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일본이 여전히 동북조선인의 귀화를 저지하려고 기도하였음을 말해준다.

## 3. 9.18사변 前의 國籍問題

1920년대 말, 중·일간에는 동북 조선인의 국적문제에 관한 새로운 변화가 있었다. 우선 1929년 2월에 공표된 새로운 '국적법' 중 동북의 조선인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것은 ① '舊國籍法' 중 원래의 국적을 버려야 중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던 조건을 취소한다. ② 중국에서 출생한자는 비록 중국에서 연속 5년간 거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법률에 근거하면, 동북의 조선인은 원래의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귀화해서 중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이때 연변 지역에서는 중국 공산당의 지도하에 반일·반봉건운동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는 일본으로 하여금 부득불 동북 조선인의 국적문제를 다시 검토하도록 하였다.

1930년 11월, 일본은 외무성, 拓務省, 조선총독부로 구성된 간도문제 협조회의를 설치하였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제6차 회의석상에서 외무성은 중국으로 하여금 반일운동 조선인을 단속하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기하는 동시에, "중국관부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 …… 조선 警備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면 제한적으로 동북 조선인의 중국 국적 취득을 허락한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적인 귀화권마저도, 조선총독부 경무국이 "조선 국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이유로 보류 의견을 제기하였다. 결국 위원회는 조선총독부의 반대로 인하여 '보류가결'함으로서 제한적 귀화권도 실시하지 못하였다. 결과적으로 9.18사변 전의 일본이 동북조선인에 대해 취한 국적 정책의 근본 목적은 ① 조선인을 '단속'하고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중국 동북에서 자신들의 권익을 확장하는 것. ② 조선식민 통치를 가일층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동북조선인의 국적 문제는 조선의 통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한 내지와 조선의 관계 정립에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일본이 조선에서 '일본국적법'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조선인이 국제공법 상 일본 국적을 갖지 않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일본은 오히려 조선인에 대해 이러한 허위 국적을 이용하여 최대한 대외확장의 목적 실현을 기도하였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조선의 이씨왕조는 중국의 明·清 두 왕조와 빈번한 문화교류를 진행하였다. 明과 清 두 왕조와 조선은 정치적으로 여전히 宗藩관계에 있었다. 이런 관계는 양국을 왕래하는 使臣制度의 수립에 직접적으로 구현되어 있다. 양국 사자의 빈번한 왕래는, 양국 문화교류가 확대되고 심화되는 필연적 결과를 가져왔다. 淸朝의 번영한 경제와 창성한 문화는 결국 봉건사회 최후의 번영 '康乾(주: 康熙와 乾隆)盛世'를 출현시켰다. '康乾盛世'는 당시의 강대한 국력과 선진적인 생산기술을 나타낼 뿐 아니라 그 발달한 문화도 드러내고 있다, 朝鮮王朝는 처음의 '復明反淸'에서 결국 '北學中國'하게 됨으로써 양국의 문화교류는 안정된 통로를 확보하게 되었다. '康乾'이후부터 조선의 사자들은 여러 각도로 淸朝의 선진적인 문화사상과 생산기술을 학습하였고, 청대학자들과의 광범위한 교류는 조선왕조 지식계층의 보편적인 욕구가 되었다.

청대의 한·중 문화교류 연구는 상당히 방대한 문제이다. 이 절에서는 '乾嘉(주: 乾隆과 嘉慶)'기의 몇 가지 관건적인 것을 선택하여 간략하게 묘사하도록 한다. 청대의 한·중 문화교류는 분명한 역사적 특징을 보이는데, 우선 한·중 문화교류는 양국 문인의 깊고 진지한 情感을 바탕으로 구축되어 千年知己의 의식을 드러낸다. 이러한 知己의식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① 親友에서 사제의 관계로 발전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양국의 문화교류가 심화되는 것을 나타낸다. ② 양국의 교류인원이 개인에서 무리로, 일반적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발전한다. 처음 洪大容과 청의 개별적인 문인과의 교류에서부터 양국 문인의 단체 교류에 이르기까지 양국 문화교류의 범위는 확대되었다. 비록 본문에서는 洪大容 이후 조선 문인중 개별적인 몇 명을 선택하여 연구대상으로 삼았으나, 사실 그들과 같은 시대에 청 문인과 교류했던 많은 조선의 문인들이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朴趾源 이후에 조선 문인들이 선택한 교류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당대의 시단을 좌우하던 문인이나 유명한 유학자들이었다. 이러한 교류방식이 양국문화교류를 한 단계 끌어올렸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③ 양국문인의 교류는 '承傳性'은 물론 양호한 인맥관계를 갖추었다. 이는 양국의 문화교류를 안정적이고 순조롭게 발전하도록 보장하였다. ④ 조선은 청과의 문화 교류를 통해 그 학문을 실학에서 고증학으로 전환하였으며, 시가예술의 발전 단계 또한 상승하여 결국 청나라와 같은 속도로 발전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는 청의 백 년에 걸친 문화발전 과정을 조선은 단 사십년 만에 마쳤음을 의미한다.

• 洪大容과 淸人의 교류

洪大容(1731-1783)은 조선 후기의 저명한 실학 사상가로 北學派의 선구자이다. 1765년 겨울에 조선의 사절단을 따라 북경에 도착하여, 청대의 문인들과 광범위한 사상·문화적 교류를 하였다. 사상 분야에서 그들은 당시의 정치, 철학 등 여러 문제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교류를 하였다. 홍대용과 杭州士子가 교류하는 중에, 嚴誠과 陸飛는 홍대용에게 淸代 漢學의 反朱子思潮를 적극적으로 소개하였다. 귀국 후 홍대용은 주자학 연구를 통해 「林下經論」과 「醫山問答」 등의 글을 써서 程朱理學을 비판하고, 실학사상을 발전시켰다. 홍대용과 杭州士子는 문학 분야에서도 많은 교류를 하였는데, 홍대용이 北京에 머무르는 동안에 嚴誠과 潘庭筠을 위해서 『東國紀略』이라는 장편의 문장을 써서 신라와 고려시대의 저명한 시인과 그 창

작을 소개하였다. 또 『海東詩選』을 편집하여 杭州士子에게 보내기도 하였다.

#### • 燕巖師門과 淸人の 교류

燕巖師門이란 朴趾源과 그의 門下生인 朴齊家, 李德懋, 柳得恭 등을 가리킨다. 박지원(1737-1805)은 조선의 역사상 가장 걸출한 사상가이자 문학가이다. 그는 1780년에 조선 사절단을 따라 중국에 왔다. 그는 여행 중에 遼寧, 北京, 熱河 등지를 고찰하여 『熱河日記』를 저술하였다. 그는 淸人 王民偉, 尹嘉銓 등과 많은 교류를 하였고, 교류의 범위는 천문, 역사, 經學, 제도, 민속, 종교, 및 문학과 예술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다. 그 門下生인 박제가, 이덕무, 유득공 등은 청대 문인들과 더욱 광범한 교류를 하였는데, 그들이 청대문인들과 교류한 목적 중의 하나는 바로 청대 詩歌 관념의 변화와 특징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인식하여, 이를 기회로 조선의 漢詩 수준을 높이는 것이었다.

#### • 金正喜, 申緯와 淸人の 교류

金正喜(1786-1856)와 申緯(1769-1845)는 각각 1809년과 1812년에 조선 사절단을 따라 북경에 왔다. 김정희와 신위가 교류한 청대학자 중에 가장 주목을 끄는 사람은 바로 翁方綱과 阮元이다. 김정희는 '乾嘉'시기 翁方綱의 公認弟子이자 阮元의 학술적 사상의 영향을 깊이 받았다. 翁方綱은 김정희를 漢學의 문턱으로 이끌었고, 이로써 김정희는 淸代 한학에 대해 초보적 인식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김정희의 한학은 阮元에게 더 많은 영향을 받았다. 阮元은 '乾嘉'시기 한학의 집대성자로 揚州學派를 창립하여 '實事求是' 학풍을 주도하였다. 금석학 역시 김정희와 청대학자들 간의 중요한 교류 내용 중의 하나이다. 청대는 중국 금석학 발전의 전성기로 翁方綱과 阮元 등은 모두 금석학 발전에 영향을 끼친 중요한 대가들이다. 청대학자들의 금석학 이론과 사상은 김정희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쳤을 뿐 아니라, 조선의 금석학 연구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신위의 초기 詩歌 창작은 주로 王士禛의 영향을 받았는데, 翁方綱과 교류한 후에 詩歌創作理念에 깊은 영향을 받아 그의 詩風에 변화가 생긴다. 그는 翁方綱의 '由蘇入杜'說을 받아들여 자신의 詩歌 창작의 正道로 삼았고, 이때부터 조선 시단에는 새로운 창작의 분위기가 출현했다. 신위가 淸代 宋詩에 대해 받아들인 것은 조선의 시단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신위 이전에는 조선의 漢詩창작과 中國詩歌의 발전상에는 크든 작든 '時差性'이 존재하였으나, 신위가 淸代 宋詩 창작이념을 받아들이고 실천함으로써 조선의 漢詩 창작은 이미 中國과의 '시차성'을 해소하게 되었다.

### 試論慶源李氏家族與高麗貴族政治的關係

朴延華 · 李英子, pp.43~48

高麗 중기는 귀족정치가 최고조로 달한 시기로, 문벌귀족세력의 팽창은 慶源李氏 가족에서 가장 전형적인 사례를 볼 수 있다. 이 시기의 慶源李氏는 '素尙旺族(소박하고 고상하며 활기찬 일족)'이었다. 이 가문은 국가의 재상을 여러 차례 역임한 공훈있는 친척이었을 뿐만 아니라, 문종이 李氏를 妃로 들인 후에, 順宗, 宣宗, 睿宗조에 걸쳐 왕비를 배출하였다. 그리하여 慶源李氏는 크게 흥성하게 되었으며 이후 국가의 대소사건이 모두 慶源李氏 일족과 관계없는 것이 없게 되었다.

## 1. 고려 귀족정치의 특징

고려의 귀족정치는, 983년 成宗 재위 때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여, 1076년 文宗 재위시기에 이르러 기본적으로 완성되어, 毅宗 때인 1170년 무신의 반란 때를 끝으로 약 200년간 계속된다. 그 특징은 중앙집권제 아래에서 왕실을 중심으로 귀족세력이 연맹을 이뤄 통치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중앙집권제: 중앙관계는 3성6부제이고, 지방관계는 道府君懸制로, 중앙에서 지방에 관리를 파견하여 중앙권력의 지방 통치를 확립했다. ② 관리의 임용: ㉠ 과거제: 958년에 과거제도를 처음 실시하여, 製述業, 明經業, 雜業 등 3종류의 과거시험을 시행했다. ㉡ 蔭敘制: 五品 또는 그 이상의 관리의 嫡子 중 한 명에게 과거시험을 치르지 않고 관직을 주는 것으로, 세습이 가능하다. 그 세습은 당연히 五品 이상의 계층으로 제한하며, 그 숫자 역시 제한을 둔다. 이것은 고려가 세습적 특권을 존중하는 귀족사회임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 교육: 고려의 교육은 귀족의 자제에게 대학교육을 받을 특권을 제공했다. 대학교육은 國子監과 私學으로 나뉘는데, 922년에 설립된 國子監은 東城六院으로 나뉜다. 즉 國子學, 太學, 四門學, 律學, 書學, 算學 등이다. 국가감은 학생의 출신 신분으로 입학 방식을 구별하여 中低級 관리의 자제에게는 입학과 과거시험의 참가에 불리한 有形의 장애물을 설치해 두었다. 私學은 文宗 때의 대 유학자인 崔沖이 1055년 퇴임 후 세운 학교로서, 이름하여 '九齋學堂'이라 하고, 그 학생은 '待中崔公徒'와 '文憲公徒'라 불렸다. ㉣ 토지제도: 고려의 토지제도 중 핵심이 되는 것은 田柴科制이다. 976년 제5대 왕인 景宗 때 반포되었으며, 제11대 文宗 때인 1049년에 '功蔭田柴'가 반포되었는데, '功蔭田柴'는 세습이 불가하였던 田柴科와는 달리 대대로 세습이 가능하여 사실상 개인의 소유가 되었다. 그 목적은 귀족의 특권적 지위를 대대로 이어가려는데 있다. ㉤ 혼인: 세습 귀족들은 혼인으로 대가족의 세력을 확대하는 책략으로 삼았다. (고려 중기의 이러한 사회적 특징들은) 귀족계층으로 하여금 특권적 지위를 누리게 하였다. 동시에 그들은 최대 귀족 가문인 왕실과 통혼하여, 명망있는 문벌귀족이 출현하게 되는데, 그 중 慶源李氏 일족의 세력이 가장 막강하였다.

### 2. 慶源李氏 일족과 왕실의 혼인

慶源李氏 일족은 11대 文宗 때부터 17대 仁宗 때까지 80여년의 기간 중에 10명의妃를 배출하였으며, 그 중 太后가 3명, 왕비가 7명이었다. 14대 獻宗과 15대 肅宗을 제외한 5명의 왕은 慶源李氏 일족의 여인을 비로 맞아 들였다. 慶源李氏 일족은 혼인을 가족의 정치적 욕구 충족으로 변질시켜, 왕실과 通婚하는 방식으로 자기의 정치·경제적 세력을 확대함으로써, 80여년의 세월 동안 정치권력을 독점하였다.

### 3. 慶源李氏 일족과 기타 귀족간의 혼인

慶源李氏 일족은 安山金氏, 慶源金氏, 海州崔氏, 淸州王氏 그리고 貞州柳氏 등 당시의 5大 貴族과 혼인 관계를 맺어 자신의 힘을 증대시켰으며 또 이 5대 귀족 역시 왕실과 통혼관계를 맺었다. 이리하여 李子淵의 후손들은 왕실과 뒤엎혀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하였으나 李子淵의 동생 李子祥은 그 손녀가 宣宗의 貞信賢妃가 되어 한 명의 공주를 낳은 것 외에는 李子淵과 같은 정치적 혼인관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지 못했다. 따라서 慶源李氏 일족을 연구할 때는 일반적으로 李子淵의 직계로 한정한다. 그리고 睿宗 이후로는 대체로 李資謙 일파에 집중이 된다.

睿宗 3년(1108) 이자겸의 두 딸이 睿宗에게 출가를 하였다. 睿宗의 말년에 이르러, 이자겸은 정치적 지

위와 경제적 세력을 착실히 준비하여, 어린 태자를 옹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睿宗은 자신의 死後에 형제들이 왕위를 넘볼 것을 근심하여, 장인인 이자겸의 세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아들의 순조로운 왕위 계승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睿宗이 예측하지 못한 것은 仁宗을 대신하고자 했던 이자겸의 야심이었다.

1126년 1월 이자겸은 仁宗을 협박하여 자신의 집에 감금하여 그 행동을 제한하였다. 이 시기에 고려 북부의 女眞이 세운 金の 세력이 점차 강대해져, 고려에게 양국의 관계를 이전의 형제관계에서 군신관계로 바꿀 것을 요구하였다. 3월에 仁宗은 이자겸의 집에서 문무백관을 소집하여, 金나라의 요구를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이자겸과 拓俊京만이 屈從하여 사대의 형식으로 金나라를 대하자고 주장한다. 이자겸은 대내적으로 대권을 독점하면서도, 대외적으로 金나라에 굴종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고려의 통치계층에게 큰 불만을 불러일으키고, 거기에서 拓俊京과 다툼이 발생했다. 이 기회를 틈타 仁宗은 이자겸의 心腹인 拓俊京을 구슬려서 이자겸과 그 일당을 제거하였다. 이자겸의 반란이 실패한 후에 慶源李氏 일족도 쇠락의 길을 걸었다.

仁宗이 비록 힘을 다해 왕권을 회복하고 慶源李氏 일족의 세력을 약화시키며, 세력이 상대적으로 약소한 任氏 일족을 의지해 이후 妙淸의 난과 서경 백성의 투쟁을 진압하였으나, 1146년 인종 사후에 그 아들인 18대 毅宗은 재위 25년간 정치를 돌보지 않고 사치한 생활을 즐기고 문신 귀족이 가무로 태평한 날을 보내니, 무신들의 불만이 극에 달해 중앙집권이 더욱 혼란해지고 쇠퇴하였다. 1170년 무신 鄭仲夫 등은 반란을 일으켜 문신귀족을 전부 살해하고, 毅宗을 폐하고 그 동생을 왕으로 옹립하니, 그가 바로 19대 明宗이다. 이렇게 귀족 정치시대는 끝이 나고, 武臣 통치의 서막이 열렸다.

## 論百濟與北魏的關係-以百濟的上表文爲中心

金錦子, pp.49~53

중국 남북조의 柳宋과 北魏가 상호 대치하던 5세기에, 한반도에 위치한 백제는 이 두 王朝에 대해 사신을 파견하여 조공을 하였다. 그중 백제가 柳宋에 조공을 한 것은 모두 13번이었고, 北魏에는 단 한번이었다. 백제가 북위에게 유일하게 한 번 조공을 했던 배경과 의도는 무엇이고, 북위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나아가 양국의 관계 및 동아시아 국제정세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등이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 1. 百濟 北魏 상표의 전략적 의도

북위가 건립된 지 86년이 지난 472년에 백제는 처음으로 사신을 북위에 파견하여 조공한다. 이때 上表를 하는데, 表文은 배제와 고구려의 장기간에 걸친 전쟁의 근원을 고구려에 떠넘기고, 고구려를 ‘醜類’라 폄하하며, 고구려와 북위의 사이를 이간질하기 위하여 ‘逆詐不一’, ‘南通柳宋’ 등을 거론하여 고구려를 규탄하고, 동시에 북위가 백제로 보내는 사신을 고구려가 살해했음을 고발하였다. 백제는 북위 건립 후 80여년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사신을 파견하여 북위에 조공하고 ‘速遣一將, 來救臣國’의 표문을 올린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당시의 한반도의 형세와 무관하지 않다. 고구려의 廣開土王 통치 시기, 백제는 고구려로부터 막대한 타격을 받았다. 이 사실은 『三國史記』의 기록에도 남아 있다. 특히 396년에 발생한 전쟁 중에 참패한 백제의 阿莘王은 투항을 하고 영원히 고구려의 ‘奴客’이 될 것을 맹세하였다. 그리고 고구려의 長壽王 통치 시기, 고구려는 425년과 435년 두 차례에 걸쳐 북위에 사신을 파견하여 북위와의 교류에 적극

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북위의 世祖는 長壽王을 '都督遼海諸軍事, 征東將軍, 領護東夷中郎將遼東郡開國公高句麗王'으로 책봉하였다. 고구려는 서쪽의 정세를 안정시킨 후 더욱 적극적인 남진정책을 실시하였다. 고구려의 남진정책에 우선적으로 위협을 받은 것은 백제였다. 따라서 고구려의 남진공세를 어떻게 저지할 것인가가 백제가 당면한 가장 긴박한 문제였다. 또 다른 한편, 고구려의 남진공세 과정에서, 4세기에는 일찍이 고구려와 동맹 관계에 있던 신라가 백제로 기울기 시작하였다. 433년과 434년에 백제가 신라에 사신을 파견하여 화평을 구하니, 신라가 이에 적극적으로 호응함으로써 양국의 적대적 관계는 완화되고, 동시에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는 분열되기 시작했다. 454년과 455년, 고구려의 공격에 신라와 백제가 군사동맹으로 맞서게 되니, 한반도에서는 삼국의 관계형태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난다.

신라와의 동맹으로 동쪽의 위협을 제거한 백제는, 만일에 북위와 군사적 동맹을 맺을 수 있다면, 고구려를 양쪽으로 적을 맞이하게 할 수 있고, 고구려로 하여금 양 방향으로 군사작전을 펴도록 압박하여 백제에 대해 조성된 위협을 완화시킬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백제가 북위에 사신을 파견하여 上表한 주된 목적이었다.

## 2. 北魏의 百濟 청병 요구 거절

北魏는 대내외적 요인으로 인하여 백제의 요청을 거절했다. 당시의 북위에게는 南朝의 柳宋과 북쪽의 蠕蠕[柔然]가 남북에 위치한 가장 위협적인 양대 세력이었다. 柳宋은 그 존속기간인 60년간 대부분의 시간을 북위와 대립의 상태에 있었고, 북쪽의 蠕蠕는 부단히 남침하여 북위의 북방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었다. 동쪽으로는 고구려와 비록 평온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는 하나, 두 나라 사이에 결코 장벽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특히 436년에 고구려가 北燕의 왕 馮弘을 영접한 사건은 북위로 하여금 고구려에 대해 부득불 새로운 평가를 하게 하였다. 이에 고구려는 서쪽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북위의 주변국들과 외교관계 수립을 통해 북위를 견제하였는데, 우선 蠕蠕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북위가 당면한 국내정세를 보면, 북방의 통일을 실현함에 따라, 정치적 중심 역시 점차 중원 지역을 향해 옮겨 갔다. 소수민족이 수립한 정권은 중원의 漢族과의 모순이 점점 격해졌다. 중원에서 한족과의 모순을 완화하고 새로운 정치적 형세에 적응하는 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였다. 그 외에 백제가 북위에 파병을 요청한 시기는 북위의 정권이 빈번히 교체되던 시기이다. 북위는 이렇듯 불안한 국내 정치와, 대외적으로는 柳宋, 蠕蠕, 고구려 등에 포위된 형국에서 백제의 요청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

## 3. 百濟와 北魏의 관계가 동아시아 국제 정세에 미친 영향

북위는 자신에 대한 백제의 조공을 절단해버리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백제는 북위의 거절에 대해 원한을 품게 된다. 백제는 북위에 파병을 요청한 조공외교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반대로 고구려와 북위의 관계개선을 촉진시켰으며, 동시에 고구려로부터 맹렬한 공격을 받게 된다.

전체적으로 볼 때, 각자의 이익과 전략적 의도를 둘러싼 5세기 후반기의 동아시아에서 고구려는 주로 북위와 교류를 하고, 백제와 신라는 주로 남조와 교류를 하는 국면이 나타난다. 472년 백제의 북위에 대한 조공외교의 실패는 백제와 북위간의 철저한 단절을 야기한다. 그 후, 고구려와 백제의 모순은 더욱 격화되었다. 따라서 백제의 북위에 대한 조공외교는 일회성 처방이 아닌 동아시아에서 남북이 대항하는 새로운 국면을 촉진시킨 촉매제가 됐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조선족은 토착민족이 아닌 한반도로부터 국경을 넘어 이주해온 민족이다. 19세기 중엽 이후, 조선의 빈곤한 농민이 봉건 통치계급의 잔혹한 착취와 기근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대규모로 우리나라(주:중국)의 동북으로 이주해 들어와 점차 발전하여 우리나라의 소수민족 중의 하나가 되었다. 조선족이 중화민족의 대가정에 편입되는 역사적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조선족의 애국관 교육을 강화하는데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각 민족간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

### 1. 清代 朝鮮族의 ‘雜髮易服’과 華籍 편입

淸 정부는 동북지역에 이주해 거주하는 조선족에 대해 ‘雜髮易服’과 ‘領照納租’ 정책을 실시하였는데, 이것이 조선족이 중화민족의 대가정에 편입되기 시작한 시점이다. ‘雜髮易服’ 정책은 동북지역의 조선족이 이때부터 중국에서 합법적인 지위를 얻었음을 의미한다.

1905년 러일전쟁 후 일본은 조선과 중국 동북지역 침략을 기도한다. 1905년 11월 일본과 조선은 ‘을사 보호조약’을 체결하여, 일본이 조선의 보호국이 되고, 조선의 외국에서의 이익 및 동북 조선인은 모두 일본의 보호를 받는다고 선포하였다. 1907년 淸 政府는 당시 육군부감독에 임명된 吳祿貞을 연길에 밀행시켜, 국경을 측량하고 지도를 작성하게 하였다. 吳祿貞은 연길에 있는 동안에, 변경의 정세를 조사하고, 거주민을 위로하며, 조선족에 대한 ‘雜髮易服’과 징세를 강화하였다. 그리고 일본인이 연길에서 조선인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내정간섭하는 것에 견주어 토지를 소유한 조선족들을 일괄적으로 귀화시키고, 원래의 국적은 즉시 폐기한다는 성명을 낼 것을 주장하였다.

淸 정부는 일본과의 투쟁 중에 成文化된 ‘국적법’ 없이 단순히 ‘雜髮易服’에 의지해서 귀화문제를 명확히 해결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1909년에 중국역사상 첫 번째 국적법인 ‘大清國籍條例’를 제정하여, 외국인(조선족 포함) 入籍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만들었다. 1909년 9월에 중일양국은 ‘圖們江中韓界務條款(簡稱間島協約)’에 서명하였다. 淸 정부는 다시금 조선인이 두만강 북쪽 개간지에 거주 할 것을 허락하였다. 그리고 법률적 형식을 통해 조선족의 토지 소유권을 보증했다. 淸 정부의 주장은 명확하게 국적취득과 토지 소유권을 하나로 묶는 것이며, 그 뜻은 조선족과 일본의 관계를 철저히 단절시키는데 있었다. 이로써 두만강 이북의 조선족에 대한 관할권을 확보하였다.

### 2. 民國時期 중국과 일본의 朝鮮族 ‘國籍問題’를 둘러싼 분쟁

민국시기에 이르러, 중국정부는 조선족을 중국 국적에 편입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였다. 民國정부는 우선 1909년에 淸朝에 의해 제정된 국적법을 폐기하고, 3차에 걸쳐 수정된 民國국적법을 반포하였다. 1917년에는 전적으로 조선족의 국적취득 문제를 다룬 「墾民入籍簡章」을 제정하였다. 이 「墾民入籍簡章」은 1914년에 수정된 「중화민국국적법」에 의거하여, 조선족의 入籍 처리 수속과 入籍 후의 권리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였다. 일본제국주의는 民國정부가 실시한 조선족 入籍정책에 대항하여, 동북 조선족에 대해 ‘이중국적’ 정책을 강제로 추진했다.

중국정부는 조선족이 이미 귀화했으므로 당연히 그들을 중국인으로 간주하였으나, 일본은 조선통감부 시대에 “조선인은 조선국적을 벗어날 수 없다”는 승이 있었다고 주장하여, 설령 동북의 조선인들이 중국

으로 귀화하였다 하더라도 일본은 그들을 여전히 ‘日本國臣民’으로 간주하며 그에 대해 “관할권을 누린다”고 궤변을 늘어놓았다. 조선인에 대해 이중국적을 제기한 일본은 사실상 1899년에 제정된 일본의 국적법을 조선인에게에는 시종 적용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일본 국적법은 만일 일본인이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일본국적을 상실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일본은 왜 조선인에게 일본 국적법을 적용하지 않았을까? 이에 대해 조선총독부 외사과는 ① 만주지역의 반역 조선인을 단속하기 위해 조선인의 중국국적 취득을 승인 할 수 없다. ② 만일 ‘土地商租權’ 문제가 해결된다면, 귀화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필요가 없다. ③ 만일 정식으로 중국으로의 귀화가 승인된다면, 필연적으로 대다수의 조선인들이 일본국적을 포기하게 될 것으로, 이는 장래에 제국주의가 대륙에서 발전하는데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④ 귀화한 조선인은 중국에서 불공평한 대우를 받을 것이다. 따라서 조선인은 귀화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처지가 반드시 개선된다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민국정부는 1929년 2월 5일 「중화민국국적법」을 재차 수정하여, 중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우선 본국 국적을 포기해야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동북 조선인의 국적취득을 편리하게 하였다. 통계에 따르면, 1929년에 동북조선인 130만 명 중에 약 12만 명이 귀화하였다. 이것은 9.18사변 전에 이미 상당수의 조선인이 중국 국적을 취득하였음을 설명한다.

### 3. 日僞時期 東北 朝鮮族의 이른바 ‘國民化’

일본제국주의는 9.18사변 후, 괴뢰만주국을 만들고, 괴뢰만주국에서 시행하는 소위 ‘五族協和’라는 것을 선포하여, 동북으로 이주한 조선족 역시 괴뢰만주국 구성원의 하나임을 규정하고, 동시에 대량의 무국적 조선인에 대해 국적을 취득하게 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9.18사변 전, 동북 조선족은 중국 歸化者와 非歸化者로 구분 되었는데, 괴뢰만주국이 만들어진 후에, 또다시 국적 있는 조선인과 무국적 조선인으로 나뉘었다. 소위 무국적 조선인이란, ① 1909년 4월 1일 조선에서 새로운 民籍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동북으로 이주한 후 조선으로 돌아가지 않은 조선인. ② 막대한 부채나 혹은 형사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비밀리에 자신의 本籍을 밝히지 않고 무국적이 된 조선인으로, 통계에 따르면 1930년대 초에 동북의 조선인은 대략 100여만 명이었고, 그 중 무국적자가 50-70만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 4. 中國共產黨의 東北 朝鮮族 합법적 지위 확립

해방전쟁시기, 동북지역은 공산당이 관할하던 ‘解放區’와 국민당이 통치하던 ‘收復區’로 나뉜다. ‘收復區’의 조선족은 모두 ‘韓僑’로 간주되어 모든 재산을 국민당이 몰수하고 그들을 조선으로 돌려보냈다. 이와 반대로, 중국공산당은 동북의 조선족을 중국 소수민족의 하나로 확정하고 민족평등정책을 실행하였다.

중국공산당은 토지개혁과 공산정권의 건설 그리고 해방전쟁 외중에도 조선족의 중국공민자격을 완전히 승인하여, 조선족으로 하여금 진정으로 토지와 정권의 주인이 되게 하였다. 1949년 9월, 중국정치협상회의 제1차 회의가 북경에서 소집되는데, 이 회의에서 동북 조선족에 토지분배와 소수민족으로서의 지위가 재차 확인되었다. 이때부터 조선족 인민과 기타 민족은 모두가 한 길로 해방 후의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방면의 건설사업에 평등하게 참가하였다.

결론적으로, 淸, 民國, 괴뢰만주국을 거친 이후, 오직 중국공산당만이 민족의 평등정책을 실행함에 따

라 동북 조선족을 발전시키고, 실질적인 중국 소수민족의 하나가 되게 하였다. 특히 토지개혁시기에 동북 조선족 인민의 국적 문제와 토지소유권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공산당은 가장 관용적인 정책을 채택하여, 조선족 인민의 혁명적 움직임을 극대화하였다. 따라서 해방전쟁과 抗美援朝[6.25동란]시기에 조선족 인민이 보여준 전에 없는 參軍·參戰 열기는 기이한 것이 아니었다.



■ 2007년 제 1기

朴趾源 《熱河日記》의 北學意識和實業方略

李岩, pp.1~6

『熱河日記』는 18세기 조선의 실학사상 대가인 朴趾源의 장편 여행기로 그의 대표작 중의 하나이다. 1780년 44세의 박지원은 燕京으로 가는 사절단의 正使였던 從兄 朴明源을 따라 연경, 열하 등지를 두루 편력하고, 귀국 후에 총 26권 수십만 자에 달하는 文言體 작품을 지었다. 이 작품은 압록강변에서부터 鳳凰城, 遼陽, 沈陽, 山海關, 燕京을 경유하여, 마지막으로 熱河에 도착한 후, 다시 燕京으로 되돌아오는 동안에 보고 들은 바를 상세히 기록한 것으로 가히 심혈을 기울인 역작이라 할만하다.

『熱河日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北學中國’으로써 ‘利用厚生之道’를 실현하는 것이 시종일관된 기조이고, ‘富國強兵’은 그 정신이다. 박지원이 생존하던 18세기 후반기는 전체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던 시기였다. 한쪽에서는 상품화폐경제가 일정수준으로 사회 생산관계의 발전을 촉진시켰고, 당시의 엄격한 사회 신분등급제도가 점차 와해되도록 재촉하여, 사회에 일련의 새로운 풍조가 나타나게 하였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상품화폐관계의 발전에 따라 일부 관료지주와 상인이 금전관계를 이용하여 토지를 대량으로 겸병하여 농민의 토지 상실을 야기하고, 재부가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국가는 토지와 재부에 대한 통제권을 크게 상실하였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 시기에 이르러 통치사상으로 삼았던 程朱理學은 이미 원래 지녔던 적극적 작용을 상실하였다는 것이다. 봉건통치계급의 부패, 무능과 갈수록 심해지는 정치경제의 위기에 따라 程朱理學은 갈수록 그 空疏性을 드러내었다. 程朱理學은 정권의 예측물이 되어 그 가르침에 의심을 품으면 ‘斯文亂賊’으로 몰렸다. 程朱理學은 또 “存天理, 滅人慾”을 聖典으로 삼아, 누구든 ‘日用經濟’를 논하면, 그 사람은 곧 ‘利慾小人’이고, 상업은 세상의 ‘未技’로 취급하였다. 집권자의 이러한 사상정책은 전체 사회의 각종 기능을 경직되게 하였고, 대외적으로는 폐쇄성이 강화되었으며, 土農工商은 극도로 쇠진해져서 국가경제와 민생은 위기상태에 처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실학과 문인들은 사상적 직책을 반대하고, 사회 개혁을 주장하며 국가의 낙후된 면모를 바꾸고자 하였다.

박지원은 이 시기 실학파의 대표적 인물로서 ‘利用厚生’의 길을 주창하고, 사회개혁을 주장하여 부국강병을 호소하였다. 『熱河日記』의 내용을 보면, 그는 중국의 熱河, 燕京, 盛京 등지의 여행 중, 당시 중국의 상대적으로 발달한 문물제도와 서방 선교사를 통해 전해진 서방 과학문명에 감동을 받아 ‘北學中國’의 결심을 한층 더 굳건히 했다.

박지원이 제기한 ‘北學中國’은 지극히 낙후되고 빈궁한 당시 조선의 상황을 바꾸기 위한 것이다. 그가 제기한 ‘北學中國’은 공허한 담론일 수 없었다. 조국의 낙후된 면모를 개선시켜 ‘富國強兵’의 이상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가 ‘北學中國’이라면, ‘利用厚生’의 관념은 그 수단을 두드러지게 하는 이론적 토대였다. 그의 ‘利用厚生’은 깊은 철학적 내용과 시대적 의의를 담고 있다. 그는 『熱河日記』 『渡江錄』에서 ‘利用’, ‘厚生’, ‘正德’ 등 三者의 관계를 인과관계로 배열하였다. 즉 ‘利用’은 ‘厚生’의 전제이고, ‘厚生’이 바로 ‘利用’의 결과이다. 이 둘은 수단과 목적의 변증관계에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利用’, ‘厚生’, ‘正德’의 전후 관계에 대한 치밀한 논술이다. 유가에서는 ‘正德’을 ‘端正德行’이라 하여, 모든 것에 앞서는 ‘大

事'가 되며, 利用과 厚生은 그 다음에 위치한다. 이러한 로직의 틀은 수천 년간 중국에 영향을 미쳤고, 유가 人倫哲學의 기본 배열 순서이자 행위의 규범이었다. 그러나 박지원은 이런 유가의 전통 로직을 거꾸로 이용했다. 그는 '利用'과 '厚生'은 '正德'의 기본 전제이자 선결 조건으로 만일 이 기본 전제이자 선결 조건이 갖추어 지지 않는다면, '正德'은 헛소리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즉 하나의 사회 또는 국가가 경제를 발전시키지 못하고, 인민의 생활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 하에서는 인간들이 '端正德行'하기란 어려운 것이다.

박지원은 국가의 부국정책 중 당시의 상황 하에서 교통 운수와 농업 경작 등은 모두 牛馬 등 가축을 분리시킬 수 없기 때문에 목축업이 지극히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조선의 목축업을 진흥시키는 우선적 수단이 바로 '北學中國'의 선진적인 기술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는 말에 대해 깊이 연구한 결과 인민의 생활 중 목축업의 지위를 국가경제와 민생에 관계되는 大業으로 제고하였다. 박지원은 『太學留館錄』에서 일곱 가지의 '寒心事'를 거론하며, 당시 조선의 馬政이 낙후된 구체적 원인을 표현했다. 그는 馬政은 국가 대계인 농업, 상업, 군사, 國禮 등 중요한 분야에 관계되므로, 위정자는 필히 馬政을 중시하여 馬政에 관한 논의에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박지원은 말 사육의 구체적인 기술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를 하여, 『太學留館錄』 중에서 말 사육에 관해 구체적인 기술을 기록하고 있다. 당시 조선의 토종말은 왜소하고 약하여 애초에 군용이나 화물운반용으로 쓰기에 부적합하였다. 문제는 오랜 기간 동안 위정자들이 이러한 문제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여 말이 개량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당장 급한 것은 馬政에 관한 관념을 바꾸고 말 사육에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여 토종말의 품종을 개량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선 中國의 養馬法을 배우고, 중국의 우량한 馬種을 들여와, 구체적으로 중국의 과학적 번식기술을 배워 조선에 적합한 우량한 種馬를 길러 내야 한다. 이것을 해 낸 이후에 비로소 군사적, 국가적으로 필요한 수요가 충족될 수 있을 것이고, 國富民強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요지이다.

## 論中國佛教宗派對朝鮮半島, 日本的傳播和影響

周進 · 于濤, pp.14~18

불교는 兩漢 교체기에 중국에 전해졌다. 그러나 漢代에는 불교가 아직 강력한 사회 사조로 형성되지 못하였고, 백성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魏晉南北朝時代에 이르러 비로소 불교가 흥성하기 시작하여, 儒, 釋, 道가 때로는 대립하고 때로는 융합하는 三教鼎立의 국면이 출현한다. 隋唐시대에 불교의 발전이 최고조에 달해 중국 불교의 각 파가 발전하여 영향력이 비교적 큰 8개 宗派(天台宗, 三論宗, 唯識宗, 律宗, 華嚴宗, 淨土宗, 密宗, 禪宗)를 형성하게 된다. 이 8대 宗派 중 天台宗, 華嚴宗, 禪宗이 중국화된 불교 종파로 영향력이 비교적 컸다.

### 1. 中國 佛教 宗派의 한국과 일본 전파

#### 1) 한반도 전파

신라가 한반도를 통일한 후, 통일신라왕조와 당나라의 정치외교관계가 다시 정상화됨에 따라 양국 간의 우호 교류가 더욱 밀접해지고, 중국 불교 종파가 차례로 한반도에 전해지기 시작했다.

서기 627년, 신라의 왕손인 圓測이 중국 장안에 도착하여 元法寺에 머물면서, 『毘曇』, 『誠實』, 『俱舍』,

『婆娑』 등을 학습하였다. 현장법사가 천축에서 불경을 가지고 돌아온 후, 원측은 현장에게서 『瑜伽』, 『唯識』 등의 諸論을 배웠다. 632년, 신라의 승려 明郎이 중국에 도착하여 雜部密法을 학습하였으며, 貞觀 9년에 신라로 귀국해 金光寺를 건립하고, 海東神印宗의 개조가 되었다. 638년, 신라승려 慈藏이 문하생 십여명을 이끌고 장안에 도착하였다. 643년에 慈藏은 중국에서 구한 불경과 불상 등을 가지고 신라로 돌아갔는데, 이것이 한국 大藏經의 시초이다. 661년, 신라인 義湘이 당에서 온 중국 사신이 귀국하는 배를 같이 타고 중국 당나라의 수도인 장안에 도착한다. 終南山의 至相寺에 머물면서 華嚴宗의 2代 宗師로부터 『華嚴』을 수학하였다. 당시에 賢首法藏과 同學하며 『華嚴一乘法界圖』 등을 저술하였다. 671년에 신라로 돌아가 太白山에 浮石寺를 창건하여, ‘海東華嚴初祖’로 尊稱되었다. 784년, 신라 승려 道義가 중국에 도래하여, 南宗禪을 배우고 37년 후에 신라로 돌아가 國師가 된다.

고려의 왕족인 義天은 고려 肅宗의 요청에 의해 1097년에 건립된 國淸寺의 주지가 된다. 義天은 중국의 天台宗과 華嚴 그리고 禪을 결합하였는데, 이는 ‘教’와 ‘禪’을 결합시킨 것이고, ‘華嚴’과 ‘禪’을 결합시킨 것이며, ‘華嚴’과 ‘天台’를 결합한 것으로, 한국의 天台宗이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이것은 한국불교사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의미하는 사건이다. 한국의 불교는 이때부터 五教九山에서 발전하여 五教兩宗이 되었다. 고려의 大覺國師 義天은 한국의 불교 역사상 一代宗師이다. 義天은 고려의 華嚴宗을 발전시켰고, 고려 천태종을 창건하였으며, 高麗續藏經을 刊印하였으며, 불교문화를 널리 알렸다. 또한 한·중간의 佛敎文化交流를 추진하여 풍부한 불교문화유산을 남겨놓았다.

## 2) 일본 전파

중국의 隋·唐시대에 중국의 승려가 일본으로 건너가 불법을 전하고, 중국에 도래했던 일본의 승려들이 일본으로 귀국하여 불교를 널리 전파함에 따라, 일본 불교가 점차 종파를 형성하게 되었다.

일본의 奈良時代(708-781)에 三論宗, 法相唯識宗, 華嚴宗 그리고 律宗 등의 종파가 유입되었다. 平安時代(782-1191)에 天台宗과 眞言宗(密宗)이 계속해서 일본으로 들어갔다. 653년, 일본의 승려 道昭가 道嚴 등과 함께 당에서 온 사신을 따라 중국 장안에 도착하여 현장법사의 문하에서 가르침을 받고 후일 귀국하여 日本 法相宗의 최초 전파자가 되었다. 733년, 榮睿와 普昭가 日本 聖武天皇의 명을 받들어 당나라에 들어와, 律宗의 승려로 하여금 일본에 건너와 선교해 줄 것을 요청했다. 榮睿는 753년에 일본으로 돌아간 후 759년에 唐招提寺를 창건하여 日本 律宗의 始祖가 되었다. 794년, 일본은 平安으로 遷都 한 후, 전국 종교의 신흥운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계속 승려들을 당으로 유학 보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天台宗과 眞言宗이 창설되었다. 最澄과 空海는 804년에 당에서 파견된 사신을 따라 중국에 도래하였다. 最澄은 805년에 比叡山에서 天台宗을 창설하고, 密敎와 더불어 大乘戒法을 전파하였다. 空海는 806년에 일본으로 돌아가 密敎를 번성시켰고, 高野山에 도장을 건설하여 日本 眞言秘宗의 始祖가 되었다.

鎌倉時代に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禪宗과 淨土宗 및 日蓮宗이 왕성하게 일어났다. 禪學은 당나라 때 이미 일본에 전해졌으나, 禪宗이 정식으로 널리 전파된 것은 송나라에 도래하였던 승려 榮西 때부터이다. 그는 1168년과 1187년 두 차례에 걸쳐 송나라에 왔으며, 귀국한 후에는 禪學을 크게 일으켜, 建任寺를 창설하고, 이는 日本 臨濟宗의 새로운 종파가 되었다. 榮西의 再傳弟子인 道元은 1223년에 송나라에 들어와 깨달음을 얻고 1227년에 일본으로 돌아가 永平寺에서 禪宗을 창설하고 널리 알려, 日本 曹洞宗 일파를 창설하였다.

禪宗 이외에, 당·송시대에 중국으로부터 전파된 淨土念佛法門 역시 廉倉時期에 흥한 것이다. 天台宗 출신의 고승 法然은 순수 念佛을 확립하여, 극락왕생의 教義에 주력하였다. 그는 난해한 佛學의 연구와 장시간의 수행은 부질없는 것으로, 오직 아미타불의 교의를 믿고 염불을 한다면, 모든 사람은 사후에 평등하게 極樂淨土에 태어날 수 있다는 교의로 새로운 종파(淨土宗)를 형성하였다.

## 2. 中國 佛教 宗派의 한반도와 일본에 대한 영향

한반도의 신라와 일본은 중국의 당나라 때에 모두 민족의 통일과 사회의 상대적 안정을 구가하였다. 불교는 점차 왕실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불교에서 민중화된 불교가 되었다. 비록 통일신라와 일본이 모두 적극적으로 불교를 받아들이기는 했으나, 불교와 민족문화와는 각기 독특한 방식으로 결합하였다. 신라 불교는 삼국시대 불교의 연장으로 통일신라와 고려 왕조는 대체적으로 중국의 당·송시대에 상당하며, 기본적으로 중국의 불교 종파를 계승하였다. 즉 원광법사가 불가의 계율을 변통하여 유가적 사상을 융합한 ‘世俗五戒’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중국 삼국시대의 儒學화된 불교의 연속이다.

통일신라 이후의 고려 왕조는 “國家大業, 必資諸佛之力”이라는 국정방침을 받들었으나, 불교는 여전히 儒家文化의 영향을 받았다. 그 후의 조선시대에 이르러 고려왕조 후기부터 융성하기 시작한 유학이 점차 사회의 주도적 사상의식 형태로 자리를 잡는다.

일본의 불교는 중국 불교를 흡수한 기초 위에 자민족의 문화와 결합하여 신라나 고려에 비해 적극적으로 새로운 일본적 특색의 종파를 창설하였다. 그 외에도 일본의 불교는 민중의 사상의식 측면에서 뚜렷한 영향을 끼쳤다. 중국의 불교문화는 한반도와 일본의 불교에 영향을 주었고 동시에 그 자신도 다소간 조선과 일본 불교문화의 영향을 받았다.

## ■ 2007년 제2기

### 東北亞文化與東北亞歷史

陳放·李宗勳, pp.13~17

상고시대부터 한반도의 역사와 문화는 중원지역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학술계에서 광범위하게 ‘東夷族東移說’을 거론하는 것은, 중국 내지와 한반도 주민이 대량으로 융합한 역사적 과정을 보여 주는 것이다. ‘箕子朝鮮說’에 대해서는 비록 中外학자간에 의견이 엇갈리지만, 중국 중원 지역과 동북아 지역이 한반도의 정치, 문화에 영향을 미쳤음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 漢 武帝는 위만조선을 멸한 후에 漢四郡을 설치한다. 전체 漢·魏시대에 한반도 북부 지역은 줄곧 중국 정부가 군현 통치를 하였고, 중국 왕조 인민의 공동 노력하에서 일찍이 찬란한 樂浪 漢文化를 창조하였다.

『東亞三國古代關係史』에 서술된 바에 따르면 중국의 춘추전국시대에 吳越일대의 인민들이 바다를 통해 일본열도에 도래하였다. 이것은 일본 최초의 중국 이민으로 徐福의 東渡전설은 실질적으로 秦·漢교체기에 중국인이 일본으로 이주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이민은 선진적인 漢文化를 동반하여 이주지역의 사회 문화 발전을 촉진시켰다. 隋·唐시대는 중국 봉건왕조가 가장 찬란하게 빛났던 시기이다. 신라와 일본은 당나라의 선진문명을 학습하였으며, 당

나라의 문화와 제도를 거의 완전히 복제하였다. 일본 역시 당나라에 사신을 파견하고, 유학생과 學僧을 당나라에 보내어 학습하게 하였다.

宋·元시대의 10세기경, 한반도는 '후삼국시대'로, 그들 중 고려가 신라와 후백제를 멸하고 한반도를 통일하였다. 당시의 송나라는 남송과 북송으로 나뉘어 약화되었으나, 그 문화의 찬란한 빛은 당나라와 비교하여 손색이 없었다. 그 후의 원나라와 고려는 중주국과 번속국의 관계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일본과 송나라 조정과의 관계는 냉담하였으나, 민간의 문화교류와 무역왕래는 매우 밀접하여 일본은 이를 통해 재부를 축적하였으며 갈수록 부강해졌다.

청나라 初·中期의 한중관계는 더욱 우호적이 되었으며, 문화교류와 무역왕래는 극도로 밀접해졌다. 中·日간에는 한 차례 宗藩관계가 성립되었으나, 嘉靖(주: 明 世宗시기의 연호) 이후부터 중단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여전히 중국의 유학문화를 숭배하였다.

오랜 시간의 동북아 역사 발전 과정에서 한중일 삼국 간에는 줄곧 밀접한 교류가 있었다. 삼국의 경계를 보면, 이들 사이에는 줄곧 밀접한 무역관계가 존재해왔다. 설령 국가 간에 갈등이 폭발하여 사신의 왕래가 중단되었던 시기라 하더라도, 민간의 각종 무역왕래는 끊이지 않았다. 이것이 동북아 고대 역사 발전의 주류이고, 유학의 '和', '和合', '和諧'는 문화의 主動脈이었다.

동아시아 삼국의 근·현대사는 특별히 언급할만한 가치가 있다. 일본 군국주의는 자국 국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전쟁의 고난을 당하게 하였다. 일본은 조선과 중국, 대만 등 식민지에 대한 통치를 강화하였고, 식민지를 침략전쟁 확대의 기지로 삼아 자국민과 마찬가지로 식민지역 인민들로 하여금 전쟁의 고난을 겪게 하였다. 1945년 8월 15일 일본 군국주의는 종말을 고하였다. 이것이 역사이다. 역사는 사람들에게 和平, 和合, 和諧의 규율을 위배한 일체의 행위는 필연적으로 역사의 징벌을 당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중국은 儒家文化가 발원된 국가로, 줄곧 和平, 和合, 和諧의 사상을 견지해왔다. 중국 인민은 현재 자신의 국가를 富強, 民主, 文明, 和諧의 현대화된 국가로 건설하려고 노력 중이다. 더구나 자신의 발전을 통하여 부단히 인류 사회의 진보에 새롭고 더 크게 공헌하도록 힘쓰고 있다. 오늘날의 동북아의 발전은 마침 和平, 發展의 길로 가는 것을 필요로 하며, 전체 아시아와 세계 역시 마찬가지로 和平, 發展의 길로 나갈 것이 요구된다.

## 秦漢時代東夷之道德生活

高恒天, pp.33~36

秦漢시대의 동북지역에는 많은 소수민족이 있었다. 鮮卑와 烏桓 이외에, 史籍에 總稱으로 등장하는 것이 東夷이다. 이런 종류의 칭호는 결코 문화나 도덕적 방면의 멸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당시의 동북은 지리적으로 현재의 동북지역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동북과 러시아의 극동지구 그리고 전체 한반도를 포괄한다. 이 지역은 여러 나라로 분리되었는데, 이들 국가나 민족정권 가운데 주요한 것으로 夫餘, 挹婁, 朝鮮, 高句麗, 沃沮, 濊, 三韓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 민족이나 국가들은 지리적 환경이나 역사문화전통 그리고 사회발전 정도의 차이로 인해서 이들의 도덕적 생활은 비슷하면서도 동시에 각자의 특색을 지니고 있다.

① 夫餘: 『後漢書』에는 두 차례에 걸쳐 부여가 전쟁을 일으킨 기록이 있는데, 국가를 세운 후 수백 년간 규모가 비교적 작으면서도 전쟁 시간도 짧고 또 아주 빠르게 평화국면을 회복한 두 차례의 전쟁은, 인류가 평화적 공존을 배운 적이 없는 시대에 대단히 귀중한 현상이라 하겠다. 이러한 품성은 부여 민족이 농업에 종사할 뿐 아니라 또한 농업을 중심으로 한 생존 방식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물질적으로 그들은 다른 민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급자족이 충분하였다. 어떤 의미에서 목축업은 그들의 용감한 품성을 길렀고, 농업은 그들의 평화를 사랑하는 품성을 배양하였다고 할 수 있다. 史料는 부여 민족의 도덕과 법률이 그들에게 양호하고 안정된 사회질서를 제공했음을 보여준다. 당시의 그들에게는 정치적인 등급 제도가 있었다. ‘迎鼓’는 전 민족이 참여하는 복합적인 사회적 기능을 가진 사회적 교류 형식인데, 그 중 정치, 도덕교육도 중요한 기능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들은 일정한 도덕규범과 법률적 규범을 영위하며, 노예 제도가 존재하는 동시에 불평등한 계급적 관계가 존재하는 사회였다.

② 挹婁: 史籍에 나타난 이들의 도덕적 관념은 부여와 비교 할 때 더욱 원시적임을 알 수 있다. 이들에게는 다른 민족의 생명과 재산을 존중하는 도덕관념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혼인관계는 일부일처제로 혼인의 자주권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③ 朝鮮: 箕子가 조선에 도래하여 8조의 도덕규범을 세웠다. 뒷날 전국시대에 북방의 燕나라가 조선의 땅을 통솔하고, 漢武帝 때 무력으로 조선을 폐하고 군현을 설치하니, 그때부터 漢이 멸망할 때 까지 조선이란 나라는 다시 출현하지 않았으며 조선을 대신하여 濊, 沃沮, 旬麗 및 三韓 등 국가 혹은 정치적 집단이 흥기했다.

④ 高句麗: 고구려는 농업생산량의 부족으로 절약하는 도덕적 품성을 키웠다. 그들에게는 존귀한 자를 존중하는 도덕적 규범이 있었는데, 존귀한 자 가운데에서도 다시 尊卑의 등급이 존재하는 도덕적 규범이 있었다. 고구려의 청년들은 자유로운 혼인의 도덕적 권리를 누렸을 뿐 아니라 남녀평등의 도덕적 권리도 누렸다. 심지어는 某種의 試婚에 대한 도덕적 권리를 누리기도 하였다.

⑤ 東沃沮: 이 민족은 강건하고 용감한 도덕적 품성을 지니고 있었다. 모든 가족이 최종에는 合葬되는 것으로 미루어 판단할 때, 이들에게는 2차장 풍속이 존재했다. 당시에 이미 일정한 혈연을 유대로 삼는 대가족이나 가족 윤리규범이 있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⑥ 濊國: 이들은 각 개의 생활과 생산단위 사이의 관계를 통제할 수 있었으며, 기타 생산단위의 재산권을 존중했다. 그리고 ‘同姓不婚’을 유지한 것으로 보아 生育에 대해 일정한 수준의 인식이 있었으며, 이러한 인식 중에서 그에 상응하는 혼인과 관련된 도덕규범이 출현했다.

⑦ 三韓: 秦·漢時代에 濊의 남쪽에서 생활하던 민족이 三韓이다. 그 중 馬韓은 尊卑貴賤의 구분이 존재하지 않아 당시의 민중은 원시사회와 비슷한 무계급 상태에 처해 있었다. 그들에게 도덕의 원칙은 평등이었다. 辰韓은 秦나라와 중요한 淵源관계를 가지고 있다. 辰韓人들의 도덕적 생활은 중원 지역의 인민들과 비슷하였다. 혼인 및 교통의 도덕관에 대해서는 “嫁娶以禮, 行者讓路”라는 기록을 참고할 수 있다.

중국 秦漢時代의 夫餘, 挹婁, 朝鮮, 高句麗, 沃沮, 濊, 三韓 등 주요 부족 혹은 정권으로 구성된 東夷族의 도덕적 생활을 총체적으로 논하자면, 비록 비슷하거나 또는 같은 부분이 많이 존재하나, 지리적 환경, 역사문화의 전통, 외래적 영향 등의 요인이 달랐기 때문에 그들의 도덕생활 역시도 각각의 특색을 지니고 있다.

### 1. 朱子學의 전파와 초기 특징

朱子學이란 北宋대에 二程(程顥, 程頤)이 儒·佛·道 三教의 精髓를 융합하여 창립하고 후에 남송의 朱熹가 집대성한 理學을 말한다. 따라서 朱子學을 程朱理學 혹은 宋明理學이라고 하기도 한다. 한국에는 고려 말기에 전래되었다. 조선왕조 오백년에 이르기까지 朱子學의 주된 관심은 ‘天理心性’에 집중되어 조선에서 통상 朱子性理學이라 불렀다.

麗末鮮初, 불교가 쇠약해지면서 오랫동안 합당한 지위를 얻지 못했던 유학자들이 정치무대에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하에서 14세기 초 白頤正이 원나라로부터 朱子學을 조선에 들여와 소개하였다. 주자학은 麗末鮮初부터 근 백년에 이르는 시간동안 의식형태의 정통적 지위를 얻기 위해 ‘崇正學, 樹義理’의 격렬한 논쟁을 진행하여 마침내 그 이론학설을 완성하였다. 이때부터 주자학은 조선의 발전에 신기원을 열었고, 이후의 국가, 사회, 개인생활을 지도하는 통치이념이 되었다.

### 2. 주자 성리학의 흥성과 분쟁

16세기 중엽에 조선의 주자학은 전면적인 흥성의 시기를 맞이한다. 조선 주자학의 변영은 李滉이 退溪學派를 창립하고, 李珥가 栗谷學派를 창립함으로써 최고조에 달한다. 두 학파는 조선 주자학의 相異한 발전방향을 대표하여 양대 性理學派가 된다. 그들이 조선 주자학 발전의 기본방향을 다지면서, (두 학파의 相異한 발전방향은) 그 이후 수백 년간 조선 주자학 내부 양대 학파간 투쟁의 주요 초점이 된다. 李滉과 李珥의 朱子學에 대한 공헌은, 그들이 창립한 朝鮮化된 주자학 사상 체계에서 두드러지게 구현되어, 후계자들이 각자의 체득한 바에 근거하여 계속적으로 상이한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두 학파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주자학을 발전시켜 각자가 특수한 공헌을 하였으나, 16세기 후반기에 주자학의 ‘顯正’을 내용으로 하는 철학적 탐구가 전에 없는 학술적 분쟁을 가져왔다. 그 원인은 16세기에 주자학이 발전하면서, 각자의 (이론적) 범위의 초월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 문화적 폐쇄주의와 사상적 독단주의가 출현하였기 때문이다.

### 3. 朱子學의 정통과 多元文化의 충돌

조선 사회의 의식 영역에서, 주자학은 이미 상당히 성숙한 수준에 도달하였고, 주자성리학을 기초로 하는 道學思想이 점차로 그 정통적 지위를 확립하였다. 주자학을 신봉하는 도통관이 일시에 전체 사회 의식 영역을 주도하였다. 다원화된 학술 문화적 논쟁의 결핍과 異端에 대한 배척 때문에 道學正統은 도덕 지상주의의 虛無境界로 나아가 현실과 동떨어진 ‘清談空論’과 부패한 문화 형태로 이어졌다.

17세기 초부터 시작하여 조선의 문화지식인 사이에는 중국을 통해 부단히 유입되는 서양 과학기술 및 천주교 신앙과 관련된 지식에 대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학파가 있었는데 이들이 바로 실학파이다. 당시 조선의 사회사상 영역내에서는 道學派가 정통주의 입장에 서서 정통이념 이외의 사상과 이질문화를 배척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그러나 실학파는 사회의 현실에서부터 출발하여 도학정통의 (사상적) 감옥으로부터 벗어나 현실과 관련된 문제에 관심을 갖고 탐색을 시작하였는데, 특히 正統道學이 ‘異端邪說’로

판정한 西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취하였다. 서학의 유입은 조선의 정치를 덮어쓰은 검은 장막을 열어젖혔을 뿐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사람들을 성리학풍으로부터 해방하는 계몽적 작용을 하였다는 것이다.

결국 正統理念인 朱子學은 한반도에 전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조선 500년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력은 전에 없이 깊었다. 그것은 바로 사회, 문화의 기초위에 세워진 주자학 정통이 소위 일체의 불법과 변칙에 항거할 것을 강조하여, 근대 조선으로 하여금 문화교류의 메커니즘 기능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傳統과 反傳統의 대립 모델을 출현시켜 격렬하게 충돌하게 하고, 이 충돌이 근대 조선의 사상, 문화영역에서 모순의 초점이 되었기 때문이다.

## 宋麗使節往來與文化交流

李梅花, pp.34~39

사절이 왕래하는 것은, 현대사회든 아니면 고대사회든, 모두 국가 간의 외교관계로 매우 중요하다. 宋代에 들어서면서 북방 소수민족 정권이 강대해지고 나아가 송나라와 고려 양국의 안전과 발전을 위협함으로 인하여, 두 나라 간의 정치군사적 교류의 의의는 문화적 교류의 의의보다 훨씬 컸다. 심지어 어느 때는 북방의 소수민족 정권인 遼나라나 金나라의 위협에 강제되어 고려는 송나라와 교류를 단절하기도 하였다. 송나라와 고려의 교류는 비록 고려가 송나라를 배우는 것 위주였으나, 고려의 비교적 높은 문화수준은 송나라의 주목을 받았다. 송과 고려는 모두 각자가 파견하는 사절의 문화적 소양과 品德 그리고 지조를 매우 중시하였기 때문에, 쌍방의 사절은 정치적 사명을 원만히 완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박한 학식과 독특한 개인적인 매력으로 상대방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선진적인 문물제도를 받아들여야 할 필요로 인하여, 고려의 사절은 모두 정치, 문화, 제도 등 모든 분야의 것을 학습해야 하는 중요한 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들이 송에 파견되어 오면, 조정의 관원들과 접촉하여 송의 典章制度를 주의 깊게 살피고, 律令 분야의 서적을 구하거나, 律令 방면의 문제에 관한 가르침을 청하였다. 그리하여 귀국 후에는 정치생활과 개혁 실천 과정에서 핵심적 작용을 발휘하였다. 고려의 사절단은 송나라의 典章制度를 고찰하고 받아들임과 동시에 대량의 서적을 본국으로 가져가 문화 교류를 촉진시켰다. 宋代에는 조판, 인쇄사업이 발달하고 도서출판 사업이 대단히 昌盛하여 대량의 문헌이 인쇄 발행되었다. 이런 서적들은 고려왕조가 물색하여 수집하는 대상이 되었으나, 宋나라 황제도 서적을 하사하는 것을 당연하게 간주하였다. 송나라는 서적을 하사하는 것 외에도 書籍市場을 개방하여 고려 사절로 하여금 스스로 서적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요와 금이 북방에서 송과 적대적 관계를 형성함으로 말미암아 정치, 변경, 군사기밀과 관련된 서적의 외국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兩宋의 정부, 특히 北宋의 정부는 서적의 외국유출 금지령을 반포하였다. 금지령은 禁書의 범위를 확대시켰을 뿐만 아니라, 송나라와 고려 간의 서적교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송나라의 관방이 실질적으로 증명하거나 구매를 허락한 서적은 주로 현실정치와는 무관한 유가경전, 불경, 醫書 및 宋代 이전의 문집 등이다. 宋麗使節이 왕래하며 얻은 문화교류의 또 다른 성과는 상대방의 典章文物과 風俗民情에 관한 저술활동을 펼친 것이다.

이상의 내용으로부터 볼 때, 宋麗使節의 왕래는 서로간의 인식과 이해를 한 단계 더 깊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문화의 교류와 전파를 촉진시켰다. 특히 고려의 사절은 외교적 사명을 완성하는 것 외에도 문화를 받아들이는 수레의 역할을 맡았고, 중국의 선진적인 典章制度가 한반도에 전파되는데 중요한 작용을 발휘하였다.

## ■ 2007년 제4기

### 萬曆朝鮮役及其對東亞政治格局的影響

金洪培·黃文日, pp.35~39

16세기 말 일본은 조선에 대한 침략전쟁을 일으키는데, 역사는 이를 ‘壬辰倭亂’이라 칭한다.(中國史에서는 ‘萬曆朝鮮役’ 혹은 ‘萬曆日本役’이라 칭한다.) 이런 전쟁은 이전에는 없었던 한·중·일 3국이 직접 교전한 대규모 국제전이었고, 고대 동아시아 국제관계사에서 일대사건이었다.

#### 1. 7년에 걸친 동아시아 전쟁

1592년 3월, 다년간의 전쟁준비를 마친 일본이 17만 육군과 3-4만의 해군 병력으로 조선을 침략했다. 그해 5월 2일에 京城이 함락되고, 다시 6월 16일에 평양이 함락됐다. 일본의 돌연한 침략에 조선은 매우 위급한 상황에 처했다. 조선 인민이 자발적으로 의병을 조직해서 적과 용감히 투쟁하였으나 항전은 매우 험난하였다. 이런 상황하에서 조선은 명나라에 사신을 파견하여 원병을 요청했다. (명나라는 조선에 원병을 파병하여) 1593년 1월에 평양을 수복하였으며, 明의 李如松은 군대를 이끌고 개성에 진주했다. 그 후 3만의 일본군을 격파한 ‘행주대첩’은 전황을 역전시켰다. 이때 일본은 평화담판을 요구하였지만 3년의 시간 끝에 담판은 결렬된다. 1597년 1월에 豐臣秀吉은 14만의 대군을 이끌고 재차 조선의 남해안에 상륙했다. 1598년 8월 18일에 豐臣秀吉이 病死함으로써 일본의 조선침략전쟁은 종언을 고했다.

#### 2. 동아시아 정치 구조에 대한 영향

萬曆朝鮮役은 당시의 동아시아의 정치군사적 틀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 이 전쟁으로 인하여 북방의 여진족은 갈수록 강성해져 명나라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었고, 조선은 수십만의 군민이 사상을 입는 막대한 대가를 지불하였으며, 일본은 豐臣秀吉의 시대에서 德川幕府의 시대로 들어선다.

##### 1) 後금이 명을 대신하여 동아시아의 새로운 패주로 성장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萬曆朝鮮役의 승리는 명나라의 종합적인 국력의 절대적인 우세에 의지하여 획득된 것이다. 이 전쟁에 수십만의 군사가 동원되고, 막대한 전비를 소모하였다. 전쟁과 화평의 반복을 거듭하면서 전쟁에서 승리하였으나, 이 전쟁이 명나라 말기의 재정위기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의 하나가 된다.

萬曆年間에 명나라는 3차에 걸쳐 대규모 전쟁을 치르는데, 조선에 원병을 보낸 것이 유일한 국제전쟁 참여였고, 국력의 소모 역시 가장 컸다. 이 전쟁 중에 명나라 조정은 대량의 인력, 물자, 재력, 군사 등을 사용하였으며, 특히 명나라 군대의 주력의 하나인 遼東軍의 손실이 매우 커서 女眞에 대한 직접적인 진압 능력의 감소를 야기했다. 이로써 요동에서의 女眞의 위협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이는 명나라의 붕괴를

가속시켰다.

萬曆 44년, 누르하치는 스스로 汗(khan)이라 칭하고 연호를 天命이라 정하고, 이미 멸망한 '금'을 계승하여 국호를 '금'이라 칭하니, 역사는 이를 '後金'이라 한다. 이 후부터 중국 동북지역의 정치역량과 정치질서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였다. 요동 및 전체 동북지역에서 명나라의 정치군사적 통치의 우세는 점차 後金에 의해 대체되어 새로운 통치의 짜임새가 형성되었다.

## 2) 후금과 조선의 새로운 국제관계 건설

조선은 7년간의 전쟁 및 그에 따른 기아와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다. 전후 조선의 경작지 면적은 戰前의 1/3에 불과했다. 농업생산은 심각하게 파괴되었고, 수공업생산에도 매우 큰 곤란을 야기되었다. 특히 전란기간 중에 일본은 대규모의 인쇄, 제지, 광업 등의 우수한 기술자를 강제로 일본으로 끌고 가, 戰後 조선의 수공업생산에 커다란 타격을 입혔다. 장기간 전쟁의 심각한 충격하에서 조선사회는 경제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중앙집권통치는 갈수록 쇠약해지고 계급간의 모순과 통치집단 내부의 모순이 시간이 지날수록 격화되고, 국방력은 끊임없이 하락하여 조선이 쇠퇴하는 계기가 되었다.

後金の 건립은 조선에 대해서도 거대한 영향을 가져왔다. 조선은 여진족을 지배했던 통제권을 완전히 상실했다. 조선은 험난한 조건 하에서도 명나라를 중주국으로 받들고 事大主義의 宗藩原則을 견지하여 여러 차례 後金の 무력공격을 야기하였다. 後金이 瀋陽으로 천도한 후, 만주족은 완전한 봉건정권과 정치제도를 건립하기 시작하였고, 조선과는 새로운 봉건왕조의 자격으로 왕래하였다. 명나라 말기의 격렬한 군사정치의 격변 중에 후금과 조선은 피할 수 없는 충돌과 교류를 거치면서 새로운 국가관계를 건립하였다.

## 3) 豊臣政權의 몰락

萬曆朝鮮役의 침략자이자 패전국인 일본 역시 거대한 손실을 입었다. 일본은 조선 침략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반대로 10만의 壯丁을 상실하였고, 재정적인 손해도 매우 컸다. 전쟁 중에는 수만 명의 일본백성이 군대 부역자로 징발되어 국내에 남아있던 백성들 역시 평소보다 몇 배 높은 토지세와 각종 가혹한 잡세를 부담해야 했다. 이런 무거운 부역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많은 농민이 고향을 등지고 유랑생활을 함으로써 대량의 토지가 황폐해졌다.

## 4) 300년의 평화 구도를 유지한 동아시아

唐代부터 中·日관계는 시종 안정적인 국면을 유지하였었다. 16세기 후반기에 국내의 통일을 실현한 豊臣秀吉이 대륙 왕조와 상호대등한 관계를 꿈꾸기 시작했으나 동아시아를 제패하여 대일본제국을 건설하려는 豊臣秀吉의 허망한 꿈은 철저히 파괴되었다. 德川幕府는 동아시아를 제패하는 강국의 꿈을 깊이 감추고, 문을 닫아걸어 그 후 동아시아의 국제관계는 300년간 비교적 안정적인 정세를 유지하였다.

## 李奎報散文中의民族意識探微

柳延祥, pp.81~82

李奎報는 고려시기의 걸출한 문학가로서 그 작품 사상적 내용이 매우 풍부하다. 민족의식은 그의 편지, 傳志, 공문서, 논설, 雜記 등 각종 산문의 중심을 관통하고 있다. 민족의식은 (그의) 산문 중의 영혼

이다.

이규보는 어려서부터 유가사상의 영향을 받았다. 유가사상은 적극적인 사회 참여의 정신을 담고 있다. 유가 사상은 지식분자가 經世의 뜻을 품을 것을 요구하고, 천하와 국가와 민족을 자신의 과업으로 삼아 고생스러운 일에는 남보다 앞장서고, 즐거운 일에는 남보다 뒤에 설 것을 요구한다. 유가 사상의 영향을 받아 이규보는 ‘學而優則仕’를 일생의 목표로 삼았다. 16세에 벼슬길을 시작하여 70에 벼슬에서 물러날 때까지, 일생동안 여러 차례 고초를 겪고 좌절을 당했으나, 오히려 ‘致君堯舜’의 뜻을 세워 바꾸지 않았다. 이런 벼슬길의 역정은 ‘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는 인생의 이상을 현실생활 중에 구현하였을 뿐 아니라 민족과 국가의식의 가장 좋은 詮釋이 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규보의 민족의식 및 그에 상응하는 애국적 감정은, 그의 산문의 꽃이자 민족을 응집시키는 빼어난 정수이다. 민족의식의 형성에는 주관적 요인과 객관적 요인이 있다. 주관적 요인을 말하자면, 이규보는 자신의 수양을 매우 중시하였고, 일생동안 배움을 꾸준히 하였으며, 각종 서적을 광범위하게 독서한 것이며 객관적 요인을 말하자면, 한민족의 문화 전통과 이규보 가문의 계통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필자는 민족 간의 교류라고 생각한다. 민족의식의 발생은 일정한 외부조건을 떠날 수 없는데, 민족 간의 상호교류는 민족의식 발생의 중요한 외부조건이다. 이규보가 살았던 시대는, 고려와 중국 및 중국 북방의 소수민족과 교류가 갈수록 빈번해지던 시기였다. 이규보는 어려서부터 漢文化를 접촉하였고, 한문화의 특징에 대해서는 매우 익숙하였다. 그는 한편으로 한문화의 精髓를 흡수하는 동시에 이러한 촉매작용 하에서 자기 민족의 문화적 장점을 보았으며, 이는 자기 민족문화를 확대 발전시키는 기반이 되었다.

비록 이규보가 세상을 뜬지 800년이나 되었지만, 그가 한국민에게 남긴 정신적 재산, 특히 민족의식과 애국 감정은 여전히 한국민을 격려하며,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가게 하는 촉매이다.

## ■ 2008년 제1기

### 朝鮮詩人李尙迪의思想文化特徵

溫兆海, pp.9~21

李尙迪은 조선의 譯官의 가정에서 태어나, 純祖때부터 高宗시대까지, 즉 중국의 道光(宣宗)때부터 同治(穆宗)시기에 이르기 까지 조선 詩壇에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시인이다. 청나라의 시단에서는 이상적에 대해 매우 높은 평가를 하였으나, 정작 조선에서는 신분상의 이유로 그리 큰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이상적은 '中人階層'에 속하는 신분으로, 그의 사회적 이상, 정신적 지향, 그리고 詩歌의 視闕 등 모든 것이 주류계층의 제약을 받았다. 그 사상 문화가 지향하는 바 역시 그가 소속된 신분계층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었다.

#### 1. 正統儒家思想觀

이상적은 「一經堂銘竝序」 중에서 '幼承家學'이라 하고 있다. 소위 '家學'이란 그의 증조부 때부터 부친에 이르기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宗經(주: 유가의 경전을 존송함)의 전통이다. 『毛詩』를 자신의 安貧樂道 생활의 聖典으로 삼았다. 『毛詩』가 주지하는 사상은 詩歌의 심미적 특징과 사회적 기능을 王道 유지의 윤리사상에 귀납하는 것이다. 이상적의 『思誦堂集』의 내용을 볼 때 그가 『毛詩』에 대해 주목한 것은 '忠'과 '孝'이다. 그는 "忠과 孝는 마땅히 인간의 性情에 근본을 두어야 하며, 性情 중 忠孝가 있고, 忠孝는 인간의 天性으로 만고불변의 진리이다"라고 주장한다. 이상적이 주장하는 忠孝의 윤리적 속성은 朱熹의 성리학적 견해와 상통한다. (朱熹는 孔子의 君臣 父子 夫婦의 倫理關係를 선천적 존재의 天理로 삼아 인륜關係를 규정하였다.)

李尙迪의 忠孝에 대한 유가사상을 봉건시대의 문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크게 비난할 것은 없으나, 당시 조선의 사회사조 경향과 비교한다면 일정 수준의 보수성을 나타내고 있다. 18세기 후반의 조선에서는 北學派가 출현하여 "전에 없는 역사의를 갖추고, 생명의 주체적 독자성에 대한 의의"를 강조하였다. 正統經學의 입장에서 본다면, 북학파의 관점은 받아들여지기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게다가 이상적은 서방 종교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 2. 주변화된 인생 궤적

봉건시대의 문인에게 '修身治國平天下'는 공통적 신조이다. 이상적 역시 정통 유가사상을 신봉하는 문인으로서, 이러한 신조를 자신의 인생의 포부와 이상으로 삼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이상과 역사현실 사이에 심각한 대립이 발생했을 때, 현실에 반항을 하든 내심으로 회귀하든 어쨌든 고통의 모순 중에서 정신적인 평형을 탐구하기 마련인데, 이상적이 남긴 詩文을 보면 그는 후자의 유형에 속하는 사람이었다.

물론 그에게도 인생도 심적인 고통이 있음을 그의 詩文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상적은 사회적 지위의 비천함과 재능이 있어도 펼칠 기회가 없음을 한탄하였으며 양반계층에 대한 불만도 토로하였다. 그러나

그는 문벌제도가 자신의 인생에 가져다준 답답함과 괴로움 속에서도 세상을 조소하는 비평을 삼갔다. 가슴에 뜻은 품었으나 숙명에 安居하였다. 이러한 모순 속에서 그는 사회적 제도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비교적 명확히 비주류의 길을 걷는 경향을 보인다. 사회제도에 의해 비주류가 되어 자아가치를 실현할 방법이 없는 사회적 현실은, 인생의 가치관에 歸田意識(낙향)과 避世思想(은둔)이라는 비교적 명확한 특징을 부여하였다.

### 3. '問學'의 文化的 選擇

이상적은 매우 박학한 시인이었다. 그는 漢學에 정통했을 뿐 아니라 書法(서예)과 시문에도 매우 뛰어났고, 그 외에도 繪畫와 金石文도 매우 사랑하였다. 그가 書畫와 金石學 등에 관심을 기울인 근본 원인은 모두 비주류화 된 인생의 방향과 관련이 있다. 이것은 또 그가 문화를 대하는 기본태도를 결정하였는데, 바로 현실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개인의 심미적 취미를 뚜렷이 하며, '自我'의 예술 공간속에서 인생의 內涵을 체득하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선택은 역사와 현실 사이에 다리를 놓는 깊은 문화적 체험은 없다. 따라서 그의 문화적 행위는 엄격한 의미에서 학문행위라 할 수 없으며 마땅히 '問學'의 범주에 속해야 한다.

### 4. 모화사상과 개인의 정서 공간

慕華思想은 한중 양국의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의 많은 관계 중에서 형성된 일종의 역사현상이다. 神話시대부터 시작하여 한국과 고대 중국의 중앙정권은 안정적인 宗藩관계를 수립하였다. 이런 관계는 청나라 말기까지 약 1,200여 년간 계속되었다. 이러한 한중간의 관계로 인하여 조선은 정치적으로 사대주의를 받들었고, 문화적으로는 중원의 문화를 正宗으로 여기며, 중원문화를 仰慕하고 학습하여, 점차 慕華的인 문화 경향이 팽배하였다.

이상적은 어릴 적부터 漢文化가 매우 농후한 가정에서 생활하였다. 그 조부와 부친은 모두 그에게 양호한 한문화 교육을 시켰고, 중국의 經史子集 모두가 그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다. 그는 中華文化는 바로 인문이 집중되는 학문으로 中華를 사모하는 것은 천성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여겼다. 이러한 생각은 朴趾源이나 金正喜의 慕華思想과 같은 類의 것이었다. 조선의 문인은 중국의 문인과 교류 중에 종종 겸허함을 나타내며, 더 나아가 스스로를 낮추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中華를 중심으로 삼는 邊方的 문화심리상태를 노출시킨다. 李尙迪은 조선의 신분등급제도와 중인인 그의 신분으로 인해, 비주류적 사상의 특징을 지니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金石書畫 등 예술에 감정과 뜻을 의지하는 것 외에도, 청나라 문인들의 풍조에도 깊은 정서적 일체감을 느꼈다. 그의 慕華思想은 정감이 층층이 쌓인 그 위에 그와 청나라 문인들과의 교류 중에서 체험한 평등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이다. 이러한 체험은 그의 생명의 척도로 확대되어, 청나라 문인의 세계 중에서 자신의 또 다른 정신적 공간을 찾았다.

이상적의 『恩誦堂集』 중 절대다수의 내용은 중국과 관계 있는 것이다. 그 중에 청나라 문인과 교류한 시문이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는데, 이는 조선에 관한 내용이 아주 적음을 의미한다. 바로 이로 인해서 일부학자들은 그의 慕華思想을 비판한다. 그들은 이상적이 분명한 주체의식을 결여하였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상적의 慕華思想에 대해 반드시 구체적인 분석을 하여야 하며, 편협한 민족주의의 입장에 서서 질책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한다.

중국에서 煉丹家들에 의해 화약이 발명된 후, 화약을 이용하는 각종 군사무기가 속속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화약과 화기는 인류 역사의 진보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고대 한국은 중국에서 화약과 화기가 유입된 후에, 자신의 독특한 방식으로 그것을 발전시키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한국과 관련된 화약과 화기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필자는 중국의 화약과 화기의 발전과 진보의 배경 하에서 비교적 시각으로 한국의 화약과 화기를 연구하여, 조선에 외국으로부터, 주로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전해지고 개량된 화약과 화기의 발전사 및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화약와 화기가 중국에서 들어온 시·공간은 확정할 수 없음

한국의 화약과 화기는 중국으로부터 처음 전해졌으나, 그 구체적인 시기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어느 학자는 남송시대에 화약 제조기술이 이미 전해졌다고 주장하나, 한국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고려시대 때인 14세기경 화기가 전해졌다고 한다. 그러나 고려의 사병들은 몽고가 통치하던 시기에 이미 화기를 사용하였다. 몽고는 1234년에 金을 멸하고 그 후에 한반도를 東征했다. 그 후 1274년과 1281년 두 차례에 걸친 일본 원정에 각각 8,000명과 2만 5,000명의 고려 사병을 동원하였는데, 이로써 추측해볼 때 일본 원정 중에 고려 사병은 이미 화기의 사용법을 배웠을 것이다. 그러나 화기가 전해진 최초의 시기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14세기 중반에 이르러, 화약과 화기가 중국에서부터 한국에 전해졌음을 나타내는 분명한 문자 기록이 나타난다. 고려 恭愍王 5년인 1356년 9월 “宰樞會崇文館閱西北防擊兵伐, 放銃筒于南區, 箭及順天寺南, 墜地無羽”라는 기록을 볼 때, 고려는 이 시기에 이미 화약을 이용하여 발사하는 화살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또 恭愍王 22년인 1373년 10월에 “丁丑, 觀新造戰艦, 又試火箭火筒, 晚宿馬場”의 기록이 있는데, 이 때 사용하던 火藥器械는 당시 중국 정부에서 조달되던 것이다. 따라서 화약과 화기 제조기술이 고려에 전래된 것은 14세기 중·후반기로 봐야한다. 당시 고려 軍器監 判事인 崔茂宣은 화약과 화기를 스스로 제조할 것을 주장하였다. 崔茂宣의 건의 하에 1377년 10월에 火桶都監이 설치되어 전문적으로 화약과 화기를 제조하였으며, 崔茂宣이 提調官을 맡았다. 다음해에 火桶放射軍이 설립되고, 이후 고려는 각종 화기를 대량으로 제조하기 시작했다.

### 2. 中國에서 수입한 焰硝 提取術의 네 차례 變革

화약 제조의 가장 관건적인 단계는 흙 중에서 硝石(주: 질산칼륨)을 추출하는 것이다. 즉 焰硝煮取術이다. 조선의 焰硝煮取術은 4차에 걸쳐 기술적인 변혁을 경험했다. 이러한 변혁은 硝石의 순도와 생산량을 제고시킴으로써, 화약의 폭발성능을 향상시켰다. 한국의 학자인 奎相運은, 17세기 후반기에 들어서 조선에서 사용하는 煮硝法은 이미 중국의 것과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국에서 17세기 초반에 저작된 『神器譜』, 『武備志』, 『天工開物』 등에 소개된 硝石추출법을 비교해 보면, 17세기 후반 조선의 金指南에 의해 저술된 『新傳煮硝方』에 硝石煮取法이 매우 상세히 서술되어 있기는 하나, 추출과정과 원리는 중국의 것과 대동소이하다.

### 3. 화기는 화살 발사를 위한 銃筒 위주

조선에서 사용했던 화기의 원료구성, 제조 및 조작원리, 화약의 조제된 형태 등을 고찰해 볼 때, 서양식 화기가 사용되기 전에 조선에서 사용되던 화기는 주로 화살촉의 발사를 위주로 하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조선에는 管狀 銃筒 외에, 화약을 추진제로 사용하는 火箭이 있다. 예를 들면 普通火箭, 大神機箭, 中神機箭, 小神機箭 등이다. 금속 관상 총통 이외에 世宗 때는 竹筒으로 만든 화포도 사용되었다.

### 4. 독특한 양식, 그러나 실용성이 크지 않은 火器戰車

(조선왕조의) 文宗은 겨우 3년을 재위하였으나, 그는 일찍이 친히 개조하였던 火器戰車를 매우 중시하였는데, 이런 종류의 火器戰車가 당시에는 火車라고 불렸다. 文宗의 재위기간 중에 전쟁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文宗은 여전히 軍器監에 火車를 제조하도록 요구하였다. 이 화차는 중국 전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모양은 매우 독특하였으나, 구체적인 효과는 발휘하지 못하였다.

### 5. 중국과 다른 폭발식 화기

조선은 蒺藜炮와 震天雷 등 비교적 많은 폭발성 화기를 사용하였는데, 고려 말기부터 蒺藜炮를 사용하고, 15세기 중반부터 震天雷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 두 火器는 중국의 것과는 전혀 다른 계통에 속하는 것이었다.

### 6. 자원과 기술 제약하의 화약 관리 및 사무역

黑火藥의 제조에는 焰硝, 硫黃, 木炭을 필요로 하는데, 한국에서 炭은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었으나, 자연자원의 제한으로 硫黃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으므로 주변국으로부터 구하였다. 조선 초기에 일본의 使者는 대량의 유향을 조선에 헌납하였다. 世宗 5년(1423)에만 일본의 여러 省은 수차에 걸쳐 硫黃을 바쳤는데 그 총량은 7만 8,500근을 넘었다. 이외에도 주변국의 사신이 조선에 올 때는 늘 유향을 가져왔다.

화약의 제조와 사용은 주로 軍器監에서 관리하며, 軍器監은 焰硝의 채취방법, 화약의 배합, 화약의 사용량 등에 모두 엄격한 규정과 기밀 유지에 신중을 기하였다. 조선에서는 화약의 보관과 사용에도 매우 신중하였는데, 화약을 보관하는 곳은 밤낮으로 지켰으며, 늘 검사를 하여 (화약의) 효능 상실을 방지하였다. 조선 전기에는 화약이 군사용 이외에도 경축일이나 중요행사가 있을 때 및 궁정의 오락용으로도 사용되었다. 화약이 수요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조선은 중국을 향해 부단히 화약 무역을 요구하는 동시에, (화약) 무역금지 규정을 어기고 중국에서 화약을 구입하였다. 17세기에는 일본을 통해서 유향을 구입하여 수요를 충족하였다.

### 7. 서양회기는 대부분 일본에서 전래

조선은 일본으로부터 서양식 화기가 유입된 후, 사용하던 中式 火器를 차츰 교체하였다. 서양의 선교사가 일본에 도래할 때 조총을 가져 왔는데, 이 조총을 일본사신 義智가 1590년에 조선에 바쳤으며, 조총은 軍器寺에 지급되었다. 조선은 대마도에서 일본과의 무역을 통해 조총을 획득하였다. 이때까지 조선에서 사용되던 조총은 火繩式이었다. 淸의 皇太極이 조선을 공격할 때 사용한 중형 紅夷炮가 명나라 군대가 사용하던 화포보다 훨씬 뛰어난 것을 조선정부가 알게 된 후, 조선은 점차 서양식 화포를 받아들여 제조하기 시작하였다.

## ■ 2008년 제2기

### 朝鮮朝燕行使者眼中的關羽形象

徐東日, pp.36~41

#### 1. 조선 연행사에게 나타난 관우의 忠義, 勇武한 形象의 특징

필자는 朝鮮朝 燕行使者의 눈에 비친 關羽의 形象 및 이런 종류의 形象을 형성한 조선 文化의 語境 (주: 언어적 환경)을 분석하였다. 사실 關羽의 形象과 조선의 文化語境 사이에는 일종의 상호인과적인 관계가 있다. 중국의 『三國志』나 『三國演義』 및 關帝信仰이 조선에 전파되어, 본 민족의 文化에 축적되고 그 文化적 특징이 드러나는 文化語境 위에 위치하게 되었다. 게다가 조선 사회의 오랜 역사 진행과정 중에, 자신의 시대 색채와 지역 특징을 구비한 관찰과 기록이 형성되었고, 나아가 계승 과정 중에 종합적으로 구성된 ‘關羽’라고 하는 일종의 독특한 文化적 현상을 ‘해석[詮釋]’하였다.

조선의 燕行使들은 사회집단의 想像物을 건설하는 건축가이자 고취자이면서 形象을 만든 자들인데 그들 또한 필연적으로 일정 정도 集團의 想像의 제약을 받았을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붓끝에서 나온 異國의 形象 또한 集團의 想像의 透寫物이 되었을 것이다. 그 결과, 조선의 燕行使들이 조선의 文化語境에 기초하여 형성한 관우에 대한 文化적 ‘해석’은 필연적으로 ‘외위’적 시각으로 關羽 形象을 이해하고 묘사함으로써 관우와 관련한 대량의 새로운 기록을 남겨 놓게 되었다.

#### 2. 조선 연행사에게 ‘異化’된 관우의 形象

關羽의 形象은 조선에 전해진 후 약간의 변화를 겪는다. 즉 중간매체의 구조적 해석과 합성을 거치면서 文化적 변이체를 이루는데, 文化적 변이체는 더 이상 원래의 것이 아니다. (조선에 전해진) 關羽의 形象은 燕行使 등 광대한 조선 민중의 文化語境에 근거한 文化적 ‘해석’을 거쳐서 변화되었다. 예를 들면, 샤머니즘에 영향을 받은 조선조 후기에 高宗 등은 즐곤 무속화된 관우 숭배활동에 탐닉하였다. 또 다른 예를 든다면, 조선조는 崇佛 분위기가 비교적 농후하였기 때문에, 관우는 전쟁의 신으로 조선에 전해진 후에, 점차 曾山敎 등 불교단체에 의해 最高神을 호위하는 大神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중국에서 관우는 최고의 神格을 지닌 신령으로 많은 장수들의 호위를 받는다. 이렇게 볼 때, 文化적 語境의 상이함과, 그 부단한 변화로 인하여 원래의 關羽의 形象 또한 필연적으로 부단히 변화하게 되었다.

## ■ 2008년 제3기

### 17~19世紀中葉中國實學與朝鮮實學的比較

李英順, pp.15~20

儒家에서 발원한 ‘利用厚生, 經世致用’이라는 오랜 命題의 實學이 중국과 조선에서 차례로 탄생한다. 양국의 실학문화는 흥성, 발전의 찬란한 시기를 거치면서, 혁신, 창조적 용기, 그리고 계몽정신 등 그 풍부한 내용을 형성하고 이것은 모두 自國의 경제, 정치에서 사상, 文化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사회발전을 촉진하였다. 동시에 양국의 제안 조건의 차이로 말미암아, 그 발전 상황이라든가 사회적 영향 그리고 역사

적 작용 등에는 상이한 점이 나타나게 되었다.

## 1. 한·중 실학문화의 공통점

### 1) 심성에 대한 공론에 반대, 舍虛務實, 經世致用을 주장

明代 中期에 中國 東南 沿海地方의 일부 수공업계에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이미 싹트었다. 사상계에서는 오랜 기간 통치적 지위에 있던 官學, 程朱理學의 유연성이 쇠퇴하고, 陽明心學이 일어나 널리 전파되어 점차 朱學의 지위를 대신하였다.

明代의 萬曆 中期부터 清代의 康熙 中期까지(약 16세기말~18세기 초), 중국은 대혼란에 처하였으며 이때 실학사조가 흥성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는 대규모 농민봉기 이외에도 일부 지방에서 대규모 시민 반항운동이 출현하였다. 士大夫 가운데 우수한 인재들은 明代 말기의 ‘國危民艱’의 국면을 앞에 두고, 陽明學 말기의 ‘空談誤國’을 반대하고, ‘國富強兵’과 ‘濟世救民’을 위하여 治國平天下에 유용한 학문을 주장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實學’이다. 이들은 東林學派를 중심으로 정치, 경제, 학술, 문화 등의 방면에 일대 혁신적인 주장을 내놓으며 實學思潮의 흥기를 촉진하였다. 이들은 학술적으로 공론을 반대하고 실천을 중시하며, 講習의 결합과 相互檢證의 治學方法을 주장하여 허를 버리고 실을 중시하는 ‘舍虛務實’의 학술적 경향을 나타냈다. 明清시대의 중요한 실학 사상가로는 黃宗羲, 方以智, 顧炎武, 王夫之 등이 있다.

‘舍虛務實, 經世致用’을 강구하는 實學의 특징은, 朝鮮 후기, 實學의 興盛시기에 더욱 두드러진다. 17세기 초, 朝鮮 實學의 선구자 李晬光은 朱子 性理學의 清談空論을 비난하였다. 그는 實로써 정사를 돌보면 못할 일이 없고, 實로써 다스리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격화된 사회적 모순을 완화시키기 위해 英·正祖의 통치 시기(1725-1800)에는 일련의 양보정책과 문화부흥정책을 실시하여 사회경제의 발전을 촉진시켰다. 19세기 초, 조선 실학의 집대성자인 丁若鏞은 더욱 적극적으로 실학의 우량한 전통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여전히 정치, 문화방면의 지도자를 자처한 성리학자들을 매섭게 비평하였다.

### 2) 專制 반대, 濟世救民 주장

明代 萬曆 이후부터 東林學派는 부를 혁신하여 濟世救民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법을 간소화할 것과 상업에 혜택을 주고 백성을 공홀히 여길 것을 주장하였다. 黃宗羲는 工商이 모든 것의 근본임을 주장하였으며, 顧炎武는 상업에 대한 정책적 간섭을 반대하고, 소금과 찻잎의 자유매매를 주장하였다. 정치적인 면에서 黃宗羲의 『明夷待訪錄』은 봉건 정치제도의 토벌을 촉구한 격문이라 할 수 있다. 그는 군주가 天下의 大害임을 규탄하고, 심지어 천하를 다스리는 인제는 학교에서 나온다고 주장하여, 近代 君主立憲 議會制度和 유사한 구상을 하였다.

조선의 실학사상가인 李澗은 양반문벌제도와 노비제도의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였다. 문무관리 선발 제도를 개혁하여 人才와 官吏는 마땅히 백성들 사이에서 선발할 것을 제창하였다. 그는 또 당시의 사회에 존재하던 여섯 종류의 사회적 병폐를 여섯 종류의 썩[六蠹]이라 하여 오직 이 六蠹를 없애야만 부국강병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였다. 또 均田制를 주장하여, 농민의 민생문제를 확보함으로써 농업생산을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저명한 실학자인 洪大容은 ‘四民’ 즉 ‘士農工商’의 平等을 주창하였다. 이는 封建 尊卑貴賤 等級制度에 대한 채찍질로 계몽적 색채를 지닌다. 丁若鏞은 實學의 進歩의 社會政治論을 최고의 단계로 끌어올렸다. 그는 『原牧』에서 통치자들의 권력남용을 지적하고, 고대에는 백성의 일을 처리하기 위해 존

재하던 官吏가 인민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통치자로 변하였다 하면서 불합리한 사회제도를 없애고, 통치자가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民本制度를 수립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또 세습적 군주제에 반대하고 人民協議體로 君主制를 대체하자고 주장한다. 이러한 그의 진보적 정치관점은 한국 근대민주정치의 사상적 씨앗이 되었다.

### 3) 復古 반대, 個性 解放 주장

中國의 明·清交替期에 문예혁명파가 등장한다. 그들은 그 선구자인 徐渭가 창설한 문예혁신의 기초 위에, 현실을 중시하고 復古에 반대하며 인간의 욕망을 긍정하고 이성을 가벼이 여기는 사상을 더하여, 개성의 해방과 문화예술의 혁신 및 창조를 주장하였다.

조선에서 실학이 흥성하던 시기의 사상가와 문학가들의 활동은 더욱 두드러졌는데, 李瀼은 문학의 사회적 작용을 매우 중시하여, 작가는 현실 사회에 필요한 지적과 풍자를 (작품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였다. 문예창작 자유와 혁신의 측면에서는, 李瀼으로부터 朴趾源, 洪大容에 이르기까지 모두 오직 작품은 작가의 진심과 自作에서 나오거나, 혹은 작가 자신의 마음의 소리에서 나온 것이라야 비로소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특히 박지원은 옛 법도는 지키나 변화를 알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나 능히 古典이 될 수 있는 문학창작이론을 제기하였다. 이 모든 것은 시민 문학의 흥기를 의미하는 것이며, 문학 예술에서 초기적 계몽사상의 특징을 구현한 것이다.

## 2. 한·중 실학문화의 차이

한·중 실학의 발전에는 약 백년의 시간적 거리가 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사회, 역사, 학술적 조건과 국제관계 조건의 영향 하에서 양국 실학사조의 차이점은 ① 양국 실학의 사상적 기초와 실천적 차이, ② 양국 실학의 사상적 偏重의 차이, ③ 양국의 학습과 외래 선진문화를 받아들이는 정도의 차이 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종합적으로 볼 때, 한·중 양국의 실학은 특정한 사회적 조건 하에서의 산물로서 각자의 특징을 지니지만, 자국의 사회발전을 촉진하는 작용을 하였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양국의 실학은 풍부하고 두터운 정신적 재산이 되어 양국의 전통문화 중에 융합되어 후세 사람들에 의해 계승되고 확대, 발전되었다.

▶『동북사지』(2007~2008년)

• 東北史地 2007年

■ 2007년 제5기

關於楛矢石弩的考證

張殿甲, pp.2~7

‘楛矢石弩’는 중국의 동북 고대민족이 제작했던 일종의 수렵도구이다. ‘호시’는 楛木을 이용하여 만든 화살이고, ‘石弩’는 혈암 등의 석재를 갈아 만든 화살촉인데, 이들 둘을 조립하여 만든 것이 바로 ‘호시석노’이다. 이 ‘호시석노’는 고대 숙신족이 사용한 무기로서, 중국 고대의 문헌에는 숙신족이 바로 이 ‘호시석노’를 중국에 공물로 바쳤다는 기록이 나온다.

그런데 楛木이 과연 어떤 나무인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어떤 이는 ‘살구나무 가지[杏條]’라고 하고, 어떤 이는 또 ‘자작나무[樺木]’라고도 한다. ‘楛’에 대한 각종 전적의 기록을 종합해 보면, 화살로 제작할 수 있는 나무라는 것은 확실하고, 대략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호목은 荊類 식물이라는 것, 둘째, 호목의 줄기는 홍색이라는 것, 셋째, 호목의 줄기 혹은 잎이 蓍草와 닮았다는 것, 넷째, 호목은 화살을 만드는 데 사용될 뿐 아니라 器物을 찌는 데에도 사용된다는 것 등이다. 이러한 특징을 감안하여 살펴 볼 때, ‘살구나무 가지’나 ‘자작나무’가 호목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리고 산천에서 직접 채취한 표본을 놓고 판단할 때, 호목은 가시가 없고 나무속[樹心]이 둥근 형류 식물일 가능성이 높다.

이상과 같은 조건과 문헌자료의 기록에 부합하는 표본은 오직 綉線菊 뿐이다. 수선국에는 ‘歐亞綉線菊’과 ‘土莊綉線菊’ 그리고 ‘柳葉綉線菊’ 등이 있으며, 모두 장미과에 속하고 ‘空心柳’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들 여러 수선국 가운데 특히 ‘유엽수선국’이 문헌자료의 기록과 이상의 조건에 가장 부합한다. 따라서 ‘유엽수선국’이 주로 화살로 제작되었을 것이고, 다른 수선국들은 보조적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옛 문헌에 나오는 호목은 바로 수선국 즉 空心柳라고 할 수 있다.

高句麗建國初期的“卒本夫餘”與“涓奴”“桂婁”二部王族的興衰遞變－關於高句麗早期歷史的若幹問題之五

王錦厚, pp.8~14

고구려 민족 정권의 건립 전후, 즉 서한 이전 요동의 ‘二江’과 ‘二河’ 상류의 ‘高夷’와 여러 ‘貊’部의 취락이 전한 현도군 경내의 ‘句麗’부족과 ‘高句麗縣’으로 명칭이 변화하게 된 과정은 최근 필자가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는 문제 중의 하나이다.

『사기』 그리고 『한서』의 「무제본기」와 「조선열전」에는 ‘眞番’, ‘臨屯’, ‘樂浪’, ‘朝鮮蠻夷’ 등의 기록은 있어도 ‘句麗’나 ‘高句麗’라는 기록은 없다. 특히 『사기』의 저자 사마천은 전한 무제 元封 3년(전108) 위만 조선이 멸망할 당시 太史公의 신분에 있었다. 그런 그가 『사기』에 ‘구려’나 ‘고구려’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전한이 漢四郡을 개척할 당시 그런 명칭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서』의 경우, 비록

『무제본기』와 『조선열전』에는 없지만 『地理志』에 분명히 ‘句麗蠻夷’와 ‘고구려’가 등장한다. 이처럼 『사기』와 달리 『한서』에 이들 명칭이 등장하는 것은 『한서 지리지』가 전한 昭帝 始元 5년(82) 임둔과 진번을 폐하여 낙랑군과 현도군에 합병시키고, 또 현도군을 ‘구려’의 서북으로 遷徙시킨 이후의 사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고구려는 민족 명칭의 하나로 중국 정사인 『한서』에 등재되었다. 그리고 陳壽의 『삼국지』에 나오는 ‘玄菟故府’는 곧 소제 이후의 ‘第二玄菟郡’의 치소인 ‘高句麗縣’이며, 그 정확한 장소는 新賓縣 永陵 東南 蘇子河 구역의 ‘二道河子古城’이다. 또한 『삼국지』는 ‘제이현도군’ 치소를 ‘구려의 서북으로 옮겼다’고 했는데, 이곳은 군치였던 ‘이도하자고성’의 현재의 위치에서 볼 때, 桓仁 五女山城과 下古城子의 서북쪽 100km의 위치에 있었다. 따라서 전한 소제 이후 內徙한 현도군 경내의 ‘구려’ 부족의 중심 지역은 후에 고구려가 건국되던 곳으로 지금의 渾江 중류의 桓仁 지구이다.

이처럼 ‘구려’라는 族稱의 출현은 서한 무제의 ‘四郡’ 개척 이후, 소제가 고구려 부족을 ‘侯國’으로 봉하고, ‘고구려현’을 현도군의 경내에 설치한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한서』 「왕망전」에 ‘高句麗侯驪’라는 기록이 등장하는 것을 보더라도 최소한 왕망 이전에 ‘고구려후’가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구려의 기원은 주몽이 남하하여 ‘卒本川’에서 나라를 세운 기원전 37년 전후일 것이지만, 늦어도 왕망 始建國 원년(9) 이전일 것이며, 빨라도 소제 시원 5년(전82) 이후일 것이다. 한편, ‘고구려’나 ‘고려’라는 명칭은 중원 왕조의 冊命과 관련된 것이었지, 어떤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고려’가 ‘고구려’의 간칭은 아닐 것이다.

이상의 『한서』 「무제본기」, 「지리지」 그리고 「왕망전」에 나오는 고구려 관련 기사는 모두 고구려의 주몽과 瑠璃明王 시기 즉 고구려의 초기 역사에 해당한다. 그리고 『후한서』와 『삼국지』에 나오는 기사는 모두 기원후 3년 고구려의 유리명왕이 ‘國內’로 천도한 이후의 사실들이다. 주몽이 ‘북부여’로부터 남하하여 기원전 37년 ‘졸본부여’를 건국했고 후에 ‘고구려’로 개칭했다는 것은 거의 모든 연구자들이 인정한다. 지난 세기에 일부 외국의 학자들은 이른바 ‘단군조선’ — ‘고조선’ — ‘고구려’의 ‘三段論’을 주장했다. 그러나 고구려의 기원에 관한 이 ‘삼단론’은 어떠한 중국의 고문헌에도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한국의 『삼국사기』도 인정하고 있지 않다.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편찬했던 12세기 상반기 당시에는 아직 단군신화가 생겨나지도 않았었다. 김부식은 고구려는 물론 백제의 왕족이 모두 부여와 관련이 있다고 기록했다.

고구려의 건국과 초기 역사는 혼강 지역에서 발견된 유적과 유물로도 증명된다. 특히 오녀산성과 그와 관련된 유적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진행 중에 있지만, 최소한 다음과 같은 사실은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오녀산성이 전형적인 고구려 시기의 ‘複合式’ 고구려 산성이라는 것이다. 고구려 산성은 건축 구조와 평면의 배치에 따라 ‘山險式山城’, ‘盆穀式山城’ 그리고 ‘복합식산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앞의 두 방식은 주로 규모가 중소형인 산성에 적용되었고 군사적 기능이 두드러졌다. 한편, ‘복합식산성’은 다양한 기능을 지닌 산성에 채택되었는데 고구려의 도성들과 중요한 군사기지는 모두 이 방식으로 건축되었다. 이 방식에 따른 산성은 규모가 비교적 크고, 산과 물 그리고 지세의 험요함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것과 山上과 山下 혹은 內城과 外城 등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山城과 平地城으로 구성되어 서로 호응하며 방어를 임하도록 되어 있었다는 것이 큰 특징이었다. 오녀산성은 바로 이러한 ‘복합식산성’의 특징을 모두 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오녀산성 주위에서 발견된 고분 등은 고구려 건국 전후의 유적들인데, 특히 오녀산성과 下古城子 주변에서 발견된 ‘望海樓’ 적석묘는 부여와 고구려 초기의 문화적 특징을 겹쳐서 보여주고 있다. 이는 오녀산성과 하고성자를 중심으로 한 혼강 중류 지역이 주몽이 남하하여 ‘졸본부여’라고 명명했던, 고구려 초기의 ‘五部’ 가운데 하나인 ‘涓奴部’

의 핵심 지역 가운데 하나였음을 증명한다.

전한 말 고구려의 유리명왕은 ‘국내’로 도성을 옮기는데, 『삼국사기』는 佮臣이 도망간 돼지를 쫓아간 것이 그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은 그 배경에 초기의 왕족인 ‘연노부’의 쇠퇴와 유리명왕의 ‘內部’ 즉 桂婁部の 흥기라는 사실이 있었다. 『삼국사기』의 주몽 본기에 따르면, 주몽은 남하하던 도중 복색이 서로 다른 세 사람을 만났다고 했는데, 이들 세 사람이 서로 다른 복색을 하고 또 독립적인 성씨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세 사람은 각기 다른 세 토착민족을 대표하는 인물로 해석할 수 있다. 주몽에게 귀순한 그들은 주몽과 남하한 부여왕족과 또 동시에 귀순한 ‘沸流部’와 함께 고구려 초기의 ‘연노부’의 기초를 구성했을 것이다. 즉 고구려 초기의 연노부는 부여왕족과 토착민족이 결합하여 구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주몽을 이은 유리명왕 시기에 주몽왕족과 ‘연노부’가 연합하여 세운 ‘졸본부여’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졸본천’이 협소했을 뿐 아니라 부여와 漢 그리고 鮮卑의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이다. ‘국내’로 천도하는 과정에서 유리명왕은 ‘黃龍國’의 손을 빌려 천도에 반대하는 왕자 解明을 죽이는데, 이는 천도에 관한 ‘연노부’ 내부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에 ‘연노부’ 내부의 각종 갈등이 겹치게 되자 천도 이후 유리명왕과 대무신왕에 의해 ‘계루부’가 새롭게 결성되는 것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서기 9년 부친을 저버리고 천도에 반대한 왕자 해명이 강요에 의해서 살해된 것과 32년 ‘비류부’의 세 부장이 폐출된 것은 고구려 왕족 내부의 변화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국내’로 천도한 이후 유리명왕과 대무신왕이 압록강 유역의 옛 ‘尉那巖部’ 등과 결합하여 구성한 ‘계루부’가 점차 성장하여 유리명왕 말기에 이르자 ‘연노부’를 대신하게 되었다. 이후 고구려는 ‘계루부’를 핵심으로 하여 ‘국내성’을 중심으로 400 년간의 전성시기를 누리게 되었다.

#### 《高麗記》의發現, 輯佚與考證

薑維公, pp.15~19

고구려 역사의 유일한 원전 문헌이라고 할 수 있는 『高麗記』는 이미 오래 전에 일실되어 현재 그 전부를 볼 수는 없고, 단지 근세에 일본에서 발견된 張楚金の 『翰苑』 잔본의 주석에 모두 13條의 佚文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해 『고려기』가 곧 兩唐書에 나오는 『奉使高麗記』이며, 고구려에 사신으로 다녀왔던 唐朝의 職方郎中 陳大德이 그 저자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필자는 高福順 선생과 함께 『高麗記』研究라는 책을 발간하기도 했다. 『고려기』의 기록은 비록 많지 않지만 고구려의 典章制度와 산천지리 등에 대해 상세하고 믿을 수 있는 사실들을 전해주기 때문에 대단히 귀중한 일차사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자들 사이에 『고려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또 인용하는 과정에 착오가 발견되기도 하며, 심지어 이 책이 고구려 쪽의 저술이라고 오해하기도 하여 『고려기』에 관한 연구성과를 정리하여 제공할 필요성이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

『고려기』는 宋 왕조가 남하한 이후 각종 서지목록에서 사라졌다. 그러므로 그 일실 시기도 송 왕조의 남하시기와 대체로 일치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 『고려기』의 일문이 남아있는 『한원』의 일실 시기도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그 이전에 『한원』이 일본으로 전해졌고 다행히 지금까지 전해져 온다. 하지만 완전한 형태가 아니라 일부만 남은 잔본의 형태로 남아있는데, 그것이 곧 福岡縣 太宰府 天滿宮 소장인 『한원』 蕃夷部 殘本, 속칭 西高遷本이다. 일본 학자들은 이 서고천본을 저본으로 삼은 두 가지 판본을

이용하고 있는데, 하나는 일본 京大舊抄本 『한원』(즉 경도대학 구조본) 1권으로, 원래 두루마리 형태였지만 본래의 크기로 영인하여 83쪽이 되었으며, 권말에 內藤虎次郎의 발문이 있다. 다른 하나는 竹內理三 『한원』인데, 원래 크기의 2/3로 영인되었으며 譯文과 교정문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학자들이 이용하는 판본은 金毓黻의 遼海叢書 교정본으로, 경대구초본을 바탕으로 한 교정본이다.

경대구초본에 실린 나이토의 발문에 따르면, 이 책은 傳寫 과정에 오류가 많아 문장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兩越조의 말미에서 西域조의 처음에 이르는 부분에는 몇 줄이 사라지고 없는 까닭에 그 중간의 西羌조는 단 한 글자도 남아 있지 않지만 현재로서는 세상의 유일한 孤本이라고 한다. 이는 영인되기 이전의 이 책의 상태를 잘 설명해 준다. 일본의 영인본도 진정한 의미의 영인본이라고 할 수 없는데, 그것은 영인하기 전에 한 차례 校勘을 거쳤다고 나이토가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의 영인본은 중국의 옛 典籍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외국의 학자가 교정한 것이라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김육불의 교정본이 나오게 되었다. 그런데 김육불은 『한원』 자체를 교정했을 뿐 『고려기』에 대한 관심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다케우치의 『한원』 역시 『한원』 자체에 관심을 두었을 뿐이었다. 따라서 『고려기』의 일문에 관한 연구는 크게 진행되지 않았다.

필자가 『고려기』에 관해 쓴 최초의 논문은 『『高麗記』成書時間及作者考』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 문제에 관한 吉田光男의 논문이 이미 발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후에 글을 구해 읽어보니 고증의 범위와 그 결론은 거의 비슷하지만 단지 연구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吉田光男의 「關於『翰苑』注文所引用の高麗記—兼論作者及其成書年代」는 우선 대체적인 범위를 확정한 뒤에 『고려기』에 나오는 관직과 이들 관직명이 중국의 행정기구에서 변화한 과정을 근거로 이 책의 성서시기를 확정했다. 즉 이 책이 武德 7년(624) 2월~永徽 3년(652) 9월 사이, 혹은 영휘 7년(656) 정월~龍朔 2년(662) 2월 사이에 완성되었을 것이고, 나아가 『고려기』가 곧 양당서에 나오는 『봉사고려기』라는 전제하에, 고구려에 출사했던 인물 중의 하나인 진대덕이 그 저자라고 결론지었다. 그리고 이 책에 저자의 이름이 적혀있지 않은 것은 아마도 진대덕의 신분과 上書라는 형식 때문일 것이라고 보았다.

필자는 중국 正史가 채용한 『고려기』 중의 官制 부분에 주목하고 이들 정사들이 편수된 시기를 근거로 해서 『고려기』의 완성시기를 확정하고자 하여, 『周書』와 『隋書』의 완성시기 즉 貞觀 10년(636)을 상한으로, 정관 18년(644) 7월을 그 하한으로 각각 확정하였다. 또한 『고려기』가 곧 『봉사고려기』이며 그 저자는 진대덕이라고 확정했다. 그리고 저서 『『高麗記』研究』에서 이를 다시 보충했다. 비록 『舊唐書』 「경적지」와 『新唐書』 「예문지」에 『고려기』 저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고구려에 출사했던 인물 가운데 진대덕이 저술 능력과 저술 동기를 지녔다는 것과 수집된 정보와 구체적인 기술 등이 『고려기』의 내용과 서로 대응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를 저자로 확정하였다. 진대덕은 당 초기의 河東 桑泉 출신으로 정관 12년 이전에 荔州刺史를 지냈고, 정관 14-15년(640-641)에 고구려에 사신으로 다녀 온 뒤 『봉사고려기』를 저술했다. 그의 고구려 출사 사실을 『신당서』 고려전, 『책부원귀』, 『자치통감』, 『唐鑑』, 『삼국사기』 등이 모두 기록하고 있지만 그 외의 사실은 알 길이 없다.

『고려기』 저자의 성명이 일실된 원인에 대하여 吉田光男은 “『구당서』 「경적지」와 『신당서』 「예문지」의 史錄地理類의 예를 볼 때, 조정에 의해 편찬된 책에는 저자의 이름이 없었다. 『고려기』도 같은 경우라고 볼 수 있다”라고 했지만, 보다 합리적인 추측은 『봉사고려기』가 당 태종에게 올려진 보고서이고, 이후 당 태종의 명령으로 여러 부가 필사되어 고구려 정벌에 나선 장수들에게 참고자료로 전해져 유통되는

과정에서, 필사본인 까닭에 저자의 이름이 일실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역사상 많은 군사적 도서에는 저자의 이름이 적혀있지 않았으므로 이런 추측이 더욱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원』은 당나라 사람 장초금이 지은 類書인데, 雍公嘗가 읽기 편하도록 주석을 달았다. 옹공예는 주석을 다는 과정에서 『고려기』를 대량으로 인용했고, 또 주석의 첫머리에 『고려기』에서 인용했음을 명확히 밝혀 놓았다. 이처럼 『고려기』를 인용하여 그 일문을 볼 수 있는 고대의 사적으로는 『한원』(13조), 『後漢書注』(4조), 『통전』(9조), 『구당서』(1조), 『太平實字記』(9조), 『신당서』(5조) 등이 있다. 중복된 것을 뺀 경우, 『고려기』의 일문은 모두 19조에 달한다.

『한원』에 남아있는 『고려기』의 일문은 傳寫 과정 등을 거치면서 적지 않은 수의 글자가 식별할 수 없게 되었다. 김육불, 竹內理三, 吉田光男 등이 교정 작업을 진행했지만, 단지 『한원』 자체에 대한 교정 작업이었을 뿐 『고려기』에 대한 것은 아니었다. 또 吉田光男이 『고려기』에 대한 교정을 보았다고 하지만 오직 官制에 관한 것뿐이었다. 『고려기』에 대한 전면적인 교정을 진행한 것은 필자뿐이었다. 『고려기』의 일문을 수집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고 또 틀린 글자 등을 바로 잡는 작업을 거쳐 필자는 19조의 일문을 얻을 수 있었다.

『고려기』는 고구려사 연구에 있어 대단히 소중한 가치를 지닌 일차사료로 이미 당나라 초기 이래 그 가치가 인정되었다. 특히 고구려의 지리, 풍속, 전설, 사회생활 등에 관한 기록은 연구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 그러나 결함이 없는 것도 아니다. 저자 진대덕은 특히 고구려의 지리 명칭에 관해 관심이 많았는데, 당시 이미 새로운 명칭으로 불리고 있던 고구려의 산수를 무리하게 『한서』 「지리지」 속의 명칭과 관련지어 비정하였다. 그 결과 후대의 많은 학자들이 혼란을 겪어야 했다. 예를 들어 『한서』 「지리지」에 나오는 馬訢水가 지금의 압록강이라고 비정한 최초의 인물은 바로 진대덕이었다. 그러나 마자수는 지금의 盧江川이다. 이처럼 무리한 비정이 학술계에 적지 않은 혼란을 가져다주었던 것이다.

## 玄菟郡經略高句麗

趙紅梅, pp.35~39

현도군은 전한 무제가 衛氏朝鮮을 평정한 뒤 한국의 북부 함경남도 일대에 설치한 邊郡의 하나이다. 기원전 107년에 처음 설치된 현도군은 전한 昭帝 시기에 북쪽으로 이동되었고, 후한 安帝 때에 다시 遷徙되었으며 魏晉시대에 遼西로 또 다시 옮겨졌다. 즉 세 번 옮겨지고 네 번 설치되는 ‘三遷四置’의 과정을 겪었던 것이다. 그리고 北燕의 馮弘 때에 최종적으로 소멸하여 모두 539년 동안 존속했다. 현도군이 중국 동북지방의 지방 민족정권이었던 고구려를 통할한 것은 第二玄菟郡 시기(전82-107)와 第三玄菟郡 시기(107-276)이다.

현도군이 처음 설치될 때 고구려 지역에 설치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후한서』 권5의 「고구려전」에 보이는 ‘以高句麗爲縣’은 무제 당시의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삼국지』, 『후한서』, 『梁書』 및 『北史』 등에 보이는 ‘鼓吹技人’의 사실도 당연히 전한 소제 元鳳 6년(전75) 이후의 사실일 것이다. 여러 사료를 종합해 볼 때, 제이현도군의 郡治인 고구려현이 설치된 것은 서한 소제 원봉 6년(전75)이고, 고구려의 시조 주몽이 건국한 졸본부여는 고구려현의 경내에 있었다. 전한 말기 고구려에 대한 통제력이 그다지 크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여전히 고구려는 제이현도군의 통할 속에 있었다.

제삼현도군 시기에 고구려는 107년, 111년, 122년, 169년 그리고 172년에 각각 현도군에 속했다. 그리고 팽창하는 고구려를 쳐서 동북의 변강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현도태수와 요동태수가 힘을 합쳐 고구려를 공격한 것은 107년, 121년 그리고 197년의 일이었다. 비록 고구려가 때에 따라 현도군에 依附하거나 이반하기도 했지만,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兩漢과 위진 시기의 고구려에 대한 현도군의 효율적인 통할을 부정할 수는 없다.

## 從“別種”透析渤海的族屬及其歸屬

雷一傑, pp.40~45

발해 주체민족의 族屬과 귀속문제에 관하여 현재 학계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견해가 존재한다. 첫째, 발해 왕실은 粟末靺鞨人이고, 발해 정권은 당조의 변속으로 중국 고대의 지방 정권이라는 것이다. 둘째, 발해 왕실은 고구려인이고, 발해 정권은 고구려를 계승했으며 한국 역사의 중요한 왕조의 하나라는 것이다. 셋째, 발해 왕실은 부여의 別種이고, 발해 정권은 중국 동북지방의 민족정권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넷째, 발해의 족속 문제는 간단히 획일적으로 파악할 수 없으며, 문명 정도가 비교적 높은 속말말갈인과 白山靺鞨人을 주체로 하고 고구려 유민과 일부 漢族이 포함되어 구성된 새로운 민족공동체였으며, 발해 정권은 중원왕조의 기미통치하에 있었던 지방 민족정권이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견해가 갈리는 것은 모두 ‘별종’이라는 한 단어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달랐기 때문이었다.

史書에 보이는 ‘별종’은 주로 민족관계를 설명할 때 사용되는데, 楊軍은 “최초로 ‘별종’ 개념을 사용한 것은 전한의 賈逵(30-101)이다. 『史記』의 「晉世家」集解에서 가구는 “東山은 赤狄의 별종이다”라고 말했고, 『史記』 「흉노열전」의 索隱에서 가구는 “犬夷는 戎의 별종이다”라고 말했다”라고 지적했다. 중국 정사에서 최초로 ‘별종’ 개념을 사용한 예는 『三國志』 위서 「동이전」에서 고구려를 부여의 ‘별종’이라고 칭한 것이다. 이후 중국의 정사 즉 『후한서』, 『周書』, 『魏書』, 『隋書』, 『晉書』, 『北史』, 『舊唐書』 그리고 『新唐書』 등에서 모두 이 ‘별종’ 개념을 사용했다. 최초로 ‘별종’ 개념을 연구한 학자는 지난 세기 30년대의 周一良이다. 그는 「論宇文周之種族」에서 “‘별종’은 ‘別部’와 같고, 정치상 서로 統屬 관계에 있으면서도 종족상 거의 다른 부락을 말한다”라고 지적했다. 이후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의 관점에 동의했다. 한편, 김육불은 조금 다른 견해를 제시했는데, 즉 ‘발해 말갈 대조영은 본래 고구려의 별종이다’라는 대목을 해석하여 “大氏의 선조가 고구려 북부 속말의 옛 땅에 거주했지만, 고구려의 같은 종족이었는데는 『구당서』를 편찬할 당시 자세히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고구려의 ‘별종’이라고 하여 고구려의 정통 후예와 구별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張博泉은 김육불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주일량의 견해에 동의했다. 그리고 ‘별종’ 혹은 ‘別部’ 등의 ‘別’은 곧 ‘另[다르다]’의 의미라고 주장했다. 한편, 劉慶은 역대 史家들이 사용한 ‘별종’의 개념을 분석하고, “사기들이 사용한 ‘별종’의 개념은 민족의 분리과정에 사용된 개념이며, 통상 ‘별종’과 母族은 기원이 같지만, 고대의 사기들이 왕왕 정치적 실체와 인민공동체를 자세히 구분하지 않았고, 또 依附하고 있다가 분리되어 나와 ‘별종’이 되는 현상도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할 뿐 아니라, ‘별종’을 민족의 원류를 판단하는 표지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楊軍은 ‘별종’이란 源部族에서 분리되어 나와 독립적으로 발전한 후손들이라고 하여 ‘별종’과 ‘本種’의 族屬이 같다고 보았다. 즉 ‘별종’이 ‘동태적’ 개념의 역사적 명사라는 것이다. 그의 이러한 견해는 고구려 족속 문제를

연구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국외의 학자들 가운데 북한의 박시형은 『爲了渤海史的研究』에서 “『구당서』말갈전에 보이는 별종이란 다른 종족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동일 종족이라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는 발해가 고구려의 계승 국가라고 보았다. 그의 견해는 董守鵬을 비롯한 많은 중국 학자들의 비판을 받았다. 한국의 송기호는 “각국의 학자들이 자국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하여 발해를 자국 역사의 범주에 포함시키고자 시도하고 있지만, 실증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모두가 문제점을 갖고 있다. ‘별종’에 관련된 논쟁도 또한 그러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절충적인 견해를 제시했지만, 그가 말한 ‘同化’의 개념이나 대조영이 고구려의 ‘將領’을 역임했다는 주장은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강수봉은 『再論渤海的族屬問題』에서 ‘별종’의 ‘別’을 ‘另’으로 이해하여 “동일한 종족의 후예나 분파는 ‘分種’이지 ‘별종’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이는 오해라고 할 수 있다.

역대 사서에 보이는 ‘별종’의 용례를 정리해보면 결국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동일한 기원을 가진 ‘별종’과 ‘本種’은 정치적으로 依附關係에 있을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다. 또 시간적으로 동시에 존재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다. 둘째, 서로 다른 종족 사이에 상호 의무관계가 존재할 때 ‘별종’이라는 개념이 사용되었다. 특히 ‘별종’과 ‘본종’이 시간적으로 동시에 존재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개념이 사용되었다. 셋째, 시간이 오래 경과하여 그 기원을 분별하기 어려울 때, 거주지 주변에 있는 다른 종족의 ‘별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것이다. ‘별종’이 이처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별종’을 가지고 민족의 족속 문제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별종’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발해의 족속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발해와 동시에 존재했던 고대 일본과 신라의 발해에 대한 인식을 검토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당시 발해와 고대 일본이 서로가 교환했던 국서 등을 검토해보면, 발해는 스스로를 고구려의 계승국이라고 자처하지 않았지만, 일본은 발해를 고구려의 계승국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신라의 최치원이 써서 당조에 올린 표문을 보면, 발해를 경우에 따라 말갈인이 건국한 국가로 인식하거나 혹은 고구려의 계승국으로 인식하기도 하여 상반된 인식이 공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두고 어떤 학자는 신라의 발해 인식이 양면성을 지니고 있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발해 말갈은 경제와 풍속 등에 있어서는 현지의 토착적인 것과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지만, 정치, 윤리 등에 있어서는 당조의 영향을 받은 문화 복합체였다. 그리고 발해의 왕위 계승에 따른 당조의 책봉과 諡法의 시행 등을 볼 때, 발해가 당조의 기미 정책 통치를 받은 지방의 민족정권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있다.

## 試論中韓建交的歷史進程及其意義

安龍禎, pp.81~85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중관계는 모두 3단계의 발전 과정을 거쳤다. 제1단계(1945-1973)에서의 한중관계는 적대와 단절의 상태에 있었다. 1949년 한국은 미소 양국의 협의에 근거하여 남북으로 분단되었고, 또 같은 해에 성립한 중국의 중화인민공화국은 북한과 관계를 수립했다. 특히 한국전쟁 발발 이후 북한을 지지하는 중국과 미국의 지지를 얻은 한국은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대립했고, 양국 인민의 왕래도 단절되었다. 제2단계(1973-1988)에 이르자 비정치적인 분야에서 약간의 발전이 있었다. 1972년 미국 닉슨 대통

령의 중국 방문과 1973년 한국 박정희 대통령의 공산권에 대한 문호개방 선언이 있었으며, 특히 1978년 이후 시행된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과 1983년에 발표된 한국 전두환 대통령의 '북방정책' 등에 힘입어 1984년 중국은 처음으로 민간 차원에서의 한중교류를 희망한다고 공식 발표하게 되었다. 제3단계(1988-1992)에서 한중관계는 마침내 정상화되었다. 1988년 한국 노태우 대통령은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에 관한 특별선언'을 통하여 한중 수교의 뜻을 표명했고, 1991년 양국은 영사 기능을 지닌 무역처를 상대국에 설치했으며, 이후 교섭을 위한 3차례의 회담을 거쳐 1992년 8월 24일 양국은 마침내 정식으로 수교했다. 한중 수교는 1970년대 후반 이후에 발생한 동아시아 정세의 변화와 지리적으로 서로 근접해 있어 무역에 유리하다는 사실 등이 결합된 결과였다. 한국의 전경련 회장 정주영은 이미 1985년에 양국의 경제적 합작에 관한 보고서를 제시했으며, 1988년 대한상의 역시 한중 무역과 기술 합작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한국은 1988년에만 모두 3차례의 무역대표단을 파견했으며, 북방무역을 주도했던 무역진흥공사는 특수사업부를 신설하여 사회주의권 국가들과의 교역문제를 담당하게 했다. 특히 1980년대 중기 이후 미국과의 무역마찰이 심화되자 한국 기업들은 중국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고, 바로 이러한 시기에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양국의 교역과 합작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되었다. 그 결과 정식 외교관계가 없는 상황하에서도 양국의 교역과 합작은 급속히 발전했고, 1991년 이미 무역 총액이 57.7억 달러에 이르렀다. 그 결과 양국의 정식 수교가 시급한 현안이 되었다. 1988년에 있었던 노태우 한국 대통령의 특별선언과 1989년과 1991년 사이에 있었던 동유럽의 급격한 변화 그리고 남북한 사이에 진행된 총리급 회담과 그에 이은 남북한 동시 유엔가입 등이 양국 수교의 배경이 되었다. 이런 배경 속에 1991년 11월 12일 중국의 외교부장 錢其琛이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의 서울을 방문했고, 또한 1992년 한국의 외교부 장관이 아태경제사회이사회(ESCAP)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북경을 방문했다. 이때 양국은 정식 수교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1992년 8월 24일 양국은 마침내 정식으로 수교함으로써 양국 관계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 ■ 2007년 제6기

### 金富軾의三國鼎峙說

史長樂, pp.2~10

『三國史記』는 金富軾이 왕명을 받들어 修撰한 高麗 이전 왕조의 역사서다. 그가 『三國史記』에서 新羅, 百濟, 高句麗 삼국의 鼎立을 서술한 이래 이른바 三國鼎立說이 제기되었고 高句麗를 高麗의 前史로 인식하는 시각이 형성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김부식이 왕명을 체현하기 위해 기술한 것으로 사실상 그는 『三國史記』에서 高句麗는 古代朝鮮의 역사와 아무런 계승관계가 없으며 또한 高麗와는 더욱 상관이 없다고 하였다.

그런데 前王朝의 역사가 國初에 완성되지 못하고 이백 여년 후인 고려 仁宗 시기에 『三國史記』로 修撰된 이유는 무엇일까? 王建이 국호를 高麗로 정할 때 高句麗의 계승자라는 시각이 존재했고 고려의 前史로서 高句麗의 역사를 서술해야 했다. 하지만 고려와 高句麗는 어떠한 역사적 계승관계를 갖고 있지 않았다. 국왕의 의중을 감안해 前王朝史를 서술하려면 객관적 역사사실에 맞지 않았고 또한 통치자의 의중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역사편찬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 외에 사료의 부족이라는 객관적 원인도 있었다. 그러나 김부식은 『三國史記』의 편찬에서, 표면상 추상적으로 긍정하고 실제상 구체적으로 부정하는 방법을 통해, 즉 고구려의 역사를 서술은 하되 고구려와 고려의 계승관계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서, 王命을 존중하고 역사적 사실에도 부합하는 편찬을 진행할 수 있었다.

사실 김부식은 『三國史記』에서 王氏 高麗는 新羅의 계승자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① 王建은 新羅 松嶽郡에서 출생한 新羅人으로 이후 弓裔를 대신하여 국가를 수립하는 모든 과정은 온전히 新羅 역사발전의 결과인 것이다. ② 王建이 王을 칭한 후 주된 공격의 대상은 甄萱의 後百濟였으며 신라와는 공조관계를 유지하는 형태를 취하였다. ③ 敬順王 9년(935) 新羅가 고려에 투항할 것을 표시했을 때 太祖는 직접 교외까지 나가 敬順王을 맞아들이며 평화로운 왕조교체를 이루었다. ④ 신라가 귀순한 후 高麗 太祖는 敬順王의 長女 樂浪公主를 妻로 맞아들였고 얼마 후 敬順王의 伯父인 億廉 匪幹의 딸과 혼인함으로써 고려와 신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 ⑤ 김부식은 『三國史記』에서 비록 신라 정권은 존재하지 않지만 신라 王家의 혈통이 고려 왕실과 융합하여 후대에 전해졌다는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신라 敬順王의 伯父인 億廉 匪幹의 딸과의 사이에서 王子 鬱이 태어났고 비록 그가 왕위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그의 아들인 詢이 왕위를 계승하여 顯宗이 되었으며 김부식이 죽을 때까지 왕위에 오른 10명의 고려왕은 모두 鬱의 자손들이었다.

특히 김부식은 『三國史記』에서 高句麗는 고대 조선의 역사와 어떠한 계승관계도 없으며 더욱이 王氏 고려와 고구려 정권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고 하였으나 단지 이를 드러내 놓고 직접적으로 기술하지 않았을 뿐이다. 또한 삼국의 건립 후 高句麗가 美川王 14년(313) 樂浪을 획득하기 전까지 근 300년의 기간 동안 樂浪郡의 존재로 인하여 상호간 어떠한 접촉이나 왕래가 없었고 모두 낙랑군의 제약을 받았다는 점에서 三國鼎立이라는 견해는 적절치 않다. 長壽王 15년(427) 고구려의 平壤 천도 이후 이백 여년의 기간 동안 삼국이 각축을 벌였다는 측면에서 三國鼎立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이러한 국면 역시 기본적으로는 신라와 백제가 연합하여 고구려에 대항하는 구도였으므로 진정한 의미의 鼎立이라 할 수는 없다. 다만 마지막 백여년의 기간 동안 삼국이 서로 정탈전을 벌였다는 측면에서 三國鼎立이라 말할 수는 있겠다. 하지만 이것 역시 지속적으로 중국 정권의 견제를 받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부식이 고구려의 역사를 끌어들이 삼국의 역사를 기술한 것은 고려 통치자의 의중을 『三國史記』 편찬에 반영했기 때문이었다.

## 石碑背後的東北文化

田子馥 · 田野, pp.82~89

동북문화의 복잡성에 대해서 오랫동안 誤讀이 있어왔다. 예를 들어, “동북의 漢族은 移民에 의해 형성되었다”, “동북 문화는 이민 문화이다”, “동북의 문화는 중원의 영향을 받았다” 등등의 주장이 바로 그것이다. 이에 본고는 7개 石碑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동북 문화는 上古시기부터 漢族의 漢子文化를 주체로 형성되어 왔으며 또한 多民族의 문화가 多元一體的인 형태로 형성되었다는 것을 밝혀 동북문화의 主體性, 重疊性, 相對性에 대한 본질을 살펴보았다.

본고에서 고찰한 石碑는 ① 唐代에 河北 汲州에 건립된 箕子廟 내에 있는 箕子碑, ② 集安에 있는 高句麗 好太王碑, ③ 嘎仙洞 鮮卑族 祖廟내의 石刻祝文, ④ 渤海의 貞孝公主 묘비, ⑤ 渤海의 貞惠公主 묘비,

⑥ 金世宗이 祖父完顏阿骨打的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大金得勝陀頌碑, ⑦ 元代 동북 지구에 세워진 張氏先塋碑 등의 7개였다. 이렇듯 돌 위에 새겨진 기록은 명확한 근거가 후세에 그대로 전해지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더해준다.

동북에 관한 대표적인 7개 石碑의 분석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漢族은 본래 동북 지역에서 발원하였고 동북의 문화 현상은 중원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더욱이 1982년 遼西牛河梁의 고고학적 신발견은 遼河 유역의 紅山文化가 仰韶文化 보다 시간적으로 앞선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요컨대 동북지역은 원래 한족문화의 발원지였으며 한족은 동북의 주체민족이었다. 특히 箕子碑의 내용은 이를 한층 더 실증해준다. 둘째, 한자의 응집력은 한자가 체현하려는 사상의식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碑文을 통해 일단 한자문화와 유교국가의 학설을 장악한 민족은 경이적인 업적을 이룩해 낼 수 있었음을 보았다. 역대 민족의 영명한 군주는 한자로서 漢文化의 의식 상태를 전승하며 그 문화를 계승, 발전시켰다. 셋째, 여러 민족에 의해 한문화는 광범위하게 전파될 수 있었다. 하나의 漢文化圈 내에서 벌어진 여러 민족들 간의 정치, 경제, 군사, 문화적 발전의 불평등은 상호간의 교류 속에서 중화민족의 多元一體적 발전과 진보를 추진시켰다. 石碑를 통해, 본래 자신의 문자가 없었던 민족인 夫餘, 高句麗, 渤海는 당연히 한자를 중심으로 그 문화의 사상을 표현하였고, 또한 민족 고유의 문자를 가졌던 遼, 金, 元, 淸 등의 왕조 역시 한문화를 그들의 중심문화로 삼았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중원으로 들어가 中華一體를 이룬 여러 개명 황제들은 당연히 동북의 한문화를 그 주체문화로 삼았던 것이다.

또한 7개 石碑 연구를 통해, 특히 소수민족 정권의 의식을 담고 있는 6개의 石碑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동북문화의 본질적인 3가지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주체성이다. 일찍이 商殷時代, 燕趙時代 이래로 동북에는 자연스럽게 한자문화를 주체로 하는 역사가 형성되었다. 이는 각 민족문화의 발전에 있어 강력한 강화력과 응집력을 갖게 했다. 둘째, 중첩성이다. 동북의 문화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각 민족은 커다란 유동성과 변천성을 갖고 있었다. 하나의 민족이 일정한 지역에서 형성한 문화는 곧 다른 민족이 형성한 고유의 문화에 의해 무수히 중첩되었다. 말하자면 여러 민족문화가 계속적으로 겹겹이 쌓이고 포개져 동북문화의 중첩성을 만들어 나갔던 것이다. 셋째, 상대성이다. 동북지역은 한족문화를 주체로 하여 문화가 형성되었지만 마땅히 각 민족의 다원적 개성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동북지역에 생활했던 각 민족이 형성한 다원적 동북문화 속에서 어느 민족의 문화가 단일한 순수문화인가를 찾기는 상당히 어렵다. 각 민족문화의 다양성과 다원성을 배척하지 않는 바탕위에서 동북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가능한 것이다.

## 元朝與高麗“舅甥之好”關係的確立

孫紅梅, pp.38~41

元朝와 高麗는 역대로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비록 초기의 일정기간 동안 兩國은 분쟁의 역정을 거쳤지만 전쟁의 종식과 함께 백여년에 이르는 평화와 교류의 시기가 지속되었다. 元 至元 11년(高麗 元宗 15년, 1274) 高麗의 世子 王楙은 元 世祖 忽必烈의 딸 忽都魯揭裏迷失(곧 齊國 大長公主)과 혼인함으로써 元朝와 高麗는 정식으로 ‘舅甥之好’의 혼인관계를 정립시켰다. 이후 元朝가 멸망할 때까지 元의 공주 7명이 高麗 國王과 혼인함으로써 양국의 관계는 더욱 강화되었다.

蒙古太祖 11년(高麗 高宗 3년, 1216) 契丹人 耶律留可 등이 반란을 일으킨 후 9만여 무리를 이끌고 高麗로 들어가자 蒙古는太祖 13년 元帥 哈眞과 筍刺로 하여금 토벌을 진행하게 하였고 高麗 군대의 협공 하에 契丹 반란세력을 평정할 수 있었다. 이를 계기로 兩國은 초보적인 외교관계를 건립하였다. 하지만 太祖 20년(高麗 高宗 12년, 1225) 蒙古 使臣 著古與 등이 귀국 도중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蒙古는 이를 이유로 太宗 3년(高麗 高宗 18년, 1231) 고려에 대한 정복전쟁을 발동하였다. 전쟁의 결과 몽고는 고려의 京, 府, 縣 등 72개의 요지에 達魯花赤을 설치하여 내정에 간섭하였다. 그러나 蒙古 太宗 4년(高麗 高宗 19년, 1232) 고려 왕실은 權臣 崔瑄의 주장 하에 江華島로 피신하며 對蒙抗爭을 개시하였다. 이로써 1232년부터 1259년까지 몽고는 고려에 대한 대대적인 규모의 정벌을 실시하였다.

元朝와 高麗 사이에 발생했던 28년간의 대전란은 양국 모두에 커다란 손실을 야기시켰다. 특히 고려의 경우 국정의 파단과 함께 일반 백성들이 겪은 고초는 막대한 것이었다. 元朝 역시 수 차례 계속된 정벌의 최종 목적인 고려의 멸망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양국은 高麗 高宗 45년(蒙古 憲宗 8년, 1258) 權臣인 崔瑄가 피살된 것을 계기로 외교관계의 정상화를 도모하였다. 우선 高麗 高宗은 元朝의 요구대로 고려 왕실을 江華島에서 육지로 옮기는 동시에 太子인 王僖를 蒙古에 보내 入朝하게 하였다. 이후 王僖이 알현한 忽必烈이 1260년 開平에서 汗位에 등극하였을 무렵 高麗 高宗이 세상을 떠나자 忽必烈은 王僖를 귀국시켜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다. 王僖(곧 高麗 元宗)의 왕위 계승은 양국이 새로운 외교관계를 정립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이후 元朝는 고려에서 몽고 군대를 철수시켰고 양국은 다시 한번 평화 교류의 시대로 진입하였다.

高麗 元宗의 왕위 계승 이후 元朝와 高麗는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였다. 하지만 高麗 元宗 10년(元 至元 6년, 1269) 고려 국내에 왕의 廢位를 도모한 林衍의 모반사건이 발생하였고 고려는 元朝의 도움으로 반란을 평정하고 왕권을 안정시킬 수 있었다. 高麗 元宗 10년 12월(元 至元 6년, 1269) 元宗은 林衍의 모반사건을 설명하기 위해 직접 入朝하여 다음해 2월 燕京에서 忽必烈을 알현하였다. 이 자리에서 元宗은 忽必烈에게 高麗 世子와 元朝 公主와의 혼인을 처음으로 요청하였다. 高麗 元宗 12년(元 至元 8년, 1271) 고려는 樞密院使 金煉을 元朝에 파견하여 정식으로 請婚을 요구하였고 같은 해 6월에는 世子 王權을 元朝에 인질로 보냈다. 10월 忽必烈은 世子的 혼인 요구에 응하여 그의 딸 忽都魯揭裏迷失과 高麗 世子 王權의 혼인을 허락하였다. 하지만 당시 공주의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高麗 元宗 15년(元 至元 11년, 1274) 5월에 이르러 정식으로 혼인은 완성되었다. 그 해 6월 元宗이 세상을 떠나고 世子 王權이 왕위를 계승하였다(高麗 忠烈王). 元朝가 至元 11년(1274) 高麗와 확립한 '舅甥之好'의 관계는 元朝가 멸망할 때까지 유지되었고 이를 통해 쌍방은 기본적으로 평화롭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었다.

## 從貴族交替執政到泉氏家族專柄國政－試析高句麗後期國內政治局面的形成

祝立業, pp.25~28

본고는 고구려 후기 泉氏家族의 실태를 분석하여 고구려 후기 국내 정치 발전의 상황을 탐색하였다.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平壤 천도 이후를 고구려 후기로 파악하고 있다. 고구려 후기의 가장 대표적인 호족은 泉氏家族이었다. '泉男生墓誌'를 통해 泉氏家族의 개략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데 그 曾祖인 子遊부터 泉男生까지 4대가 계속해서 집권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泉氏家族 중 가장 중요한 인물은 蓋蘇

文(곧 蓋蘇文)이었다. 蓋蘇文은 부친의 死後 그 지위를 이어 西部大人의 직을 계승하는 동시에 고구려 최고의 관직인 大對盧를 담당하였다. 『三國史記』의 기록에 의하면 蓋蘇文은 榮留王 25년(642) 왕을 弑害하고 정권을 찬탈하였다. 蓋蘇文이 정변을 일으킬 당시 그는 西部大人 겸 大對盧의 신분이었으며 唐 高宗 乾封元年(666) 사망할 때까지 최소한 24년을 집권하였다. 문헌사료의 부족으로 정확한 기간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泉氏家族은 적어도 70년간 집권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고구려가 강력한 권력을 가진 權臣에 의해 권력이 독점된 시기는 대략 嬰陽王이 통치하던 600년 전후 시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의 역사상 好太王과 長壽王 시기는 가장 강력한 왕권을 유지하며 번영 하였던 시기로 평가된다. 그러므로 왕권이 쇠락하고 귀족세력이 점차 권력을 농단하던 시기는 당연히 長壽王 이후에 발생했을 것이다. 장수왕 이후 고구려의 통치자는 文咨明王(492-519), 安藏王(519-531), 安原王(531-545), 陽原王(545-559), 平原王(559-590), 嬰陽王(590-618)으로 이어진다. 앞서 언급한대로 嬰陽王 시기 泉氏家族이 이미 국정을 독점하기 시작했으므로, 고구려의 왕권이 약화되고 權臣이 대두되기 시작한 때는 文咨明王에서 嬰陽王 사이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당시 大對盧는 相權과 軍權을 모두 장악한 고구려 최고의 관직으로서 3년에 1번 교체하게끔 되었으며 분명히 고구려의 전통적 五部 중에서 한명의 部長이 담당했을 것이다. 따라서 大對盧의 직분을 맡은 部는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세력이 소진되던지 아니면 직무를 수행하며 권력을 축적하여 각 部간의 세력균형을 무너뜨리고 王權까지 위협하는 집단으로 성장해가는 두 가지 방향으로 나아갔을 것으로 판단된다.

요컨대 泉氏家族은 子遊, 太祖의 시기에 東部(西部)大人의 신분으로 중요한 군사관직을 담당하였고 점차 권력을 독점하기 시작했다. 泉氏家族이 본격적으로 등장하여 권력을 전적으로 농단한 시기는 嬰陽王 시기였으며 그 이전인 文咨明王에서 嬰陽王 사이의 시기에 이미 왕권이 차츰 쇠퇴해 갔다. 이후 蓋蘇文은 정변을 일으켜 國王인 建武를 포함한 모든 반대세력을 제거하였고 그 권력은 정점에 이르렀다. 정변 후 蓋蘇文은 스스로 莫離支의 직위에 올라 국정을 농단하였고 五部가 본래 상호 유지하고 있던 균형은 철저히 파괴되었다. 이후 泉氏家族은 왕권을 능가하는 권세를 보유했으며 고구려가 멸망할 때 까지 국가권력의 핵심을 이루었다. 蓋蘇文이 활동한 시기는 唐王朝가 건립된 초기였고 그는 對唐 강경파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蓋蘇文의 死後 그의 아들 男生이 莫離支 겸 三軍大將軍의 직위를 맡았고, 권력을 더욱 자신에게 집중시키며 그 기본적인 통치방식을 유지해나갔다. 만약 唐朝의 高句麗 정복전쟁으로 인해 고구려가 멸망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泉氏家族에 의해 새로운 왕조가 탄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을 것이다. 덧붙여 嬰陽王 시기 출현했던 泉氏家族의 국정 농단 상황은 상술한 국내적인 정치변동과 더불어 동시대 중원 왕조의 정치적 국면 역시 여러 世家大族에 의해 장악되고 있었다는 외부적 정세변동에도 영향을 받았다고 보여 진다.

#### 靺鞨族의分化·重組與渤海之建國－兼及兩唐書“別種說”·“依附說”辨正

張碧波, pp.16~24

渤海史를 연구함에 있어 兩唐書의 「渤海傳」은 가장 근본적이며 중요한 사료이지만 「渤海傳」에는 靺鞨族 및 粟末靺鞨部의 역사와 변천, 粟末靺鞨部가 興起할 수 있었던 원인 등에 관한 기술이 자세하지 않다. 또한 「渤海傳」에 기록된 ‘高麗別種’, ‘附高麗者’는 兩唐書 「靺鞨傳」 및 『隋書』 「靺鞨傳」 등의 내용과 서로

부합하지 않는다. 이러한 모순은 靺鞨族史와 渤海史 연구에 커다란 어려움과 혼란을 야기시킨다.

일찍부터 靺鞨族은 중국의 지방정권이었던 高句麗 및 조선반도의 新羅, 百濟 등과 교류가 있어 왔다. 특히 그들 집단은 이미 5세기 무렵 분열하기 시작하여 그 중 일부인 白山部가 고구려에 依附하였고 이때부터 白山部는 고구려의 중요한 군사적 자원이 되었다. 사실 말갈족 집단의 분열은 고구려의 말갈족에 대한 끊임없는 압박과 정복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그렇다면 粟末部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일찍이 隋 開皇 9년(589) 粟末靺鞨의 突地稽가 무리를 이끌고 來附하여 營州 지역을 기반으로 興起의 기초를 닦았다. 이를 粟末靺鞨의 제1차 전략적 이동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粟末部가 高句麗에 依附했다면 對唐戰爭의 과정에서 고구려의 편에 섰던 다른 말갈부족들, 곧 白山, 汨咄, 安車骨, 號室 등의 部와 같이 파멸의 길을 걸었을 것이다. 사실 來附한 粟末靺鞨 세력은 지속적으로 隋唐의 고구려 정복전쟁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정황을 통해 볼 때 兩唐書 중의 '別種說', '依附說' 등의 기술은 역사적 사실과 모순된다고 하겠다.

隋唐시기 발생한 두 차례의 중대한 사건은 말갈족 집단의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北朝 및 隋唐시기 營州는 여러 민족이 거주하는 지역이었는데 唐 高祖 武德 4년(621) 粟特人 石世則이 營州 總管 晉文術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킨 후 靺鞨人 突地稽를 추대하였다. 이후 唐朝 역시 突地稽의 營州 總管的 지위를 인정하였고 664년에는 그의 아들 李謹行이 그 지위를 이어 받았다. 이것이 첫 번째 중대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萬歲 通天 중(696-697) 營州 契丹人 孫萬榮, 李盡忠이 반란을 일으켰고 당시 粟末靺鞨을 이끌었던 새로운 수령들인 乞乞仲象, 乞四比羽 및 乞乞仲象의 아들 大祚榮은 반란에 참여하지 않고 난을 피해 동쪽으로 이동하여 세력보존을 도모하였다. 이것이 두 번째 중요한 사건이자 소위 靺鞨族의 제2차 전략적 이동이라고 하겠다. 이에 唐朝는 말갈족 집단이 반란에 참여하지 않은 점을 평가하여 乞四比羽를 許國公에, 乞乞仲象을 震國公에 각각 봉하였다. 하지만 乞四比羽가 順命하지 않자 唐朝는 토벌을 진행하여 乞四比羽가 희생되고 乞乞仲象은 病死하였으며, 그 속에서 大祚榮은 靺鞨族과 高句麗 遺民을 규합하여 국가 건립을 위한 충분한 조건을 마련하였다.

渤海史 연구에 있어 渤海라는 국호의 기원은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大祚榮이 최초로 국호를 '震國'이라 했던 까닭은 震國公에 봉해졌던 乞乞仲象을 계승한다는 의미가 있었다. 이는 이후 大祚榮이 渤海郡王의 지위를 부여받는 기초를 마련한 것이기도 했다. 사실 唐朝는 大祚榮과 古大氏族과의 상관성을 고려해 그를 渤海郡王에 봉했으며 이로써 발해왕실의 종실계보가 건립될 수 있었다. 또한 이후 靺鞨의 명칭이 사라지고 渤海라는 칭호가 전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李氏 唐朝는 渤海大氏의 中原化를 승인함으로써 渤海大氏의 역사적, 문화적 지위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 요컨대 靺鞨族 중심의 渤海民族은 이때부터 唐代 사회 속으로 융합되어 갔고, 渤海國 역시 中華歷史上 일정한 지위를 가지며 새로운 역사단계로 진입하였던 것이다.

## 皇太極三次審理朝鮮“橫議大臣”案述論

宋慧娟, pp.65~68

皇太極이 明軍과 세력을 다투는 중요한 시기 朝鮮은 明朝와 암암리에 교통하며 淸國의 지시를 배척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였다. 崇德 5년부터 7년 사이 皇太極은 3차에 걸쳐 朝鮮의 '橫議大臣'안을 심리하여 조선 내의 적대세력을 제거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동시에 조선의 政局이 결정적인 파국을 맞는 것도 방지

시킴으로써 이후 淸과 朝鮮이 宗藩關係 속에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崇德 年, 皇太極은 明軍을 공격하기 위한 역량을 집중하는 과정에서 조선에 군대 파견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崇德 3년, 4년에 淸朝가 요구한 군사와 군수물자와 관련하여 조선은 갖가지 이유를 대며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대처하였다. 이에 皇太極은 조선 내부의 親明勢力을 제거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崇德 5년 10월, 淸 太宗은 固山額眞 英俄爾岱, 禮部參政 俄莫克圖, 刑部理事官 納爾賽 등을 義州로 파견하여 親明의 '橫議'大臣을 조사하였다. 이와 함께 皇太極은 조선의 12가지 죄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였다. 淸의 관리는 金尙憲, 曹漢英, 蔡以恒, 申得淵 등을 불러 1차 조사를 마친 후 이들을 瀋陽으로 압송하여 崇德 6년 5월 2차 조사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이들에 관해 실질적인 증거가 없었고 조선이 12조의 죄상에 관해 숨김없이 자백함에 따라 조사한 이들을 瀋陽에 구금하고 이후 崇德 8년 4월에는 申得淵, 曹漢英, 蔡以恒, 樸漢 등의 죄를 사하였다. 이것이 제1차 '橫議大臣' 심리였다.

그런데 1차 심리가 해결되기도 전에 몇 가지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첫째, 明과 朝鮮 간에 육로가 막힌 상황에서 해로를 통한 교류가 암암리에 계속되었음이 드러났다. 둘째, 淸의 戶部參政 馬夫達이 조선에 갔다가 귀국한 얼마 후 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는데 淸朝는 그가 독살되었다고 의심하였다. 셋째, 義州人 崔孝一이 妻子와 함께 明朝로 투항하였고 그 친족과 몰래 주고 받던 편지가 청조에 의해 발각되었다. 넷째, 淸朝가 체포한 조선의 安州, 宣川의 潛商을 통해 이들에 대한 朝鮮의 관리가 허술함을 알게 되었다. 이에 崇德 6년 10월, 淸朝는 楊恕之, 盧施兩 등을 파견하여 관련 안건들을 심리하였고, 심의결과 義州府尹 黃一皓와 明과 내통한 崔孝一의 친족을 모두 주살하였다. 이것이 제2차 안건 심리였다.

崇德 7년 3, 4월, 松錦戰役의 승리와 함께 明의 장군 洪承疇, 祖大壽 등을 사로잡아 심문하는 과정에서 조선이 명과 내통한 대량의 사실을 알게 되었다. 崇德 7년 10월, 皇太極은 固山額眞 英俄爾岱, 戶部承政 車爾格, 內院大學士 剛林, 學士 羅頌偕와 朝鮮 世子를 鳳凰城에 보내 朝鮮과 明의 내통 안건을 심리하게 했다. 이에 朝鮮의 領議政 崔鳴吉, 吏曹判書 李顯英, 禮曹判書 李植, 行護軍 李景會, 大司憲 徐景雨, 貳臣 李景奭 등을 鳳凰城으로 불러 심리하였다. 그 밖에 林慶業이 도중에 도주하자 그 친족을 대신 구금하였고 金尙憲도 盛京으로 압송하였다. 이번 3차 '橫議大臣' 심리의 대상은 위로는 文武百官 아래로는 지방관과 조선 상인에 이르기까지 대단히 광범위한 것이었다.

淸朝의 3년여에 걸친 안건 심리는 조선의 국내 정치 상황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皇太極은 안건의 심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일련의 정치적 책략과 수완을 발휘하였다. 첫째, 조선의 國王까지 죄를 묻지는 않았다. 둘째, 高官들의 경우 심리는 하되 그들을 죽이지는 않았다. 崔鳴吉, 金尙憲 등의 元老 重臣들은 결국 사면을 받았다. 셋째, 심리 중에도 恩澤을 베풀었다. 崇德 5년, 皇太極 誕辰日의 구실로 貢米를 1만 包에서 9,000포로 감면하였다. 넷째, 淸國에 공헌이 있는 자는 크게 장려하였다. 요컨대 皇太極은 3차에 걸친 심리를 통해 조선내부의 親明 세력을 제거하는 동시에 조선 국내 정치에 끼칠 치명적인 타격을 최소화함으로써 淸과 조선간 宗藩體制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 中國歷代邊政問題芻議

羅賢佑, pp.11~15

‘중국의 변강’은 하나의 역사적, 상대적 개념으로 정치·경제·군사·문화·지리상의 함의를 갖고 있음

며 역사적 연속과 변동 속에서 끊임없는 발전을 거듭해 왔다. 특히 중국의 변강문제와 민족문제는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으며 소수민족의 거주지가 대체로 변강지역과 일치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한 면에서 민족문제를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곧 변강문제를 올바르게 다루는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다.

역사적으로 중국의 변강민족문제는 국부적이거나 혹은 어느 특정 시대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역사를 관통하는 전체적인 문제였다. 전통적인 ‘大一統’사상은 봉건사회의 핵심적인 이념으로 변강을 경영하는데 있어 정치적 ‘大一統’을 실현하는 것은 중국 역대 봉건왕조의 최종적인 목표였다. 다시 말해 변강을 ‘大一統’의 정치질서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 변강을 적극적으로 경영하는 것, 변강을 안정시키는 것 등이 역대 왕조가 품었던 변강통치의 구체적인 목표이자 총체적인 원칙이었던 것이다. 요컨대 ‘天下一統’을 실현하는 것이 최초의 지향점이자 최종적인 귀착점이었던 셈이다. 한편, 統一多民族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역사상 변강민족정책이 기여한 적극적인 작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통일다민족국가의 공고화와 통일을 촉진시켰다. ② 민족관계를 조정하고 중화민족의 응집력을 강화시켰으며 多元一體中華民族 발전의 역사적 과정을 촉진시켰다. ③ 변강지역의 경제발전이 체계적으로 전개되었으며 변강과 내지의 일체화 과정을 추진시켰다.

하지만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화해 온 변강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그 상황에 적합한 정책이 필요하였고 변강정책 역시 그에 따라 부단히 보충되고 발전되어 갔다. 근대 자본주의 세력이 침입하기 이전 중국 변강의 형세와 발전은 통일다민족국가의 형성에 유리한 기반을 조성하였는데, 곧 18세기 중엽에 이르러 다원적인 변강의 형세가 淸朝의 직접적인 통치하에서 통일적 국면으로 전환되었던 것이다. 한편, 1840년 아편전쟁 이후 중국은 거대한 시대적 변환을 겪게 되었고 변강의 형세 역시 커다란 영향을 받았다. 근대 이후로 외국 세력의 중국에 대한 침략은 대부분 변강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변강의 위기와 형세가 날로 악화됨에 따라 전통적인 변강통치 이념이 무너지면서 새롭게 현대적인 ‘邊政’의식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民國時期 계속되는 변강의 위기 속에서 학계와 정부는 전문적으로 ‘邊政’사무를 제출하였고 변강 문제에 대한 전국적 관심은 날로 고조되어 갔다. 국내의 각 대학에 ‘邊政’ 관련 학과가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수많은 변강관련 학회가 창립되고 학회지가 창간되었다.

중국의 변강은 수천 년의 역사발전의 과정 속에서 형성된 것이며 변강문제 역시 장기간의 역사 속에서 항시 존재하였다. 오늘날 邊疆經營, 邊疆政策, 治邊思想 등의 문제는 현재 우리가 탐구해야 할 주요한 연구 대상이며, 현재 직면한 변강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리는 마땅히 역사유물주의에 입각하여 복잡한 역사적 궤적을 연구하고 탐색해야 한다. 역사는 응고된 현실이고 현실은 유동적인 역사인 것이다. 또한 과거의 역사적 사실과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는 것은 역사연구가 갖고 있는 주요한 효능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역대 변강 정책을 연구하는 것은 중요한 현실주의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곧 국가가 변강민족정책을 제정하고 실행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근거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주지하듯이 중국의 역대 邊政에 관한 내용은 복잡하고 다층적이다. 보다 많은 학자들이 더욱 광범위한 연구와 탐색을 통해 역대 중국의 변정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중국의 변강민족과 지역을 발전과 번영을 위해, 우리 위대한 조국의 진보를 위해 더욱 힘차게 노력해야만 할 것이다.

## ■ 2008년 제1기

### 集安古道新發見兩通石碑

張福有·孫仁傑 遲勇, pp.2~10

필자들은 2007년 7월 集安 通溝嶺 정상에서 ‘樂善好施碑’를, 同和嶺 정상에서는 ‘同和嶺修道碑’를 발견하였다. ‘樂善好施碑’는 중화민국 17년(1928), ‘同和嶺修道碑’는 광서 33년(1907)에 세워진 것으로, 두 비석에 대한 기초적 연구를 통해 고구려 集安의 南道와 北道の 실제 走向을 확인할 수 있었다. 通溝嶺은 通溝河의 발원지로 이를 거쳐 통구하에 도착하여 압록강으로 들어갈 수 있다. 同和嶺의 이 길은 板岔嶺의 길과 함께 1904년 착공되었으며 板岔嶺 길을 닦는 과정에서 西北天溝에서 田丘儉紀功碑가 발견되어 正始 5년 관구검의 고구려 정벌이 사실이었음이 증명되었다. 또한 삼국지에 나오는 6년의 두 번째 원정이 사실은 한 사건의 연속으로 5년에 출병하여 6년에 회군하였음을 보여주었다.

여기에 나오는 梁口에서 梁은 ‘濁’로 읽으며 ‘河’를 의미하지만 楚越 지역의 방언에서는 ‘물이 回流’한다는 의미도 포함된다. 관구검과 삼국지에 주를 단 배송지는 모두 山西 聞喜人으로 楚 지역에 가깝기 때문에 그 방언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양구는 河口를 뜻한다. 현재의 길림성 通化현 大泉眼鄉 江口村 즉 富爾江과 渾江의 합류처이다. 두 강이 합류하는 곳 사이는 100여 평방미터의 대평원으로 관구검과 동천왕이 大戰을 벌인 곳이다. 관구검의 군대는 新開河를 거슬러 올라가 고구려의 南道를 거쳐 板岔嶺을 넘어 西北天溝門에 도착하여 石廟子二隊의 三道陽岔를 지나 직접 환도산성의 서쪽 담장에 이르렀다.

東川王 21년 평양성을 쌓았는데 이 평양성은 북한의 평양이 아니며 또한 국내성도 아니며 ‘國之東北大鎮’의 新城인 집안 良民古城이다. 양민의 평양성은 ‘수도’가 아니라 ‘왕성’일 뿐이었다. 국내성에서 양민고성으로, 양민고성에서 다시 국내성으로 돌아간 것은 동천왕과 서천왕의 무덤을 통해 증명할 수 있다. 평양성을 후대의 국내성으로 보는 것은 문헌 증거가 없다. 광개토태왕비에 평양성은 있지만 국내성이 없는 것은 평양성이 국내성이 아님을 증명한 것이다. 평양성이 만약 국내성이라면 동천왕은 같은 지역에 백성과 廟祠를 옮길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양민고성은 광개토태왕비 속의 ‘下平壤’의 평양성과는 다른 것이다.

蒿子溝古墓는 고구려 때의 중요한 묘지로 JHM1호 묘는 동천왕의 무덤이다. 蒿子溝 柴子溝는 모두 柴原에서 나온 것으로 良民 蒿子溝는 모두 압록강변의 大平甸子로 모두 압록강 수원의 범주에 속한다.

두 비의 발견은 이전 집안에서 통화에 갈 때 현재의 集錫公路를 거쳐가지 않았음을 증명해준다. 集錫公路를 닦기 전에 집안에서 통화로 가는 길은 통구령 길과 동화령 길이었다.

모용황의 침공과 관련된 고구려의 南北 2道에 대해서는 기존에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은 점들이 남아있다. 고구려남도는 환도산성과 국내성에서 출발하여 남쪽으로 향하여 麻線-石廟子-板岔嶺-望波嶺關隘-霸王朝山城을 거쳐 신개하를 나가 혼강에 이르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고구려북도는 국내성과 환도산성에서 출발하여 북쪽으로 통구하를 따라 經陽岔-雙安小城-통구령-大羅圈溝河 강변의 石湖山城-통화 二道溝山城을 거쳐 혼강에 이르고 동시에 自安山城에 이른다.

삼국사기에 나오는 학반령은 현재의 통구령이다. 따라서 車回穀은 통구령 남쪽 고개인 五道盤道 아래의 西溝山穀이다. 骨甸川은 당연히 대라권구이다. 통구령 역시 통구하와 대라권구하의 분수령으로, 남으

로 흐르면 통구하 북으로 흐르는 것은 대라권구하이다.

통구령 즉 옛 학반령길은 ‘北道平關’의 北道 첫 부분의 소재지이며 또 대무신왕이 부여남으로 진군할 때 반드시 지나가는 길이었다. 이번에 발견된 두 비는 정북로에 대해 더욱 자세히 시사해주고 있다. 대무신왕이 부여를 정벌할 때 북로로 갔을 것이며 반드시 남로로 즉 南道에서 신개하 계곡을 지나 혼강을 건너 부이강 하곡으로 갈 필요는 없다. 沸流水는 부이강만이 아니라 부이강을 포괄하는 혼강이 되어야 한다.

부여국남은 지금의 길림시 이남 및 白山市 서남부 일대의 비교적 커다란 범위에 해당한다. 대무신왕은 부여국남에 접근한 혼강의 수원 지대에서 3일 이상 주둔하였을 것이다. 利勿林은 三岔子 林業局 관할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北溟은 소택지에 가까운 강이므로 임업국 관할 내의 白漿河이다. 怪由가 죽은 후 장례지낸 북명산은 林家山이다. 또 하나의 인물인 麻盧에 관련된 赤穀은 지금의 紅土崖河이다. 흉토에 하의 자연 환경은 적곡의 모든 조건에 부합하는 반면 환인 부근의 부이강 유역을 포괄하는 지역에서는 아직 자료에 부합하는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泥塗는 삼분자 임업국 관할 구역 내의 龍崗火山群 중의 있는 대면적의 소택지이다. 지명의 장구한 계승 관계는 자연조건의 안정성에서 유래한다. 부여국남의 이 일련의 지명, 지모, 지질환경과 문헌기재는 대단히 잘 합치하고 있다.

통집철로를 따라 통구령을 지나 북상하면 순조로운 점이 많았으므로 굳이 집안에서 출발하여 북으로 향하여 熱關 果松을 돌아 다시 남으로 꺾어 석호자에 도착할 필요가 없으며 집안에서 關馬山墻을 지나 다시 동쪽으로 꺾어 석호자에 이를 필요는 더더욱 없을 것이다. 과거에는 아무도 통구령의 길을 지나보지 못했으면서도 이 산 정상에 길이 있을 수 없다고 여겨 이를 방치하였다. 통구령에서 두 개의 비를 발견한 것에서 집안고도의 진상은 명백하여 졌다.

## 完顏阿骨打進占東京遼陽府的策略與措施

劉肅勇, pp.20~22

完顏阿骨打(阿骨打로 약칭)는 反遼 전쟁 초기 두 차례 승리 후 金 제국 성립을 선포하고 이어서 金軍을 지휘하여 두 갈래로 遼 치하의 동북 전 지역을 공격 점령하였다. 그 중 東路의 전략은 金軍 주력으로 遼의 수도 臨潢府의 남쪽 관문격인 東京遼陽府(遼陽으로 약칭)를 공격 점령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遼南 지역에 熟女眞, 渤海, 土著漢人 등이 잡거하여 민족 관계가 복잡하고 민족 간의 모순이 첨예한 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다양한 초무 책략을 실시하여 거란 직계가 아닌 군대의 전투력을 와해시켜 순조롭게 진군할 수 있었다. 먼저 金(黑水靺鞨)과 발해(粟末靺鞨)는 같은 말갈 계통임을 선전하여 발해인들에게 부흥의 희망을 주어 그들의 전투 의지를 상실하게 하였다. 둘째 발해 출신의 포로인 大葯師奴 梁福 등을 우대하여 발해인들의 反金 의식을 없앴다. 셋째 포로로 잡혔다가 석방된 뒤 후 다시 사로잡힌 경우에도 죽이지 않고 석방하였으며 특히 이들 중 발해 출신으로 우수한 자들을 길러 金을 위해 힘쓰도록 하였다. 넷째 遼南 지역의 熟女眞에 대해 그 家世를 조사 우대하여 그들이 적극적으로 金에 호응하도록 이끌어 냈다.

金軍이 남하할 때 渤海籍 출신인 高永昌은 자신의 부대를 거느리고 遼를 배반한 후 遼陽성을 점령하고 발해왕국을 세우고 칭제하였으며 연호를 隆基라 하였다. 그는 아골타와 반료동맹을 맺을 생각이었지

만 아골타는 새로운 발해국을 허락할 생각이 없었다. 高永昌은 요의 장수 張琳이 거느린 토벌군을 격파하지만 크게 피해를 입었고 이를 틈타 아골타는 遼陽을 공격 점령하고 高永昌 일가를 베어 죽였다. 뒤이어 반년 후 完顏幹魯가 거느린 金軍은 발해군의 패잔병을 섬멸하고 遼南 지역을 전부 점령하였다.

遼南 지역을 점령한 후 阿骨打는 遼陽에서 새로운 점령지를 견고하게 다지는 일련의 조치들을 시행하였다. 먼저 渤海籍으로 金을 도와 遼에 반대한 공신들-大撻不也, 幹答刺, 高彪 등-을 중용하였다. 이어 家世에 근거하여 재능있는 발해 상층인사들을 발탁하여 金을 위해 힘쓰게 하였다. 또 遼陽의 世家大族과 정치적 혼인 동맹을 실행하였다. 李洪願을 뽑아 셋째아들 完顏宗輔의 妃로 삼아 金 世宗을 낳은 것이 그 한 예이다. 넷째, 遼陽 지역 漢族의 역량을 중시하여 결사 항전하지 않는 자는 예전 관직을 그대로 주어 쓰고 그 중에서도 재능이 있고 金에 공로가 있는 자는 중용하였다. 다섯째, 평민백성에 대해서도 관대한 안무정책을 펼쳤으며 노비도 주인보다 먼저 투항한 경우 인신을 해방시키도록 하였다. 또 遼의 각종 가렴주구를 폐지하였다. 마지막으로 遼南 지역의 熟女眞族을 특별히 우대하여 金의 여진인과 동일한 대우를 하고 관료로 임용하였으며 빈곤한 熟女眞人들에게는 토지를 주어 안정시켰다.

遼陽은 이후 金의 요 정벌 과정에서 중요한 후방 기지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完顏幹魯를 南路都統으로 삼아 이를 다스리도록 하고 그를 迭勃極烈 즉 副보일리에 임명하여 遼陽에 대한 여진 귀족 통치집단의 중시와 관심을 드러내 보였다.

高永昌의 발해 군대를 병탄할 때 阿骨打의 음모 독계는 그와 여진 노예주 귀족의 흉악함을 잘 드러내는 것이었다. 하지만, 遼陽으로의 진격 과정과 점령한 후 정국 안정을 위해 추진한 많은 조치들은 阿骨打의 정치가와 군사로서의 재능을 충분히 드러내고 것이라 할 수 있으며 金軍이 소수로 다수의 적을 제압하고 遼를 멸망시킨 것은 우연이 아님을 보여준다.

## 高句麗民族禮儀初探

李淑英 · 李樂營, pp.29~35

禮儀制度는 三代에 이미 서서히 형성되어 中華民族 수천 년의 역사에 영향을 미쳤다. 중화민족만이 아니라 주변 소수민족도 중원의 예의제도에 따라 행하였으며 서서히 자기 민족 고유의 예의제도를 형성하여 갔다. 봉건사회에서 예의제도는 봉건 등급과 제왕 귀족의 권위를 유지하는 제도로서, 吉禮, 賓禮, 嘉禮, 凶禮 등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고구려의 예의는 이미 중원의 의례제도를 받아들인 것도 있고 고구려 민족 고유의 특징도 있었다. 고구려인들의 혼인 상장 제사 등 방면의 예의에서 고구려 민족 예의의 몇 가지 특징을 찾아낼 수 있다.

### 1. 婚姻禮儀

건국 초기 고구려의 평민들은 일부일체제를 행하였지만 자녀를 낳을 때까지 처가에서 생활하는 등 원시시대 對偶婚의 일부 특징도 아직 보존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미 일부일체제의 특징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먼저 혼인을 위해서는 이미 口頭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婚約이 필요하였고, 둘째 여자 즉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했으므로 여자의 혼인에서의 주동성이 부모의 명에 의해 제약받고, 셋째 남자가 여자 쪽에 예물과 돈을 제공하여 혼인 중에 매매의 요소가 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고구려의 혼례는 남자의

구혼-婚約-여자 부모의 동의-남자의 처갓집 거주-자식 출산 후 歸家의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중국과 비교하여 보면 혼례의 전체 절차는 비교적 간소하지만, 처자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비교적 길었다. 고구려에서 혼전 남녀의 교제는 결코 엄격하게 제한받지 않아 여가 시간에 남녀가 귀천에 관계없이 서로 어울려 노래 부르고 놀면서 자신의 배우자를 찾았다. 고구려의 귀족들은 많은 처를 거느렸다. 고구려왕이 王後, 小後, 元妃, 次妃, 夫人 등을 후궁에 살게 하고 미인을 뽑아 들이는 것은 같은 시기 중원 제후왕국의 媵妾제도와 같은 것이었다. 이는 문헌사료 뿐 만 아니라 고고학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예를 들어 장군총은 왕과 왕후의 합장묘이지만 뒤에는 妃들의 配葬墓가 배치되어 있다. 또한 舞踏塚, 角觚塚의 벽화들은 고구려 귀족의 多妻 상황을 생동감있게 묘사하고 있다.

## 2. 喪葬禮儀

고구려인들은 상장을 대단히 중시하여 혼인이 맺어진 후 바로 장례에 쓸 衣物과 金銀財幣를 준비하기 시작하였으며 厚葬을 행하였다. ① 喪葬의 준비: 혼인 후 바로 묘지를 고르고 분묘를 만들기 시작하였다. 부장품은 주로 墓室이나 壙室에 묻었으며 무덤 주변에도 부장품을 놓아두는 현상이 있었다. 귀족과 평민은 부장품에 차이가 존재하였다. ② 죽은 자는 실내에 얹하여 두었다가 3년이 지난 후 길일을 골라 장례지냈는데 이는 중원의 장례와 일치하는 것이다. 상복과 상복 기간의 각종 의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③ 送葬 의례: 사람이 죽으면 친척과 이웃들이 곡을 하면서 애도를 표하지만 出棺할 때는 악대가 취주하고 어떤 사람은 춤을 추면서 무덤까지 갔다. 하관 후에 가족과 친척들은 死者의 물품들을 무덤가에 놓아두고 친척과 이웃들은 이를 가져가 기념으로 삼았다. ④ 무덤은 돌을 쌓아 封墳하였다. 무덤의 형태에 대해서는 학자들에 따라 이견이 존재한다. 과거에는 石墳에서 土墳으로 발전하였다고 생각하였지만 이는 잘못이다. 고구려인들은 돌로, 부여인들과 한족은 흙으로 봉분한 것으로 보아야한다. 魏晉 이후 민족간의 융합이 이루어지면서 장례 형태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積石墓와 積石石壙墓는 평민들의 무덤 형태였고 계단식 方壇石室墓는 주로 귀족과 왕실의 무덤 형태였다. ⑤ 고구려 왕릉 및 守墓제도: 근래의 연구를 통해 고구려 왕릉의 소재지가 다수 확정되었다. 왕릉은 ㉠ 규모가 가장 크고 매장 시설이 가장 완비되어 있으며 ㉡ 묘 위에 기와가 있고 ㉢ 배장묘와 제대가 있으며 ㉣ 葬地가 높고 크며 ㉤ 독립된 릉을 만들고 모두 墓城이 있고 ㉥ 陵寢의 유지가 점차 완비되어 갔으며 ㉦ 왕족 지위와 부합하는 유물이 있다는 공통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 왕릉에는 묘를 지키는 煙戶 및 상응하는 제도가 존재하였다. ⑥ 諡法: 왕의 사후 계위한 왕이 존호를 올렸으며 이외에 중원 황제의 시호도 받아들였다. 이는 중원 상장의례 중 諡法이 고구려에서 시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3. 祭祀禮儀

고구려의 제사에 관한 기존 연구는 주로 제사의 대상 제사 내용에 대한 것이 많고 제사의례 방면의 연구는 아직 많지 않다. 이는 문헌 기록에 구체적인 내용이 적고 의례방면에 대한 이해가 아직 심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사 의례상의 몇 가지 특징을 보면 ① 천신제사: 고구려에서는 때때로 하늘과 隧神을 함께 제사지냈다. 10월의 제천 행사 때 隧神을 맞이하는 것은 제천 활동 중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고대의 제천은 郊, 大, 雩, 禘, 烝, 嘗으로 나뉘어 지는데 고구려에서는 단지 교사만이 보이며 春, 夏, 秋,

冬으로 나누어 제사지냈다. 또 제사에는 소를 사용하지 않고 돼지와 사슴을 희생으로 사용하였다. 이는 고구려가 소를 중시하고 소의 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② 地祇의 제사: 地祇는 토지신 사직신 따위를 가리킨다. 사직과 雩星의 제사는 고구려의 농업생산과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東台子遺址는 故國壤王이 國社와 종묘를 세웠던 유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고구려 말기의 일부 벽화묘에는 신농씨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고구려인들의 사직 영성의 제사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고구려인들이 사직과 영성을 제사 지낸 역사는 고구려 정권보다 더 긴 것이었다. ③ 人鬼의 제사: 人鬼란 고구려인들의 조상 및 관련된 이미 죽은 인물들을 가리킨다. 河伯女와 주몽은 고구려인들의 시족이다. 고구려 시조 동명왕묘는 졸본에 세워졌는데 그 유적은 지금의 요녕성 환인현성 부근일 것이다. 고구려왕이 조상 묘에서 제사지낸 시간은 春夏秋의 세 계절로 두 달 안에 왕래하였다. 이외에도 기자신과 可汗신이 있다. 또 시조 외에 후대왕의 선대왕에 대한 제사가 있었다. 기자를 제사지낸 것은 기자조선의 역사 문화에 대한 그리움이 있고 특히나 商殷 문화에 대한 숭배가 있었기 때문이다. 문헌에 따르면 고구려에는 많은 음사가 있으며 귀신을 제사지내고 제사가 많아 山川, 洞穴에까지 이르러 제사지내지 않은 것이 없었다고 한다. 이는 商人들과 약간 비슷한 면이 있다.

#### 康乾時期燕行使眼中的中國北方建築

趙興元, pp.23~28

강희, 건륭 황제 시기 중국에 왔었던 조선 연행사들은 중국 북방 건축물에 대한 기록을 남겨두었다. 그 내용은 일반 가옥뿐만 아니라 궁성과 종교 사원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조선 연행사들의 중국 북방 건축물에 대한 관찰은 대개 세 가지 방면에 집중되었다.

첫 번째로 일반민 거주 가옥이다. 사합원이 주를 이루는 북방 일반 가옥은 그 크기와 구조가 약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조선 연행사들이 이러한 가옥에 대해 받은 인상은 두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넓다 [敞豁]’와 ‘웅장하다[穹崇]’이다. 중국 가옥들 중에 상대적으로 빈곤한 가옥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느꼈다. 가옥이 큰 것은 북방지역이 인구가 적은 대신 땅이 넓어 가옥을 크게 지을 수 있었고 웅장한 것은 많은 사람을 수용하려다 보니 더 많은 공기를 포함하고자 한 것뿐이다. 이러한 인상은 사합원 가옥을 조선의 가옥과 비교했을 때에 얻어진 것이다. 조선의 연행사들은 요동, 요서, 직예동부 지역을 통과하면서 穀草를 이용해 만든 ‘草家’, 벽돌에 회분을 더해서 만든 ‘土家’, 그리고 기와를 써서 만든 ‘瓦家’ 등의 민가를 관찰하고 기록으로 남겼다. 이를 통해 당시 사람들의 거주 상황을 알 수 있는데 그중 金昌業이 묘사한 북경의 기록을 통해, ① 당시 대부분의 집들이 남향으로 되었다는 점, ② 대들보가 5개, 7개, 9개가 쓰인 큰 집들도 있었다는 점, ③ 건물의 크기에 상관없이 모두 일자 형태로 되어 있었다는 점, ④ 건물에 남북으로 문이 나있어서 연결될 수 있었다는 점, ⑤ 公侯나 駙馬의 집에서는 鴛鴦기와를 쓸 수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김창업은 북경성에 대한 기록도 남겼는데, ① 城 안에 배수 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다는 것, ② 성 안에서는 가금류를 일체 기르지 못했다는 것과 ③ 북경의 민가에는 화장실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웅장하고 견고한 성곽이다. 연행사들이 기록으로 남긴 성곽으로는 심양성, 산해관성, 북경성이 있다. 김창업은 심양성 거리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고 홍대용은 보다 자세하게 심양성을 묘사하는

데 북경 다음으로 부유하고 거대한 城市라고 했다. 산해관에 대해서는 연행사들이 산해관 장성의 형세와 장성의 재료, 산해관 門樓의 외관 및 봉화대의 외관, 산해관의 배치 상황, 산해관의 관리 실태 등에 대해 자세한 기록을 남겼다. 청조의 수도였던 북경성에 대해서는 더욱 세밀한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 그 주된 대상으로는 황성의 윤곽, 황성의 외관, 황성의 방위설비, 南城의 外城, 宮城의 형태 등이 있다. 연행사들이 이들 세 곳의 성곽을 보고 공통적으로 느낀 점은 ‘웅장하고 견고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당시 중국 전통 국가가 인민을 통치하기 위한 필요에서 혹은 체제 유지를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일정 이상의 경제적 능력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세 번째는 화려한 궁궐과 사원이다. 강건시기에 중국에 왔던 연행사들이 기록한 사원의 개수는 백 여개에 달한다. 이것들을 묘사하는데 연행사들이 가장 많이 썼던 단어는 ‘화려하다’, ‘웅장하다’ 등이다. 연행사들의 시각에는 중국의 사원 건축들이 화려하고 사치스러웠던 것으로 보인다. 궁궐은 연행사들에게 있어 더욱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대상이었다. 궁궐의 화려함과 사치스러움은 통치계급의 물질생활과 정신 생활의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었고 사원의 화려함과 사치스러움은 종교 민중들의 신령숭배 추구를 만족시켜주는 것이었다.

조선 연행사들에게 있어 강희, 건륭시기의 민가이든 성곽이든 궁궐 혹은 사원인지에 상관없이 모든 것이 조선과 비교했을 때 발달된 것이었고 건축예술 또한 높은 수준이었다.

## 建州女眞凡察府與朝鮮關係述論

王臻, pp.40~44

明朝는 동북 변강 민족에 대해 衛所 건립을 통한 기미 정책을 시행하였다. 明代 建州女眞의 유력 수령인 猛哥帖木兒가 ‘阿木河의 변’으로 피살된 후 그 동생 凡察은 둘째 조카인 董山과 함께 建州女眞의 중요 지도자가 되어 部民들을 이끌고 조선 경내인 阿木河에 거주하였다. 明은 이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고 노력하였는데 이러한 기미정책은 조선 世宗의 여진 凡察部에 대한 초무 정책과 모순하여 충돌이 발생하였다.

凡察部는 일단 조선 영내에 거주하였지만 조선과의 관계가 썩 좋지 않았다. 가장 큰 원인은 조선이 慶源, 鏡城 등지로 도망쳐 온 여진인 및 漢人들을 明의 遼東으로 송환하여 凡察部가 부릴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凡察은 몇 차례 慶源, 鏡城 등지의 사람을 노략질하여 노비로 부렸고 조선 역시 북진정책을 순조롭게 실시하기 위해 여진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고 시도하고 있었다. 압록강 지류인 婆猪江 지역에 살고 있던 李滿住는 조선에 몇 차례 침입하였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凡察에게 이주하여 함께 조선에 대항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에 凡察은 1437년 요동의 婆猪江 지역으로의 이주를 허락해줄 것을 명에 청원하였고 이듬해 明 英宗은 이를 받아들였다. 英宗의 勅諭를 받은 조선은 크게 놀라 凡察의 이주 기도를 막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는 한편 명에게는 그들이 계속 조선 영내에 머물도록 해 줄 것을 청원하였다. 英宗은 凡察을 불신하는 동시에 조선쪽으로 기울어 있었으므로 이 요청을 허락하여 凡察部가 계속 조선에 거주하도록 하였다. 세종은 재발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凡察에 대해 회유와 설득을 행하였다. 이에 凡察은 조선을 섬길 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뿐 아니라 李滿住에게도 사람을 보내 조선 영토로 이주하도록 권유하겠다는 의욕을 보였다. 다시 1439년 李滿住가 명에 凡察의 죄상을 고하자,

명 조정은 조선에 凡察部와 그들에게 도망쳐 들어간 人戶를 명으로 호송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역시 조선의 반박을 받아들여 이를 중지하였다. 세종이 명과 凡察부 여진의 관할권을 쟁취하기 위해 노력한 것은 바로 태종 이래의 북진정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한 것이었다.

凡察部の 이주를 둘러싼 분쟁은 이로서 일단락 지어졌지만 李滿住의 지속적인 회유, 속적 ‘野人’의 위협과 조선 군대의 소란으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 凡察은 다시 명에 이주를 청원하였다. 하지만 명은 이 청원을 재차 거절하였다. 이에 凡察과 조카인 董山은 명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명의 영내로 옮겨갈 것을 결심하였다. 凡察은 조선에 토산물을 계속 바치는 한편 물래 行裝을 수습하여 이주를 준비하였다. 1440년 4월 凡察은 300여 호의 부민을 이끌고 도주하였다. 조선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추격하였지만 그들은 자산과 馬畜을 모두 버리고 조선의 명령으로 설득을 시도한 兀良哈, 都乙溫의 권유도 거절하고 결국 6월 李滿住와 합류할 수 있었다.

凡察의 행동에서 이들은 중국의 소수민족으로 마음이 중국으로 향하는 것은 여진의 민족 ‘天性’임을 볼 수 있다. 동시에 이들이 내친한 것은 조선에 멸망당하는 것을 피하고 더욱 좋은 생존과 발전을 위한 것이었다. 이는 또한 여진인들의 단결과 강대함이 객관적으로 조선의 지속적인 북상을 저지한 것으로 조선 북진정책의 커다란 실패라 할 수 있으므로 그 역사적 의의는 무시할 수 없다. 凡察의 이 행위에 대해 명은 이전에 비해 관대한 태도를 보였다; 일면으로 凡察 등에게 다시 조선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하였지만 또 한편으로 세종에게도 그들이 돌아갈 경우 관대하게 대우하고, 만약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조선 변경을 소란스럽게 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둘 것을 권유하였다. 즉 명은 실제로 凡察과 이만주 등 이 요동에 함께 사는 것을 묵인한 셈이다. 建州左衛女眞이 이만주와 합친 이후 그 세력이 점차 강대해지면서 조선의 불안감을 더욱 불러일으켰다.

凡察이 명으로 옮겨 돌아오면서 조선군의 추격으로 170여 호가 조선에 구류되었으므로 凡察은 명에게 인구를 놓아 돌아오는 것에 간여해줄 것을 희망하였다. 명은 구류한 여진인이 있으면 놓아서 돌아올 수 있게 하고 자의로 조선에 남아있는 경우 이들을 잘 돌보아 줄 것을 조선에 요구하였다. 조선은 이에 대해 凡察이 있지도 않은 일을 만들어 무고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그들의 조선에서 행한 각종 패악을 기술하고 그들을 조선으로 돌려보낼 것을 제기하였지만 명은 이에 대해 답하지 않았다. 凡察이 명 경내로 돌아온 후 도망친 노비 문제로 조선과 여진히 갈등이 있었다. 이 때문에 凡察은 건주 병사들을 이끌고 조선을 공격하였으므로 명은 적극적으로 양자 간의 갈등 조정애 나섰다. 凡察에게는 조선 국경을 범하지 말 것을 권하는 한편 조선에게는 凡察이 명의 권유를 듣지 않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후에도 이들의 조선 침범이 그치지 않자 명 영종은 여러차례 조선에게 변경 충돌 중 사로잡은 여진인들을 적절하게 처리할 것을 권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변강 방어에 임하여 凡察의 진공을 막을 것을 요구하였다.

명은 여진인에 대해 민족적 편견이 존재하였으므로 조선측에 기우는 경향을 보인다. 명이 자신에게 속한 소수민족을 이처럼 편견을 가지고 대우하였으니 이웃 국가인 조선이 건주인들을 경시하였을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세종 말 조선은 여진 세력이 쇠퇴할 때 무력을 동원하여 계속하여 압록강 두만강 지역으로 확장을 계속하는 동시에 우대 조치를 채택하여 한반도 동북부 서북부에서 여진인의 추무에 힘썼다. 동북육진과 서북사군의 개척을 통해 조선은 압록강 남안 지역은 모두 조선 판도에 편입되

었다.

凡察은 大明 휘하의 지방 관원으로 명 정부와 정치 경제 문화적 연계를 강화하기를 희망하였으므로 거듭된 저지를 뚫고 명 영내로 돌아왔다. 명은 여진인에 대해 어느 정도의 민족적 편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조선과 건주여진의 관할권에 대해 쟁탈전을 벌였으며 국가의 통일과 변경의 안전을 유지하고 조선이 계속 북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문제를 겨냥한 많은 조치들을 시행하였다. 세종은 자신의 이익을 유지 하려는 고려에서 凡察 등 건주여진 수령들에게 기미정책을 시행하고 각종 수완을 발휘하였으며 두만강 일대의 여진 부락들이 조선에 귀속하도록 힘써 노력하여 북진 정책을 순조롭게 실시하려고 하였다. 결국 凡察部民이 조선 영토 내에 머물도록 만류하는 것에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이 틈을 타 영토를 개척하여 북방을 개척하여 확보하는 것을 순조롭게 실시할 수 있었다.

건주여진 凡察部와 조선왕조의 관계에 대한 심화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당시 동북아 지역의 민족관계 및 국제관계의 발전 변화를 드러내는 데에 유리하다.

### “新城”即“平壤”質疑-兼說“黃城”

劉子敏, pp.11~15

저자는 최근에 중국 고구려 학계에서 발표된 여러 편의 논문(孫仁傑 등의 「集安良民高句麗遺跡調查」, 張福有의 「高句麗第一個平壤城在集安良民即國之東北大鎮-新城」, 孫仁傑 등의 「鴨綠江上遊右岸考古調查」, 張福有의 「高句麗平壤東黃城考」 등)에서 주장하는 “신성”이 곧 ‘평양’이며 이 둘은 모두 ‘良民古城’에 있다는 견해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하려고 한다.

우선 ‘良民古城’은 고구려의 ‘國之東北之大鎮-新城’이 아니다. 그 이유로는 ① 양민고성의 규모가 남북 350-400m에 불과한 작은 규모의 성이라는 점, ② 『자치통감』의 기록에 따르면 신성은 고구려의 서북 쪽에 있다는 점, ③ 양민고성의 위치가 신성이 갖추어야 하는 모용씨의 공격을 방어하고 요동지역으로 진출하기 유리하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점, ④ 양민고성이 고구려에 의해 축조된 것인가에 대해 명확한 실증이 없다는 점 등이다. 이것으로 미뤄 볼 때 양민고성은 고구려의 신성이 아니다.

신성과 평양은 같은 성이 아니다. 일부 연구자들이 첫 번째 신성을 언급할 때 신성을 고유명사로 보지 않고 보통 명사로 이해했다. 이에 고구려 동천왕 21년에 첫 번째 평양성을 건축했다는 것에서 평양과 신성을 하나의 서로 통용되는 관계로 인식하였는데 이러한 시각은 매우 이상하고 실제와도 맞지 않다. ① 신성과 평양을 같은 것으로 이해할 때 『삼국사기』와 같은 역사문헌의 해석상에서 모순이 생긴다는 점, ② 문헌기록에 따르면 평양성에는 궁성과 같은 건축물이 있다고 되어 있지만 ‘國內城’에는 궁전 건축 유적지와 유물이 발굴된 반면 양민고성에는 어떠한 고고학적 유물도 발굴되지 않았다는 점, ③ 양민고성 지역이 규모도 협소하고 전략적 위치도 좋지 않아 集安市와 비교할 때 국가의 수도로 삼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는 점 등은 신성과 평양성이 동일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黃城을 樺皮甸子古城을 보는 견해를 근거로 양민고성을 고구려의 첫 번째 평양성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①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고국원왕 13년 7월조에 있는 “移居平壤東黃城, 城在今西京木覓山中”에서 ‘移居’의 해석을 잠시 피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과 ‘今’의 의미를 포함하지 않는 해석은 잘못된 것이라는 점, ② 樺皮甸子古城의 위치가 매우 외진 곳에 있기 때문에 고구려 고성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많다는 점이 그 이유이다.

그럼 고국원왕이 증축했다는 평양성은 어디에 있는 성인가? 고구려가 남하를 결정한 후 한반도 서북 지역으로 발전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했을 것인데 그것의 하나가 평양성을 증축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고국원왕이 증축한 평양성은 平原城, 즉 王儉城故址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황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집안 東臺子說과 평양 靑岩裏古城說이 있는데 후자가 더 합리적으로 보인다.

백제와 함께 전쟁을 벌였던 '평양성'은 대동강 북안의 평양성이다. 고구려가 백제와 싸움을 했던 평양성을 양민고성으로 보는 견해는 당시 실정에 맞지 않는 견해로 백제가 고구려 내지를 지나 양민고성까지 가기도 힘들뿐더러 그럴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 東胡系民族及其終結民族-蒙古族的民族性格淺析

樂凡, pp.36~39

동호계 민족은 戎과 狄 두 계통의 민족이 융합되어 만들어졌다. 주로 山戎, 東胡, 鮮卑, 烏桓, 勒勒奚, 契丹, 烏洛渾, 室韋, 蒙古 등의 민족이 이에 해당된다. 이들 族系의 대표 민족으로는 東胡, 鮮卑, 奚, 契丹과 蒙古 등이 있고 그 종결 민족은 몽고족이다.

동호계 민족은 유목과 수렵을 위주로 생계를 유지했던 민족이다. 이들은 오랜 시간 동안 寒風氷雪과 맞서서 삶을 유지했고 이러한 환경은 유목민족의 의지를 더욱 강하게 단련시켰으며 그들의 몸과 마음을 더욱 강대하게 발전시켜 어려움을 잘 참고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을 배양시켰다. 푸른 하늘과 끝없는 초원은 그들의 솔직하고 명랑하면서 낙관적인 성격을 만들었다.

무예를 숭상하는 기풍은 동호계 민족들의 공통된 성격이다. 전쟁에서 죽은 자들에게는 다른 사망자와 달리 관을 만들어 주고 더욱 성대하게 장례를 치러주었다. 오환인들은 성격이 매우 강직하고 強悍한 성격을 갖고 있어 화가 심하게 나면 자신의 아버지와 형제들을 죽이기도 했다. 해인들은 사냥을 잘하고 노략질을 하기도 했다. 거란인들은 더욱 寇盜하기를 좋아하여 잘 빼앗는 것을 용감하다 여기기도 했다. 勇武를 숭상한 나머지 우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 부모가 죽어도 울지 않았다. 흥노와 선비들도 이와 비슷한 습속을 가지고 있었다. 몽고족도 용무를 숭상하였는데 그들의 역사서인 『몽고비사』에는 13세기 전후의 몽고 부족들이 벌인 전쟁의 웅장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유목민족의 생활 모습과 역사 사실 및 민족 성격들을 보여주고 있다. 몽고족의 용무를 숭상하는 모습은 민족문화의 소재로도 자주 이용되었다. 몽고 사회가 계급사회로 발전한 이후에는 계급투쟁과 민족투쟁의 모습에서 용무를 숭상하는 성격이 확인된다. 억압에 반대하고 저항하는 지혜와 聖名을 갖춘 영웅의 출현은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동호계 민족들은 용무를 숭상했을 뿐만 아니라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독특함을 보이는데 유목민족 특유의 직설적이고 솔직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민족 영웅의 성격은 그 민족의 성격을 잘 표현해주는 예가 되기도 하는데 몽고족의 영웅 징기스칸이 갖고 있는 강인함과 호탕함, 惡意를 싫어하는 성격은 몽고족의 성격을 대변해주고 있다. 또한 몽고족의 장편 영웅 서사시인 「江格爾」의 주인공 또한 몽고족의 영리하고 위풍당당하며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어 사람들의 추대를 받는 모습도 몽고족의 성격을 보여주는 예 중 하나이다.

몽고족은 예의를 중시하는 민족으로 그들이 유지한 여러 가지 예의규정 속에는 몽고민족의 순박함과

손님맞이하는 것을 즐기는 성격이 잘 드러나 있다. 일상생활에서 그들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하다(스카프 모양으로 된 하얀색의 천)’를 건네주어 친절한 말투로 축복을 빌어주고 밀크차를 권한다. 또 존경과 존중의 뜻으로 술을 권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연회를 열 때에는 신에 대한 경배도 잊지 않았다. 이처럼 몽고족들이 손님맞이하는 것을 매우 좋아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들은 손님을 접대할 때도 노인을 존경하고 어린이를 보살피는 예절을 잊지 않았고 노래를 불러 손님을 즐겁게 해주기도 했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손님을 접대하는 아름다운 풍속은 현재까지도 남아 전해오고 있다.

몽고족은 중국 최초의 중원지역을 통일한 유목민족이었다. 원나라는 소수의 무력자가 다수의 한족 집단을 경영한 국가였다. 이는 야만적인 수준의 유목민족 문화가 발달한 문명지역을 정복한 것이다. 몽고족은 이러한 거대한 선진문명지역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하여 농경문화를 배우기도 했지만 그에 못지 않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강인하고 진취적인 고유의 기상을 잃어버리지 않으려 했다.

## ■ 2008년 제2기

### 《三國史記·高句麗本紀》史料價値辨析-以高句麗和中原王朝關係的記載爲中心

李大龍, pp.11~20

근래 高句麗 연구는 학계의 주목을 받아 많은 논저들이 발표되고 있지만 약간의 문제가 있다. 특히 『三國史記』 「高句麗本紀」(이하 本紀)의 기록을 지나치게 믿어 중국 史書와 모순이 생기는 경우 오히려 중국의 기록을 부정하는 태도는 두드러진 문제이다. 本紀에 대해 전면적이고 시스템적인 연구를 진행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은 학계의 당면한 중요 과제이다. 본고에서는 高句麗와 할거 정권을 포함한 中原王朝와의 관계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本紀의 원사료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여 필자의 本紀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本紀는 총 10권 704조의 기사로 구성되어 있다. 그 내용은 ① 고구려의 형성과 발전 상황(309조, 44%) ② 고구려와 중원왕조의 관계(287조, 41%) ③ 자연현상(101조, 14%) ④ 金富軾의 ‘論曰’(7조, 1%)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형식상으로는 ①②가 本紀의 주체를 이루고 있지만, 약 4만 1000자에 달하는 내용 중 ②가 약 2만 2000, 총 글자수의 53.66%으로 내용상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점하고 있다. 따라서 이의 고찰을 통해 本紀의 사료적 가치를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1-5권은 中國 史書와 모순된 점이 가장 많고 6-10권은 『資治通鑑』(이하 通鑑)을 중심으로 중국 史書를 대량으로 초록하고 있다.

1-5권은 기원전 37년에서 331년까지의 역사로 거의 모든 기사가 중국 기록과 크고 작은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첫째, 빠진 내용이 너무 많다. 本紀는 前漢 관계 기사가 아예 없이 王莽에서 시작하며 고구려를 魏의 高句麗縣이 직접 관할한 역사 사실도 빠져있다. 또 孫吳와 적어도 4차례 사신 왕래가 이루어졌지만 孫吳가 마지막으로 보낸 것만을 적었고 특히 孫吳에 稱臣한 사실을 적지 않았다. 둘째, 남아있는 中國 史書의 기록과 심각한 모순이 존재한다. 특히 王莽 정권의 고구려왕 살해와 관련하여 金富軾은 살해 대상을 일부러 왕에서 장수로 바꾸어 놓았다. 셋째로 고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초록하면서 멋대로 고쳐 적은 부분이

존재한다. 本紀, 卷2 慕本王 2년 기사처럼 다민족이 행위의 주체가 된 기사를 고구려정권의 행위로 고쳐 기사의 원래 성격을 바꾸고 고구려 정권의 이미지를 높였다. 그 결과 고구려가 계획적인 군사적 공격을 감행하였고 匈奴와 대등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인식을 주고 있다. 또 本紀에는 中國 史書에 없는 기사가 있다. 하지만 이런 기사 역시 本紀 卷1의 鮮卑와의 전쟁 기사나 卷3의 太祖王 연간 遼西 築城 내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해석하기 곤란한 문제들이 많이 존재한다.

本紀 기사에 이러한 문제가 생겨난 원인은 네 가지이다: ① 金富軾이 저본으로 삼은 『海東古記』(이하 古記) 중의 일부 기록이 다른 史書에 보이지 않고 또 다른 참고할 만한 자료가 없을 때 그대로 인용. ② 古記와 中國 史書 사이에 모순이 있을 때 고증을 하지 않았거나 의문을 제기하기는 했지만 결국은 古記의 기록을 채용. ③ 中國 史書를 인용하는 동시에 김부식이 일부 주관적인 변경을 가하였거나, ④ 中國 史書의 관련 기록을 폭 넓게 수집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本紀는 관련 기록의 전체 내용을 포괄할 수 없게 되었으니 그 밖에 당연히 金富軾이 中國 史書의 관련 기록을 고의로 회피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本紀의 중원 왕조 관련 기사 중 6권 이하의 기사는 中國 사서 특히 通鑑을 주로 抄錄한 점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초록하는 형태에는 아래의 몇 가지 방식이 있다. 먼저 분량이 많은 通鑑의 기사를 줄이고 약간의 변경을 가한 경우이다. 本紀의 南北朝時代부터의 기록은 通鑑을 거의 그대로 초록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다. 두 번째는 通鑑의 기록을 저본[藍本]으로 삼고 다른 中國 사서의 기록으로 삭제하거나 보충하는 것이다. 세 번째 방법은 中國 사서의 「高句麗傳」이나 「高麗傳」의 내용을 약간 고치거나 삭제하여 초록하는 것이다. 당연히 通鑑이나 「高句麗傳」 외의 기타 紀傳의 내용을 초록한 경우도 있기는 하다.

전체적으로 本紀의 고구려와 중원왕조 관계 기사 중에서 절대 다수는 중국 사서를 초록한 것으로 전체를 옮겨 적거나 줄여서 옮겨 적거나 혹은 일부만 초록한 후 이를 바탕으로 일부 자구의 변경을 진행하였다. 이것이 고구려본기의 관련 기록의 커다란 특징이다.

중원 왕조와 관련한 기사 대부분이 중국 사서를 초록한 까닭에 本紀에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① 중국 사서보다 더 많은 새로운 내용이 있어야 하지만 그 점이 결핍되어 있다. ② 일부러 바꾸거나 삭제하면서 기사가 불완전하게 만들었다. ③ 일부러 바꾸거나 삭제하면서 사람들이 고구려 역사를 인식하는 데에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낳았다.

이전 사람들의 저작을 초록하는 것은 고대에 보편적인 현상으로 현대 역사학의 학술 규범을 들어 가혹하게 추궁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초록을 기초로 수정 가공하는 것은 이전 사람들의 다양한 기록을 종합 분석한 기초 위에서 더욱 완전하게 하고자 하는 것인데 本紀의 기사는 이런 점이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더욱 많은 새로운 문제를 증가시켰다. 이것이 『三國史記』가 나온 지 30년도 되지 않아 중국에 전래되어 왔음에도 오랫동안 역사가들의 중시를 받지 못한 중요한 원인일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本紀는 사료적 가치가 매우 낮으며, 이 책이 한반도 '학자'의 손에서 나왔다는 이유로 그 기록은 매우 신뢰할 만하다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 高句麗政治制度的性質, 特點及成因

劉炬, pp.21~27

고구려 정치제도는 고구려 국가의 건립과 함께 시작된다. 고구려 정권은 동북의 지역 정치 형세가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한 결과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어, 고구려 정치제도의 발전은 결국 동북지역 정세의 변화와 관련을 맺는다고 할 수 있다.

고구려는 기원전 37년 부여의 왕자인 주몽이 졸본지역으로 내려와 현지 거주민들과 함께 건설한 국가로 이 당시 동북지역에는 東胡, 肅慎, 濊貊 3개 계열의 민족이 거주하고 있었다. 고구려 건국 이전 동북은 이들 세 민족이 三分하고 있는 형세였다. 이들 사이에는 점차 질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변화는 한나라 무제가 위씨조선을 멸망시킨 후 이 지역을 통치했다가 그 통치력이 점차 미약해지는 상황에서 비롯되었다. 세 민족 사이의 관계 변화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① 각 부족들 사이의 상호 접촉이 늘었다. ② 漢의 군현제 실시 이후 중원지역의 사유제 관념이 동북지역으로 유입되었고 이로 인해 각 부족들 사이의 경쟁심리가 크게 증대되었다. ③ 한나라가 위씨조선을 멸망시킨 이후 한나라의 국력 약화에 따른 동북 지역에 대한 통치력 쇠퇴는 이 지역에 권력 공백 현상을 출현시켰다. 동북 지역에 대한 한나라의 영향력이 약화되자 동북지역에서는 통일된 권력집단의 출현에 대한 기대가 증가되었다. 이 때 걸출한 정치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가 바로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이다.

졸본지역에서 건국한 고구려는 역사서에서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하며 노략질하길 좋아한다”고 묘사된다. 이것은 고구려가 부여인의 문명사회적 통치방식과 졸본지역 토착인들의 용맹함을 적절히 결합했음을 보여준다. 주몽과 그 자손들은 이러한 특징을 최대한 활용해 무력으로 주변지역을 정복하고 세력화했다. 주몽이 형성한 정치집단의 성질에 대해 크게 두가지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주몽이 건국한 직후 고구려는 국가 단계로 진입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몽의 건국은 단지 고구려 사회가 국가 단계로 진입하기 위한 과도단계로 6대 왕인 太祖王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완성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여기서 말하는 ‘고구려 정권’은 두가지 의미를 갖는데, 하나는 주몽이 건국한, 훗날 5부 중 하나인 桂婁部の 전신에 해당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계루부가 핵심이 되고 5부가 주체를 이루는 고구려 연맹을 지칭한다. 그런데 주몽이 건국한, 계루부 전신 권력집단이 이미 ‘왕권의 절대화’를 이루고, ‘家天下’제도를 완성했을 뿐만 아니라 공공권력을 창출해 냈다는 점에서 국가 단계로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고구려 정권의 건립은 기원전 37년, 주몽의 건국시기에 이루어졌다고 봐야 한다.

고구려의 정치제도는 고구려 건국 이후 발전되어가는 과정에서 여러 요소들의 영향을 받으며 변화했다. 첫 번째 요소로는 각 部의 이익과 결합된 각종 정치 이념 사이의 충돌에 의한 영향이다. 5부 중 계루부는 나머지 4개의 부와는 다른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계루부의 경우는 중원의 군주 집권 정치 이념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에 반해 나머지 4부는 전통적인 민주 관념을 갖고 있었다. 결국 두 개의 서로 다른 이익집단의 존재는 필연적으로 두 개의 정치 이념이 충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두 번째 요소는 자연환경의 영향이다. 열악한 자연환경은 고구려의 경제적 발전에 장애적인 요소로 작용했고 교통 상황도 어렵게 했다. 이러한 상황은 고구려 전역에 걸쳐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정치 영향력이 행사되기 힘들게 했고 지방정권의 독립성이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것은 왕권과 강력한 귀족권력이 공존할 수 있는 기초가 되었다. 세 번째 요소는 외부 압력에 의한 영향이다. 고구려는 건국 이후 선비족과 숙신계 읍루 및 부여인들의 위협을 받았다. 정치 연합의 방식으로 여러 부족을 응집시켜 주변민족에 저항한 후에는 다시 중원의 거대 정치 세력의 압력을 받았다. 외부의 압력은 고구려가 분열되지 않고 장기간 존재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고구려 정치제도는 여러 사회적 요소가 영향을 미치는 환경 속에서 형성되어 발전했다. 앞서 언급한 세가지 주된 요소들의 상호 영향 하에서 고구려는 자신들만의 특색 있는 정치제도를 완성해갔다.

## 百濟遺民《禰寔進墓誌銘》關聯問題考釋

拜根興, pp.28~32

현재까지 백제 유민에 대한 몇몇 묘지명이 발견되고 적지 않은 관련 연구가 이어져 왔다. 최근에 발견된 「禰寔進墓誌銘」은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西安市 長安區 郭杜鎮-서안시 大學城 지역-에서 발굴된 것으로 알려진 이 묘지명의 구체적인 발견 과정은 현재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2000년 이래로 서안에서 ‘大學城’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어 낙양으로 옮겨진 것으로 보인다.

禰寔進은 『구당서』 권83, 「소정방전」에 등장하는 禰植과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크다. 禰植이 唐으로 넘어온 이후의 행적에 대한 문헌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그 정확한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방증 사료가 이러한 추측을 가능케 하고 있다. 禰寔進은 묘지명의 기록에 따르면 백제에서 ‘左平’이라는 높은 관직을 역임했고 唐에서도 ‘左威衛大將軍’이라는 정3품의 고관을 지낸다. 또한 당시 金日磾, 由餘 등과 같이 거론될 정도로 功勳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그가 당나라의 백제 멸망 전투에서 공을 세웠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만약 禰寔進과 禰植이 형제관계였다면 묘지명에 조부와 부친에 관한 언급이 있듯이 형제에 대한 내용도 있음직하지만 아무런 기록도 없다. 또한 이 둘이 형제라면 당에서 고관을 하사할 때 한 명에게만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禰寔進의 ‘寔’과 禰植의 ‘植’은 한국어 발음상 동일하다는 점. 백제에서 당으로 들어온 禰植이 중국사람들의 이름이 성을 제외한 2자로 된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고 자신의 이름을 두자로 바꾸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 당시 백제 부흥 운동이 발발하고 당나라 지역내에 백제 상층 귀족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신의 신변 안위를 위해서라도 이름을 바꿀 필요가 있었다는 점 등은 禰寔進과 禰植이 동일 인물이었을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

묘지명에 따르면, 鹹亨 3년 萊州 黃縣에서 ‘行薨’했다는 기사가 있다. ‘行薨’에 대해 일부에서는 禰寔進이 고구려 유민들을 按撫하기 위해 萊州로 가는 도중에 사망했다고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總章 2년에 이미 萊州 지역 고구려 유민들을 다른 지역으로 옮겼다는 기사가 있고 설사 그것이 실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방에 거주하던 고구려 유민에 관한 업무는 지방관리의 소관으로 중앙에서 관리를 따로 파견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힘들다. 당시 唐이 백제를 멸망시키고 그 지역에 기미부주를 설치했지만 신라의 견제를 받아 영향력을 행사하기 힘들게 되자 군대를 파견해 무력을 증강했다. 이때 구 백제 지역과 당을 오가는 관부가 萊州에 집결했다는 점은 禰寔進이 구 백제 지역 문제와 관련해 萊州로 갔던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한편 ‘行’에 대한 해석이 두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구 백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오는 중이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구 백제 지역으로 나아가 웅진도독부를 지원하려 가는 중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보면 ‘行’은 ‘行營’ 혹은 ‘行軍’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외에 묘지명에서 禰寔進의 자녀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은 의자왕의 신하로써 주군에 반하는 행동을 한 자신의 처지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거란인 이진충과 孫萬榮이 營州에서 일으킨 反唐반란은 당나라 역사상 중요한 사건으로 비록 그 지속 시간이 길지는 않았지만 당 왕조에 끼친 충격은 매우 컸다. 이를 계기로 북방지역과 동북지역의 민족 관계가 더욱 복잡해지게 되었고 요녕과 화북지역 및 동북 지역 전체에 걸쳐 악성적인 연쇄반응이 일어나게 되었다.

거란족은 동북 지역 토착 민족인 東胡의 지류인 鮮卑의 후예로 西遼河 상류 지역에서 흥기했다. 北魏 시대에 柔然의 압박을 받아 일부가 지금의 요서 大凌河 하류인 白狼水 동쪽 지역, 지금의 요녕성 阜新과 彰武 일대로 옮겨갔다. 북조시대에는 北齊군대의 공격을 받아 부락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일부는 돌궐에 귀속하거나 고구려에 귀의하기도 했다. 수나라가 통일을 이루자 거란족은 다시 새로운 정권에 귀속해 옛 땅으로 옮겨왔다. 唐 시기에 거란이 크게 강성해지는데 초기에 唐朝는 朝陽 지역에 기미주를 설치하여 거란인들을 그곳에 거주시켰다. 무덕과 정관 연간에 營州 내에 기미주 遼, 昌, 帶, 師州 등이 설치되었다. 정관 19년, 당 태종이 요동을 정벌할 때 당시 거란과 庫莫奚의 수령들이 부족을 이끌고 당의 고구려 공격을 도왔다. 당이 班師할 때에 태종은 營州에서 窟哥와 다른 거란 노인들을 불러 물품을 하사하고 굴가를 左武尉大將軍으로 임명했다. 굴가가 松漠都督에 임명된 후에는 10개의 州를 휘하에 두었다. 이것은 북위 시기 이후 이어져 오던 거란 8부로 구성된 것으로 峭落州, 彈汗州, 無逢州, 羽陵州, 日連州, 徒河州, 萬丹州, 匹黎州, 赤山州와 도독부의 大賀氏州를 합해 총 10개가 있었다. 이들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기는 힘들지만 대략 지금의 요녕성 서부 朝陽市 북쪽과 동북 지역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거란 松漠都督 窟哥가 죽자 阿不固가 송막도독이 된 후 奚人們과 연합하여 당나라에 반기를 들었다. 唐의 行軍總管 阿史德樞賓이 그를 사로잡아 참수했다. 이후 당은 이진충을 武衛大將軍 송막도독으로 봉했다. 무척천 萬歲通天 원년(696) 5월, 송막도독 이진충은 妻兄인 孫萬榮과 함께 거란인들을 이끌고 반란을 일으켰다. 반란군이 營州都督을 살해하고 영주를 점령하자 요서지역이 큰 혼란에 빠졌다. 이진충 등의 반란군은 거란과 奚 등 소수민족들의 호응을 얻어 20일이 채 안되어 수 만명으로 늘어났다. 영주를 점령한 이진충은 스스로를 無上可汗으로 칭하고 손만영을 선봉으로 삼아 주변 지역 세력을 규합했다. 이에 당 조정은 曹仁師, 張玄遇 등을 파견해 진압했지만 큰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던 중 이진충이 사망하게 되고 손만영이 그를 대신해 거란족을 이끌고 하북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손만영의 지휘를 받는 거란 반란군은 돌궐 默啜可汗의 공격을 받아 수세에 몰리게 되었다. 돌궐의 공격을 받자 손만영의 휘하 奚人們이 배반을 하여 결국 손만영의 반군은 붕괴되고 대부분이 돌궐에 투항하였다. 이에 일년여 동안 유지되었던 거란의 반란은 평정되었다.

이진충의 난은 요녕과 화북 및 동북 지역에 악성적인 연쇄 반응을 일으켰다. 첫 번째로 庫莫奚가 이진충의 난을 기회로 삼아 북방 지역에서 오랜 동안 동란을 일으켰다. 두 번째는 이진충의 난이 영주지역 말갈인들의 반란과 도망을 초래했다. 당의 고구려 정벌 이후 고구려 지배하에 있던 속말갈의 상층민들이 영주 부근 지역으로 유입되어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혼돈을 틈타 당나라의 지배를 벗어나려 했다. 세 번째로는 비록 이진충의 난이 유지되었던 시간은 길지 않지만 그 영향이 미쳤던 지역이 매우 넓었던 탓에 다수의 무고한 사람들이 군사적 공격과 약탈을 당했다. 마지막으로 당나라가 동북지역에서가 유

지했던 통치질서가 이진충의 난을 계기로 파괴되었고 동북지역 소수 민족들 간의 갈등 관계가 더욱 복잡하게 되었다.

## 渤海政權遷都考述

桑秋傑·高福順, pp.37~42

15代 229년에 걸친 존속 기간 중 발해가 여러 차례 천도를 거듭한 점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현상이다.

첫 수도인 '舊國'은 敦化市 儒賢鎮 城山村 山子山城으로 비정된다. 舊國에 도읍한 이유는 주로 建國과 수도 선정에서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이다. 敦化 분지가 長安과 멀리 떨어져 있고 발해 서부에는 突厥汗國이 병풍 역할을 하여 唐은 토벌할 수 없었다. 또 남쪽의 신라는 발해를 공격하기 곤란한 상황이었으며 북쪽의 靺鞨은 멀리 떨어져 있고 아직 원한 관계에 있지 않았다. 또 이 지역은 예전 粟末靺鞨의 활동지역으로 인문사회적 기초와 사회경제적 기반이 튼튼한 반면 지방정권 세력이 존재하지 않았고 강대한 부족도 없었다. 지리적으로도 경지와 목지가 풍부한 반면 공격에 나서기 좋고 방어에 유리하여 갖 성립한 지방정권이 도읍을 두기에 이상적인 지역이었다.

天寶年間 천도한 발해의 두 번째 도읍은 顯州=中京顯德府(길림 和龍市 西古城子)였다. 이 곳으로 천도한 것은 층적 평원지대로 경제적 기초가 튼튼하고 발해의 중요한 무역항 중의 하나였기 때문이다. 또 武王의 靺鞨 정벌로 북방의 형세가 잠시 안정된 반면 신라는 발해의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다. 따라서 文王은 정치 중심지를 남쪽으로 옮겨 신라 대응에 정력을 집중하는 동시에 일본과 우호관계를 증진하여 신라를 견제하였다. 그 결과 발해와 신라의 긴장관계는 확실히 완화되기에 이르렀다.

세 번째 도성인 上京龍泉府(755년 천도)는 매우 우월한 지리적 위치와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었고 때 마침 일어난 安史의 난에 따른 중원의 전란을 피하기에도 유리하였다. 또 신라와의 관계 개선으로 남쪽 변경이 안정되었으므로, 文王은 大祚榮 이래의 방침인 북방 흑수말갈에 대한 경략에 집중하기 위해 북쪽으로 천도한 것이다. 그 결과 말갈을 복속시켜 후방기지의 안정을 이룰 수 있었다.

文王 말년(785) 東京龍原府로 네 번째 천도가 이루어졌다. 동쪽으로의 이 천도는 주로 일본 등 국가와의 지속적인 상호 交聘의 편리함을 위한 것이었다. 발해가 국가 안정을 이루면서 국내외적으로 더 이상 현실적인 위협 요소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대외 교류에서도 정치 군사적 요소가 점점 줄어들고, 경제 문화적 교류 특히 무역이 주요한 지위를 차지하기 시작하였다. 발해의 대외교역은 중원 왕조·신라·일본이었는데 文王은 일본과의 경제 문화적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日本道'의 기점인 東京으로 천도를 결정한 것이다.

중국 역사상 각종 조건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수도는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수도 선택은 각 시기의 총체적 형세 및 요구를 반영하여 이루어졌다. 반대로 國都의 위치 역시 이후 역사 발전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 발해의 천도 역시 각 발전 단계에서의 경제·군사·지리적 상황 및 동북아 형세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발해정권은 국내의 형세 변화에 근거하여 때에 맞추어 도성의 소재지를 조정함으로써 국내외를 제어하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발해의 천도는 수많은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준 결과이며 이는 발해 역사 발전의 필연이라 할 수 있다.

2001년부터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등이 丸都城에 대해 대규모 발굴 조사를 행한 결과로 많은 고구려 瓦當이 발견되었다. 본고는 조사보고서인 『丸都城』을 기초로 그 이전에 발굴된 瓦當을 포괄하여 고찰하였다.

#### • 유형학적 고찰

瓦當은 문양에 따라 크게 蓮花紋 獸面紋 및 忍冬紋瓦當으로 나누어진다.

연화문瓦當: 연꽃잎은 四瓣·六瓣·八瓣·九瓣의 4종류가 있으며 當心은 반구체형 꼭지가 튀어나와 있다. 蓮花紋瓦當은 當面の 배치형태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A형은 연꽃잎의 多少 및 瘦長의 정도 등 當面 배치에 따라 다시 두 개의 하위 형태[亞型]로 나뉜다. Aa형은 六瓣條狀蓮瓣蓮花紋, Ab는 瘦長蓮瓣蓮花紋으로 八瓣과 九瓣으로 나뉜다. B형은 肥碩蓮瓣蓮花紋으로 八瓣과 九瓣형이 있다. C형은 雙邊蓮瓣蓮花紋으로 六瓣·八瓣·九瓣으로 나뉜다.

獸面紋瓦當은 當面の 배치에 따라 十齒珠狀舌人字型額火焰形眉獸面瓦當, 十二齒條狀長舌火焰額獸面瓦當, 十二齒無舌乳釘額卷曲眉獸面瓦當, 十三齒無舌火焰眉連珠紋獸面瓦當의 4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앞의 두 형태가 비교적 많이 발견되며 궁전 지역 1·2호 문터와 조망대에서 보인다.

忍冬紋瓦當은 발견된 것이 비교적 많으며 모두 얇게 부조되어 있다. 인등 가지의 형태로 粗狀型 忍冬紋과 縹細型 忍冬紋으로 구별된다.

#### • 幾點思考

① 瓦當의 용도: 산성의 瓦當은 모두 붉은 색인 반면 왕릉 지역의 것은 모두 회색이나 짙은 회색이다. 필자는 회색의 卷雲紋瓦當과 蓮花紋瓦當은 주로 왕릉 등의 건축에 사용되고 붉은 색의 蓮花紋瓦當, 忍冬紋瓦當과 獸面紋瓦當은 궁전 사직 종묘 관서 등의 건축에 주로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瓦當의 산성 및 궁정 지역의 분포 상황: 1호문의 터 및 궁전 유적에 비교적 밀집되어 있고 전망대 등에서도 약간 발견되었다. 궁전 지역에서는 獸面紋瓦當이 가장 많고 분포도 가장 넓으며 蓮花紋瓦當이 그 다음, 忍冬紋瓦當이 가장 적다. 이는 故國壤王 때 만들어진 왕실의 사직·종묘터로 추정되는 東臺子유적에서 蓮花紋瓦當, 忍冬紋瓦當, 獸面紋瓦當의 순으로 발견된 것과 비교된다.

丸都城의 안에서 이번에 발굴된 궁전터의 연대문제: 『丸都城』은 궁전과 건축물들이 동시에 만들어져 342년 慕容皝의 산성 함락 때에 모두 훼손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필자는 올려 잡아도 372년 불교 전래 후에 만들어져 평양 천도 이후 점차로 버려진 것으로 본다. 蓮花紋과 忍冬紋瓦當은 불교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것으로 故國壤王의 묘로 추정되는 千秋墓는 卷雲紋瓦當의 소멸과 蓮花紋瓦當 출현의 이정표 격인 왕릉이다. 또 이번에 발견된 瓦當의 문양들은 東臺子유적(392년경 건축)에서도 모두 발견되었으므로 두 곳의 건축 시기는 크게 차이 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왕릉 지역과 산성에서 출토된 蓮花紋瓦當은 모두 같은 시기에 생산된 것으로 생각한다.

고구려 瓦當의 생산 및 집안 지역에서의 변화 발전: 초기 瓦當은 卷雲紋瓦當으로 현재 발견된 비교적 초기의 것은 太寧 3년(325)의 것이 있다. 이는 중원과 낙랑군 및 현지 문화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인데 4세기초부터 말까지 유행하다가 故國壤王 이후 사라졌다. 동시에 蓮花紋 瓦當이 나와 고구려 말까지 이어지며 신라와 백제에 영향을 주었다. 평양 천도 후에는 十六國, 北魏, 신라, 백제 등의 영향을 받아 반원형의 人面紋 瓦當과 원형의 人面型 瓦當이 출현하였다. 集安에서는 주로 卷雲紋·蓮花紋·獸面紋 瓦當 및 忍冬紋瓦當이 있었다. 蓮花紋은 漢문화와 불교예술·三燕文化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주어 나타난 것이다. 獸面紋은 들짐승의 흥명함과 威武를 모방하려는 것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獸面紋과 忍冬紋은 늦어도 392년 集安에 이미 출현하고 있다.

② 고구려 瓦當 제작기술: ㉓ 當面 模作과 筒瓦 제작: 筒瓦는 이미 만들어놓은 筒型器에서 잘라 만드는데, 절단 방식은 중원 지역과 크게 달랐다. ㉔ 當面과 筒瓦의 연결 ㉕ 當面과 筒瓦 연결 지점을 진흙을 이용하여 더욱 단단히 붙임 ㉖ 연결되어 하나로 된 瓦當의 돌출면[外側]을 갈아서 매끈하게[磨光] 만들기 ㉗ 筒瓦 테두리 부분에 대한 磨光 처리: 마광 처리한 瓦筒 테두리는 ‘一面坡形’, 뒤집힌 ‘釜頂形’ 혹은 ‘V’자형을 드러낸다. ㉘ 아직 굽지 않은 瓦當을 햇볕에 말려서 가마니에 넣고 구우면 건축 재료가 완성되었다.

국내성 시기 瓦當이 다른 나라와 가장 뚜렷하게 구별되는 점은 當面과 맞닿는 筒瓦 위에 瓦舌이 없고 筒瓦의 기본형태가 當面과 맞닿는 부분은 비교적 크고 다른 쪽은 비교적 작다는 점이다. 고구려 와당은 평양 천도를 경계로 전후기로 나뉘며 전기는 다시 早期와 晩期로 나누는데 丸都山城의 것은 모두 전기의 만기에 해당한다.

## 東北地域與滿族文化

施立學, pp.91~94

만주족 문화는 동북지역에 널리 퍼져 있으며 이는 동북지역 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풍부한 문화자원 중 하나로 작용했다.

동북지역의 여러 지명 중에는 만주족의 언어, 문화가 반영된 것이 매우 많다. 그 중 동북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인 長白山의 경우, 만주어로 ‘신이 있는 산’이라는 뜻으로 ‘果勒敏珊延阿林’이라고 발음한다. ‘果勒敏’은 한자어의 ‘長’으로 번역되었고 ‘珊延’은 ‘白’으로 번역되었다. ‘阿林’이라는 것은 산을 뜻하는 말이다. 장백산의 경우 이외에도 여러 지명이 만주어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松花江’, ‘圖們江’, ‘鴨綠江’, ‘黑龍江’, ‘牡丹江’, ‘嫩江’, ‘綏芬江’, ‘烏蘇裏江’, ‘海蘭江’, ‘布爾哈通河’, ‘招蘇太河’, ‘太子河’, ‘富爾江’, ‘興凱湖’, ‘鏡泊湖’, ‘大興安嶺’, ‘千山’, ‘小白山’, ‘東團山’, ‘老嶺’, ‘威虎嶺’, ‘完達山脈’ 등이 있다.

이러한 지명 이외에도 다수의 대도시 이름이 만주어가 중심이 되어 형성되었는데 ‘哈爾濱’, ‘長春’, ‘瀋陽’, ‘大連’, ‘吉林’, ‘鞍山’ 등이 이에 해당된다.

동북지역의 산천과 촌락의 대부분이 肅慎族 계열의 민족 혹은 挹婁, 勿吉, 말갈, 여진, 만주족들에 의해 건설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만주어의 지명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 지명은 동물이나 식물, 藥物 혹은 풍물의 일종을 뜻하는 것인 경우도 있고 지리와 기후 현상을 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것은 동북지역의 문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동북지역 만주족과 지역 문화를 연구하는데 소홀히 할 수 없는 자료이다.

현재 동북 지역에는 만주어 지명 이외에도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언어에 만주어가 자주 등장한다. 칭호로는 ‘格格’(아가씨), ‘哈拉巴’(돼지 앞다리), ‘歲子’(시냇물이 굽이도는 곳) 등이 있고 행위를 나타내는 말로는 ‘拉扯’(먹여살리다), ‘起哈子’(사건을 터트리다), ‘將居’(바둑을 놓다) 등이 있다. 또한 상황을 나타내는 말로는 ‘哈拉’(고기가 변질됨), ‘夾信子’(좁다), ‘不大離兒’(좋다), ‘麻流’(빠르다), ‘鼠迷’(기가 막히다) 등이 있다.

필자의 조사에 따르면 흑룡강성 富裕縣에는 三家子라고 하는 만주어 촌락이 있는데 이곳에는 총 700여 명의 만주족이 거주하고 있다. 이 중에 100여명은 현재까지 만주어로 의사 소통을 하고 있으며 이들에 의해 만주어 학교가 개교되기도 했다.

만주족들은 독특한 생활 풍속을 지니고 있었다. 팔기제도로 인해 남녀가 입는 옷을 ‘旗袍’라고 하며 각종 장식을 달았다. 만주족 부녀자들은 ‘金門’이라고 하는 작은 비녀를 사용했으며 전족을 하지 않았다. 만주족의 음식 풍속은 크게 8가지 정도로 요약되는데 점성이 많은 밥을 먹었으며 ‘鏊鏊’이라는 만두나 밀병과 흡사한 것을 먹었다. 신맛이 나는 탕을 즐겼으며 발효시킨 채소와 고기를 함께 끓인 것을 즐겨했다. 음식을 볶는 습관이 없고 ‘火鍋’를 자주 먹었고 인삼, 잣 등으로 만든 ‘果子’를 먹었다. 入關 전에는 기름을 먹지 않고 ‘蘇子油’를 사용했고 고기는 주로 돼지고기를 먹었다. 만주족의 문화는 주거환경과 결혼 및 제사 방식에도 독특한 형태를 유지했다.

동북지역의 경제 진흥을 위해서 이들 독특한 자원 문화를 찾고 개발할 필요가 있다.

## 佛敎在通古斯民族與朝鮮族中的文化影響

王宏剛, pp.86~90

불교는 만주족의 선조에 해당되는 말갈인들이나 여진족들에게 전파되었고 이후 출현한 만주족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누르하치가 遼瀋 지역에 진입한 이후 興京城에 7개의 큰 사원을 짓고 土地, 觀音, 關帝, 如來 등의 불상을 안치하여 숭배했다. 이후 청 태종, 순치제, 강희제, 옹정제 등이 모두 불교를 숭상했고 이후 황제들의 호의 속에서 불교는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이를 통해 불교가 만주족에게 끼친 영향은 매우 큰 것으로 청나라 시기 동북지역에 200여 개의 사원이 건설되었다. 이러한 동안 불교는 만주족 전통적인 샤머니즘 신앙에도 침투하게 되어 이들 사이에 상호 교류가 이루어졌다.

청나라 조정의 愛信覺羅 氏들은 샤머니즘 교당의 제사에서 佛陀本尊, 觀音菩薩 등의 불교 신을 朝廷의 제사에서 주된 대상으로 삼았다. 민간에서도 다수의 만주족 가정에서 향을 피우며 불상에 절을 하는 풍속이 유행했다.

그러나 불교가 만주족의 모든 민간신앙을 대체하고 만주족의 생활 풍속을 지배한 것은 아니다. 만주족 샤머니즘은 불교와 도교의 영향을 깊이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원시적 샤머니즘의 질박함과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청나라 황실에서 불교와 도교 신들을 숭상했지만 그 제사 의식에 이용되는 용어들은 농후한 샤머니즘 종교 색채를 띠고 있었다.

청나라 조정이 불교-특히 라마교[黃敎]-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갖고 있기는 했지만 이것은 통일적인 정치를 유지하고 민족 관계를 평화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던 것이지 불교 자체를 전적으로

민었던 것은 아니다. 만주족 민간에서 불교에 귀의해 출가를 한 사람이 적었다는 것과 샤머니즘 내에서 ‘三界說’과 같은 자체적인 이론이 확립되었다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불교는 만주족 이외에도 동북지역에 거주하던 여러 소수민족들의 문화에도 영향을 끼쳤다. 靺鞨족은 폴리아트인들과 잡거하면서 라마교를 접하게 되었고 당시 의술이 없던 靺鞨족들은 라마교 의술을 받아들였다. 이후 불교는 靺鞨족들 사이에서 유행했지만 샤머니즘과 공존했다. 그들은 두 종교의 우상이나 토tem을 모두 숭배했지만 샤머니즘이 주된 것이었다. 산속에서 순록을 키우던 鄂倫春과 赫哲족들은 수렵경제를 유지해왔고 불교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 1950년대 이후 경제, 문화가 발전함에 따라 이들의 샤머니즘이 점차 소멸해 갔다. 錫伯족의 경우는 南遷, 西遷 과정에서 한족 및 만주족과의 접촉을 통해 불교를 접하게 되었다. 喪禮를 치를 때 라마교 승려를 통해 평온을 기원하는 등 불교 문화는 석백족의 일상생활에 스며들었다. 하지만 錫伯족들은 샤머니즘을 버리지 않아 샤머니즘과 불교가 공존하는 현상이 유지되었다. 조선족 선조들은 샤머니즘을 숭상했지만 농경문화가 발달했던 탓에 일찍부터 불교를 접했다. 19세기 중엽 이후 일부의 조선인들이 중국 동북 지역으로 유입되어 중국 조선족을 형성하고 이들 사이에서 불교가 유행했다. 이들은 주로 대승불교를 믿었고 다양한 수행방식을 가지고 있었다. 1911년 3월, 조선족 승려인 金木然이 북경에서 연변으로 가 당시 불교 신자였던 基南의 도움으로 雲興寺를 건립했다. 이것은 조선족 지역에서 최초로 건설된 사원으로 이후에 십수개의 사원이 차례로 건립되었다. 조선족 불교는 주로 연변지역에 집중적으로 유행했다. 조선족들은 샤머니즘 풍습을 간직하고 있었고 또한 유교의 영향도 깊이 받았지만 불교 신앙은 그들 문화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작용했다.

동북지역 소수민족이 건설한 왕조시대는 불교가 번성하던 시기이기도 했지만 불교의 전파는 본토 샤머니즘과의 관계 속에서 완성되었고 이것은 종교학 연구에 있어서 매우 흥미로운 역사문화현상이다.

## 2008년 제3기

### 渤海大武藝論

張碧波, pp.2~8

大祚榮 사후 즉위한 大武藝의 통치는 功過가 모두 존재하고 있다. 18년의 재위 기간 중 제일 큰 일은 文物典章制度의 건설이다. 周·漢·唐의 중화문물을 흡수하여 전장제도를 완비하게 되면서 발해 정권은 부락연맹에서 典章文物이 완비된 봉건적 성격의 지방정권으로 도약하여 唐朝의 동북지역에서 海東盛國을 이루는 건설한 기초를 닦았다. 먼저 ‘私諡’은 대무예를 우두머리로 하는 발해인들이 중원의 文明禮制를 흡수하여 자기화하고 自尊, 自重, 自信과 자립 의식을 표명한 것으로, 발해인의 의식 형태와 典禮制度의 봉건화를 드러내주고 있다. ‘仁安’이란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한 것은 연호의 經學化·신학화·종교화를 통해 전장제도의 봉건화 특징 및 독자적인 문화 개성을 드러낸 것이다. 국가 전장제도의 점진적인 완비-책봉제, 都督府制, 당을 모방한 통치기구과 행정 실시, 紀年, 역법, 諡法制, 장자계승제, 外命婦制, 왕실능묘제 등-를 통해 중원문화에 대해 끊임없이 융합을 꾀하여 지방 특색 및 민족 특색의 발해문화를 형성하여 발해가 해동성국을 이루는 건설한 기초를 마련하였다.

7-10세기 동북아에 발해가 출현하면서 당, 발해, 신라, 일본이 동북아의 새로운 기본 국면을 형성하게 되었다. 大武藝는 당이 발해를 거치지 않고 黑水靺鞨과 통교하고 자신의 同母弟인 大門藝를 보호하는 것은 자신과 대적하려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자신을 지지해 줄 외부 지원세력의 필요성을 느끼고 일본을 그 대상으로 골랐다. 大武藝가 일본을 외부 지원자로 삼은 것에는 고구려 유민의 요소가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大武藝는 일찍이 ‘桂樓群王’으로 고구려 유민 지역의 총독을 거쳤으므로 그가 繼位하였을 때 고구려 유민이 그 속에 존재하였고 심지어 그의 모사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가 722년 일본에 처음으로 파견한 사신단의 단장으로 임명한 高仁義와 그의 피살 후 직을 이어받은 高齋德은 모두 고구려 유민으로 이는 바로 고구려와 日倭의 옛 관계를 고려한 때문이다. 이 때의 사신단 파견은 군사 정치적 목적에 의한 것으로 일본은 발해를 고구려의 계승국으로 받아들였으며 8년 후 발해는 다시 사신을 파견하여 일본과 원조 관계를 맺었다. 이 군사연맹 후 일본은 신라를, 발해는 당의 靑州를 공격하는 일련의 군사행동이 이루어졌다. 일본은 이를 틈타 발해를 조공국으로 삼고 군대를 파견하여 신라를 공격하며 또 ‘上國’으로서 唐朝와 세력 균형을 이룬다는 야심을 실현할 수 있었다.

762년은 관건이 되는 해로 당 肅宗이 大武藝를 渤海郡王에서 渤海國王으로 승격시킨 것은 결정적 성격을 띤 것이다. 이를 통해 당과 발해는 친밀한 우호 관계의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동북과 한반도의 정세를 안정시킬 수 있었다. 또한 이 해 발해가 일본에 파견한 王新福은 문관으로 이로부터 발해와 일본의 관계는 무역과 문화 교류로 성격이 변화하게 되었다. 이로부터 발해 일본 사이에는 군사적 ‘結援’관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지만 양국 간에 장기간에 걸쳐 일어난 ‘國書之爭’에 영향을 미쳤다. 일본은 고구려를 조공국이자 屬臣으로 간주하였으며 발해 역시 조공국으로 간주하고 국서에서 군과 신으로 호칭할 것을 요구하였다. 일본이 753년 처음으로 발해가 국서 속에서 칭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한 이래 양국 사이의 국서를 둘러싼 분쟁은 발해가 멸망할 때까지 줄곧 존재하고 있다. 이 분쟁은 발해가 일본이 설정한 조공국과 종주국의 국가 관계를 결코 승인하지 않았으며 완강하게 자주국가의 입장을 견지하였으므로 보여준다. 大武藝가 ‘結援日本’하여 당과의 대립을 기도한 것은 당의 기미정책과 왕조의 다원일체적 정치체계에 대한 몰이해에 의한 것으로 발해에 아무런 득이 없는 반면 일본에게 조공국으로 보여진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대무예의 외교적 결정이 착오였음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다.

## 從《三國史記》中的新城談起

曹德全 · 肖景全, pp.9~18

삼국사기에는 세 개의 고구려 신성이 나온다. 이를 하나의 성으로 보는 견해(劉子敏)와 별도의 세 개의 성을 가리킨다는 설(張福有)이 존재하고 있다. 필자는 ‘國之東北大鎮’의 신성과 ‘西境鎮城’ 즉 撫順 高爾山城의 신성은 별개의 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먼저, 西川王 7년의 기사에 따르면 이 때 고구려는 이미 요동의 撫順을 점령하였을 뿐 만 아니라 이미 최전선의 진이 아닌 상황처럼 보인다. 하지만 고구려가 이 일대를 점령한 것은 395-409년 사이로 352년에도 玄菟郡은 무순에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 이를 증명한다. 둘째, ‘東北大鎮’은 그 성격상 서쪽 변경의 지역이 될 수 없다. 西川王이 4개월 동안 머무른 성격을 볼 때 사냥을 겸한 휴식이므로 이 신성은 고구려 왕의 行宮 소재지라고 보아야 하는데 최전선의 鎮에서 이런 활동이 이루어질 수 없다. 셋째, 가령 ‘王如新城’에 착오가 있었다 해도, 삼국사기의 ‘或雲’,

‘一雲’의 용례에 비추어 볼 때 착오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新城’이지 ‘東北’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삼국사기에서 ‘或雲’ 등의 표현은 지명, 인명 등이 다른 호칭이 있는 경우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國北新城’에 대해 살펴보면 이전에 필자는 이와 ‘西邊要害’는 같은 성이라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삼국사기』 속에서 ‘築’은 ‘처음 세웠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따라서 故國原王 4년 처음 세운 ‘국북신성’과 서천왕 7년 기사의 신성은 하나의 성이 될 수 없다. 둘째, 김부식은 각각 다른 지방의 다른 신성에 제각각 다른 방위를 명기하였다. 따라서 ‘국지동북대진’의 동북을 ‘國西北’으로 고쳐야 한다면 ‘西邊要害’ 역시 ‘西北要害’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식이 된다면 우리들이 객관적인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하는 것이거나 김부식의 사유가 지나치게 혼란스럽거나 또는 두 가지 요소가 모두 포함되는 것이 된다. 셋째, 『삼국사기』의 ‘築國北新城’ 기사는 방위상의 혼란 가능성 외에 축성 시기를 335년에 배열해 놓았는데 이는 축성 시기를 지나치게 앞당겨 놓은 것이다. 341년 慕容皝이 木底에서의 대전투 후 곧바로 환도에 돌입하고 신성에서 저항에 맞닥뜨리지 않은 것은 341년 이전 고구려는 撫順 일대를 점령하지 못하였고 高爾山의 신성은 아직 쌓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삼국사기에 기록된 고국원왕 5년 축성된 ‘국북신성’이 무슨 고이산의 신성이 되기 위해서는 김부식이 방위를 잘못 적었거나 혹은 방위와 축성 시기를 잘못 적었거나 아니면 별도의 다른 곳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서천왕 7년 ‘국지동북대진’의 신성과 고국원왕 5년의 ‘국북신성’ 및 뒤에 나오는 현재의 무슨 고이산의 신성은 하나의 성이 될 수 없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김부식의 중국 사료에 대해 치밀한 정리 분석을 하지 못한 태도와 서술 과정에서 혼란이 있다. 이는 비단 ‘신성’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며 고구려의 도성에 대한 기술에서도 같은 실수와 혼란이 보인다.

먼저 『삼국사기』 「地理志」 고구려조에 따르면 기원 3년 유리왕 때 국내성으로 천도하였으며 국내성은 尉那巖城이라 부르기도 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 학계의 공인된 학설은 위나암성과 국내성은 하나의 성이 아니며 환도산성이 위나암성이라는 것이다. 이 경우 유리왕이 천도한 곳은 곳이 국내성인지 위나암성인지 불분명해진다. 만약 국내성이라고 한다면 고국원왕 12년조의 이 해에 비로소 ‘築國內城’했다는 기사는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둘째, 山上王 2년 환도로 천도하였다는 기사도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국내성에서 천도한 것이라면 이는 국내성에 425년간 도읍하였다는 기사와 부합하지 않으며 위나암성에서 옮긴 것이라면 위나암성과 환도성은 하나라는 현재의 정설은 성립될 수 없다. 셋째, 東川王 21년조에 나오는 평양성 축조 기사 역시 같은 문제를 가진다. 이 기사는 당시 고구려가 아직 대동강 유역까지 진출하지 못한 상태이고 또 장수왕 때 이루어진 평양으로의 천도와도 모순된다. 따라서 孫進己는 이를 平地城(지금의 집안현성)의 오기라고 보았다. 하지만 이럴 경우에도 지금의 집안현성을 대다수 학자들은 국내성으로 비정하는 있으므로 결국 국내성으로 다시 돌아오는 셈이 된다. 사실 『삼국사기』의 본의는 평양이 평지성이라는 것이 아니라 평양성이 樂浪郡 溟水 동쪽의 평양 바로 장수왕 15년 천도한 그 곳임을 지적하는 것이다. 247년 고구려는 아직 낙랑군 지역을 점령도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 곳에 평양성을 쌓을 수 있겠는가? 넷째, 동천왕 11년 이후 고국원왕 4년(334) 평양성을 증축하였고 12년(342)에는 평양성에서 다시 환도성으로 천도하고 평양성의 기초 위에 다시 국내성을 쌓았다. 또 다음해에 다시 평양성 동쪽의 黃城으로 천도하였다가 장수왕 15년에 평양으로 도읍을 옮겼다. 결국 삼국사기 지리지에는 국내성에 도읍을 435년간 두었다고 하였지만 「고구려본기」에는 여러 차례 도읍을 옮긴 셈이 된다. 즉 국내=위나암성의

로 이해한다면 이 기간 중 고구려는 국내성에 196년, 두 차례 환도에 도움하여 50년, 평양에 95년, 황성에 84년간 도읍한 것이 된다. 이는 지리지의 435년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다.

만약 김부식의 지리지 기술에 부합하려면 환도성과 국내성은 2.5km 떨어져 있는 별개의 성이며 환도성은 국내성의 부속된 산성이어야 한다. 고구려왕이 환도나 黃城에 옮겨 산 것은 모두 고구려왕이 (그 시간이 얼마나 오래되었는가에 상관없이) 잠시 옮겨 산 것으로 국내성이 고구려의 도성이라는 성질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다. 동천왕 21년 쌓은 평양성은 국내성이 아니며 또한 지금의 평양도 아닌 별개의 장소이며 국내성은 여전히 고구려의 명의상의 도성이었다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고구려의 도성에 대한 기술조차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 많은 힘을 쏟아야 하는 판에 하물며 지극히 작은 ‘新城’은 말해 무엇할 것인가.

### 高爾山城始築年代考辨

梁志龍·魏海波, pp.19~28

高爾山城은 遼寧省 撫順市 북쪽 고이산에 위치한 산성으로 圓形에 가까운 모양을 하고 있으며 총 둘레가 4 km에 달하는 고구려 시기 중요 산성 중 하나이다. 신중국 성립 이전에 일본학자 池內宏, 三上次男 등이 고이산성에 대한 조사와 발굴 작업을 하였고 이후에는 중국의 발굴단이 여러 차례 조사를 실시했다. 고이산성의 명칭에 대해서 일본인 학자 白鳥庫吉이 1935년에 처음으로 ‘新城’이라 칭했고 이후 여러 학자들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이 산성의 건설 연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이견이 분분하다.

고이산성이 처음 축조된 시기에 대해 대략 4가지 설이 학계에 보고되었다. ① 李洵甫 등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고구려 태조대왕 시기로 東漢 光武帝 29년에서 桓帝 延熹 8년 사이에 건설되었다는 東漢說. ② 王錦厚, 修達, 劉子敏 등이 발표한 것으로 西晉 시기 266년과 신성이라는 기록이 문헌에 처음 등장하는 276년 사이로 보는 西晉說. ③ 徐家國, 孫力이 주장하는 東晉 成帝 鹹康 원년, 355년의 東晉說. ④ 張福有, 曹德奎이 제기한 故國壤王시기(384-392)의 後燕說 등이 있다. 이 중 4번째 관점이 가장 역사적 사실에 가깝다.

고이산성의 건축 연대는 고구려가 渾河 중류의 무순 지역에 진입한 것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즉, 고구려가 무순 지역으로 진출하기 전에는 고이산성이 건축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고고학 자료를 종합해보면, 漢과 晉 시대 무순 지역과 그 부근은 한족들의 활동지역으로 고이산의 산성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고구려가 이 지역에 진출한 것은 이보다 늦음에 틀림없다. 李洵甫 선생 등은 고이산성에서 발굴된 철제 낫, 철제 삽, 철제 대패 등이 漢代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들은 16국시대와 唐代 사이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고이산성과 같은 土築山城은 고구려 중·후기 혹은 말기 형의 산성이다.

사서에 등장하는 新城이라는 기록이 가장 초기에 나오는 것은 고구려 서천왕 7년, 晉 武帝 鹹寧 2년 (276)의 일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신성은 고이산성과 다른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 서진의 요동에 대한 통치가 정식적으로 이루어졌고 행정구역상의 玄菟郡이 설치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고이산성에서 고구려 국왕의 거주지역으로 보이는 흔적이 전혀 발굴되지 않고 있으며 서진시대대로 보이는 유물 또한 출토되지 않았다. 게다가 고이산성과 신성의 지리적 위치 또한 서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삼국사기』에는 신성과 관련해 293년, 296년 慕容廆가 고구려를 침입한 기사가 있다. 이것으로 신성이 존재했다는 근거로 삼기도 하지만 이 두 사실은 중국 역사서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아마도 김부식

이 서로 다른 시기의 사실과 민간의 전설을 조합해 기록한 것으로 생각되어 사실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고구려가 서쪽으로 진출하는 것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과정으로 삼국시대의 경우 고구려와 현토군의 접경선은 富爾江 일대였다. 이후에는 富爾江에서 서쪽으로 이동되어 蘇子河 중류 일대까지 이르렀다. 몇 년 후 다시 蘇子河 하류 지역까지 옮겨졌다. 고구려의 서쪽 진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추세에 있었지만 後燕慕容隆이 龍城에 진주해 있는 동안은 동북지역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고구려가 渾河 유역까지 확장하기는 힘들었다. 결국 4세기 말이 되어서야 고구려는 渾河 유역을 점령할 수 있게 되었고 이와 함께 고이산성이 출현하게 된 것이다.

### 也談大武神王伐夫餘

劉子民, pp.29~31

이 글은 『集安古道新發見兩通石碑』(이하 「石碑」로 약칭)에서 언급한 고구려 대무신왕의 부여 정벌에 관해 몇 가지 비판적 분석을 가한 것이다.

먼저 「石碑」는 대무신왕 無恤이 태자에 책봉된 나이에 대해 『삼국사기』의 11세는 31세의 誤記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삼국사기』의 잘못은 나이가 아니라 생모에 대한 부분이다. 瑠璃王의 첫 妃인 松氏가 낳은 것은 원래의 태자인 都切이며 무휼은 형 解明과 함께 雉姬 소생으로 解明이 자살할 때 아직 어렸다는 기록에서 볼 때 11세는 타당한 것이다.

둘째, 고구려군이 주둔한 沸流水에 대해 「石碑」는 정설인 富爾江설을 부정하고 渾江이라고 주장하는 동시에 富爾江은 渾江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주장을 펴고 또 梁口는 河口라고 비정하고 있다. 하지만 冊丘儉이 고구려군과 싸운 기사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富爾江은 渾江과 별개의 강이며, 梁口는 梁貊之穀의 어떤 하구나 산 입구를 지칭한 것으로 梁貊이 나온 大梁水를 大河水로 이해할 수 없다는 점에서 「石碑」 비정의 오류는 확실하다. 혼고학을 수단으로 지명을 연구하는 것은 방법론 가운데 하나이지만 단지 글자의 음이나 모양이 비슷하다고 하여 추론을 전개하는 것은 믿을 수 없다. 특히 강남 楚 지역의 발음으로 동북 고대 소수민족 지역의 지명을 고찰하는 것은 확실히 타당하지 않다.

셋째, 「夫餘國南」은 「石碑」의 비정과는 달리 白山市 서남부 및 三岔林業局 관할 구역 내의 龍崗火山群 중의 소택지를 포괄하지 않으며 지금의 遼源, 磐石, 樺甸 일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石碑」에서 부여의 南疆으로 보았던 혼강의 수원 및 白漿河 頭道松花江 유역은 부여가 아니라 고구려의 北疆이었다.

넷째, 대무신왕의 진격로에 대해 「石碑」에서는 지금의 通溝河에서 大羅圈河-六道溝河-紅土崖河-혼강의 水源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石碑」에서 비정한 노선을 따라 혼강의 수원에 이르는 길은 빙설을 뚫고 산과 강을 넘는 험난한 길이므로 『삼국사기』 기록처럼 쉽게 진군할 수 없다. 반면 지금의 富爾江을 따라 一統河-輝發河를 거친다면 쉽게 도착할 수 있다. 이 길은 주몽이 부여에서 남하한 노선으로 부여와 고구려인 모두 익숙한 길이였다. 따라서 「石碑」의 비정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삼국사기』의 대무신왕 무휼은 중국 사서 속의 莫來로 그가 부여를 대파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삼국사기』는 후대에 만들어진 것이므로, 대무신왕에 대한 『삼국사기』 기록 속에는 신화나 전설적 요소가 이미 많이 반영되어 있다. 이 기사 속에 나오는 「沸流源大鼎」 등이 이에 해당하며 기사에 나오는 「北溟

人怪由'赤穀人麻盧' 등도 같은 범주에 속하므로 北溟, 赤穀, 鶴盤嶺 등의 지명을 비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또 清代 封禁 완화 이후 동북에 들어온 滿·漢·조선인들은 고대 고구려의 지명에 대해 어떠한 기억도 가질 수 없었다. 따라서 청대 이후의 箕山 학반령 등의 지명을 고구려의 것과 동일시하여 이를 근거로 고구려 시대의 지명을 비정하는 것은 믿기 곤란하다.

## 霸王朝山城의 調查與研究

王春燕·鄭霞 pp.32~35

霸王朝山城은 吉林省 集安市 서북쪽 財源鎮 霸王朝村 동북 지역 산지에 위치해 있는 고구려 산성이다. 그 지리적 위치가 고구려의 유명한 두 산성인 紇升骨城과 國內城 사이에 있어 이 또한 고구려의 군사 활동에 있어 전략적 중요성을 갖고 있는 산성으로 추측된다. 이 산성은 1962년에 길림성 중점문화보존 단위로 지정되었고 여러 해 동안 학자들에 의해 조사 및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일정 정도의 성과를 얻었다. 하지만 여전히 서로 다른 견해들이 존재하고 있어 다시 한 번 세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霸王朝山城에 대한 가장 이른 시기의 조사는 1962년 4월에 길림성박물관 集安考古隊가 주축이 되어 길림사범대학(현 동북사범대학) 曹正榕, 길림성 철학사회과학연구소(현 길림성사회과학원) 朱涵康, 집안현 박물관(현 집안시박물관)의 담당자들과 함께 4일 동안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霸王朝山城의 규모와 형태에 대한 대강의 내용이 확인되었고 그 조사 결과는 方起東에 의해 작성되어 『考古』 1962년 11기 잡지에 발표되었다. 1983년 5월에는 집안현 박물관 普查隊의 林至德, 耿鐵華, 傅佳欣, 孫仁傑, 遲勇, 張雪岩, 董長富 등이 霸王朝山城에 대한 조사를 재차 실시하고 사진을 찍어 기록으로 남겼다. 이때 성벽과 성문유적지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06년에 집안시박물관 董峰, 孫仁傑, 遲勇 등은 霸王朝山城에 대한 조사를 다시 실시해 그 자료를 집안시박물관에 보관했다. 이외에도 길림성 문화재 관련 기관과 학술 기관 및 관련 학교의 전문가인 王承禮, 王健群, 李健才, 方起東, 李殿福, 張福有, 孫玉良, 魏存成, 耿鐵華, 柳鳳, 王洪峰 등에 의해 霸王朝山城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간에 실시된 조사를 통해 얻어진 자료를 근거로 현재까지 총 21편의 霸王朝山城 관련 논문 및 저서가 발표되었다. 그 중 方起東의 연구는 가장 초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霸王朝山城의 군사적인 성격을 확인했으며 이를 고구려 시대 城堡로 단정했다. 그의 연구 결과는 이후 학자들의 연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林至德은 霸王朝山城의 축조시기를 丸都山城 건설 이후로 추측했고 李殿福은 고구려 초기 산성으로 추정했다. 魏存成은 霸王朝山城의 軍事城堡로의 특징을 강조하고 이것을 都城으로 보는 견해에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霸王朝山城과 관련된 현재까지의 연구는 대부분 霸王朝山城을 遼東, 桓仁, 新賓 일대를 세력화하고 집안지역으로 진출하는 중요한 城堡로 인정하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축조 연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일치된 견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霸王朝山城에서 발굴된 철기유물은 그 시기가 기원후 3세기 이후의 것이며 기타 陶片 중 대부분이 시기적으로 늦은 시기의 도기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은 霸王朝山城이 丸都城보다 후대에 만들어진 것이라 추측된다. 또한 성벽의 건축 연대나 구조 또한 이러한 관점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한편 일부에서 霸王朝山城을 尉那岩城과 동일시하는 견해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으로 霸王朝山城이 갖고 있는 軍事城堡로서의 특징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箕子は 한반도에 정권을 세운 후 중원으로 돌아와 周의 천자를 朝覲하였다. 그 후 秦·漢 및 齊, 燕 등과 모두 빈번한 경제 문화 교류가 있었다.

齊는 管仲의 개혁이 성공하면서 桓公이 춘추시대 첫 번째 覇者가 되었다. 그 지리적 위치가 옛 東夷족의 분포지역이고 해변에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원래 요동반도 한반도와 빈번한 교류가 있었고 桓公의 覇者가 되는 과정에서 경제 발전의 필요에 따라 더욱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 管仲과 桓公의 대화 속에 교역에 매개체로 사용한 七策 중 古朝鮮에서 나오는 文皮(호랑이 가죽)를 거론하면서 ‘海外’의 古朝鮮을 ‘海內’로 보고 있는 것은 齊가 箕氏朝鮮를 주요시하였음을 보여준다. 漢代의 문학작품이지만 司馬相如의 작품 속에서도 제와 조선과의 교류 상황을 엿볼 수 있다. 전국시대의 제와 조선의 문화 교류는 ‘三神山’, ‘五神山’ 전설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方士文化’가 環渤海 지역에 퍼져 갔음을 알 수 있다. 箕氏朝鮮의 수도 王儉城은 仙人인 王儉이 수행하던 것에서 명명된 것으로 齊의 方士文化가 조선에서 받아들여졌음을 볼 수 있다.

燕과 조선의 관계는 긴장관계-조선의 大夫 禮의 노력에 의한 긴장 완화-燕의 조선 격파의 단계를 거쳤다. 양국 사이에 긴장관계가 조성된 것은 燕이 왕을 자칭하고 이에 ‘朝鮮侯’도 왕을 칭하면서 燕을 공격하여 周 왕실을 尊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燕과 조선은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았으며 이와 관련된 기사에서 나오는 遼東은 ‘古遼東’으로 지금의 醫巫閭山에서 淸川江에 이르는 지역을 지칭한 것이다. 또 이 기사를 통해 朝鮮이 여전히 周 천자의 제후국 신분임을 잊지 않고 있었으며 ‘尊周’ 의식을 보존하였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사료에서 조선에서는 아직도 周의 옛 제도를 따르고 있었으며 천자-제후-大夫의 등급제에 따라 관직에 임명하였음을 볼 수 있다. 禮는 本地人이 아니라 燕이나 齊에서 온 문인이었다. 그 이름에서 중원 지역의 문화적 함의를 띠고 있고 그의 간언 내용에서 당시 중원 士人의 소질을 보여주고 있으며 천하의 형세 특히 燕의 동향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점에서 토착의 한반도 사람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 세 번째 사건은 燕이 昭王 때 이르러 드디어 東進의 소망을 실현한 것이다. 이 기사를 들어 당시 箕氏朝鮮이 강대하였고 遼東의 일부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견해도 있지만 이는 틀린 것이다. 이 기사에서 나오는 強弱은 그 영향력을 말하는 것이지 영역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 箕氏朝鮮은 하나의 城邦 소국으로 역사가 오래되고 문화 수준이 비교적 높은 상태에서 특히 燕과 조선 사이에 거주하던 東胡, 貊人들과 군사 동맹을 결성하게 되어 그 영향력이 증대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秦開가 東胡와 朝鮮, 眞番을 공략한 후 燕은 점령지에 遼東郡을 설치하였다. 箕氏朝鮮은 燕에 附屬國이 되어 이전의 독립성을 상실하였지만 동시에 燕을 통해 중원 문명을 받아들여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燕이 오기 이전 고조선과 東胡 貊人의 관계는 東胡 문화로 간주되는 夏家店上層文化의 東漸, 특히 비파형동검의 전파에서 잘 볼 수 있다. 비파형 동검의 발원지에 관한 학설 중 가장 유력한 것은 遼西(東胡)설로 이는 역사의 조류와 궤를 같이 한다. 즉 거주민이나 문화는 모두 중원 혹은 동부 연해에서 동북으로 들어가고 동북 지역에서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전파되고 있는 것이다.

秦은 통일 과정에서 燕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箕氏朝鮮도 정복하였으며 장성을 수축할 때 동쪽 끝은 기씨조선의 판도 내인 지금의 평안북도 鹹從裏에까지 이르렀다. 秦은 이 지역을 무인지대로 만들어 두었

지만 평양 부근에서 발견된 秦代 鐵戈에서 볼 때 평양 부근까지 진이 진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은 秦에 의해 무력으로 정복당하여 완전히 臣服하였으며 단지 조선 국왕이 직접 중원에 와서 朝見하지 않았을 뿐이다.

## 遼東半島南端新石器至早期青銅時代文化與周圍文化的關係

劉俊勇, pp.41~45

遼東半島 남단이라는 것은 遼寧省 남부의 大連지역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러 문화가 교차되는 지리적 특징을 갖고 있다. 이 지역은 중원 지역이나 西遼河 지역처럼 신석기시대, 銅石并用시대, 초기청동기시대를 거쳤다. 신석기 문화로는 小珠山1·2期文化가 있고 동석병용시대의 것으로는 三堂村1期文化和 小珠山3期文化가 있으며 초기 청동기시대로는 雙砬子1·2期文化가 있다.

요동반도 남단의 소주산1·2기문화는 둘 다 押印紋과 刻劃紋의 筒型罐을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둘 사이에 존재하는 계승관계를 알 수 있다. 비록 타제 석기의 형태나 토기 재료의 성분 등에는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이것은 이 둘 문화가 서로 다른 시기에 발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들 사이에 존재하는 계승관계를 부정하기는 힘들다. 소주산1기문화의 연원은 下遼河유역에 발생했던 新樂文化이다. 비록 약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주거 형태와 배치 양식의 유사성은 이들에 사이에 존재하는 淵源性을 보여주고 있다. 신라문화 이외에 이보다 조금 앞선 시기에 출현했던 西遼河유역의 興隆窪문화 또한 소주산1기의 문화 연원이 되고 있다.

요동반도에 출현한 이들 문화는 산동반도에 나타난 문화와 서로 연관성을 갖는데 도기의 무늬와 형태의 유사함 및 비슷한 모양의 농기구 사용 사실은 두 지역 사이에 일정한 문화관계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화 교류는 廟島群島를 매개로 해서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蓬萊에서 요동반도 남단 사이에 교통로가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소주산1기문화는 산동반도의 白石村遺址1·2기와 유사하고, 소주산2기 문화는 邱家村期, 北莊期와 서로 유사한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 요동반도의 銅石并用시기문화는 산동의 龍山文化和 관계를 갖는데 三堂村1期文化 지역에서 출토된 도기 표면의 줄무늬 모양은 황하하류의 北辛文化가 산동반도를 거쳐 전파된 것으로 보인다. 요동반도의 소주산3기문화에서 출토된 折腹罐, 單把杯 등은 산동 용산문화의 색체를 띠는 것이다. 산동 용산 문화는 요동 반도 남단의 문화보다 선진적인 형태여서 현지 토착문화에 수입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요동반도 문화의 대표적 특징 중 하나인 옥기는 이 두지역간의 교류 과정에서 산동반도로 전파되었다. 玉牙壁과 같은 경우에는 요동반도에서 산동반도를 거쳐 다시 섬서와 산서 등지로 전파되기도 했다.

요동반도의 문화와 산동반도의 문화 사이에서 발생한 교류 중 초기 청동기시대의 교류는 앞서 언급한 것과 비교해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쌍타자1기에서 출토된 도기의 형태는 용산문화의 일부인 산동 長島 砬磯大口1期문화와 매우 유사하고 쌍타자2기문화는 嶽石文化和 매우 흡사하다. 산동용산문화와 악석문화의 요동반도에 대한 영향은 매우 커서 현지의 토착문화를 대체해 주된 문화형태로 자리잡았다.

또한 요동반도 남단의 문화와 한반도의 문화 사이에도 교류가 발생했었는데 한반도 서북부의 新岩裏1기문화와 쌍타자1기문화 사이에는 적지 않은 공통점이 발견되고 있다.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요동반도 남단의 쌍타자1기문화가 압록강 서안까지 직접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고 있다.

金代의 長城은 지역적으로 嶺北長城과 嶺南長城이 달라 동시에 완성된 것이 아니며 연대상으로도 자연스럽게 구별이 있다. 영남장성은 또 많은 길이 있고 또 지선들이 있어 수축 시간이 더욱 차이가 난다. 그들 상호 간의 관계가 어떠한가 어느 길이 먼저 만들어지고 어느 길이 뒤에 수축되었는가는 금대 장성 연구의 심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하지만 역사 문헌 기록이 결핍되어 있고 금사 역시 명확한 기록이 없으며 비록 역간의 기재가 있어도 다른 사람이나 사건 때문에 언급한 것으로 전문이 아니며 사료가 대단히 부족한 까닭에 이전에는 심화 연구가 적었고 우연히 언급한 경우에도 대부분 국부적 사례로 장성 전 노선에 대한 고증은 보이지 않는다. 또 오해가 생긴 까닭에 고증한 연대도 오차가 매우 커 특히 정설을 정하기 어렵다.

영북장성은 러시아인 克魯泡特金(Пётр Алексеевич Кропоткин)의 탐사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그는 이를 칭기스칸장성이라 불러 元代의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 후 중국측에서 이를 처음으로 탐사한 屠壽는 이를 金代의 것으로 보고 '金源邊堡'라고 명명하였다. 이후 이를 남북조, 금대, 원대 심지어 漢代의 것으로 보는 견해까지 제기되었다. 근래에도 다수의 학자들은 이를 요대의 것으로 생각하거나 요금시대 타타르인들이 쌓았다고 주장하였다. 1987년 현지에서의 고고학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 비로소 金初에 몽골을 막고 금과 금에 복속하고 있던 타타르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영남장성은 길이가 길고 그 안에서도 여러 갈래로 갈라져 정황이 복잡하므로 한번 내지 단기간에 修築할 수 없었다. 금대 장성을 가장 먼저 연구하였고 또한 후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王國維는 章宗 承安 3년 수축 완성되었다고 보았는데 이는 지나치게 뒤로 잡은 것이다. 『金史』에 따르면 장성을 쌓은 것은 태조 태종대에 활동한 婆盧火이므로, 정확한 연대는 확정할 수 없지만 金初 늦어도 태종 천회 연간에는 완공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 파노화가 쌓은 것은 영남장성 중에서도 七家子에서 捕魚兒海子(지금의 貝爾湖)에 이르는 '北線長城'이었다. 왜냐하면 포로화 시기 이후 몽골의 세력이 강대해지면서 大定 29년에는 이미 貝爾湖 지역을 포기하고 있었으므로 『金史』에 묘사된 장성의 走向과 북선장성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영남장성의 수축 연대를 알기 어려웠던 것은 과거 많은 연구자들이 복잡한 장성의 갈래를 알지 못하였고 문헌사료가 작고 흩어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최근의 고고학적 성과에 힘입어 이런 상황에 변화가 생겼다. 먼저 '起臨潢左界北京路'장성은 800리에 이르며 完顏襄이 承安 3년 축성한 것으로 '南線長城B단' 필자가 말하는 남선장성의 '內線長城' 東段에 해당한다. 두번째는 서북로 '坳舌至胡列丸'장성으로 600리에 달하며 앞서 완안양의 장성 수축 이후 서북로에서 쌓은 것으로 필자의 남선장성의 '내선장성' 西段에 해당한다. 세 번째는 서남로 '九百裏'장성으로 卞散揆가 쌓은 것이다. 숲이 이렇게 많은 장성을 쌓은 것은 당시 금 국력의 강약 및 북방 부족들의 역량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이다. 북방 부족들의 세력 확장에 따라 금은 점차 남으로 후퇴하였고 후퇴한 지역에 장성을 쌓아 이를 저지하고자 하였으므로 장성의 수축은 금대를 통틀어 계속 진행되었다.

嶺南 '中線長城'은 海陵王 전후 시기에 쌓은 것으로 보인다. 중선장성의 수축은 남선장성보다 이른 시기이므로 世宗 이후가 될 수는 없다. 장성을 남쪽으로 계속 축조한 것은 북방 부족들의 세력 신장을 보여주는 동시에 금의 방어 강화에 대한 의지를 읽을 수 있는 것이다. 위의 장성들에 대한 역사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것은 이들 장성이 주로 몽골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元代에 쓰여진 『금사』에서 이를 다루고 싶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남의 ‘남선장성’은 상황이 더욱 복잡하다. 그 동북쪽 기점은 북선장성 중선장성과 연이어져 쌓았으므로 세 갈래의 장성이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남선장성은 내선과 외선으로 나누어지는데 외선이 먼저 쌓아진 것이다. 필자는 世宗 大定 연간에서 章宗 明昌 承安 연간에 축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은 즉위 후 남선장성의 西段에 대한 增補를 행하여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던 東段과 연결시켰다. 이에 관해 몇 가지 고찰이 필요하다. 먼저 대정 5년 이루어진 邊堡 건설은 이미 존재하던 장성에 방어상의 필요에서 70개의 보를 추가한 것이다. 문헌 자료에 장성에 대한 기록이 없다고 하여 이 지역에 장성이 없었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마찬가지로 문헌 기록은 없지만 대정 21년 蒲察張家奴의 堡 설치 역시 기존의 장성 기초 위에 개조를 가한 것이다. 문헌 기록이 가지는 문제점은 금대 장성 수축에 대해 단지 일부만이 기록되어 있고 많은 경우에는 어떠한 기록도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이다. 또 남아있는 사료도 다른 시기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진 서로 다른 사건들의 관련된 많은 자료들을 한번에 기록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남선장성은 세종 시기에 이미 기본적인 수축이 끝나 있었으며 장종 시기는 사료상으로는 가장 많은 장성 수축이 이루어진 인상을 주지만 이는 착각이다. 장종 시기에는 남선장성 ‘內線’의 東段을 완안양이, 남선장성의 中段이나 ‘내선’ 부분을 宗浩가 쌓았다. 卞散撥가 쌓았다고 하는 ‘九百裏’장성은 새로 쌓은 것이 아니라 이미 있던 장성을 개선한 것이며 그 외에 張萬公, 李術魯德裕, 獨吉思忠 등이 장성 수축 기록이 있는데 이는 장성이 계속해서 쌓아졌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장성 수축에 대한 역사 기록이 漏失된 것이 많은 이유 중의 하나는 변방 장수들의 주도 하에 수축된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사서에 실리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張煒의 경우처럼 조정에서 이를 주관할 경우 노선이 길고 공사 규모도 컸으므로 사서에 실리는 경우가 많았다.

## 金東北路界邊堡建築時間考

孫文政, pp.57~63

금 長城이라고도 칭해지는 금나라 東北路界邊堡의 邊堡가 언제 건설되었는가의 문제는 국내의 학자들에 의해 열린 토론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에 대해 王國維는 承安 원년 혹은 2년으로 비정했으며 후대의 다른 학자들은 天輔 5년으로 단정짓기도 했다. 이 문제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金史』에 기록된 婆盧火가 건설한 東北路界邊堡는 大興安嶺 북쪽 기슭의 700km에 해당되는 북쪽 경계 壕이거나 흥안령 남쪽 기슭에 있는 금의 東北路界邊堡일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흥안령 북편의 것은 경계를 나누는 성격이 강한 반면 흥안령 남쪽의 것은 순수한 군사방어 성격이 강하다. 또한 파로화가 界壕를 건설할 당시 타타르와 몽고족 사이에 적대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금에 귀속된 타타르를 경계영역 안쪽에 넣으려 했을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금사』 「지리지」에 기록된 것처럼 臨潢, 金山 등의 지역이 금의 영역에 속하려면 界壕가 이들 북쪽에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볼 때 파로화가 건설한 것은 흥안령 북편의 界壕임에 틀림없다. 또한 금나라 초기는 대외로 확장을 추진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영역을 축소하는 형태로 界壕를 건설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금이 요를 멸망시킨 후 특히 해릉왕 시기에는 병력을 주로 남쪽에 집중해 남송과 대결했다. 이때 북쪽

에는 몽고와 烏古迪烈이 그 틈을 타 남쪽으로 자주 공격해 왔다. 결국 大定 21년 북쪽에 壕를 만들어 방어하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에 금 東北路의 界壕邊堡는 대정 21년(1181)에 건설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이미 당시 泰州지역에는 邊堡가 19개, 臨潢지역에 24개의 邊堡가 있어서 대정 21년에는 이들 사이에 壕를 건설하여 서로 연결해 군사 방어 용도로 쓰게 된 것이다.

금 章宗 시기에 유목 민족들이 금의 북쪽 경계지역을 자주 침범하게 되자 壕를 건설하는 논의가 다시 활발해졌다. 하지만 재정적인 문제 등으로 반대 의견에 부딪혀 건설이 여러 차례 중지와 재개를 반복했다. 『금사』 「宗浩傳」의 기록에 근거해 보면, 동북로의 界壕를 건설한 것은 完顏宗浩인데 그가 泰州로 출격하게 되는 것은 承安 2년으로 겨울에 도착했기 때문에 계호를 수축하지 못했고 그 이듬해에는 북벌에 참여하느라 역시 하지 못했다. 그가 동북로 界壕邊堡 구축을 담당한 것은 泰和 3년 이후의 일이다. 따라서 태화 3년 3월 3일에 동북로 계호를 건설하는 논의가 끝나고 그가 태주에 도착해 공사를 주관한 후, 그해 9월에 다시 조정으로 돌아올 때까지 완성된 것으로 추측된다.

결국, 파로화가 준설한 界壕는 금의 동북로 界壕가 아니고 흥안령 북쪽 러시아, 중국, 몽고 3국의 근접 지역 700km에 이르는 금의 邊界 濠塹이다. 이는 요나라의 界壕를 기초로 해서 만든 것으로 天會 6년에 추진되었다. 금의 동북로 계호 邊堡는 몽고족이 흥기한 후 타타르가 금에 대해 침입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상황에서 건설되었다. 우선 堡가 건설되었고 다음으로 壕를 뚫어 이들을 연결했다. 동북로의 계호 邊堡는 世宗 大安 연간에 만들어지기 시작해 章宗 대를 거쳐 중단과 續開를 거듭한 후 최종적으로는 泰和 3년 9월 壬辰일에 완성되었다. 이후에는 약간의 보수만이 이루어졌다.

## 古代東北民族入主中原的文化解剖

金禹彤, pp.64~68

중국 고대 동북의 주요 4대 族係는 濊貊, 肅慎, 東胡, 漢族이다. 濊貊계로는 부여, 고구려가 있다. 肅慎계는 중국측 문헌에 가장 먼저 등장한 민족으로 시대에 따라 그 명칭이 달랐는데 挹婁, 勿吉-말갈-여진이다. 이중 粟末靺鞨은 발해를 건국하였으며 五代 이후 女眞으로 불리면서 건주·해서·야인여진으로 나뉜다. 여진은 금을 세웠으며 명 후기 건주여진이 淸을 세웠다. 東胡는 西周末에 처음 중국측 문헌에 등장하며 烏桓 鮮卑는 秦漢 교체기 이후 匈奴의 지배를 받았다. 꾸준히 세력을 키운 鮮卑는 4세기에 北魏를 세워 東靺鞨과 남북 대치 상태를 만들었다. 이는 중국 역사상 최초로 동북 소수민족 정권이 漢族 정권과 중원에서 대치하는 국면을 만들어 낸 것이었다. 東胡의 한 지파인 거란은 耶律阿保機 아래 각 부를 통일하여 遼를 세우고 北宋과 대치하였다. 東胡族계의 室韋에서 나온 몽골은 테무진이 각 부를 통일하여 대몽골국을 세웠다. 동북의 소수민족 특히 肅慎과 東胡가 중국 역사에 미친 영향은 중원 주변의 다른 지역의 민족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독특한 지리와 기후 조건에 기초하여 고대 동북민족들은 장기간의 역사 발전 과정 중에서 遊獵經濟를 위주로 유목·어렵·농경의 3대 생산방식이 병존하는 경제적 특징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고대 동북민족들은 공통으로 독자적 특색의 동북문화권을 만들어 내었다.

먼저 水草를 쫓아 쉽게 이주하는 생활 관습은 중원의 농경문화와 대비하여 진취적 정신을 가지도록 만들었으며 질박하고 실용을 중시하며 불굴의 의지를 가지며 용맹한 민족적 성격을 낳았다. 또 환경적

제약으로 인해 문화발전이 중원에 비해 낙후되어 있었지만 전통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또 중원문화에 대한 동경이 더해져 외래 문화에 대해 개방적인 민족 심리 상태를 가졌다. 漢族과의 문화 교류를 통해 문화적 수준을 높인 동시에 농경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아지면서 점차 중원문화에 대한 동질감을 낳은 것이 동북 민족들의 入主中原에 사상적 동기를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선비족의 北魏를 시작으로 단순한 약탈에서 영토를 점령하고 농경문화 통치를 실행하는 것이 동북민족국가의 목표가 되었다. 진취적 기상과 중원문화에 대한 동질감은, 중원에 들어온 후 이들이 중원문화를 힘써 배우려고 하는 동기를 부여하였으며 이를 통해 찬란한 문화적 성취를 얻을 수 있었다.

동북의 가혹한 자연 환경 속에서 생존을 도모하고 장기간에 걸친 중원민족들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동북의 민족들은 완강하고 용맹한 민족적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동북의 민족들은 騎射 擊毬와 같은 체육 활동을 편애하였으며 강인함과 호방함을 숭상하여 각 민족의 興盛에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또한 이는 여성에게도 적용되어 남자와 같이 騎射 등의 활동에 남자와 같이 참여하였다.

동북과 중원의 교류는 일찍부터 이루어졌지만 유동적인 생활 환경과 가혹한 생존 조건으로 인해 등급을 강조하는 禮治 사상이나 엄격한 사회 규범이 형성되지 않았으므로 예법을 경시하고 자연스러움을 중시하는 민족적 성격과 문화가 만들어졌다. 경로 관념이 희박하고 혼인에서 자유연애가 이루어지며 輩分을 무시한 친족 간의 혼인이 가능하여 중원의 三綱五倫과 같은 관념이 희박하였다. 이는 대외 관계에서도 적용되었다. 정권을 세우기 전 중원 왕조와 의부 관계를 맺고 있지만 이는 군사적 약세에 기인한 편의적인 것으로 조건이 성숙해지면 언제든지 기존의 질서를 파기하고 중원으로 진출하였다. 고대 동북의 민족들이 주로 믿었던 샤만교는 고대 동북 민족들의 문화 원류를 이루었다. 또 중원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불교의 영향이 제한적이었으므로 샤만교는 생활에도 깊숙이 영향을 미쳐 동북인들의 순박하고 진솔한 성격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고대 동북 민족들의 문화는 중원문화와의 부단한 접촉과 융합을 통해 중화문화의 갱신과 整습을 촉진하였다. 앞서 지적한 동북 민족들의 특징은 이들이 중원에 들어와 주인이 되었던 특수한 역사현상을 풀어 나가는 데에 일정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 穆拉維約夫武裝侵華與清朝東北邊防

孔艷波, pp.71~74

학계에서는 1950년대에 제정 러시아가 흑룡강 유역을 침입하여 중국 영토의 일부를 점령한 것에 대한 원인을 청조의 봉금정책에서 찾기도 하고 내란을 평정하느라 동북지역에 대해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는 데에서 찾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들은 각각의 합리성은 가지고 있지만 대략적인 논의에 불과해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동북 삼성의 변방지역 방어 상황과 당시 정치 국면의 특징을 고려해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

동북지역은 청 왕조의 발상지로 八旗를 중심으로 조직된 삼성지역의 군사력은 비교적 안정적인 것이었다. 都統이나 總管이 관할하는 군진, 장군 관할 구역내의 鎮守區域과 소수의 관병이 지키는 柳條邊門 및 카륜은 동북 3성의 기본 방어구조를 이루었다. 道光 연간의 『欽定中樞政考』나 翁同龢가 鹹豐 말년에 작성한 『皇朝兵制考略』에 따르면 盛京將軍轄區, 吉林將軍轄區, 黑龍江將軍轄區 등에 팔기군이 배치되어

대략 4만 4,000여 명의 군인이 주둔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重陸輕水’, ‘重南輕北’의 배치전략과 팔기의 기동병으로 변방기지를 방어하려는 방침은 동북지역에 외부의 침입이 없을 때에는 적절했다.

합풍 이후 태평천국 운동이 일어나는 등 전국 각지에서 크고 작은 전쟁이 발생했다. 각 路에 소속된 청 군대는 수세에 몰리게 되고 급기야는 동북지역 팔기군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 팔기군에 대한 빈번한 이동 명령과 전쟁은 북방 출신의 팔기군으로 하여금 기후가 다른 남방지역에서도 활동하게 하여 풍토 병에 걸리는 등 팔기군의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군사력이 약화된 동북지역은 곧 제정 러시아의 침략을 받게 된다. 네르친스크 조약 이후 제정 러시아는 중국 침략의 야욕을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며 1854년부터는 무라예프의 지휘 하에 흑룡강을 중심으로 중국 영토를 점령했다. 이들이 중국에 침입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우선 청나라 군대와 비교해 우세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이다. 1858년에는 흑룡강 우수리지역 군대가 7,700여 명에 달하기도 했다. 이외에 중국이 내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은 제정 러시아가 동북 지역을 침략하는데 호기를 제공했다. 이로 인해 아이훈 조약을 맺는 치욕스런 역사가 시작되었다.

결국 동북지역이 제정 러시아에게 점령당하게 된 데에는 두 가지 객관적인 요소를 거론할 수 있다. 그 하나는 東三省의 방어 구조를 청 정부가 끝까지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당초 사회 치안을 목적으로 조직된 방어구조는 외국의 침략에 대비하는 국방구조로 전환되지 못했다. 이러한 데에는 중국이 외교상의 윤리와 도덕을 너무 과신한 나머지 제정 러시아도 중국처럼 신의를 지킬 것이라고 잘못 생각한 것도 한 이유가 되었다. 다른 하나는 동삼성의 팔기군을 내부 전쟁 진화에 투입하는 구조적인 상황을 바꾸지 못했다는 것이다. 호남과 호북의 군대가 힘을 발휘하기 전 청 조정의 군대 중 가장 전투력이 강했던 것은 흑룡강, 길림 팔기이다. 국내의 군사 폭동을 진압하는데 이들 팔기를 꾸준히 투입해야하는 상황은 제정 러시아의 동북 침입에도 속수무책이게 했다.

## 清末東北新政與東北邊疆現代化進程-以徐世昌主政東北時期的新政改革爲中心

高月, pp.75~84

東北 邊疆의 현대화는 청말 東北新政에서 시작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盛京將軍 趙爾孫巽 시기에 시작하여 徐世昌이 東三省 總督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절정에 달하였다. 근대 동북 변강은 근대의 다른 중국 사회와 비교하여 세 가지 특징을 가진다. 첫째, 청은 동북을 ‘龍興之地’로 간주하여 內地 行省과는 별도로 장군체제를 실시하고 旗民分治政策을 실행하였다. 둘째, 동북 旗人은 상무적 기질이 농후하여 문화 교육은 극히 낙후한 상태에 처해있었다. 셋째, 근대 중국에서 동북은 외부 압력이 강한 지역이었다. 따라서 어떻게 간섭을 배제하고 열강의 동북에 대한 영향을 이용할 것인가는 청말 동북신정과 현대화가 직면한 특수한 문제였다. 따라서 정치구조, 교육, 국제환경의 세 가지 측면을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는 청말 동북 현대화의 핵심 내용이었다.

### 1. 정치구조 개혁

1907년 3월 8일 동북에 대한 조사를 맡고 있던 徐世昌의 건의를 받아들여 그를 東三省總督으로 임명하여 200여년에 걸친 군부체제를 폐지하고 행정제로 전환하였다. 奉天에는 承宣廳, 諮議廳, 交涉司, 旗務

司, 民政司, 提學司, 度支司, 巡警道, 勸業道, 蒙務局을, 吉林에는 公署文案處, 교섭사, 민정사, 제학사, 탁지사, 권업도, 旗務處를 黑龍江에는 문안처, 민정사, 제학사, 탁지사, 기무사 등을 설치하였다. 사법체제 역시 사법과 행정을 분리하였다. 지방행정에서는 봉천은 旗務관제를 폐지하고 변경을 튼튼히 하고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높이기 위해 결원이 있는 지방관을 보충하였다. 흑룡강은 동북과 서북지역에 대한 지방관제를 조정하였다. 정치체제 개혁의 특징으로는 행정관리면에서 집권화 민주화의 추세를 보이고 정치제도가 전문화되었으며 각급 기관 사이에 효과적인 결합을 실현하였다는 점이다.

## 2. 교육개혁

먼저 교육행정기구를 설립하여 각 성에 提學司를 설립하고 봉천 길림에는 府廳州縣에 勸學所를 설립하였다. 흑룡강은 권학소 대신 勸學員을 각지에 세우도록 하였다. 둘째, 보통교육학당, 사범교육학당, 실업교육학당, 전문교육학당, 旗民教育學堂 등 각급 學堂을 세웠다. 교육 개혁은 형식상에서 현대적 교육으로의 전환을 실현하고 東北新政에 인재를 제공하고 국민 소질을 높여 현대화의 진전을 끌어낼 수 있었다.

외교적으로 徐世昌은 동북을 개방하여 통상을 장려하려고 하였지만 재임 기간 중 전면적인 개방은 끝내 실현되지 않았다. 또 외채를 빌려 철로를 닦고 東三省銀行을 세우고자 하였다. 하지만 철로 구축은 일본이 간도에 대한 청의 주권을 인정하는 대신 청정부가 新法鐵路 계획과 기타 몇 가지 권익을 방치하기로 함에 따라 유산되었다. 동삼성은행은 미국인 해리만에게 3,000만 달러를 빌려 세우려고 한 것이지만, 미국 정부와의 협의를 통한 일본의 방해와 월가의 금융 위기로 해리만이 차관을 제공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역시 실패로 돌아갔다. 개방과 외자 도입은 열강 사이의 세력 균형을 이용하여 동북 주권을 지키는 동시에 동북 현대화를 위한 시간을 벌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것이지만, 또한 동북이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 분점되는 것과 열강이 병립하는 상황 중 피해가 약한 쪽을 택하려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외교상의 노력은 그 성과가 미미하였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청말 동북 현대화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동북의 集權式 發展은 중앙정부체제내의 분권 추세를 가속화시켰으므로 총체적으로 근대 중국 현대화의 촉진 작용은 제한적인 것이었다.

## ■ 2008년 제 4기

邊疆研究應該有一個大發展

馬大正, pp.2~7

19세기 이래 중국 변강 연구는 두 차례의 고조기를 맞이했다. 첫 번째는 19세기 중엽에서 19세기 말까지로 西北史地學이 흥기한 것이고 두 번째는 1920년대에서 40년대까지로 민족위기가 격발하는 배경 속에서 시작된 변강연구라 할 수 있다. 1980년대에 이르러 중국 변강연구는 또 한 번의 발흥기를 맞이하는데 이 시기 동안 두 가지의 중요한 특징이 나타났다. 하나는 이전의 연구가 주로 근대시기 邊界문제에 한정되었던 것에 비해 연구 범위가 확대되어 중국 고대 疆域史, 중국 근대 邊界沿革史와 중국 변강 研究史 등 3분야로 나뉘어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史地 研究의 범위를 뛰어넘어 중국의 변강

역사를 현재 상황과 결합시켜 현실에 가까운 복합학문적 특징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루었다.

중국 변강 연구가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순히 변강 역사의 발전 규칙과 그 궤적을 추적하는데 머물러서는 안되고 현재 변강이 발전하는 현실과 미래에 대한 추구가 있어야 한다. 또한 변강 연구에 종사하는 연구자들은 스스로의 역사적 책임을 깨닫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노력해야 한다.

중국 변강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유일한 연구소인 中國邊疆史地研究中心은 최근에 ‘十一五’발전계획을 확정하고 ‘하나의 핵심(중국 변강학 연구에 있어 초보적인 이론기초를 확립한다), 두 가지의 노력(변강 연구 학문을 위한 노력, 중국변강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노력), 세 가지의 견지 내용(기초연구와 응용연구를 병행한다, 연구성과를 꾸준히 낸다, 개방성 연구의 사상과 방법을 사회적으로 보급한다)’을 명확하게 밝혔다. 향후 “두 가지의 날개를 꼭 잡아 주체를 드러내게 한다”는 것을 주지로 삼아 노력할 계획에 있다. 두 가지 날개라는 것은 ‘東北邊疆研究與現狀系列研究工程’과 ‘新疆歷史與現狀系列研究項目’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성과를 내고 인재를 배양해 중국 변강 연구의 전면적인 심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주체를 드러내게 한다는 것은 변강학 이론을 연구의 중점으로 삼고 역사학, 사회학, 민족학, 정치학, 법학 등 다양한 학문과 결합시켜 중국 변강의 역사와 현실 문제에 대해 종합적인 연구를 진행해 중국 변강학 이론체계를 구성함을 말한다.

변강이론에 대한 연구 제목은 매우 다양하다. 현재의 연구 단계에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중국 강역 이론 연구’로 구체적으로는 중국 고대 강역 형성과 발전의 과정 및 규율, 중국 고대 疆域觀 및 治邊觀의 변화, ‘大一統’과 중국 고대 강역의 형성, 민족융합과 중국 고대 강역의 형성, 기미정책과 중국 고대 강역의 형성, 중국 고대 宗藩觀의 형성과 발전, 중국 고대 중번체제의 형성과 발전, 중번관계와 중국 고대 강역의 형성, 중국 역사상의 중번 관계의 특징, 근대 宗藩觀의 변천, 조공-책봉체제의 형성과 발전 등이 있다. 다른 하나는 中外 疆域이론 비교연구로 동·서방 강역 관념의 차이와 공통점, 서방의 중국 전통 강역 관념에 대한 인식, 서방 강역 이론의 중국 전통 강역 관념에 대한 영향, 근대 중외 변강 이론 연구의 발전 추세와 평가 등이 있다.

변강 이론 연구를 체계적이고 착실하게 전개하기 위해서 아래의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① 현실과 미래에 정면으로 대응해야 한다. 과거 역사를 연구하는 이유 중 하나는 현실과 미래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변강 역사 연구는 현실적으로 제약을 받기도 하는데 변강 연구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현실과 미래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② 중국적 시각과 세계적 시각을 모두 갖춰야 한다. 중국적 시각이라 함은 중국이 처해 있는 특수성, 다시 말해 다민족국가가 갖고 있는 특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 또한 중국 변강 문제는 주변 국가들과 여러 형태로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큰 시각에서 중국 변강 문제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조화를 이루되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고, 같음을 추구하되 다른 것을 인정해야 한다. 역사 문제는 여러 가지 조건들로 인해 의견 차이를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 이것을 인정하고 서로 교류를 통해 역사 연구에 대한 심층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고구려 문제 연구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원칙이 적용

되어야 한다. 현재 고구려 문제에 관한 여러 견해가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서로 다른 해석 방식이 존재한다. 고구려 역사 문제 연구를 좀더 심도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역사와 현실 그리고 학술과 정치를 분리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로 다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상호 이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학술 교류를 증진해야 한다. 한발 더 나아가 교류를 통한 자신의 학문 심화에 힘써야 한다. 이러한 것이 가능할 때 고구려 연구에 더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다.

④ 학술 연구와 정책 결정의 변증적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다. 우선 연구자들은 사상을 개방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태도를 갖고 과감하게 접근하여 이전과 다른 시각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주제로 삼는 학술 연구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핵심으로 삼는 정책 결정은 서로 다른 문제이다. 이는 서로 영향을 주지만 이 둘을 동일시해서는 안된다. 정책 결정자가 학술 연구 결과에 동의할 수는 있어도 이를 바로 정책 결정에 이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한편 학술 연구자는 애국주의와 실증을 추구하는 정신을 견지하며 연구를 진행해야 하며 민감한 문제를 다룰 때에는 반드시 일정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앞서 언급된 내용들은 한 두 사람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고, 학술계 전체의 노력과 행정 분야에서의 지원이 있어야 가능하다.

본인은 2004년 말에 글을 발표해 앞으로 하고자 하는 5가지 일을 언급한 적이 있다. 그중에 하나가 ‘중국 변강학의 구축’이다. 이것은 매우 큰 주제로 앞으로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인의 가장 큰 바램은 중국 변강 연구가 큰 발전을 이루고 중국변강학이 탄생하는 것이다.

## 李雲從與好太王碑捶拓

耿鐵華, pp.8~11

광개토대왕비[好太王碑]가 懷仁縣의 書啓인 關月山에게 발견된 후 京師의 학자들이 통구에 사람을 보내 탁본을 뜨면서 광개토대왕비의 탁본이 퍼지게 되었다. 탁본을 뜬 인물 중 李雲從이란 사람이 있어 여러 차례 학자들에 의해 언급되었다. 먼저 吳重燾이 언급한 정밀한 탁본을 뜬 사람은 葉昌熾, 劉承幹의 기록을 통해 李雲從임을 알 수 있다. 張延厚의 跋語에 나오는 李大龍은 王健群이 밝힌 것처럼 李雲從과 같은 사람으로 大龍은 그의 字이다. 盛昱이 그를 통구에 파견하여 탁본을 뜨게 했다고 기록된 光緒 15년은 그가 두 번째로 통구에 온 것이다. 그 이전 처음 通溝에 온 시기에 대해 光緒 2年 전후로 보는 것은 옳지 않으며 潘祖蔭이 李雲從을 처음 보내 탁본한 것은 光緒 6년 이후일 것이다.

1995년 徐建新은 북경대학 소장본에 대한 조사 연구에서 北京大學A本은 光緒 15년 탁본한 것 중의 하나라고 판단하였으며 이 탁본에서 볼 때 李大龍이나 李龍 중 하나는 잘못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필자는 李雲從의 광개토대왕비 초기 탁본사에서의 중요성 때문에 조사를 한 바 있다. 2005년 石家莊에서 광개토대왕비 탁본을 조사하고 북경에 돌아와 유리창에서 조사를 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하지만 그 때 구입한 유리창과 관련된 책 중에서 李雲從과 관련된 사실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서화와 골동품 감정가이자 수집가였던 吉林省박물관 부관장이었던 張伯駒에 대한 전기 속에 李雲從이 琉璃廠 宜古齋에서 碑帖字畫를 경영했다는 언급이 나온다. 또 『海王村人物』에 따르면 李雲從은 金石學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특히 陳重遠의 『鑒賞述往事』의 「端方求教李雲從」에는 李雲從에 대한

가장 상세한 기록이 나온다. 이들 기록을 종합해 볼 때 李(大)龍은 咸豐 8년 태어났으며 河北 故城 사람으로 字는 雲從이다. 어렸을 때 宜古齋碑帖鋪의 學徒가 되어 기술을 익혀 法帖 碑帖을 감정하는 古玩家가 되었고 光緒 10년 宜古齋의 경리가 되었다. 光緒 15년 盛昱의 명을 받아 通溝에 와서 뜬 탁본이 널리 퍼지게 되었으며 光緒 24년 가난으로 인해 36세에 죽었다. 李雲從이 宜古齋를 경영한 시간은 길지 않지만 金石碑帖 方면의 학문으로 유명하였고 특히 호태왕비 탁본은 대표적인 것이었다. 張延厚의 소개에 따르면 潘祖蔭의 명에 따라 50개를 탁본했다고 하는데 光緒 6년에서 10년 사이로 추측되며 그 탁본은 雙鈎加墨本 일 것이다.

현재 李雲從의 탁본은 북경대학 도서관 선본실에 소장된 好太王碑拓本A(‘北大A本’으로 약칭)이라고 단정할 수 있다. 목록 넘버는 3021326-3이며 총 4쪽에 장정을 하지 않은 상태로 남색 케이스 속에 함께 보관되어 있다. 매 쪽의 길이는 다음과 같다(길이:너비): 1면(5.43m:1.46m), 2면(5.30m:1.34m), 3면(5.40m:1.94m), 4면(5.31m:1.26m).

徐建新의 소개에 따르면 이 탁본은 56장의 비교적 두꺼운 흰색 한겹 화선지에 탁본한 것으로 찢어진 곳이 적으며 碑文에서 결락된 문자들이 뚜렷히 드러날 정도로 잘 탁본되어 있다고 한다.

#### 書山有路勤爲徑-高句麗, 渤海研究領域著名學者魏存成教授訪談

祝立業, pp.12~14

위존성 선생은 길림대학 邊疆考古研究中心과 文學院 考古學科 교수이자 博士生導師이다. 현재 ‘東北歷史與疆域研究中心’의 主任, 길림성 ‘고구려연구중심’의 專家委員會 副主任, 중국사회과학원 ‘東北邊疆歷史與現狀系列研究工程’의 專家委員會 成員, 길림성 考古學會 名譽理事長을 맡고 있다. 위존성 선생은 위진 시기에서 隋唐에 이르는 시기의 고고학, 고구려, 발해의 고고학, 역사 및 동북민족과 疆域의 역사를 가르치고 연구해 왔다. 여러 해 동안 학부생들에게 꾸준히 강의를 해왔으며 국내 대학원생들 뿐만 아니라 독일, 한국, 미국, 영국, 일본 등지에서 온 유학생들도 지도해 왔다. 유학생들 중에는 독일 Goettingen대학, 미국 하버드 대학과 영국 런던대학의 박사진수생들도 포함되어 있다. 여러 항목의 연구 프로젝트에 참가하여 국내외 학술 잡지와 학술회의에서 수십편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이미 『高句麗考古』, 『東北古代民族, 考古與疆域』(合著), 『高句麗遺跡』 등의 학술저작을 출판했다. 또한 올해 내에 『渤海考古』를 문물출판사에서 출간한 예정이다. 위존성 선생은 중국의 고구려, 발해 고고학과 역사연구 분야에서 권위자이다. 2008년 봄으로 위존성 선생이 학문을 시작한지 40년이 되었고 이를 계기로 인터뷰를 시도했다.

기자 : 40년 동안의 학문 경험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위존성 : 길림대학에 입학한 해로부터 44년이 되었다. 그동안 나에게 영향을 크게 미친 두 가지 시기가 있다. 하나는 대학 졸업 후 伊通縣에서 이루어진 ‘大文科’班의 教習경험이다. 다른 하나는 북경대학에서 진수생으로 있었을 때이다. 전자는 나에게 유물주의와 변증법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해주었고 후자는 학문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칠 수 있는 기초를 갖게 해주었다. 만약 40년 동안의 학문 생애의 교훈을 이야기해 본다면, 첫째 필요로 하는 작업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둘째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셋째 개인과 집단의 관계를 잘 설정하고, 넷째 가르치는 것과 연구하는 것 그리고 행정 업무를 적절하게 조화

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자 : 2004년 전국우수교사상을 수상할 당시 “교사라는 일은 양심적으로 적어 놓은 장부다”라고 했는데 4년이 지난 지금 그 뜻을 다시 설명해주세요. 또한 선생님이 학술 연구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위존성 : 학문을 가르치고 인재를 육성하는 것은 교사의 천직으로 충분한 事業心과 책임감 없이는 이 일을 잘 할 수가 없다. 이것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얼마나 좋은 효과를 얻게 되는가는 모두 양심과 관련된 것이어서 이는 양심의 장부와도 같다.

학문을 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진지한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20년 전 高淸海 선생이 회의상에서 했던 말처럼 연구를 한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말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인데 이것은 남의 생각을 남의 말로 이해하고, 남의 생각을 자신의 말로 표현한 후에야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연구 업적에 관심을 갖고 꾸준한 독서를 해야 한다. 또한 사람마다 지역마다 연구 환경과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잘 이용해서 학문을 할 필요가 있다. 길림대학이 고구려와 발해의 고고학과 역사에 집중해 연구하는 것이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역사학과 고고학은 여러 해에 걸친 천착된 연구가 없으면 성과를 낼 수가 없는 학문이다. 따라서 계획을 갖고 독서를 하고 부단히 현장실습을 겸해야 한다.

기자 : 선생님은 2003, 04년에 고구려문제 수석전문가로 2년 연속 파리와 소주에서 열린 27, 28회 세계 유산대회에 참가해 ‘고구려왕성, 왕릉 및 귀족묘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의 기분은 어떠했으며 길림성의 세계문화유산에 대한 보호 정책에 건의하고 싶으신 것이 있습니까?

위존성 :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기쁨도 느끼지만, 책임감도 많이 느낀다. 또한 사회과학의 기초연구가 현실사회에도 도움을 주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게 되었다. 세계문화유산은 중국에 의해 소유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와 인류가 함께 공유하는 것이다. 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지속적 인 연구가 필요하다.

기자 : 신중국 성립 이후 가장 초기에 고구려, 발해의 역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학자로서 그 동안 학계에 어떠한 연구 성과가 있었으며 장래에 이루어질 고구려, 발해 연구에 대한 건의나 의견이 있습니까?

위존성 : 신중국 성립 이후 학술계는 고구려와 발해 유적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와 발굴을 계획적으로 추진했고 최근 몇 년 사이의 발굴 작업은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 이를 통해 종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앞으로는 발굴작업 뿐만 아니라 자료의 정리와 연구를 위한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한다. 종합적 연구를 중시하고 연구인력 양성에 힘써야 한다.

기자 : 길림성 사회과학원 설립 50주년과 동북사지 잡지의 창간 5주년을 맞이하여 하고 싶은 말은?

위존성 : 길림성 사회과학원은 동북 삼성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볼 때도 매우 선진적인 연구

기관이다. 앞으로도 더 좋은 연구 성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동북사지』는 창간된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국내외 영향력이 크고 매우 특색있는 잡지로 향후 더욱 훌륭한 잡지가 되길 기원한다.

## 渤海墓葬의 整體面貌和主要特徵

魏存成, pp.15~19

발해 무덤의 분포 범위는 상당히 넓은데 크게 두 개 지역(松花江 중류·牡丹江 상류·牡丹江 중하류·圖們江 유역·綏芬河 유역; 한반도 동북부)으로 나눌 수 있다. 조성 연대는 北朝 시기에 속하는 團結墓葬이 가장 빠르고 제2松花江 중류지역(‘제2송화강’으로 약칭)이 그 다음, 그 뒤로 牡丹江과 圖們江 유역이다. 본고는 필자가 집필 중인 『渤海考古』 「墓葬」장의 마지막 부분으로 본서에서는 각 지역 무덤에 대해 상세한 통계와 분석을 행하였다. 아래는 그 총결이다.

### 1. 墓葬의 유형과 변화

발해의 묘장은 土坑, 石壙, 石室, 石棺(혹은 石槨), 磚室의 다섯 종류로 나눌 수 있으며 지표에는 封土가 적지 않게 남아 있다.

土坑墓는 團結의 전부, 제2송화강에서는 주류, 牡丹江 상류의 六頂山 무덤군에서는 소수이지만 그 규모와 장례습속은 여전히 주목을 받고 있다. 반면 牡丹江 중하류와 圖們江 유역에서는 매우 적다. 石壙墓는 ‘제2松花江’에서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구조도 아직 완전하지 않으며 牡丹江과 圖們江 유역에서 여전히 발견되고 있다. 石壙墓는 蓋頂石가 없어진 파괴된 石室墓·石棺墓와 구별이 어려운 경우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수가 많지 않다.

石室墓는 발해 무덤 중에서 가장 많으며 六頂山부터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 유형은 돌로 사방 벽을 쌓고 한쪽 벽에 문을 만들었다. 일부 중대형 무덤의 묘 입구 외곽에 또 길이가 각기 다른 墓道를 만들었으며 甬道가 있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다수의 중소형 무덤에는 단지 묘실 한쪽 벽에 墓門을 만들고 양 측면에 비교적 커다란 돌덩이를 세우고 중간에는 크고 작은 돌덩이로 채워 막아 외부와 접하는 墓道가 없다. 묘실의 평면 및 묘실과 門道·墓道の 관계에 따라 石室墓는 또 鑿形方室, 鑿形長方室, 刀形長方室과 長條形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규모는 순서에 따라 체감된다. 長條形은 圖們江에서 비교적 많이 발견되며 묘실이 상대적으로 좁고 긴데 세 면의 벽을 쌓은 후 좁은 벽쪽을 마지막에 돌덩이로 봉쇄하여 墓門임을 드러냈다.

石棺墓는 石室墓 분포 지대와 같으나 수가 많지 않고 규모도 대부분 매우 작다. 磚室墓는 上京附 부근의 虹鱒漁場 무덤군과 圖們江 유역에서 발견되는 몇 기만이 남아있는데 대부분은 대형이다. 묘실의 꼭대기에 蓋石板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磚石合建墓라고 부르기도 한다. 벽돌로 꼭대기를 막은 것은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았다.

결국 말갈족 원래의 墓葬은 土坑墓로 北朝 시기 勿吉族이 남하하기 전까지 소급될 수 있으며 발해 초까지 여전히 사용되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勿吉이 남하하여 제2송화강 중류 지역에 도착한 후로 石壙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뒷날 石室로 발전하게 된다. 변화의 원인은 당연히 勿吉族이 남하하여 고구려와 접경하면서 고구려 후기 封土石室墓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데 동시에 지리 환경의 변화와도 관계가

있다. 하지만 고구려의 封土石室墓이 積石石壙墓·積石石室墓의 변화를 거쳐 온 것이므로 묘실이 대부분 지상이나 반지하에 위치하는 반면 발해의 석실은 묘실이 대부분 지하나 반지하에 있다는 점에서 다른 면이 있다. 上京 서쪽의 石崗 지대는 밑으로 파들어가기 힘들어 묘실이 비교적 얇은 반면, 산비탈 지역에는 윗비탈에서 아래로 깎은 후 다시 석벽을 쌓았다. 石棺(石槨)墓는 石室墓와 같은 시기에 유행하였다. 벽돌로 바닥을 만드는 방식은 六頂山에서 이미 시작하는데 완전히 벽돌로 벽을 만드는 것은 上京으로 천도한 이후이며 792년 만들어진 眞孝公主墓가 유명하다. 발해의 磚室墓는 명확히 중원 무덤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 2. 장례습속 · 도구와 지상 건축

1) 多人葬와 二次葬: 발해 무덤에는 單人葬·雙人葬과 多人葬이 동시에 존재하고 또 일차장과 이차장이 있다. 多人葬과 이차장은 團結에서 이미 발견되고 『三國志』 「동옥저전」에 유사한 기록이 보인다는 점에서 말갈족 고유 장례 풍속의 하나로 보인다. 옥저족과 그 활동지역은 뒤에 모두 발해에 속하므로 이런 풍속이 발해에서 널리 유행한 것이다.

2) 장례도구(葬具): 團結에서는 목제 葬具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제2松花江의 주로 土坑墓에서부터 확실히 목제 葬具의 木槨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는데 현지의 漢代 부여 무덤 葬具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六頂山의 목제 葬具는 다시 또 발전이 있어 土坑·石壙·石室墓에서 木槨이나 木棺이 널리 발견되는데 木槨 木棺을 동시에 사용하기도 하고 木槨의 구조도 더욱 완비되었다. 牡丹江 중하류와 圖們江에서 널리 유행한 石室墓에서는 木棺이 계속 사용되지만 木槨은 볼 수 없다.

3) 불태운 흔적: 團結에서 숯이 발견되었고 제2송화강 중류지역과 六頂山에서 나무 재질의 葬具를 사용한 무덤 대부분은 불에 태워졌다. 六頂山의 경우 木槨을 사용한 경우 모두 불에 태워진 반면 木棺을 사용하고 木槨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불에 타지 않았다. 牡丹江 중류와 圖們江 유역에서도 불에 태워진 흔적들이 아직 발견되지만 개별적인 경우이다. 불에 태운 흔적과 목제 葬具의 변화는 비교적 분명한 대응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런 불에 태운 흔적은 말갈족의 오래된 장례 풍습인 화장으로 학계에서 생각하고 있는데 대개 上京으로 천도한 후에는 더 이상 유행하지 않았다.

4) 지상 건축물의 遺跡 유물: 三陵屯 M1과 和龍河南屯 고분의 지상에서 礎石과 圍牆이 동시에 발견되었는데 원래 건축물이 있었음은 의심할 필요가 없다. 『魏書』 「물길전」의 기록에서 볼 때 이는 그 민족의 풍습에서 연원하는 것이다. 六頂山 몇몇 무덤 封土 안의 판목과 기와가 부채꼴로 배열되어 있는 현상은 ‘무덤 위에 움막을 짓는’ 습속과 관계가 있다는 추론은 근거가 있다 할 수 있다. 무덤 위 건축물의 다른 형식은 眞孝公主墓와 馬滴達고분처럼 지하에 묘를 만들고 지상에는 탑을 만드는 방식으로 이는 확실히 불교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 3. 부장품

대다수 무덤군은 이미 심하게 파괴되어 부장품이 불완전하지만 남아 있는 자료만으로도 그 특징의 변화를 찾아볼 수 있다.

1) 陶器: 각지의 무덤에서 출토된 도기는 표1에 정리하였다. 團結墓葬에서 출토된 도기는 매우 간단하여 겨우 나팔형 입구 향아리[喇叭口大罐], 深腹筒形罐과 주발 등 세 종류뿐으로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喇叭口大罐이다. 이 종류의 항아리는 團結 부근인 綏濱四十連遺址·同仁遺址와 黑龍江 맞은편인 러시아 伯力에서 大薩馬卡河 입구 부근의 布拉斯諾文 유적지에서 모두 발견되는데 시간적으로는 기원 전후에서 北朝 시기까지이며, 隋唐代의 것도 있다. 隋唐 시기 이 지역은 黑水靺鞨의 활동 범위에 속한다.

제2松花江 중류지역 이후 도기의 종류는 확연하게 증가하며 기존의 喇叭口大罐은 소멸되어가고 深腹筒形의 항아리 주발이 계속 유행하며 그 밖에 또 鼓腹罐, 殘口瓶, 短頸壺, 小口瓶, 盂, 豎耳罐, 單耳杯, 器蓋, 明器盅 및 紡輪 등이 증가한다. 그 중 수적으로 가장 많은 것은 深腹筒形罐과 鼓腹罐이며 형식상으로도 다양해진다. 東頸侈口鼓腹罐은 喇叭口大罐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소급되지만 실제로는 제2松花江 중류지역에 원래 있던 鼓腹陶器와 고구려 기물의 영향을 받은 것이며 더 소급하면 遼西 지역의 三燕와 遼寧 지역 漢代 유물 중에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다.

제2松花江에서 출토된 도기는 牡丹江, 圖們江 유역에서도 거의 계속 유행하였으며 어떤 지방에서는 또 盤, 碟, 盆, 長頸瓶, 束頸展沿壺, 唾盂, 鼎, 키 모양의 벼루, 베개 등의 기물이 나타났다. 深腹筒形罐의 주둥이는 보편적으로 雙唇, 方唇 혹은 圓唇인데 雙唇의 下唇에 사용된 무늬는 빗살무늬도 있고 指甲紋 혹은 鋸齒紋도 있다.

특별히 주의할 것으로는 上京과 中京 부근의 무덤에서 출토된 釉陶와 정교하고 아름다운 三彩 및 絞胎 器物이다. 三陵屯 M4의 三彩 향로, 海林山咀子墓의 綠釉陶, 和龍石國墓의 三彩 女俑과 絞胎枕, 和龍北大墓의 醬褐釉雙系罐, 三彩束頸展沿壺와 三彩絞胎碗, 三彩 등은 漢代에 나타난 鉛釉陶에서 발전하여 온 것으로 武則天 玄宗 시기에 절정을 맞았다. 上京, 西古城, 八連城 등지에서 널리 발견되는 단색 綠釉와 多彩釉의 건축 부재[構件]에서 발해가 이미 중원 기술을 장악하는데 성공하여 자신들의 三彩를 구워내는데 성공했음을 보여준다. 무덤에서 발견되는 三彩 器皿과 인형은 중원에서 발견되는 것과 매우 흡사한데 현지에서 만든 것과 중원에서 수입한 것이 모두 존재한다. 하지만 絞胎枕과 絞胎碗은 중원에서 수입된 것임이 의심할 여지가 없다.

深腹筒形罐은 말갈 이래로 발해 무덤에서 가장 흔히 보이는 유물로 지방과 중소형 무덤에 널리 존재하지만 도성과 대형의 무덤에서는 도리어 찾아보기 어려운 점에서 서민들이 흔히 사용하는 기물임을 알 수 있다. 또 출토될 때 내외벽에서 때때로 그슬린 흔적이 보이는 점은 취사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설명해 준다.

殘口瓶은 제2송화강부터 비교적 자주 보이기 시작하는데 대부분 목이 긴 병이지만 입구가 작은 병도 보이므로 '殘口瓶'으로 통칭하는데 주둥이나 병목 부분이 깨어져 있는 공통점이 있다. 다른 형태의 기물에서는 이런 흔적이 보이지 않으며 깨진 파편이 발견되지 않는 점에서 매장 전에 깨진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어떤 특별한 의의가 있는지 주의할 가치가 있다.

## 2) 金屬器 및 기타 부장품

금속기의 상황도 도기와 비슷하다. 團結에서는 철제의 矛, 刀, 甲片, 혁대 버클[帶扣]과 소수의 옥이나 돌로 만든 구슬꾸러미[串珠]정도만이 발견될 뿐이다. 제2松花江 및 牡丹江, 圖們江 유역 이후 금속기의 종류가 두드러지게 증가하여 철기 외에 대량의 銅器나 귀중한 금속기 옥기 등이 나타난다. 용도면에서는 무기 수렵도구(矛, 刀 등), 생산도구(도끼, 낫 등), 생활도구와 장식용품(송곳, 가위, 거울, 귀걸이, 팔찌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허리띠류는 각 유형의 墓葬 중에서 보편적으로 발견되며 질에서 차이가 날 뿐이

다. 일상 생활과 복식류의 기물은 六頂山에서부터 주류의 지위를 점하고 있다. 토기와 마찬가지로 금속기의 절대 다수는 발해지역에서 제조된 것이고 일부는 中原에서 온 것이다.

토기, 금속기 등 부장품의 변화는 勿吉族이 남하하여 제2松花江 중류 지역에 이르러 발해 정권을 세운 후 경제와 생산기술에 뚜렷한 변화가 발생하였으며 전면적인 급속한 발전을 얻었음을 보여준다. 이런 변화와 발전은 또한 말갈족 본래의 문화와 이웃 지역·민족과의 교류 융합을 반영하는 것이다.

#### 4. 묘장의 등급

발해 무덤들의 보존 상태가 좋지 않고 출토된 문자 자료 또한 극히 적으므로 그 등급을 엄밀하게 나누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다. 앞서 나누어 본 몇 가지 무덤 유형은 무덤의 전후 시기, 변화와는 관계가 있지만 무덤의 규모와 등급에 대해서는 대응 관계를 이루지 않는다. 무덤 등급의 추론에서 주의할 점은 아래와 같다.

① 무덤 소재지의 지점과 지세: 중요 무덤의 대부분은 양지바른 산비탈을 선택하였으며 그 지세도 거의 뚜렷한 키[簸箕] 모양으로 산비탈 아래나 멀지 않은 곳에 강물이 흐르고 있다. 이에 부합하는 六頂山墓群, 龍頭山墓群, 三陵屯墓群, 石場溝墓群, 海林三道中學 등의 무덤군은 등급이 높거나 비교적 높은 무덤군이다. ② 유적 유물: 무덤 위에 건축물의 유적 유물이 있는 것은 등급이 높은 무덤이다. ③ 크기와 축조 기술: 발해 무덤의 묘실은 그리 크다고 할 수 없는데 예외가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무덤군 내에서 등급이 높은 묘실이 묘의 등급도 높다. 石室墓와 磚室墓의 경우 삼모양[鐘形] 方室과 鐘形長方室 형태의 묘실이 비교적 크고 문 밖에 또 甬道와 墓道가 있으며 墓道가 상당히 긴 경우도 있는데 등급이 높은 石室墓와 磚室墓는 대부분 이런 형태이며 특히 경사가 긴 墓道の 무덤은 그 등급이 다른 무덤보다 훨씬 높다. 묘실의 축조기술(재료 선택, 가공과 쌓는 기술 등)은 모두 등급이 높은 무덤이 비교적 정지하다. ④ 내부 장식: 벽화가 그려진 무덤은 모두 고급 무덤으로 그 중 가장 두드러진 貞孝公主 墓의 벽화는 발해 상층부의 생활과 발해와 중원 문화 교류의 진귀한 자료이다. ⑤ 부장품의 종류와 수량: 파괴로 인해 부장품 수량이 많지는 않지만 남아있는 상황을 볼 때 각 등급의 무덤 사이에 구별이 매우 크다. 왕실 귀족의 무덤에서 발견된 귀중한 금속 용품과 증대한 가치가 있는 碑刻, 石雕는 이를 증명한다.

#### 略析『漢書·王莽傳』中的高句麗記事

趙紅梅, pp.20~22

고구려 시조 주몽은 기원전 37년에 西漢 昭帝가 內徙한 玄菟郡 지역내에 국가를 건국했다. 이 고구려 정권은 高句麗縣 내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 하나의 독립된 제후국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주몽의 건국시기에 이르러 第2玄菟郡 통치하의 高句麗國이 출현하게 된 것이다. 고구려 초기 역사와 관련된 여러 사료들 중 『漢書』 권99 中의 「王莽傳」에 보이는 고구려 관련 기사가 학계의 관심을 끌었고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 1. ‘高句麗王’을 ‘高句麗侯’로 바꾸다

『한서』 권99 중 「왕망전」에는 서기 9년에 5명의 威將을 전국 각지에 파견해 지방 민족 중 왕을 칭한 자들을 ‘侯’로 바꾸게 한다. 『한서』 기록에 “其東出者, 至玄菟·樂浪·高句麗·夫餘”라는 것을 통해 왕망시

기 현토군과 낙랑군은 중국 동북지역의 邊郡이었고 고구려와 부여는 왕망 왕조의 邊疆民族政權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고구려가 전한시대 이미 서한의 속국으로 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한편 고구려가 『한서』의 기록에서 독립적으로 보인다는 것은 고구려의 실력이 증강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 2. 왕망이 고구려의 병사를 징발해 흉노를 공격하다

『한서』의 기록에 따르면 始建國 2년(10) 겨울, 왕망이 조령을 내려 고구려의 병사를 동원해 흉노군을 공격하게 했다. 하지만 고구려인들은 전쟁에 참여하기를 꺼려 시간만 끌고 군대를 출정시키지 않았다. 11년 봄에 嚴尤는 고구려를 압박해 출병하게 했지만 고구려병사들은 도중에 도망쳐 노략질하는 자들이 많았다. 遼西 大尹 田譚이 병사를 이끌고 공격했지만 오히려 반격을 받아 전사한다. 이러한 기록은 『한서』 뿐만 아니라 『삼국지』, 『후한서』, 『梁書』, 『北史』, 『삼국사기』 등에 모두 전하고 있다. 당시 왕망이 흉노, 부여, 예맥, 고구려 등이 중앙에 귀속했다 다시 반기를 들기도 하는 상황에서 고구려 민족을 동원해 흉노를 공격하는 정책을 취했다는 것은 중원 왕조가 이미 고구려를 관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 사건은 고대 중국 중앙정부가 처음으로 고구려에 대해 병사를 동원한 것이고 이후에는 고구려가 漢族지역을 침략하는 일이 더욱 심해졌다.

### 3. 왕망이 ‘高句麗’를 ‘下句麗’로 바꾸다

始建國 4년(12), 왕망이 고구려를 下句麗로 바꾼 후 천하에 공포하여 모든 사람이 알도록 했다는 기사가 『한서』에 전하고 있다. 이것은 『삼국지』, 『후한서』, 『삼국사기』 등에도 기록되어 있다. 왕망이 ‘高’와 ‘下’를 가지고 이름을 바꿨다는 것은 이를 통해 민족의 우열을 가린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중앙 왕조와의 親疎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왕망에 의해 실시되는 이러한 모멸적인 호칭은 동한 建武 8년(32)까지 지속되었다.

### 4. ‘塞’에 관한 생각

『한서』의 「왕망전」에 기록된 “莽發高句麗兵，當伐胡，不欲行，郡強迫之，皆亡出塞”에서 ‘塞’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학계에 통용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塞’은 ‘燕長城’을 말하는 것으로 燕塞이라고 보여진다. 이 ‘塞’은 일종의 ‘族界’를 나타내는 것으로 ‘邊界’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소위 말하는 ‘出塞’과 ‘入塞’은 ‘燕長城’을 중심으로 하는 표현이다.

왕망시기 고구려의 병사를 동원해 흉노를 공격했다는 기록이 여러 사서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이는 왕망시기의 第2玄菟郡에 고구려, 上殷臺, 西蓋馬 3縣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서』 권28下 「지리지」 중에 왕망이 이 3縣의 이름을 바꾸었다는 기록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

## 試論隋朝治理東北邊疆的思想及政策

楊雨舒, pp.23~27

開皇 元年 隋의 건국으로 분열이 끝나고 대일통의 정치 상황을 실현할 수 있었다. 국력 증가와 함께 수는 변강 특히 동북변강의 치리 문제에 더욱 관심을 쏟게 되었다. 16국 이래의 분열과 민족 간의 모순

대립, 유혈 충돌을 거친 후이기에, 동북변강의 중요성과 민족문제의 복잡성을 더욱 잘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실제에 부합하는 통치 사상을 세울 수 있었다. 따라서 회유와 기미 정책을 위주로 한 통치를 실시하여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 1. 隋 君臣들의 治邊思想

隋의 황실은 모두 일찍부터 선비화한 한족으로 소수민족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으므로 隋의 군신들은 역대 왕조의 경험과 교훈을 흡수하여 시대 발전에 걸맞는 치변 사상을 만들고 비교적 개명한 민족정책과 치변 조치들을 제정하였다.

수의 통치자들은 역대 통치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帝位를 계승한 것이 '遵循天命'한 것으로 華夏 정통의 합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동시에 소수민족을 대단히 중시하여 用夏變夷 사상을 받아들여 儒家의 仁義, 孝悌 등의 설교로 吐穀渾 등의 소수민족을 교화하였다. 수의 대신들도 裴矩 王通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군주와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王通은 王道 정치의 실현을 위해 德治와 仁政의 시행을 역설하였고 왕조의 흥망은 민족이 아니라 도덕의 여부에 따라 옮겨간다고 보았다. 또 '正帝名'은 민족이 아닌 天德과 王道에 의한 것임을 주장하였다. 또 '三教(儒 道 釋)可一'을 주장하여 종교적으로도 개방성을 보였다.

### 2. 隋朝治理東北邊疆的政策

수 건국시 東北 邊疆의 형세는 상당히 복잡하여 高保寧의 北齊 잔여세력, 契丹, 奚, 靺鞨 등 소수민족, 그리고 특히 강대한 고구려가 있었다. 수는 앞서 말한 治邊思想에 따라 민족과 상황에 따라 군사적 타격, 투항 유도, 초무정책 등 다양한 책략을 구사하였다. 高保寧은 契丹, 靺鞨 등 소수민족과 연합하여 北周와 隋에 대항하였으므로 그의 존재는 동북 통치의 큰 장애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隋의 소수민족 초무정책에도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이에 文帝는 陰壽를 파견하여 1개월만에 평정에 성공하고 직할 영토를 遼西까지 확장하여 소수민족 통제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었다.

遼河 서쪽에 주로 거주하면서 독자적 정권을 세우고 있었지만 突厥의 통제 아래 놓여있던 契丹, 奚와 靺鞨의 세 민족에 대해서는 초무 위주의 책략을 펼쳤다. 이에 文帝는 周搖 등에게 변방의 방어태세를 강화 하도록 하는 한편 韓暨 등을 거란 등의 거주 지역에 보내 이들과의 연계를 강화하였다. 또 突厥과 高保寧 세력에 대한 군사적 타격에 힘써 이들 민족에 대한 통제를 단절하였다. 이들 민족은 수에 대해 갈수록 강렬한 向化之心을 보였다. 開皇 3년부터 수에 조공을 시작하여 그 후 契丹의 出伏 등 部는 고구려를 배반 하고 來附하였으며 13년 이후에는 수와 더욱 긴밀한 관계를 맺게되었다. 이에 文帝는 玄州를 설치하여 隋唐代 변강에 羈縻 州府를 설치하는 선례가 되었다. 동시에 이들의 전통 풍속과 제도에 아무런 변동을 가하지 않아 존중을 드러낸 것은 唐의 羈縻정책으로 이어졌다. 또 경제적 연계를 강화하고 幽州, 營州의 지방관들은 소수민족에 대해 회유 羈縻 정책을 펼쳐 전쟁을 벌이지 않고도 이들 지역에 대한 통제와 治理에 성공하였다. 隋는 거란 동남부에 위치한 말갈에게도 동일하게 회유와 기미정책을 시행하여 성공을 거 두었다. 文帝는 상호 항쟁을 벌이고 있던 말갈과 거란에게 엄격한 비평을 가하여 이들의 사죄를 이끌어내 었다.

隋의 동북 통치에서 최대의 장애는 고구려였다. 고구려는 16국 시대 이래 북방 지역의 분열을 틈타

부단히 영토를 확장하여 遼東 지역을 제압하였다. 북방의 각 정권들은 이를 돌아볼 틈이 없었으므로 고구려의 요동에 대한 실제 통치를 묵인할 수 밖에 없었다. 일찍이 北魏는 大一統 실현을 생각하였지만 고구려는 자신들의 정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南方 정권에 사신을 보내 연합하여 남북에서 北魏를 협공하는 전략을 택하였다. 여기에 자체의 분열이 더해져 北魏의 중국 통일 목표는 실현되지 못하였다. 隋의 건국 후 형세의 변화가 일어났다. 陳 멸망으로 남북대치 국면이 소멸되어 고구려와 결탁하여 남북으로 隋를 협공할 가능성이 배제되었다. 또 突厥을 격파하고 契丹 奚 霫 등을 항복시켜 더욱 커다란 범위의 통일을 실현하였다. 文帝가 開皇 17년 고구려왕 高湯에게 조서를 보내 靺鞨, 契丹의 隋와의 교류를 막은 것을 질책하자 高湯은 크게 두려워하여 隋에 대항할 태도를 보였다.

갈등의 완화를 위해 文帝는 비교적 인내심을 보이는 태도를 택하여 회유 기미정책을 시행하였다. 얼마 후 高湯이 죽고 아들 高元이 즉위하자 수는 관례에 따라 책봉하였는데 高元은 이에 불만을 품고 왕에 봉해줄 것을 청하자 이를 들어주어 그의 요구를 만족시켰다. 하지만 高元은 이를 수의 연약함으로 보고 開皇 18년 遼西를 습격하였다. 고구려의 공공연한 도발에 직면하여 수는 부득불 무력정벌로 전환하여 韓王 諒을 行軍元帥로 고구려를 정벌하였다. 이 원정은 기대했던 전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隋의 강대한 군사 압력에 高元은 사신을 보내 사죄하고 투항 귀부할 뜻을 밝혔다. 文帝는 이에 더 이상의 정벌을 중단하고 이전처럼 대우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후에도 高元은 突厥의 啓民可汗과 결탁하고 백제를 침략하는 등 '不臣'의 행동을 보였다. 高元은 진심으로 항복한 것이 아니었으며 몰래 힘을 축적하여 수에 대항할 조건을 만들려는 것으로 갈수록 隋에서 멀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고구려의 거듭된 반란과 복종의 반복이 수에서 멀어지는 경향에 대해 段文振처럼 안목있는 사대부들은 이미 잘 파악하고 있었다. 고구려 문제 해결에 대해 開皇말부터 이미 '주전'과 '主撫'를 둘러싼 議論이 있었다. 주전론의 대표자는 裴矩, 主撫派의 대표는 劉炫으로 「撫夷論」을 지어 간하였다. 하지만 완전한 항복을 하지 않는 고구려의 태도는 동북변강 治理에 중대한 위협이었으므로 주전론에 대해 煬帝와 대다수 대신들이 찬성하였으므로 主撫는 당시 그다지 주목 받을 수 없었다. 결국 煬帝는 주전파의 지지 아래 무력으로 고구려 정복을 결심하고 大業 8년 이래 3차에 걸쳐 친정하였다. 하지만 漢王 漢王 楊諒의 실패에서 교훈을 배우지 못한 세 차례의 원정은 실패로 끝나고 농민전쟁을 불러일으켜 수의 짧은 통치는 종말을 고했다.

隋의 군신들은 중국 역대 통치자들의 '遵循天命', '華夏正統', '用夏變夷' 등의 전통 사상을 계승하였을 뿐 만 아니라 提出了'混一戎夏' 사상도 제기하였다. '混一戎夏'는 '大一統'과 민족 융합의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이 16국과 北朝 이래 형성된 '以德相承' 사상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소수민족에게 王道政治 사상을 실행하여 仁政과 德治를 행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사상적인 진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사상적 기초 아래 동북변강에 대해 회유 羈縻 정책을 시행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 1. 고구려 식읍제도의 존재문제

고구려의 ‘食邑’과 관련된 사료 중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은 『삼국사기』의 琉璃明王 11年(기원전 9) 기사인 “王念扶芬奴功, 賞以食邑”이다. 이는 고구려가 건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식읍제도를 시행했음을 보여준다. 이외에도 『삼국사기』의 琉璃明王 27年(18), 新大王 元年(165), 8年(172), 東川王 20年(246), 烽上王 2年(293) 기사를 통해 고구려의 식읍제도 시행사실 뿐만 아니라 식읍제도가 오랜 시간 동안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고구려 식읍제도와 관련된 기록이 중국 사료에는 보이지 않아 그 신뢰도에 의문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후한서』, 『삼국지』 등에 서술된 고구려 관련 기록에서 고구려에 강성한 귀족들이 출현하고 특정 지역에서 관리 임명 권한을 갖는 사실을 통해 고구려에 식읍제도가 시행되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 2. 고구려 식읍제도의 성격과 운영방식

고구려의 왕은 토지를 공신과 귀족들에게 하사하여 식읍으로 삼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식읍 내의 거주민 또한 식읍을 받은 자에게 귀속시켰다. 식읍 지역은 일정 정도에 있어서 자치국가의 형태를 띠었다. 고구려의 왕은 토지를 귀족에게 나눠주었고 귀족들은 식읍 내에 관리를 두고 일부의 토지를 다시 使者나 白衣先人 등에게 分給했다. 고구려의 식읍제도는 국왕이 大加에게 토지를 나눠주고 대가는 다시 하위 계층에 分給하여 계층을 이루는 일종의 경제제도였다. 이들 賜封地는 대를 거치며 傳襲되었다.

식읍을 받은 大加들은 고구려 왕이 시행하는 조화에 매년 참가하여 일정 수량의 물산을 헌상하여 忠心を 표시했고 국가에서 건축사업을 벌이거나 전쟁을 수행할 때 규정에 따라 노동력과 군사력을 제공해야 했다. 이는 대가가 왕에게 바치는 일종의 賦稅와 같은 성질을 나타냈다. 귀족들은 식읍내에서 정치적, 경제적 특권을 누렸지만 중죄를 범할 경우 封地를 회수당하기도 했다.

고구려는 정북지역에서도 식읍제도를 시행하였는데 沃沮의 경우가 가장 전형적이다.

### 3. 고구려 식읍제도의 쇠망

고구려의 식읍제도 시행은 당시 상대적인 독립 상태를 유지하던 五部制와 상관관계를 갖는다. 그런데 美川王 즉위 후 왕권이 강화되고 여러 大加들의 권력이 약화되면서 군주집권제가 점차 두드러졌다. 미천왕 이후 故國壤王, 好太王, 長壽王 시기를 거치며 고구려의 중앙 왕권은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이러한 배경속에서 국왕을 중심으로 하는 부세제도가 시행되고 국왕에 의해 주관되는 ‘賑貸法’이 전국적으로 실시되자 食邑을 받은 계층의 경제특권이 크게 약화되었다. 미천왕 이후에는 식읍제도 관련기사가 『삼국사기』 뿐만 아니라 중국의 역사서에서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왕권의 강화와 함께 사라져버린 고구려 식읍제도는 하나의 경제제도로써 고구려 국가 발전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前燕은 鮮卑 慕容廆에 의해 세워졌다. 慕容鮮卑는 3세기 후반 東部鮮卑 부락 중의 하나로 東部鮮卑는 宇文, 段氏 및 慕容 3부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 가운데 가장 약했던 前燕은 西晉 末부터 적극적으로 漢族 문화를 흡수하고 유랑인들을 거두어들여 생산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前燕은 발전 과정에서 시대 변화에 발맞춰 적절한 관리 방법을 채택하였으며 이는 통치의 안정에 유리한 역할을 하였다.

### 1. 인구의 遷徙와 관리

16國 시기 할거정권들은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타 정권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 위해 인구의 빈번한 遷徙를 시행하였다. 前燕 역시 각종 조치를 택하여 慕容廆 이후 정복지의 확대에 따라 적극적으로 자신의 통치 구역 내에 인구를 遷徙하였다. 前燕初에서 前秦 멸망까지의 遷徙에 대한 대략적인 정황은 표로 정리하였다. 단 慕容廆의 遼西 지역에 대한 연속적인 약탈처럼 규모가 작은 경우 구체적인 기록이 없어 표에서 빠질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한다. 초기의 인구 이동은 주로 무력에 의한 강제 遷徙로 鮮卑의 段部, 宇文部 및 夫餘, 高句麗가 주 대상이었다. 이는 慕容鮮卑가 처해 있던 지리 환경 및 정치군사 투쟁의 상황과 관계를 가진 것으로 주로 遼東, 遼西가 활동 무대였으므로 투쟁 대상은 같은 지역 내에 있던 상기 부족이나 민족들이었다. 慕容皝 시기 영토 확장에 따라 幽冀 내지 黃河 이남 지역의 漢人들도 遷徙 대상이 되었다.

慕容鮮卑는 棘城-龍城-薊-鄴으로 천도하였는데 遷徙된 인구들은 주로 도성 주위에 안치시켰으며 그 밖에 주요 지역인 徐無, 凡城 등에도 이들 徙民을 안치시켰다. 이밖에 興寧 2年 汝南 인구의 遷徙처럼 신 점령지에서 비교적 가까운 곳으로 이주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효과적인 통치를 할 수 없는 지역 인구에 대해 강제 遷徙의 방법을 채택하였다. 하지만 慕容皝의 薊 천도처럼 민중의 安土重遷 심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으므로 遷徙에서 비교적 신중한 태도를 취하여 적절할 대응에 주의하였다고 할 수 있다. 동시에 그 가운데 강력한 집단에 대한 통제에도 역시 주의하였다. 前燕의 遷徙는 방식, 목적 등에서 16국 시기의 다른 정권과 비슷한 점이 있지만 徙民의 규모, 빈도 등에서 다른 나라들을 뛰어넘는다.

### 2. 流民에 대한 관리

後趙 前秦과 달리 前燕은 遷徙 외에 많은 流亡 인구를 수용하고 있었다. 晉末의 피난민들은 남방 외에 상대적으로 안정된 東北의 王浚, 鮮卑 段部, 慕容部에도 많이 흘러들어갔다. 이 중 慕容廆는 漢化를 흡수하여 비교적 많은 流民들을 수용하였고 특히 華北의 土族들은 宗族 전체가 귀순하는 경우가 많았다. ① 僑郡을 세워 流民들은 안치함: 曹魏의 예를 본따 慕容廆는 고구려와 싸우다 투항해 온 張統에게 樂浪郡을 세워 그 백성을 거느리게 하였으며 이후 內地의 流民을 안치할 때 널리 채용되었다. 僑郡은 비교적 커다란 독립성을 보장받았는데 慕容皝 시기 郡을 없애고 縣을 만들어 귀속시키는 개혁을 행하여 漢人 大族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중앙집권을 강화하였다. ② 경지와 소를 주어 流民들을 일할 수 있게 함: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人多地少’의 문제가 생겨나자 慕容皝은 官苑을 流民에게 나누어주어 官屯의 방법을 채택하였다. 단 대상은 자원자에 한하고 경지를 지급하였으며 빈곤한 자에게는 耕牛를 주었다.

### 3. 인구관리의 일반적 조치

前燕은 통치 범위의 계속된 확장에 따라 인구도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그 인구 구성은 타 정권처럼 북방 胡族의 部落民, 內地에 분포한 郡縣民 및 塢堡民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상황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들을 채택하여 관리를 행하였다.

① 部落民에 대한 관리: 16國時代 胡族 정권들은 보통 胡漢分治의 방법을 채택하여 胡族에 대해서는 單於台를 세워 관리하였다. 慕容氏가 세운 다섯 개의 燕 정권 중에서 後燕과 北燕에 대해서만 單於台를 세운 명확한 기록이 있다. 前燕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록이 없지만 後燕의 燕台-單於台는 前燕 이래의 제도를 계승한 것으로 보인다. 慕容皝 시기 封裕는 前燕이 部落民의 관리에서 원래의 각 부족 조직 형태를 유지하였으므로 전문적인 기구를 세워 관리할 것을 요청하였다.

② 戶籍 관리의 강화: 前燕은 호적제도를 시행하였으므로 流民은 僑立郡縣의 방법에 의해 통일된 호적 제도에 들어가 있었다. 前秦 苻堅이 前燕을 멸망시킨 후 얻은 자세한 호적 명부에 대한 기록이나 慕容儁가 실시한 대규모 징병, 慕容暉가 悅綰의 건의에 따라 王公, 貴戚 및 지방 大族의 은닉 호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20여 만 명을 새로 호적에 등재한 것은 前燕이 비교적 완비된 호적제도를 실시하였음을 반영하고 있다.

③ 인구에 대한 분업 관리 실행: 前燕은 민을 土農工商學 다섯 종류로 나누어 관리하였으며 비농업인구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 방식을 채택하여 정부의 엄격한 통제 아래 두었는데 이는 後燕에서도 그대로 계승되었다.

④ 지방 호족에 대한 관리: 華北의 土族들은 비교적 강력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五燕 정권은 그들과의 관계 설정에 주의하였다. 일반적으로 前燕은 귀순한 호족들을 현지의 장관에 임명하여 그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지방 안정을 회복하는 방법을 채택하였지만, 반란을 일으키거나 무력으로 정복한 지역의 호족에 대해서는 엄격한 통제를 가하였다.

漢化가 비교적 많이 이루어진 상태였던 慕容鮮卑는 적극적으로 流民을 수용하여 신속하게 영토를 확장할 수 있었고 僑郡改置, 지방 호족의 遷徙 등을 통해 중앙집권을 강화할 수 있었다.

### 遼聖宗出兵高麗探析

劉肅勇, pp.69~71

요 성종이 집정한 이후에 요 왕조의 번속인 고려에서 신하가 고려와 王誦을 시해하는 변란이 발생한다. 요 성종은 무력으로 직접 이 사건에 관여해 3차에 걸쳐 고려를 공격한다. 10여 년에 걸친 전쟁은 결국 요나라가 승리를 얻지도 못하고 고려 또한 계속 전쟁을 벌이지도 못한 채 끝나고 만다. 고구려왕 왕송의 후계자인 王詢은 주동적으로 고려와 요나라의 번속관계를 유지할 것을 제안하고 요 성종은 왕순을 고려 왕으로 책봉한다. 이때부터 다시 요나라와 고려는 장기간의 평화시기를 맞이하게 되고 이러한 상황은 요나라가 망할 때까지 이어진다.

994년 고려왕 王治는 북송과의 관계를 끊고 요나라에 의탁하는 동시에 요의 연호를 채용했다. 996년 요 성종이 한림학사 張幹 등을 고려로 보내 왕치를 고려왕으로 책봉하고 이때부터 고려는 요나라의 속국이 되었다. 고려 왕의 교체는 모두 요나라 황제의 책봉을 받아야 비로소 합법적인 것이 되었고 고려 왕위

의 계승에 문제가 생기거나 정치적으로 변고가 생기면 요나라는 즉각 개입해 군대를 동원해 처리하기도 했다. 또한 고려가 외침을 받으면 요는 힘을 다해 도와줬고 종주국인 요나라와 속국인 고려 사이에는 해마다 지속적인 교류가 이루어졌다.

1003년 왕치의 사망 이후에 왕비인 皇甫氏가 金致陽과 모의하여 권력을 장악하고 이에 고려 정국은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치달았다. 1010년 고려의 장수인 西京留守 康肇가 고려왕 王誦과 김치양 등을 살해하고 18살의 王詢을 고려왕으로 옹립했다.

이에 요 성종은 동경 遼陽府를 출병기지로 삼아 총 40만에 달하는 군대를 고려로 파견하기로 결정하고 1010년 11월에 압록강을 건너 출정한다. 이에 고려의 강조는 30만의 군대를 동원해 3곳에서 요나라 병사에 대항했다. 요나라 군대는 고려의 군대를 맞아 승전을 기록하며 淸江 연안에까지 진격했다. 1011년 정월 요는 철병 명령을 내렸다. 이렇게 첫 번째 출병은 끝났다. 이후 고려왕 왕순은 사신을 보내 요나라에 신하의 예를 다할 것을 전했지만 요 성종은 왕순이 직접 요나라 조정에서 책봉받기를 요구했다. 고려는 이를 거절했고 1014년 요는 다시 한 번 출병을 결정한다. 1016년 정월에 耶律世良 등의 장수가 주축이 되어 고려에 대한 두 번째 출병이 이루어진다. 초기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는 요나라 군대는 아울세량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다시 철병한다. 두 번째 출정도 실패로 끝나고 만다. 고려에 대한 요나라의 세 번째 출병은 1018년에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것 또한 고려의 장수 강감찬의 저항에 부딪혀 대패하고 만다. 결국 1018년 12월 왕순이 사신 李作仁을 요나라에 보내 공물과 표를 올려 사죄하자 성종이 이를 받아들이고 이에 전쟁이 종식된다. 이후 요와 고려 사이의 관계를 평화적으로 유지되었다.

요나라와 고려의 10년에 걸친 싸움은 어느 누구도 승자가 되지 못하고 종전되었다. 요나라는 막대한 군비와 국력을 들여 정벌을 시행했지만 승리하지 못했다는 것은 요나라 귀족들이 중원지역으로 유입되어 봉건화된 이후에 더 이상 그 이전의 강한 군사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쇠락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東北地方志中的邊疆問題史料類編』編纂述要

金恩輝, pp.83~87

『東北地方志中的邊疆問題史料類編』은 동북 3성의 도서관 부문 30여 명의 전문가들이 5년간의 시간 동안 협력하여 완성한 학술공구서로 板本目錄性和 史料類編性을 겸비했다. 中靑年圖書館 직원들을 중심으로 작업이 진행되어 200여 만자에 달하는 史料類編이 세상에 빛을 보게 되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학술적 가치는 향후 독자들의 열람과 이용을 통해서 평가될 것이다.

과거의 역사를 이해하는 방법으로 실물과 문헌 연구 두 가지가 있다. 이중에 문헌으로 남겨진 사료는 인류가 보존해 오고 또한 정신가치를 갖추고 있는 역사의 기억 중 하나이다. 동북지역과 관련된 문헌은 동북지역 자체적으로 혹은 중앙이나 외부의 사람들에 의해 기록되었고 상당수가 현재 발굴 정리되었다.

건륭 42년(1777)에 편찬한 『滿洲源流考』로 동북 변강 사료편찬의 시작이 되었고 이후 김육불의 『渤海國史長篇』(1934), 孫玉良의 『渤海史料全編』(1992), 王愼榮의 『東夏史料』(1990), 傅朗雲의 『金史輯佚』(1990) 등이 출판되었다.

이 시기에 사학계와 檔案學界에서도 일련의 종합성 동북사료집을 출간했는데 古史분야에는 東郭士의 『東北古史資料滙編』(1964), 高雅風·孫進己의 『東北古史資料叢編』(1989)이 발표되었다. 실록분야에는 길

림성사회과학원의 『明實錄東北史料全輯』(1990), 蔣秀松·張璿如·梁志忠의 『清實錄東北史料全輯』(1988)이, 당안분야에는 요녕성당안관과 요녕사회과학원역사연구소에서 편찬한 『明代遼東檔案滙編』이 출간되었다.

중국의 동북지역과 주변국가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楊昭全의 『中朝邊界沿革及界務交涉史料滙編』(1994)과 중국제일역사당안관의 『清代中朝關係檔案史料續編』(1996-1998) 및 汪向榮·夏應元의 『中日關係史料滙編』(1984)이 있다.

이외에 대만지역에서 출판된 것으로 郭廷以·李毓樹의 『清季中日韓關係史料』(1972)와 趙中孚의 『近代中韓關係史資料滙編』(1987)이 있다. 이 시기에는 吳翊 선생에 의해 편찬된 『朝鮮李朝實錄中的中國史料』가 출판되어 외국의 고적 중 고대 中外관계사료를 정리, 연구한 대표적 연구 성과로 인정받고 있다.

吳翊 선생의 ‘抄書’정신을 본받아 판본을 심의하고 세심하게 선택하여 읽었다. 『東北地方志中的邊疆問題史料類編』을 완성하는데 있어 어떻게 사료를 선택하고 판본을 정하고 자료를 취사하여 표점을 찍고 교감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오함선생이 집록한 『조선이조실록중적중국사료』을 참조하여 그의 연구 태도와 편찬 방식을 채택했다. 그의 ‘抄書’정신은 사료를 진지하게 읽고 심혈을 기울여 연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본서를 완성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

편찬의 방향과 목표를 정한 후 각 지역 도서관에 소장된 서적을 조사하고 판본을 考定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요녕, 길림, 흑룡강 3성의 도서관과 대련시도서관을 기초로 하여 총 35곳 이상의 도서관에 소장된 지방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주로 명, 청에서 민국시기에 이르는 지방지를 주된 대상으로 했다. 이를 통해 총 322종의 지방지를 확인했다. 이를 기초로 『東北地方志(1994년 이전)收藏狀況及調查與校核目錄』을 출판했다. 300여 종의 지방지 중에서 좋은 판본을 골라 자료를 수집하여 『東北地方志中的邊疆問題史料類編』을 완성했다. 참고한 지방지 중에는 韓中關係와 일본침략전쟁에 항쟁한 내용들도 포함되었다. 적지 않은 지방지가 일본의 동북지역 침략 시절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다.

체제와 목록을 정하고 문자를 표점하여 類編을 완성했다. 오함 선생의 책은 별다른 분류를 하지 않고 원서의 순서에 따라 정리했다. 이는 복잡다단하게 얽힌 여러 문제들을 확인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어 『東北地方志中的邊疆問題史料類編』은 유사한 내용의 사료를 한데 모아 새로운 항목으로 하여 편집했다. 전체 총 2,400여 개의 항목을 설정했고 각 항목에는 많게는 수천 자, 적게는 수백 자의 글이 수록되었고 평균 800자 정도를 유지했다. 총 200여 만자에 달하는 본서는 모두 3권 7冊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中俄關係史料’, ‘中朝關係史料’, ‘中日關係及多邊關係史料’가 각각의 권으로 나뉘어 그 내용의 분량에 따라 총 7책으로 편성되었다. 각 권은 그 하부에 다시 세부 분류를 나누었는데 1권인 ‘중조관계사료’의 경우에는 그 하위에 1. 邊界, 邊務, 邊防, 2. 邊民, 糾紛, 雙邊關係, 外交往來, 3. 地理, 文化, 風俗, 4. 戰爭, 戰事, 征討, 刑案, 5. 經濟, 商貿, 金融 등 5개의 세부 항목을 두었다.

몇 가지 생각해 볼 문제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현재 각 지역 도서관에서 전산화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이러한 추세는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이를 통해 많은 독자들이 서적 열람에 큰 도움을 얻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원서에 대한 보관과 연구 작업을 소홀히 해서는 안되며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또한 『東北地方志中的邊疆問題史料類編』와 같은 책이 완성되기까지 각 지역의 도서관 사이에 이루어진 상호협조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앞으로도 이러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길 바란다.

## 了解吉林方志文獻的重要工具書-吉林方志大全

李俊恒·王麗, pp.92~93

『吉林方志大全』은 지방지 검색을 위한 공구서로 曹殿舉 주편 하에 1989년 吉林人民出版社에서 출간되었다. 길림성 지방지 171종이 실려 있으며 그 중 1949년 이전 옛 지방지 142종, 1949년 이후 20종, 목록만 남아있는 것이 20종으로 총 95만자이다. 1984年版 『中華人民共和國行政區劃簡冊』(中華人民共和國內政部編, 地圖出版社出版)의 吉林省 행정구획에 따라 옛 府, 廳, 州, 縣誌를 현재의 區, 州, 市, 縣에 맞춰 편찬하였다. 省誌를 가장 앞에 배치하고 市-地區-州-縣 순서로 되어 있으며 각 地區, 州, 市, 縣誌는 출판년도 순서로 배열하였다. 省, 地區, 市, 縣誌 앞에는 역사 연혁과 방지의 간단한 소개를 쓰고 지리적 위치, 지명 유래, 역사연혁과 관련된 方志 등의 정황을 개술하였다.

각 志의 소개 앞에는 기본적으로 書名과 권수, 저자 관련 항목(시대, 이름, 저작 방식), 출판 관련 항목(成書나 출판 연대, 출판자, 판본), 稽核 항목(函冊數, 쪽수, 글자수)과 附注항목 등이 실려있다. 각 志는 세 부분(저자 및 成書 과정, 내용 및 가치, 판본 및 기타)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부록으로 목록만 남아 고증을 기다리고 있는 方志 목록과 인명 색인이 붙어있다.

길림 지역 방지의 목록과 관련 저작에 대해 단서를 제공하고 있는 書目線索은 약 20여 종이다: 朱士嘉, 『中國地方誌綜錄』; 金毓敝, 『遼海書征』; 中國天文臺史料普查整理組編, 『中國地方誌聯合目錄』(初稿); 傅朗雲, 『東北地方誌總目』; 臺灣成文出版社有限公司, 『中國方志叢書目錄』(第1, 2期); 郝瑤甫, 『東北地方誌考略』; 陳加·郭君·孫仁奎, 『遼寧地方誌考錄』; 金恩輝·梁志忠, 『吉林省地方誌考論』 등이 있는데, 이 책들과 비교하여 『吉林方志大全』은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진다:

① 방지 소개에 앞서 먼저 각 市와 縣의 역사 변화과정을 소개하여 독자가 그 지역의 기본 상황을 이해하도록 하여 방지 문헌 조사를 위한 역사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② 方志에 纂修者, 출판자, 편찬 출판 시기, 成書 과정, 판본 형식 등을 상세히 기록하였다.

③ 저자와 成書 과정 항목을 별도로 정리한 것은 본서의 독특한 점이다. 이왕의 다른 책들과 달리 인물의 특징과 경력을 상세히 소개하였고, 특히 저자와 해당 서적과의 관계에 대해 중점을 두고 설명하여 저자와 해당 서적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였다.

④ 각 方志의 撰寫 특징, 주요 내용, 오늘날 가치는 가치 등에 대해 다방면에 걸친 유익한 탐색을 하였다.

⑤ 내용 연구에만 그치지 않고 관련된 자료를 대량으로 조사하여, 한 권의 지방지 내용으로 그 당시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배경 상황의 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⑥ 또 도서관의 입장에서 독자들에게 각 방지의 현존하는 판본 및 소장 單位들을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 『중국변강사지연구』 (2007~2008년)

### • 중국변강사지연구 2007년

#### ■ 2007년 제3기

##### 論古代中國的國家觀與天下觀-邊境與邊界形成的曆史坐標

張文, pp.16~23

중국 역사상의 변강에 관한 연구는 이미 거의 80년에 가까운 역사를 지니고 있다.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를 분석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분야에 연구가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변강의 연혁에 관한 연구이다. 고희강과 史念海가 함께 저술한 『中國疆域沿革史』, 華企雲의 변강 연혁에 관한 일련의 논문들, 그리고 葛曉雄의 『中國曆代疆域的變遷』 등이 이 분야의 대표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변강 정책을 위주로 한 연구이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馬大正 주편의 『中國古代邊疆政策研究』, 마대정 주편의 『中國邊疆經略史』, 趙雲田의 『中國邊疆民族管理機構沿革史』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변강학의 학과 건설을 위한 연구들이다. 이 방면에는 譚其驤의 논문 「對曆史時期的中國邊界和邊疆的幾點看法」과 근래 『中國邊疆史地研究』에 실린 논문들, 於逢春의 「論中國疆域最終奠定的時空坐標」 그리고 李大龍의 「傳統夏夷觀與中國疆域的形成-中國疆域形成理論探討之一」 등이 대표적 연구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논하고자 하는 것은 세 번째 분야 즉 변강학 학과의 체계에 관한 것이고, 글의 중심은 중국 고대의 邊疆觀 혹은 변강 사상이다.

중국 고대의 변강관이나 변강 사상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주로 고대 중국의 내부의 자생적 요소만을 고려하고, 또 필요한 참조물이 결여되어 있는 까닭에 아직까지 비교적 확실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른바 변강이란 국가의 내부적으로 보면 국가의 변경 지대이지만, 외부적으로 보면 국가와 국가의 경계이다. 따라서 중국 고대의 변강 개념을 확실히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국가와 국가의 관계에서 연구를 시작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필히 중국 고대의 國家觀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주지하듯이 중국의 고대에는 명확한 국가관이 결여되어 있었고, 대신에 天下觀이 존재했었다. 천하관은 『詩經』 小雅, 北山의 “溥天之下, 莫非王土”에서 기원한 것이지만 명확한 것은 아니었다. 한편, 『禮記』 王制에서 五方之民을 거론하며 언급한 四方 즉 서쪽의 蔥嶺, 동쪽의 大海, 북쪽의 草原大漠 그리고 남쪽의 海濱은 곧 고대 중국인이 생각한 천하의 가장자리였고, 그 내부가 중화 대지의 자연적 강역이었다. 이 폐쇄적인 지리적 단위 속에 거주하던 민족들이 최종적으로 융합되어 다원일체의 중화민족을 형성하였다. 漢民族은 그들 민족 중에서 핵심이었으며, 先秦시대의 천하관은 바로 한민족의 전신인 華夏民族의 자연적 강역에 대한 관념이었다. 이러한 관념은 이후 정통을 자처하던 왕조들에 의해 계승되었고, 소수민족이 중원에 진출하여 건립한 왕조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런데 이러한 천하관에 의하면 중화 대지의 자연적 강역은 모두 천자의 領地이고, 모든 인민은 천자의 신민이었다. 그리고 중원의 왕조와 대등한 국가는 인정될 수 없었다. 바로 이러한 까닭에 왕조의 가장자리인 邊疆에 대한 개념은 있었지만 명확한 邊界에 대한 개념은 존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것은 이론적으로만 그랬을 뿐 이 폐쇄적인 지리적 단위를 완전히 장

악한 왕조는 사실상 없었다. 중국의 오랜 역사 속에는 항상 변강정권이 존재했었다. 변강정권의 세력이 약할 경우 羈縻나 藩屬 등의 방식을 통하여 중원 왕조에 간접적으로 혹은 명의상으로 귀속시켰다. 그러나 강력한 변강 정권이 중원 왕조와 전쟁을 벌이게 될 경우, 양자의 군사적 통제선은 邊界의 의의를 지니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도 이론적으로나 법리적으로 근대 국가간의 변계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었다. 이상의 내용을 시기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선진시대는 천하관이 생성된 시기이다. 夏代는 일반적으로 천하관이 형성된 시기로 알려져 있다. 『尙書』 禹貢의 “東漸於海, 西被於流沙, 朔南暨聲教, 訖於四海”에는 하대의 천하 범위가 언급되어 있다. 즉 동쪽의 大海와 서쪽의 流沙 그리고 명확히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북쪽의 河套와 남쪽의 장강 중류가 천하의 네 극단이었다. 다만 流沙는 아마도 지금의 감숙 張掖 居延澤 일대였을 것이다. 그러나 하대 사람들에게 변계 개념이 있었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商代의 천하관은 명확하지 않다. 다만 ‘四方’ 개념은 있었다. 갑골문에는 鬼方, 工方, 羌方 등이 등장하는데 이들과 전쟁을 벌이며 형성된 경계가 곧 변계의 의의를 지니고 있었을 것이다. 갑골문에 ‘邊鄙’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면 商朝는 자신이 통제하고 있던 지역의 경계 지역에 대해 명확한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西周 이후, 주대 사람들의 통제 범위는 한층 더 확대되었다. 주변 지역에 비해 그들의 문화적 우세는 명백해졌고 이로 인해 “溥天之下, 莫非王土”의 大一統 관념이 형성되었다. 또한 주대의 五服 제도는 당시의 이상적인 천하질서를 보여주는 것이긴 하지만, 사실상 주대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현실적으로 통제하고 있던 지역에 대해 명확한 인식을 갖고 있었다. 昭公 9년(전 533) 대부 詹桓伯이 『좌전』에서 말한 “我自夏以後稷, 魏, 駘, 芮, 岐, 畢, 吾西土也. 及武王克商, 蒲姑, 商奄, 吾東土也, 巴, 濮, 楚, 鄧, 吾南土也, 肅慎, 燕, 亳, 吾北土也”를 보면 주대의 사방의 변방에 대한 관념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주변 소수민족과의 전쟁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 이처럼 서주 시기에는 이미 대일통의 천하관이 형성되어 있었지만 그 실제적 통제 범위는 이상적인 수준까지 이르지 못했다. 주변 민족과의 군사적 경계선이 국경의 의의를 지니고 있긴 했으나 주대 사람들은 이를 법리적으로 수용하지 않았다.

秦漢에서 隋唐에 이르는 시기는 천하관이 실천에 옮겨진 시기였다. 중원 왕조는 부단히 중화의 자연적 강역의 끝까지 확장하고자 하였고, 주변의 소수민족도 끊임없이 통일을 원수하여 중원 왕조와 대립하였다. 이 시기의 주요한 상대는 흉노와 돌궐이었다. 한조는 비록 일시적으로 서로 대등한 국가임을 인정하는 강화를 흉노와 맺었지만 그것은 임시방편적인 것일 뿐이었다. 특히 48년 남흉노가 한조에 완전히 귀속하여 한조의 ‘藩蔽’가 되었을 때 전통적 천하관은 한 차례 성공적으로 실현되기도 했었다. 당조와 돌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당조는 일시적으로 돌궐과 강화를 맺었지만 결국에는 신속관계를 확립했다. 당조와 토번의 경우, 양자는 서로의 대등한 지위를 인정하는 會盟을 맺었다. 그러나 이것도 결국은 토번이 훗날 중원 국가인 청조에 최종적으로 편입되어 가는 과정의 일부일 뿐이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시기는 중원 왕조와 북방 유목민족이 충돌한 시기였고, 대체적으로 우세를 점한 중원 왕조가 일시적으로 강화를 맺어 양자의 변계를 확정하긴 했지만 천하관의 영향으로 인해 주변 민족의 정권을 법리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양자 사이의 변계는 실질적으로 서로의 통제선이었을 뿐 국가의 변계라는 의의를 띠지 않았다. 단지 당조와 토번의 경우가 약간 특이할 뿐이었다.

宋에서 청조 초기에 이르는 시기는 천하관이 변형되어 가던 시기였다. 전통적 천하관은 변강의 소수

민족 정권에 의해 점점 더 많이 도전받았고, 또 중원으로 진출한 소수민족의 왕조들이 전통적인 천하관을 보다 강력하게 확인했던 시기이기도 했다. 송조는 遼와 金 등의 도전을 받아 늘 열세에 처했고, 양자의 군사적 경계선은 변계의 의의가 있긴 했지만, 송조는 이들 정권을 법리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元朝시대에 특히 주목할 것은 西藏을 완전히 통제하여 이후 중화 세계에 편입될 기초가 놓여졌다는 사실이다. 명조 시기의 서장은 분열되어 있었고 확고히 명조의 통제하에 있었다. 그리고 청조는 駐藏大臣과 군대를 파견하고 金瓶掣籤制度和 噶廈制度를 통하여 서장을 효과적으로 통제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시기의 한족 왕조는 전통적인 천하관을 여전히 계승하고 있었지만 주변의 강력한 상대로 인해 그것을 고수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양자의 군사적 통제선이 국가의 변계라는 함의를 지니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여전히 중화의 전통적 자연 강역 내부의 사정이었을 뿐, 근대적 의의를 지닌 국가의 변계는 아니었다. 특히 주변 소수민족에 의해 건립된 왕조는 여전히 전통적인 천하관을 계승하였고, 1820년 이전의 청조의 강역은 대체적으로 중화의 전통적 자연 강역 대부분의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원조의 강역은 이보다 훨씬 넓었지만, 원조가 사실상 통제된 지역은 전통적 중화 강역 범위를 넘어서지는 못했다.

이상과 같이 중국 고대에는 진정한 의미의 국가관이 존재하지 않았고 천하관만 존재하였다. 청조처럼 중원에 진출한 소수민족의 왕조도 자연스럽게 이러한 천하관을 계승하였다. 중원 왕조가 강력한 상대의 도전을 받았을 경우, 양자 사이의 실질적 통제선이 일정한 변계의 의의를 지니긴 했지만 중원 왕조는 천하관의 영향으로 인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청조의 강희 연간에 이르러 제정 러시아와 협약을 맺음으로써 비로소 근대적인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가 출현하였다. 그것은 제정 러시아가 전통적인 주변 소수민족이 아니었고, 또 그 협약이 서방 국가들의 승인을 얻었을 뿐 아니라, 제정 러시아가 전통적인 중화 강역 내부의 정권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이후 청조는 끊임없이 서방 열강의 침략을 받게 되었고 이로써 전통적인 천하관은 크게 흔들리게 되었다. 그리고 이들 국가들의 침략을 받게 된 이후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변계 개념이 중국 조야에 널리 수용되게 되었던 것이다.

### 試析15世紀中葉圖們江成爲中朝界河

陳 慧, pp.101~106

15세기 중엽 두만강 유역은 명조와 조선의 分界地가 되었고, 이후 500여 년 동안 양국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보다 명확히 하긴 했으나, 지금에 이르기까지 두만강이 중국과 한국의 경계가 된다는 기본적인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15세기 이전 조선의 영토는 두만강의 남안까지 확대되지 않았고, 당시 그 곳은 중국의 소수민족의 거주지였다. 1403년 明 成祖는 그 지역에 대한 경략을 한층 강화했다. 1403년 성조는 여진 眞吾都裏部和 兀良哈部를 초무하여 공물을 바치게 하였고, 1404년 모두 11곳의 여진인을 초무하였다. 1405년 명 조정은 사신을 퍄퍄會(지금의 함경북도 회령)로 보내 猛哥帖木兒이 이끄는 斡朵裏部를 초무하고, 곧 毛憐(지금의 길림성 훈춘 일대)의 兀良哈部和 兀狄哈部 등을 초무하였다. 그리고 명조는 奴兒幹都司를 설치했다. 도사는 내지의 '省'級에 해당하는 軍政一體의 기구로, 그 아래에 衛와 所를 두어 民政을 담당하게 하였다. 이들 기구가 관할하는 지역의 주권은 당연히 명조에 속했다.

두만강 지역에 명조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개의 衛를 설치하였다. 먼저 建州衛이다. 건주위는 명조가

동북 지역에 설치한 최초이자 영향이 가장 큰 衛였다. 1403년 여진 수령 阿哈出이 조공을 바치자 명조는 그를 건주위 指揮使로 임명했다. 처음에 건주위는 옛 開原 즉 길림성 혼춘 지구에 설치되었으나, 1423년 婆猪江(압록강의 지류 修家江) 일대로 옮겼고, 조선의 침략으로 인해 1438년 지금의 요녕성 蘇子河 상류 즉 청조의 '龍興之地'인 興京으로 옮겼다. 다음으로 毛憐衛는 1405년 옛 慶原과 翰木河 사이에 설치되었다. 이후 모련위는 점차 건주위에 편입되었다. 그리고 古魯潭山衛(1407년), 舍蘭城衛(1407년), 童寬山衛(1408년), 禾屯吉衛(1409년), 愛和衛(1409년), 葡萄酒河衛(1414년) 등이 설치되었다.

명조는 두만강 남안에 일찍이 建州左衛를 설치하였다. 건주좌위의 선조들은 건주위와 마찬가지로 원조 시기에 牡丹江 하류지역에 거주하였으나 원말명초에 그 상류지역으로 이주하였다. 명조는 1405년 조선 경성 阿木河에 猛哥帖木兒을 지휘사로 삼아 건주좌위를 설치하였다. 건주좌위의 최초 설치 지점에 관해서는 지금도 학계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조선의 침략을 피하기 위하여 건주좌위는 1411년 두만강의 북안인 鳳州(지금의 輝發河 상류 北山城子 일대)로 이주하였다. 1423년 다시 회령으로 돌아갔으며, 두만강 남안의 회령 지구는 여전히 맹가첩목인의 여진 부락이 영유하고 있었다. 맹가첩목인이 사망한 뒤 건주좌위는 북쪽의 兀狄哈와 남쪽의 조선의 침략을 받아 1440년 두만강 북안으로 옮겨갔다. 이로부터 두만강 남안에는 명조의 행정기구가 소멸되었다.

명조에 의해 설치된 衛의 장관은 현지 부족의 수령이 임명되었고, 衛 사이의 충돌은 명조에 의해 조정되었다. 그리고 각 衛는 명조에 토산품을 공납하였으며, 명조는 엄격한 규정을 두어 이를 관리했다. 이처럼 두만강 유역에 설치된 衛所의 관할하에 있던 여진인은 명조의 신민이었고, 관할하의 두만강 지역은 당연히 명조의 영토였다.

고려시대에 한국의 영토는 지금 한국의 함흥이남 지역에 머물러 있었다. 이씨 조선이 건국된 이후 여진인을 축출하는 방식으로 점차 북쪽으로 영토를 확대하기 시작하여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까지 이르렀다. 명조는 두만강 유역의 여진인들을 돌보지 않고, 조선의 '事大至誠'에 만족하여 두만강 남안의 여진 영토를 고스란히 조선이 차지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건주좌위는 두만강 북안으로 옮겨가야 했으며, 두만강 남쪽의 영토를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다. 15세기 상반기 조선은 지금의 두만강 중하류 남안으로 진출하여 전후에 걸쳐 모두 6개의 鎭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최초로 두만강이 중국과 한국의 경계가 되었다.

조선은 두만강 연안의 여진인을 자신들의 藩籬로 간주하고, 명조와 마찬가지로 그들을 초무하였다. 그러나 조선의 목적은 영토 확장에 있었기 때문에 명조와 달리 회유와 살육을 병행하였다. 1404년 명조의 조선의 요구를 들어주어 이미 초무한 三散, 秃魯兀 등 11곳 여진 屬地와 2,000여 여진인을 조선의 관할로 넘겨주었다. 이때부터 지금의 함흥 이북 지역이 조선의 영토가 되었다. 조선은 나아가 맹가첩목인이 관할하고 있던 지구도 요구하기도 하였다. 조선은 명조와 마찬가지로 萬戶, 副萬戶, 都萬戶 등의 관직을 동원하여 여진을 회유하였다. 이를 알게 된 명조가 중지할 것을 요구했지만 조선은 듣지 않았다. 여진의 兀狄哈部는 늘 조선의 변방을 침략했을 뿐 아니라, 여진의 건주위의 수령 맹가첩목인이 이끄는 翰朵裏部도 공격하였다. 이에 맹가첩목인은 조선과 협력하여 울적함을 공격했는데, 의외로 조선은 건주위와 모련위의 여진인도 공격하였다. 兒遜 등 주요 수령이 조선에 의해 살해된 이후 모련위는 건주위에 편입되었고, 1460년 조선에 의해 최종적으로 멸망되었다.

조선의 침략을 피하기 위하여 맹가첩목인의 翰朵裏部는 1411년 서쪽의 봉주로 이주하였고, 1423년 다시 회령으로 돌아갔다. 1433년 맹가첩목인이 사망하고 나서 1440년 건주좌위는 마침내 소자하 일대로

이주하였다. 이로써 북쪽으로 영토를 확장하고자 했던 조선의 목적은 달성되었다.

조선은 여진에 대하여 회유와 살육이라는 양면적인 정책을 사용하였다. 여진도 조선의 封賞을 받아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조선을 공격했다. 따라서 여진의 조선에 대한 歸附는 명조에 대한 귀부와 성격상 다른 것이었다. 맹가침목인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그는 명조와 조선으로부터 동시에 관직을 받았다. 그런데 조선이 내린 관직은 명조와 달리 虛職이었다. 따라서 조선 조정의 정식 관원이 되는 것이 아니었다. 이에 반해 명조는 지휘사와 같은 실질적인 관직을 주었다. 여진이 조선에 귀부한 것은 조선의 양식과 의복 등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지 정치적인 필요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 나아가 여진 내부의 갈등은 명조에 의해 조절되었다. 결국 조선의 여진에 대한 정책은 영토 확장이 그 목적이었다.

조선은 맹가침목인이 사망한 뒤 건주여진의 세력이 약해지자 두만강 남안에 六鎮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兒遜을 모살한 이후 여진의 보복을 견디지 못한 조선은 1410년 慶源府를 경성으로 옮기기도 했다. 1449년에 이르러 조선은 石幕에 富寧鎮을 설치함으로써 會寧, 富寧, 鐘城, 穩城, 慶源, 慶興 등 육진의 설치를 끝냈다. 또한 조선은 압록강 중·상류에 閔延郡(1416), 慈城郡(1433), 茂昌郡(1440), 虞芮郡(1443) 등 四郡을 설치함으로써 압록강 남안 지구를 확보하였다.

이상과 같이 15세기 중엽부터 중국과 한국의 정부는 비록 공식적인 문건을 통하여 國界를 정하지 않았지만 서로가 압록강과 두만강을 사실상의 자연적인 분계선으로 인정하였다.

## 渤海政權의對外交通及其遺跡發現

魏存成, pp.72~88

발해는 건국 이후 정권이 안정되고 세력이 커지자 적극적으로 중원 및 주변 지구와 정치, 경제, 문화 방면의 교류를 추진했다. 『新唐書』 「渤海傳」을 보면 발해는 대외적으로 모두 다섯 개의 주요 도로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외에 발해에는 북쪽으로 흑수말갈에 이르는 또 하나의 도로가 있었다. 이들 도로에 대해서 이미 적지 않은 학자들이 조사와 검토를 진행하였다. 최근 새로운 고고학적 성과가 나타났고 그에 따라 새로운 견해들이 제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기왕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발해의 주요 도로와 그 주변의 주요 유적에 대하여 보다 전면적인 소개와 논증을 기하고, 또 말미에 발해의 대외 교통로 지도를 작성하여 첨부하고자 한다.

### 1. 營州道와 관련 유적

영주도는 『新唐書』 「地理志」에 실린 貞元 재상 賈耽之의 ‘邊州入四夷道裏記’에 다음과 같이 소개되어 있다. 즉 “영주에서 동쪽으로 180리를 가면 燕郡城에 이른다. 또 汝羅守捉(城)을 지나, 遼水를 건너 安東都護府까지는 500리이다. 도호부는 옛 漢代의 襄平城이다. …… 도호부에서 동북쪽으로 옛 蓋牟(城)과 新城을 지나고, 또 渤海의 長嶺府를 지나 1,500리를 가면 渤海王城에 이른다. 발해왕성은 忽汗海에 임해있고, 그 서남쪽 30리에 옛 肅慎城이 있다. 그리고 그 북쪽으로 德理鎮을 지나 흑수말갈까지는 1,000리다”라는 것이다.

영주는 지금의 요녕성 朝陽이다. 이곳은 隋唐 이전 역대의 중원 왕조들이 동북 지방을 경략할 때의 요지이다. 지금도 주변에 100여 기의 수당대 분묘들이 발견되는데, 대부분 안사의 난 이전 것이고, 몇몇

무덤에는 연도가 표기되어 있다. 분묘들은 대부분 벽돌로 되어 있었으나 벽돌과 돌로 쌓은 것과 돌과 수혈 및 토갱으로 이루어진 것도 있다. 모양은 방형, 장방형, 원형 등 다양했으며, 대부분 묘실은 하나였고 다수인 것은 적었다. 묘실이 많은 묘들 속에서 아름다운 三彩가 출토되기도 했다.

연성군은 大凌河 하류 지금의 요녕성 義縣 남쪽 七裏河鄉 開州城村의 古城이다. 女(汝)羅城은 『水經注』에도 기록이 보이는데, 唐代에는 汝羅守捉城이었고, 지금의 義縣 남쪽 開州城村 동쪽의 大凌河 서안의 老君堡 일대이다. 遼水는 지금의 遼河이고, 안동도호부는 지금의 遼陽이다. 옛 개모성은 지금의 심양시 蘇家屯區 陳相屯 기차역의 동북쪽에 있는 塔山山城이다. 신성은 지금의 撫順 高爾山城이고, 여기서 渾河를 거슬러 동북쪽으로 올라가 南北水系分水嶺을 지나면 輝發河 유역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는 동시에 발해의 경내에 들어가는 것이 된다. 발해의 長嶺府 樺甸 蘇密城이 곧 여기에 있었다. 소밀성은 明清 시기에 納丹府城과 那丹佛勒城으로 불렸다. 소밀성은 지난 세기 3, 40년대에 이미 조사가 시작되어 발해의 長嶺府 치소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 성은 지금의 길림성 樺甸市區에서 동쪽으로 6리의 거리에 있는 輝發河의 남안에 있으며, 휘발하 유역에서 가장 큰 발해의 古城이다. 이 성은 내·외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夯築法으로 쌓았다. 외성은 대체적으로 남북으로 긴 장방형이고, 둘레는 2,600m이며, 사방에 문이 있었지만 북문은 물에 무너져 없어졌고 서문과 남문에는 아직도 甕城의 유적이 남아있다. 성 밖에는 두 갈래의 護城河가 있다. 내성은 외성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고, 방형으로 둘레가 1,400m이며, 동문과 서문이 있는데 서문의 남쪽에는 아직도 석벽의 기초를 볼 수 있다. 내,외성 모두 모서리에 성루가 있다. 성 안에는 홍색과 회색의 기와가 흩어져 있고, 또 회색의 蓮花紋 와당이 수집되었고, 遼金 시기의 獸面紋 와당이 출토되는 것으로 봐서 후대에도 여전히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소밀성을 지나 계속 동북쪽으로 가서, 第2松花江의 상류에서 牡丹江의 상류로 진입하면 敦化的 발해 '舊國'에 이른다. 그리고 돈화에서 강을 따라 북쪽으로 가면 寧安 渤海王城 上京龍泉府에 이른다. 도로는 잘 뚫려있고, 유적도 밀집되어 있다. 그 중에는 江東, 官地, 海青房, 腰甸子, 房身溝, 灣溝 등 여섯 곳의 24개 석축 건물 유적지가 있을 뿐 아니라, 橫道河子, 孫家船口, 通溝嶺, 石湖, 黑石, 南台子, 大甸子, 腰甸子 등의 古城 또는 古城堡도 있다. 과거의 연구가 단지 지표조사에 그치고, 그 연대의 확정에 아직 의견이 통일되지 않아 여전히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지만, 발해의 營州道가 여기를 경유한다는 점은 학계가 모두 인정하고 있다.

營州에서 上京에 이르는 도로는 이상과 같다. 영주도는 발해와 중원이 교류하고 왕래하는 주요한 도로였지만, 안사의 난과 거란의 흥기로 인해 도로가 때에 따라 단절되기도 했다. 그 이후 발해와 중원의 왕래는 주로 朝貢道에 의존하게 되었다.

## 2. 朝貢道와 관련 유적

조공도를 『신당서』 「지리지」는 登州道라고 부르며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등주의 동북쪽 바닷길로 大謝島, 龜歆島, 末島, 烏湖島를 지나 300리를 간다. 북쪽으로 烏湖海를 건너 馬石山의 동쪽 都裏鎮까지는 200리이다. 동쪽의 바닷가를 따라 靑泥浦, 桃花浦, 杏花浦, 石人汪, 橐駝灣, 烏骨江을 지나면 800리이다. …… 압록강 입구에서 배로 100여 리를 가서 작은 배로 강을 거슬러 동북쪽으로 30리를 가면 泊沔口에 이르게 되는데 곧 발해의 경내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다시 강을 거슬러 500리를 가면 丸都縣城에 이르는데 곧 옛 고구려의 王都이다. 다시 동북쪽으로 200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神州에 도착한다. 그리고

육지로 400리를 가면 현주에 도달하는데 天寶 연간 왕이 도읍으로 삼았던 곳이다. 다시 정북방에서 동쪽으로 600리를 가면 발해왕성에 이른다”라는 것이다.

등주는 지금의 산둥성 蓬萊이다. 안사의 난 이후 李正己가 平盧淄青節度觀察使와 海運押新羅渤海兩蕃使 등의 관직을 겸하며 淄, 靑, 齊, 海, 登, 萊 등 15州를 용유했을 때 “발해 名馬의 거래가 끊이지 않았다”고 하는 곳이다. 9세기에 일본의 승려 圓仁이 唐으로 유학 와 『入唐求法巡禮行記』를 저술했는데, 그 속에는 登州都督府의 城南 거리 동쪽에 渤海館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원인은 등주에 도착하기 전과 등주에서 서쪽으로 길을 가는 도중에 발해의 使者에 관한 소식을 직·간접적으로 세 차례나 들었다.

이 도로는 우선 등주에서 동북쪽으로 바다를 건너는데, 지나게 되는 대사도, 구흡도, 말도, 오호도 등은 모두 지금의 廟島群島에 속한다. 북쪽으로 지나게 되는 오호해는 지금의 渤海이다. 馬石山은 지금의 요동반도 남단의 老鐵山이다. 도리진은 곧 지금의 여순으로 유명한 唐 鴻臚井 刻石이 여순의 黃金山 산록에서 발견되었다.

당 홍려정 각석은 20세기 초 러일전쟁 당시 일본이 전리품으로 가져가 지금은 동경의 千代田區 皇宮 안 建安府의 前院에 있다. 일본은 청대의 劉畚芳이 1895년 세운 각석 위의 네모난 石亭도 가져갔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를 합쳐서 ‘唐碑亭’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각석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는데 1967년 일본인 渡邊諒이 특별 허락을 받고 들어가 각석을 조사한 다음 그 내용을 고증하고 소개했다. 그 후 중국과 일본의 학자들이 계속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비석에는 모두 29개의 글자가 새겨져 있다. 즉 “敕持節宣勞○羯使鴻臚卿崔忻井兩口永爲記驗開元二年五月十八日”이라고 새겨져 있다. 『구당서』 「발해전」과 『신당서』 「발해전」에 모두 관련 기사가 있다. 이 비석은 鴻臚卿이 開元 2年(714) 발해에서 唐으로 돌아가는 길에 여순을 지날 때 사람을 시켜 새긴 것이다. 그가 지난 길이 바로 조공도였다. 발해는 처음에 震國(振國)이라고 했는데 이때의 책봉을 통해 정식으로 발해라고 불리며 당조의 邊疆州와 都督府가 되었다. 발해는 이때부터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홍려정의 이름은 문헌과 달리 각석에 崔忻이라고 되어있는데 학계에서는 각석의 것이 맞다고 보고 있다.

여순에서 배로 동북쪽으로 계속 가면 靑泥浦를 지나게 되는데 지금의 大連市이다. 그리고 吳承志의 고증에 따르면, 桃花浦는 지금의 淸水河口의 동북 측면에 있었고, 杏花浦는 지금의 畢裏河(주:지금의 碧流河) 입구 동북쪽 측면에 있었으며, 石人汪은 지금의 石城島의 북쪽에 있는 莊河의 입구 부근에 있었고, 橐駝灣은 지금의 大鹿島와 大洋河 하구 사이에 있었다고 한다. 烏骨江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靚河라고 보고 있는데, 靚河는 烏骨城(지금의 鳳凰山城)을 지나 압록강으로 들어간다. 따라서 烏骨江 하구는 곧 鴨綠江 하구이다.

여기에 이르면 바다를 벗어나게 된다. 泊灼口는 조공도의 교통 요지일 뿐 아니라 발해의 서남 변계이므로 그 소재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泊灼口의 소재지를 확인하려면 고구려의 泊灼城과 漢의 安平縣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安平縣城은 압록강 하류 靚河口 충적 대지 위의 靚河尖古城이다. 이 성의 유적지는 丹東市에서 15km 떨어져 있고, 동서로 너비가 약 500m, 남북으로 길이가 약 600m가 된다. 성벽은 항축 법으로 쌓은 것이며, 이미 많이 (무너져) 편평해졌으나, 동북과 서남 모퉁이는 비교적 잘 남아 있지만, 그래도 그 높이가 1m가 되지 않는다. 섬돌과 성의 밑 부분은 땅에 묻혀 있는데 깊이가 약 1m이다. 이곳이

한안평성이라는 근거는 1976년에 발견된 雲紋 와당에 ‘安平樂未央’이라는 문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안평이 곧 『漢書』 「地理志」에 보이는 요동군 西安平縣이다. 이곳에서 한대의 灰色 繩紋陶片, 瓦片과 五銖錢 등이 발견됨과 동시에 고구려의 紅色 瓦片과 蓮花 瓦當 등도 발견되어 고구려 시기에도 여전히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靉河尖古城이 고구려의 泊沟城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은 박작성이 靉河口 북쪽의 蒲石河口 자리에 있다고 보았다. 『舊唐書』 「薛萬徹傳」에 따르면 박작성은 험요한 곳에 있었다. 따라서 평지에 있는 靉河尖古城이 박작성일 수는 없다. 그러나 근년에 발견된 虎山山城이 박작성임이 밝혀졌다. 박작성은 고구려가 漢安平縣의 치소인 靉河尖古城을 뺏은 뒤, 평지에 있는 靉河尖古城성을 보호하기 위해 험요한 곳에 지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산성과 평지성이 결합된 형태였던 것이다. 따라서 泊沟口의 위치도 과거의 인식과 달리 靉河口 자리임이 명백해졌다.

박작구에서 강을 거슬러 500리를 가면 나오는 丸都縣城은 옛 고구려의 왕도로 지금의 集安市이다. 또 동북쪽으로 200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르게 되는 神州를 학술계는 지금의 臨江이라고 보고 있다. 임강에 대한 발굴 조사는 미미하여 향후 보다 깊이 있는 발굴 조사가 기대된다.

임강에서 상륙하여 육지로 400리를 가면 顯州에 이르는데 天寶 연간 왕이 도읍으로 삼았던 곳이다. 발해는 건국 초기에 教化를 도읍으로 정하고 나서 곧 중원과 빈번히 교류했고, 어떤 경우에는 명백히 海路를 이용했었다. 따라서 임강에서 발해 도성으로 가는 노선은 시기의 전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처음에는 돈화의 ‘舊國’ 都城으로 갔지만, 나중에 오랜 기간 동안 和龍의 中京 西古城을 거쳐 寧安의 渤海 上京으로 갔다. 위에서 말한 노선은 후자의 길을 가리킨다. 전후 두 시기의 노선은 1970년대의 조사에 의해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두 길의 대부분이 같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 구체적인 노선은 임강에서 상륙하여 북상한 다음 二道溝 계곡을 따라 永安遺址, 大營遺址, 湯河口遺址를 거쳐 新安古城에 이르는 것이다. 연도에 있는 永安(지금의 白山市)遺址와 新安古城유지는 이미 발굴조사 되었다. 특히 金毓黻이 『渤海國志長編』 「地理考」에서 발해 서경 압록부가 거느린 豊州가 “서경 동북쪽 210리에 있다”라고 고증하고 있어 현재 학계에서는 新安古城을 발해의 豊州城으로 보고 있다.

新安古城에서 다시 가는 길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우선 첫째 견해는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 즉 신안고성에서 출발하여 동쪽으로 지금의 泉陽, 露水河를 거쳐 安圖縣 二道鄉 서북쪽 12리에 있는 報馬城(寶馬城)에 이른다. 이 보마성은 당연히 발해 中京이 관할하는 興州城이다. 보마성에서 다시 동북쪽으로 가서 松江鎮에 다다른 다음, 서북쪽으로 永慶鄉을 거치고 柳樹屯에 이르러 古洞河를 건너 뒤 富爾河를 따라 서북쪽으로 가서 大蒲柴河鄉에 도착한다. 다시 여기서 북쪽으로 가서 牡丹江을 따라가 教化에 다다른다는 것이다. 둘째 견해는, 신안고성에서 북상하여 抽水를 거쳐 二道松花江을 따라 동북쪽으로 간 뒤, 沿江鄉의 白水灘을 통하여 돈화로 진입하고 大蒲柴河를 거쳐 발해 ‘구국’도성에 도달했다고 본다.

중경을 거쳐 상경으로 가는 노선도 위의 첫째 견해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즉 安圖 永慶鄉 柳樹屯에서 古洞河를 따라 동북쪽으로 간다는 것이다. 둘째 견해에 의하면, 撫松의 동북부에서 安圖縣의 광활한 二道江 상류지대로 진입하고, 兩江鎮 동남 방향에 있는 仰臉山城을 거쳐 二道江의 북안을 따라 동쪽으로 10리를 간 다음, 南來에 있는 三道白河와 二道江이 만나는 곳에 이른다. 여기에는 三道白河 발해 城堡와 高麗

城이라 불리는 발해의 촌락 유지가 있다. 여기에 이르러 조공도는 더 이상 동쪽으로 가지 않고 북쪽으로 꺾어져 古洞河 유역에 다다르게 된다. 古洞河를 거슬러 올라가면 연도에 東淸의 渤海寺廟 유지와 촌락 유지, 萬寶 부근의 新興 발해 촌락 유지와 城堡가 있다. 萬寶에서 15km를 가면 新舍에 다다르고, 古洞河를 거슬러 올라가 동남쪽으로 방향을 틀면 和龍市에 진입하게 된다. 그런 다음 海蘭江의 상류의 지류인 二道河의 계곡을 따라 남쪽으로 가면 獐項 渤海古城을 거치게 되고 곧 해란강 평원에 위치한 발해 중경 和龍 西古城에 도착하게 된다고 한다. 이 노선은 임강에서 서고성까지가 200km가 넘는데 이는 문헌상의 기록과 대체로 일치한다.

발해 중경에서 상경으로 가는 길에 해란강에서 동쪽으로 가면 龍井市가 있고, 다시 동북쪽으로 가면 延吉市를 거쳐 嘎呀河 하류 지대에 이르게 되며, 알하하를 거슬러 가면 서북쪽으로 멀리 가게 된다. 용정과 연결 그리고 알하하 양안에는 많은 발해 유적이 있고 전형적인 발해 유물이 발굴되고 있다. 그 중 최근 汪淸 紅雲建築址가 발굴되기도 했다. 알하하의 상류에서 상경으로 가는 노선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하하 상류에서 북쪽으로 가서 哈爾巴嶺을 넘어 다음 흑룡강 寧安市에 진입하고 또 上馬河를 따라 북쪽으로 가서 상경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알하하 상류에서 서쪽으로 가 哈爾巴嶺을 넘어 가고, 그 연도에는 五峰嶺 渤海 建築址, 灣溝 二十四塊 石建築址, 房身溝 二十四塊 石建築址 등이 있으며, 그런 다음 鏡泊湖 동안을 따라 상경에 도달한다고 본다.

주의할 것은 발해가 당조의 중앙정권과 밀접하게 교류하면서도 이웃하고 있던 幽州와도 서로 사신을 파견하는 관계를 유지했었다는 사실이다. 8세기의 張光祚와 9세기의 張建章이 좋은 예이다. 특히 장진장이 저술한 『渤海記』는 발해의 풍습, 궁전, 관품 등을 상세히 기록한 것으로, 『新唐書』 「藝文志」에는 『渤海國記』로 되어있다. 『신당서』 「발해전」의 내용이 『구당서』 「발해전」의 내용보다 풍부한 것은 바로 『발해기』의 내용을 채택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책은 후일 일실되었다.

### 3. 日本道와 관련 유적

『新唐書』 「渤海傳」에는 “獐狍의 故地가 東京으로 龍原府라고 부르며, 또한 柵城府라고도 하는데, 慶, 鹽, 穆, 賀 등 4주를 거느린다. …… 용원부의 동남쪽은 바다에 접해 있으며 (이것이) 日本道이다”라고 되어 있다. 고증에 의하면 여기서의 ‘獐狍’은 ‘沃沮’의 착오이다. 발해와 일본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발해는 건국 후 얼마 되지 않아 일본에 사신을 파견했다. 통계에 따르면 727-919년 동안 발해는 34차례 일본에 사신을 파견했고, 728-811년 사이에 일본의 사신은 13차례 발해를 답방했다. 이와 같은 빈번한 왕래는 발해와 일본의 경제, 문화 방면의 교류를 촉진시켰다.

발해는 상경으로 천도하기 이전 돈화를 도읍으로 삼았을 때부터 일본에 사신을 파견했기 때문에 일본으로 가는 길이 시기의 전후에 따라 다르다. 원래 과거에는 전기의 일본도를 돈화 ‘구국’ 도성에서 출발하여 동쪽으로 越哈爾巴嶺을 넘어 布爾哈通河를 따라 延吉市에 들어간 다음, 다시 동쪽으로 城子山山城, 河龍古城을 거쳐 琿春 경내에 진입하여 達八連城에 도착하고, 거기서 출발하여 日本道 港口에 다다른다고 보았다. 그런데 훗날의 조사에 따르면, 돈화에서 동쪽으로 沙河 지류를 거슬러 간 다음, 哈爾巴嶺과 牡丹嶺이 만나는 입구를 거쳐 安圖 경내의 福興河 지류를 따라 내려가 福興鄉 서쪽의 島興 발해 유지에 이르고, 그런 다음 동남쪽의 福興河 지류로 방향을 바꾸어 강의 계곡을 거슬러 올라가 福壽屯 발해 유지에 도달한 뒤, 英額嶺을 넘어 長仁江을 따라 내려가면 海蘭江 유역에 이른다. 그 연도에는 長仁유지와 묘지

군, 靑龍유지와 모지군, 鳳照유지 등의 발해 유적이 있다. 여기서부터 해란강을 따라 내려가 布爾哈通河와 합류하는 지점의 河龍古城에 이르면 위에서 말한 노선과 만난다. 동시에 여기서 해란강을 따라 내려가 포이합통하와 알하하가 합류하는 지대에 이르면 위에서 말한 조공도와도 만난다. 발해가 中京과 龍西古城을 도읍으로 삼았을 때도 역시 이 노선을 따라 일본으로 갔다. 포이합통하 하류에 이르면 발해가 上京에 도읍을 정한 뒤 일본과 교류하던 길이 서북쪽의 알하하로부터 이어져 전기의 도로와 또한 합류한다고 한다.

포이합통하 하류에서 두만강의 북안을 따라 동쪽으로 가면 혼춘의 涼水, 密江, 甩灣子를 거쳐 혼춘 八連城 남쪽 5km에 있는 溫特赫部城에 도달하게 되고, 그 다음 온특혁부성보다 나중에 지은 東京 龍原府 八連城에 이르게 된다. 팔련성은 여러 차례의 고찰을 거쳐 발해의 도성이었음이 입증되었고 학계의 공인도 받았다. 그러나 발해가 둔화에 도읍을 두었을 때 팔련성은 아직 수축되지 않았다. 온특혁부성에는 발해가 상경으로 천도한 이후 유행한 아랫부분에 斜線連圈紋의 板瓦와 蓮花 瓦當이 발견되고 동시에 고구려에서 발해 초기에 이르는 시기에 늘 보이는 繩紋, 席紋, 斜方格紋 혹은 아랫부분에 지문이 있는 板瓦 특히 집안 東台子 고구려 유적에서 출토된 것과 같은 문양의 와당이 발견되어 어떤 학자는 고구려의 것으로 보고 또 어떤 이는 발해 초기의 것으로 보기도 한다. 발해도가 초기에는 온특혁부성을 거쳤으나 나중에 혼춘 팔련성을 통과했다는 견해는 바로 이 때문에 제기된 것이었다.

온특혁부성과 팔련성에서 동쪽으로 가서 紅石鄉 石頭河子 渤海古城을 거친 뒤 長嶺子山口를 넘으면 지금의 러시아 경내에서 일본도가 바다로 나가는 출구 즉 波謝特灣 안에 있는 크라스키노 古城에 다다르게 된다. 이 성은 동경 용원부 예하에 있던 鹽州의 치소가 있던 곳이었다. 이 성은 1950년대 말부터 60년대 초 사이에 소련 학자들이 발굴 조사했는데, 성의 안팎에서 명백히 발해의 것으로 보이는 유물이 발견되었다. 80년대 초와 1994-1995년에 이 성의 서북쪽에 있는 사찰 유지와 燒瓦窯址 유지에 대한 발굴이 있었고, 이후 러시아 학자들이 다시 이 성에 대한 발굴조사를 진행했으며, 이때에는 일본과 한국의 학자들도 참여했었다.

克拉斯基諾古城은 핫산 지역의 크라스키노마을 동남쪽 2-3km에 있는 추카노프카 강(巖杵河)의 하구에 위치하고 있다. 원래 크라스키노의 원래 명칭은 毛口巖였고, 민국 연간의 『琿春鄉土志』는 모구의를 길림성에서 바다로 나가는 문호라고 소개하고 있다. 古城의 남쪽 절반은 장방형이고 북쪽 절반은 반원형인데, 둘레가 1.2km이고 면적이 12만 m<sup>2</sup>가 넘는다. 성벽은 흙과 돌을 섞어 쌓았고, 밑바닥 두께가 10-12m이며 상부는 거의 1m가 된다. 안쪽 높이는 1-1.5m이고 바깥쪽 높이는 2.5m에 달한다. 1996-1997년 발굴 조사된 바 있다.

발해의 사신이 일본으로 가는 해로는 모두 세 가지가 있었다. 먼저, 波謝特灣에서 출발하여 동남쪽으로 동해를 건너 다음 일본 본주의 서해안에 도달하는 해로가 있었는데, 이를 北線이라 불렀다. 둘째, 마찬가지로 波謝特灣을 출발하여 한반도의 동해안을 따라 남하한 다음 일본의 築紫(지금의 九州)에 도달했는데 이를 築紫線이라고 했다. 셋째, 발해 南海府에서 출발하여 한반도의 동해안을 따라 남하하여 일본의 築紫에 도달하는 해로를 南海府線이라고 불렀다. 발해 사신이 일본으로 출사한 것은 모두 34차례가 되는데 축자선과 남해부선을 이용한 것은 단 1차례씩 있었고, 나머지는 모두 북선을 이용했다. 초기에는 바닷길에 익숙하지 않아 표류하기도 했다. 사신은 바람과 해류를 이용하기 위해 늦가을에서 초겨울 사이에

출발하여 이듬해 여름에 돌아왔다. 발해나 일본의 사자가 일본을 떠날 때의 주요 출발점으로 이용한 항구는 加賀(石川)과 越前(福井)이었고, 명확한 기록이 있는 항구는 福良津(石川縣 羽咋市 福浦港), 三代湊(福井縣 坂井郡 九頭龍川 河口) 그리고 敦賀(福井縣 敦賀市)였다. 1950년 일본 궁내청 書陵部가 출판한 『圖書寮典籍解題』 역사편의 권두에는 咸和 11년(841) 발해의 사자 賀福延이 大彝震의 명을 받아 일본에 출사하며 휴대했던, 渤海國 中台省이 日本國 太政에게 보내는 官牒(곧 정부문서)의 사진이 실려 있는데, 발해와 일본의 교류사 연구에 중요한 실물자료라고 할 수 있다. 1986년 奈良 平城宮 東南쪽 長屋王官邸 유지로 알려진 곳의 부근 도랑에서 230매의 목간이 발견되었고, 그 중의 한 매에 ‘渤海使’, ‘交易’ 등의 글자가 있었다. 목간은 和銅 8년~天平 원년(715-729)의 것으로 추정되는데, 발해 사자의 일본에서의 활약을 연구하는 데 자료가 된다.

#### 4. 新羅道와 관련 유적

발해와 신라는 泥河 즉 지금의 한국 함경남도 남단의 龍興江을 경계로 삼고 있었다. 『新唐書』 『渤海傳』은 “옥저의 故地가 南京이고 南海府라고 한다 …… 남해는 신라도이다”라고 적고 있다. 여기서의 옥저는 獺貂의 착오이다. 南京 南海府의 위치에 대해서는 전부터 咸鏡北道 鏡城說, 咸鏡南道 咸興說 그리고 鹹鏡南道 北靑說이 있었지만, 근년의 고고학 연구에 의해 北靑土城으로 확정되었다. 신라도는 먼저 발해 상경에서 동경으로 가는데, 이 길은 일본도와 같다. 그런 다음 한반도 동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 지금의 한국 함경북도 청진시 松坪區, 어랑군 회문리 그리고 김책시 동흥리 이 세 곳의 二十四塊石建築址를 거쳐 북청토성에 다다른 다음 계속 남하하여 한반도의 동남부를 관통한다. 이 부분은 바로 문헌에서 말하는 新羅 泉井郡에서 발해 柵城府에 이르는 바로 그 도로이다. 소개에 따르면, 한국 동북부에서 이미 평지성, 산성, 建築址, 묘지 그리고 窯址 등 많은 발해 유적이 발굴되었다고 한다.

북청토성은 靑海土城이라고도 하는데, 한국 함경남도 북청군 동남쪽 14km의 남대천 좌안의 광활한 평원 위에 위치하고 있다. 지금은 서쪽, 북쪽 그리고 남쪽의 성벽만 남아 있고 동쪽 성벽은 보이지 않는다. 성벽의 높이는 2-3m이고, 아랫부분이 8m, 윗부분은 1m이다. 성벽의 모서리에는 성루와 馬面이 있다. 성의 유지의 크기에 대해서 『新增東國輿地勝覽』은 둘레가 3,497척이라고 했고, 1961년 제4호 『文化遺産』도 1,289m라고 소개하였는데 양자의 수치가 기본적으로 일치했다. 그런데 이후 1990년의 『朝鮮考古研究』 제 4기와 2002년에 출판된 『朝鮮東海岸一帶渤海遺跡研究』 등에는 수치가 다소 다르게 즉 보다 길게 소개되고 있다. 또 모든 조사 보고는 성내의 배치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즉 사면의 성벽 중간에 문이 있고, 문 안에는 십자 모양의 큰 길이 성내를 네 구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또 매 구역은 모두 네 개의 ‘田’字 모양의 작은 구역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도면상으로 보면, 현재 남아 있는 서벽의 方形 구역의 내부에 십자 가도가 있으며, 크기도 『新增東國輿地勝覽』 및 1961년의 소개와 일치한다. 그러므로 성의 크기는 그 정도일 것이다. 그렇다면 청해토성의 배치와 크기는 唐代 중원의 소형 州城이나 縣城과 같은 유형에 속하고, 隋唐 京城의 일개 坊에 해당되는 정도였을 것이다. 서문의 동북쪽과 북문의 동남쪽에 官府로 추측되는 건축물의 유지가 발견되었고, 대형 초석과 함께 발해 시대의 특징을 보여주는 많은 종류의 기와가 발견되었다. 성내에서 온돌[火炕]과 우물이 발견되었는데, 발견된 우물의 중의 하나는 앞서 말한 크라스키노 古城의 우물과 같은 형태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성내에서 다수의 도기, 금속기, 청자기 등이 발견되었는데, 금속기의 대부분은 무기와 馬具였다. 또한 북청토성의 서남쪽 10km에 있는 新浦市 梧梅裏

의 산골짜기에서 方形 塔基가 특징인 사찰 유지가 발견되었다.

#### 5. 契丹道와 관련 유적

『新唐書』「渤海傳」은 “부여의 고지가 扶餘府이고, 항상 강한 부대를 주둔시켜 거란을 막았다 …… 부여는 거란도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925년과 926년 사이에 遼太祖는 渤海를 친정할 때 먼저 부여성을 함락시키고 곧장 진격하여 忽汗城에 이르렀는데, 그때 지난 길이 바로 이 노선이다. 학계의 다수는 발해 부여부가 지금의 길림성 吉林省 農安縣에 있었다고 보고 있지만, 어떤 학자는 부여 고지가 부여 후기의 왕성이며, 부여 전기의 왕성은 농안에 있지 않았고 지금의 吉林市에 있었다고 보고 있다. 길림시는 동시에 고구려 부여성의 소재지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농안에서는 확실한 발해 유물이 발견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상경에서 부여부에 이르는 교통 노선은 길림시까지만 고찰이 가능하다. 즉 상경에서 牡丹江을 거슬러 남하한 뒤, 다시 牡丹江 상류의 지류인 珠爾多河를 거슬러 올라가 서북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張廣才嶺를 넘으면 蛟河와 拉法河 유역에 진입하게 되고, 계속 서쪽으로 가서 老爺嶺을 넘고 〇牛河를 따라가면 길림시에 도달하게 된다. 연도에는 牡丹江 유역의 발해 유적 이외에, 〇牛河 상류의 七道河村과 尙義에서 각각 渤海 建築址와 唐 海獸葡萄紋 銅鏡이 발견되었고, 蛟河 상류에서 발견된 前進古城을 어떤 학자는 발해 시기에 건축되었다고 보고 있다. 칠도하촌의 발해 建築址는 길림성 蛟河市 七道河村의 북쪽 약 300m 위치에 주위보다 약간 높은 둔덕에 위치하고 있는데, 북쪽에는 바로 시골의 도로가 있고, 남쪽의 5m 쯤이 바로 〇牛河이다. 이 유적은 1985년에 발견되었고 1990년에 발굴되었다. 建築址는 반듯한 方形으로 안에서부터 天井, 地面鋪石, 礎石, 級石, 護坡石 등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발견된 와당은 蓮花 무늬였지만 양식은 확실히 차이가 있었다. 출토된 鐵風鈴과 掛鉤는 汪清縣 紅雲의 발해 建築址에서 출토된 것과 기본적으로 같은 것이었지만 紅雲 建築址에서 출토된 陶佛像 파편은 발견되지 않았다.

#### 6. 흑수말갈도와 관련 유적

北朝 후기에 勿吉의 白山部가 남쪽으로 이동하여 주변의 부족을 흡수한 뒤, 第2松花江과 長白山 북쪽의 광대한 구역에 7部를 형성했는데 黑水部는 그 중 가장 북쪽에 있었다. 『新唐書』「黑水靺鞨傳」에 따르면, 唐이 고구려를 멸하자 백산의 部衆은 혹은 唐으로 가거나 혹은 흩어졌는데, 발해가 건국되자 남은 사람들은 발해에 편입되었다. “오직 黑水部만 온전하였고, 16부락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남북으로 나뉘어 불렸으며 아마 가장 북쪽에 거주하였던 무리였을 것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여기서 ‘남북으로 나뉘어 불렸다’는 것은 흑룡강의 중하류를 경계로 한 것이었다. 開元 10년 그 추장 倪屬利稽가 來朝하자 玄宗은 그를 勃利州刺史로 임명했다. 이에 安東都護 薛泰가 黑水府를 설치하고 部長을 都督, 刺史로 삼을 것을 청하자, 조정에서는 長史를 두어 감시하게 하고, 府都督을 하사하고 李氏의 성을 준 뒤 이름을 獻誠이라고 한 뒤, 雲麾將軍 領黑水經略使 隸幽州都督로 삼았다. 金毓黻의 고증에 따르면 현종 사후 黑水部와 당조의 교류는 현저히 감소했다. 이것은 발해가 상경으로 천도한 것과 관련이 있었다. 발해가 상경으로 천도하기 이전 흑수부와 당조는 서로 교류했으며, 당조는 흑수부의 땅에 州를 설치하고 長史를 둬으로써 흑수부의 지위를 높여주었다. 이에 발해 2대 왕 大武藝가 흑수부를 공격하고, 대무예의 동생 大門藝가 당조로 도주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다. 당조가 고구려를 멸하자 牡丹江 중하류에 있던 安居骨部가 흩어지게 되었고, 그 틈을 이용하여 흑수부가 牡丹江 중하류로 진출했던 것으로 추측된

다. 발해의 정벌과 상경으로의 천도 이후 흑수부는 북쪽으로 물러났고, 宣王 大仁秀의 시기에 흑수부는 발해에 役屬되었으며, 이로 인해 선왕 즉위 이후 발해 말까지 100여 년 동안 흑수부와 중원의 교류에 관한 기록은 전혀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營州道를 소개할 때 인용했던 사료는 “安東都護府에서 천오백 리의 거리에 渤海王城이 있고, 성은 忽汗海에 임해있다 …… 그 북쪽으로 德理鎮을 지나 南黑水靺鞨까지가 1,000리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당조가 이 노선을 이용했다면 발해와 흑수부도 이 길을 이용하여 교류했을 것이다. 도로는 지리적 형세로 볼 때, 牡丹江을 따라 내려갔을 것이다. 지금 上京城 북쪽의 牡丹江 양안에는 확실히 적지 않은 발해 유적이 발견되었다. 그 중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이 牡丹江市 북쪽에서 牡丹江의 양쪽을 지키는 南城子古城과 ‘牡丹江邊牆’이다.

南城子古城은 牡丹江 중류의 오른쪽 지류인 勒勒河의 일급 대지 위에 위치하고 있다. 서남쪽으로 牡丹江 시내에서 40여 리 떨어져 있고, 서쪽으로는 樺林鎮에서 10여 리 떨어져 있으며, 城址의 북쪽 측면이 南城子村이다. 城址는 장방형이고, 동서로 450m, 남북으로 580m, 둘레가 2,060m가 되며, 남쪽을 향해 볼 때 동쪽으로 10도 정도 치우쳐있다. 서쪽, 남쪽 그리고 북쪽 성벽은 보존상태가 비교적 양호한데, 밑 부분의 너비는 8-10m이고, 가장 넓은 곳은 12m에 달한다. 높이는 1.8m이고, 가장 높은 곳은 2.2m에 이른다. 대부분 흙과 돌을 섞어 항축법으로 쌓았다. 세 면의 성벽 밖에는 아직도 해자의 흔적을 볼 수 있다. 동쪽 성벽은 남아있는 것이 없으며, 勒勒河가 城址의 동쪽 측면 바로 곁을 지나 북쪽으로 10여 리를 흘러 板院河(속칭 北大河, 亮子河)와 합류한 뒤 다시 서북쪽으로 흘러 牡丹江으로 들어간다. 城址의 남과 북에 각각 하나의 문이 있다. 城址의 안은 이미 경지로 개간되었지만 아직도 적지 않은 토대를 볼 수 있는데 원래 건축의 유지일 것이다. 채집된 유물로는 蓮花 瓦當, 板瓦, 筒瓦 등 각종 양식의 陶片이 있고, 城址의 동남쪽과 서남쪽으로 멀지 않은 곳에 발해의 묘지가 있으며, 그 중 동남쪽에 있는 石場溝 묘지는 이미 발굴되었다.

‘牡丹江邊牆’은 南城子古城 맞은 편인 牡丹江 왼쪽에 위치하고 있다. 江西屯 西溝北山의 主峰에서 서북쪽 群山으로 구불구불 이어지는데, 지금의 牡丹江市와 海林市の 交界를 따라 이어져 있으며 전체 길이는 50km이다. 邊牆은 현지의 흙과 돌을 취하여 수축했는데, 높이는 일정하지 않아 2m가 되는 곳도 있고 3m가 되는 곳도 있으며, 어떤 곳에서는 7m에 달하기도 한다. 변장의 안쪽에는 직경 3-5m에 달하고 수비병이 거주할 수 있는 원형 구덩이가 있고, 거주와 물의 비축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돌로 만든 원형 구덩이도 있다. 변장의 바깥에는 흙과 돌로 만든 馬面이 있고, 변장의 일정한 거리마다 안쪽 구멍이 바깥쪽 구멍보다 큰 구멍이 있다.

南城子是 남쪽으로 발해 상경과 90km 떨어져 있는데, 이 지역 牡丹江의 양안에서 발견된 최대의 발해古城이다. 조사한 학자는 남성자가 상경 용천부 산하의 龍湖, 渤海 세 개 州 가운데의 渤海라고 추측했는데, 이는 이미 학계의 인정을 받았다. 또 나아가 남성자가 德理鎮이라고 추정했는데, 이 또한 실제 거리상 기본적으로 부합한다. 발해가 이곳을 획득한 것은 大武藝가 黑水部를 친 다음일 것이고, 그 다음 ‘牡丹江邊牆’을 수축하여 강의 양쪽에서 서로 호응하게 한 것은 흑수말갈을 방어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그 후 발해는 이곳에 渤海를 설치하여 이 지역의 통치를 더욱 공고히 했다. 宣王 때 발해의 세력이 牡丹江 하류까지 미치게 되자 이 변장은 가치를 상실하게 되었다.

‘牡丹江邊牆’을 넘어가면 곧 牡丹江 하류의 海林, 林口, 依蘭 세 縣(市)에 진입하게 된다. 이곳에는 차례대로 頭道河子, 二道河子, 三道河子, 四道河子라는 이름의 하류가 있는데, 모두 張廣才嶺에서 발원하여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 牡丹江에 들어간다. 이 네 하류와 牡丹江 연안의 기타 지역에는 많은 발해의 유적과 묘지 그리고 하나의 城이 있다. 1990년대에 林口縣의 남단 蓮花鄉 攔江에 발전을 위해 댐을 쌓았기 때문에 黑龍江省 文物考古研究所와 吉林大學 考古學系 등은 몇 년에 걸쳐 海林市 경내에 있는 세 하류의 하구 주위를 대규모로 발굴하였다. 지금은 모두 수몰되어 있다.

묘지는 주로 頭道河子, 二道河子, 三道河子 하구에 있고 모두 발굴되었다. 대부분 封土石室의 형식이고, 약간의 石棺 혹은 石槨의 형식도 있었다. 이차장하는 것이 유행했고, 출토된 토기는 주로 深腹筒形罐이었고, 주둥이 주변에 무늬가 있거나 주둥이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등 모두 전형적인 발해 墓葬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二道河子에서 북쪽으로 멀지않은 곳에 細鱗河로 불리는 또 하나의 작은 하류가 있다. 이 하류의 하구에 유적이 발견되었고 발굴이 진행되었다. 출토된 유물로 볼 때 발해가 상경으로 천도한 이후 건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三道河子 하구 부근의 발해 유적은 가장 풍부하다. 묘지 이외에 渡口, 河口, 振興 등 세 유지와 興農古城이 있다. 이는 이곳이 曷수도의 요지라는 것을 잘 설명해 준다. 이 세 유지는 모두 여러 시대의 문화를 모두 포괄하고 있는데, 발해 문화보다 시기적으로 더 이르면서, 동남쪽의 綏芬河 유역과 남쪽의 牡丹江 중류 그리고 동북쪽 松花江 하류에서 온 문화적 요소와 三江平原 지구의 漢代 이래의 여러 문화적 요소가 모두 발견된다는 것은 이곳에서 한대 이후 주위의 여러 문화가 융합되었고, 그것이 唐代의 이 지역 발전과 발해의 南北通道가 이곳에서 개통된 것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을 잘 설명해 준다.

홍농고성은 삼도하자 하구 북쪽의 牡丹江 좌안에 있는 臺地 위에 있다. 1958년에 발견되었고, 1994년에 발굴되었다. 고성은 크지 않고, 평면이 대략 方形的 형태를 하고 있으며, 둘레는 642m이다. 성벽은 향 축법으로 쌓았고, 현재 높이가 0.5-1.25m에 폭이 약 3.18m이다. 성벽의 양쪽에 모두 흙으로 다진 보호 둔덕이 있다. 성벽 밖에는 해자의 흔적이 보인다. 이곳에서 발굴된 유물들은 모두 발해 이전의 것이고, 성내에서 흡사 모든 문화가 모여 있는 듯한 유적 더미가 발견되었다. 홍농고성은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에 가장 북쪽에 있는 발해의 고성 유적지로서, 틀림없이 발해의 북부 변경 및 曷수말갈도의 교통 요충지였을 것이다.

홍농고성을 지나면 海林市 북쪽 경내의 牡丹江 우안에는 또 木蘭集東 발해 유지가 있다. 林口縣에 들어서면 사도하자 하구에 煙筒砬子 유지가 있으며, 또 전형적인 발해 瓦件이 출토되었다. 이것은 지금까지 공표된 것 가운데 가장 북쪽에 있는 발해 유지이다. 듣기로는 依蘭縣 土城子鄉과 太平鄉에서 역시 발해 유지가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후자는 牡丹江 입구에서 겨우 20km 떨어져 있다고 한다. 여기에 이르면 발해曷수도는 牡丹江 연도의 길이 끝나고 송화강 연도의 길로 들어서게 되고 곧 曷수말갈에 근접하게 된다.

## 7. 二十四塊 石建築 유지

이십사괴 석건축 유지는 1950년대부터 발견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모두 12곳에서 발견되었다. 돈화 지구의 城郊(江東), 官地, 海青房 그리고 腰甸子 등 4곳, 寧安市 경내의 鏡泊湖 남단의 房身溝와 灣溝 등

2곳, 汪清縣 百草溝鎮 興隆村에서 1곳, 圖們市 石建과 馬牌에서 2곳, 한국 함경북도 청진시 松坪區, 어랑군 회문리와 김책시 동흥리 등 3곳 등에서 발견되었다. 이 건축 유지는 나란히 세 줄로 되어있고, 한 줄에는 8개의 석괴가 있다. 석괴의 길이와 폭은 대부분 50cm 이상이고, 높이는 대부분 지표에서 50cm 이상이다. 그리고 줄과 줄 사이의 거리는 3m 전후이고, 대부분 동서 방향으로 되어있으며, 줄의 길이는 10m 전후이며, 전체 길이가 8m 전후이다. 유적지의 기초는 흙과 돌로 깔아서 만들었으며, 건축 유적지 주변에 瓦件이 많이 산포되어 있었다.

석괴 유적지의 건축 연대와 성질 그리고 용도는 발견된 날부터 학계의 관심과 토론을 불러일으켰다. 처음 돈화에서 발견된 유적지는 모두 돈화에서 상경으로 가는 도중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돈화 六頂山에서 貞孝公主의 墓가 발견되자 어떤 학자는 석괴가 路祭를 위한 임시 제단의 초석이라고 추측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다른 곳에서도 석괴 유적지가 발견되자 이런 견해는 사라지게 되었다. 석괴 유적지와 주변에서 발견된 기와는 색깔이 회색 또는 홍갈색이었고, 대부분 바깥쪽에는 무늬가 없고 안쪽에 무늬가 있었다. 동시에 遼金시대의 滴水簷瓦와 獸面紋 와당도 발견되었다. 바깥쪽에는 무늬가 없고 안쪽에만 무늬가 있는 와건은 유행한 지역이 광범위했고, 또 시간적으로도 발해의 시기를 포함해서 오래 동안 유행했었다. 지금 학계에서는 24괴 석건축 유적지를 발해 시기의 것으로 보거나 혹은 발해 시기에 세워져 그 중 일부는 遼金 시기에도 계속 사용되었다고 본다. 그것은 이들 유지가 모두 발해의 교통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말한 12곳 가운데 10곳이 발해의 중요 교통 노선상에 위치하고 있고, 2곳도 비록 중요한 노선상에 있지는 않지만 중경과 동경 사이에 두만강을 따라 북에서 남으로 발전해 가는 중요한 수로상에 위치하고 있었다. 때문에 학계는 점차 이들 석괴 유지와 교통이 관련이 있으며, 역참의 성질을 지닌 건축이었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三國史記』 권37 「地理志 4」, 高句麗百濟篇에는 “賈耽의 『古今郡國志』에 이르기를 발해에는 南海, 鴨綠, 扶餘, 柵城 등 四府가 있다고 했는데 모두가 고구려의 故地이다. 신라 泉井郡에서 柵城府까지 모두 39개의 驛이 있다”라고 되어 있다. 또 『新唐書』 「百官志」는 또 “무릇 30리마다 역이 있고, 역장이 있었으며……”라고 했다. 이를 근거로 39개의 역의 거리를 계산해보면 거의 1,200리가 된다. 현재 학계는 천정군을 지금의 함경남도 덕원으로 보고 있는데, 1996년에 출판된 『朝鮮·韓國地圖冊』에는 덕원이 강원도 있다. 그곳에서 책성부 즉 지금의 瑯春 八連城까지의 거리를 계산해 보면 대체로 일치한다. 이로써 당시 발해의 교통 노선 연도에는 비교적 촘촘히 역참이 설치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이들 24석괴를 모두 礎石이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정확한 것이 아니다. 孫秀仁은 “24개 석괴를 초석으로 삼은 원래 건축물은 응당 高柱礎式 建築이었을 것이다. 24개 석괴는 즉 이러한 低幹欄式 건축의 초석이었을 것이고, 또 초석으로 기둥의 역할을 맡기도 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정확한 견해이다. 역참류의 건축물이면서 이처럼 통일된 형식을 띠고 있는 것은 그 성질이나 용도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당시 광활한 땅에 사람이 드문 상황에서 일종의 표지판과 向導의 역할도 했을 것이다. 그 외의 문제는 나중에 다른 유지를 발견하게 되면 다시 심도 있는 검토가 가능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여섯 개의 교통 노선에는 육로와 수로 모두가 있었으며, 육로는 대부분 강과 바다를 따라 형성되었다. 적지 않은 노선이 지금의 교통 노선과 일치한다. 둘째, 교통 노선의 연도에 많은 유적이 있는데, 이는 여섯 노선이 발해의 城과 향읍이 비교적 집중되고 또 관련 활동이 비교적 활발한 곳을 지났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셋째, 여섯 노선 가운데 두 노선이 중원으로 통하

고 있고, 또 다른 두 노선이 주변 민족으로 통하고 있었다. 한반도와 일본은 각각 하나의 노선이 통하고 있었다. 여섯 노선의 개통은 발해 정권과 중원 왕조의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밀접하게 만들었고, 또 주변 민족과 국가와의 교류를 강화시킴으로써, 통일적 다민족 국가의 형성과 발전 그리고 중국과 동북아시아의 교류에 중대한 공헌을 했다.

## “中國”與“天下”的重合: 古代中國疆域形成的歷史軌跡-古代中國疆域形成理論研究之六

李大龍, pp.1~15

고대 중국의 강역 형성과정에 대해서 학계는 일찍이 1920-40년대부터 이미 관심을 기울였다. 이때 출판된 葛綏成의 『中國邊疆沿革史』, 夏威의 『中國疆域拓展史』, 童書業의 『中國疆域沿革略』 등이 모두 고대 중국의 강역 형성과정을 논술하였다. 최근에는 馬大正 등의 『二十世紀的中國邊疆研究——門發展中的邊疆學科的演進過程』, 劉宏煊의 『中國疆域史』 등이 보다 자세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이들 연구들은 비록 중국 고대 강역의 형성과정을 단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에 그친 면이 있지만, 이론적으로 고대 중국 강역의 형성과정을 검토하는 데 연구의 기초가 되기도 한다.

외국의 학자들은 자주 단일민족이라는 시각에서 출발하여 ‘장성 이북은 중국이 아니다’ 혹은 ‘중국은 곧 한족의 국가’라는 논조를 견지하기도 한다. 이것은 역대 왕조 가운데 ‘중국’이라는 국호를 사용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고대의 중국을 한족이 건립한 왕조와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나 강역의 완성과 중화민족의 형성의 원인을 검토하면 그 속에 고대 중국 강역의 형성 과정의 법칙을 밝혀줄 열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중국 역사를 훑어보면 분열과 통일을 반복하다 최종적으로 청대에 이르러 대일통의 다민족 국가를 형성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중화의 각 민족에게 일찍부터 ‘중국’을 핵심으로 하는 대일통의 ‘천하’라는 이상이 존재했었다는 요인도 주의할 만하다. 이러한 이상은 비록 중원의 漢民族 속에서 생겨난 것이었지만, 많은 변방 민족 특히 북방의 민족들에게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청대에 이르러 마침내 이상 속의 ‘중국’을 핵심으로 하는 대일통의 ‘천하’와 현실의 국가 강역이 일치하게 되었다. 이로써 강역의 완성이라는 과정이 완성되었던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역사상의 각민족의 ‘중국’에 대한 동일체 의식이라는 각도에서 고대 중국의 강역 형성의 법칙을 찾아보고자 한다.

### 1.

‘중국’이라는 용어가 나타난 것은 매우 오래되었다. ‘중국’의 함의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미 상세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특히 1981년 중국민족사학회와 중국사회과학원 민족연구소가 북경에서 개최한 제1회 중국 민족관계사 연구 좌담회 이후 많은 학자들이 ‘중국’의 함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견해가 통일되지는 않았다.

연구성과를 검토해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많은 학자들은 ‘중국’이 국가의 정권이라는 함의를 띠지 않았으며, 하나의 지역 개념과 문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翁獨健은 “‘중국’이 고대에는 지역적, 문화적 개념이었고 혹은 일종의 美稱이었다”라고 보고 있으며, 張璠는 “역사상 ‘중국’은 하나의 지역 명칭이었지 국가의 명칭이 아니었으며, 국가의 개념으로 쓰인 것은

근대의 일이다. ‘중국’을 국가의 명칭으로 이해하거나 중원 지구를 중국의 강역으로 보는 것은 틀린 것이다”라고 했다. 또 陳連開는 “다양한 함의가 ‘중국’에 있었는데, 우선 천자가 거주하는 城 즉 京師를 가리켰다. 이것은 사방의 제후에 對比할 경우이다. 그리고 주변 민족에 대비하여 豐鎬와 雒邑을 중심으로 한 황하 중하류 지역을 가리켰다. 또 夏, 商, 周 세 민족이 융합하여 형성된 민족과 그 문화를 가리키기도 했다”라고 보았다. 둘째, ‘중국’이 지역 개념인 동시에 ‘中央之國’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한다. 韋一之는 ‘중국’은 역사상 하나의 지구를 가리키는 칭호였고, 변화하고 발전했다. 선진 시기에는 많은 국가들 사이에 중앙에 위치한 국가를 가리켰고, 당시에는 국가 개념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그 영역도 국가의 영역이 아니었다. “‘중국’과 동시에 사용된 것으로는 ‘四海’, ‘天下’가 있었다”라고 정리했다. 杜榮坤은 “‘중국’은 ‘경사’, ‘帝都’, ‘國中’, ‘王畿’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역사의 발전에 따라 ‘중국’의 범위도 점차 확대되어 지역의 명칭이 되었다. 고대 화하족은 주변의 만이와 스스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자신을 ‘중국’이라고 불렀는데, ‘중양지국’의 의미이다. 秦이 육국을 통일한 뒤 화하족이 주변 만이와 점차 융합하여 漢族을 위주한 통일적 다민족 集權國家를 형성하자 ‘중국’은 중원 왕조가 관할하는 지구를 가리키게 되었다. 역사상 ‘중국’은 지역 혹은 문화 유형 및 정치 지위의 구분이었지 전체 역사의 강역 그리고 정치 관할 범위의 개념, 국가 정권의 정식 명칭이 아니었다”라고 했다. 陳玉屏은 두영곤의 기초 위에 “‘중국’의 ‘中’은 결코 지역의 위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나를 중심으로 한다’는 정치 이념에서 기원한 것”이라고 인식했다.

위의 첫째 관점은 ‘중국’이 지니고 있는 정치적 함의를 소홀히 하여 전면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둘째 관점은 논증의 근거가 부족하고 논의 자체가 모순적이다. 필자는 ‘중국’이 지역적 혹은 문화적 함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단지 ‘중국’은 최초로 생겨났을 때부터 심각한 정치적 함의를 지니고 있었으며, 또한 ‘중국’은 왕권의 표지였을 뿐 아니라 옛사람들의 ‘天下’觀 중 권력 중심의 대명사였다고 생각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대에 ‘중국’이 ‘경사’를 의미할 때 그것은 결코 단순히 지역을 표시한 것이 아니라 왕권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했다. ‘중국’이 ‘경사’를 가리키는 지역 개념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학자들은 ‘경사’가 지니고 있는 정치적 함의에 충분히 주의하지 않았다. ‘경사’가 ‘경사’로 불리었던 것은 그 곳이 천자가 거주하는 지역이기 때문이었다. 어떤 지역이 왕권과 결합할 때만 ‘경사’로 불리었다. 따라서 ‘경사’는 어떤 지역을 가리킬 뿐 아니라 왕권을 의미하기도 했던 것이다. 이처럼 ‘경사’가 왕권을 의미했기 때문에 선진 시기에 ‘경사’가 ‘중국’으로 불릴 수 있었고, 이것이 ‘중국’이라는 용어가 탄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었으며, 그 정치적 함의는 명백한 것이었다.

둘째, 고대의 ‘중국’이 비록 근현대적인 의미의 ‘국가’라는 함의를 띠고 있지 않았지만, 출현하자마자 곧 周朝의 施政 범위 및 춘추전국 시기의 諸夏 제후국 정권을 가리켰다. 많은 학자들은 ‘중국’에 국가 정권의 함의가 없다고 이해하고 있지만, 그것은 근현대의 국가 개념을 가지고 수천 년 전의 역사를 판단했기 때문이다. 1963년에 섬서 寶雞 賈村에서 출토된 何尊의 명문에 보이는 ‘宅茲中國’, ‘昊天既付中國’에 나오는 중국은 周 天子의 시정 범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고 『詩經』 大雅 중의 “惠此中國, 以綏四方”에 나오는 ‘중국’도 역시 같은 의미이다. 이후 ‘중국’의 함의가 약간 변화하여 주 천자의 정령이 미치는 범위를 의미할 뿐 아니라 華夏人과 춘추전국 시기의 제후 제후국을 의미하게 되었다.

셋째, ‘중국’은 고대 ‘왕’ 혹은 ‘천자’의 시정의 범위였고, 이 지역을 용유한다는 것은 ‘正朔’의 중요한

표현이기도 했다. 선진 시기에 이미 천하의 중심 지역을 점유해야 비로소 효과적으로 '四方'에 대한 통치를 펼 수 있다는 관념이 있었다. 그리고 秦漢의 장기간에 걸친 통일로 인해 '천하의 중심지대'라는 '중국'이 이미 '경사', '왕기'에서 발전하여 진한 시기의 군현 범위로 확대되었다. '중국'을 점유해야 '천하의 共主'이자 正朔王朝가 될 수 있다는 관념은 부단히 강화되었다.

이상과 같이 '중국'은 풍부한 함의를 지닌 정치적 개념이었다. 비록 고대 중국에서는 근현대적 의미의 국가 개념을 '천하'라는 용어로 표현했지만, '중국'이 '천하'의 중심이고 '중국'을 점유해야 정통 왕조라는 관념은 중국 역사의 많은 왕조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중국'을 차지하고자 하는 한족 내부의 투쟁은 끊이지 않았고, 변강 민족 역시 이런 투쟁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그리고 이러한 투쟁은 고대 중국의 강역의 형성을 촉진했고 많은 민족을 응집시켜 중화민족을 형성시켰다.

## 2.

한편, 漢朝의 대일통에서 唐朝의 대일통에 이르는 동안 '중국'을 중심으로 한 대일통 '천하' 관념에는 명백한 변화가 생겼고, 이것은 고대 중국의 강역 형성이 완성되는 데에 중요한 작용을 했다.

먼저, '천자는 四海를 境地로 삼고 九州를 집[家]으로 삼는다'라는 관념이 '천자는 사해를 집으로 삼는다'라는 관념으로 발전했다. '구주'는 일정한 의미에 있어 '중국'의 대명사였다. 한대의 '구주'는 기본적으로 군현제가 실시되는 지역을 의미했다. 그런 까닭에 『한서』 「지리지」에 서역과 西羌 지역 등 변강 지역이 서술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고, 동시에 이는 '천자는 四海를 境地로 삼고 九州를 집[家]으로 삼는다'라는 관념이 반영된 것이기도 했다. 한대에도 변강을 관할하긴 했지만 그것은 흉노에 대처하기 위해서 혹은 군현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동적으로 취한 조치였다. 그러나 唐代에 이르러 광활한 변강을 효과적으로 관할하게 되자 사람들의 관념에 변화가 생겼다. '천자는 사해를 집으로 삼는다'라는 관념도 그 중의 하나이다. '四海爲家'라는 표현은 양당서에 빈번히 출현한다. '九州爲家'에서 '四海爲家'로 관념이 변화한 것은 漢唐 통치자의 '천하'에 대한 관념이 달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위진 시기 변강 민족이 '중국'으로 들어와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또 한족의 인정을 얻음으로써 발생한 필연적인 결과였다. 이러한 변화는 중원 왕조가 관할한 지역이 부단히 확대된 것과 또 '중국'과 변강의 밀접한 관계가 진일보한 현실이 반영된 것이기도 했다.

둘째, 변강 민족이 '중국'으로 들어와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또 한족의 인정을 얻었다는 사실이다. 변강 민족이 주동적으로 '중국'으로 진입하여 정통 왕조의 지위를 다툰 것은 '중국'을 점유해야 '천하'를 호령할 수 있다는 관념을 변강 민족이 수용한 결과였고, 한족의 史家들이 또 북위의 정통성을 인정한 것은 이러한 결과를 인정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결과 한족의 전통적 '천하'관이 변화했다. 변강 민족의 '중국' 진입은 중원과 변강의 결합을 더욱 촉진시켰으며, 다른 한편으로 엄격한 '華夷之辨'의 한계를 무너뜨림으로써 唐代에 이르러 '華夷一家'의 관념이 '治國'의 이념으로 성립될 수 있었다.

셋째, '화이일가'의 관념은 일찍부터 있었다. 『漢書』 「匈奴傳」에는 이미 漢과 흉노가 '合爲一家'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당대에 이르게 되면 황제가 빈번히 '화이일가'를 거론하고, 또 당 태종은 서북 여러 민족에 의해 '天可汗'으로 추대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화이일가'는 당조 민족정책의 주요한 원칙의 하나가 되었던 것이다. '천가한'과 더불어 양당서의 지리지에 수많은 羈縻府州가 포함되어 있는 것 그리고 대량의 변강 민족 출신을 관리로 임용한 것을 보면 당조의 '천하'는 이미 한조의 '천하'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천하' 중의 '중국'의 위치가 더욱 강화되었다. 비록 '천하'관이 변화했지만 '중국'이 '천하'의 핵심이라는 관념은 더욱 강화되었다. 당조의 통치자들은 도호부 체제를 통하여 변강에 대한 통치를 확대했지만, 한대에 군현이 설치된 지역의 통치를 필수적인 선결과제로 간주했다. 특히 '중국'은 근본, 변강은 지엽이라는 관념과 '중국'을 점유해야 '천하'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관념이 존재했다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더욱 잘 설명해 준다.

唐代에 발생한 이상과 같은 관념의 변화는 고대 중국의 변강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고, 특히 당대 이후 변강 민족이 '天下共主'의 지위를 쟁탈한 것과 元朝의 대일통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 3.

唐代 이후, 중국은 다시 분열과 통일의 과정을 반복했고, 최종적으로 元朝에 의해 대일통이 실현되었다. 주의할 것은 변강 민족의 왕조가 '천하공주'의 지위를 차지했다고 해도 세계의 다른 문명과 달리 중국은 주체 민족이 교체되지도 않았고, 고대 중국의 변강 형성도 중단되지 않고 오히려 진일보 발전했다는 사실이다. 그 원인은 많겠지만, 모든 왕조들이 '중국' 정통 왕조를 자처했다는 사실도 매우 중요한 원인의 하나였다.

遼, 金, 元 왕조는 '중국'의 정통 왕조라는 지위를 인정받았을 뿐 아니라, '중국'은 이미 다민족의 '중국'으로 변해 있었다. 또한 이들 세 왕조가 '천하공주'의 지위를 차지함으로써 중원과 변강지구의 연계는 더욱 밀접해져 그들이 속해있던 변강은 물론이고 西藏까지도 고대 중국의 강역으로 편입시키는 과정을 발전시켰다. 특히 원조는 광활한 변강을 보다 직접적이고 획일적인 行省制度로 통치함으로써 중원과 변강의 결합을 더욱 강화했고, 서장 지구에 대한 통치를 宣政院의 관할하에 두어 서장을 중국의 불가분의 일부로 만들었다. 또 원조 통치하에서 다민족의 민족 융합이 보다 가속화됨으로서 고대 중국의 강역 형성과정은 더욱 공고화되었다.

### 4.

明·清시대는 고대 중국 강역의 최종 형성기였다. 그러나 통치의 범위와 방식 그리고 이념을 놓고 볼 때, 한족을 주체로 하여 건립된 명조는 '대일통'의 왕조로 간주하기 어려웠다. 명조의 '대일통'은 한족 거주지에 국한된 '대일통'이었으며, 전통적인 '중국' 범위 내의 '일통'이었을 뿐이었고, '천하'는 여전히 분열된 상태에 놓여 있었다. 변강에 대한 통치도 '羈縻'의 색채가 강했고, 통치 이념에 있어 '華夷之別'이 다시 강조되었다. 청조는 비록 주체인 滿族이 몽고와 연합하여 건립한 왕조였지만, 그 통치 범위는 역대 왕조의 강역을 모두 포괄했다. 청조는 보다 넓은 범위의 대일통을 실현했을 뿐 아니라, 그 통치 방식과 통치 이념에 있어서도 진일보한 면이 있었다. 특히 청조는 '중국'의 신분으로 국제사회에 참여함으로써 '중국'과 '천하'의 함의가 기본적으로 일치되게 만들었고, '중국'은 이로 인해 근현대적인 국가의 함의를 지니게 되었다. 이것은 고대 중국의 강역 형성에 결정적인 작용을 일으켰다.

청조는 명조 이래 다시 사회적 사조가 되었던 '화이유별'을 강력히 반박하고, '夷狄'이 '중국'의 정통 왕조가 될 수 있다는 관념을 확립시켰다. 특히 청조의 옹정제는 『大義覺迷錄』을 통하여 '화이유별'을 주장하는 曾靜, 呂留良 등 한족 유생을 강력히 비판했다. '중국' 정통에 관한 논쟁은 이미 宋, 遼, 金 시대에

출현하였다. 송조와 금조 사이의 '禮交聘禮儀' 논쟁이 좋은 예이다. 그러나 '화이유별'은 체계적이고 명확한 이론이 아니었고, 한족 사대부들이 遼, 金, 元 등을 정통으로 인정한 것은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옹정제가 반박한 것은 청조가 '중국'으로 자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이미 전대의 '중국'의 관념이 다민족의 '중국' 관념으로 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청조는 내지와 변강의 '일체화'에 장애되던 전통적인 관념과 정책을 폐기함으로써 고대 중국의 강역 형성에 강력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보장하였다. 청조는 먼저 전통적인 '羈縻而治' 관념을 철저히 폐기하고 대신 '天下一家, 滿漢官民, 皆朕臣子'의 관념으로 대신하였다. 구체적으로는 '改土歸流' 정책을 추진하여 변강 지구를 보다 확고히 통치했다. 元代 이래의 토司制度는 비록 당시 변강의 안정을 위하여 취해진 정책이긴 했으나, '기미'의 색채가 농후했을 뿐 아니라, 중앙의 정령이 변강 지구에 관철되는 데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었다. '개토귀류'는 이미 명대에 중요한 변강 정책의 하나가 되었지만, 청대에 이르러 보다 광범위하게 시행함으로써 변강과 내지의 일체화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였다. 특히 長城의 수축을 포기하고 변강 민족을 보다 적극적으로 통치한다는 사고방식은 거의 혁명적인 발상이었다. 이로써 초원지역과 농경지역을 구분하던 오랜 장성의 역사적 사명은 끝이 났고 두 지역의 융합이 가속화되었다. 달리 말해서, 이러한 청조의 관념과 방식의 변화는 곧 내지와 변강 사이에 형성된 '일체화' 추세에 순응한 것이었고, 또 그러한 관념과 방식의 변화는 '일체화'의 추세를 더욱 가속화시켰다. 특히 청조 말기에 변강에 쉼을 설치한 것은 이러한 추세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청조는 '중국'의 이름을 가지고 주권국가로 주변 국가와 국경선을 확정함으로써 '천하'와 '중국'의 함의가 일치되도록 하였다. 이것은 고대 중국 강역의 형성에 있어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었다. 고대 중국에서 '천하'는 왕조의 정령이 미치는 범위를 지칭했다. 그리고 '중국'의 경우 대부분 통치의 중심 [中原]을 의미했다. 그런데 청대에 접어들어 '중국'과 '천하'가 일치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강희 28년 (1689)에 제정 러시아와 체결한 근대적 조약 '尼布楚條約'은 좋은 예가 된다. 조약의 내용 중에는 나오는 '청조'와 '중국'은 서로 바꾸어도 사용해도 의미의 차이가 없었다. '중국'은 이미 근현대적 주권국가의 함의를 지니게 되었다. 강희 시기에 이르러 '중국'은 이미 다민족 통일국가의 호칭이 되었던 것이다.

## 5.

고대 중국의 강역 형성의 원인은 다양하다. 특히 '중국'의 함의를 통하여 그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한족 사이에서 생성된 '중국'이 '천하'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주권국가를 가리키게 된 긴 과정은 기본적으로 고대 중국의 강역 형성과정과 일치한다. 둘째, 중원에서 형성된 '중국' 관념은 변강 민족들에게 수용되었고, 그 결과 '중국' 정통을 차지하기 위한 투쟁에서 변강 민족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것은 중화 대지가 끊임없이 분열에서 통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주요한 원인이었고, 또한 다민족 통일중국의 출현이 필연적인 추세가 된 것도 이것 때문이었다. 셋째, '중국'이 하나의 주권국가 명칭이 되는 데에 있어 한족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중국'이 발전하여 '천하'의 함의와 같아지게 된 것은 변강 민족의 '중국'에 대한 동일체 의식 때문이었다. 따라서 고대 중국이든 오늘날의 중국이든 모두 한족만의 것이 아니라 중화민족이 공유하는 것이다.

## 官吏

### ■ 2007년 제4기

#### “中國歷代邊臣疆吏”國際學術研討會綜述

張雲, pp.140~145

대만 中央研究院 歷史語言研究所와 프랑스 遠東學院이 주관하고 中國社會科學院 邊疆史地研究中心이 함께 참여한 ‘中國歷代邊臣疆吏’ 국제학술회의가 2007년 10월 2일-4일간 대만 中央研究院 歷史語言研究所에서 개최되었다. 회의의 주요 주제는 ‘巡視邊疆’, ‘蒙古’, ‘北方邊疆’, ‘沿海邊疆’, ‘新疆’, ‘西南’, ‘西藏’의 7개였다.

① ‘巡視邊疆’: 中國邊疆史地研究中心 李大龍은 「漢代邊吏與古代中國疆域的形成立-以漢代爲中心」의 글을 통해 변강 官吏와 중국고대 강역형성 사이의 관계를, 대만 중앙연구원 邢義田은 「漢代的邊民·邊吏與邊患」에서 漢代 변강 관리와 주민 간의 관계를 논하였다. 그 밖에 汪前進은 「宋代邊疆管理與地圖」, Morris Rossabi가 「明朝官員與西北中國」, 莊吉發은 「清朝西陲的邊臣疆吏」를 각각 발표하였다. ② ‘蒙古’: Pierre Marsone은 「五至九世紀中原王朝對契丹邊民的管理: 中央官吏與歸附狄裔」에서 시대에 따른 漢族 관리와 契丹族 관리의 管轄에 관해 개괄하였다. 대만 중앙연구원 洪金富는 「和林金石錄元碑與所見嶺北行省官員雜考」에서 『和林金石錄』을 분석하였고, 이외 趙琦가 「試論元朝對嶺北行省的統治政策」, 王希隆은 「賽因諾顏部貴族與清朝-兼論清朝的北方民族政策」, 齊木德·道爾吉이 「阿什達爾漢與‘蒙古衙門」」, 劉學鈞가 「清季末任駐庫倫辦事大臣三多」를 각각 발표하였다. ③ ‘北方邊疆’: 吉林省社會科學院 李治亭은 「吳大澂在吉林治邊述略」에서 清末 길림에 재직했던 吳大澂의 업적을 소개하며 그에 대한 『清史考』와 기존 학계의 평가가 적절치 않음을 지적하였다. 이외에 廖伯源이 「論漢代徙置邊疆民族於塞內之政策」, 周偉洲가 「吉爾吉斯斯坦阿克別希姆遺址出土兩件漢文碑銘考釋-兼論唐朝經營西域中疆臣的作用」, Jonathan K. Skaff는 「邊疆勝利之文化觀: 指揮公元648·655及657年唐代西北戰役將領之比較」를 각각 발표하였다. ④ ‘沿海邊疆’: 中國邊疆史地研究中心의 李國強은 「論鄭芝龍與明清王朝權力互動之關係」에서 明末清初 동남 연해에서 활약했던 鄭芝龍의 생애와 활동을 분석하여 왕조 권력과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그 밖에, Roland L. Higgins가 「沙漠與島嶼: 1547-1549年明朝邊將收回戰略要地控制權之最終嘗試」, 徐曉望이 「晚明福建財政與福建疆吏對臺灣問題的處理」, Claudine Salmon이 「從朱-貴起事的鎮壓事宜(1721)來看漳浦人之網路」, Paola Calanca가 「福建水師將領: 一支“精英之師”?」를 각각 발표하였다. ⑤ ‘新疆’: 臺北故宮博物院의 陳維新은 「清代邊臣明誼與中俄勘定西北邊界交涉」에서 咸豐년간 烏利雅蘇臺 將軍 明誼와 러시아 관리와의 서북변계 담판의 처리태도·방법 등을 탐색하였다. 그 외에 孟楠이 「斌靜其人與“斌靜案”」, Alexandre Papas가 「無國界的官員: 身處中華帝國與伊斯蘭世界之間的突厥“伯克”(1759-1864)」, 阿拉騰奧其爾(中國邊疆史地研究中心)가 「清代伊犁將軍二三事」, Laura J. Newby는 「中心-邊緣: 18世紀至19世紀初清朝西北邊疆政策動態」를 발표하였다. ⑥ ‘西南’: 方鐵은 「從南詔與唐朝之關係看唐朝治邊及其邊疆官吏」에서 南詔와 唐과의 관계를 통해 唐朝의 변강통치와 관리 운용을 고찰하였다. 그 외에 黃寬重은 「北宋晚期對廣西的經略-以程節·程隣父子爲中心的討論」, 連瑞枝가 「邊陲大姓-雲南高氏世系的考察(1000-1725)」, 謝世忠이 「“重識”車裏軍民宣慰司與“發現” Sipsong Panna王國: 兼論“新土司知識”的效能」을 발표하였다. ⑦ ‘西藏’: 張雲은 「和琳駐藏-清朝駐藏大臣的一個典型

性分析」에서 和琳을 분석하여 西藏에서의 활동과 변경 정책의 실행 등을 탐색하였다. 그 외에 岩尾一史는 「關於吐蕃統治下的敦煌地區的都督」, Bianca Herlemann은 「王韶與木征— 北宋時期宋-吐蕃邊事」, Fabienne Jagou가 「滿洲將軍福康安: 1792-1793年西藏邊務改革的先驅」, 馮明珠는 「走過留痕-松筠駐藏的事跡與著述」, 楊嘉銘이 「清代乾隆年間駐藏大臣制度之沿革」, 王秀玉은 「女土司出走, 鄉保正出臺: 甘孜改土歸流中兩性關係與權力鬭爭的交叉」를 각각 발표하였다.

## 唐開元年間黑龍江流域地區史事新證 -以“鄭實活墓誌銘”爲中心-

範恩實, pp.106~114

開元(713-741)년간 흑룡강 유역에 대한 연구는 6-8세기 唐, 突厥, 渤海 상호간의 관계와 그들이 이 지역의 역사상황에 끼친 영향에 대한 이해를 한층 더해준다. 본고는 「大唐故冠軍大將軍行右武衛大將軍啜祿夫人鄭氏(實活)墓誌銘」의 분석을 통해 唐 開元 年間 흑룡강 유역의 역사발전에 관하여 보다 상세하고 정확한 논증을 시도하였다.

모지명을 통해, 鄭實活의 夫君 啜祿은 격렬한 정복활동을 통해(乘月五而爭戈, 下淫洑而大獵) 黑水 지역에 세력기반을 마련하였고(獐蕃黑水), 이후 唐에 納款하여(報漢赤誠) 冠軍大將軍行右武衛大將軍의 관직을 받았으나, 啜祿이 黑水에서 죽은 이후인 開元 18년(730) 林胡의 반란으로 인하여 鄭實活이 무리를 이끌고 唐에 투항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新唐書』 「流鬼傳」 기록과의 비교를 통해 모지명 속에 등장하는 黑水가 지금의 黑龍江이며, 당시 啜祿이 이끄는 무리는 활발한 군사 정복 활동을 통해 지금의 흑룡강 유역에 정착한 집단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開元 年間 흑룡강 유역으로 이주한 啜祿部는 어떠한 부족세력이었을까? 唐代 이 지역에는 주로 室韋人이 거주하고 있었지만 後突厥이 흥기한 이후 세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많은 突厥族이 이 지역으로 이주하였다. 따라서 「鄭實活墓誌銘」에 기록된 啜祿部를 돌궐인 집단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이는 다음의 증거들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첫째, 隋唐시기 돌궐인의 인명에서 ‘啜’, ‘祿’의 문자가 많이 나타난다. 둘째, 모지명에 나오는 ‘狼山’, ‘燕支山’, ‘馬馮’의 지역명은 隋唐시기 돌궐족의 활동무대였다. 鮮卑族이었던 鄭實活의 모지명에 돌궐 관련 지명이 나오는 것은 그의 夫君인 啜祿이 돌궐족이었기 때문임을 짐작케 한다. 셋째, 啜祿이 唐으로부터 받은 관직은 正三品の 高官으로 당시 관직수여의 관례상 그가 북방의 가장 강력한 세력이었던 돌궐족이었음을 추정케 한다. 넷째, 雲州 지역은 투항한 돌궐세력을 배치했던 지역으로 당시 이곳에 정착했던 啜祿 역시 돌궐족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開元 초기 흑룡강 유역으로 유입된 啜祿部는 돌궐세력이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鄭實活墓誌銘」과 기타 唐 文獻의 분석을 통해 당시의 역사상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開元 初期 돌궐족이 흑룡강 유역으로 진입함에 따라 室韋와 인접해 있던 黑水靺鞨 역시 돌궐족의 새로운 정복대상이 되어갔고, 흑수말갈은 渤海를 통해 唐에 入朝하는 방식을 구사하여 돌궐에 대항하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흑수말갈의 이러한 선택은 마침 대외확장을 추구하던 渤海 大武藝의 정책과 부합되기도 하였지만, 이후 발해의 세력이 확대되고 돌궐의 세력이 쇠퇴함에 따라 흑수말갈의 주된 외부의 적은 오히려 발해로 변화되었다. 唐과 渤海의 관계 역시 발해의 확장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악화되었고, 동북아의 세력균형을 유지하고자

했던 唐朝는 新羅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동시에 발해의 배후에 위치한 黑水靺鞨에도 주목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唐은 開元 6년(718) 이후 後突厥汗國과의 관계를 개선하였는데, 啜祿部가 唐朝에 納款한 시기도 대략 開元 13년 전후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靺鞨강 유역에 대한 唐朝의 영향력도 확대되었고, 더불어 唐과 黑水靺鞨과의 관계 역시 강화되었다. 그러나 이후 突厥·室韋의 반란과 분리, 契丹·奚의 전란, 渤海의 세력 강화 등에 따라 唐朝는 靺鞨강 유역에 대한 통제를 점차 상실해 갔고, 啜祿이 죽은 후 林胡의 반란에 직면한 그의 夫人 鄭實活은 무리를 이끌고 부득불 唐朝에 투항(開元 18년)할 수밖에 없었음을 『鄭實活墓誌銘』의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 『宋史·高麗傳』史源考

顧宏義, pp.122~129

『宋史』 권47 「高麗傳」(이하 「高麗傳」)은 宋과 高麗 사이의 교류를 연구하는데 있어 중요한 사료이지만 내용상 적지 않은 오류를 갖고 있다. 「高麗傳」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宋 이전 高麗에 대한 간략한 역사 및 중원 왕조와의 교류에 대한 기술, 둘째, 송과 고려 사이의 교역과 왕대에 관한 기록, 셋째, 송과 고려 사이를 오가는 海道 및 고려의 지리와 풍속에 관한 내용이 그것이다. 일부 학자들은 「高麗傳」의 기록이 『文獻通考』 四裔考 2의 내용으로부터 비롯됐다고 주장하는데 오히려 두 문헌은 공통된 하나의 사료적 출처를 갖고 있어 보인다. 또한 두 문헌 모두 宋 황제를 ‘帝’, ‘上’으로, 宋朝가 高麗에 보낸 사신을 ‘我使’, ‘朝廷使’로 기록한 점으로 미루어 宋朝 史料인 『國史』 등에 의거하여 편찬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에 「高麗傳」은 新·舊五代史 「高麗傳」과 『五代會要』 및 『宣和奉使高麗圖經』에 근거하여 편찬된 것으로 보인다.

사실 「高麗傳」은 新·舊五代史 「高麗傳」과 『五代會要』의 상관부분을 바탕으로 수정·편찬되었음을 문헌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宋初 『五代會要』와 『舊五代史』가 편찬될 당시의 시대적 혼란으로 인해 고려와 관련된 서술에 적지 않은 錯誤가 발생했다. 예를 들어, 前王의 姓은 高氏라는 『舊五代史』 高麗傳의 기록은 武則天 시기 이미 高氏 왕족이 완전히 끊어졌다는 점에서 옳바르지 않으며, 唐末 중원이 혼란스러울 때 비로써 자립하였다는 기록 역시 金氏의 新羅에 의해 이미 통일을 이루었던 사실에 미루어 볼 때 적합지 않은 것이다. 또한 『五代會要』에도 고려 초기 왕위 계승에 관한 기록 착오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舊五代史』 「高麗傳」과 『五代會要』의 오류가 그대로 「高麗傳」의 내용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편, 「高麗傳」의 상당 부분은 北宋 徐兢이 지은 『宣和奉使高麗圖經』(이하 「高麗圖經」)의 내용에 근거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도 많은 착오가 존재한다. 첫째, 「高麗傳」의 長興(930-933)중 權知國事 王建이 高氏의 지위를 계승하였다는 기록은 커다란 오류이다. 『高麗史』 권1의 관련부분을 보면 이는 後梁 貞明 4년(918)에 일어난 일로써 ‘長興’년간보다 10여년이 앞선 것이었다. 『高麗圖經』의 관련 기록은 『新五代史』 「高麗傳」의 내용에 근거한 것으로 그러한 내용이 「高麗傳」에까지 영향을 끼쳐 기록된 것이다. 둘째, 「高麗傳」에 따르면 王詢의 孫子 徽가 왕위를 이어 文王이 되었다고 한다. 이것 역시 誤記인데 『高麗史』 권 86에 근거하면 왕위의 세습은 王詢→王欽(子)→王亨(弟)→王徽(弟)로 이어졌고 王徽가 곧 文宗으로 「高麗傳」에서 칭한 ‘文王’인 것이다. 따라서 王徽는 王詢의 손자가 아니라 아들인데, 이러한 착오는 『高麗圖經』에서 王詢과 王徽 사이에 ‘王隆’ 一代를 끼어 넣어 기록한 까닭으로 인해 王徽가 王詢의 손자인 것으로

오해를 하게끔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高麗傳」에 王運의 재위 기간을 4년으로, 王昱을 王堯로 誤記한 것 역시 『高麗圖經』의 잘못된 기록에 의한 것이다. 셋째, 「高麗傳」에 나온 고려의 지리·행정에 관한 부분은 주로 『高麗圖經』의 내용에 의거한 것인데, 京·府·郡·縣 숫자가 시대에 따라 변화되었다는 점을 인식하며 사료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高麗傳」은 주로 宋代 『國史』에 근거하여 편찬되었고 『國史』 또한 송대 역대 왕조의 『實錄』에 의거하여 찬술되었다. 특히 『宋太祖實錄』의 고려사 관련 부분과 「高麗傳」의 상관 내용은 대체로 일치한다. 하지만 元代에 『宋史』를 편찬할 때 북방민족을 멸시하는 용어들은 모두 改纂되었음에도 주의해야 한다. 요컨대 『宋史』 「高麗傳」은 『國史』 「高麗傳」, 『五代會要』, 『舊五代史』 「高麗傳」, 『新五代史』 「高麗傳」, 『高麗圖經』 등의 문헌을 근거로 편찬되었으며, 이러한 사료 중에 존재하는 적지 않은 오류들이 「高麗傳」에 전해졌음에도 주의해야 한다.

■ 2008년 제1기

唐與新羅使者往來關聯問題的新探索-以九世紀雙方往來爲中心

拜根興, pp.70~80

신라와 당조의 교류는 9세기에도 여전히 활발하여 신라가 모두 거의 40 차례, 당조도 19 차례의 사절을 각기 파견할 정도였고, 사절의 임무도 점차 다양해졌다. 신라의 사절은 주로 숙위, 조공, 賀正, 방물의 헌납을 위해서였는데, 특히 숙위는 신라의 왕족이나 중신의 자제가 담당했으며, 숙위를 거친 인물들 가운데에는 귀국 후 크게 활약한 사람들이 많았다. 당조의 사신들은 주로 책봉, 告哀, 조문 등을 위해 파견되었다. 이처럼 당조는 사절의 파견을 통하여 종주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으며, 간혹 신라의 정세에 의해 사절의 임무가 원활히 수행되지 않은 적도 있었고, 때로 양국의 관계가 소원해진 적도 있었다.

양국 사이의 중대한 결정은 사절을 통하여 실현되었다. 특히 8세기 초 당조와 발해가 충돌했을 당시 신라가 출병하여 당조를 원조했던 것과 지방 변진을 제어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던 당 憲宗의 요청에 따라 신라가 출병한 것(중국 사서에는 기록이 없다)은 양국의 중변관계가 충분히 작동한 결과였다. 주목할 것은 지방 변진의 방해를 회피하기 위한 편의적인 조치로 당조의 사신이 장안에서 출발하지 않고 揚州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신라와 발해의 사절을 淮南절도사가 잠깐 동안 迎送했었다는 것을 언급한 연구도 거의 없는데, 이 역시 산둥반도 일대에 웅거하고 있던 李師道의 변진 세력을 회피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해적에 의해 신라인이 노비로 매매되던 일도 양국 사절의 교섭을 통하여 논의되었다. 양국의 교류가 오래되었던 만큼 왕래하던 사절들이 사행 도중에 바다에서 익사하는 재난도 끊이지 않았다. 그리고 당조에 유학한 신라인들이 정해진 시기가 지나도 귀국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신라는 사절을 통하여 이들의 강제 환국을 요구했다.

한편, 당 현종 시기에 신라왕의 책봉을 위해 파견된 唐使 崔廷의 출사 시기가 중국 측 사료인 양당서, 『冊府元龜』 그리고 『唐會要』 등의 기록과 한국 측 사료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등의 기록에 각기 元和 7년(812)과 원화 4년(809)으로 되어 있어 3년의 차이가 난다. 최정의 행적 등을 감안해 볼 때 원화 7년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신라와 당조의 관계에 있어 특이한 것은 신라가 당조를 위하여 건립한 望德寺의 雙塔이 중국에 중요한 변고가 발생할 때마다 전을했다는 기록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당 德宗이 죽기 직전(804) 망덕사의 탑이 서로 충돌하고 전을한 적이 있는데, 이 당시 신라는 일본과 교류하면서 중국과 미묘한 갈등을 빚은 적이 있었다. 물론 신라와 당조의 관계는 곧 정상화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들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가 거의 없는데 새로운 연구가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당 貞元 12년(796) 德宗이 친히 편찬한 의약 서적 『貞元集要廣利方』 5권이 천하에 반포되었다. 이때 귀국 중이던 신라의 賀正使 樸如言이 淮南절도사 杜佑를 통하여 이 책을 필사하여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했다. 이에 대해 양당서는 물론이고 『책부원귀』, 『자치통감』, 『당회요』, 『삼국사기』 등은 모두 구체적 기록을 남기고 있지 않지만, 이 사건은 9세기의 신라와 당조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唐代契丹羈縻制度與“幽州契丹”的形成

任愛君, pp.8~17

거란과 당조의 관계는 7세기 초에 시작되었고, 이후 당 태종이 松漠都督府를 설치했을 당시에는 이미 대량의 거란인이 당조의 ‘屬部’가 되어 있었다. 당 태종 시기에 확립된 羈縻州 제도에 의해 설치된 거란의 기미주는 部落羈縻州와 入內僑置羈縻州라는 두 가지 형식을 띠고 있었고, 최초에는 모두 營州都督府의 관할 하에 있었지만 후에 분리되어 영주도독부와 幽州節度使의 관할을 각기 받게 되었다.

이른바 부락기미주는 거란인 본토 부락으로 구성된 기미주로, 정관 22년(648) 거란인 窟哥가 송막도독으로 임명되면서 모두 1府 10州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입내교치기미주는 ‘入內僑蕃羈縻州’라고도 하는데, 당조에 투항한 거란 부락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또한 고유의 부락조직과 생활습관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 중 玄州가 형식상 송막도독부의 관할 하에 배속된 것 외에 나머지 4개 주는 모두 영주도독부의 관할 하에 있었다. 부락기미주와 입내교치기미주는 연속관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었지만, 구체적 관리형식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었다. 특히 입내교치기미주는 분화를 거듭하여 7세기 말에 이미 8개로 늘어났고, 盛唐 시기에는 그 수가 10개 이상으로 늘어나 있었다. 이처럼 당조의 거란 기미주가 두 가지 형식을 띠고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당조에 의해 분할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거란 본토 부락은 당조의 기미주 통치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당 고종 顯慶 연간(656-660)에 최초의 반란이 있었으며, 이후 무측천 시기(690-704)와 현종 시기(712-756)에 반란은 최고조에 달했다. 그 가운데 李盡忠과 孫萬榮의 반란과 可突於가 일으킨 반란이 유명했다.

굴가의 손자였던 이진충이 그의 매제 손만영과 함께 ‘廬陵王을 돌려달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萬歲通天 원년(696)에 일으킨 반란은 營州, 幽州, 冀州, 靑州 등지로 확산되었지만 1년여 만에 진압되었다. 하지만 이 반란으로 인해 거란 본토 부락에 설치했던 1부 9주의 기미주가 당조의 통치에서 벗어났고, 입내교치기미주는 거란 본토 부락과의 연계를 두려워한 당조에 의해 남쪽으로 遷徙되었다. 반란의 진정한 원인이 바로 이들 교치기미주의 장악을 둘러싼 당조와 거란 부락 간의 갈등과 대립에 있었기 때문에 당조는 이들 교치기미주를 남쪽으로 옮겼던 것이다. 이 반란으로 인해 당조는 營州에 대한 통치를 2-30년 동안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 개원 4-5년(716-717)에 이르러서야 다시 영주에 대한 통치를 회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개원 8년(720)에 일어난 가돌우의 반란은 이전의 반란과 달리 개원 22년(734)까지 지속되었고, 이 반란은 거란 왕족 부락이 大賀氏에서 遙輦氏로 교체되는 결과를 낳았다.

한편, 거란 본토 부락에 대한 기미주 제도 가운데 큰 영향을 미친 것은 ‘納質’과 ‘宿衛’ 제도의 실시였다. 이 두 제도는 분명 거란 부락에게 큰 부담이 되었고, 귀화한 사람들에게도 역시 적용되었다.

당조가 거란 부락에 기미주 제도를 실시한 것은 그들을 분열시키고 약화시키기 위해서였다. 당 태종 정관 22년(648) 거란의 수령 굴가가 이끄는 紇便部를 彈汗州로 삼고, 거란의 왕족 대하씨를 營州城 아래에 배치한 이래, 굴가와 그의 후손들이 거란을 통치했다. 그러나 거란 왕족을 분열시키고 회유하고자 하는 당조의 정책으로 인하여 거란 왕족 대하씨는 점차 거란에 대한 통치력을 상실하기 시작했고, 가돌우의 반란을 겪으면서 왕족이 요련씨로 완전히 교체되었다. 당조의 정책으로 인해 거란 왕족이 쇠약해지고 마

침내 교체되었다는 것은 당조의 기미통치가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로 인해 ‘幽州契丹’이라는 역사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즉 당조의 기미제도에 의해 유주 지역에 많은 거란인이 거주하게 되었고, 그 결과 ‘유주거란’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유주거란’에는 거란인 뿐 아니라 다수의 다른 민족도 융합되어 있었으며, 이는 거란 본토 부락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그리고 유주에 집중 거주했던 거란인의 활약은 安史의 난과 이후 북송 시기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어졌다.

### 近代來華天主教士筆下的東北地名及行程見聞-以巴黎外方傳教士布魯尼埃和維爾諾特的信件爲例

何岩巍, pp.118~127

파리 外方宣教會의 창립자 알렉산드르 데 로데스(Alexandre de Rhodes)는 예수회 소속의 선교사로 인도차이나 지역에서 다년간 활동했다. 그는 이 지역의 선교역량이 미약하다는 판단하고 다른 선교사들과 함께 1658년 파리 외방선교회를 창립하여 遼東 지역의 선교사업을 시작했다. 서로 다른 두 권의 『巴黎外方傳教會人物編年記錄』에 따르면, 창립 이후 프랑스 대혁명이 발발한 1788년까지 모두 44명의 선교사가 중국에 왔다. 이 시기의 파리 외방선교회는 선교사의 숫자나 중국 사회에서의 영향력에 있어 예수회의 상대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로마 천주교와 淸朝 강희제 사이에 벌어진 ‘禮儀之爭’ 이후 청조의 역대 황제들에 의해 시행된 천주교 금령이나 프랑스 대혁명은 파리 외방선교회의 활약을 크게 위축시켰다. 나폴레옹 몰락 이후 천주교 선교사업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특히 아편전쟁의 결과로 체결된 남경조약(영국과 중국)과 황포조약(프랑스와 중국)은 중국 내륙으로 진출하고자 했던 선교사들을 크게 자극했다.

布魯尼埃 신부와 維爾諾特 신부는 제1차 아편전쟁 이후 중국에 와서 선교활동을 펼쳤다. 『巴黎外方傳教會人物編年記錄』에 의하면 布魯尼埃 신부는 1841년 파리를 떠나 만주로 갔으며 1846년 흑룡강의 하구에서 피살되었다. 維爾諾特 신부는 1842년 파리 외방선교회에 가입한 뒤 그 이듬해에 중국으로 왔으며, 1849년 동북지방으로 가서 2년 동안 布魯尼埃 신부의 행방을 추적했다. 이후 그는 1884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동북지방에서 선교활동을 펼쳤다. 1845년과 1849년에 있었던 이들 두 신부의 여행은 그 여정이 거의 같았는데, 阿勒楚喀에서 출발하여 줄곧 동쪽으로 우수리강까지 갔다가 다시 북쪽으로 방향을 바꿔 흑룡강 하류지역에 이르는 여정이었다.

두 신부가 여행 도중에 쓴 편지에 보이는 지명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阿什河는 지금의 阿城縣이고, 三姓은 지금의 依蘭縣이다. 葦子溝, 尼滿溝子, 銀山 등은 각각 현재의 의란현 大二站, 러시아 경내에 있는 이만강 하구의 북안, 烏紮拉山 등이다. 또한 維爾諾特 신부의 편지에 자주 등장한 西山 혹은 西散은 동북지역 민족의 일본에 대한 별칭이었으며, 黑斤, 魚皮韃子, 長毛子, 二腰子 등은 모두 동북 북부지역의 각 민족의 속칭이었다. 한편, 布魯尼埃 신부는 비록 간단하긴 해도 阿勒楚城과 三姓城에 대한 귀중한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 明治時期日本官書對“尖閣列島”地位的認識

張植榮·張啓雄, pp.98~106

1970년대 중일간의 영토분쟁이 시작된 이래, 양국의 역사 자료, 정부 입장 그리고 민간 문헌 등은 이

미 모두 제시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영토분쟁에 제시된 역사 문헌의 성격에 대한 중국 학술훈계의 깊이 있는 분석이 전개된 적은 없었다. 이에 역사와 법률적 각도에서 일본 명치시기의 일본 정부 문서가 견지했던 ‘無主地先占’論과 그 근거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일본은 ‘무주지선점’론을 내세우며 ‘첨각열도[釣魚群島]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일본의 시각과 논거는 1970년대 오키나와 당국이 공표한 문건에 바탕을 두고 있다. 즉 1970년 8월 31일 오키나와 의회는 「尖閣열도 영토의 보호 요청에 관한 결의」 12호와 13호를 통과시키고, 일본 정부에게 중국과 미국을 상대로 강력한 교섭을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다음날 오키나와 정부는 「尖閣열도의 영토권에 관하여」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는 일본의 지방 정부가 제시한 최초의 관점과 근거가 가장 잘 갖추어진 문건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기본적으로 일본의 주요 관점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성명은 일본의 ‘첨각열도’에 대한 영유권을 인정하면서, 우선 중국 明清 두 왕조 시기의 『使琉球錄』의 정부 문서적 가치를 부정한다. 즉 “단지 첨각열도를 항해의 표지를 삼아 그 명칭을 언급했을 뿐”이며, 개인적인 관점일 뿐이라는 것이다. 둘째, 명치 시기의 일본 정부 문서의 ‘첨각열도’에 대한 기록이 지닌 정부 문서적 가치를 대단히 높이 평가한다. 또한 이 성명은 명치 시기의 일본 정부가 여러 차례에 걸쳐 釣魚島를 탐사하여 ‘무인도’라는 것을 확인한 다음 정식으로 일본 영토에 편입시켰다고 보고 있다.

1972년 3월 8일 일본 외무성은 정식으로 조어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제기했다. 일본의 조어도 영유권을 인정하는 것이 일본 학술훈계의 주류 관점인데, 특히 일본 정부와 일치된 관점을 지닌 奥原敏雄, 入江啓四郎, 綠間榮 등은 ‘南方同胞援護會’라는 조직 아래에 학술훈 강좌를 열거나, 『季刊·沖繩』 특刊을 발간하여 일본 정부의 관점과 입장을 옹호했다. 일본 측의 기본적인 주장은 두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역사적 권리상 ‘무주지선점’론을 주장하여 일본의 조어도 획득 과정을 ‘무주지’의 선점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어도가 중국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한다. 둘째, 법리적 해석상 조어도와 시모노세키조약[馬關條約]은 관련이 없고, 오키나와에 대한 미국의 위임통치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따른 것이었으므로, 조어도가 일본에 속한다는 것은 『日美沖繩返還條約』에 근거한 ‘행정권’ 회복의 범주에 속한다는 것이다. 중국이 조어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한 것은 1970년 이후이기 때문에 일본보다 늦었을 뿐 아니라, 역사적·지리적 근거가 국제법상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일본 학술훈계에서 조어도가 중국에 속한다는 주장을 펴는 학자는 경도대학의 井上清 교수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 조어도가 일본에 속한다는 주장을 펴는 대표적인 학자인 奥原敏雄 등은 국제법적 원칙을 동원하여 일본의 영유권을 논증한다. 奥原敏雄이 주요한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尖閣列島研究會’ 등은 『尖閣列島與日本の領有權問題』 등의 저술에서 국제법상 ‘선점’의 원칙에 근거하여 ‘첨각열도’가 대만의 부속도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역사학의 각도에서 이 문제를 분석한 학자는 오키나와가 역사적으로 중국과 일본에 대하여 ‘兩屬關係’를 유지했으며, 1879년 琉球를 폐하고 오키나와 현을 설치한 이후 오키나와 현의 요청에 따라 1895년 조어도를 오키나와 현의 관할하에 편입시켰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일본은 정부와 민간이 일치하여 조어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명치 시기의 일본 정부와 지방 정부는 처음부터 무인도인 조어도가 ‘무주지’가 아니라 창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근대 일본이 최초로 조어를 발견한 것은 1884년이었다. 당시 일본 福岡縣 사람 古賀辰四郎이 바닷새 신천옹의 깃털을 수집하기 위하여 일본 정부에 섬의 개발을

신청한 것이 최초의 기록이다. 1885년 일본 내무대신 山縣有朋은 오키나와 현에 중국 福州과 오키나와 현 사이에 있는 무인도 久米赤島 외 두 개의 섬을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오키나와 현령 西村舍三은 이를 부하 石澤兵吾에게 맡겼다. 그런데 명치 18년(1885) 9월 22일 西村舍三이 내무대신에게 올린 조사 보고서에는 이미 이들 島嶼의 귀속문제를 염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즉 『中山傳信錄』 등 중국 사적의 기록에서 조어도가 비록 무인도이긴 하지만 중국이 유구 국왕을 책봉할 때 책봉사가 반드시 거쳐 가는 중국의 영토라는 것을 발견했던 것이다. 이에 오키나와 현령은 그곳에 성급히 일본의 국가 표지를 세우게 되면 양국의 충돌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시기를 늦추고 다시 조사를 시행할 것을 요청했던 것이다. 西村舍三이 조어도의 실제 상황을 조사한 뒤 출판한 『南島記事外編』에도 조어도가 일본의 영토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내무대신 산현유봉은 ‘무인도’가 곧 ‘무주지’이며, 중국의 책봉사가 거쳐 갔다는 것은 항해의 표지로 삼았다는 뜻이라고 해석하면서 조어도에 일본의 국가 표지를 세울 것을 주장하고, 또 오키나와 현에 현지를 탐사하고 국가 표지를 세우라고 명령했다. 명치 18년 10월 9일 그는 이를 외무대신 井上馨에게 통지했다. 이때 일본의 행동이 중국 측에 알려지게 되고 신문에 보도되자, 井上馨은 山縣有朋에게 조어도를 ‘비밀리에 점령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보아도 명치 시기 당시 일본 정부가 조어도를 ‘무주지’가 아닌 ‘有主地’로 인식했음을 잘 알 수 있는 것이다.

한편, 근대 국제법은 무주지의 지위에 관련된 문제에 있어 ‘유효한 先占’, ‘明示’ 그리고 ‘異議 제기가 없어야 한다’는 세 가지를 강조한다. ‘유효한 선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선점국은 무주지를 점령한 다음 해당 무주지가 점령국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신고해야 하고, 둘째, 합리적인 기간 안에 管理制度를 세워 해당 지역이 점령국에 의하여 통치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그런데 일본은 명치 29년(1896) 3월 5일에 반포된 일본 정부 공포 칙령 13호를 근거로 일본이 조어도를 선점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칙령은 일본의 縣郡의 편제 등 지방제도의 확립에 관련된 것이었지 조어도를 오키나와 현의 관할하에 둔다는 것이 아니었다. 칙령에는 조어도라는 말이 언급되지도 않았던 것이다. 또한 일본은 칙령 13호에 언급된 ‘八重山諸島’에 조어도가 포함된다는 관점을 제시하는데 이는 근거 없는 억지 주장일 뿐이다. 칙령 13호는 근본적으로 조어도와 관련이 없었다.

영토의 취득에 관하여 국제법에는 또한 ‘유효한 관할’이라는 원칙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일본은 점령의 ‘유효성’과 ‘時效性’을 주장한다. 예를 들어, 일본은 1970년 이후 동해 대륙붕에 천연가스가 발견된 이후 비로소 중국이 조어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했으며, 그 이전에 ‘침각열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에 그 어떠한 이의도 제기한 적이 없었다고 지적하고, 이것은 중국이 오랫동안 일본의 ‘침각열도’에 대한 영유를 묵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일본 福岡縣 사람 古賀辰四郎의 조어도 개발이 곧 일본의 유효한 ‘침각열도’ 관할이라고 보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 그리고 국제법상 시효는 일반적으로 ‘무주지’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 관리를 시행하고, 또 타국의 이의 제기가 없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일본의 조어도 점령에 대한 중국과 대만의 항의가 줄곧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시효’라는 원칙을 한국의 독도에 적용할 경우 일본은 매우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에 일본은 영토 문제에 있어 ‘이중적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성립할 수 없는 논리인 것이다. 일본의 명치 전 시기에 걸쳐 오키나와 현이 조어도를 유효하게 관할하거나 점령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근거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요컨대, 국제법의 ‘선점’ 원칙에 따라 일본의 주장을 검토할 경우, 일본의 ‘무주지선점’ 주장은 국제법

에 부합하지 않는다. 조어도는 당시 ‘무주지’가 아니었을 뿐 아니라, 일본은 몰래 점령한 뒤에도 이를 공개적으로 선고하지도 않았고, 이의가 있는 상대국에 통고하지도 않았다. 심지어 일본은 청일전쟁에 승리한 뒤 체결한 조약에도 이 문제를 포함시키지 않았었다. 오직 일방적인 문서 작업을 거쳐 주인이 있는 조어도를 몰래 점령했을 뿐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일본의 ‘무주지선점’ 주장을 국제법적 근거가 미약한 것이다.

## 遼金與高麗的“保州”交涉

趙永春·玄花, pp.81~97

‘保州’는 遼朝가 제3차 고려 침공을 위해 압록강 하류 동남안에 수축한 성곽으로 지금의 평안북도 의주 일대에 위치하고 있었다. 전후에 고려는 누차에 걸쳐 요조에 ‘보주’의 시설을 파괴하고 또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후 ‘보주’ 문제는 요조와 고려, 후의 金朝와 고려 사이의 주요한 외교 현안이 되었다. 따라서 ‘보주’ 문제에 대한 명확한 인식은 요조와 금조의 동북 변강 형성과 고려와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이 문제에 대한 학계의 관심은 지금까지 그다지 크지 않았다. 전론은 아직 찾아 볼 수 없고, 단지 일본학자 三上次男의 『金初與高麗的關係』(『歷史學研究』 9-4, 1939)와 중국 魏志江의 『遼金與高麗關係考』(香港 天馬圖書有限公司, 2001)와 『中韓關係史研究』(中山大學出版社, 2006)에서 단편적으로 취급되었을 뿐이었다.

요조와 고려의 관계는 고려가 정식으로 건국되기 이전인 요 태조 9년(915)에 이미 시작되었다. 그러나 926년 요조가 발해를 멸하고 나자, 북방으로 영토를 확장하려던 고려와 관계가 악화되었고, 양국은 절교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당시 요조는 중원 경략에 치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국 사이의 군사적인 충돌은 없었다. 그러나 聖宗이 즉위한 뒤 국내외의 정세가 안정되자 요조는 고려 침략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게 된다. 統和 10년(992) 蕭恒德이 이끄는 침략군을 맞아 고려는 오히려 서희의 담판을 통하여 稱臣納貢과 宋朝와의 단교를 전제로 이른바 강동 수백 리의 땅을 획득했다. 그러나 고려는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요조는 통화 28년(1010) 재차 고려를 침략했지만 실패하였다. 그 후 요조는 開泰 3년(1014) 세 번째 침략을 감행하게 되는데, 이때 요조는 침략을 준비하는 과정의 하나로 ‘보주’ 등지에 성곽을 수축하고 압록강에 부교를 놓았다. 이처럼 보주성은 분명히 요조에 의해 건설되었던 것이다. 보주성의 수축 시기에 관한 사서들의 기록이 일치하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이때 건설되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그리고 보주성은 원래 요조가 고려에 할양했던 ‘강동 수백 리’의 지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요조의 보주성 점유는 고려에 대한 침략이라고 할 수 없었다. 제3차 침입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요조는 여전히 보주성을 점유하고 있었고 또 압록강의 부교를 철거하지 않았다. 고려는 이를 불안하게 여기고 줄곧 부교와 보주성의 철거를 요청했으나 교섭이 성립되지 않았다. 나중에는 ‘보주’ 자체의 할양을 요구했으나 역시 성사되지 않았다. 결국 양국의 주요한 외교적 문제였던 ‘보주’ 문제는 요조가 멸망할 때까지 해결되지 않았다.

금조가 성립한 이후, 고려는 곧 금조에게 ‘보주’를 요구했다. 당시 금 태조는 ‘보주’ 문제를 잘 몰랐을 뿐 아니라, 요조를 타도하는 데 필요한 고려와 관계를 감안하여 고려 스스로 ‘보주’를 취하게 하였다. 이에 고려는 天輔 원년(1117) 마침내 보주성을 점령하게 되었다. 이후 ‘보주’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양국 사이의

마찰이 있긴 했으나, 요조의 멸망과 북송의 패배를 지켜본 고려의 仁宗이 금조를 향하여 칭신하자, 금 태종은 개국공신 完顔勛의 권유를 받아들여 고려의 '보주' 영유를 인정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遼金과 고려의 '보주' 교섭과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즉 요조와 금조가 토지와 명분의 문제에 있어 명분을 더욱 중시했다는 것과 고려에 대하여 줄곧 '仁者'와 '友善'의 태도를 견지했다는 것 그리고 고려가 토지와 명분 가운데 토지 즉 실리를 더욱 중시하여 '智者'와 '事大'의 태도를 취했다는 것 등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3 한·중 역사 관련 국내외 학술활동

— 학술행사 및 관련 보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한·중  
역사

## 2008년 한·중 역사 관련 국내외 학술활동-학술행사 및 관련 보도

- 학술회의 | 201
  - ◎ 학술회의 일람표 | 201
  - ◎ 월별 학술회의 내용 | 203
- 연구 및 출간 | 228
  - ◎ 도서 | 228
  - ◎ 논문 | 231
    - 일반 논문 | 231
    - 학위 논문 | 240
- 언론 및 여론의 활동 | 240
  - ◎ 신문/잡지 | 240
    - 신문 | 240
    - 잡지 | 252
  - ◎ 방송 | 254

○ 학술회의

◎ 학술회의 일람표

월	일	제 목	주 제
1	10	한림대학교 개교 26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동북아 역사 마찰과 기억의 국제정치-한국, 중국, 일본, 미국의 관점”
2	14-15	제21회 한국고대사학회 합동토론회	한국 고대국가 멸망기의 양상과 원인
	16	신라사학회 제69차 학술발표회	
	22	2008년 동양학연구소 심포지움	
3	14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고대회와 공동으로 동북공정 학술회의 개최	‘동북공정’ 전후 중국의 한국고대사 인식
	15	신라사학회 제70차 학술발표회	동아시아 역사인식, 무엇이 문제인가?
4	24-25	북간도 한인의 삶과 애환, 그리고 문화	북간도 한인의 삶과 애환, 그리고 문화
	26	한국목간학회 제2회 정기발표회	
5	16	한국사학회 월례발표회	
	17	신라사학회 제72차 학술발표회	동북아시아 고고학의 최근 연구 성과
	30	2008년 전국역사학대회	역사상의 공화정과 국가 만들기
6	13	한국고대학회 춘계 학술회의	고구려의 역사적 의의 및 계승 발전 방향
	14	제103회 한국고대사학회 정기발표회	고구려사의 계문제
	14	‘동아시아사’교육 국제학술대회	한·중·일 동아시아사 교육의 현황과 과제
	20	한국사연구회 제264차 연구발표회	백제계통 자료로 본 졸본부여의 동명신화
7	28	한국사학사학회 제76회 연구발표회	
	2-3	동북아역사재단 국제학술회의	발해와 동아시아 국제학술회의
	10	경기도 고구려 유적 보존과 정비를 위한 심포지움	
	11	대한민국 건국 60년 기념 학술회의	
	24-25	제10회 한국고대사학회 하계 세미나	민족주의 사학과 한국고대사연구
8	28	공동역사교과서 학술세미나	유럽과 동아시아의 공동교과서 편찬과 전망
	7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제3회 미귀환 학술회의	해방 후 해외 한인의 희생과 미귀환
	12	광복63주년 및 독립기념관 개관 21주년기념 학술심포지움	한국 근대 역사학 100년의 성찰과 모색
	13	대한민국 건국60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각 국 교과서와 매체에 나타나는 한국관련 서술의 변화
	19	2008년도 한국-베트남 역사학 심포지움	베트남 - 한국의 동아시아세계 인식과 교류
	23	신라사학회 제75차 학술발표회	
4-5	동북아역사재단·북경대학 공동 학술회의	동북아 관계사의 성격	
9	24	제23회 규장각 콜로키움	조선 특사의 후금 방문과 明秩序의 균열

월	일	제 목	주 제
	24~11.19	한국예술종합학교 트랜스아시아 영상문화 연구소 아카데미	1930년대 동아시아 영화와 문화정치
	25~26	동북아역사재단 창립 2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근대 변경의 형성과 변경민의 삶
	27	신라사학회 제76차 학술발표회	
	27	한국사학사학회 제77회 연구발표회	
	29	‘기억의 차이와 화해’ 국제학술회의	2차세계대전에 대한 한·미·중·일 역사 교과서의 서술 비교
10	6~7	백제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국제학술회의	대백제국의 국제교류사
	11	제104회 한국고대사학회 정기발표회 안내	
	16	제2회 동아시아지역학세미나	일본의 식민지전쟁과 인천
	16~17	제1회 규장각 한국학 국제심포지엄	이념과 제도의 교류: 세계 속의 한국, 한국 속의 세계
	21	독립기념관 제247회 월례연구발표회	
	24~25	제35회 동아시아고대학회 학술발표대회 및 정기총회	동아시아 역사인식의 重層性 - 국경과 역사의 경계를 넘어 -
	25	고조선학회 제1회 정기 학술회의	고조선탐색
	30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인문한국(HK) 동아시아한국학연구단 학술회의	조선과 동아시아, 그 만남의 자취

◎ 월별 학술회의 내용

■ 1월 학술발표

- ▣ 한림대학교 개교 26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 동북아 역사 마찰과 기억의 국제정치-한국, 중국, 일본, 미국의 관점
  - 일자: 2008년 1월 10일(목) 1:30-18:00
  - 장소: 외교부 외교안보연구원
  - 주최: 한림대 민족통합연구소, 하와이대 아시아 태평양대학/정치학과
  - 후원: 강원일보사
  - 〈일정〉
  - 13:30-14:00 개회식
  - 14:00-16:30 세션 1
  - “동아시아 역사마찰과 기억의 국제정치-한국, 중국, 일본, 미국의 관점”
  - 발표: 한국의 관점-이원덕(국민대)
  - 일본의 관점-기미야 타다시(도쿄대)
  - 중국의 관점-서정민(하와이대)
  - 미국의 관점-양기웅(한림대)
  - 역사와 정치-에드워드 슐츠(하와이대)
  - 토론: 김병주(이화여자대학교)
  - 김현철(동북아역사재단)
  - 박진오(강원일보)
  - 오영환(중앙일보)
  - 정만영(동북아역사재단)
  - 조양현(외교안보연구원)
  - 17:00-18:00
  - 세션 2: 라운드테이블
  - 토론자: 기미야 타다시(도쿄대)
  - 김병주(이화여대)
  - 김현철(동북아역사재단)
  - 박진오(강원일보)
  - 서정민(하와이대)
  - 양기웅(한림대)
  - 에드워드 슐츠(하와이대)

- 오영환(중앙일보)
- 이원덕(국민대)
- 정만영(동북아역사재단)
- 정미령(한림대)
- 조상훈(한림대)
- 조양현(외교안보연구원)

■ 2월 학술발표

- ▣ 제21회 한국고대사학회 합동토론회
  - 주제: 한국 고대국가 멸망기의 양상과 원인
  - 일시: 2008년 2월 14일(목)~15일(금)
  - 장소: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신세계관 101호
  - 후원: 한국학술진흥재단, 시공테크, 대동문화재연구원, 백제문화재연구원
  - 〈2월 14일〉
  - 개회 13:00-13:30 / 사회: 이영호(상주대)
  - 회장인사: 김수태(충남대)
  - 축사: 이배용(이화여대 총장)
  - 제1부 고조선과 고구려
  - 사회: 강종훈(대구가톨릭대)
  - 제1주제: 고조선의 멸망 13:40-14:40
  - 발표자: 김병준(한림대)
  - 토론자: 윤용구(인천시립박물관), 조법중(우석대)
  - 제2주제: 고구려의 멸망기의 제 양상과 멸망 원인 14:40-15:40
  - 발표자: 이문기(경북대)
  - 토론자: 임기환(서울교대)
  - 이성제(동북아역사재단)
  - 제2부 가야와 백제
  - 사회: 박현숙(고려대)
  - 제3주제: 가라국의 쇠퇴 원인에 대하여
  - 16:00-17:00
  - 발표자: 이근우(부경대)
  - 토론자: 남재우(창원대), 정재윤(공주대)

제4주제: 백제의 멸망 17:00-18:00

발표자: 이용현(국립부여박물관)

토론자: 김영관(서울역사박물관), 김수미(전남대)

<2월 15일>

○ 제3부 발해와 신라/ 사회: 윤선태(동국대)

제5주제: 발해의 멸망과정과 원인

10:00-11:00

발표자: 김기섭(서울역사박물관)

토론자: 김종복(성균관대), 박진숙(국가기록원)

제6주제: 신라의 멸망(11:00-12:00)

발표자: 신호철(충북대)

토론자: 김영미(이화여대), 박재우(목원대)

○ 제4부 종합토론(13:30-16:30)

좌장: 노태돈(서울대)

참여자: 발표자 및 토론자 전원

■ 신라사학회 제69차 학술발표회

• 일시: 2008년 2월 16일(토) 14:00-18:00

• 장소: 서강대학교 김대건관(K관) 212호

• 사회: 조범환(서강대)

○ 주제 1: 다시 보는 임나가라

발표: 김영덕(서강대 명예교수)

토론: 이용현(국립부여박물관)

○ 주제 2: 한강유역의 신라 불교 유적

발표: 황보경(세종대 박물관)

토론: 김혜완(아주대)

■ 2008년 동양학연구소 심포지움

• 일시: 2008년 2월 22일(금) 13:30-18:00

• 장소: 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 206호(컨벤션홀)

• 주최: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발표 및 토론> 사회: 복기대(단국대)

1. 한도현(한국학중앙연구원), 역사사회의 시간 개념과 패러다임-고대사회연구와 관련하여-

2. 이성규(단국대), 한국 상고문화에서의 어문학

연구 방향

토론: 김위현(명지대)

3. 신동훈(서울대), 고고학 현장에서의 자연과학적 기법의 응용

토론: 최명식(문화재연구소)

4. 하문식(세종대): 한국 상고사 연구의 몇 가지 문제-최근 고고학 연구성과와 관련하여-

토론: 한창균(한남대)

5. 김성환(경기도박물관): 단군연구의 자료와 방향 모색

토론: 심재훈(단국대)

■ 3월 학술발표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고대학회와 공동으로 동북공정 학술회의 개최

• 주제: '동북공정' 전후 중국의 한국고대사 인식

• 주최: 국사편찬위원회

• 주관: 한국고대학회

• 일시: 2008년 3월 14일(금) 13:00

• 장소: 서울역사박물관 강당

발표 및 진행:

13:30~13:50

사회: 정운용(고려대 고고미술사학과)

국민의례

개회사: 최광식(한국고대학회 회장)

환영사: 정옥자(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발표 및 토론]

사회: 박대재(고려대 한국사학과)

14: 00~14: 30 제1주제

중국 고문헌 자료에 비쳐진 한국고대사상

- 國編『韓國古代史料集成: 中國篇』자료를 중심으로 -

발표: 박경철(강남대학교 교양학부)

토론: 공석구(한밭대학교 교양학부)

14:30~15:00 제2주제

중국 정사 4사에 보이는 한국고대사 인식  
- 國編 『中國正史 朝鮮傳』에 기초하여 -  
발표: 정운용(고려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토론: 이도학(한국전통문화학교 문화유적학과)  
15:10~15:40 제3주제

중국 학계의 한국상고사 인식  
- 古朝鮮史·夫餘史를 중심으로 -  
발표: 시노하라 히로카타(일본 오사카대학)  
토론: 오강원(동북아역사재단)  
15:40~16:10 제4주제

동북공정 이후 중국의 한국고대사 인식  
- 고구려사·발해사를 중심으로 -  
발표: 최광식(고려대 한국사학과)  
토론: 조인성(경희대 사학과)  
16:30~17:30 종합토론  
사회: 서영수(단국대 역사학과)

■ 신라사학회 제70차 학술발표회

- 주제: 동아시아 역사인식, 무엇이 문제인가?
- 일시: 2008년 3월 15일(토) 오후 1시-6시
- 장소: 서강대학교 마태오관(경영관, M관) 402호  
사회: 장일규(국민대학교)
- 주제1: 『三國遺事』所引 일본제기에 대하여  
발표: 하정용(한국한의학연구원)  
토론: 이재석(동북아역사재단)
- 주제2: 隋唐初期 中國의 世界秩序의 변화과정과 三國의 대응 - 金春秋의 대고구려 청병의 교와 관련하여 -  
발표: 정선용(충북대학교)  
토론: 최현화(국사편찬위원회)
- 주제3: 신라의 州와 고려초 界首邑  
발표: 김아네스(순천대학교)  
토론: 이인재(연세대학교)

■ 4월 학술발표

■ 북간도 한인의 삶과 애환, 그리고 문화

• 일시: 2008년 4월 24일(목)-25일(금) 2일간  
명동학교 개교일: 4월 27일(일)  
• 장소: 국립민속박물관 강당  
• 주최: 독립기념관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동북아 역사재단/국립민속박물관

• 대주제: 북간도 한인의 삶과 애환, 그리고 문화  
○ 제1부: 북간도지역 한인의 삶과 민족운동  
○ 제2부: 북간도지역 한인의 생활과 문화  
학술회의 일정  
<제1일차: 4월 24일>

제1부: 북간도지역 한인의 삶과 민족운동  
사회: 김용달(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수석연구원)  
- 기초강연 북간도 한인(조선인) 사회와 명동 학교(윤병석 / 인하대 명예교수)  
- 제1주제 김약연의 생애와 민족운동(서대숙 / 전 하와이대 석좌교수, UCLA 초빙 교수)  
토론: 최기영(서강대 교수)

- 제2주제 중국조선족 민족과정과 간민회(손춘일 / 연변대 민족연구원장)  
토론: 배성준(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제3주제 항일독립운동사상에서의 명동학교의 위상(이명화 /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원)  
토론: 박주신(인하대 교수)

- 제4주제 북간도 간민회의 조직과 활동(최봉룡 / 대련대 교수)  
토론: 장세운(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제5주제 북간도지역 민족운동과 기독교(서평일 / 한신대 교수)  
토론: 김승태(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종합토론 좌장 한시준(단국대 교수 /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장)

<제2일차: 4월 25일>

제2부: 북간도지역 한인의 생활과 문화

사회: 김정희(동북아역사재단 책임연구위원)

- 제 1주제 청조의 북간도 개척정책과 한인  
(김춘선 / 연변대 교수)

토론: 손과지(복단대 교수)

- 제 2주제 북간도지역 한인의 노래  
(김보희 / 송실대 강사)

토론: 노동은(중앙대 교수)

- 제 3주제 북간도지역 한인의 주거생활  
(김홍식 / 명지대 교수)

토론: 신재역(울산대 교수)

- 제 4주제 사진으로 보는 북간도지역 한인의 민  
속(김시덕 /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  
구관)

토론: 이기태(한국디지털대 교수)

- 제 5주제 북간도 아카이브 자료 활용방안(김창  
호 /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사)

토론: 김주관(서울대 비교문화연구소 선임연구  
원)

- 제 6주제 규암 김약연과 명동촌(김재홍 / 김약  
연 후손)

토론: 이동언(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  
원)

※ 종합토론: 반병률(한국외국어대 교수)

■ 한국목간학회 제2회 정기발표회

- 일시: 4월 26일(토요일) 14:30-17:00
- 장소: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교수회의실 7동 304호
- 연구발표: 14:30-15:30 사회: 김병준(한림대)  
윤용구(인천시립박물관), '敦煌漢簡에 보이는 樂  
浪人 王譚'

명예회원께 듣는다: 15:40-17:00

이성규(서울대), 樂浪郡에 보급된 鐵官의 철제 농  
구 -- 平壤 출토 '大河五' 銘 鐵斧의 考釋을 중심으  
로

■ 5월 학술발표

■ 한국사학회 월례발표회

• 일시: 2008. 5. 16(금) 16:00

• 장소: 국사편찬위원회 본관 2층 소회의실  
발표

1. 발표: 김병곤(동국대), 中國 正史 新羅傳에 記  
錄된 新羅 建國期 主要 支配 集團의 由來  
와 出自

토론: 남무희(국민대)

2. 발표: 박경(이화여대), 형정운용을 통해 본 조  
선 전기의 가족 정책-부처간의 폭력에  
대한 처벌실태분석을 중심으로-

토론: 이순구(국사편찬위원회)

■ 신라사학회 제72차 학술발표회

• 일시: 2008년 5월 17일(토) 14:00-18:00

• 장소: 서강대 마태오관(경영관, M관) 402호

사회: 김창겸(한국학중앙연구원)

주제 1 신라 금입택의 유형과 분포(양시호 / 송실  
대)

토론: 김병곤(동국대)

주제 2 <步輦圖>를 통해 본 唐代 禮官 服色考(최  
규순/단국대)

토론: 전현실(가톨릭대)

■ 2008년 전국역사학대회

• 공동주제: 역사상의 공화정과 국가만들기(1일차)

• 일시: 2008년 5월 30일(금)

• 장소: 서강대학교 이나시오관 소강당

09:30-10:00 대회참가자 등록

10:00-10:30 개회사: 조병한(제51회 전국 역사학  
대회 대회장, 서강대)

오전발표

사회: 함동주(이화여대)

10:30-11:10

공화국과 공화주의

발표자: 조승래(청주대)

토론자: 이영석(광주대)

11:10-11:50

근현대 중국의 공화정치와 국민국가의 모색

발표자: 배경한(신라대)

토론자: 전인갑(인천대)

오후발표

사회: 임기환(서울교대)

13:30-14:10

한국의 근대 국가 구상과 공화제

발표자: 박찬승(한양대)

토론자: 한시준(단국대)

14:10-14:50

해방 직후 건국노선: '인공'과 '민국' 분립의 맹아, '즉시 건국론'-대기론 대립에 작용하기 시작한 의세규정성, 1945

발표자: 이완범(한국학중앙연구원)

토론자: 고정휴(포항공대)

14:50-15:30

미국 헌법의 제정과 연방공화국의 건국

발표자: 정경희(탐라대)

토론자: 손세호(평택대)

종합토론

사회: 김영환(서강대)

15:30-17:30 종합토론

분과발표(2일차)

■ 한국사부

가. 한국사연구회(마태오관 206호)

주제: 동북아시아에서 바라본 韓國史上的 '국가' 만들기과 '민족'

오전발표(10:00-12:30)

사회자: 정운용(고려대)

제1발표: 古朝鮮의 건국과 동북아 古民族

발표자: 박대재(고려대)

토론자: 김정열(숭실대)

제2발표: 高句麗의 건국과 주변정치세력

발표자: 김미경(연세대)

토론자: 김현숙(동북아역사재단)

제3발표: 六頂山古墳群을 통해 본 渤海建國集團

의 性格

발표자: 김진광(한국학중앙연구원)

토론자: 김종복(성균관대)

오후발표(14:00-16:00)

사회자: 채웅석(가톨릭대)

제4발표: 高麗의 건국과 後三國統一의 민족사적 의미

발표자: 김갑동(대전대)

토론자: 조인성(경희대)

제5발표: 朝鮮의 건국과 元·明의 교체

발표자: 오종록(성신여대)

토론자: 도현철(연세대)

한국사연구회 이사회 개최(16:00-17:00)

나. 한국역사연구회(마태오관 203호)

주제: 근대전환기 동아시아 주요 정치가의 개혁 구상과 대외정책

오전 발표(10:00-12:00)

사회: 김인호(광운대)

제1발표: 이홍장(李鴻章)의 조선인식

발표: 구선희(국사편찬위원회)

제2발표: 김윤식(金允植)의 현실인식과 대외정책

발표: 하원호(동국대)

제3발표: 유길준(兪吉濬)의 문명관과 국민공치론

발표: 김민석(한양대)

제4발표: 서재필(徐載弼)의 人民 정치참여 구상의 특징들

발표: 손철배(성균관대)

오후 발표(13:30-15:00)

사회: 이영학(외국어대)

제5발표: 20세기 초 제정러시아의 극동정책과 비테(С.Ю.Витте)

발표: 이항준(서울여대)

제6발표: 대한제국기 고종(高宗)의 정국구상과 이용익(李容翊)의 정치활동

발표: 김영수(성균관대)

제7발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韓國併合'

政策(1905-1909)

발표: 한성민(동국대)

종합토론(15:10-17:00)

사회: 이영호(인하대)

토론: 주진오(상명대)

최덕규(동북아역사재단)

방광석(고려대)

은정태(역사문제연구소)

■ 동양사부(마태오관 106호)

오전 발표

사회: 이주현(한남대)

10:00-10:50

제1발표: 戰時期下請政策의 展開過程

발표: 최우영(한국외대)

토론: 임채성(배재대)

11:00-11:50

제2발표: 里耶秦簡을 통해 본 秦代 문서행정의

방식과 그 특징

발표: 오준석(경북대)

토론: 이성원(서울대)

오후 발표

사회: 정철웅(명지대)

13:30-14:20

제3발표: 6세기 中國 王朝의 雲南지역 지배와 ‘西

爨’- 爨蠻·爨震부자의 ‘竊據’와 남북조

시기 ‘邊州’의 성격

발표: 정 면(서강대)

토론: 김상범(한국외대)

14:30-15:20

제4발표: 북경 수도론과 대운하- 明朝를 중심으로

발표: 조영현(홍익대)

토론: 민경준(부산대)

15:30-16:20

제5발표: 財政史의 각도에서 다시 보는 <朝清商

民水陸貿易章程>(1882)

발표: 문명기(인하대)

토론: 김민규(동북아역사재단)

16:30-17:30 동양사학회총회

■ 서양사부(마태오관 104호)

오전 발표

사회: 한운석(고려대)

10:00-10:50

제1발표: 17세기 후반 생시르 기숙학교에서의 연

극의 교육적 역할

발표: 강미숙(충남대)

토론: 임승휘(선문대)

11:00-11:50

제2발표: 독일 노동운동의 사회정책 전문가 그룹

- 독일제국 시기 노동서기(Arbeiterse-

kretäre)들의 활동과 역할

발표: 신명훈(서울대)

토론: 이진모(한남대)

오후 발표

사회: 장세룡(부산대)

13:30-14:20

제3발표: 스페인 제 2공화국 몰락에서 스페인

파시즘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 사라고

사 지역의 폭력과 제도화를 중심으로

발표: 김현철(연세대)

토론: 황보영조(경북대)

14:30-15:20

제4발표: 엘리제조약을 위하여 - 유럽 통합과 독

일-프랑스 화해의 셋길

발표: 이용재(전북대)

토론: 김승렬(경상대)

15:30-16:20

제5발표: 소비에트 시대에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의 경계에 서있던 공동주택 ‘코뮤

날카’

발표: 기계형(서울대)

토론: 김남섭(서울산업대)  
 16: 30-17:20  
 제6발표: 20세기 후반 미국 인디애나폴리스 한  
 인사회와 한인 - 생활, 의식 그리고 생  
 애  
 발표: 김선정(한국외대)  
 토론: 이희영(대구대)  
 17:30-18:30  
 서양사학회 정기총회  
 진행: 육영수(중앙대, 총무이사)  
 ■ 고고학부(이나시오관 소강당)  
 주제: 장제의 고고학  
 10:20-10:40  
 총론: 권오영(한신대)  
 1부 사례발표  
 사회: 송만영(경기도 박물관)  
 10:40-11:00  
 마산 진동 고인들의 축조공정과 계층성(하승철/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11:00-11:20  
 경산 신대리 분묘군의 매장원리(정 민/영남문화  
 재연구원)  
 11:20-11:40  
 원주 법천리 고분군에서 보이는 매장 프로세스(윤  
 형원/국립중앙박물관)  
 11:40-12:00  
 나주 영동리 고분군 피장자의 친족관계(이정호/  
 동신대 박물관)  
 12:00-12:20  
 고령 지산동 고분군의 축조공정(김경수/대동문화  
 재연구원)  
 2부 주제발표  
 사회: 김아관(고려문화재연구원)  
 13:30-13:55  
 인골로 보는 장송과 피장자(김재현/동아대)

13:55-14:20  
 고대의 장송과 제사(김동숙/성림문화재연구원)  
 14:20-14:45  
 중국 한·진시대 장제의 변화과정(조윤재/고려대  
 고고환경연구소)  
 14:45-15:10  
 장묘제도의 정착과정(山本孝文/고려대 고고환경  
 연구소)  
 종합토론  
 좌장: 이희준(경북대)  
 15:30-17:00 발표자 전원  
 17:00-17:30 총회  
 ■ 과학사부(마태오관 202호)  
 오전 발표  
 사회: 강호제(이화여대)  
 10:00-10:40 제1발표  
 표준 한글 문자코드 논쟁, 완성형/조합형 논쟁을  
 중심으로 1986-1995(박동오/과학기술정책연구  
 원)  
 토론: 남 영(한양대)  
 10:40-11:20 제2발표  
 http와 입자물리학: CERN과 하이퍼텍스트와 소  
 통(김재영/이화여대)  
 토론: 이관수(동국대)  
 11:30-12:10 제3발표  
 새로운 발견의 출발점으로서의 실용수학: 시몬  
 스테빈의 항해술 연구(정 원/서울대)  
 토론: 한경혜(인하대)  
 오후발표  
 사회: 박권수(서울대)  
 13:40-14:20 제4발표  
 금속활자의 중국발명설에 관한 연구(조형진/강남  
 대)  
 토론: 이재정(국립전주박물관)  
 14:20-15:00 제5발표

한성순보와 한성주보에 나타난 한역과학서적(김연희/연세대)

토론: 이면우(춘천교대)

15:30-16:10 제6발표

한국 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의 초기 역사 - 70년대 태양 에너지 이용을 중심으로(박진희/동국대)

토론: 고대승(과학문화재단)

16:10-16:50 제7발표

허문회의 육종연구와 박정희의 통일벼(선유정/전북대)

토론: 김태호(서울여대)

■ 역사교육부(가브리엘관 109호)

주제: 역사교육과 박물관

오전 발표

사회: 류승렬(강원대)

10:00-10:50 제1발표

살아있는 역사교육의 현장, 박물관(최광식/국립중앙박물관장·고려대)

11:00-11:50 제2발표

역사 텍스트(text)로서의 박물관 활용, 어떻게 할 것인가(최석영/공주대)

토론: 국성하(국립민속박물관)

오후 발표

사회: 염인호(서울시립대 박물관장)

13:30-14:20 제3발표

박물관에서의 역사교육 방안과 과제 - 서울역사박물관의 에듀케이터 활용문제를 중심으로(연갑수/서울역사박물관)

토론: 김남돈(전국학예사협회 회장, 강원대 박물관)

14:20-15:10 제4발표

박물관을 활용한 중등학교 역사학습 방안(김대현/인천 예일고)

토론: 이상철(홍천여고)

15:20-16:10 제5발표

사립 교육박물관의 운영과 역사교육 실천 사례(김동선/덕포진 교육박물관)

토론: 최윤희(조세박물관)

16:10-17:00 제6발표

중국 혁명사 유형 박물관의 발전과 역사교육-홍색(紅色)기념관에서 다원(多元)문화박물관에 이르기까지(광지엔춘/홍익대)

토론: 김창성(공주대)

■ 미술사부(다산관 101호)

오전 발표

사회: 최공호(한국전통문화학교)

제1발표

세키노 타다시(關野貞)의 고구려 고분벽화 조사에 대한 고찰(이중수/명지대)

제2발표

청말 趙之謙의 花卉畵와 後代에 미친 영향(오지영/홍익대)

제3발표

인도 근대 미술의 여성상과 민족주의(Nationalism)의 성장: 바르마(Varma)와 타고르(Tagore)의 회화를 중심으로(구하원/서울대)

오후 발표

사회: 박은경(동아대)

제4발표

15-16세기 조선 관요운영과 백자의 변천(전승창/삼성미술관 Leeum)

제5발표

일본 고베 다나카家 소장 고려 후기 <비로자나삼천불도>의 고찰: 삼천대전세계에 가득한 법신의 조형적 표현(강소연/동국대)

제6발표

조선후기 지방 파견 화원들과 그 제도, 그리고 이들의 지방 형상화(이훈상/동아대)

제7발표

통일신라 8세기 불국사의 가람 배치에 구현된

화엄 세계관(배진달/용인대)  
 ■ 경제사부(마태오관 103호)  
 오전 발표  
 사회: 김승욱(중앙대)  
 09:30-10:30 제1발표  
 조선후기에 생산력은 발전하고 있었나? : 노비  
 시장의 증거(차명수/영남대, 이우연/낙성대경제  
 연구소)  
 토론: 양동휴(서울대)  
 10:30-11:30 제2발표  
 Measuring Living Standard from the Lowest:  
 Height of the Male Haengryu Deceased in Colonial  
 Korea(김두얼/KDI, 박희진/경북대)  
 토론: 차명수(영남대)  
 11:30-12:30 제3발표  
 부흥기 석탄산업(임채성/배제대)  
 토론: 정진성(한국방송통신대)  
 오후 발표  
 김대래(신라대)  
 14:00-15:00 제4발표  
 전시기 조선총독부의 철강중산정책과 소형용광  
 로 제철(정안기/고려대)  
 토론: 배석만(동경대)  
 15:00-16:00 제5발표  
 일제말 조선인자본가의 군수회사 경영(배석만/동  
 경대)  
 토론: 정안기(고려대)  
 16:00-17:00 제6발표  
 중화학공업화의 배경과 목표(박영구/부산외대)  
 토론: 여인만(강릉대)  
 <자유패널>  
 ■ 한국사상사학회(마태오관 308호)  
 주제: 17세기 후반 조선의 사상계와 문제의식  
 오전 발표  
 사회: 홍원식(계명대)

10:00-11:00 제1발표  
 숙종대 소론의 계보와 최석정(김용흠/연세대)  
 토론: 신병주(건국대)  
 11:00-12:00 제2발표  
 朴世采의 학문과 儒學史  
 인식(고영진/광주대)  
 토론: 강신엽(육사박물관)  
 오후 발표  
 사회: 설석규(경북대)  
 13:00-14:00 제3발표  
 17세기 후반 송시열의 화이론- 중국과 일본 학자  
 王夫之·山崎闇齋와의 비교를 중심으로(우경섭/  
 인하대)  
 토론: 김태연(인하대)  
 14:00-15:00 제4발표  
 17세기 후반 林川趙氏의 學風과 經世論조성산/고  
 려대)  
 토론: 김정신(청주교대)  
 15:00-16:00 제5발표  
 정시한의 학문과 그 영향(정호훈/연세대)  
 토론: 김학수(한국학중앙연구원)  
 16:20-18:00 종합토론  
 사회: 조성을(아주대)  
 ■ 한국여성사학회(마태오관 208호)  
 주제: 여성사 실천과 대중화  
 오전 발표  
 사회: 유정희(연세대)  
 10:00-12:30 제1발표  
 포스트페미니즘시대 여성사 어떻게 소비할 것인  
 가?(이성숙/한양대)  
 토론: 이선이(서울여대)  
 10:50-11:30 제2발표  
 대학내 여성사교양강좌의 현황과 문제점(권순형/  
 강릉대)  
 토론: 한희숙(숙명여대)

11:50-12:30 제3발표  
 조선시대 여성사 대중서의 허와 실(이순구/국사  
 편찬위원회)  
 토론: 윤정란(숭실대)  
 오후 발표  
 장병인(충남대)  
 14:00-14:40 제4발표  
 역사체험학습 강사프로그램과 여성사 대중화(정  
 현주/북부여성발전센터)  
 토론: 신영숙(이화여대)  
 14:40-15:20 제5발표  
 여성답사 바람을 일으키자(최선경/문화유산해설  
 사회)  
 토론: 강영경(숙명여대)  
 15:30-16:30 종합토론  
 사회: 안태운(경민대)  
 ■ 한국사학사학회(마태오관 102호)  
 주제: 역사의 효용과 오용  
 사회: 박인호(금오공대)  
 13:10-13:40 제1발표  
 기념의 홍수, 역사의 오용 - 19세기 독일의 민족  
 기념물들에 대한 비판적 고찰(최호근/고려대)  
 13:40-14:10 제2발표  
 역사와 대중매체의 이중주(二重奏)(최용찬/연세  
 대)  
 14:30-15:00 제3발표  
 ‘以古爲今’: 중국의 민족문제와 중화민족 국가관  
 (윤휘탁/한경대)  
 15:00-15:30 제4발표  
 역사학자의 사명감과 직업윤리(임상우/서강대)  
 15:30-17:00 종합토론  
 사회: 김기봉(경기대)  
 ■ 한국역사민속학회(마태오관 101호)  
 주제: 한국사에서의 소수자  
 사회: 심재우(한국학중앙연구원)

13:30-14:00 제1발표  
 조선전기 백정의 제민화정책 시행과 저항(김동  
 진/교원대)  
 14:00-14:30 제2발표  
 조선시대의 환과고독(박혜인/계명대)  
 14:30-15:00 제3발표  
 조선 중엽 귀화 野人과 倭人の 생활 모습 - 蔚山戶  
 籍(1609)과 海南戶籍(1639)의 사례 분석(임학성/  
 인하대)  
 15:00-15:30 제4발표  
 한국 맹인 점복자의 전개양상(김만태/안동대)  
 15:50-17:30 종합토론  
 토론: 이성임(서울대)  
 손병규(성균관대)  
 김경숙(조선대)  
 정창권(고려대)  
 ■ 고구려발해학회(마태오관 201호)  
 사회: 김일권(한국학중앙연구원)  
 13:30-14:00 제1발표  
 고구려의 지방통치 제도(최희수/서강대)  
 토론: 이성제(동북아역사재단)  
 14:00-14:30 제2발표  
 高句麗 佛敎 初傳에 대한 검토(표영관/강릉대)  
 토론: 조경철(한국학중앙연구원)  
 14:30-15:00 제3발표  
 고구려와 발해의 해양문화(윤재운/동북아역사  
 재단)  
 토론: 이유진(숭실대)  
 15:00-15:30 제4발표  
 발해와 거란의 관계 - 거란 태조의 발해 적대의식  
 의 배경(임상선/동북아역사재단)  
 토론: 윤영인(영산대)  
 15:30-16:00 제5발표  
 한리공동 연해주 발해유적 발굴조사의 성과와 과  
 제발표(정석배/한국전통문화학교)

토론: 김동우(국립중앙박물관)

16:10-17:30 종합토론

사회: 정병준(동국대)

■ 6월 학술발표

▣ 한국고대학회 춘계 학술회의

• 주제: 고구려의 역사적 의의 및 계승 발전 방향

• 주최: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 주관: 한국고대학회

• 일시: 2008년 6월 13일(금) 09시

• 장소: 광진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사회: 정운용(고려대 고고미술사학과)

09:30-10:00

개회사: 최광식(한국고대학회 회장)

환영사: 정송학(광진구청 구청장)

사회: 김영미(이화여대)

10:00-10:30 기초강연

고구려의 민족사적 위상(신형식/이화여대)

10:40-11:20 제1주제

戰後 日本에서의 고구려사 연구 현황과 과제(井上直樹/일본 京都府立大)

토론: 임기환(서울교대)

11:20-12:00 제2주제

영어권의 고구려사 연구 -고구려에 대한 서구의 일반적 인식을 중심으로-(Mark Byington/미국 Harvard Univ.)

토론: 박경철(강남대)

사회: 우재병(충남대)

13:10-13:50 제3주제

大陸과 海洋을 품은 高句麗 佛教彫刻(양은경/부산대 고고학과)

토론: 최성은(덕성여대)

13:50-14:30 제4주제

남한 내 고구려 유적 유물의 새로운 이해 - 최근 발굴 유적을 중심으로-(백종오/충주대)

토론: 양정석(수원대 사학과)

14:30-15:10 제5주제

아차산 고구려유적의 보존 및 활용방안(최종택/고려대)

토론: 김영관(서울역사박물관)

종합토론

사회: 서영수(단국대)

15:30-17:00 종합토론

▣ 제103회 한국고대사학회 정기발표회

• 일시: 2008년 6월 14일(토) 13:30-18:00

• 장소: 서울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1층 시청각실

• 주제: 고구려사의 제문제

사회: 조법중(우석대)

제1주제: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난 증장기병의 변화와 운용형태(정동민/한국외국어대)

토론: 공석구(한밭대)

제2주제: 661년 무렵의 동아시아 국제정세와 고구려(이성제/동북아역사재단)

토론: 이정빈(육군사관학교)

제3주제: 5세기 중반 - 6세기 중반 물길의 홍망과 고구려 경역의 변화(김락기/인하대)

토론: 김현숙(동북아역사재단)

제4주제: 영양왕대 고구려의 정국동향과 대수관계

발표: 김진한(한국학중앙연구원)

토론: 금경숙(동북아역사재단)

제5주제: 신채호의 고구려사 인식(조인성/경희대)

토론: 전덕재(경주대)

자료소개: '낙랑 대방 명문전 신자료(손환일/한국학중앙연구원)

▣ '동아시아사'교육 국제학술대회

• 주최: 동북아역사재단 ·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 성균관대 동아시아사연구소

• 일시: 2008년 6월 14(토) 10:00~18:00

• 장소: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6층 첨단강의실

인사말: 김용덕(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서중석(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이사장)

사회: 안병우(한신대)

I 부. 동아시아사 인식과 동아시아사 교육

10:00~14:00

사회: 김정인(춘천교대)

1. 한국의 동아시아 인식과 동아시아사 교육(유용태/서울대)

토론: 미야하라 다케오(전 치바대교수, 역사교육자협의회)

2. 일본의 동아시아사 인식과 동아시아사 교육(미야지마 히로시/성균관대)

토론: 연민수(동북아역사재단)

3. 중국의 동아시아사 인식과 동아시아사 교육(런팡/성균관대학교·중국 무한대학)

토론: 윤휘탁(한경대)

II 부. 동아시아사 교재와 동아시아사 수업  
(15:30~18:00)

사회: 이훈(동북아역사재단)

1. 동아시아사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방안(김택민/고려대)

토론: 김유리(전북대)

2. 한국 대학의 동아시아사 교육(김태승/아주대)

토론: 가오밍시(타이완대)

3. 한국 중고교 역사교사들의 동아시아사 교육 인식(황지숙/신림고)

토론: 신주백(국민대)

4. 역사분쟁과 동아시아사 수업(마루하마 에리코/전 중학교 교사)

토론: 박범희(중앙고)

III 부. 종합토론(16:30~18:00)

사회: 김한중(한국교원대)

발표자·토론자

전원·조철수(동북아역사재단)

■ 한국사연구회 제264차 연구발표회

• 일시: 6월 20일(금) 15:00~18:00

• 장소: 대우재단빌딩 8층 제2세미나실

발표 및 토론

1. 16-17세기 양반가 부인의 전담 매매활동(한효정/성신여대)

토론: 김선경(서울대), 이정수(동서대)

2. 백제계통 자료로 본 졸본부여의 동명신화(장용/고려대)

토론: 윤용구(인천시립박물관), 정재윤(공주대)

■ 한국사학사학회 제76회 연구발표회

• 일시: 2008년 6월 28일(토) 오후 14:00~18:00

• 장소: 대우재단빌딩 8층 1세미나실

사회: 곽승훈(목원대)

제1주제

한국사를 이해하는 몇 가지 틀을 모색하면서 -터(field&mulki-core) 이론의 제기-(윤명철/동국대)

토론자: 임상우(서강대)

제2주제

고구려에 대한 중국 정사의 이중인식 문제 연구 -남북조시대를 중심으로-(이정자/한중연)

토론자: 서영수(단국대)

■ 7월 학술발표

■ 동북아역사재단 국제학술회의

발해와 동아시아 국제학술회의

• 일시: 2008년 7월 2일(수)-7월 3일(목)

•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

• 주최: 동북아역사재단

1부: 각국의 발해 유적 발굴 전개와 성격

오전발표

사회: 임상선(동북아역사재단)

09:30-11:30

한국과 연해주, 발해(송기호/서울대학교)

토론: 송의정(국립중앙박물관)  
 11:30-12:30  
 북한의 발해유적과 성격(한규철/경성대학교)  
 토론: 이병건(동원대학교)  
 12:30-13:30  
 최근 연구성과로 본 연해주 발해국의 경제(A. 이블리에프/러시아 극동 역사고고 민속학연구소)  
 토론: 김동우(국립중앙박물관)  
 오후발표  
 사회: 신대곤(국립중앙박물관)  
 14:30-15:30  
 일본의 발해유적 현황과 日本道(윤재운/동북아역사재단)  
 토론: 이용현(국립부여박물관)  
 15:30-16:30  
 중국의 발해유적 발굴-해석과 이해(全仁學/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박물관)  
 토론: 김진광(한국학중앙연구원)  
 16:30-17:30  
 동북아와 몽골의 문화교류 - 10~11세기(A. Ochir/몽골 국제유목문명연구소)  
 토론: 윤형원(국립중앙박물관)  
 2부: 발해 고고학의 제양상  
 오전발표  
 사회: 신희권(국립문화재연구소)  
 09:00-10:00  
 발해시기 아무르문화와 연해주(홍형우/국립문화재연구소)  
 토론: 양시은(서울대학교 박물관)  
 10:00-11:00  
 러시아 끄라스끼노 성지에 대한 고고학 조사 성과와 과제(V. 볼딘/러시아 극동 역사고고민속학 연구소)  
 토론: 임석규(日本 武蔵野美術大學)  
 11:00-12:00

환일본해(동해) 교류사에서 발해와 일본 교류의 평가(小嶋芳孝/日本 金澤學院大學)  
 토론: 박진숙(국가기록원)  
 오후발표  
 사회: 한규철(경성대학교)  
 13:30-14:30  
 연해주의 발해 기층 문화(강인욱/부경대학교)  
 토론: 박경철(강남대학교)  
 14:30-15:30  
 발해 성의 고구려적 요소(임상선/동북아역사재단)  
 토론: 양정석(수원대학교)  
 15:30-16:30  
 끄라스끼노성 북서지구 발굴의 전개와 전망(김은국/동북아역사재단)  
 토론: 장정룡(강릉대학교)  
 ■ 경기도 고구려 유적 보존과 정비에 위한 심포지엄  
 • 일시: 2008년 7월 10일(목) 13:00  
 • 장소: 경기문화재단 3층 다산홀  
 • 주최: 경기도·경기문화재단  
 • 후원: 문화재청·동북아역사재단  
 13:00-13:10 등록  
 13:10-13:30 개회식  
 3:30-14:00 주제발표  
 사회: 윤한택  
 제1주제  
 고구려 유적의 보고(寶庫)경기도 (백종오)  
 제2주제  
 한강유역 고구려유적 정비와 활용 (최종택)  
 제3주제  
 양주지역 고구려유적 정비계획 (최종규)  
 16:00-17:30 종합토론  
 사회: 임기환  
 토론: 심광주  
 서영일

황평우  
김성태  
정계욱  
이성제

■ 대한민국 건국 60년 기념 학술회의

- 일시: 2008년 7월 11일(금) 10:00-17:00
  - 장소: 한국언론재단 20층 국제회의장
  - 주최: 국사편찬위원회·동아일보
  - 후원: 대한민국 건국60년 기념사업위원회
- 10:00-10:30 개회식  
개회사: 정옥자(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축사: 김진현(대한민국 건국 60년 기념사업위원회 집행위원장)  
사회: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
- 10:30-11:50 기조발표  
사회: 박찬승(한양대학교 교수)
1. 대한민국 건국 60년의 인과적 이해(한영우/이화여자대학교 석좌교수)
  2. 국제정치의 전개와 대한민국의 건국(김학준/동아일보 회장)
- 13:30-15:30 발표 및 토론
3. 건국, 1948년 체제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박찬표/목포대 교수)  
토론: 이완범(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4. 경제 성장, 그 빛과 그림자(조석곤/상지대 교수)  
토론: 김성보(연세대 교수)
  5. 냉전에서 탈냉전, 전쟁에서 평화로(정창현/국민대 겸임교수)  
토론: 김광운(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 16:00-17:00 종합토론
6. 종합토론  
발표자 토론자 8인
- 제10회 한국고대사학회 하계 세미나
- 주제: 민족주의 사학과 한국고대사연구
  - 일시: 2008년 7월 24(목)-25(금)

- 장소: 동학산장
  - 7월 24일 목요일
- 12:30-1:00 등록  
1:00-1:10 개회  
회장인사: 김수태(충남대)
- 제1부: 한국고대사연구 100년  
사회: 이영호(경북대)
- 1:10-2:10  
기조발제: 한국고대사연구 100년(노태돈/서울대)  
토론: 박찬승(한양대)
- 제2부: 근대 민족국가와 한국고대사 연구  
사회: 김창석(강원대)
- 2:30-3:30  
한국 고대사의 계보학(김기봉/경기대)  
토론: 윤선태(동국대)
- 3:30-4:30  
탈민족주의론적 역사해석에 대한 검토(강종훈/대구가톨릭대)  
토론: 하일식(연세대)
- 4:30-5:30  
국사교과서 고대사 서술에 보이는 민족과 국가 인식의 변천(양정현/부산대)  
토론: 이인재(연세대)
- 제3부 민족주의 역사학의 재인식  
사회: 박남수(국사편찬위원회)
- 18:30-19:30  
고고학 자료의 역사학적 해석에 대한 비판적 고찰(김종일/서울대)  
토론: 강봉원(경주대)
- 7:30-8:30 근대 역사학으로서의 민족주의 역사학(윤해동/성균관대)  
토론: 조인성(경희대)
- 20:30-21:30  
일본의 신민족주의 역사학과 강요된 '애국심' 만

듣기(이규수/성균관대)

토론: 송완범(고려대)

■ 7월 25일 금요일

4부: 종합토론(9:00-13:30)

좌장: 주보돈(경북대)

참여자: 발표자 및 토론자 전원

노중국(계명대)

박환무(성공회대)

14:30 폐회

■ 공동역사교과서 학술세미나

유럽과 동아시아의 공동교과서 편찬과 전망

일시: 2008년 7월 28일(월) 10:00-18:00

장소: 동북아역사재단 대회의실

10:00-10:30 등록

사회: 이훈(동북아역사재단)

10:30-10:50 개회사

김용덕((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10:50-12:10 제1부

사회: 서현주(동북아역사재단)

10:50-11:30

1. 폴란드·독일 공동역사교과서: 역사화해를 향한 또 하나의 도전(한운석/고려대)

토론: 김용덕(한국외대)

11:30-12:10

2. 역사의 국경을 넘다: 독일·프랑스 공동역사교과서(김승렬/경상대)

토론: 하종문(한신대)

13:10-16:00 제2부

사회: 김민규(동북아역사재단)

13:10-13:50

3. 일한관계를 둘러싼 역사교과서 내용의 과제(우메노 마사노부/조에츠교육대학)

토론: 김은숙(한국교원대)

13:50-14:30

4. 한일공동교재 개발의 성과와 과제-(마주보는

한일사)를 중심으로-(박범희/중앙고)

토론: 김정인(춘천교대)

14:30-15:20

5. 한일역사공동교재<한일교류의 역사>의 성과와 의의(정재정/서울시립대)

토론: 구태훈(성균관대)

15:20-16:00

6. 한중일 공동역사교재 개발의 경험과 과제(김한중/한국교원대)

토론: 주진오(상명대)

16:20-18:00

제3부: 종합토론

사회: 안병우(한신대)

토론자 전원

■ 8월 학술발표

■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제3회 미귀환 학술회의

해방 후 해외 한인의 희생과 미귀환

• 일시: 2008년 8월 7일(목) 11:00-18:00

• 장소: 국민대학교 본관 3층 학술회의실

• 주최: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 후원: 한국학술진흥재단, 국민대학교

개회사: 장석홍(한국학연구소 소장)

사회: 김도형(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1:10-11:40 제1주제

사할린 한인의 희생과 미귀환(여성구/국민대)

11:40-12:10 제2주제

구소련 지역 미귀환 한인의 법적 제문제(최계수/국민대)

12:10-12:40 제3주제

해방 직후 북만주 지역 한인의 동향 -인민신보를 중심으로-(채영국/국민대)

14:00-14:30 제4주제

해방 후 중국 동북지방 한인의 미귀환과 연변(염인호/서울시립대)

14:30-15:00 제5주제

중국지역 미귀환 한인의 삶의 형태 분석(김승일/국민대)

15:00-15:30 제6주제

軍과 귀환, 미귀환(신주백/국민대)

15:30-16:00 제7주제

점령기 일본정부에 있어서의 재일조선인 대책의 검토 -1948년전반~1949년초를 중심으로-(미야모토 마사유키/세계인권문제연구소)

16:20-18:00 종합토론

사회: 장석홍(한국학연구소 소장)

토론: 김도형(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김영택(국민대)

류미나(국민대)

장세윤(동북아역사재단)

조용욱(국민대)

황선익(국민대)

■ 광복63주년 및 독립기념관 개관 21주년기념 학술심포지엄

대주제: 한국 근대 역사학 100년의 성찰과 모색

• 일시: 2008년 8월 12일 10:00-17:20

•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20층)

• 주최: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

• 후원: 국가보훈처

개회사 및 축사 10:00-10:40

개회식

사회: 김용달(수석연구원)

개회사: 김주현(독립기념관 관장)

축사: 김 양(국가보훈처 처장)

제4회 독립기념관 학술상 시상식

오전 주제발표 10:50-12:30

기조발표: 한국 근대 역사학의 성찰(이만열/숙명여대 명예교수)

제1주제: 중국 근대와 역사학(백영서/연세대 교수)

오후 주제발표 13:50-15:40

제2주제: 서양 근대와 역사학(곽차섭/부산대 교수)

제3주제: 한국 독립운동과 역사학(김기승/순천향대 교수)

종합토론 16:00-17:20

좌장: 한시준(단국대 교수)

토론자: 배경한(신라대 교수)

허동현(경희대 교수)

김기봉(경기대 교수)

장석홍(국민대 교수)

■ 대한민국 건국60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주제: 각 국 교과서와 매체에 나타나는 한국관련 서술의 변화

• 일시: 2008년 8월 13일(수) 10:30-17:00

• 장소: 서머셋펠리스 서울 2층 세미나룸

• 주최: 한국학중앙연구원

• 후원: 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

10:30-10:50

개회사: 김정배(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10:50-11:20

기조강연: 최서면(국제한국연구원 원장)

11:30-12:30 일본

발표: 다와라 요시후미(어린이와 교과서네트워크 21 사무국장)

후쿠하라 유지(시마네현립대학교)

논평: 이신철(성균관대학교)

이완범(한국학중앙연구원)

14:00-14:30 중국

발표: 첸상성(산둥대학교)

논평: 김지훈(성균관대학교)

14:30-15:00 미국

발표: 마크 피터슨(브리검영대학교)

논평: 양영균(한국학중앙연구원)

15:00-15:30 독일

발표: 베르너 사세(한양대학교)

논평: 김한중(한국교원대학교)  
 15:50~16:20 러시아  
 발표: 세르게이 쿠르바노프(상트페테르부르크대 학교 교수)  
 논평: 김득중(국사편찬위원회)  
 16:20~16:50 호주  
 발표: 서중석(뉴사우스웨일즈대학교)  
 논평: 장세윤(동북아역사재단)

■ 2008년도 한국-베트남 역사학 심포지엄

베트남 - 한국의 동아시아세계 인식과 교류  
 • 일시: 2008년 8월 19일(화) 09:30~18:00  
 • 장소: 동북아역사재단 11층 대회의실  
 • 공동주최: 한국 역사학회, 동북아역사재단  
 • 협찬: 한베재단  
 09:00~09:30 등록  
 09:30~10:00 개막 축사  
 사회: 이근명(한국외국어대 교수)  
 조병한(한국 역사학회 회장)  
 판 후이 레(베트남 역사학회 회장)  
 김용덕(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 논문발표

오전(Session I)  
 사회: 유인선(전 서울대 교수)  
 10:00~10:30  
 동남아-동북아 관계 속에서의 베트남(판 후이 레/베트남 역사학회 회장)  
 토론: 최갑순(한국외국어대 교수)  
 10:30~11:00  
 청말 해방체제와 중월 조공관계의 변화(조병한/한국 역사학회 회장)  
 토론: 즈엉 쩌엥 꾸옥(베트남 역사학회)  
 11:20~11:50  
 일제 침략기 한국인의 베트남 인식(한상도/건국대 교수)  
 토론: 딩 쉰언 림(베트남 국립대, 하노이)

11:50~12:20  
 유교사상에 따른 농촌사회 관리: 베트남-한국 비교(응우옌 팡 응옥/베트남 국립대, 하노이)  
 토론: 한도현(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오후(Session II)  
 사회: 응우옌 팡 응옥(베트남 국립대, 하노이)  
 14:00~14:30  
 조선후기의 외국인식 -17세기 전반 구라파·안남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조성을/아주대 교수)  
 토론: 다오 더 흥(베트남 역사학회)  
 14:30~15:00  
 16-18세기 동아시아 각국의 교역 관계(응우옌 반 킴/베트남 국립대, 하노이)  
 토론: 신동규(강원대 연구원)  
 15:20~15:50  
 이수광의 베트남, 1597-1598(최병욱/인하대 교수)  
 토론: 도 방(베트남 역사학회)  
 15:50~16:20  
 1760년 중국 북경에서의 베트남 사신 레 귀 돈(黎貴惇)과 조선 사신 홍개희·조영진·이휘중과의 교류(응우옌 밍 뜨엥/베트남 역사학회)  
 토론: 조성산(고려대 연구교수)

■ 신라사학회 제75차 학술발표회

• 일시: 2008년 8월 23일(토) 13:30~18:00  
 • 장소: 서강대 마태오관(M관) 502호  
 사회: 장일규(국민대)  
 주제1: 신라 서원소경 설치의 역사적 배경(김영관/청계천문화관)  
 토론: 장창은(국민대)  
 주제2: 신라 하대 도당유학생 재검토(조병환/서강대)  
 토론: 정병준(동국대)  
 주제3: 석가탑 출토 고문서의 문헌학적 검토(안승준/한국학중앙연구원)

토론: 조경철(한국학중앙연구원)

■ 9월 학술발표

▣ 동북아역사재단·북경대학 공동 학술회의

동북아 관계사의 성격

- 일시: 2008년 9월 4일-5일
- 장소: 동북아역사재단 대회의실
- 주최: 동북아역사재단·북경대학

9월 4일(목)

09:00-09:30 등록

09:30-09:40 개회사

김용택(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09:40-09:50 축사

牛大勇(北京大學 歷史學系 主任)

사회: 고헌의(동북아역사재단)

10:00-12:30 세션 1

사회자: 금경숙(동북아역사재단)

『三國志』 『魏志 東夷傳』 에 나타난 세계관 - 중국  
古代帝國과 東夷 諸國의 공존 문제(정하현/공주  
대학교)

토론: 羅新(北京大學)

고구려 兄系 관직의 내륙아시아 연원(羅新/北京  
大學)

토론: 김현숙(동북아역사재단)

白村江 싸움과 동북아 국제관계의 변화(김현구/  
고려대학교)

토론: 宋成有(北京大學)

13:30-18:00 세션 2

사회: 牛大勇(北京大學)

唐代 西安지역의 장례형식으로 본 발해 정혜공주  
와 정효공주 무덤(李志生/北京大學)

토론: 임상선(동북아역사재단)

고려와 遼·金·元 관계사의 특징(김당택/전남대  
학교)

토론: 黨寶海(北京大學)

八旗滿洲의 高麗 家族과 淸初의 전쟁(徐凱/北京

大學)

토론: 노기식(동북아역사재단)

論《至正條格》在東亞法制史上的地位(黨寶海/北  
京大學)

토론: 이개석(경북대학교)

조선 중화주의에서 한청조약까지 - 근대적 한중  
관계의 성립(이태진/서울대학교)

토론: 王元周(北京大學)

9월 5일(금)

09:00-10:45 세션 3

사회: 宋成有(北京大學)

20세기 초 한중간의 상호인식 - 孫文의 한국 인식  
과 한국인의 孫文인식을 중심으로(배경한/신라대  
학교)

토론: 牛大勇(北京大學)

근대 한중관계 변천의 이상과 현실 - 한국인의  
중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역사적 근원(王元周  
/北京大學)

토론: 박경석(동북아역사재단)

11:00-12:30 종합토론

사회: 차용환(동북아역사재단)

12:30 폐회

▣ 제23회 규장각 콜로키엄

• 일시: 2008년 9월 24일(수) 16:00

• 장소: 규장각 2층 회의실(103동 209호)

조선 특사의 후금 방문과 明秩序의 균열(계승범/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 한국예술종합학교 트랜스아시아 영상문화 연구소 아카  
데미

• 일시: 2008. 9. 24-11.19 매주 수요일 저녁 19:00

• 장소: 한예중 영상원 L245호

• 제목: 1930년대 동아시아 영화와 문화정치  
9/24: 1930년대 일본의 문화정치(임성모/연세대)  
10/ 1 영화와 자본주의: 1930년대 일본 영화(얼잭  
슨/고려대)

- 10/15 1930년대 일본 영화의 내셔널리즘과 모더니즘(강태웅/광운대)
- 10/22 1930년대 조선에서의 문화 기획. 백일몽과 악몽의 교차로(권명아/동아대)
- 10/29 1930년대 중국 영화 속의 공포와 도망(박병원/한예중)
- 11/ 5 1930년대 상하이 영화, 중국영화의 탄생(임대근/한국외대)
- 11/12 낯선 기사감: 자본이라는 한 조건, 혹은 상황에 대해(전민성/한예중)
- 11/19 신일선의 고백: 1930년대 조선영화의 혼합시대(김소영/한예중)
- ▣ 동북아역사재단 창립 2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 주제: 근대 변경의 형성과 변경민의 삶
  - 일시: 2008년 9월 25일 - 26일
  -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 9월 25일(목)
- 09:00-09:30 등록
- 09:30-09:40 개회사
- 김용덕(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 09:40-12:10 제1부
- 사회: 배성준(동북아역사재단)
- 18-19세기 조·청 국경 의식(李花子/中國社會科學院 歷史研究所)
- 토론: 배우성(서울시립대학교)
- 19세기 중엽 盛京 東邊外 山場의 관리와 조·청 公同會哨(구범진/서울대학교)
- 토론: 김현영(국사편찬위원회)
- 대한제국 간도정책 추진의 구조와 성격(은정태/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 토론: 강상규(한국방송통신대학교)
- 13:30-15:10 제2부
- 사회: 노기식(동북아역사재단)
- 간도협약 체결 전후 북간도지역 한인사회(金春善/延邊大學)
- 토론: 장세윤(동북아역사재단)
- 1880-1920년대 연해주 한인과 국경수비 문제(알렉산더 페트로프/극동러시아과학원 역사고고민속학연구소)
- 토론: 김원수(서울교육대학교)
- 15:30-18:00 제3부
- 사회: 노기식(동북아역사재단)
- 화이질서하의 境界지역과 국제법적 국경(아키즈키 노조미/明治學院大學)
- 토론: 서민교(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 1880년대 조·청 감계협상과 국경문제 인식(고승희/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토론: 하원호(동국대 대외교류연구원)
- 제국주의 열강의 만주정책과 간도협약(최덕규/동북아역사재단)
- 토론: 이성환(계명대학교)
- 9월 26일(금)
- 09:30-12:30 제4부
- 주제토론: “변경문제 연구의 현황과 과제”
- 사회: 이성환(계명대학교)
- 참가자: 각 부 발표자, 토론자 및 초청자
- ▣ 신라사학회 제76차 학술발표회
- 일시: 2008년 9월 27일(토) 14:00-18:00
  - 장소: 서강대 마태오관(M관) 402호
- 사회: 장일규(국민대)
- 주제 1: ‘일본서기’ 임나관계 기사에 나타난 중화사상의 영향(이정자/한국학중앙연구원)
- 토론: 이용현(국립부여박물관)
- 주제 2: 통일신라시대 범종에 표현된 천인상 연구(최선일/인천국제공항 문화재감정실)
- 토론: 이송란(인천국제공항 문화재감정실)
- ▣ 한국사학사학회 제77회 연구발표회
- 일시: 2008년 9월 27일(토) 14:00-18:00
  - 장소: 대우재단빌딩 8층 1세미나실
  - 주제: 한원 번이부 삼한전에 나타난 찬자의 삼

한 인식(김병곤/동국대)

토론: 김기섭(서울역사박물관)

나의 역사연구(이성무/한중연 명예교수)

▣ '기억의 차이와 화해' 국제학술회의

• 주제: 2차세계대전에 대한 한·미·중·일 역사 교과서의 서술 비교

• 시간: 2008년 9월 29일(월) 9:15-18:00

• 장소: 동북아역사재단 대회의실

• 공동주최: 동북아역사재단, 스탠포드대 쇼렌쉬 타인 아·태 연구소

09:15-09:30 등록

09:30-09:40 개회사

김용덕(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09:40-11:40 패널 I

기억의 차이와 화해: 교과서의 경우

사회: 정만영(실장, 동북아역사재단)

- 역사교과서, 기억의 차이와 화해(신기욱/스탠포드대학교)

- 전쟁에 대한 기억들(피터 두스/스탠포드대학교)

- 서술의 전쟁: 역사교과서와 동북아 국제관계(대니얼 스나이더/스탠포드대학교)

13:00-15:30 패널 II

한국과 일본의 교과서 사이의 차이점과 공통점

사회: 김민규(동북아역사재단)

- 20세기 동아시아의 주요 사건에 대한 일본교과서의 서술 분석(토마즈 하루오/타마가와대학)

- 한국과 일본의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한국전쟁에 대한 인식 분석(박태균/동북아역사재단)

- 일본에서의 역사교과서 집필(미마니 히로시/동경대학)

- 일제강점기와 2차대전에 대한 한국 역사교과서의 서술(정재정/시립대학교)

패널 III

한국과 중국의 교과서 사이의 차이점과 공통점

사회: 차용환(동북아역사재단)

- 중국 고등학교 교과서에서의 전쟁들에 대한 서술(리웨이키/중국인민교육출판사)

- 중국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한국 현대사 서술(장세운/동북아역사재단)

- 2차세계대전과 항일전쟁에 대한 중국 교과서의 서술(김지훈/성균관대학교)

▣ 10월 학술발표

▣ 백제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국제학술회의

백제문화의 국제교류사

• 일시: 2008년 10월 6일-7일(2일간)

• 장소: 공주대학교 백제교육문화관

• 주최: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 주관: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한국전통문화학교

• 후원: 대전일보, 백제학회

- 10월 6일 월요일

개회식

사회: 이 훈(충남역사문화연구원)

13:00-14:00 참가자 등록

14:00-14:02 국민의례

14:02-14:20

개회사: 변평섭(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

치사: 이완구(충남도지사)

환영사: 최석원(백제문화제추진위원장)

14:20-14:50

기조발표: 백제문화의 교류와 국제성(양기석/충북대 교수, 백제학회 회장)

제1부 주제발표

사회: 이 훈(충남역사문화연구원)

15:20-16:00 주제발표·토론(1)

백제 문화 교류의 국제성과 고대동북아시아공유 문화권의 형성(노중국/계명대)

토론: 정재윤(공주대)

16:00-16:50 주제발표·토론(2)

백제의 문물교류 양상에 대한 유형화 시론(권오영/한신대)

토론: 王志高(남경시립박물관)

17:00-17:50 주제발표·토론(3)

동북아 6-7세기 불교조각사에 있어서 백제 조각의 의미(김춘실/충북대)

토론: 이송란(문화재청)

■ 10월 7일 화요일

제2부 주제발표

사회: 서정석(공주대)

09:00-09:50 주제발표·토론(4)

백제의 對梁外交 - 특히 512년의 견사를 중심으로 - (田中俊明/시가현립대)

토론: 강중원(충남역사문화연구원)

09:50-10:40 주제발표·토론(5)

고고자료를 통해 본 백제와 중국 남·북조의 문화교류(楊泓/중국사회과학원)

토론: 박순발(충남대)

11:00-11:50 주제발표·토론(6)

宗像·沖ノ島[오키노시마]의 고대 제사와 호족  
발표: 西谷 正(구주대 명예교수)

토론: 우재병(충남대)

11:50-12:40 주제발표·토론(7)

백제와 동남아시아 제국과의 교류(이도학(한국전통문화학교))

토론: 周裕興(남경사범대)

13:50-14:40 주제발표·토론(8)

일본속의 백제 종교-일본 왕실의 백제신 제사  
고찰-(홍윤기/도정책특보)

토론: 하정룡(한국한의학연구원)

14:50-15:40 주제발표·토론(9)

백제문화를 통한 21세기의 국제교류(윤용혁/공주대 교수)

토론: 김기섭(서울역사박물관)

16:00-18:00 종합토론

좌장: 이남석(공주대 교수)

18:00 폐 회

■ 제104회 한국고대사학회 정기발표회 안내

• 일시: 2008년 10월 11일(토) 13:30 - 18:00

• 장소: 서울교육대학 인문관 1층 시청각교육실

사회: 김창석(강원대)

제1주제

삼국사기 백제본기 대외관계 기사의 검토-지명  
관련 기사를 중심으로-(임기환/서울교대)

토론: 김영관(서울역사박물관)

제2주제

4세기 고구려의 낙랑대방 경영과 중국계 망명인의  
정체성 인식

발표자: 여호규(한국외국어대)

토론자: 김현숙(동북아역사재단)

제3주제

6-7세기 전쟁의 확대와 신라인의 생사관(나희라/  
진주산업대)

토론: 김정숙(영남대)

제4주제

신라 애장왕대 정치개혁과 그 성격(최홍조/경  
북대)

토론: 송은일(전남대)

■ 제2회 동아시아지역학세미나

• 주제: 일본의 식민지전쟁과 인천

• 일시: 2008. 10. 16(목) 14:00-07:30

• 장소: 인천대 학산도서관 1층 세미나실

■ 개회식(14:00-14:20)

개회선언 및 내빈소개

개회사: 인천학연구원장

환영사: 인천대학교총장

■ 기조강연(14:20-14:50)

북핵문제와 조일관계의 정상화(姜龍範/중국 연변  
대 인문사회과학학원)

■ 주제발표 및 토론(14:50-17:00)

사회: 이재석(인천대)

제1주제

『조선통상삼관무역책』으로 본 개항초기 인천의 대외무역(李勇植/중국 연변대)

토론: 송구진(고려대)

제2주제

일제시기 朝鮮機械製作所의 설립과 경영(1937-1945)(배석만/일본 동경대)

토론: 김영수(일본 동경대)

제3주제

일제 말기(1937-1945년) 인천지역의 공업현황과 노동자 존재형태(이병례/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토론: 쉐쑹(중국 연변대)

■ 질의 및 사회자 요약정리(17:00-17:25)

■ 폐회식(17:25-17:30)

□ 제1회 규장각 한국학 국제심포지엄

• 주제: 이념과 제도의 교류: 세계 속의 한국, 한국 속의 세계

• 일시: 2008년 10월 16-17일

• 장소: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강당 및 신양인문학술정보관

□ 프로그램

10월 15일

도착 및 환영만찬(18:00-) 호암교수회관 릴리움

10월 16일

■ 등록(9:00-9:30) 및 개회식(9:30-9:50) 규장각 강당

축사(이장무 서울대 총장)

환영사(김영식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장)

■ 기조강연(10:00-12:00) 규장각 강당

제1강연(10:00-10:50)

제임스 팔레, 그의 비판자와 동조자(도이힐러/Martina Deuchler, SOAS)

제2강연(11:00-11:50)

선비 문화의 역사적 전개와 미래(한영우/이화여대)

■ 제1세션, (13:30-18:00) 신양관 국제회의실

사회: 노명호(서울대) 신양관 국제회의실

• 주제: 고구려사 자료와 그 해석

1. 주몽전설과 고구려의 기원(노태돈/서울대)

2. 발해 쪽구들의 유래와 특징(송기호/서울대)

3. 고구려 성곽 축조방식에 대한 연구(양시은/서울대 박물관)

4. <광개토왕릉비>에 나타난 고구려 천하의 공간 범위와 주변 족속에 대한 인식(여호규/한국의국어대)

5. <광개토왕릉비>에 대한 새로운 접근: 찬사의 성격을 중심으로(Pankaj Mohan/The University of Sydney)

토론: 서영대(인하대)

최종택(고려대)

장은정(국립중앙박물관)

김현숙(동북아역사재단)

신종원(한중연)

■ 제2세션(13:30 - 18:00) 신양관 세미나실3

사회: 김명호(성균관대) 신양관 세미나실3

• 주제: 문헌교류와 지식의 소통

1. 고려본 「효행록」(孝行錄)과 「이십사효」(二十四孝)(김문경/京都大)

2. 조선후기 중국에 전해진 조선의 한시(이종묵/서울대)

3. 19세기 상주파(常州派) 후계문인과 조선 문인의 교류(이춘희/長春理工大學)

4. 19세기 초 조선 문인들의 소동과 관련 서화 수집과 자아(신지원/U.C. Berkeley)

5. 모리스 꾸랑의 Répertoire historique de l'administration coréenne(韓國官職歷代總覽, 1891)의 편찬과정에 관한 연구(Yannick Bruneton/파리 7대학)

토론: 옥영정(한중연)

박현규(순천향대)

정우봉(고려대)

안대회(성균관대)

김문식(단국대)

(10월 17일)

■ 제3세션(9:00 - 13:00) 신양관 국제회의실

사회: 김태웅(서울대) 신양관 국제회의실

• 주제: 근대와 민족을 넘어서: 현대사 다시 보기

1. 한국 경제개발 인식의 특징과 한계(김정주/경상대학교)

2. 언어의 주권: 김수영 시의 정치적 상상력(이영준/하버드 대학)

3. 근대의 틀을 넘어서: 공개념의 문제(박태균/서울대)

4. 북한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 지역학으로서의 북한학(Charles Armstrong/콜롬비아대)

5. 동아시아 지역사를 위하여: 전망과 문제(미타니 히로시/도쿄대)

토론: 조석곤(상지대)

박성창(서울대)

박상진(부산외국어대학교)

김정일(한중연)

김정일(북경대)

마이클 김(연세대)

■ 제4세션(9:00 - 13:00) 신양관 세미나실3

사회: 박수진(서울대) 신양관 세미나실3

• 주제: 한국 문화에서의 풍수의 역할

1. 한국의 풍수비보사상에 대하여(윤홍기/University of Auckland)

2. 한국의 풍수 지도(地圖)와 자연의 자율성(David J. Nemeth/University of Toledo)

3. 한국에서 전개된 풍수와 불교의 교섭(최원석/경상대)

4. 조선시대 유가 지식인들의 풍수 담론(이화/서울대)

울대)

토론: David J. Nemeth(University of Toledo)

최인실(University of Auckland)

윤홍기(University of Auckland)

최원석(경상대)

■ 전체회의(14:00-18:30) 신양관 국제회의실

사회: 정근식(규장각한국학연구원 부원장) 신양관 국제회의실

• 주제: 제임스 팔레, 그의 비판자와 동조자

1. 연속성인가 장기지속성인가 급진적 변화인가?(John Duncan/UCLA)

2. 조선은 노예제 사회였는가?(이영훈/서울대)

3. 제임스 팔레의 유형원 연구와 그 특징(정호훈/연세대)

4. 제임스 팔레와 미국 및 캐나다에서의 한국학 연구: 북미주의 시좌에서(Donald Baker/UBC)

5. '조선 중기'를 바라보는 두 개의 관점? 한국과 미국 역사학계의 비교(김성우/대구한의대)

토론: 조성을(아주대)

계승범(고려대)

손철배(성균관대)

한홍구(성공회대)

Milan Hejtmanek(성균관대)

■ 독립기념관 제247회 월례연구발표회

• 일시: 2008년 10월 21일(화) 15:00-18:00

• 장소: 국가보훈처 9층 회의실

사회: 이재호(국가보훈처 연구원)

제1주제

만주지역 독립운동단체의 군자금 모금활동(김주용/본연구소 연구원)

토론: 황민호(숭실대 교수)

제2주제

통감부의 간도파출소 설치와 간도문제의 추이(오병한/국가보훈처 연구원)

토론: 박민영(본연구소 선임연구원)

제3주제

「홍범도 일지」 판본 검토와 쟁점(반병률/한국의  
국어대 교수)

토론: 자유토론

■ 第35回 東아시아 古代學會 學術發表大會 및 定期總會

- 日時: 2008年 10月 24日(金)~25(土)
- 場所: 京畿大學校 수원캠퍼스 본관 7층 세미나실
- 企劃主題: 東아시아 歷史認識의 重層性

- 國境과 歷史의 境界를 넘어 -

10月 24日(金): 東아시아人의 歷史認識

09:00-09:40 接受 및 登錄

09:40-10:00 開會辭(尹永水 學會 會長)

司會: 尹勝俊(檀國大)

祝辭: 李太一(京畿大學校 總長)

〈第1部〉 司會: 羅幸柱(建國大)

10:00-11:00

第1主題

金春秋의 多面的 歷史認識과 實用路線(宋浣範/高麗大)

討論: 趙景徹(延世大)

11:00-12:00

第2主題

日本の 東洋史學者 內藤湖南의 歷史認識(辛炫承/成均館大)

討論: 韓京子(德誠女大)

〈第2部〉 司會: 徐永大(仁荷大)

13:00-14:00

第3主題

張保臯와 圓仁(圓仁)의 歷史認識(李侑珍/崇實大)

討論: 曹凡煥(西江大)

14:00-15:00

第4主題

崔南善의 歷史認識(全成坤/高麗大)

討論: 李英華(韓國學中央研究院)

〈第3部〉 司會: 姜錫元(東國大)

15:00-16:00

第5主題

柿本人麻呂 작품 속에 나타난 歷史認識(尹永水/京畿大)

討論: 朴正義(圓光大)

16:00-17:00

第6主題

本居宣長の 歷史認識(고희탁/延世大)

討論: 山口和男(長安大)

10月 25日(土): 歷史의 시작으로서의 神話

09:30-10:00 接受 및 登錄

〈第4部〉 司會: 宣釘奎(高麗大)

10:00-11:00

第7主題

神話와 歷史가 만나는 方式(趙顯高/서울大)

討論: 崔元午(建國大)

11:00-12:00

第8主題

建國神話에 보이는 歷史認識(矢野尊義/世宗大)

討論: 李道學(韓國傳統文化學校)

〈第5部〉 司會: 李明賢(中央大)

13:00-14:00

第9主題

中國神話에 보이는 歷史認識(鄭燦學/延世大)

討論: 洪允姬(延世大)

14:00-15:00

第10主題

日本神話에 보이는 歷史認識(金和經/嶺南大)

討論: 李權熙(檀國大)

15:00-16:00

第11主題

韓國神話에 보이는 歷史認識(羅景洙/全南大)

討論: 李志暎(梨花女大)

16:00-16:30

總評 및 閉會辭: 蘇在英(本學會 顧問, 崇實大 名譽

教授)

■ 고조선학회 제1회 정기 학술회의

- 일시: 2008년 10월 25일, 오후 1시
- 장소: 상명대학교 밀레니엄관 401호
- 대주제: 고조선탐색  
사 회: 서영대(인하대학교 사학과 교수)  
인사말: 윤내현 학회장
- 1부  
전통시대 단군묘 인식(김성환/실학박물관)  
고조선 국가의 형성과정(신용하/이화여자대학교)
- 2부  
고조선 이전 시기 한반도와 만주지역 복식유물의  
문화성격(박선희/상명대학교 사학과)  
단군신화로 본 고조선 문화의 기원 재인식(임재  
해/안동대학교)

종합토론: 김위현

- 이성규
- 하문식
- 강동민
- 김경희
- 이도상
- 복기대
- 기수연
- 윤명철 외 참석자 전원

■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 인문한국(HK) 동아시아한국학연구단 학술회
- 주제: 조선과 동아시아, 그 만남의 자취
- 일시: 2008년 10월 30일(목)
- 장소: 인하대학교 정석학술정보관 6층 국제회  
의실
- 주최: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인문한국(HK)  
동아시아한국학연구단, BK21 동아시아한  
국학 교육 연구 및 네트워크 사업단

• 후원: 한국학술진흥재단

■ 개회식(10:00-10:30)

- 사회: 육상효(인하대)
- 개회사: 이영호(인하대 한국학연구소장)
- 축사: 고수만(인하대 문과대학장)

■ 1부: 생활세계 속의 대륙(10:30-12:30)

- 사회: 육상효(인하대)
- 滿洲로 귀화한 조선인들 - 조선후기 '親淸派'의  
형성 - (우경섭/인하대)
- 조선인의 越境 採蔘과 後金의 대응(김선민/성균  
관대)
- 18세기 한양의 책거간꾼 과 중국본 서적의 유통  
(김영진/계명대)
- 1860년대의 滿洲와 越境人의 삶 - 江北日記를 중  
심으로 - (배우성/서울시립대)

■ 2부: 바다를 넘어선 접촉(13:30-15:30)

- 사회: 김석희(인하대)
- 조선인 표류민의 일본 체류와 접촉(이훈/동북아  
역사재단)
- 朝鮮通信使와 日本儒醫 龜井南冥의 만남 - 조선  
인의 눈에 비친 江戸時代 지식의 지형 - (김호/경  
인교대)
- 18세기 후반 朝鮮과 西山(西山) 王朝 使節團  
交流의 일측면 - 副使 徐浩修와 베트남 使臣들과  
의 '交遊' 양상을 중심으로 - (윤대영/인하대)
- 동아시아에 떠도는 金玉均 서사(이희환/인하대)

■ 종합토론(15:50-18:00)

- 좌장: 이준갑(인하대)
- 논평: 한명기(명지대)
- 송미령(전북대)
- 최병욱(인하대)
- 황호덕(성균관대)
- 김태년(인하대)

■ 폐회식 및 만찬(18:00-)

○ 연구 및 출간

◎ 도서

번호	저자명	서 명	출판사	연 도
1	(사)고구려연구회 편	동북공정과 한국학계의 대응논리	여유당	2008.7
2	강덕상 저, 김광열 역	여운형 평전 1 - 중국 일본에서 펼친 독립운동	역사비평사	2007.12
3	고운기	등리와 오렌지	샘터	2008.9
4	귀다순 외 저, 김정열 역	동북문화와 유언문명	동북아역사재단	2008.6
5	구양근	韓中日 三國의 觀念比較 研究	아세아문화사	2008.4
6	국립문화재단연구소	동아시아 쟁기조사	국립문화재단연구소	2007.11
7	권영필 외	중양아시아 속의 고구려인 발자취	동북아역사재단	2008.1
8	권혁수	근대 한중관계사의 재조명	혜안	2007.12
9	김보희	소비에트 고려민족의 노래 - 한민족 노래 연구 1	한울	2008.9
10	김양수 외	조선후기 외교의 주인공들	백산자료원	2008.3
11	김영구	이어도 문제의 해양법적 해결방법	동북아역사재단	2008.2
12	김영남	시조신화연구	제이앤씨	2008.6
13	김용덕, 미야지마 히로시 공편	근대교류사와 상호인식Ⅲ : 1945년 전후	아연출판부	2008.6
14	김용섭	東아시아 역사 속의 한국문명의 전환 - 충격, 대응, 통합의 문명으로	지식산업사	2008.7
15	金俊燁	나와 中國	나남	2008.5
16	김창현	윤관과 묘청 천하를 꿈꾸다	경인문화사	2008.8
17	金台植	唐太宗-高宗代의 封禪 政局과 新羅 眞德王의 '太平頌'	新羅史學會	2008.8
18	김현문 저, 백옥경 역	동사록	혜안	2007.12
19	김형근	한국전쟁의 기억과 사진	한국학술정보	2007.11
20	남의현	明代遼東支配政策研究	강원대학교출판부	2008.3
21	동북아역사재단	일본 소재 고구려 유물 - 일제강점기 고구려 유적 조사 재검토와 關東地域 소재 고구려 유물 1	동북아역사재단	2008.7
22	막스 폰 브란트 저, 김중수 역	격동의 동아시아를 걷다 - 독일 외교관의 눈에 비친 19세기 조선, 중국, 일본	살림	2008.7
23	민영현	한민족의 문화 원형(原型)과 단군 - 단군신화의 서사 (story telling)이해를 중심으로	단군학회	2007.12
24	박명희, 이재령, 김지훈, 이찬원	근현대 전환기 중화의식의 지속과 변용	단국대학교출판부	2008.8
25	박병섭	포스트 고조선으로	창과거울	2008.7
26	朴性鳳 · 李垞	韓中日年表	瑞文文化社	2008.3
27	박시형	광개토왕릉비	푸른나무	2007.11

번호	저자명	서명	출판사	연도
28	박정현 외	근대 중국 대외무역을 통해 본 동아시아	동북아역사재단	2008
29	박진관	신간도견문록	예문서원	2007.12
30	박창화 저, 김성겸 역	고구려의 숨겨진 역사를 찾아서	지샘	2008.9
31	박환	러시아지역 한인언론과 민족운동	경인문화사	2008.8
32	박환	박환 교수의 러시아 한인 유적 답사기	국학자료원	2008.6
33	배우성 외	국역『同文彙考』疆界史料	동북아역사재단	2008
34	베르트 슈퇴버 저, 최승완 역	냉전이란 무엇인가 - 극단의 시대 1945-1991	역사비평사	2008.1
35	濱田耕策 저, 신영희 역	발해국흥망사	동북아역사재단	2008
36	서강대학교 동양사학연구소 편	한중관계 2000년 - 동행과 공유의 역사	소나무	2008.7
37	서대숙	간도 민족독립운동의 지도자 김약연	역사공간	2008.4
38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냉전 아시아의 문화풍경 1 - 1940-1950년대	현실문화	2008.2
39	昭顯世子 侍講院 著, 정하영 외 역	심양장계	창비	2008.3
40	손과지 · 서영청	근대 중국의 한국관련 간행물	신서원	2008.5
41	신주백 외	중국 대학 역사교재 속의 한국 · 한국사	동북아역사재단	2008
42	아시아 평화와 역사연구소 편	동아시아에서 역사인식의 국경 넘기	선인	2008.6
43	아시아 평화와 역사연구소 편	역사인식을 둘러싼 자화상, 외부의 시선	선인	2008.6
44	아즈마 우시오 외 저, 박천수 외 역	고구려의 역사와 유적	동북아역사재단	2008
45	알프레드 에드워드 존 캐번디시 저, 조행복 역	백두산으로 가는 길 - 영국군 장교의 백두산 등정기	살림	2008.3
46	연민수 외	동아시아 역사교과서의 주변국 인식	동북아역사재단	2008
47	오강원	서단산문화와 길림 지역의 청동기문화	학연문화사	2008.7
48	王明珂 著, 이경룡 역	중국 화하 변경과 중화민족	동북아역사재단	2008
49	윤병렬	고구려의 고분벽화에 그려진 한국의 고대철학	철학과현실사	2008.9
50	윤용구 외	부여사와 그 주변	동북아역사재단	2008
51	이강렬	꿈을 찾아 떠난 젊은이들 - 한국사 유학생 열전	황소자리	2008.1
52	이경수, 김주삼, 장영일 그림	新만주아리랑 - 한국동북아학회 학술답사 시리즈 ①	보림출판	2008.6
53	이광규	우리에게 연해주란 무엇인가 - 북방정책의 나아갈 길	북코리아	2008.9
54	이근우 외	19세기 동북아 4개국의 도서분쟁과 해양경계	동북아역사재단	2008.2
55	이동률 외	중국의 영토문제	동북아역사재단	2008

번호	저자명	서명	출판사	연도
56	이복규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구전설화	집문당	2008.6
57	이영석	고인돌 - 고대국가 형성의 초석이 된 고인돌 축조와 고인돌에 남겨진 비밀	한숨미디어	2008.1
58	이재훈	동북아시아의 갈등과 대립	동북아역사재단	2008
59	이정자	고대 중국정사의 고구려인식	서경문화사	2008.10
60	이태진 편	백년 후 만나는 헤이그 특사	태학사	2008.8
61	이현혜, 정인성, 오여찬, 김병준, 이명선	일본에 있는 낙랑 유물	학연문화사	2008.8
62	이화자	朝淸國境問題研究	집문당	2008.7
63	이효형	발해 유민사 연구	혜안	2007.12
64	이희진	식민사학과 한국고대사	소나무	2008.8
65	임상선 외	중국과 타이완 · 홍콩 역사교과서 비교	동북아역사재단	2008
66	장세경	한국고대인명사전	역락	2007.11
67	장학근	조선, 평화를 짝사랑하다 - 붓으로 갈라 맞선 500년 조선전쟁사	플래닛미디어	2008.2
68	田村晃一 외 저, 임석규 역	동아시아의 도성과 발해	동북아역사재단	2008
69	전호태	고구려 고분벽화 읽기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7
70	정두희 외	임진왜란 동아시아 삼국전쟁	휴머니스트	2007.12
71	정병준 외	중국학계의 북방민족 · 국가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008
72	정훈식	홍대용 연행록의 글쓰기와 중국 인식	세종출판사	2007.10
73	조진구 편	동아시아 철도네트워크의 역사와 정치경제학 1 - 근대화 와 제국주의의 명암	리북	2008.8
74	주돈식	조선인 60만 노예가 되었다 - 청나라에 잡혀간 조선 백성의 수난사	학고재	2007.12
75	주운영 저, 최병수 · 반재영 역	중국의 전통문화, 한국에 미친 영향	개신	2008.5
76	주채혁	순록유목제국론 - 고조선 고구려 몽골제국의 기원연구	백산자료원	2008.7
77	지배선 외	중앙아시아 속의 고구려인 발자취	동북아역사재단	2008
78	진재운	백두산에 묻힌 발해를 찾아서 - 화산학으로 풀어 본 발해 멸망의 진실	산지니	2008.3
79	채영국	1920년대 후반 만주지역 항일무장투쟁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7.12
80	최삼룡 편	재만조선인 친일문학 작품집	보고사	2008.8
81	편집부	고구려 무덤벽화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모사도	주자소	2008.9
82	프레신깃트 두아라 저, 한석정 역	주권과 순수성 - 만주국과 동아시아적 근대	나남	2008.6

번호	저자명	서명	출판사	연도
83	하원수 외	전근대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대외무역	선인	2008.1
84	하정식	태평천국과 조선왕조	지식산업사	2008.6
85	한국고고학회	국가 형성의 고고학	사회평론	2008.1
86	한석정, 노기식 편	만주, 동아시아 융합의 공간	소명출판	2008.7
87	한일문화교류기금, 동북아역사재단 편	東아시아속의 渤海와 日本	경인문화사	2008.6
88	홍응호 외	수교와 교섭의 시기의 한러관계 - 근대한러관계연구	선인	2008.6
89	후마 스스무 저, 정태섭 외 역	연행사와 통신사	신서원	2008.5

◎ 논문

● 일반논문

번호	저자명	기사명	잡지명	발행처	연도
1	Choi Deokkyu	The Russian Empire's Perception of Asian and Korean Immigrants (1891-1910)	Journal of Northeast Asian History volume 5-1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008.6
2	Haruka Matsuda	A Clash of Empires in East Asia : The Geneva Conference on Korea, 1954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20 No.2	THE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2007.12
3	Igor V.LUKOIANOV	The First Russo-Chinese Allied Treaty of 1896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History Vol.11	Center for Korean History, Institute of Korean Culture	2007.12
4	Jung-hyoo KO	The Memories of War and Peace During the Between War Period : A study on the 'Pacific Conference' and the Roles of Intellectuals of Three East Asian Countries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History Vol.11	Center for Korean History, Institute of Korean Culture	2007.12
5	Olga Borisovna Lynsha	19세기 후반 우수리스크 지역 한국 자치 정부 학교 건설의 역할	溫知論叢 第19輯	溫知學會	2008.5
6	Paek Chang Ki	Descriptions of the History of Gojoseon Shown in Foreign Textbook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Vol. 10 No. 4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2007.12
7	Virginia Anami	Encounters with Korean Communities of Tang China Depicted in Monk Ennin's Diary	新羅史學報 13	新羅史學會	2008.8
8	강석화	19세기 북방 강역에 대한 인식	역사와 경계 65	부산경남사학회	2007.12
9	姜在光	對蒙戰爭期 崔氏政權의 海島入保策과 戰略海島	軍史 第66號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8.4
10	강태웅	만주국 극영화의 제상(諸相) - 만주영화협회의 제작방향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제33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7.12

번호	저자명	기 사 명	잡지명	발행처	연도
11	강택구·박재영	중국 조선족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한국 관련 내용분석(1) - 중국 조선족의 정체성과 중국의 역사 만들기 -	白山學報 第81號	白山學會	2008.8
12	고가영	우랄지역 원로 고려인들의 생애사 연구	역사문화연구 第30輯	韓國外國語大學校 歷史文化研究所	2008.6
13	고경석	재당 신라인사회의 형성과 발전	韓國史研究 140	韓國史研究會	2008.3
14	고광의	文字資料를 통해서 본 中國과 三國의 書寫文化 교류	高句麗渤海研究 第30輯	高句麗渤海學會	2008.3
15	孔錫龜	集安지역 高句麗 王陵의 造營	高句麗渤海研究 第31輯	高句麗渤海學會	2008.7
16	권덕영	고대 동아시아의 황해와 황해무역 - 8, 9세기 신라를 중심으로 -	史學研究 第89號	韓國史學會	2008.3
17	權五重	樂浪 王調政權 成立의 國際的 環境	歷史學報 第196輯	歷史學會	2007.12
18	권희연	고구려 고분벽화의 摸寫圖 제작 연구	白山學報 第81號	白山學會	2008.8
19	金蘭玉	13세기 후반 원나라의 刑政 간섭과 고려의 대응	湖西史學 第49輯	湖西史學會	2008.4
20	金炳坤	中國 正史 新羅傳에 記錄된 新羅 初期 王系 및 主要 集團의 出自	史學研究 第91號	한국사학회	2008.9
21	금지아	【서평】 조선 지식인이 본 18세기 중국 사회 - 김현미, 『18세기 연행록의 전개와 특성』(혜안, 2007) -	한국문화연구 13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07.12
22	김경록	中宗反正이후 承襲外交와 朝明關係	한국문화 제40집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7.12
23	金慶一	근대 동북아 지역평화론에 대한 多者主義 觀點에서의 고찰 - 安重根·孫文·石橋湛山을 중심으로 -	大丘史學 第90輯	大丘史學會	2008.2
24	金光載	김성숙의 1930년대 중국관내지역의 독립운동	한국근현대사연구 44	한국근현대사연구회	2008.3
25	金基鳳	탈근대에서 국사와 동아시아사	歷史學報 第196輯	歷史學會	2007.12
26	김남윤	병자호란 직후(1637-1644) 朝淸 關係에서 '淸譯'의 존재	한국문화 제40집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7.12
27	김대식	高麗 光宗代의 對外關係	史林 제29호	首善史學會	2008.2
28	金大中	조선후기 한문학 연구와 '중국'이라는 타자	大東文化研究 제60집 - 대동문화연구원 창립 50주년 기념호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大東文化研究院	2007.12
29	김병준	漢이 구성한 고조선 멸망 과정 - 『사기』 조선열전의 재검토 -	韓國古代史研究 50	한국고대사학회	2008.6
30	김병준	【서평】 낙랑군 연구의 새로운 이해 틀, '낙랑인' - 오영찬의 『낙랑군 연구 - 고조선계와 漢系의 종족 융합을 통한 낙랑인의 형성-』(사계절, 2006)을 읽고 -	韓國古代史研究 48	한국고대사학회	2007.12
31	김성호	중국 연변대학 사학과의 한국사 연구현황과 과제에 관한 약간의 소개	한국학연구 제18집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8.5

번호	저자명	기 사 명	잡지명	발행처	연도
32	김영천	中國 學界의 高句麗 對外關係 研究動向	史叢 66	歷史學硏究會	2008.3
33	金映浩	동북아시아 냉전의 기원에 관한 연구	軍史 第67號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8.6
34	김은정	주몽 신화의 원형 변주와 소설적 재현 - 북한의 역사소설 『주몽』을 중심으로	단군학연구 제17호	단군학회	2007.12
35	김장구	몽골 역사교육의 동아시아 인식에 대한 고찰 - 중등 『몽골사』 교과서의 대외관계 서술의 분석을 중심으로 -	동북사역사논총 19호	동북아역사재단	2008.3
36	김재운	한반도 동북지역 뇌문토기 변천과정	文化財 第四十號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12
37	김중성·권택규·이현주·강성봉	동북공정에 관한 한·중 언론의 보도태도	史林 제30호	首善史學會	2008.6
38	金鍾憲	슈페이에르와 러시아공사 베베르의 조선 내 외교활동 - 1884-1894	大東文化硏究 第61집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大東文化硏究院	2008.3
39	김주용	만주지역 間島協助會의 조직과 활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5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8.6
40	김진광	石室墓 造營을 통해 본 渤海의 北方經營	高句麗渤海硏究 第30輯	高句麗渤海學會	2008.3
41	김진한	평원왕대 고구려의 대외관계 - 요해지역의 동향을 중심으로 -	국학연구 제11집	한국국학진흥원	2007.12
42	金春善	중국 연변 지역 전염병 확산과 한인의 미귀환	한국근현대사연구 제43집	한국근현대사연구회	2007.12
43	김희선	北魏·隋唐代 都城과 高句麗 長安城	白山學報 第81號	白山學會	2008.8
44	김희찬	고구려 권운문 외당 연구	高句麗渤海硏究 第31輯	高句麗渤海學會	2008.7
45	盧京姬	17세기초 조선시의 중국 전파에 대한 조선 문단의 이중적 태도 - 文才 과시 욕구와 詩文 유출에 대한 경계 -	震檀學報 第壹百五號	震檀學會	2008.6
46	니타니 사다오	일본 세계사 교육의 동아시아사	동북아역사논총 19호	동북아역사재단	2008.3
47	劉鳳鳴	장보고의 역사업적과 중국에서의 영향	新羅史學報 13	新羅史學會	2008.8
48	류재운	세종대 대명관계와 관복제도(II)	韓服文化 第11卷 1號	한복문화학회	2008.4
49	마크 바잉턴	영어권의 고구려사 연구 - 고구려에 대한 서구의 일반적 인식을 중심으로 -	先史와 古代 28	韓國古代學會	2008.6
50	문명기	財政史의 각도에서 다시 보는 <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 (1882)	역사문화연구 第30輯	韓國外國語大學校 歷史文化硏究所	2008.6
51	문안식	옥저의 기원과 대외관계의 변화	歷史學硏究 第32집	湖南史學會	2008.2
52	文銀順	6-7세기 高句麗 왕릉과 百濟·新羅 왕릉의 구조 비교	高句麗渤海硏究 第30輯	高句麗渤海學會	2008.3
53	문재범	비파형동검문화의 原고구려지역 유입 과정에 관한 연구	史林 第30호	首善史學會	2008.6
54	閔庚鉉	19세기 후반 러시아의 조선정책과 조러 수호통상조약	大東文化硏究 第61집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大東文化硏究院	2008.3
55	박강	러시아 이주 한인과 아편문제 - 우수리스크市 부근지역을 중심으로 -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3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7.12

번호	저자명	기 사 명	잡지명	발행처	연도
56	박강	화북 이주한인과 아편마약 밀매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5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8.6
57	박명립	이승만의 한국 문제·동아시아·국제 관계 인식과 구상 - 악마화와 신화화, 건국 담론과 분단 담론의 대립을 넘어	역사비평 통권 83	역사문제연구소	2008.5
58	박병훈·박병섭	단군조선과 삼조선설 - 『사기』, 『조선 상고문화사』, 『한단고기』를 근거로	단군학연구 제17호	단군학회	2007.12
59	박선미	한반도 출토 漢代 화폐와 그 의미 - 古朝鮮 멸망이후 삼한지역 교역체계의 변동과 관련하여 -	先史와 古代 28	韓國古代學會	2008.6
60	박선영	서간도, 동간도가 명기된 참모본부 지도에 대하여 - 중화민국 중앙연구원 근대사연구소에서 새롭게 발견한 간도 자료	東洋史學研究 第101輯	동양사학회	2007.12
61	朴仙姬	고구려 복식의 기하학 문양 종류와 기법의 고유성	白山學報 第79號	白山學會	2007.12
62	박양진	중국 역사공정의 비판적 검토 - 하성주 단대공정과 중화문명탐원공정을 중심으로	역사비평 통권 82호	역사비평사	2008.2
63	박찬홍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 보이는 단군과 고조선	내일을 여는 역사 제31호	서해문집	2008.3
64	박찬홍	왜 김춘추와 당나라 태종은 비밀 협약을 맺었을까?	내일을 여는 역사 제33호	서해문집	2008.9
65	朴現圭	山東 無染院과 신라 자료 검토	新羅史學報 11	新羅史學會	2007.12
66	반병률	‘전면적 집단화’ 시기 러시아 연해주 수청(水淸) 지방 한인농촌사회의 제문제	역사문화연구 第30輯	韓國外國語大學校 歷史文化研究所	2008.6
67	반병률	러시아 한인(고려인) 사회와 정체성의 변화 - 러시아원동 시기(1863-1937)를 중심으로 -	韓國史研究 140	韓國史研究會	2008.3
68	拜根興	입당구법(入唐求法): 당과 신라간에 불교문화 교류의 다리를 놓다 - 입당구법 승려를 중심으로	佛敎研究 第29輯	한국불교연구원	2008.8
69	拜根興	『大唐平百濟國碑銘』 문제에 대한 고찰	忠北史學 第20輯	忠北大學校 史學會	2008.2
70	배우성	조선후기 지식인의 漢語 인식과 滿洲語	朝鮮時代史學報 43	朝鮮時代史學會	2007.12
71	배우성	18세기 청의 지리지·지도와 백두산의 수계	역사와 경계 65	부산경남사학회	2007.12
72	배유정	남북한 중학교 국사 교과서의 고구려사 서술과 인식	歷史敎育論集 第40집	歷史敎育學會	2008.2
73	배은경	시베리아 과학자 김 과벨 가족의 구술 생애사 연구	역사문화연구 第30輯	韓國外國語大學校 歷史文化研究所	2008.6
74	白永瑞	自國史와 地域史의 疏通 : 東아시아의 歷史敍述의 省察	歷史學報 第196輯	歷史學會	2007.12
75	백종오	북한의 고구려 유적 연구 현황 및 성과	정신문화연구 통권 110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3

번호	저자명	기 사 명	잡지명	발행처	연도
76	서길수	하가점하층문화(夏家店下層文化)의 석성(石城) 연구	高句麗渤海研究 第31輯	高句麗渤海學會	2008.7
77	서영수	『史記』古朝鮮 史料의 構成 분석과 新解釋(1)	단군학연구 제18호	단군학회	2008.5
78	서재길	'제국'의 전파 네트워크와 만주의 라디오 방송	한국문학연구 제33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7.12
79	孫艶紅	1920년대 중국지역에서 전개한 김성숙의 민족혁명과 사회주의운동	한국근현대사연구 44	한국근현대사학회	2008.3
80	송기호	【자료소개】고구려 유민 高氏夫人 墓誌銘	韓國史論 53 - 鄭玉子先生停年紀念號	서울대학교 國史學科	2007
81	송정식 · 김재운 · 이유진	고대 유기질세 갑옷과 철제 판갑의 상관성 연구 - 연해주 아르세니예프 박물관 극동 원주민 갑주와의 비교검토	동북아 문화연구 제16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08.9
82	송화섭	시베리아 알타이 지역의 사면상 암각화	한국무속학 제16집	한국무속학회	2008.2
83	신선혜	渤海의 歸屬問題에 대한 中國學界의 研究動向과 問題點	史叢 66	歷史學硏究會	2008.3
84	申政勳	高句麗의 瑞祥이 가진 政治的 意味	東亞人文學 第13輯	동아인문학회	2008.6
85	신형식	고구려의 민족사적 위상	先史와 古代 28	韓國古代學會	2008.6
86	심재훈	하상주단대공정과 信古 경향 고대사 서술	韓國史學史學報 16	韓國史學史學會	2007.12
87	安秉稷	동아시아의 역사 갈등과 한국사회의 집단기억	歷史學報 第197輯	歷史學會	2008.3
88	양민중	단군신화와 계세르신화	단군학연구 제18호	단군학회	2008.5
89	梁銀景	北韓의 불교사원지 출토 高句麗, 渤海 佛像의 출토지 문제와 계승관계	高句麗渤海研究 第31輯	高句麗渤海學會	2008.7
90	梁銀景	大陸과 海洋을 품은 高句麗 佛教彫刻	先史와 古代 28	韓國古代學會	2008.6
91	梁志善	韓人 內蒙古 地域 移住에 관한 연구	한국근현대사연구 제43집	한국근현대사연구회	2007.12
92	엄경흠	鄭夢周의 明 使行에 나타난 外交的 疏通 方式	圃隱學研究 제1집	포은학회	2007.12
93	余昊奎	鴨綠江 중상류 연안의 高句麗 성곽과 東海路	역사문화연구 第29輯	韓國外國語大學校 歷史文化硏究所	2008.2
94	延敏洙	국사교과서의 고대동아시아 서술과 인식	韓日關係史研究 29	한일관계사학회	2008.4
95	염인호	중국 연변 조선족의 민족정체성에 대한 일고찰(1945.8-1950.말)	韓國史研究 140	韓國史硏究會	2008.3
96	吳江原	서단산문화와 주변 지역 청동기문화와의 상호 작용과 교류	白山學報 第81號	白山學會	2008.8
97	오병수	中·西에 가린 동아시아 - 중국 중등학교 역사교육과 동아시아 인식	동북아역사논총 19호	동북아역사재단	2008.3

번호	저자명	기 사 명	잡지명	발행처	연도
98	오에 시노부	특종으로 보는 과격하고 잔인한 시대 - 되살아나는 청일전쟁과 안중근 사건 -	翰林日本學 第12輯	翰林大學教 日本學研究所	2007.12
99	吳正澤	한국전쟁 초기 중국군의 군사전략과 전술 변화양상 연구	軍史 第67號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8.6
100	와타나베 나오키	식민지 조선의 프롤레타리아 농민문화와 '만주' - '협화'의 서사와 '재발명된 농본주의'	한국문학연구 제33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7.12
101	魏恩淑	원간섭기 元律令의 受容問題와 權貨令	民族文化論叢 第37輯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2007.12
102	유경아	高麗末 親明外交와 圃隱 鄭夢周의 外交觀 - 恭愍王-禑王初를 중심으로	圃隱學研究 제1집	포은학회	2007.12
103	유필규	1930-40년대 연변지역 한인 '集團部落'의 성격	白山學報 第81號	白山學會	2008.8
104	윤병석	한인(조선인)의 간도 이주 개척과 『간도 개척사』	白山學報 第79號	白山學會	2007.12
105	윤상열	고구려 中期 天下觀의 推移	高句麗渤海研究 第30輯	高句麗渤海學會	2008.3
106	윤상열	고구려 前期 天下觀의 형성과 전개	白山學報 第81號	白山學會	2008.8
107	윤상열	부여의 天下觀 小考	史學研究 第90號	한국사학회	2008.6
108	윤선태	목간으로 본 한자문화의 수용과 반응	新羅文化 第32輯	東國大學校 新羅文化研究所	2008.8
109	윤영인	10-13세기 동북아시아 多元的 國際秩序에서의 冊封과 盟約	東洋史學研究 第101輯		2007.12
110	윤용혁	鄭仁卿家의 고려 정착과 서산 - 고려시대 외국인 귀화 정착 사례	湖西史學 第48輯	湖西史學會	2007.12
111	이경희	고구려 책(幟)에 관하여	한국학연구 제17집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7.11
112	이노우에 나오키	1945년 이후 일본에서의 고구려사 연구 동향	先史와 古代 28	韓國古代學會	2008.6
113	李道學	集安 地域 高句麗 王陵에 관한 新考察	高句麗渤海研究 第30輯	高句麗渤海學會	2008.3
114	이동훈	고구려유민 『高德墓誌銘』	韓國史學報 第31호	高麗史學會	2008.5
115	이동훈	중국의 고조선사 연구동향과 문제점	史叢 66	歷史學研究會	2008.3
116	이명화	북간도 명동학교의 민족주의교육과 항일운동	白山學報 第79號	白山學會	2007.12
117	李美智	고려 성종대 地界劃定의 성립과 그 외교적 의미	한국중세사연구 제24호	한국중세사학회	2008.4
118	이민원	조선특사의 러시아외교와 金得鍊 - 니콜라이II 황제대관식 사행을 중심으로	實學思想研究 33輯	毋岳實學會	2007
119	이병건	동북아시아에서 발해 전담의 건축적 의미 연구	東北亞歷史論叢 21호	동북아역사재단	2008.9
120	이삼성	동아시아 제국주의의 시대구분 - '제국주의 카르텔'로 본 근대 동아시아일서	國際政治論叢 第48집 3호	한국국제정치학회	2008.9

번호	저자명	기 사 명	잡지명	발행처	연도
121	이상태	조선후기 외교사: 백두산정계비 설치와 김지남의 역할	實學思想研究 33輯	毋岳實學會	2007
122	李相勳	羅唐戰爭期 伎伐浦 戰鬥와 薛仁貴	大丘史學 第90輯	大丘史學會	2008.2
123	이성시 저, 류미나 역	광개토대왕비의 건립목적에 관한 시론	韓國古代史研究 50	한국고대사학회	2008.6
124	이성시	東アジアにおける 古代史認識の分岐と運環	동양학 Vol.43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08.2
125	이성환	통감부 시기 대한제국의 간도문제 인식	역사와 경계 65	부산경남사학회	2007.12
126	이영춘	『通文館志』의 편찬과 조선후기 韓中關係의 성격	實學思想研究 33輯	毋岳實學會	2007
127	이용식	청일전쟁전 개항장 인천을 통한 조청(朝淸)무역의 발달 - 『조선통상삼관무역책(朝鮮通商三關貿易冊)』을 중심으로 -	인천학연구 9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08.8
128	李源明	白頭山定界碑와 接伴使 朴權에 관한 일고찰	白山學報 第80號	白山學會	2008.4
129	이원배	中國의 高句麗 起源研究 考察	史叢 66	歷史學硏究會	2008.3
130	李潤基	在中東포의 실상과 문제점	白山學報 第79號	白山學會	2007.12
131	李仁哲	고구려식 지명과 요동 주민의 계통 문제	白山學報 第81號	白山學會	2008.8
132	이재석	고려 전기 국제관계의 특질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ol.29, No.2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8
133	李在勳	근대 조선과 러시아의 경제관계 형성	大東文化硏究 제61집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大東文化硏究院	2008.3
134	李鍾判 · 小柳順一	한국전쟁 당시 중국개입의 예측실패에 관한 연구	軍史 第67號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8.6
135	이준식	일본제국주의와 동아시아 영화네트워크 - 만주영화협회를 중심으로 -	東北亞歷史論叢 18호	동북아역사재단	2007.12
136	李鎭漢	高麗時代 宋商 貿易의 再照明	歷史教育 第104輯	역사교육연구회	2007.12
137	이창섭	11세기 초 동여진 해적에 대한 고려의 대응	韓國史學報 第30호	高麗史學會	2008.2
138	이현중	동북아시아 후기구석기시대 세형돌날 몸돌의 기술체계 비교 연구 - 아무르강 중류 셀렘자 후기구석기문화를 중심으로	동북아 문화연구 제16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08.9
139	李亨求	요서지방(遼西地方)의 고조선(古朝鮮) - 진개(秦開) 동정(東征) 이전(以前)의 요서지방(遼西地方)의 기자조선(箕子朝鮮)	단군학연구 제18호	단군학회	2008.6
140	이형우	기본조사자료 1 : 고려말 대일본 관계와 포은 정몽주	圃隱學硏究 第1집	포은학회	2007.12
141	李禧受	교류 초기 러시아인의 한국인식 - 러시아인들의 한국방문기를 중심으로	大東文化硏究 제61집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大東文化硏究院	2008.3

번호	저자명	기 사 명	잡지명	발행처	연도
142	임권웅 · 이종현	고구려 오희분 오희묘 벽화의 조벽지(粗壁地)기법에 대한 연구 - 옷칠기법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	高句麗渤海研究 第30輯	高句麗渤海學會	2008.3
143	임상범	중국의 남한 정부 수립에 대한 인식 : 1948년 5월부터 8월까지의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	史叢 67	歷史學硏究會	2008.9
144	林相範	【서평】 배경한, 『손원과 한국 : 중화주의와 사대주의의 교차』(한울 아카데미, 2007)	歷史學報 第196輯	歷史學會	2007.12
145	장남원	중국 元代유적 출토 고려청자의 제작시기 검토 - 內蒙古 集寧路 窟藏 출토 龜龍形靑瓷硯滴을 중심으로	湖西史學 第48輯	湖西史學會	2007.12
146	張東翼	10세기 고려왕조의 대외관계 기사에 대한 補充	退溪學과 韓國文化 第42號	慶北大學校 退溪硏究所	2008.2
147	張錫興	【자료소개】 사할린 지역 한인 귀환 (Repatriation of Koreans from Sakhalin, G-3 REPATRIATION 자료)	한국근현대사연구 제43집	한국근현대사학회	2007.12
148	赤羽目匡由 著, 이유진 역	新羅東北境에서의 新羅와 渤海의 交渉에 대하여	高句麗渤海研究 第31輯	高句麗渤海學會	2008.7
149	전인갑	현대 중국의 지식 구조 변동과 '역사공정'	역사비평 통권 82호	역사비평사	2008.2
150	정기은	중국의 大國化와 백두산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의도	白山學報 第79號	白山學會	2007.12
151	鄭萬祚	서에 유성룡의 정치활동과 임란 극복	韓國學論叢 第30輯	國民大學校韓國學硏究所	2008.2
152	정문상	냉전시기 한국인의 중국 인식 - 중국 문화대혁명 이해를 중심으로 -	아시아문화연구 제13집	경원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07.11
153	丁善溶	隋·唐 초기 中國의 世界秩序의 변화 과정과 삼국의 대응	新羅史學報 12	新羅史學會	2008.4
154	정연	고등학교 동아시아사의 성격과 내용 체계	동북아역사논총 19호	동북아역사재단	2008.3
155	鄭在貞	조선총독부철도국장 大村卓一과 朝滿鐵道連結政策	歷史教育 第104輯	역사교육연구회	2007.12
156	정중현	딱지본 대중소설에 나타난 '만주' 표상	한국문학연구 제33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7.12
157	鄭台燮 · 韓成敏	開港 후(1882-1894) 淸國의 治外法權 행사와 朝鮮의 대응	한국근현대사연구 제43집	한국근현대사학회	2007.12
158	조민	조선 이성계 세력과 명과의 관계	동북아연구 제24호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	2007.8
159	조범중	'장백산문화론'의 비판적 검토	白山學報 第79號	白山學會	2007.12
160	조성을	高麗時期的 中國史 認識	韓國史學史學報 16	韓國史學史學會	2007.12
161	조영광	7세기 중국인들의 對高句麗 '三韓'호칭에 관하여	白山學報 第81號	白山學會	2008.8

번호	저자명	기 사 명	잡지명	발행처	연도
162	趙源昌	熊津~泗泚期 瓦當으로 본 高句麗 製瓦術의 百濟 傳播	白山學報 第81號	白山學會	2008.8
163	趙宰坤	한 일본인 중군기자가 본 1894년 청일전쟁과 조선 - 니시무라 도키스케의 『甲午朝鮮陣』 분석 -	軍史 第66號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8.4
164	池培善	唐에 의한 淄青節度使 李師道 멸망과 그 후	白山學報 第79號	白山學會	2007.12
165	채미하	중국 대학 역사교재의 '통일신라' 서술과 그 내용 분석	韓國史學報 第30호	高麗史學會	2008.2
166	최덕규	러시아의 동아시아정책과 이주한인정책(1891-1910) - 아시아연대론과 유럽연대론을 중심으로 -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5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8.6
167	최병욱	베트남의 동북아 역사 인식 - 베트남 역사교과서를 통해 살펴봄 -	동북아역사논총 19호	동북아역사재단	2008.3
168	최윤정	【서평】『元代高麗貢女制度研究』(喜薈 著, 民族出版社, 2003)	大丘史學 第91輯	大丘史學會	2008.5
169	최재호	한국사와 연계한 세계사, 세계사와 연계한 한국사 -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한 『역사』 내용구성방안 -	歷史教育論集 第40집	歷史教育學會	2008.2
170	崔鍾奭	대몽항쟁·원간섭기 山城海島入保策의 시행과 治所城 위상의 변화	震檀學報 第壹百五號	震檀學會	2008.6
171	崔珍烈	東晉·南北朝-唐代 주변국 冊封 封號의 地名 분석 - 韓國古代 三國君主들의 冊封 郡王/郡公 칭호의 이해를 중심으로 -	歷史學報 第197輯	歷史學會	2008.3
172	하문식	혼하(渾河) 유역 고인돌의 특이 구조와 성격	동양학 Vol.43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08.2
173	하문식	고인돌의 숭배 의식에 대한 연구 - 요령 지역을 중심으로	比較民俗學 第35輯	비교민속학회	2008.2
174	한규철	고구려 발해의 상관성 연구와 과제	高句麗渤海研究 第31輯	高句麗渤海學會	2008.7
175	한규철	북한의 발해유적과 성격	역사와 경계 제68집	부산경남사학회	2008.9
176	한정수	고려-금 간 사절 왕래에 나타난 주기성과 의미	史學研究 第91號	한국사학회	2008.9
177	허우성	내셔널리즘의 감소를 위한 조건 탐구 : 동아시아의 경우	日本思想 第十三號	韓國日本思想史學會	2007.12
178	허인욱	高麗의 歷史繼承에 대한 契丹의 認識變化和 領土問題	한국중세사연구 제24호	한국중세사학회	2008.4
179	洪態浩	청일전쟁 이전 러시아의 동아시아정책	大東文化研究 第61집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大東文化研究院	2008.3
180	황민호	일제하 국내언론의 소련에 대한 인식과 在露韓人문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4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8.3

번호	저자명	기 사 명	잡지명	발행처	연도
181	황영삼	고려인 학자 박 보리스 드미트리예비치 교수의 구술생애사 - 중앙아시아 및 시베리아 생활 시기를 중심으로 -	역사문화연구 第30輯	韓國外國語大學校 歷史文化研究所	2008.6

● 학위 논문

번호	저자명	논 문 명	대학	연도	구분
1	김미경	高句麗 前期의 對外關係 研究	연세대	2007.8	박
2	김주미	韓國의 日象文 研究 : 東夷系 韓 民族의 文化 系統을 中心으로	단국대	2008.2	박
3	김현정	19세기 초반 조선지식인의 서울인식과 朝鮮中華意識 - 柳本藝의 “漢京識略”을 중심으로 -	서울시립대	2008.2	석
4	임찬혁	1945-1948년 중국 연변지역 조선인 사회주의자들의 활동과 구성의 변화	서울대	2008	석
5	정동민	고구려고분벽화에 나타난 증장기병의 변화와 운용형태	한국의국어대	2007.8	석
6	정상민	4-5세기 濊族의 동향과 고구려의 지배방식	연세대	2007.8	석

○ 언론 및 여론의 활동

◎ 신문/잡지

● 신문

번호	날 짜	신문명	내 용
	2008.01.01	세계일보	신년특집-질주하는 중국 / '중화 부활' 야망 용솨음친다
	2008.01.02	국민일보	광개토대왕비 복제비 추진...신묘년기사 음각 고민중
	2008.01.05	매일신문	[채널돋보기] 당나라를 친 발해의 혼 생생히
		한겨레신문	[읽어보아요] 그림으로 읽는 중국신화1, 2-중국신화에 '한국 신'도 등장하네
	2008.01.08	문화일보	동아시아 영토 분쟁, 탈국가적 관점서 보라
		중앙일보	[도올인터뷰] 주중 한국대사 김하중 - "중국을 사랑하자, 그만큼 우리가 얻는다"
	2008.01.09	중앙일보	[Family어린이책] 발해를 보면 우리 역사가 다시 보여요
	2008.01.10	강원일보	동아시아 역사마찰 본격 논의
		서울신문	'세계화' 민족주의 논쟁에 어떤 고민 던지는가
	2008.01.11	강원일보	"동아시아 역사인식 연구 지속추진"
	2008.01.12	국민일보	[책과 길] '대조영'보다 재미있네...청소년을 위한 발해사...'해동성국 발해'
	2008.01.14	동아일보	[理知논술-역사에서 논술의 길 찾기] 단군은 정말 실존했을까
	2008.01.15	조선일보	"장백산 문화론은 또 하나의 동북공정"
	2008.01.16	중앙일보	치킨 CF에 등장한 노무현 대통령? 도넨은 中日 '협한'
	2008.01.17	중앙일보	[차이나 위치] 한·중 원조 논쟁... "민족 감정 버려야 풀린다"
		투데이코리아	한중관계, '전면적 동반자'로 가는 길 -제1의 무역교역국 중국, 대응기구 마련 시급

번호	날 짜	신문명	내 용
	2008.01.19	경향신문	[코리아루트를 찾아서] (16)중국인의 '조상'은 동이족이었나
	2008.01.22	세계일보	[학술단신]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영상물 제작
		조선일보	동북아역사재단 영상물 제작, 자료센터 문열어
	2008.01.23	문화일보	'동북아 역사 현안' 영상물 제작
	2008.01.25	중앙일보	[사설/칼럼] 짧았던 봄날, 중국이 만만하던 15년
	2008.01.28	서울신문	申현대사 재조명 - EBS 역사다큐 '부흥의 길'
	2008.01.29	조선일보	[一事一言] 부여, 우리 역사의 원류
	2008.01.31	경향신문	중앙박물관 고조선실 만든다
	2008.02.04	브레이크뉴스	중국-일본 역사왜곡, '우리민족 유랑민?'
		세계일보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 주변 4강] ② 중국 베이징올림픽과 중국굴기- 개혁개방 30년... '슈퍼 차이나'로 자리매김
	2008.02.06	중앙일보	농약만두 파문, 네티즌 반일·반중 감정으로 비화
	2008.02.12	아시아경제	"고구려는 누가 뭐래도 한국 역사" NYT에 광고
		중앙일보	北, 통산리 1호무덤을 온달·평강 합장묘로 추정
		중앙일보	NYT에 '고구려는 한국 역사' 광고
		한국일보	뇌 이론으로 문명충돌 해법 제시하는 김상일 교수
	2008.02.13	동아일보	"고구려는 한국역사" 뉴욕타임스에 광고
		세계일보	'고구려는 한국의 역사다' / 한국 홍보가 서경덕씨 뉴욕타임스에 광고 실려
		조선일보	뉴욕타임스에 '고구려는 한국의 역사' 광고
	2008.02.14	문화일보	英文 국가지도집 첫 발간
	2008.02.15	대전일보	카메라속 중국, 이젠 책으로 보자 - 박진관 영남일보 사진기자, 신간도 견문록 발간
	2008.02.16	경향신문	[코리아루트를 찾아서] (19)상나라와 한민족(上)
		시민사회신문	"역사주권 존중과 실용외교로 동북아 중심축 자리매김"
	2008.02.19	내일신문	[김수종칼럼] 중국이 그리는 세계지도
		동아일보	[2008 책 읽는 대한민국 - 새 대통령에게 권하는 책 30선] <29>동아시아의 역사분쟁- 송기호 지음
		문화일보	[막내리는 盧정권 '실패에서 배운다'] 더 멀어진 日 가까워진 中
	2008.02.20	데일리안	유인하 이사장 "역사복원과 경제 블록 활성화 시켜야"
	2008.02.21	국제신문	[디아스포라칼럼] 백두산의 불나무
		동아일보	[특파원 칼럼] 중국에도 이런 거 있어?
	2008.02.22	경기신문	[기고] 구리시 '고구려사업'의 가치
	2008.02.24	중앙일보	[인터뷰] 요하문명 연구 우실하 항공대 교수
	2008.02.26	중앙일보	北, 申동북공정 강력 비판
		플러스코리아	900년 고구려제국의 핵심강역은 어디?

번호	날 짜	신문명	내 용
	2008.02.28	중앙일보	평안북도 비단섬이 중국땅?
	2008.02.29	동아일보	[기자의 눈] 정부가 申기록 확보, 독립군 이름찾아 주길
		세계일보	[SW Book 갤러리] 이스트아시아판타지I
		한국일보	발해해상로 뗏목 탐사 방의천 대장
	2008.03.04	노컷뉴스	동북아 평화, 상호 역사존중이 관건
	2008.03.05	노컷뉴스	백두산은 한중 공동유산, 세계유산 동시 등재 시도 해봄직
	2008.03.06	조선일보	외교부, '안중근 유해발굴 예정지' 훼손 확인
	2008.03.07	문화일보	"국민의 힘으로 우리역사 지키자"
		서울신문	[열린세상] 베이징 올림픽과 '성당(盛唐)의 꿈'
		조선일보	"고구려는 없다"
	2008.03.08	조선일보	정부, 申에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예정지' 보존 요청
	2008.03.10	동아일보	"申동북부-한반도, 고조선 영역 확인"
	2008.03.11	세계일보	[학술단신] 申동북공정 주제 학술대회
		중앙일보	"안중근 의사 유해 매장 추정 지역 아파트 공사 중단" 중국 정부 밝혀
	2008.03.12	경향신문	'대조영' 최수중 日고구려축제 초청
		문화일보	'동북아 해양영토' 연구총서
	2008.03.13	세계일보	[통일논단] 지도자들부터 중국을 알자
		서울신문	'19세기 동북아 4개국 ...' 펴내
	2008.03.14	경향신문	[코리아루트를 찾아서] (22)고대사의 뇌관을 건드리다
		대전일보	김호웅 국조단군봉안회장 "역사교육 바로 서야 申 동북공정 극복"
	2008.03.15	세계일보	[월드리포트] 한국과도 인연 깊은 저우언라이
		중앙일보	티베트 유혈사태...중국의 역사왜곡도 한 몫
	2008.03.17	문화일보	[사설] 申, 티베트 사태 인류의 양식으로 풀어가야
	2008.03.18	문화일보	申 사료로 본 역사인식의 허구...중국 동북공정 '제 발등' 찍다
		조선일보	'이어도의 날' 지정 추진에 정부 제동
		중앙일보	중국, 소수민족 경제 발전시켜 준다면 역사 말살
	2008.03.20	부산일보	[밀물 썰물] 신 중화주의
	2008.03.21	강원일보	[원주] 한민족역사관 손곡리에 건립
		경향신문	[시론] 티베트 사태에 침묵 말라
		경향신문	[코리아루트를 찾아서] (23)동이 낳은 군자들
		동아일보	[세계의 눈] 韓-申불신의 벽 뛰어넘기
	2008.03.22	동아일보	한중일 누리꾼 넷서널리즘 '막말 삼국지'- 인터넷 민족주의 막기는 비방전
	2008.03.23	중앙일보	北, 고구려 '자주외교' 역사서 출간

번호	날 짜	신문명	내 용
	2008.03.27	국방일보	국제법·정치·역사 등 다양한 시각적 접근
		동아일보	[동아광장] 國史 강해야 세계화 파고 넘는다
		서울신문	한반도 철기문화 새 유입통로 발견
		중앙일보	'협한류·반한류 동영상 확산'[반크]
	2008.03.29	경향신문	[코리안루트를 찾아서] (24)기자, 본향으로 돌아가다
	2008.03.31	동아일보	[理知논술-역사에서 논술의 길 찾기] 해동성국 발해
		조선일보	고려·발해사(史), 10년 만에 양지로...
	2008.04.02	내일신문	동북아지역 협력과 한반도 평화
		서울경제	김용덕 이사장, 中베이징 대학서 특강
	2008.04.04	경향신문	[코리안루트를 찾아서] (25)기자의 본향 '고죽국'
	2008.04.05	중앙일보	[BOOK책갈피] 조선족이 바라 본 동북공정의 실제
	2008.04.09	문화일보	한·중·일 서로 '잃어버린 내 왕국'
	2008.04.11	경향신문	[코리안루트를 찾아서] (26)난산건의 비밀
	2008.04.14	세계일보	'우리나라의 삼국지' 저자 임동주, "한민족 정체성 찾고자 저술"
	2008.04.15	문화일보	'동아시아 공동체' 배타주의 벗어라
		아시아투데이	中, 베이징-백두산 직통 기차노선 신설 추진
	2008.04.16	뉴스스	간도협약 100년 재조명 학술대회
	2008.04.18	중앙일보	야후지도 '백두산은 중국땅, 두만강 큰섬은 러시아 땅'
	2008.04.20	한겨레신문	중 '시위외교' 부활
	2008.04.21	동아일보	[문화 단신] '동북아역사재단 국립민속박물관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중앙일보	北역사학술지, 中동북공정 거둬 반박
	2008.04.22	세계일보	'북간도 한인의 삶' 학술대회
	2008.04.23	조선일보	[플라자] 박찬중 광개토대제기념사업회 이사장 외
	2008.04.24	서울신문	명동학교 100년 ... 다시 본 '북간도 한인사회'
	2008.04.29	경향신문	"오만한 중화주의 ... 나치 난동 연상"
		국민일보	中 대사관 참가독려 파문 ... 서울 한복판서 성화봉송 난동에 反中감정 고조
		문화일보	부여는 한국사의 뿌리다 - 동북아역사재단 '부여사와 그 주변' 출간
		서울경제	청산리 역사 대장정 참가 대학생 모집
		오마이뉴스	'新중화주의', 어떻게 극복해야할까 -서남공정과 동북공정, 그리고 민족주의
		중앙일보	[사설] 중국인의 '성화 폭력' 과 편협한 민족주의
		중앙일보	中교민들 '반한감정 후폭풍 오나' 촉각
		한국일보	"오만한 중화주의" 反中 감정 고조
		헤럴드경제	[사설] 난동 중국인에 침묵한 한국 경찰
	2008.04.30	서울신문	中, 폭력시위 사과없이 위로만

번호	날 짜	신문명	내 용
		세계일보	거세지는 '反申감정'...저자세 외교 논란
		세계일보	"발해가 한반도 역사라는데 동의"
		조선일보	동아시아 문명 충돌
		중앙일보	中 관영매체, 성화봉송 폭력사태 자국유학생 옹호
		중앙일보	"맹목적 중국 민족주의 근원은 왜곡된 교육"
		한겨레신문	성화봉송 폭력시위 파장/ '반중 감정' 확산... "성숙한 대응 필요" 목소리
2008.05.01		경향신문	'동문취고' 일부 번역·출간
		한겨레신문	[시론] 올림픽 성화와 대국의 품위
		한겨레신문	중 관영언론 "반한감정 이어질수도"
2008.05.02		경향신문	[코리아루트를 찾아서] (29)중원에 꽃 핀 동이족의 나라
		중앙일보	[중앙시평] 중국의 빛나간 애국주의
2008.05.03		동아일보	"한중외교 중요한 시점... '성화폭력 대처' 度 지나치면 곤란"
		문화일보	[오후여담] '고마운 중국 정부'
		한국일보	[한국 시론] 성화봉송 사건의 그림자
2008.05.05		경향신문	'고구려지킴이운동본부' 본격 활동 돌입
2008.05.07		내일신문	북학술지, 중 고구려사 왜곡 '성토'
2008.05.07		울렛뉴스	[기획] 中國에 의한 역사왜곡...세계영토 및 문화질서 위협
2008.05.09		경향신문	[코리아루트를 찾아서] (30)우리 역사 빼앗은 선우·중산국
		중앙일보	한·중 관계 최대 걸림돌 → "역사 문제" 58%
2008.05.14		동아일보	웅대한 고구려와 발해 한눈에 내려다 보는데 ...
2008.05.15		한겨레신문	[창간특집 20돌] 백두산이 '창바이산' 된다 / (상)백두산인가, 창바이산인가 - 기억과 현실
2008.05.16		경향신문	[코리아루트를 찾아서] (31)'연나라 강역도'와 조선
		서울신문	'발해를 다시 본다' 개정증보판 낸 송기호 교수
		한겨레신문	[창간특집 20돌] 백두산이 '창바이산' 된다 / (하)백두산 관광 손놓고 있는 남북한
2008.05.17		CNB뉴스	[신간클리핑] 고구려는 없다
		경향신문	하늘에서 보는 "고구려와 발해史"
		노컷뉴스	'하늘에서 본 고구려와 발해'展
		프레시안	"고구려사 왜곡, 어디서 시작됐나"
		한국일보	중국 제국 2000년 지탱한 정치체제의 일생
2008.05.18		동아일보	"윤봉길 의사 의거가 中 항일투쟁 방향 제시"
2008.05.20		경향신문	2012년 高2 교과서 '동아시아史' 공개 - 독도분쟁·동북공정 심층접근
		문화일보	광개토대왕릉비 '완벽 재현'
		문화일보	[단신] 하늘서 본 고구려·발해 특별전 등

번호	날 짜	신문명	내 용
	2008.05.22	한국일보	[삶과 문화] 역사 재해석과 현재 중국의 의미
	2008.05.23	경향신문	[코리아루트를 찾아서] (32)천자를 칭한 조선
		문화일보	고구려 역사 직접 체험 하세요
		부산일보	“발해·고구려 연구자 해쳐모였네”
		한겨레신문	동아시아사 교과서 시안 발표
		한겨레신문	[한겨레프리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하여
	2008.05.24	데일리안	김진홍, 고구려역사문화보전회 이사장 취임
		중앙일보	[포토뉴스] 광개토태왕비 복제비 제막
	2008.05.25	한국일보	[李대통령 중국 방문] 申언론·전문가가 보는 정상회담
	2008.05.27	내일신문	아차산에서 고구려를 다시 만난다
		소년한국일보	[문화 광장/전시] 하늘에서 본 고구려와 발해 外
		조선일보	고구려 아차산 유적 복원 광진구·구리시 ‘공조’
		한겨레신문	구리시-광진구 ‘고구려 줄다리기’
		한국일보	“고구려박물관 우리 땅에 짓자” 경쟁
	2008.05.28	매일경제	[사설] 한·중 참된 전략적 동반자 되려면
		문화일보	[사설] 격상된 韓中관계, 실질적 성과로 이어져야
	2008.05.30	경향신문	[코리아루트를 찾아서] (33)단군신화, 계세르신화, 그리고 몽골 비사
		한국일보	[시론] 한중관계, 중요한 건 속 채우기
	2008.06.06	경향신문	[코리아루트를 찾아서] (34)단군신화, 몽골비사의 숨은 뜻
	2008.06.09	경향신문	[코리아루트를 찾아서] (35)에필로그-발해문명이 던진 메시지
		국민일보	‘내가 본 중국, …’을 펴낸 이경원군 “申 잘못된 역사 바로 잡아야죠”
	2008.06.19	동아일보	SH공사, 임대아파트 청소년들 초청 고구려유적 탐방
	2008.06.20	중앙일보	고조선 인근 고대문명 ‘중화모조’여신상 복원
	2008.06.23	중앙일보	‘이어도의 날’ 조례안 본회의에 전격 상정
	2008.06.26	CNB뉴스	[신간클리핑] 다시 발견하는 한국사
		서울신문	제주 ‘이어도의 날’ 제정 재추진
		조선일보	1월 18일을 ‘이어도의 날’로
	2008.06.27	내일신문	백두산, 이제 우리 산이 아니더라
	2008.07.01	내일신문	중국언론 “한국, 비정상 국가”
		문화일보	발해의 ‘국제성’에 주목하라 … 동북아역사재단 2·3일 ‘발해와 동아시아’ 국제학술회의
		세계일보	“발해 유적발굴 긴밀한 국제교류 필요”… 동북아역사재단, 2일부터 ‘발해와 동아시아’ 학술대회
	2008.07.02	소년한국일보	고구려인의 삶·생각 생생히 전해

번호	날 짜	신문명	내 용
	2008.07.03	서울신문	[문화마당] 국적 있는 역사교육
	2008.07.09	서울경제	[리빙 앤 조이] 음성 큰바위얼굴 조각공원
	2008.07.10	문화일보	가수 김장훈 “이제 시작…가을엔 발매 광고”
	2008.07.11	국민일보	美 뉴욕타임스에 동해·독도 광고 낸 가수 김장훈씨 “동북공정 맞불 광고도 낼 것”
		세계일보	“이제 시작일 뿐…가을엔 발매광고”
		중앙일보	김장훈 ‘반크 해외홍보대사 콘서트’ 연다
		한겨레신문	[이사람] “국제인식 바로잡는 민간외교 펼칠 것”
	2008.07.14	중앙일보	네티즌 성금 모아 ‘고구려와 발매’ 2탄 광고 준비
	2008.07.15	문화일보	“경계의 벽 허물고 공동체 이루자” 한·중·일·러 대학생들 ‘동북아 역사체험 캠프’
		문화일보	‘역사왜곡 대책’ 내놓은 정부
	2008.07.16	경향신문	동북아역사 대책없는 이정부 -교과부 ‘왜곡 대책팀’ 해체
		중앙일보	‘독도는 우리땅’ 너도나도 ‘모금’ 동참 -네티즌, 분노와 규탄서 응원과 실천으로
		중앙일보	[중앙시평] 국가 생존전략, 공론화 필요
		조선일보	교과부 ‘동북아 역사문제 대책팀’ 3월 해체
	2008.07.18	중앙일보	중국 ‘백두산 공정’ 현장 르포 <상> 올림픽을 ‘백두산 = 중국 땅’ 선전장으로
		쿠키뉴스	申항공사 ‘동해 표기 요구’ 수년째 묵살…여전히 ‘Sea of Japan’
	2008.07.21	경향신문	[정동답] 독도, 내년에 또 도발하면…
	2008.07.22	동아일보	[대구/경북] “베이징의 삶 느껴보세요…역사가 보일겁니다”
		세계일보	[차준영 칼럼] ‘기억상실’ 조장하는 나라
		중앙일보	[글로벌 아이] ‘휴화산’ 백두산에선 지금
		중앙일보	부활하는 만주의 기억 -만주 동아시아 융합의 공간’ 출간
	2008.07.24	서울신문	동북아 현대사의 블랙박스 만주
		중앙일보	申대사 ‘한·중, 日역사왜곡 용납못해’
	2008.07.25	헤럴드경제	‘독도는 우리땅’ 반크 회원 가입 쇄도
	2008.07.28	한국경제	“中日역사왜곡 치밀한데 우리 대응은 허술”
	2008.07.29	문화일보	‘동아시아 교과서’ 주제 동북아재단 학술 세미나
	2008.07.30	경향신문	‘美서 가장 강한 사나이’ 권율씨 고국에 “日 독도 거짓말 적극 알릴 것”
		경향신문	申, 독도 공식입장 ‘없음’
		내일신문	申 세계지도에 “독도는 거의 없다”
		서울신문	佛 “독도는 한국땅” …申, ‘竹島’로 거의 공식화
	2008.07.31	문화일보	申·홍콩·대만 세계지도엔 ‘독도’는 없다
		세계일보	[내고장 통신] 본지 조사위원 122명, 백두산 등정·고구려 문화 유적 답사
		서울신문	동북공정 중심에 조선족 전시관 ‘활짝’
	2008.08.01	한국재경신문	[베이징2008] 申 언론, 올림픽 앞두고 반한감정 조장

번호	날 짜	신문명	내 용
	2008.08.02	한겨레신문	“쑨원은 한국인” 루머에 낚인 중 네티즌들
	2008.08.04	중앙일보	中·홍콩언론 ‘쑨원혈통 오보’ 확인
		한겨레신문	2008베이징 올림픽 D-4/반한감정 터뜨린 SBS ‘개막식 새치기’ 중 누리꾼들 “한국선수단에 보복하자”
	2008.08.06	한겨레신문	“우리 문화 도둑질” 중국 반한감정 고조
		한국일보	4년 뒤 정규과목 되는 ‘동아시아史’ 교사연수 가봤더니
	2008.08.08	동아일보	두만강 국경
		세계일보	이어도가 중국땅이라고?
		서울신문	[씨줄날줄] 백두산 공정
		중앙일보	중국, 이어도 영유권 주장
		조선일보	북한·러시아 국경
		한겨레신문	중국, ‘이어도’ 자국영토 편입 노골화
		한겨레신문	[유레카] ‘하나의 꿈 하나의 세계’
	2009.08.09	경향신문	[여적] 이어도의 비극
		동아일보	[횡설수설] 이어도
		문화일보	[2008베이징올림픽] 한자·종이·실크로드 형상화…中 ‘소프트 파워’ 과시
		서울신문	[씨줄날줄] 이어도
		중앙일보	중국의 ‘이어도’ 관할권 시비
		한겨레신문	이어도 ‘제2의 독도’ 되나
	2008.08.10	일간스포츠	중국의 ‘백두산 공정’에 보내는 경고
	2008.08.12	경향신문	[지자체소식] 순천 청소년 67명 18일 백두산 간다
		경향신문	[올림픽 라운지] 걱정되는 관중석의 반한감정
		동아일보	[성낙인의 법과 사회] 올림픽에 가려진 ‘동북공정’
	2008.08.13	동아일보	[기자의 눈] 한국 善戰에 야유하는 中 누리꾼
		조선일보	‘동아시아 역사아카데미’ 여는 서울역사박물관
	2008.08.14	세계일보	[외국에서 보니] 평화제전 여는 中 뒤로는 동북공정 폄수
		세계일보	[통일논단] 中 선양에서 바라본 남북관계
		조선일보	[태평로] 중국 인터넷에서 ‘역사 좀도둑’된 한국
	2008.08.15	경향신문	[중국&올림픽] 百花齊放- 중국을 보는 시선
		국민일보	[여의도 포럼] 박철 / 중국이 ‘큰 나라’ 되려면
		동아일보	[베이징올림픽] 中 인터넷 ‘날조기사’ 혐한증 부추겨
		조선일보	중(中) ‘이어도 영유권’ 삭제했다 원상복구
	2008.08.16	경향신문	中, 이어도 자국영토 주장 철회 후진타오 방한 앞두고 외교분쟁 비화 우려
		국민일보	“中역사 알아야 동북공정 맞서죠”

번호	날 짜	신문명	내 용
		동아일보	[사설] 中國의 '이어도 장난' 올림픽 개최국답지 않다
		동아일보	외교부 “中 인터넷 협한기사 바로잡아라”
2008.08.18		중앙일보	신정승 대사 ‘쑨원은 한국인 아니다’
2008.08.19		국민일보	비바람 뚫고 민족의 영산 올라
		동아일보	“中인터넷 협한 유발기사는 날조”신정승 주중대사, 中학생 특강서 해명
		문화일보	“홍산문화는 우리 것” 韓·中 공방 3라운드
		조선일보	[학술소식] 홍산문화 한·중 국제학술회의
		조선일보	[독자 칼럼] 독도와 이어도의 운명
		올댓뉴스	만리장성이 증거하는 동북공정의 오류
		한국일보	한중 정상회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구체화 논의
2008.08.20		매일경제	독도와 이어도, 역사교육
		문화일보	[2008 베이징올림픽] 아유·조소·무시… 중국 ‘反韓기류’ 심상찮다
		세계일보	[세계타워] 중국, 제국 아닌 대국이 되라
2008.08.21		동아일보	[특파원 칼럼] 도 넘은 嫌韓, 한중우호 해칠라
		매일경제	중국인 반한 감정 위험수위…왜?
		서울경제	[데스크 칼럼] 중화주의와 협한바람
		서울신문	대학생 역사체험 발표대회 준비 김용덕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 / “자국 중심 역사관 벗는 계기 될 것”
		중앙일보	중국내 반한기류 원인이 ‘교류증가’(?)
		한국일보	[사설] 중국의 ‘반한 기류’ 비난만 할 게 아니다
2008.08.22		한국경제	[천자칼럼] 한류의 위기
		동아일보	우리 영토 ‘간도’에도 관심을
		아시아투데이	“中 동북공정은 日 식민사관과 같아”
		아시아투데이	영토분쟁 복선…화해 공간 찾기 어려워
		노컷뉴스	아시아 평화를 위한 동북아 대학생 역사체험 발표대회
2008.08.23		세계일보	[시론] ‘중의학 공정’은 중국의 억지
		조선일보	[오피니언] 다시 따져야 할 이어도와 중국 섬 거리
		한국일보	도 넘은 중국 反韓정서
2008.08.25		경향신문	심각한 중국내 반한 감정
		문화일보	[올림픽 이후 ‘한국 그리고 중국’] (1) 한국 ‘스포츠 克日’ 굳히기-중국 ‘슈퍼파워’ 과시
		세계일보	[시론] 中과 협력, 외연을 넓히자
		세계일보	올림픽 이후 중국 어디로/(상)꿈틀대는 중화주의
		서울경제	[기자의 눈] 반한(反韓)감정 체계적 대응해야
		서울경제	[사설] 중국의 위상 드높인 베이징 올림픽

번호	날 짜	신문명	내 용
		서울신문	감동의 2008 베이징 축제/(상) 17일간 보여준 중국의 저력
		서울신문	[사설] 전략적 관계 구체화하는 한중 정상회담을
		중앙일보	중국 네티즌들, 야구 한·일전 보며 “일본 이겨라”
		조선일보	[아침논단] 한국 상대편을 응원하는 중국의 심리
		한국경제	[사설] 한·중 정상회담은 합의 실천되려면
2008.08.26		경향신문	폐막 공연 ‘비’ 허리 다치고 눈총 받고…“리허설 끝난뒤 의자에 앉다‘삐끗
		경향신문	[한·중 정상회담] ‘협한 감정’ 고려 극진 예우
		데일리안	우리 영토 백두산 지킨 김지남 묘, 고양시에서 확인돼
		동아일보	[사설] 韓中, 전방위 협력관계 위해 신뢰부터 쌓아야
		문화일보	“칭기즈칸이 중국인 주장 중국학계 역사 왜곡 심각”
		브레이크뉴스	중국, 어디까지 북한을 두둔하는 것인가?
		세계일보	고구려 역사의 현장, 中 지린성 지안을 가다
		세계일보	“中에 일본해 표기 부당성 지적할 것”
		중앙일보	中 언론 ‘韓中 갈등 해답 찾아야’
		중앙일보	中 동북공정에 맞불…한·몽 역사교류 훈풍
		중앙일보	[시론] 중국 내 반한 감정 위험수위다
		한국경제	[한·중 정상회담]李大統領의 스킨십 외교
		한국일보	3차 한중정상회담 / 양국 국민 감정 끝 좁히기 정부차원에서 팔 걷어
		한겨레신문	중국의 반한감정 / ‘반한감정’ 중 정부, 목인?
2008.08.27		경향신문	中서 ‘한국형 압각화’ 발견
		세계일보	“협한정서 해소 갈등 풀어야”
		서울신문	[시론] 한·중 문화주권 갈등 어떻게 풀까
		조선일보	[독자 편지] 우리 스스로 ‘협한증’ 만들었을 수도 있다
		조선일보	[독자 편지] 협한증 가진 중국인 많아…이유 무엇이든 대책 있어야
		조선일보	한국역사 지킴이로 앞장
		한겨레신문	중국의 반한감정 / 인터넷에 떠도는 유학생 경험담“가게주인, 일본손님엔 웃고 중국인엔 협한 표정”
		한겨레신문	중국의 반한감정 / 중국 유학생들이 본 한국-한국인, 중국인 배척하고 무시…동경심이 실망으로
		한겨레신문	중국의 반한감정 / 중 “단오 뺏겼다” 반감 폭발…협한-지한 갈림길
		한겨레신문	중국의 반한감정 / 전문가들이 말하는 대안은-의사소통 길 찾아야
2008.08.28		경향신문	욕망에 눈 먼 ‘평화의 제전’ - ‘환희의 올림픽’ 그 허구와 진실
2008.08.29		노컷뉴스	상생의 미래를 여는 주춧돌[아시아 평화를 위한 동북아 대학생 역사체험 발표대회]
		데일리안	선진화전략과 자유주의적 민족주의

번호	날 짜	신문명	내 용
		문화일보	[올림픽 이후 '한국 그리고 중국] 중국, 反韓·嫌韓 부상 양국 모두에 마이너스
		서울신문	동북아 대학생 역사체험대회
		중앙일보	中 반한감정, 과장된 측면 크다 -'한국을 당연히 추종해야' 의식도 문제
		한겨레신문	[사설] 한-중, 혐한론을 넘어 상호존중의 시대로 가야
2008.09.01		조선일보	[기고] 혐한증, 중국만 비난할 수 없다
		중앙일보	네티즌 오해 풀 공간 시급... 한·중 자동번역 사이트도 대안
		중앙일보	지진 악담에 리허설 사전 보도... "또 한인이" 뜬소문까지
		한국일보	[특과원 칼럼] 7년 전 중국과 미국, 그리고 한국
2008.09.01		노컷뉴스	"We are Friend" 동북아... 체험발표대회 막내려
2008.09.02		문화일보	역사갈등 넘어 화해로 탈경계 인문학의 공유
		서울신문	'동북아대학생 역사체험' 폐막
		서울신문	中 도넘는 역사왜곡과 대책
		중앙일보	[사설] 인터넷에서 격해지는 반한·반중 감정
		서울신문	[길섶에서] 오해와 진실
		서울신문	[팩스 시니카 시대로-중국의 비상] (4) 한·중 바람직한 미래는
		중앙일보	[인터뷰] 왕위안저우 베이징대 교수 - '사실관계에 기반해 역사 논의해야'
		중앙일보	중 역사학자 인식 여전히 '평행선'
		한겨레신문	"한국인 '협중'의 뿌리는 조선 후기 소중화(小中華) 의식" / 왕위안저우 베이징대 교수
		한국일보	反中감정·嫌韓정서 역사속에서 해법 찾기
		한국일보	[삶과 문화] 한국 혐오(?)한다는 중국
2008.09.05		서울경제	[시론] '중화문명탐원공정' 대응책을
2008.09.06		한겨레신문	책과 생각-어린이/마주보는 한국사 교실I-우리 역사의 새벽이 열린다 : 세계사와 연결해 배우는 우리 역사
2008.09.08		동아일보	"제대로 된 역사교재는 나라의 경계 벗어나야"
		서울신문	[팩스 시니카 시대로-중국의 비상] (6)전문가 좌담
		중앙일보	[월요 인터뷰] "중국 주류층까진 반한 감정 안 번져 ... '겉따마다'로 빨리 풀어야"
		중앙일보	한총리 '韓中 지도자 신뢰 구축' 강조
		한겨레신문	"중국 반한감정, 반일 이은 새 유행" / '바링허우' 대표작가 한한 인터뷰
2008.09.09		서울신문	[서울광장] 몽골과의 국가연합?
		서울신문	"자국 중심의 역사교육서 벗어나야"
		세계일보	동북아역사재단·베이징대 학술대회서 이견 팽팽
2008.09.10		동아일보	[광화문에서] 캅카스와 동북아시아
2008.09.12		헤럴드경제	中華, 문화공정... 중국영화가 무섭다
2008.09.17		중앙일보	이승휴의 제왕운기 다시보기

번호	날 짜	신문명	내 용
	2008.09.18	내일신문	반크, 한국역사 알리기 나서
	2008.09.19	경향신문	“독도문제는 제국주의 침략 잔재 국제사회 설득해야”
		국민일보	“국내 외국인부터 친한파 만들겠다”
	2008.09.20	경향신문	“동북공정 등 中의 역사왜곡 기도 베트남·몽골 등과 공동 대응해야”
		세계일보	“中 ‘동북공정’ 대처위해 남북 학자교류 강화 절실”
	2008.09.22	중앙일보	[검따마다] 인민일보도 “반한감정 풀자” 동참
		중앙일보	“쓰촨에 겨울옷 보내자” 한인 유학생들 팔 걷어
	2008.09.23	국민일보	“동북공정·독도 침탈 대응위해 남북 학자간 교류 강화할 것”
		문화일보	잊어진 땅… “변경의 삶”을 돌아본다
		세계일보	‘독도 영유권 공고화’ 공감대 넓혔다
		중앙일보	“한글 알면 한국도 좋아하게 됩니다”
	2008.09.24	국민일보	한·중 반감의 원인과 해법 / 동북공정·지재권 문제 등 제기-“편협한 민족주의 벗어나야”
		한겨레신문	아시아여성포럼 오늘 개최
	2008.09.25	조선일보	중(中)서 ‘왜 한국 싫어하나’ 물으니 “중(中)문화 부정하고 중(中)상품 알봐”
		한겨레신문	간도 등 “변경민의 삶” 국제토론
	2008.09.29	중앙일보	[역시(歷試)] 한인 뿌리찾기 ‘역사 문화축제’로
	2008.09.30	문화일보	왜곡·갈등 넘어 “소통의 길” 찾는다
		세계일보	KTF-한국인 자부심 갖기 ‘썬크 코리아’
		세계일보	백두산 안내판에 한글 삭제 中 “한국색 없애기” 가속화
		세계일보	한·중·일 역사갈등 DVD 배포
	2008.10.01	중앙일보	[내생각은...] ‘검따마다’로 한·중 감정 악화 막아야
		중앙일보	[인터뷰] 선정규 ‘아시아오픈포럼’ 운영위원장 -‘소통부재의 ‘한류’는 곤란하다’
		한겨레신문	“한·중·일·미·대만” 등 5국 역사교과서 비교한다
	2008.10.02	경향신문	[유인경 선임기자의 환기통] 개천절에 역사공원 개원하는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 이승현 총장
		서울신문	동북아 역사갈등 평화적 해법 모색
	2008.10.06	테일리안	나경원 “참여정부 의도적 동북공정 공식대응안해”
	2008.10.07	문화일보	“21개국 시민단체 뭉쳐 東亞역사 화해 모색”
		서울신문	고구려의 말발굽 아차산에 올린다
		서울신문	[열린세상] 내 마음 속의 차별
	2008.10.08	노컷뉴스	“동아시아 역사화해를 위한 세계시민사회의 역할”
		중앙일보	[인터뷰] 박원철 역사 NGO세계대회 조직위원장
		중앙일보	장나라 ‘협한류 안타깝다…한중미래 밝다’

번호	날 짜	신문명	내 용
	2008.10.09	문화일보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국감스타 - 민주당 박주선 의원
		서울신문	“역사갈등 해결의 열쇠는 대화”
		한국일보	제2회 역사 NGO대회 서울서 개막 “꼬이고 얽힌 동아시아 갈등 풀자”
	2008.10.10	아시아투데이	“발해사 포기땀 고구려까지 중국사에 편입”
		아시아투데이	발해사 역사해석 - 中은 당나라의 일부로, 러는 말갈족 국가로 규정
	2008.10.13	경향신문	[시론] 정치에 휘둘리는 역사교육
		중앙일보	[국감 리포트] “한국에 대한 중국 내 반감 확산 … 대책 세워야”
	2008.10.14	문화일보	“韓·中·日 역사 갈등, NGO가 풀어야”
		세계일보	“홍산문화의 주역은 동이족이었다”
	2008.10.16	중앙일보	중국인의 혐한감정 ‘반크’가 바로잡는다
	2008.10.20	매일경제	하얼빈의거 99주년 국제학술대회서 재조명
	2008.10.21	세계일보	청용화 신임 중국대사 “문화교류 강화로 反韓·反中감정 해소”
		중앙일보	김좌진 순국 中하이린 한국행 취업사기로 ‘쑥대밭’
	2008.10.22	국민일보	‘대륙 시리즈’ 아세요?...중국인 풍자 넘어 혐중 감정까지 담아
		아시아투데이	〈9〉 포스트 동북공정 - 중국, 고구려사 귀속 논쟁 이미 끝나...관광자원화로 중국화 가속
		프라이미경제	“역사 바로 알리기 민족 미래와 직결”
	2008.10.24	조선일보	[동아시아 칼럼] 중국에 ‘혐한(嫌韓) 감정’은 없다
		한국경제	“혐한감정 담긴 인터넷 정보 단속”
	2008.10.30	헤럴드경제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 역사 왜곡사태 알린다

● 잡지

번호	날 짜	잡지명	내 용
	2008.01.03	한겨레21	[칼럼] 고구려와 중국은 철천지 원수였나
	2008.01.07	주간동아	영토 분쟁? 북한 경제 장악 노린다
	2008.01.09	신동아	남북한, 러시아 학자들의 ‘동북아 고대국가의 역사’ 국제학술대회
	2008.01.16	주간동아	두만강엔 한숨과 눈물도 하얗게 얼었다
	2008.02.13	한경비즈니스	군자는 하늘의 자손
	2008.02.19	뉴스메이커	[역사] 토문강 국경 울타리 60년 전에도 있었다
		뉴스메이커	[간도오딧세이] 조선의 국경은 압록강이 아니었다
	2008.02.26	뉴스메이커	[간도오딧세이] 서양 고지도에는 간도가 우리땅
	2008.03.11	뉴스메이커	[간도오딧세이] 국경선은 달라도 ‘조선 품 안에 간도’
	2008.03.12	주간동아	낙후된 지린성 경제개발 불도저 지휘
	2008.03.18	뉴스메이커	[간도오딧세이] 무인지대는 누구의 땅인가?

번호	날 짜	잡지명	내 용
	2008.03.25	뉴스메이커	[간도오딧세이] 간도는 청의 통치영역이 아니었다
	2008.04.01	뉴스메이커	[간도오딧세이] 김정호의 대동여지도가 틀렸다
	2008.04.03	한겨레21	[칼럼] 신라는 발해를 동쪽으로 생각했나
	2008.04.08	뉴스메이커	[간도오딧세이] 다시 보자! 백두산 고지도
	2008.04.15	뉴스메이커	[간도오딧세이] 백성들 마음속에 흐르는 '분계강'
	2008.04.22	뉴스메이커	[간도오딧세이] 두만강이 토문강이 될 수는 없다
	2008.04.25	신동아	고조선 심장부를 가다
	2008.05.06	뉴스메이커	[간도오딧세이] 위성사진이 진실을 보여준다
	2008.05.13	뉴스메이커	[간도오딧세이] 백두산 정계비 위치는 장군봉 옛 주차장
	2008.05.20	뉴스메이커	[간도오딧세이] 국경 표시 돌무더기 흔적을 찾아라
	2008.05.21	주간동아	동북공정 바이러스 급속 확산
	2008.05.27	뉴스메이커	[간도오딧세이] 박경리 선생이 그리워한 '의인 이중하'
	2008.06.03	뉴스메이커	[간도오딧세이] 압록강~두만강 국경선 선조들 피와 땀으로 이룩
	2008.06.10	뉴스메이커	[간도오딧세이] "역사와 영토는 타협할 사안이 아니다"
	2008.06.17	뉴스메이커	[간도오딧세이] "간도협약은 무효" 이제는 말해야 한다
	2008.06.24	뉴스메이커	[간도오딧세이] 백두산을 잇는 순간, 장백산이 된다
	2008.07.01	뉴스메이커	[간도오딧세이] 조선족 간도 정착이 불법 이주였다고?
	2008.07.04	주간동아	마침내 우표로 환생한 '단군왕검'
	2008.07.08	뉴스메이커	[간도오딧세이] 지혜로운 외교관 김지남·김경문 부자
	2008.07.15	뉴스메이커	[간도오딧세이] '한문의 벽' 을 넘는 반가운 국역 작업
	2008.07.22	뉴스메이커	[간도오딧세이] 간도관리사 이범윤 독립운동에 투신
	2008.07.29	뉴스메이커	[간도오딧세이] 독도를 위해 간도를 포기하자고?
		시사저널	"독도보다 동북공정이 더 심각"
	2008.08.05	뉴스메이커	[간도오딧세이] 사이버 외교사절단의 '간도 진실 찾기'
	2008.08.12	뉴스메이커	[간도오딧세이] '백두산 천지는 중국 땅' 지오넛의 오류
	2008.08.13	매경이코노미	[윤영결칼럼] 독도보다 더 급한 것
	2008.08.19	뉴스메이커	[간도오딧세이] '사이섬 간도' 두만강에 존재
	2008.08.26	뉴스메이커	[간도오딧세이] 조선시대 병력 파견 '녹둔도 지키기'
	2008.09.02	뉴스메이커	[간도오딧세이] 9월 4일은 '간도의 날'
	2008.09.09	뉴스메이커	[간도오딧세이] 일본 법학자가 쓴 "간도는 조선 땅"
	2008.09.23	뉴스메이커	[간도오딧세이] 세종은 '선춘령'을 찾지 못했던 것일까
	2008.09.25	신동아	홍산문명 VS 황하문명 4000년 전쟁
	2008.09.30	뉴스메이커	[간도오딧세이] "공험진 위치는 두만강 이북 700리"

번호	날 짜	잡지명	내 용
	2008.10.07	뉴스메이커	[간도오딧세이] 시인 윤동주는 고국에 묻힌 것일까?
	2008.10.14	뉴스메이커	[간도오딧세이] 간도를 잃으면 백두산도 잃는다
	2008.10.21	뉴스메이커	[간도오딧세이] “두만강과 압록강” 국경 인식을 깨자
	2008.10.28	뉴스메이커	[간도오딧세이] 백두산 영유권 이제는 말할 때다

◎ 방송

번호	방송일	방송사	내 용
	2008.01.18	연합뉴스	동북아역사재단, 7대 역사 현안 동영상 제작
	2008.01.31	연합뉴스	중앙아시아로 뻗은 고구려 기상을 찾아
		연합뉴스	아프라시아 변화 속 고구려 사절
	2008.02.14	연합뉴스	국가지도집 발간… ‘영토·경제·사회현황 등 한 눈에’
	2008.02.26	연합뉴스	北, 中동북공정 강력 비판
	2008.03.10	연합뉴스	北 인터넷사이트 ‘백두산 홍보 특집코너’ 개설
	2008.03.26	연합뉴스	‘고려사’·‘발해사’ 10년만에 개정판
	2008.04.02	뉴시스	간도협약 첫 체계적 연구…성과 관심
		연합뉴스	[동정] 김용덕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신간] ‘백두산에 묻힌 발해를 찾아서’
	2008.04.06	연합뉴스	武→文→富→商의 발해역사
	2008.04.15	뉴시스	中, 연변에 ‘창바이산 역사 문화원’ 조성…‘장백공정’ 노골화
	2008.04.16	뉴시스	간도협약 100년 재조명 학술대회
		연합뉴스	조선 외교문서 ‘동문휘고’ 일부 번역
	2008.04.17	연합뉴스	中, 티베트 사태로 민족주의 부활
	2008.04.18	연합뉴스	[학술소식]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세미나
	2008.04.21	연합뉴스	北역사학술지, 中동북공정 거둬 반박
		연합뉴스	“간도는 조선땅”… 청주불교방송 고지도전시회
	2008.04.22	연합뉴스	[독립기념관] 명동학교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북간도 한인의 삶과 애환, 그리고 문화’
	2008.04.23	연합뉴스	윤동주·나운규의 모교 명동학교
	2008.04.29	연합뉴스	대학생 청산리 대장정 7월 출정
	2008.05.13	연합뉴스	[학술소식] 동북아역사재단과 고려대 공동 학술대회 개최 외
		연합뉴스	[하늘에서 본 고구려와 발해] 서울대박물관·동북아역사재단 특별전
	2008.05.17	MBC	문화계시판 <하늘에서 본 고구려와 발해>
	2008.05.19	연합뉴스	‘동아시아사’ 교과서 무엇이 담기나

번호	방송일	방송사	내 용
	2008.05.21	연합뉴스	‘고구려발해학회’ 창립 학술대회
	2008.05.27	뉴스스	[커버스토리-중국 초강국 야망 어디로] “언어·문화·역사로 세계 잡아라”
	2008.05.30	연합뉴스	백두산가는 길… 달라진 풍경
	2008.06.16	연합뉴스	17~18일 베이징서 한중미래포럼
	2008.06.17	연합뉴스	한중미래포럼, 양국관계 발전방안 논의
	2008.06.23	연합뉴스	동북공정에 입각한 만주고대사
	2008.06.24	연합뉴스	中, 백두산지역서 고대 대형제단 대거 발굴
	2008.06.25	뉴스스	中 언론, “한국 네티즌, 역사 문제에 민감”
		연합뉴스	발해와 동아시아 국제학술회의
		연합뉴스	내달 中 동북3성서 한중청소년문화제
	2008.07.18	SBS	김장훈·반크 “한국홍보전사 300명 모집합니다”
	2008.07.30	연합뉴스	中 세계지도에 “독도는 거의 없다”
	2008.07.31	연합뉴스	[신간] ‘동북공정과 한국의 대응 논리’
	2008.08.12	연합뉴스	서울역사박물관, ‘제4기 직장인을 위한 역사아카데미’ 운영
	2008.08.26	YTN	비 올림픽 폐막식 참가 논란, 이유는?
		연합뉴스	“이해 넓히자” 동북아대학생 역사체험대회
		연합뉴스	中 동북공정에 맞불… 한·몽 역사교류 혼풍
	2008.08.28	연합뉴스	“역사 갈등을 넘어 화해로”
		연합뉴스	“아시아 평화 위해 모였습니다”
	2008.09.02	연합뉴스	동북공정을 보는 中 주류학계의 시선
		연합뉴스	“역사는 타자를 바라보는 창”
	2008.09.04	연합뉴스	韓-中 국제학술대회 4-5일 동북아재단서
		연합뉴스	한-중 역사학자 인식 여전히 ‘평행선’
	2008.09.07	연합뉴스	KTF, 고구려 역사유적 우리 손으로 지키다
	2008.09.11	MBC	중국 내 반한 감정 대책
	2008.09.14	연합뉴스	근대 변경은 어떻게 형성됐나
	2008.09.19	연합뉴스	[인터뷰] 동북아역사재단 김용덕 이사장
	2008.09.25	YTN	“‘험한감정’ 일시적 현상 가능성”
		연합뉴스	“고구려 유적지, 우리 손으로 지켜요!”
	2008.09.28	연합뉴스	동북아 역사갈등의 현주소는?
	2008.09.30	연합뉴스	동북아 평화 모색하는 역사NGO 대회
	2008.10.08	뉴스스	해외 역사 NGO활동가 대거 방한
	2008.10.16	YTN	“러시아 연해주 최북단까지 발해 영토”
	2008.10.24	연합뉴스	“고구려 유적, 청소년의 힘으로 지켜요”

번호	방송일	방송사	내 용
		연합뉴스	'독립군 中동북지역 대첩' 88주년 기념식 거행
	2008.10.28	연합뉴스	중국 소수민족사의 허구성을 밝히다



## 2008년판 한·중 역사 관련 연구편람집

초판 제1쇄 인쇄 2009년 3월 19일

초판 제1쇄 발행 2009년 3월 26일

편 집 동북아역사재단

펴낸이 김용덕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 록 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 소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77 임광빌딩

전 화 02-2012-6065

팩 스 02-2012-6187

e-mail book@historyfoundation.or.kr

© 동북아역사재단, 2009

ISBN 978-89-6187-097-9-93910

비매품

\*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